

열하일기2

박지원 저 | 이가원 역 신흥 강국 청(淸)의 문물을 답사하여 소개한 기행문이자, 18세기 조선 최고의 문재작, 연암의 파격적 문체와 이용후생(利用厚生) 학풍의 날카로운 관찰이 빛난다.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두루 다루면서도 리듬감과 재미를 놓치지 않았고, 《호질(虎叱)》《허생전(許生傳)》 등 문학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았던 연암의 시선을 원로 한문학자 이가원 선생의 번역으로 만나보자.



열하일기2

*본 문서에 대한 저작권은 사단법인 올जे에 있으며, 이 문서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2 Olje All Rights Reserved

올재의 꿈

올재는 지혜 나눔을 위해 201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예술과 문화 속에 담긴 지식과 교양을 널리 소개하고 향유함으로써, 격변하는 세상의 지향점을 찾고, 올바르게 창의적인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올재의 꿈입니다. 특히 올재는 인문고전이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소외계층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혜 나눔의 계기와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은 인문고전입니다. <올재 클래식스>는 최고 수준의 번역본을 부담 없는 가격에 보급합니다. 각 종당 5천 원을 발행하며 4천 원은 교보문고에서 6개월 간 한정 판매합니다. 미판매된 도서와 발행 부수의 20%는 복지시설, 군부대, 저소득층 등에 무료 기증합니다. 출간한 번역본은 일정 기간 후 올재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에 게시합니다.

Share the wisdom. Change the world.



올재의 벗

〈올재 클래식스〉《열하일기2》의 발행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상당액은 〈올재 클래식스〉의 지혜 나눔 취지에 적극 공감한 삼성의 도움으로 마련됐습니다. 국내 최대의 서점 교보문고는 〈올재 클래식스〉의 유통 지원에 도움을 주셨고 코리아헤럴드와 헤럴드경제를 발행하는 (주)헤럴드는 출판인쇄와 교열을 도와주셨습니다. 표지 제호를 재능 기부해 주신 강병인캘리그래피연구소 술통 대표 강병인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귀한 번역본을 남겨주신 고 이기원 선생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선친의 글을 올재에서 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이동할 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올재 클래식스〉 출간이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 나눔으로 뜨겁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올재의 첫 번째 지혜 나눔 〈올재 클래식스〉 출간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신 벗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정기 후원과 일반 후원으로 올재의 지혜 나눔에 참여하세요.
올재의 벗들이 심은 작은 흙씨가 전국 곳곳에 인문고전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올재 후원함 | 예금주 사단법인 올재

국민은행 023501-04-184681

신한은행 100-027-966986

우리은행 1005-401-996902

하나은행 162-910013-46904

농협 301-0100-8607-71

후원 문의처 | 올재 사무국

☎ 02/720-8278 ① www.olje.or.kr © oljeclassics@olje.or.kr

📷 @oljeclassics 📘 www.facebook.com/oljeclassics

지혜 나눔을 함께 한 벗들



일러두기

이 책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엮었다.

- 1 이 책은, 〈열하일기 해제〉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연암의 ‘수사본’ 또는 ‘수택본’을 근거로 하고,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을 국역 대본으로 하여, 오랫동안 연암을 연구해 온 이가원(李家源) 선생이 역주(譯註)한 것이다.
- 2 번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직역만으로는 원저자의 뜻을 잘 나타내지 못할 경우에는 의역(意譯)을 하였다.
- 3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4 원문 전체를 번역문 다음에 실었다.
- 5 한자(漢字)는 인물, 기타 고유명사를 비롯해 넣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넣었다.
- 6 주석은 사전에 나올 만한 것은 달지 않았고, 주석을 달 경우도 간단한 주석은 본문 속에 간주(間註)로 넣고, 그렇지 않는 것은 각주(脚註)로 넣었다.
- 7 인명(人名)에 있어서는 성(姓)과 이름(名)을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름이 두 가지 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통설에 따르기로 하였다.
- 8 외국의 인(人)·지명(地名)은 원음(原音)을 알 수 있는 것은 원음으로 표기하였으나, 원음을 알 수 없는 것은 한자음으로 표기하였다.
- 9 본문에 나오는 괄호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다.
 - ① ()……음이 같은 한자(漢字)를 묶은 것.
 - ② []……음이 같지 않으나 뜻이 같은 한자를 묶은 것.
 - ③ “ ”……대화체(對話體)·인용문(引用文)을 묶은 것.
 - ④ ‘ ’……대화체·인용문에서 재인용을 묶은 것.
 - ⑤ []……《열하일기》원주(原註)

차례

열하일기2

알려두기	5
흑정필담 鶴汀筆談	16
흑정필담 서 鶴汀筆談序	17
흑정필담 鶴汀筆談	18
찰십륜포 札什倫布	91
찰십륜포 札什倫布	92
중존평어 仲存評語	98
반선시말 班禪始末	99
반선시말 班禪始末	100
반선시말후지 班禪始末後識	110
중존평어 仲存評語	112
황교문답 黃敎問答	113
황교문답서 黃敎問答序	114
황교문답 黃敎問答	117
황교문답후지 黃敎問答後識	150
중존평어 仲存評語	153
피서록 避暑錄	155
피서록 서 避暑錄序	156
피서록 避暑錄	158
주곤전소지 朱昆田小識	224
피서록보 避暑錄補	227
양매시화 楊梅詩話	234
양매시화서 楊梅詩話序	235
양매시화 楊梅詩話	237

동란섭필 銅蘭涉筆	238
동란섭필서 銅蘭涉筆序	239
동란섭필 銅蘭涉筆	240
옥갑야화 玉匣夜話	294
옥갑야화 玉匣夜話	295
허생후지 許生後識 I	317
허생후지 許生後識 II	321
차수평어 次修評語	324
행재잡록 行在雜錄	325
행재잡록 서 行在雜錄序	326
행재잡록 行在雜錄	329
반선사후지 班禪事後識	332
동불사후지 銅佛事後識	333
행재잡록후지 行在雜錄後識	337
중존평어 仲存評語	340
금료소초 金蓼小抄	341
금료소초서 金蓼小抄序	342
금료소초 金蓼小抄	344
환희기 幻戲記	355
환희기서 幻戲記序	356
환희기 幻戲記	358
환희기후지 幻戲記後識	368
산장잡기 山莊雜記	372
야출고북구기 夜出古北口記	373
야출고북구기후지 夜出古北口記後識	375
일야구도하기 一夜九渡河記	376
만국진공기 萬國進貢記	378
만국진공기후지 萬國進貢記後識	380
상기 象記	382
승귀선인행우기 乘龜仙人行雨記	385
만년춘등기 萬年春燈記	386
매화포기 梅花砲記	387
납취조기 蠟嘴鳥記	388

희본명목기 戲本名目記	389
구외이문 口外異聞	392
반양 盤羊	393
채요 彩鶴 · 호접 蝴蝶	393
고려주 高麗珠	393
송정상신 崇禎相臣	394
이상아 伊桑阿 · 서혁덕 舒赫德	395
왕진묘 王振墓	395
조조수장 曹操水葬	396
위충현 魏忠賢	396
양귀비사 楊貴妃祠	398
초사 樵史	398
주각해 麀角解	399
하란록 荷蘭鹿	400
사답 砒答	401
입정승 入定僧	402
등즙교석 藤汁膠石	403
조라치 照羅赤	403
만어 蠻語	404
여음리 麗音離 · 동두등절 東頭登切	404
병오 · 을묘년 원조의 일식[丙午乙卯元朝日食]	405
고아마홍 古兒馬紅	408
동의보감 東醫寶鑑	408
심의 深衣	412
나약국서 羅約國書	413
불서 佛書	416
합밀왕 哈密王	419
서화담집 徐花潭集	421
장흥루판 長興鏤板	421
주한 周翰 · 주앙 朱昂	422
무열하 武列河	424
옹노후 雍奴侯	426
사 𩇐	427
순제묘 順濟廟	427
해인사 海印寺	428
사월팔일방등 四月八日放燈	428
오현비파 五絃琵琶	428

사자 獅子	429
강선루 降仙樓	430
이영현 李榮賢	431
신라호 新羅戶	433
에호 艾虎	434
자규 子規	435
경수사대장경비락 慶壽寺大藏經碑略	436
황량대 謊糧臺	437
호원이학지성 胡元理學之盛	438
배형 拜荊	439
환향하 還鄉河	440
계원필경 桂苑筆耕	440
천불사 千佛寺	441
 황도기략 黃圖紀略	 442
황성구문 皇城九門	443
서관 西館	445
금오교 金鰲橋	445
경화도 瓊華島	446
토원산 兎園山	446
만수산 萬壽山	447
태화전 太和殿	448
체인각 體仁閣	450
문화전 文華殿	451
문연각 文淵閣	451
무영전 武英殿	452
경천주 擎天柱	453
어구 御殿	453
오문 午門	455
묘사 廟社	455
전성문 前星門	456
오봉루 五鳳樓	457
천단 天壇	459
천주당 天主堂	460
양화 洋畫	463
상방 象房	465
황금대 黃金臺	467
황금대기 黃金臺記	468

옹화궁 雍和宮	471
대광명전 大光明殿	472
구방 狗房	473
공작포 孔雀圃	474
오룡정 五龍亭	475
구룡벽 九龍壁	476
태액지 太液池	476
자광각 紫光閣	477
만불루 萬佛樓	478
극락세계 極樂世界	478
영대 瀛臺	479
남해자 南海子	479
회자관 回子館	480
유리창 琉璃廠	480
재조포 綵鳥舖	481
알성퇴술 謁聖退述	483
순천부학 順天府學	484
태학 太學	485
학사 學舍	487
역대비 歷代碑	489
명조진사제명비 明朝進士題名碑	490
석고 石鼓	491
문승상사 文丞相祠	492
관상대 觀象臺	493
시원 試院	494
조선관 朝鮮館	495
양엽기 盛葉記	497
양엽기 서 盛葉記序	498
홍인사 弘仁寺	499
보국사 報國寺	500
천녕사 天寧寺	501
백운관 白雲觀	503
법장사 法藏寺	503
태양궁 太陽宮	504
안국사 安國寺	505
약왕묘 藥王廟	505

천경사 天慶寺	506
두로궁 斗姥宮	507
용복사 隆福寺	508
석조사 夕照寺	509
관제묘 關帝廟	510
명인사 明因寺	510
대룡선호국사 大隆善護國寺	511
화신묘 火神廟	512
북약왕묘 北藥王廟	512
송복사 崇福寺	512
진각사 眞覺寺	513
이마두총 利瑪竇塚	514



차례

열하일기1

《열하일기 熱河日記》 해제 解題 5

일러두기 14

열하일기 서 熱河日記序 26

도강록 渡江錄 30

 도강록 서 渡江錄序 31

 6월 24일 신미 辛未 32

 25일 임신 壬申 45

 26일 계유 癸酉 46

 27일 갑술 甲戌 48

 28일 을해 乙亥 62

 29일 병자 丙子 77

 7월 1일 정축 丁丑 78

 2일 무인 戊寅 80

 3일 기묘 己卯 85

 4일 경진 庚辰 93

 5일 신사 辛巳 93

 6일 임오 壬午 96

 7일 계미 癸未 98

 8일 갑신 甲申 100

 구요동기 舊遼東記 102

 관제묘기 關帝廟記 106

 요동백탑기 遼東白塔記 108

 광우사기 廣祐寺記 109

 9일 을유 乙酉 112

성경잡지 盛京雜識 114

 성경잡지 盛京雜識 115

 4년 경자 庚子 가을 7월 10일 병술 丙戌 115

11일 정해 丁亥	127
속재필담 栗齋筆談	128
상루필담 商樓筆談	144
12일 무자 戊子	159
고동록 古董錄	161
13일 기축 己丑	165
14일 경인 庚寅	170
성경가람기 盛京伽藍記	179
산천기략 山川記略	181
일신수필 駢汎隨筆	183
일신수필 서 駢汎隨筆序	184
가을 7월 15일 신묘	186
북진묘기 北鎮廟記	192
거제 車制	196
희대 戲臺	204
시사 市肆	204
점사 店舍	205
교량 橋梁	206
16일 임진 壬辰	207
17일 계사 癸巳	211
18일 갑오 甲午	217
19일 을미 乙未	224
20일 병신 丙申	227
21일 정유 丁酉	231
22일 무술 戊戌	237
23일 기해 己亥	240
강녀묘기 姜女廟記	242
장대기 將臺記	243
산해관기 山海關記	244
관내정사 關內程史	246
가을 7월 24일 경자 庚子	247
25일 신축 辛丑	248
열상화보 列上畫譜	257
26일 임인 壬寅	259
이제묘기 夷齊廟記	262
난하범주기 灤河泛舟記	265

석호석기 射虎石記	266
27일 계묘 癸卯	267
28일 갑진 甲辰	277
호길 虎叱	283
호길후지 虎叱後識	292
29일 을사 乙巳	294
30일 병오 丙午	296
8월 1일 정미 丁未	300
동악묘기 東嶽廟記	310
2일 무신 戊申	312
3일 기유 己酉	313
4일 경술 庚戌	316
막북행정록 漠北行程錄	319
막북행정록 서 漠北行程錄序	320
가을 8월 5일 신해 辛亥	322
6일 임자 壬子	333
7일 계축 癸丑	342
8일 갑인 甲寅	348
9일 을묘 乙卯	351
태학유관록 太學留館錄	355
가을 8월 9일 을묘 乙卯	356
10일 병진 丙辰	366
11일 정사 丁巳	382
12일 무오 戊午	393
13일 기미 己未	396
14일 경신 庚申	402
환연도중록 還燕道中錄	416
가을 8월 15일 신유 辛酉	417
16일 임술 壬戌	419
17일 계해 癸亥	420
18일 갑자 甲子	435
19일 을축 乙丑	437
20일 병인 丙寅	440

경개록 傾蓋錄	448
경개록 서 傾蓋錄序	449
경개록 傾蓋錄	450
심세편 審勢編	459
망양록 忘羊錄	467
망양록 서 忘羊錄序	468
망양록 忘羊錄	469



흑정필담 서(鵠汀筆談序)¹

어제는 윤공에게 이야기를 하여 해가 저무는 줄을 몰랐다. 윤공이 가끔 졸며 머리로 병풍을 받곤 하였다. 나는,

“윤 대인(尹大人)께선 아마 피로하신 모양이니,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더니, 흑정(鵠汀)은,

“그야 조는 이는 졸고 이야기하는 이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다. 윤공이 약간 그 말을 들었는지 흑정을 향하여 무어라고 두어 마디 말을 하자, 흑정은 곧 머리를 끄덕이고는 담초(談草)를 거두고 나에게 읊하며 함께 일어났다. 이는 대저 윤공은 노인인 데다가 나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한낮이 지나도록 수작하였으니, 그가 피로해서 조는 것은 이상할 게 없다고 하겠다.

흑정이 그 이튿날 아침밥을 짓기로 하고, 나에게 같이 먹기를 청한다. 나는,

“이야기 자리가 벌어질 때마다 늘 해가 짧음이 걱정이니, 내일은 특히 일찍이 가겠어요.”

하였더니, 흑정은,

“그렇게 하시죠.”

한다. 그 이튿날 오경(五更)에 사신이 일어나 조회에 나갈 때 나도 함께 일어나서 곧 흑정을 방문하여 촛불을 밝히고 이야기할 적에, 학도사(郝都司) 성(成)은 왔으니, 윤공은 벌써 새벽에 조회하러 들어갔다. 밥을 먹으며 필담(筆談)하는 사이에 수십 장이나 되는 종이를 허비하였다. 그리고 보니, 인시(寅時)에서 유시(酉時)까지 무려 8시간으로 계산된다. 학공(郝公)은 좀 늦게 왔다가 먼저 가 버렸다. 이 담초(談草)를 차례대로 엮어서 ‘흑정필담(鵠汀筆談)’이라 이름하였다.

1 흑정필담서(鵠汀筆談序) : ‘박영철본’에는 본래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이제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흑정필담(鵠汀筆談)

나는 말하기를,

“윤 대인께선 어제 손 접대에 몹시 괴로우신 모양이어서 제 마음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실까요.”

하였더니, 흑정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공은 늘 한나절이면 한참 즐기 마련이므로, 남들에게 그의 이런 꼴을 보지 않으려고 했긴 하나, 결코 손님을 싫어하는 뜻은 없을 거요.”

하고는 또 나에게,

“윤공은 어떠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한다. 나는,

“그는 참 신선(神仙) 같은 분입니다. 선생은 그와 친한 지 오래됐습니까.”

하였다. 흑정은,

“다복죽과 도리(桃李)처럼 문벌과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답니다. 요즘 벼한 지 겨우 한 10여 일 넘었습니다.”

한다. 흑정은 다시 묻기를,

“공자(公子)께서는 아마 기하학(幾何學)에 정통하신가 봅니다.”

한다. 나는,

“어째서 그런 줄 아십니까.”

했더니, 흑정은,

“저 윗방에 든 기 안사(奇按司)가, 고려 박 공자(朴公子)는 (우리나라를 부를 때는 ‘고려’라고 불러, 마치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을 말할 때 한(漢)이니 당(唐)이니 하는 것과 같고, 그들은 나를 부를 적에 가끔 공자(公子)라 하였다.) 기하학에 정통하다고 크게 칭찬하며, 그의 말에 의하면 ‘달 가운데 한 세계가 있다면 마땅히 이 땅과 같을 것이고, 또는 지구(地球)가 저 공중에 걸려 있으니 그는 실로 한 개의 작은 별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또 지구의 자체에서 빛이 생겨서 달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라고 하더이다.’ 하니, 이들은 모두 기이한 이론인 동시에 경천(經天) 위지(緯地)의

재주라고 이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한다. 나는,

“저는 솔직하게 말한다면, 기하학에 대하여서는 반 글자도 옛본 적이 없습니다. 요 전 밤에 우연히 기공(奇公)과 함께 앞 청에서 달을 구경하다가, 기이한 흥취를 건 잡지 못하여 아무런 해아림도 없이 멋대로 지껄인 것이니 이야말로 일시적인 허튼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는 저의 억측(臆測)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기하학으로 유추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흑정은,

“이렇게 지나치게 겸손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지구의 빛에 대한 이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만일 지구에 빛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햇빛을 받아서 빛이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자체에서 저절로 빛이 생기는 것입니까.”

한다. 나는,

“마치 꿈결에 푸른 글씨로 쓴 부적을 읽은 것처럼 되어서, 지금은 벌써 잊어버렸습니다.”

하였다. 흑정은,

“저도 평소에 남 몰래 발명한 것이 없지 않으나, 역시 남을 만나서 발표하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세상의 여러분들로 하여금 대경(大驚) 소괴(小怪)하게 할까 보아서입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이 텃덩이처럼 가슴속에 묻쳐 있어서 오래도록 소화되지 않아, 겨울과 여름철이 되면 더욱 괴로워집니다그려. 선생도 이런 증세가 이루어지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한다. 나는,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서 그걸 깨뜨려 버립시다. 몇 해 동안의 숙증(宿症)을 약 쓰기 전에 낫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더니, 흑정은,

“아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손을 흔들며 웃는다. 나는,

“무슨 말이라도 손된 이가 먼저 꺼내진 못하는 겁니다.”

하고는 말을 끝냈다. 얼마 아니 되어 밥상이 들어온다. 그 차린 순서를 본즉, 과실과 나물이 먼저 오르고 다음에는 떡, 또 다음에는 볶은 돼지고기와 지진 달걀 등이 오르고, 밥은 가장 뒤에 올랐는데, 하얀 쌀로 지은 데다가 양곱창국을 끓였다. 중국 음식은 모두들 저를 사용하고 순갈은 없었으며, 권하거니 받거니 하며 작은 잔으로 기쁨을 나눈다. 우리나라처럼 긴 순갈로써 밥을 등글등글 뭉쳐 한꺼번에 배 불리고는 곧 끝내는 법이 없이, 가끔 작은 국자로써 국물을 떼을 뿐이다. 국자는 마치 순갈과 비슷하면서 자루가 없어서 술잔 같기도 하나, 또 발이 없어서 모양은 연꽃 한 쪽과 흡사하였다. 나는 국자를 집어서 한 공기 밥을 떠 보려 하였으나 그 밀이 깊어서 먹을 수 없기에,

“빨리 월왕(越王)을 불러 오세요.”

하고는, 무심코 웃었다. 학지정은 나더러,

“무슨 말씀이세요.”

한다. 나는,

“월왕의 생김새가 목이 썩 길고 입부리가 까마귀처럼 길었습니다.”

하였더니, 지정은 혹정의 팔을 잡고 웃느라 입에 들었던 밥이 튀어나오며 재채기를 수없이 한다. 지정은 이내,

“귀국 풍속에는 밥을 뜯 때에 무엇을 쓰십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순갈을 쓴답니다.”

했더니, 지정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한다. 나는,

“작은 가지잎 같습니다.”

하고는, 이내 탁자 위에다 그려 보였더니, 둘은 더욱 배꼽을 움켜쥐고 절도한다.

지정은 곧,

어떻게 생긴 가지잎 순갈이 | 何物茄葉匕

저 혼돈하 구멍을 뚫었더니고 | 鑿破混沌霞

라고 읊자, 흑정은,

많고 적은 영웅들 손이 | 多少英雄手

젓가락 비느라 얼마나 바빴으랴² | 還從借箸忙

한다. 나는,

“기장밥은 저로써 먹질 않고 남과 함께 먹을 때는 손을 국물에 적시지 않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들어와선 손갈을 구경하지 못하겠으니, 옛 사람들이 기장 밥 자실 때 손으로 뭉쳐서 잡수셨던가요.”

하였더니, 흑정은,

“손갈이 있긴 하지만 그다지 길지 않습니다. 기장밥이고 쌀밥이고 저를 쓰기로 관습이 되었답니다. 소위 조행이 습관이 된다는 것도 예와 지금이 저절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다. 나는 또,

“흑정 선생은 뱃속에 가득히 꾸불꾸불 뒤틀어져 있는 그 무엇을 끝내 해산하기 어려운지요.”

하였더니, 지정은,

“그게 무슨 말씀이어요.”

한다. 나는,

“아까 이야기하던 대경 소괴의 텃덩이 말씀입니다.”

하였더니, 흑정은 웃으며,

“여기에는 ‘도라면탕(兜羅綿湯 한약)’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매, 지정은,

2 젓가락……바빴으랴 : 장량(張良)이 한왕(漢王)의 밥상 앞에서, “젓가락을 빌려 주시면 천하의 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한 고사에서 온 말. 《사기(史記) 유후세가(留侯世家)》

“그야말로 흘룬탄조(圜圖吞棗 우물우물해서 삼키는 것)이군요.”

한다. 나는,

“이는, 만일 안기생(安期生)³의 대추가 아니라면, 아마 위왕(魏王)⁴의 고주박일 거요.”

하였더니, 흑정은,

“그런 정도이지요.”

하고는 껄껄 웃는다. 나는,

“그러나 저는 온몸에 가려움증이 나서 배기지 못하겠어요.”

하였더니, 흑정은,

“그러시다면 어디서 마고(麻姑)⁵의 손톱을 구해 오란 말씀이요.”

한다. 지정이 다시 지구의 빛에 대한 설명을 청하기에, 나는,

“제가 다만 허망한 말씀을 드렸으니, 선생께서는 역시 허망한 말로 들어 주신다면 좋겠어요.”

하였더니, 흑정은,

“그러는 것도 해롭진 않을 것ियो.”

한다. 나는,

“낮이면 만물이 모두 환하게 보이다가도 밤들면 곧 모든 것이 암흑 속에 드는 것은 무슨 까닭이어요.”

하고 물었더니, 흑정은,

“그것이야 햇빛을 받아서 밝은 것이지요.”

한다. 나는,

“모든 물건이 그 자체로서는 밝음이 없으니 그 본질(本質)은 어둡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 어두운 밤중에 거울을 대해 보더라도 목석(木石)과 다름없으니, 이는 비록 빛을 받아들일 성격은 포함되었으나 그 자체가 밝을 수 있는 바탕

3 안기생(安期生) : 진(秦)의 방사(方士). 그가 오이 만한 대추를 먹고 신선이 되었다 한다.

4 위왕(魏王) : 전국 때 위의 임금. 그가 닛 섬들이 큰 바가지를 얻었으나, 너무 커서 쓸 데가 없었다. 《남화경》에 나오는 말.

5 마고(麻姑) : 선녀의 이름. 손톱이 길어서 등을 긁기에 좋다는 전설이 있다.

을 갖춘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을 받은 연후에야 빛을 낼 수 있으므로 그 반사(反射)하는 곳에 도리어 밝은 그림자가 생기니, 물의 밝음도 역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地球)의 밖에 바다가 돌린 것은, 비유하건대 한 개의 큰 유리 거울과 같습니다. 만일 월세계(月世界)에서 이 땅의 빛을 바라본다면, 역시 현(弦)이니 보름이니 또는 그믐이니 초하루니 하는 것이 있을 테며, 그 해와 마주 대한 곳에는 큰 물과 큰 땅덩이가 서로 잠기며 비춰져서 그 빛을 받아 반사되어 바꾸어 가며 밝은 그림자를 토하되, 마치 저 달빛이 이 땅에 고루 퍼졌으나 햇빛을 받지 못한 곳은 저절로 어두워져서 현(弦)이 이룩되기 전 초승달처럼 빈 넋둘레만 걸려 있어, 그 흠의 깊은 곳이 마치 달 속의 검은 그림자처럼 영성하지 않겠소.”

하였더니, 혹정은,

“저도 역시 일찍이 망령되어 지구에 빛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선생의 논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것이 있을 뿐이어요.”

한다. 나는,

“그야 반드시 서로 같아야 됴는 아니니까, 이에 대한 설명이나 듣고 싶습니다.”

하였다. 지정이 혹정을 돌아보며 잇달아서 몇 마디 말로,

“산하(山河)의 그림자.”

하므로, 혹정은 머리를 흔들며, 연달아,

“그렇지 않아.”

라고 한다. 나는,

“무엇이 아니란 말이어요.”

하였더니, 혹정은,

“선생께서는 방금 지구의 빛을 설명하셨는데, 학공(郝公)은 산하의 그림자로 안 까답이어요.”

한다. 나는,

“불가(佛家)의 설에 의하면, 저 달 가운데에서 마치 무엇이 춤추는 듯한 것이 곧 산하(山河)의 그림자라 하였은즉, 이는 곧 달은 한 둘레의 허명체(虛明體)에 지나지

않아서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듯이 대지(大地)에 내리쬘을 이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소위 철요형(凸凹形)이란 것도 역시 산하의 높고 낮음으로서, 마치 그림의 부분(副本)처럼 위로 올라서 달 가운데 물들인 것이니, 이는 모두 땅과 달의 본분(本分)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달 속의 세계란, 참으로 한 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지구의 빛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나타나 보일 만한 것이 없으므로 이러한 달 속의 세계를 가설(假設)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치를 바꿔서 대처해 보자는 것이니, 설사 우리들이 달 가운데에서 지구의 바퀴를 쳐다본다면, 역시 이 땅 위에서 저 달의 밝음을 바라봄과 똑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였더니, 흥정은,

“웁습니다. 선생의 이 말씀은 내 벌써 명백히 알아들었소이다. 이미 달 속의 세계가 있다면 자연 산하가 있겠고, 산하가 있다면 자연 철요가 있겠으므로, 멀리 서로 바라본다면 으레 이런 형태가 나타날 것이니, 이는 대지(大地)를 빌리지 않아도 그 그림자는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빛에 대해서 나는, 햇빛을 빌려서가 아니요 그 자체에서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물건이 크면 신(神)이 그를 지키는 것이요, 물건이 오래 묵으면 정기가 어리는 법이니, 늙은 조개가 구슬빛을 토하여 어두운 밤을 밝혀 줌은 곧 신과 정기가 한 곳에 모인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땅덩이야말로 참으로 크고도 오래갈 수 있는 감공보주(嵌空寶珠)인즉, 큼직한 신정(神精)이 저절로 빛을 발할 것이니, 예를 든다면 저 도덕 있는 군자가 그의 화순한 마음이 속에 쌓여서 그 영화(英華)가 외면에 나타남과 같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저 공중에 가득한 별이나 은하에는 모두 제 몸에서 나오는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다.

지정은 옆에서 읽다가 웃으며, 위에 적은 ‘월중 세계(月中世界)에서 이 지구의 빛을 바라본다’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고는, 또 ‘지구는 곧 감공보주’라는 구절에 동그라미를 치며,

“두 분 선생께서는 아마 한 번 달나라에 가셔서 항아낭랑(姮娥娘娘)⁶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지어야 하겠소이다. 그때에는 아예 학성(郝成)더러 증인이 되라 마십시오.”

한다. 혹정은 곧 그 항아낭랑에게 소송을 걸라는 구절에다 동그라미를 친다. 혹정은 또,

“달 가운데에 만일 한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는 어떤 것이라 생각됩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웃으며,

“아직 월궁(月宮)에 한 번도 가 구경한 적이 없으즉, 그 세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어찌 알겠습니까마는, 다만 우리들 티끌 세계의 사람으로서 저 달의 세계를 상상한다면, 역시 어떤 물건이 쌓이고 모여서 한 덩이가 이룩되었으되, 마치 이 큰 땅 덩어리가 한 점 미진(微塵)⁷이 모인 것과 같은 것이니, 티끌과 티끌들이 서로 의지 하되 티끌이 부드러운 것은 흙이 되고, 티끌이 거친 것은 모래가 되며, 티끌이 굳은 것은 돌이 되고, 티끌의 진액(津液)은 물이 되며, 티끌이 따스한 것은 불이 되고, 티끌이 맺힌 것은 쇠끝이 되며, 티끌이 변영한 것은 나무가 되고, 티끌이 움직이면 바람이 되며, 티끌이 찌는 듯하게 기운이 침울하여⁸ 모든 벌레(생물을 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람들은 곧 모든 벌레 중의 한 족속에 불과함이니, 만일 달 세계가 음성(陰性)으로 형성되었다면 그 물은 곧 티끌일 것이요, 그 눈은 곧 흙일 것이며, 그 얼음은 곧 나무일 것이고, 그 불은 곧 수정일 것이며, 그 쇠끝은 곧 유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달 세계가 반드시 진정코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비록 제가 추상적으로 이런 명제를 설정했지마는, 역시 어찌 그 다지 크나큰 물체가 이룩되어 그 덕(德)은 햇빛에 비교할 수 있고, 그 체(體)는 해에 배합할 수 있으면서, 오히려 한 물건도 기운이 모여서 벌레처럼 변화함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들 사람은 불에 들어가면 타 버리고, 물에 빠지면 가라앉곤 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는 일찍이 불과 물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니, 이로써 미

6 항아낭랑(姮娥娘娘) : 달 속에 선약을 쥔고 있다는 전설 중의 신녀.

7 미진(微塵) : 일체 물질에 공통하여 존재하는 물질의 최초의 단위를 의미하였다.

8 티끌이……침울하여 : 화학적 변화와 같은 현상을 의미한다.

루어 본다면 비록 물과 불 속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체로 모든 벌레는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이 다만 고기와 자라 등속뿐이 아니고, 비록 비늘과 껍질로 주를 삼았다 하나, 역시 날개가 돋친 놈이나 털에 감싸인 놈들로서 이웃을 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저 고기와 자라는 비록 물에 놓는다면 죽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역시 때에 따라서는 깊이 진흙 속에 숨어 사는 것을 보아서, 이는 인(鱗)과 개(介)의 족속도 또한 일찍이 흙을 떠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직방(職方)⁹이 소개한 외에 정말 몇 개의 세계가 있을지요.”

하였다. 지정은,

“저 서양 사람들의 기록한 바를 믿는다면, 아마 구국(狗國) · 귀국(鬼國) · 비두국(飛頭國) · 천흉국(穿胸國) · 기광국(奇肱國) · 일목국(一目國) 등의 여러 가지 기괴한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는 모두들 보통 생각으로는 미칠 바 아니었습니다.”

하매, 흑정은,

“이는 다만 서양 사람의 기록에 나타났을 뿐 아니라, 우리 경(經)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다. 나는,

“어떤 경(經)에 실려 있나요.”

했더니, 흑정은,

“《산해경(山海經)》이지요.”

한다. 나는,

“이 대지를 둘러서 몇 곳의 인황(麟皇)과 모제(毛帝)가 있는지 알 수 없으즉, 이 땅에서 저 달을 생각해 볼 때에는 그에 한 개의 세계가 있음도 이치에 괴이할 건 없으리라 생각되어요.”

했더니, 흑정은,

“달 세계의 있고 없음이야 우리들 진세에 아무런 상관이 없으즉, 이는 곧 이른바

9 직방(職方) : 천하의 지도(地圖)를 맡은 관원. 《주례(周禮)》에 나오는 말.

월인(越人)의 살찌고 여윈 것이 진인(秦人)에게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옛 성인들도 말씀하지 못한 것이거늘 이제 선생이 말씀해 주시니 나로 하여금 티끌 세상의 모든 번뇌가 별안간 없어지곤 마치 저 광한궁(廣寒宮 달 속에 있는 궁전)에 앉아서 얼음 비단을 입은 채 싸늘한 술을 마시며 백이(伯夷)와 오릉(於陵)¹⁰의 진중자(陳仲子)로 더불어 노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폐를 타고 바다에 뜬다’ 함은 곧 공자의 별계 망상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선생이 영연(泠然)¹¹히 서를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향할 때에는 저는 저 중유씨(仲由氏)¹²에게 결코 뒤질 생각은 없소이다.”

한다. 지정은 곧 ‘별계 망상’에다 동그라미를 치며,

“그럴 때에는 저는 팔짝팔짝 저 토끼나, 펄쩍펄쩍 저 두꺼비의 노릇을 할지라도 사양하진 않겠어요.”

하고는, 온 좌석이 왁자하고 웃었다.

혹정은 또,

“우리 유학자 중에서도 근세에 이르러선 저들 지구의 설을 제법 믿는 모양이어요. 대체로 땅이 모나고 고요하여 하늘이 둥근 채 움직인다 함은 우리 유학자의 명백임에도 불구하고 저 서양 사람들이 이러한 혼란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선생은 어떤 학설을 좇으려 하십니까.”

한다. 나는,

“선생은 어떤 것을 믿으십니까.”

하고 반문했더니, 혹정은,

“전 비록 손으로 육합(六合)의 등마루를 어루만지지는 못했습니다만 자못 지구가 등글다는 설을 믿지요.”

한다. 나는,

“하늘이 만든 것 치고 어떤 물건이고 간에 모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저

10 오릉(於陵)의 진중자(陳仲子) : 전국 때 제(齊)의 청렴하기로 저명한 사람.

11 영연(泠然) : 다른 본에 흔히들 ‘냉연(冷然)’으로 되었으나 잘못되었다.

12 중유씨(仲由氏) : 중유는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의 성명. 그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용맹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모기 다리, 누에 궁둥이, 빗방울, 눈물, 침 등과 같은 것이라도 등글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산하·대지와 일월·성신들도 모두 하늘의 창조였으나, 우리는 아직 모난 별들을 본 적이 없으즉 지구가 둥근 것은 의심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비록 서양 사람들의 저서를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일찍이 지구가 둥근 것은 의심 없다고 생각하였거든요. 대체로 지구의 끝은 둥그나 그 덕(德)인즉 모나며, 그의 사공(事功)은 동(動)하는 것이나 그 성정(性情)은 정(靜)한 것이니, 만일 저 허공이 땅덩이를 편안히 한 곳에 정착시켜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며 구르지도 못한 채 우두커니 저 공중에 매달려 있기만 하게 하였다면, 이는 곧 썩은 물과 죽은 흙인 만큼 잠깐 사이에 그는 썩어 사라져 버릴지니, 어찌 저다지 오랫동안 한 곳에 멈추어 있어서 허다한 물건을 지고 싣고 있으며, 하(河)·한(漢)처럼 큰 물들을 담고서도 새나가지 않게 하였겠습니까. 지금 이 지구는 면면마다 구역이 열리고, 군데군데 발을 붙여서 그 하늘로 머리 솟고, 땅에 발을 디딤은 나와 다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벌써 땅덩어리를 구(球)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구가 구르는 데 대해서는 말한 적이 없으니, 이는 땅덩어리가 둥근 줄은 알면서 둥근 것이 만드시 구를 수 있음은 모르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 땅덩어리가 한 번 구르면 하루가 되고, 달이 땅덩어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 되며, 해가 땅덩어리를 한 바퀴 돌면 한 해가 되고, 세(歲)(세성(歲星))가 땅덩어리를 한 바퀴 돌면 일기(一紀 12년)가 되며, 성(星)(항성(恒星))이 땅덩어리를 한 바퀴 돌면 일회(一會 1만 8백 년)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 아니라 저 고양이의 눈동자를 보고서 역시 지전(地轉)을 증험할 수 있겠으니, 고양이의 눈동자가 열두 시간을 따라 변함이 있으즉, 그 한 번 변하는 순간에 땅덩어리는 벌써 7천여 리나 달리는 것입니다.”

했다. 지정은,

“이야말로 토끼 주둥이에 달린 건곤이요, 고양이 눈에 돌아가는 천지라고 이를 만합니다.”

하고는 크게 깔깔댄다. 나는,

“우리나라 근세 선배에 김석문(金錫文)이 처음으로 큰 공 세 개가 공중에 떠 논다

는 학설을 했고, 저의 벗 홍대용(洪大容)이 또 지전설(地轉說)을 창안했던 것입니다.”

했더니, 혹정이 붓을 멈추고 지정을 향해서 무어라고 하되 마치 홍(洪)의 자와 1호를 말하는 듯하였다. 그러더니 지정은,

“담헌 선생(湛軒先生)은 곧 김석문 선생의 제자이십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아뇨. 김(金)은 돌아간 지 벌써 백 년이나 되었으니 서로 사수(師受)할 터수가 못 됩니다.”

했더니, 혹정은,

“김 선생의 자와 호는 무엇이며, 아울러 저서는 몇 편이나 있습니까.”

한다. 나는,

“그의 자와 호는 모두 기억되지 않소이다.¹³ 그리고 그는 이에 대한 저서도 없거니와 홍도 역시 저서가 없고 다만 제가 일찍부터 그의 지전설을 깊이 믿었으므로, 나에게 자기를 대신하여 저서하기를 권했던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국내에 있을 때, 그럭저럭 하지 못했더니 어제 저녁에 우연히 기공(奇公)과 함께 달을 구경하다가 달을 보고는 친구 생각이 난 것이니, 이는 곧 곳에 따라 생각이 솟은 것인 만큼 저절로 진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대체로 서양 사람들이 지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저가 생각하건대 그들의 생각에는 만일 땅덩어리가 한 번 구른다면 모든 전도(躔度)야말로 더욱 추측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 땅덩어리를 붙들어서 한 곳에다 안정시켜 놓되, 마치 말뚝을 꽂은 듯이 한 연후에 측량하기에 편리하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혹정은,

“전 본래부터 이런 학문에는 어두웠으나 역시 한두 가지의 옛본 것이 없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일곱 잔 차(茶)를 마신 듯이¹⁴ 다시 정신을 허비하지

13 그의……않소이다 : 자는 병여(炳如)요, 호는 대곡(大谷).

14 일곱……듯이 : 당(唐)의 시인 노동(盧仝)이 지은 시의 ‘칠완다홀부득(七碗茶吃不得)’이라는 구절에서 나왔는데, 될 수가 없다는 말이었다.

않았더니, 이제 선생의 말씀은 저 서양 사람들의 발명한 바도 아닌 만큼 저는 감히 꼭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거니와, 역시 감히 갑자기 그르다고 배격하기도 어렵고, 요컨대 아득히 상고할 곳이 없더니 이 선생의 변설은 몹시 정밀하여 마치 고려에서 만든 송납(松納) 꿰매는 바늘 구멍처럼 되어서 그 돌린 선과 길이 하나하나가 투명하군요.”

한다. 지정은 또,

“어떤 것을 ‘큰 공 세 개’라 하고 또 어떤 것을 ‘하나의 작은 별’이라 하십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공중에 떠도는 ‘큰 공 세 개’란 곧 해와 땅과 달을 이른 것입니다. 지금 대체로 이에 대해서 논하는 이는 말하기를, 저 별은 해보다 크고 해는 땅보다 크며 땅은 달보다 크다 하였으니, 만일 그들의 말과 같다면 저 공중에 가득찬 별들은 모두 이 땅과는 상관이 없는 채, 다만 이 세 개의 공이 서로 가까운 이웃에 있어서 그 둘이 땅덩어리의 사유물처럼 되자, 그의 이름을 ‘해’니 ‘달’이니 하고서 해를 양이라 하고 달을 음이라 일컫되, 예를 들면 마치 어떤 살림집에서 동쪽 이웃에 불을 빌리고 서쪽 집에 물을 꾸는 것과 같아서, 저 공중에 가득히 박힌 별들로서 이 세 공을 본다면 저 태공에 얹혀 붙은 것이 저절로 쇄쇄(瑣瑣)한 작은 별들에 지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들이 한 둘레의 물과 흙 어울음에 앉아서 시야가 넓지 못하고 생각이 한계가 있을즉, 그제야 망명되이 저 열수(列宿)들을 갖고 구주(九州)에다 분배(分配)시킨 셈이니, 이제 저 구주가 사해 안에 있음이 마치 검은 사마귀가 얼굴에 찍혀 있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는 곧 이른바 큰 못에 뿔린 작은 구멍¹⁵이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별이 제각기 분야(分野)를 맡았다는 설¹⁶이야말로 어찌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지정은 워낙 이 말을 믿었으므로 쇄쇄한 작은 별들이라는 구절에 이르러선 어지럽게 동그라미를 쳤고, 혹정도,

“이는 참으로 기이한 이론이며, 상쾌한 이론이어서 전인이 발명하지 못한 것을 발

15 큰 못에……구멍 : 《남화경》 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극히 작다는 말.

16 별이……설 : 옛날 중국을 9주(州)로 나누어서 분야를 설정하였다.

명하였습니다.”

하고는, 몹시 칭도하였다.

나는 또,

“저는 만리나 머나먼 길을 걸어서 귀국에 관광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극동에 있고 구라파는 곧 서양인 만큼 이 극동과 서양의 사람으로서 평소에 한번 만나기를 원했더니, 이제 갑자기 열하에 들어왔으나 아직 천주당(天主堂)을 구경하지 못했은즉 이로부터 칭명을 받들고 동쪽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다시 연경에 들어올 가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외람되이 대인·선생들과 교제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사오니, 비록 나의 큰 원을 덜었으나 다만 저 멀리에 사는 서양 사람들은 서로 만날 길이 없사오니, 이것이 나의 한스러운 바이었습니다. 이제 들은즉 서양 사람도 대가(大駕)를 모시느라고 이곳에 머물러 있다 하니, 원컨대 가르침을 받고자 하니 혹시 그들과 아시거든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흑정은,

“이런 일은 워낙 관서에 매인 일인 만큼 길이 같지 않으면 서로 꺾이지 않는 법일 뿐더러, 또 이 행재(行在)한 곳은 모두 일하(日下 수도(首都))로서 인산과 인해인 만큼 그들을 찾기가 곤란할지니 헛수고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지정은,

“저는 저녁에 잡무가 있습니다.”

하고는, 먼저 일어나 담초(談草) 오류 장을 거두고 가 버렸다.

흑정이 또 묻되,

“홍담헌 선생은 건상(乾象)을 점칠 줄 아십니까.”

하기에, 나는,

“아니, 아뇨. 역상가(曆象家)와 천문가(天文家)는 같지 않소이다. 대체로 해와 달의 무리와 꼬리별이 떨어질 때에 그 빛의 움직임을 보아서 길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천문가였으니, 장맹(張孟 한(漢) 때의 천문가)·유계재(庾季才 수(隋) 때의 천문가) 등이 이에 속하는 바요, 선기옥형(璿璣玉衡)으로서 일월과 성신을 살펴서 칠

정(七政)¹⁷을 다스림은 역사가였으니, 낙하굉(洛下閎 한(漢) 때의 태사)·장평자(張平子 동한 때의 역사가)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서(漢書)》예문지(藝文志)에서도 천문가 20여 명과 역법가(曆法家) 10여 명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저의 벗도 자못 기하학(幾何學)에 관심을 갖고서 그 전도(躔度)의 느리고 빠름을 알고자 했으나 이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송 경공(宋景公)의 세 마디 말에 형혹성(熒惑星)이 물러가고,¹⁸ 처사(處士)가 임금의 몸에 발을 올리자 객성(客星)이 제좌(帝座)를 범하였다¹⁹는 이야기는 사학가들이 부회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옛날의 혼의(渾儀)에 정통한 자로서는 낙하굉과 장평자 이외에도 채백개(蔡伯喈 동한 때의 채옹(蔡邕), 백개는 자)와 오(吳)의 왕번(王蕃)이 있었고, 유요(劉曜 전조(前趙)의 임금)의 광초(光初) 연간의 공정(孔定)과 위(魏)의 태사령 조송(晁崇) 등은 모두 선기옥형의 옛 법을 얻었으며, 송의 원우 연간에, 소자용(蘇子容)이 종백(宗伯)이 되어서 옛 의기(儀器)를 참고하여 수년 만에 이룩하였더니, 서양 학술이 중국에 들어오자 저 의기는 모두 쓸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학술이 천루하여 가소로울 뿐이었고, 저 이른바 야소(耶蘇)는 마치 중국 말에 현인을 군자(君子)라 함과 번속(番俗)에 승려를 나마(喇嘛)라 함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그리고 야소는 온 마음껏 하느님을 공경하되 온 팔방에 교리를 세웠으나, 나이 서른에 극형을 입었으므로 그 나라 사람들이 몹시 애모하여 야소회(耶蘇會)를 설립하고는 그의 신(神)을 높여서 천주(天主)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교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눈물지며 슬퍼하여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천주는 어릴 때부터 네 가지의 신서(信誓)를 세웠으니, 첫째로는 색념(色念)을 끊을 것, 둘째로는 벼슬 생각을 버릴 것, 셋째로는 팔방을 다니며 선교하되 다시 고국으로 돌아옴을 원하지 말 것, 넷째

17 칠정(七政) : 해와 달과 화·수·목·금·토의 오성(五星).

18 송 경공……물러가고 : 전국 때 송 경공이 형혹성이 비치었음을 보고 걱정을 했으나 천문가의 권고하는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임금다운 말 세 마디를 하였으므로 형혹성이 물러갔다는 고사.

19 객성……범하였다 : 동한 때 엄광(嚴光)이 광무제(光武帝)의 친구로서 함께 자면서 천자의 몸에도 발을 얹었더니, 태사가 “객성이 자미성을 범했다.”고 한 고사에서 온 말.

로는 헛 이름을 연모하지 말 것 등이었고, 그는 비록 부처를 배격했으나 다만 윤회(輪回)의 설을 독신하였다고 합니다. 명(明)의 만력 연간에 서양 사람 사방제(沙方濟 미상)라는 이가 월동(粵東)에 이르러서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마두(利瑪竇) 등 모든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리는 일을 밝힘으로써 종지를 삼고, 몸 닦기로써 요체(要諦)를 삼고, 충효와 자애로써 공부를 삼으며, 천선(遷善)과 개과(改過)로써 입문(入門)을 삼고, 생사와 같은 큰 일에 대해서 예비하여 걱정이 없게 함을 극치로 삼는답니다. 그리하여 서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 교를 신봉한 지 벌써 천여 년이 되매, 나라가 아주 편안해졌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너무 과장스럽고 허탄한 편이어서 중국 사람들은 믿는 이가 없답니다.”

한다. 나는,

“만력 9년(1581년)에 이마두가 중국에 들어와 수도에 머물러 산 지 29년이나 되었는데, 그는 이르기를, 한 애제(漢哀帝) 원수(元壽) 2년(기원전 1년)에 야소가 대진국(大秦國 로마 제국(帝國))에서 나서 서해 밖을 다니면서 교를 선전했다 하였으나, 한의 원수로부터 명의 만력까지 이르기에는 1천 5백여 년이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야소’라는 두 글자마저 중국 서적에 나타나지를 않았으니 이는 아마 야소가 저 절량(絕洋)의 밖에 났으므로 중국 선비들이 그의 이름을 듣지 못했는지 또는 비록 들어서 안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가 이단(異端)이므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진국의 또 한 가지의 이름은 불림(拂菻)이라고도 하고, 그의 이른바 구라파는 곧 서양의 총칭이 아닌가 합니다. 홍무(洪武) 4년(1272년)에, 날고륜(捏古倫 미상)이 대진국으로부터 중국에 들어와서 고 황제(高皇帝)를 뵈었으나, 야소교(耶蘇敎)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일까. 대진국에는 애초에 이른바 야소교란 것이 없었던 것을 이마두가 비로소 천신(天神)에게 의탁하여 중국 사람들을 의혹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합니다. 그는 어째서 윤회(輪回)의 설을 독신하여 천당과 지옥의 설로써 불씨를 비방하며 공격하되 마치 원수나 님 없었음은 무슨 까닭입니까.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하늘이 사람 내시니 | 天生烝民

사물 있으면 법칙 있네 | 有物有則

라고 하였는데, 대체로 불씨의 학문은 형기(形器)로써 환망(幻妄)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모든 백성에게 사물과 법칙이 없음이었고, 또 야소교는 이(理)로써 기(氣)라 하였는데 《시경》에 이르기를,

하늘의 모든 일은 | 上天之載
소리 냄새 다 없고녀 | 無聲無臭

라고 하였는데, 이제 야소교에서는 안배(安排)와 포치(布置)로써 소리와 냄새라 하였으니, 이 두 가지의 교에서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했더니 혹정은,

“그야 서학(西學)이 어찌 불씨를 헐뜯을 수 있으리까. 불씨는 참 고묘(高妙)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는 수많은 비유의 말이 많아서 아무런 귀속(歸宿)시킬 곳이 없다가 겨우 깨달아 보았자 결국은 한 개의 환(幻) 자만 남음이 결점이었으나, 저 야소교는 애당초 정확치도 않게 불씨의 조박만을 얻어 가지고는 중국에 들어오자 곧 중국의 서적을 배워서 비로소 중국 사람들이 불씨의 배격함을 알고서, 곧 중국을 본받아 불씨를 같이 배격하되 중국 서적 중에서 상제(上帝)니 주재(主宰)니 하는 말들을 따서 우리 유학에 아부하였을 뿐이었으나, 그 본령인즉 애초부터 명물(名物)과 도수(度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이는 벌써 우리 유학에서의 제이의(第二義)에 떨어진 것이었으나 그도 역시 ‘이(理)’²⁰에 대해서 아무런 본 바가 없음은 아닌까 싶습니다. ‘이’가 ‘기(氣)’²¹를 이기지 못한 지도 오랜지라, 요(堯) 때의 장마와 탕(湯) 때의 가뭄도 역시 기수(氣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합니다. 나의 친구 개휴연 선생(介休然先生)도 자못 기수에 대한 이론을 믿어서 일찍이 이르기를, 기수와 ‘이’는 본래 한 속으로서 기수가 이렇게 되면 ‘이’도 역시 이

20 이(理) :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불변의 원리.

21 기(氣) : 형이하학적(形而下學的)인 후천적 현상.

와 같은 것이다 하였으니, 개(介)의 호는 희암(希菴)이요, 자는 태초(太初)이며, 또 자를 북궁(北宮)·옹백(翁伯)이라고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천리와 인사를 겸통하여 《옹백담수(翁伯談藪)》 1백 권과 《북리제해(北里齊諧)》 1백 권과 《양각원(羊角源)》 50권을 지었는데, 올해 그의 나이는 60여 세나 되었으나 오히려 저서를 중지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양각원에는 더욱이 천근(天根)과 월궁(月窟)의 이치에 깊었다 하였은즉, 지전설(地轉說)도 혹시 그 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해설(解說) 중에 술개가 하늘을 날 때에 발을 움켜쥐고 뒤로 뻗었으며, 물고기가 물에 뛰놀 때에는 부레를 믿고서 버티는 것과 같이 만물이 모두 땅에다가 중심(重心)을 붙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 이 땅의 중심이란 마치 우박이 제 몸을 스스로 싣는 것과 같고, 그 움직이지 않는 곳이 마치 수레바퀴에 굴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였으니, 이런 것들이 모두 그의 오묘한 이론들이었습니다. 제자 일찍이 나이 어릴 때에 세심히 읽지 못하고는 다만 그 대략의 제목들만을 엿봤을 뿐이었더니, 이제 와서는 벌써 그 대지(大旨)까지도 잊어 버렸습니다.”

한다. 나는,

“그러면 개희암 선생을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 뵙고 싶은데 다행히 선생의 소개를 얻었으면 합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개는 이곳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애초에 촉인(蜀人)으로서 지금은 역주(易州) 이가장(李家莊)에서 차(茶)를 팔아서 생애를 삼는답니다. 그곳은 북경으로부터 2백여 리인데, 저 역시 서로 만난 지 벌써 7년이 넘었습니다.”

한다. 나는,

“그러면 희암 선생의 용모는 어떻게 생겼는지요.”

하였더니, 혹정은,

“눈이 깊숙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온 분으로 각로(閣老) 조공(兆公)(이름은 혜(惠)이다.) 이 그의 경학과 행적을 조정에 추천하여 특히 강서교수(江西教授)를 주었으나, 그는 병들었다 핑계 대고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일찍이 수염이 아름다웠던 것을 별안간 깎아 버려서 이것으로써 조(兆)가 자기를 그릇되어 추천한 것을 밝히

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칠품(七品)의 모자와 복장이 주어졌으며, 어떤 높은 벼슬아치가 장차 그의 모든 저서를 추천하려 하매, 그는 흔연히 허락하였으나, 하룻밤 집에 불이 나서 글이 모두 타 버렸으므로 마침내 주달되지 않았답니다.”

한다. 나는,

“선생의 가슴속에 얹힌 체증을 이제는 토해 낼지도 하지요.”

하였더니, 혹정은,

“저는 애초부터 그런 증세가 없더니 늙은 뱃가죽의 간사로움이 많아서, 살아 먹은 고기가 살아서 양양히 갔다 한들²² 무엇이 군자에게 손실이 되겠습니까.”

하고는, 서로 껄껄대고 웃었다. 혹정은 또,

“태초(太初)의 저서는 실로 일찍이 불사른 것이 아니요, 그 벼 동정(董程)과 동계(董稽)에게 숨겨 두었던 만큼 반드시 뒷세상에 전할 것입니다. 선생은 외국 사람이 시므로 나는 흥금을 터놓고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다. 나는,

“그럼, 개선생의 저서 중에는 기휘할 것이 많단 말씀이지요.”

했더니, 혹정은,

“아무런 기휘될 건 없습니다.”

한다. 나는,

“그럼, 무슨 까닭으로 숨겼을까요.”

했더니, 혹정은,

“해마다 금서(禁書)는 모두 삼백여 종이나 되는데 그들은 대체로 군(君)²³ · 공(公

22 살아 먹은……갔다 한들 : 정(鄭) 나라의 공손교(公孫僑)가 남으로부터 잉어를 선사받고 차마 먹기가 어려워서, 하인을 시켜 그 잉어를 물에 놓으라 하였더니, 하인이 잉어를 살아 먹고는 양양히 자유풀게 가더라고 보고하였다. 맹가(孟軻)는 이 일을 논평하기를, “군자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으로 속일 수 있다.” 하였다.

23 군(君) : 삼군(三君)을 가리킨 것으로 동한(東漢) 때 두무(竇武) · 유숙(劉淑) · 진번(陳蕃)이다. 《후한서(後漢書)》 당고전서(黨綱傳序)에 나온다.

삼공(三空) 별의 이름이다) · 고(顧)²⁴ · 주(廚)²⁵와 같은 인물들입니다.”

한다. 나는,

“금서가 어째서 이다지 많은 말입니까. 그들은 모두 최호(崔浩)²⁶의 《사기》를 비방한 것과 같은 책들이란 말씀입니까.”

했더니, 흑정은,

“그는 모두 뒤뜰어진 선비들의 구부러진 글들이었습니다.”

하기에, 내가 금서의 제목들을 물었더니, 흑정은 정림(亭林 고염무(顧炎武)의 호) · 서하(西河 모기령(毛奇齡)의 호) · 목재(牧齋 전겸익(錢謙益)의 호) 등의 문집(文集) 수십 종을 써서 보이고는 곧 찢어 버린다. 나는 또,

“저 영락 때에 천하의 군서(群書)를 수집하여 영락대전(永樂大全 명(明) 성조(成祖) 때 엮은 유서(類書)) 등을 만들되, 당시의 선비들로 하여금 머리가 희도록 붓을 설 사이 없게 했더니, 지금 《도서집성(圖書集成)》 등의 편찬도 역시 그런 뜻인지요.”

했더니, 흑정은 곧 재빨리 붓으로 이 말을 지워 버리며,

“본조(本朝)의 문치 승상은 백왕(百王)들 중에서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사고(四庫 사고전서(四庫全書))에 편입되지 않은 글이야말로 아무런 쓸 곳이 없겠습지요.”

한다. 나는 또,

“앞서 선생은 무슨 까닭으로 조송(趙宋 조광윤(趙匡胤)이 세운 국명(國名))을 낮추어 보셨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흑정은,

24 고(顧) : 팔고(八顧)를 가리킨 것으로 덕행(德行)으로써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분 8명이니, 동한 때의 곽태(郭泰) · 종자(宗慈) · 파숙(巴肅) · 하복(夏馥) · 범방(范滂) · 윤훈(尹勳) · 채연(蔡衍) · 양척(羊陟)이다. 《후한서》 당고전서에 나온다.

25 주(廚) : 8주(廚)를 가리킨 것으로 재물로써 남의 급한 일을 구출할 수 있는 분 8명이니, 동한 때의 도상(度尚) · 장막(張邈) · 왕고(王考) · 유유(劉儒) · 호모반(胡母班) · 진주(秦周) · 번무(蕃撫) · 왕장(王章)이다. 역시 《후한서》 당고전서에 나온다.

26 최호(崔浩) : 후위(後魏)의 학자로, 《국서(國書)》라는 책을 저술하여 《사기》를 비방하였으므로 피살되었다.

“그는 왕통이 서지 않았습니다.²⁷ 송 태조는 아무런 가락한 공업도 없이 우연히 나라를 얻었으므로, 당시로 본다면 판에 박아 놓은 천자에 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경륜은 고성묘(顧成廟)에 있을 뿐이었고, 태종(太宗)은 가정에 있어서도 배심한 사람을 면하지 못했던²⁸ 까닭입니다.”

한다. 내가,

“촛불 그림자 사건²⁹이 만일에 참말이라면 어찌 태종이 배심한 것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후정은,

“그야말로 천고에 억울한 일입니다. 그때에 태조의 병은 벌써 위급하여 아침저녁 시간을 다들 지경이었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다지 괴로운 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행위를 보아서서는 그러한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 이 이야기는 애당초 호일계(胡—桂 원(元)의 학자)와 진경(陳經)³⁰의 사사(私史)에서 나와서 이도(李燾 송(宋)의 학자)의 장편(長編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의 약칭)에 비로소 기록되었는데, 이는 실로 오중(吳中)의 중 문형(文瑩 송(宋)의 중)이 지은 《상산야록(湘山野錄)》에서 계시해 준 것으로, 저 한 개의 중이 어디에서 이런 비밀을 알아내었겠습니까. 대체로 그의 글이 전연 의도적이지 않았음은 아니었으나 그 글 중의 ‘멀리서 촛불 그림자가 붉게 흔들리는 것이 보이면서 큰 소리로 잘해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여남은 글자가 천고의 의문의 실마리를 열었으나, 촛불이란 원래 컴컴한 밤에만 쓰이는 물건이요, 촛불 그림자라는 것은 희미한 것이며, 붉게 흔들린다는 것은 촛불 빛이 꺾거러진다는 것이요, 큰 소리라는 것은 화평하지

27 왕통이……않았습니다 : 조광윤이 천자가 된 뒤에 그의 아들에게 왕통을 계승하게 하고자 했으나, 둘째 아우 태종에게 빼앗긴 것을 가리킨 말.

28 태종……못했던 : 태종이 조카들을 모두 죽인 것을 말한다. 평소 태조는 태종을 지극히 사랑하여 태종이 병으로 뜬 때에 죽을 갈라 떠서 형제가 서로 아픔을 나누었다 한다.

29 촛불 그림자 사건 : 역사에는, “태조가 병석에 누웠을 때, 태종이 좌우를 물리치고 무슨 말을 하는데 잘 들을 수 없었고, 멀리서 보니 촛불 그림자 아래 태조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다가 도끼를 마룻바닥에 던지면서 큰 소리로 ‘잘하여라.’는 말을 한 마디 남기고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써 있는데, 이로써 후세에서는 이 기록을 보고 태종이 태조를 죽였다고 하며 ‘촛불 그림자 사건’이라 한다.

30 진경(陳經) : 명(明)의 역사학자. ‘박영철본’에는 진경(陳經)으로 되었으나 그릇된 것이다.

못한 소리요, 잘하라는 말은 그 뜻이 똑똑치 못한 말입니다. 또 멀리서 본다는가 멀리서 듣는다는 말은 이 또한 분명스럽지 못한 까닭에 참으로 천고의 의문의 실마리가 되고 말았으니, 뒤튼린 글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의 사대부들은 태종에 대해서, 첫째로 해를 넘기지 못한 채 개원(改元)한 것³¹을 마땅치 않게 여겼고, 둘째로 형수를 핍박하여 중이 되도록 하고, 또 형수가 죽었는데 복을 입지 않은 것을 옳지 못하게 여겼으며, 셋째로 정미(廷美)와 덕소(德沼)가 죽은 것³²을 옳지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으니 천하 인심을 어떻게 놀려 나갈 것입니까. 6국(國)의 선비들은 노여움이 진(秦)에게 쌓이자 진이 6국보다 먼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불위(呂不韋 진(秦)의 정승)의 사건³³을 교묘히 만들어서 한갓 기화(奇貨)로 삼았거늘, 하물며 진 시황(秦始皇)이 서책을 불사르고 선비들을 묻어 죽인 데 대해서야 그 욕설이 어머했겠습니까. 한(漢)의 책사(策士)가 무엇보다도 먼저 진을 욕하려 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문(奇文)이 만들어진 것이니, 촛불 그림자 사건만 해도 역시 이와 같은 의도일 것입니다. 송 인종(仁宗)의 영특한 기운은 한 문제(漢文帝)와 비슷하나 학식은 위였고, 송 신종(神宗)은 정치를 하려는 의욕은 한 무제(漢武帝)보다 앞서나 재주와 책략이 미치지 못했으며, 건염(建炎 남송(南宋) 고종의 연호) 이후로는 죽히 이야기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 중에도 제일 통탄할 일은 원수를 잊고 이를 아버지로 인정했으니, 이미 천륜이 아닌데 어찌 조카라고 부를 것입니까.³⁴ 힘이 모자라서 그에게 굴복하는 것은 하늘을 두려워하는 것이니 복(僕)이나 신하로 자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는지 모르겠지마는, 조카나 손자라고 일컬은 것이야 이 위에 더 큰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의 사대부들은 속국 신하 노릇 한 치욕만 면하기 위해서, 신하란 명목을 조카로 바꾸어 마침내는 그 임금으로 하여금 인륜을 무시하는 경지에 빠지게 했으니, 그 인륜을 무시하

31 개원(改元)한 것 : 그의 원년의 일년 동안에 '태평(太平)'과 '흥국(興國)'의 두 연호를 썼다.

32 정미……것 : 정미는 송 태종의 아우인데 피살되고, 덕소는 태종의 아들인데 자살하였다.

33 여불위의 사건 : 여불위가 자기의 애인 한단(邯鄲) 계집이 태기가 있음을 알고 장양왕(莊襄王)에게 바친 뒤에 아들을 낳은 것이 곧 진 시황이라고 세상에서 전하였다.

34 이미……것입니까 : 송이 북방의 호족인 금(金)에게 패하여 휘종과 흠종이 포로가 된 뒤에 항복을 하고 공목을 조카뻘 되는 나라라 하여 굴욕적인 강화를 맺었다.

고 강상에 어긋나게 한 것이 석진(石晉)³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귀함만 소중히 여겨 난데없는 애비를 맞이하면서도 임안(臨安 남송의 수도)의 군신들은 바야흐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축하했으니 무식하기가 심한 것입니다. 눈앞의 급한 일에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공연히 헛일을 이야기하기만을 일삼았으니 정말 답답한 일이었습니다.³⁶ 송 이종(理宗)은 40년 동안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공부한 보람으로 죽은 뒤에 ‘이종(理宗)’이라는 ‘리(理)’ 자를 얻은 것이니 가소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모를 일입니다. 이종이 평생에 연구한 이치란 과연 어떠한 물건이었는지요. 옛날로부터 남의 신하가 누구나 자기 임금의 학문을 위하여 애쓰지 않는 이가 없지만 천 년 동안 적막하다가 겨우 이종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그려. 그러나 그의 학문도 나라의 존망·승패에는 이로운 일이 없으니, 그를 만일 귀산(龜山 양시(楊時)의 호)의 문하(門下)에다가 둔다면 높은 제자가 무난히 되겠지마는, 그 학문은 또한 눈으로 한 글자도 보지 못하는 석세룡(石世龍 후조(後趙)의 고조(高祖)·막길렬(邈佺烈)을 따르지 못할 것이니, 천하 일을 보리 떠내려가는 줄 모르는 것³⁷과 같이 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구사량(仇士良 당(唐)의 포악한 관리)은 벼슬을 내놓으면서 그 무리들에게 훈계하여 글을 읽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경(寶慶 송(宋)의 연호)·경정(景定 송(宋)의 연호) 사이에 40년 동안이나 어두운 안개가 사방 천지를 막은 속에서 고금의 이치를 연구하느라고 서당(書堂) 문을 닫고 앉아 이로써 두 이랑 무논마저 반 넘게 묵혔다 하니 이것이 바로 그 시절 일인가 봅니다. 도군 황제(道君皇帝 송(宋) 휘종의 별칭)는 참으로 명사(名士)라 할 수 있어 비록 동파 선생(東坡先生)처럼 송균(松筠 송죽(松竹)과 같다) 같은 기절은 적다 하더라도 그의 풍류와 감상하는 안목은 반드시 진(陳 송(宋)의 진사도(陳師道)·황(黃 송(宋)의 황정견(黃庭堅)) 두 분에게 양보하지 않을 것입니다.”(형산은 뒤따라 필담 초기를 열람하고는 웃으면서 못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낫다고 하

35 석진(石晉) : 오대 때 석경당(石敬瑭)이 세운 나라. 석경당은 당을 치기 위하여 거란에게 구원병을 청하면서 아버지의 예로 모실 것을 약속하였다.

36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 남송(南宋) 때의 성리학(性理學)을 지적한 것이다.

37 천하……것 : 후한 때 고봉(高鳳)의 고사.

였다.)³⁸

한다. 형산은,

“그러나 한 성제(漢成帝)에게 비한다면 더욱 방탕한 셈입니다. 초여름에 황제가 강관(講官)에게 칙유(勅諭)하되, ‘내가 매양 옛날 역사를 보니 신하는 아침하고 임금은 교만하였는데 ……,’ 하였는데 대성문(大成門) 오른편 담벽에 붙인 방(榜)이 바로 그것이랍니다.”

하고는 꺾꺾댄다. 나는,

“이야말로 위(衛)의 무공(武公)의 억제(抑戒) 무공이 스스로 경계하기 위하여 시를 지었다)라도 더할 수는 없더군요.”

하였더니, 혹정은,

“참 그렇구 말구요.”[어제 내가 세 사신을 따라서 공자묘를 가 뵈을 때 왕혹정과 주거인 사시(舍是)가 주인이 되어 길을 인도했다. 대성문 앞에 오석(烏石)을 첩첩이 놓고, 벽에 강희(康熙)·옹정(雍正)과 또 지금 황제의 훈유(訓諭)한 글들을 새겨 두었다. 그 오른편 담벽에는 새로 방(榜)을 붙였는데, 곧 황제가 강신(講臣)에게 내린 칙유로서 그 내용을 보니 모두 자가(自家)의 학문과 문장을 굉장히 자랑하고, 옛날에 학문에 힘쓰던 임금들은 모조리 비방하되, 실속 없이 허식만 일삼아서, 전각 위에서는 만세를 부르느니 조정에서는 감탄을 낸다느니 하는 것이 모두 그 조칙 중의 말들이다. 대체로 여러 신하들이 글 뜻을 꾸며 윗사람에게 아첨함을 경계하면서도, 윗사람은 함부로 자기 잘난 것만 믿고 아랫사람들을 멸시한다 하였다. 내가 혹정과 함께 누누(累累) 천여 언(千餘言)을 읽어 보니 모두가 자기들의 자랑뿐이다. 내가 전각 위에서 만세를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고 물으니 혹정은, ‘경연(經筵)에서 강의나 토론을 할 때 임금이 글 뜻을 알아맞힐 때에는 좌우가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만세를 부르며, 또 강의하는 자가 알아맞혀서, 임금이 좋아할 때에도 좌우가 역시 만세를 불러서 좋은 것은 모두 임금에게 돌려보내는 법이니, 이는 소위 임금의 옳은 견해에 따른다는 것이요, 또 신하의 좋은 말을 발견했다고 축하하는 것입니다. 한의 육가(陸賈)가 임금 앞에 나아가 글 한 편씩 아뢰 적마다

38 형산은……하였다 : 이 부분은 다른 본에는 없으나 ‘주설루본’에 의하여 보충하였다.

임금은 칭선(稱善)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좌우는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였다.)

한다. 나는 또,

“이종(理宗)은 송이 망할 무렵 맨 끝의 임금으로 그의 학문에 대해서는 죽히 의논할 바가 못되지만 어떤 임금이고 학문을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서 그가 곧 총명한 자질(資質)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선생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진실로 한 문제·송 인종의 아름다운 자질과 한 무제, 당 태종의 영특한 성품에다가 정자(程子)·주자(朱子)의 학문을 겸하고 보면 이야말로 요(堯)·순(舜)보다 못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글짓는 말예(末藝)와 기송(記誦)하는 폐단만을 가지고 경솔히 남의 임금된 자를 무식하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혹정은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지 않지요. 내 본래 송 이종을 말한 것이 아니지요. 《송사(宋史)》 형법지(刑法志)를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의 심사가 번민해집니다. 내가 말한 것은 학문의 폐단인데, 대체로 옛날에 총명하고 영특한 임금이란 바로 한 무제나 당 태종을 두고 말한 것뿐이요, 선생이 말씀한 정자나 주자의 학문을 겸했다고 운운한 것은 가설(假說)입니다. 이러한 가설이 곧 천고의 뜻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소의 한스러움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다소의 한스러움을 가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옛 시에,

군사 내어 이기지 못한 채 몸이 먼저 죽으니³⁹ | 出師未捷身先死

뒷 세상 영웅들이 길이길이 눈물 짓누나 | 長使英雄淚滿襟

라고 한 것이 바로 한스러움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39 군사……짓누나 : 두보(杜甫)가 제갈량(諸葛亮)을 슬퍼하는 시 중의 두 귀.

한다. 나는 또,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만일 조맹덕(曹孟德 조조(曹操). 맹덕은 자)이 두통을 앓다가 죽었더라면, 어찌 그가 한(漢)의 제 환공(齊桓公)⁴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다. 나는 다시,

“그 말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웃으면서,

“선생이 말씀하신 만약에라든가 설사라든가 하는 것은 가설과 비유해서 하는 말이요, 결코 이것이 참말은 아닐 것입니다. 가사 제갈량(諸葛亮)이 사마중달(司馬仲達 사마의(司馬懿). 중달은 자)을 죽이고 군사를 몰아 중원 땅으로 들어갔던들 어찌 통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가령 당(唐) 명황(明皇)이 마외역(馬嵬驛)⁴¹에 이르러서 양귀비(楊貴妃)를 만나 빙그레 웃으면서 눈을 굴리게 되었다면 이 또한 얼마나 통쾌했을 것이며, 또 만약에 송 고종(宋高宗)이 진회(秦檜)의 머리를 베었던들 얼마나 통쾌했을 것이며, 만약에 정자·주자 두 선생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고 만기를 총람하는 정치를 할 때 다시 정자·주자 같은 이가 옆에 있어서 요·순의 도로써 충고해 준다면 후세에 무슨 한스러움이 있겠습니까. 또 이 부인(李夫人)의 혼령(魂靈)이라도 한 번 보였던들 무슨 한스러움이 남았겠습니까.⁴² 대체로 한때의 임금된 자로서 지극히 어둡고 못난 자를 제외하고는 보통 볼 수 있는 임금 일지라도 당대의 이름난 학자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당시 명석(名碩)들로 하여금 자리를 한 번 바꾸어 본다면 도리어 그들만큼 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다시 물기를,

40 제 환공(齊桓公) : 전국 때 제(齊)의 임금 소백(小白). 환공은 시호. 당시 오패(五霸) 중에서 가장 이름 높았다.

41 마외역(馬嵬驛) : 섬서성에 있는 지명. 당 현종이 안록산의 난을 만나서 피란하는 도중에 이곳에 이르러서 군사들의 요청에 의하여 양귀비를 죽였다.

42 이 부인……남았겠습니까 : 한 무제의 애인으로서 그가 죽은 뒤 무제가 그를 다시 한 번 보기를 원하여 방사의 말에 의하여 그의 혼령을 접견하였다는 고사.

“옛날부터 제왕은 그 신하들에게 자기가 가르치기만 좋아하였으나 군자를 가까이 하고 소인을 멀리하지 못한 까닭에, 그들 밑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영화를 탐내고 녹봉에만 눈이 어두워 그 임금에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서로 만난다면 반드시 이렇지도 않을 것이니, 밝은 이를 내세우고 미천한 이를 뽑아내어 어진 사람 쓰는데 그 지위를 가리지 않고 보면 꿈속에 담 쌓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⁴³ 점을 쳐서 낚시꾼도 만날 수 있어서⁴⁴ 함께 사업을 하는 데도 마음이 서로들 맞았기 때문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만약 저들이 구하지 않았다면 어찌 하늘이 내려 주는 인재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니, 혹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이란 당했을 때와 말할 때가 서로 같지 않은 법이요, 바둑이란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직접 두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맹공작(孟公綽 점잖기로 유명했다)이 조(趙)·위(魏)의 장로(長老)로서는 넉넉하다 할 수 있으나, 등(滕)·설(薛)의 대부 노릇은 못한다.’《맹자(孟子)》에서 나온 구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역사를 읽으면서 평심(平心)하고 연구한 대목입니다. 만일 송 인종이 염계(濂溪 송(宋)의 유학자 주돈이(周敦頤)의 출생지)나 낙양(洛陽 송(宋) 유학자 정이(程頤)·정호(程顥)의 출생지)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도학의 아름다움이 어느 현자(賢者)에게도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양(紫陽)은 평생 정력을 사서(四書)에 더욱 기울였으나, 그 실상인즉 인종이 먼저 길을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왕요신(王堯臣 송(宋) 유학자)이 과거에 급제하매, 대기(戴記 소대기(小戴記) 즉 예기(禮記)) 중에서 <중용(中庸 이때에는 중용이 예기 중의 한 편이었다)> 한 편을 하사(下賜)하였고, 여진(呂璩 송(宋)의 유학자)이 과거에 오르자 다시 <대학(大學 대학도 예기 중의 한 편이었다)> 한 편을 뽑아서 하사했습니다. 그 학식의 고명한 품은 당세 선비들 중에 뛰어났고, <중용>과 <대학> 두 편을 따로 뽑아 낸 공로는 범문정(范文正 범중엄(范仲淹), 문정은 시호)보다도 앞섰다고 하겠습니다. 후세 선비들은, 한 문제가 가의(賈誼)를 재상으로 등용하지 않은 까닭에 한(漢)의

43 꿈속에……있고 : 은(殷)의 고종(高宗) 무정(武丁)이 부열(傅說)을 꿈꾸어 얻은 고사.

44 점을……있어서 : 주 문왕(周文王)이 여상(呂尚)을 얻은 고사.

업적에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책망하고, 또 장석지(張釋之 한(漢)의 법관)의 고론을 배척했다 해서 문제를 얹잡아 판단했지만, 그 실상인즉 문제가 가의보다는 훨씬 어질었던 것입니다. 가생(賈生 젊은 가의를 가리킨다)을 보지 않았을 때는 자신이 가생보다 낫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가생을 따를 수 없다 하였으니, 이것은 문제가 자기 중심에서 우러나 한 말이지, 문제가 자기 스스로 가생과 현부(賢否)를 비교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역량을 헤아리고 남도 잘 짐작해야 하는 것이니, 선제(先帝) 때부터 있던 장상과 대신들은 어찌하고, 일조에 아무런 경험도 없는 서생으로 하여금 그들을 탄압하게 한단 말입니까. 선실(宣室)에서 앞자리에 가까이 앉게 했을 때에 가생이 지닌 포부는 이미 다 들었던 것이니, 요컨대 문제는 그의 재주를 길러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 가생의 아량은 이업후(李鄴侯 당(唐)의 이필(李泌). 업후는 봉호)에게 따를 수 없었으니, 이업후는 백의(白衣)로 재상이 되었다가 강서 판관(江西判官)으로 좌천된 일이 있었지만, 일찍이 한 번도 이를 한스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생은 언제나 가슴속에 울분을 참지 못하여 수없이 드러내려고 애썼으나, 문제는 이것을 잘 간직하고 이용하는 수단이 능란하여 아무런 객기(客氣)도 부리지 않았으니, 이것이 문제의 장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세 명의 서자(庶子)에게 천하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고, 당시의 부귀를 누리던 대신들은 모두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전쟁을 치른 인물들로서, 이제는 편안히 앉아 종정(鍾鼎)을 누리고 있는 터에, 누가 즐겨 뛰어나와 사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문제는 가생보다 앞서 통곡하고 긴 한숨을 지었을 것입니다.⁴⁵ 가생은 조금한 것을 참지 못하고 곧 분개하여, 어느 한 사건을 뼈아프게 지적하여 통곡하고 한숨 쉰 것이니, 이야말로 거리에 서서 친구와 이야기하다가도 갑자기 통곡하는 격이니 그렇게 하고서 과연 얼마나 상대방을 놀라게 하고 또 의혹시켰겠습니까. 양(梁)·초(楚)의 검객(劍客)들은 먼저 원앙(袁盎 한(漢)의 명신)의 배를 찔렀고,⁴⁶ 하(河)·삭(朔)의 용사(勇士)들은 마땅히 배

45 문제……것입니다 : 가의가 문제에게 상소한 글 중에서 나온 구절. 통곡할 일이 한 가지요, 눈물지를 일이 두 가지요, 긴 한숨 쉴 일이 여섯 가지라 하였다.

46 양(梁)……찔렀고 : 원앙이 곧은 말을 잘 하였으므로, 당시 여러 종실 중의 하나인 양왕(梁王)에게 피살되었다.

도(裴度 당(唐)의 명신)의 머리를 부수리라는 것⁴⁷을 문제는 미리부터 근심했던 것입니다.”

한다. 나는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비유하건대 바둑 두는 것과 같아서, 임금은 바둑을 두는 당국자(當局者)요 신하들은 옆에 앉은 구경꾼으로서, 선생의 이른바, ‘옆에서 구경하는 것이 당국자보다 낫다.’라는 말이 곧 이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자가 잘 판단을 못할 때에도 어찌 구경꾼의 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하였더니, 후정은,

“아니올시다. 말 위에서 천하를 얻으면,⁴⁸ 언제나 자기 열 손가락에서 피가 났다고 자랑하는 법이며, 대를 이어서 수성(守成)하는 임금은 호화로운 옷을 입고 부녀가 시중드는 것이 본래 있는 것처럼 여김이 통례입니다. 천하 일이 모두 폐하(陛下)의 집안 일이 된 지가 이미 오랜 일인바,⁴⁹ 이는 또 천고에 바꿀 수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짐(朕)이란 한 글자를 지워 버렸을 때는, 자기는 당장에 요·순 같은 임금 노릇을 할 것같이 될 것이요, 만약 짐이란 글자를 붙여 놓고 보면, 누가 감히 그 앞에 나가 소매 속에 넣은 손이나 꺼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자가 소정묘(小正卯 노(魯)의 정치가)를 죽인 것은, 임금까지 떨도록 한 지나친 위엄이라는 비평을 듣게 되었고, 주공이 낙양으로 도읍을 옮기려 한 것이 모반한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도, 그 지위에 따라 이런 비평을 들었던 것입니다. 삼대(三代) 이후로는 유학(儒學)을 주장하는 대신으로서 왕망(王莽)만한 사람이 없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천하를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성인을 지나치게 독신하여 평생에 배운 학문을 한번 시험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소중한 책임을 맡았다고 자처했으니, 어찌 임금의 비위만을 맞추기 일삼았으리요. 다만 그의 품성(稟性)은 초조하고 분주하여, 가만히 앉아서 요·순의 도를 의논하는 것보다도 몸소 자신이 당대에 시험하고 실천해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47 하(河)……것 : 배도가 조정에서 곧은 말을 잘 하였으므로, 그를 싫어하던 자가 많았다.

48 말 위에서……얻으면 : 한 고조(漢高祖)가 숙손통(叔孫通)에게 하였던 말. 자기가 직접 말등에서 천하를 쟁취했다는 말이다.

49 천하……일인바 : 임금이 신하의 충언을 듣지 않고 독재함에 반발한 말인데, 《사기(史記)》에 나온다.

한다. 나는 웃으면서,

“성인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역적이 되라고 가르쳤겠습니까.”

하였더니, 혹정도 역시 웃으면서,

“이는, 신하로서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일대(一代)의 제왕보다는 못하다는 증거를 말씀한 것입니다. 황(黃)·노(老)의 학문으로 천하를 다스릴 때는 혹 일시의 효력을 거둔 적도 있었지마는, 경술(經術)로 세상을 다스릴 때는 일찍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생명을 도탄에 빠지도록 한 일이 없지 않았습니니다. 왕개보(王介甫 왕안석, 개보는 자)의 학술에는 범(范 범중엄)·한(韓 송(宋)의 한기(韓琦)과 같은 이도 따르지 못할 바이지마는, 가의나 왕망·개보나 방손지(方遜志 방효유(方孝孺, 손지는 자) 같은 이들은 한결같이 조금하계 서두르는 축들입니다.”

하였다.

이때 어느 사람 하나가 몸에 망포(蟒袍)를 입고 주렴을 걷어젖히면서 들어와 의자에 앉는데, 보복(補服)도 입지 않았고 모자도 쓰지 않았다. 나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무어라고 말을 하기에, 나는 못 알아듣겠다고 대답했더니, 그 사람은 혹정과 귀엣말로 몇 마디 하고 일어서서 나갔다. 나는 그가 누구냐고 물으니, 혹정은 대답하기를,

“그는 본래 제남(濟南) 사람으로, 성은 등(鄧)이요, 이름은 수(洙)인데, 현재 호부주사(戶部主事)로 있습지요. 그 못생긴 자가 무엇을 보려고 왔다가, 무엇을 보고는 갔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다. 나는 다시,

“그분은 선생의 친지(親知)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아닙니다. 그가 등수라는 것만 알았을 뿐입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귀국이 우리와 같은 문자(文字)를 쓰고 있는 동방의 한 나라인 줄도 모르지 않아요.”

한다. 나는 다시 물기를,

“제남에는 아직도 백설루(白雪樓)가 있습니까.”

하였더니, 혹정은,

“백설루는 원래 우린(于麟 명(明)의 이반룡(李攀龍). 우린은 자)의 누각으로서, 처음에는 한창점(韓倉店)에 있었는데, 그 뒤에 백화주(白花洲) 위에 고쳐 지어 벽하궁(碧霞宮) 서쪽에 있었답니다. 지금은 박돌천(杳突天) 동쪽에 백설루가 있는데,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지은 것으로, 옛날 그 집이 아닙니다.”

한다. 나는 또,

“선생은 황(黃)·노(老)를 귀하게 여기고 경술(經術)을 천하게 여기며 역적에게 관대하여, 성인을 독실(篤實)히 믿는다고 말씀하셨으며, 또 왕개보를 가리켜 범문정보다도 더 어질다 하니, 억누르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경술이 천하를 파괴하는 도구라 하시니, 이것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선생이 이처럼 죄주시니, 소자(小子)가 다시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한다. 나는,

“선생의 의논하시는 바는 모두 고원(高遠)해서, 구구한 선비들의 짧은 소견으로서야 어찌 미칠 수 있겠습니까. 실로 하한(河漢)의 놀라움이 없지 않으니, 선생의 이론을 어찌 감히 처사(處士)들의 잘못된 역설이라 하겠습니까.”

하니, 혹정은,

“선생의 저속한 것을 가리키지 않는 아량에 감격합니다. 대개 세상 일이란, 마치 저 사냥하는 데 있어서 정도가 아닌 일로 짐승을 잡아서는 아니됨과 같은 것이요, 또 한 자를 굽혀서 한 길을 바로잡는다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⁵⁰이렇게 처리한다면, 모두 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자의 문하에서는 삼척 동자라도 오패(五霸)⁵¹를 추앙함을 부끄럽게 여겼으니, 이렇게만 이론을 세운다면, 다시 다른 일이 생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창려(韓昌黎 한유(韓愈). 창려는 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사람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 이론은 불살라 버린다(〈원도(原道)〉에서 나온 말)면, 도리어 세상은 태평해질 것이요, 또 동중서(董仲舒 한(漢) 때의 학자)가 말한 바와 같이 그 의리를 바로잡고, 이(利)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

50 한 자를……것입니다 : 《맹자(孟子)》 등문공 하편에 나오는 구절.

51 오패(五霸) : 전국 때의 제환(齊桓) · 진문(晉文) · 진목(秦穆) · 송양(宋襄) · 초장(楚莊).

《한서(漢書)》에서 나온 말)면, 세상 사람은 응당 길에 흘린 물건도 줍지 않을 것입니다. 또 선생의 말씀대로, 삼대 이후로 경술로써 정치를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입니까. 창공(倉公 한(漢) 때의 의원)이, 사람의 병을 고칠 때에는 화제탕(火齊湯 한약)에 대황(大黃 한약) 네 근을 넣어 달이라고 했는데, 그 후 2백 년을 지나 장중경(張仲景 한(漢) 때의 의원 장기(張機), 중경은 자)은 팔미탕(八味湯 한약)에 부자(附子 한약) 다섯 냥을 넣으라고 했으니, 얼마 못 되는 동안에 고금이 이같이 달라졌습니다. 백이·숙제가 말머리에서 말렸을 때에는 그래도 이를 옳다 하여 데리고 간 태공(太公) 망(望)이 있었으니, 세상에 양쪽이 모두 옳고 양쪽이 모두 그르다는 법이 없을 바에는, 이 두 사람 중 하나는 마땅히 흑룡강(黑龍江)으로 귀양가는 것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⁵² 대저 천하 일이란, 비유하자면 양쪽에서 줄다리기는 것이나 다름없어, 줄이 끊어지면 짧은 쪽이 먼저 넘어지는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처음에 두 편은 힘이 비슷했기 때문에, 역리와 순리만 있고 옳고 그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차지함에 있어서, 분명히 성패가 밝혀진 뒤는 역리라든지 순리란 말도 도리어 등불 뒤에서 하는 귀엣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릇 이치를 말하는 자는 까마귀가 고기를 간직하는 것과 같으니, 까마귀가 고기를 감추어 둘 때는 구름으로 안표(眼標)를 하고 감추어 두는데, 그 구름이 지나가 버리면 감추어 둔 곳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의리가 말뚝 박아 놓은 듯한 법은 없으니, 의리란 때를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비들의 처사라는 것은 구름을 바라보는 까마귀 친구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구름은 가 버려도 고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비록 때는 흐르고 일은 지나가 고금이 다들지라도 의리는 제자리에 있겠건만, 사람들이 이것을 찾지 않는 것뿐이지요.”

했더니, 혹정은,

“본래 먼저 관중(關中)에 들어가는 자가 임금이 되는 것이지요.”⁵³

52 흑룡강……것입니다 : 청 때에는 죄인을 흔히들 흑룡강 지방으로 귀양보냈으므로, 이를 꼬집은 말.

53 먼저……것이지요 : 유방과 항적이 진(秦)에 쳐들어갈 때에,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자가 그곳의 임금

한다. 나는 또,

“경술(經術)이 국가를 파괴한다는 것은 어찌 그것이 경술의 죄이겠습니까. 저속한 선비들이 경술의 이름만을 도둑질한 까닭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한 것은 경술의 찌꺼기일 것입니다. 만일 오히려 경술을 썼더라면, 세상에 밭이란 밭은 모조리 정전법(井田法)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요, 천하의 제후(諸侯)들은 모두 다섯 가지 등급으로 바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자, 혹정은,

“선생은 꼭 내가 대답스럽게 경술을 배척하는 줄만 아십니까. 옛날부터 밭이란 것은 반드시 마음에 있어야만 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실천을 하는 자도 반드시 말이 먼저 있으란 법도 없습니다. 일부 세계는 허위 세계이니, 선생의 말씀은 약방 문을 믿고 단번에 신선이 되겠다고 날뛰는 친구들의 말투에 지나지 못합니다.”

한다. 나는 이에,

“신선이 되겠다고 날뛰는 자들의 단번 말투란 무엇을 말함입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문성장군(文成將軍 한(漢) 이소옹(李少翁)의 봉호)이 말간(馬肝)을 먹고 죽었다는 것입니다.”⁵⁴

하고 대답한다. 나는 다시,

“성인도 역시 적은 것을 상대로 일을 착수하려고 하지 않지만, 이것도 고금이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다. 탕은 70리를 나라로 삼았고, 문왕은 백 리를 가지고 일어났는데, 맹자는 걸핏하면 이 은 · 주를 인용하여 당시 임금들에게 유세했습니다. 그러나 등 문공(滕文公)은 천하의 어진 임금으로,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 허행(許行 초(楚)의 농학자)과 진상(陳相)⁵⁵ 같은 호걸들도 그의 신하가 되어 등(滕)으로 갔던

이 된다고 한 고사에서 온 말.

54 문성장군……것입니다 : 문성장군은 한 무제가 신선을 좋아하고 죽은 애인 이 부인(李夫人)을 연모하기에, 이 부인을 보여 준다고 술법으로 무제를 홀리다가 영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형을 당한 자이다. 뒤에 오리장군(五利將軍)이란 자가 역시 방술로 무제를 꾀면서 죽은 문성장군을 애도할 때에, 무제는 거짓으로 문성장군은 말의 간을 먹고 죽었다고 조롱하였다.

55 진상(陳相) : 전국 송의 학자. 진량(陳良)의 제자로서, 등(滕)에 갔다가 허행을 보고서 전에 배운 학문

것입니다. 맹자는 등 문공에게, 국가의 반록(班祿)과 경계(經界)에 대해서는 그 큰 강령을 들어 말했지마는, 한 번도 등에 대하여 연연하지 않았으니, 이른바 긴 곳을 끊어다가 짧은 것을 보탠다 하더라도 모두 해야 50리밖에 되지 않으니, 대국의 지도자가 될지언정 그의 크나큰 경륜을 베풀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齊) · 위(魏)의 임금들은 지극히 못났건만, 그래도 이들에게 미련을 두어 차마 발길을 돌리지 못한 것은, 그 토지가 넓고 백성이 많고 군사가 강하며 재물이 풍부했던 까닭입니다. 그 형세로 인해서 성공하기가 쉬웠던 까닭에, 제(齊)로써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손바닥 한 번 뒤집는 것과 같이 쉽다고 말했던 것입니다.”(《맹자》에 나오는 말) 하고 말하니, 혹정은,

“공자는 말씀하기를 1년이면 바로잡을 수 있다(《논어》에 나오는 말) 하고, 맹자는 이미 5년이나 7년이라고 (《맹자》에 나오는 말) 구별을 하였으니, 이는 정치를 하는 방도에서 제를 높이고 등(藤)을 깎아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고금의 형편이 다르고 대소의 형세가 다른 까닭입니다. 그러나, 맹자는 결코 요 · 순 같은 제왕의 이야기를 먼저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줄음이 오도록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다. 나는 또,

“위양(衛鞅 진의 정치가 상양(商鞅), 위는 봉호)이 먼저 말한 것은 무슨 제왕이었던가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특히 황제(黃帝)와 요 · 순의 이름을 빌려서 한만하고 쓸모 없는 이야기를 하여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싫증이 나게 했으니, 이는 손무자(孫武子 제의 장군 손무, 자는 높이는 말)의 삼사술(三駟術)⁵⁶이지요.”

하고 대답하였다.(혹정이 고금의 인물과 학술 · 의리 등 여러 가지를 논변함에 있어서, 억누르고 찬양하며 세로로도 가로로도 멋대로 하니, 대체로 내 속을 떠보려

을 버리고 허행을 쫓았다. 최초의 북학자(北學者).

56 이는……삼사술(三駟術) : 전기(田基)라는 장수가 제 위왕(齊威王)과 경마를 하는데, 언제나 젖으므로 손무자에게 이기는 법을 물었을 때에, 손무자가 상 · 중 · 하급의 말 중에서 제일 나쁜 말을 먼저 내어 놓는 법으로부터 재미없는 이야기를 먼저 꼬집어 내었다가, 중간에 중요한 이야기로 주의를 환기시킨 일종의 화술(話術).

는 뜻이 있어 보였는데, 나는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웃음거리나 되지 않을까 조심하여 여러 가지 문답을 하는데, 간신히 원칙을 지었더니, 혹정은 붓을 들면 몇 장씩 쓰다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다가 갑자기 얼버무리고 말았다. 나는 늦게야 이것을 깨닫고, 맹자의 내용을 들어 한번 시험해 보았더니, 혹정의 주론(主論)은 역시 순정(醇正)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아래 몇 대목은 잃어버려서 말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

혹정이 말하기를,

“제갈무후(諸葛武侯)의 학문을 신(申 신불해(申不害)) · 한(韓 한비(韓非))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원통한 일입니다. 그가 비록 세밀히 글을 읽은 것이 후세의 선비들만은 못했다 하더라도, 《맹자》 한 질에 대해서는 도리어 대의를 뚜렷이 찾아 내어, 분명히 그의 가슴속에는 공(公)이란 글자 한 자를 새겨 두었고, 그의 안중에는 성(成)이나 패(敗)의 두 글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대 이래로 홀로 공명(孔明) 한 사람이 가히 대신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론을 볼 때 다스리는 방법을 말할 적에는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한 몸이 된다.’ 하였고, 임금을 권면할 적에는 ‘함부로 자신을 비하시켜서 쓸데없는 말을 끌어 의리를 저버리지 말라.’ 하였으며, 또 자신이 천하의 중임을 맡은 데 대해서는, ‘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누구나 나의 과실을 부지런히 공격하라.’⁵⁷ 하였으니, 이야말로 만세 뒤에 그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대승상(大丞相)이라 할만합니다.”

한다. 나는,

“그러나 유장(劉璋)의 땅을 빼앗은 것은, 한 자(尺)를 굽혀서 한 길을 바르게 하자는 노릇이 아닐까요.”⁵⁸

하였더니, 혹정은,

“공명이 반드시 유장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으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57 궁중(宮中)……공격하라 : 이 말들은 제갈량이 후주(後主)에게 바친 출사표(出師表) 중에서 나온 구절.

58 그러나……아닐까요 : 제갈량이 유비를 도와서, 사천 지방을 관장하고 있던 한의 종실이며 유비와 동성인 유장의 영토를 빼앗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유장에게 대하여 그를 성토하는 것은 합당할 터이지만, 당랑(螳螂)이 매미를 잡듯이 한 것은 잘못입니다. 유장은 자기 아버지 언(焉)의 때부터 천부(天府)의 나라 촉(蜀)을 통째로 점령하고 있으면서, 한 번도 제후(諸侯)들을 도와 나라의 역적(조조(曹操))을 토벌하지 못하였으니, 그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유표(劉表) 한의 종실)는 형주(荊州)의 아홉 고을 땅을 차지하여 학교를 세우고 아악(雅樂)을 만들었으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도 웅용(雍容)히 앉아 있었던 말입니까. 만약 한(漢)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자들을 추궁한다면, 의당 같은 성을 가진 유씨(劉氏) 제후의 죄를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공명이 초려(草廬)에 높이 누웠을 때부터 유표·유언(劉焉)의 무리들에게 분개한 지 오래된 것입니다. 만일 한의 제실(帝室)의 자손으로 신의가 드러난 후손이 있어서,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 봤다면, 손권(孫權)이나 조조보다 먼저 이 자들을 토벌했을 것입니다. 정자(程子)나 주자(朱子)는 매양 공명의 학문이 순정(純正)하지 못하다 하여, 그가 촉을 빼앗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형주·익주(益州) 유장이 웅거했던 지방) 사이에 걸터앉는다는 것은, 본래 초려에서 생각한 제일의(第一義)로서, 이야말로 국적(國賊)에 대한 공명의 안목이 밝은 것과 또 그의 학술이 정대한 것입니다. 다만 유언에게 대하여는 한의 종실로서 역적을 토벌하지 않은 죄로 그를 성토할 자료는 된다고 보지만, 유장에게 대해서는 그를 속여 가면서 땅을 빼앗을 것은 못 됩니다. 형주는 지탱할 만한 형세가 되지 못하나, 유종(劉琮)⁵⁹에게 대하여는 습탈(襲奪)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종은 분명히 국토를 역적에게 바쳤으니, 소열(昭烈)이 이를 대의로써 빼앗는 데도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잘못이라 했겠습니까. 그러나 소열은 형주에서는 한사코 신의를 지키다가 익주에서는 갑자기 간웅(姦雄)의 버릇을 드러내어, 차려다 줄 때에는 먹지 않다가 빼앗아 갔다는 비평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그야말로 원앙각(鵞鵝脚)으로써 지리소(支離疏)를 차 버렸습니다.”

하였더니, 호정은 크게 웃으면서,

59 유종(劉琮) : 유표의 아들. 유표가 죽은 뒤 유종이 형주를 조조에게 바쳤다.

“선생 역시 관화(官話)도 하실 줄 아십니다그려. [우리나라 속담에, 약한 놈을 업신여겨 무슨 물건을 빼앗는 것을 ‘어린이이 눈물 묻은 떡’이라 하고, 또 ‘난장이 퍽 차기’라고도 한다. 내가 오는 길에 통관(通官) 쌍림(雙林)의 무리는 사람이 남과 싸우는 것을 보고 꾸짖을 적에, 원앙각(鴛鴦脚)이 어찌고저찌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난장이 퍽 차기’라는 말과 같고 글귀가 묘하기에, 이때에 중국 발음으로 이 말을 써 보았더니, 입이 둔해서 발음이 잘 되지 않아 혹정은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이것을 종이에 써서 보였더니, 혹정은 크게 웃으면서 이런 조롱을 한 것이다.] 가령 성왕(成王)이 주공을 죽였다면, 소공이 어찌 감히 집에 있으면서 몰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자는 위원리(魏元履 송(宋)의 유학자)에게 글을 보내어 소열에 대해서 논하면서, 유종이 조조를 맞이들이던 날 형주를 쳐서 빼앗지 못하고 자기 근거지를 갖지 못한 채 허둥지둥하면서 비로소 도적의 피를 취했으니, 이는 정도와 권도를 모두 잃어버린 셈이라고 했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 당시 소열이 비록 형주를 얻었다 하더라도 역시 지켜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조공(曹公 조조를 높인 말)이 이미 80만 대군으로 지경을 억누르고 있는 판에, 어찌 구구하게 새로 만든 형주를 가지고 그를 막아 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히려 청렴하고 사양하는 절조나 굳게 지켜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의가 놀랍다는 소리나 듣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이래서 유종이 조조를 맞이하던 날 형주를 빼앗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정도와 권도를 다 얻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장은 암약하고 군사와 백성들을 잘 보살필 줄 몰라, 공명이 초려에서 소열과 처음 만났을 때 벌써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어두운 자를 쳐부수는 계획에 찬성했던 터이고, 결코 꼭 속여서 취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치당(致堂) 호씨(胡氏 송(宋)의 유학자 호인(胡寅). 치당은 호)는 현덕을 가리켜 노식(盧植 후한 때의 학자) · 진원방(陳元方 후한 때의 학자 진기(陳紀). 원방은 자) · 정강성(鄭康成 정현(鄭玄). 강성은 자) 같은 인물들과 교제했다 하여, 정말 착실히 경술과 학문을 한 선비로 쳤는데, 이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입니다. 그 당시의 현덕은 구름이 찌는 듯하니, 용(龍)이 틀어올라가는 격으로 사람을 씹어먹어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을 효웅(梟雄)으로서, 일이 없을 때는 시름에 겨워 울기를 잘하고, 큰 소리가 들리

면 일어나서 변고(變故)가 있는가 묻고,⁶⁰ 천지 사이에 자기 한 몸이 없어질까 근심하여 급할 때는 처자를 버리고 도망쳤으니,⁶¹ 원숭이 새끼 같은 유장에게야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이 당시 공명은 결코 유장의 땅을 빼앗으라고 권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세 선비들이 한갓 지난 일만 가지고 선주(先主)⁶²를 탕(湯)이나 무왕(武王)의 위에 치켜세우고 있으니, 이것도 역시 후세 선비들의 옳지 못한 생각입니다. 탕이나 무왕의 한두 가지 사적에 대하여 속으로는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입 밖에는 감히 말을 내지 못하고, 이윤(伊尹)과 여상(呂尙)에 대하여는 으레 그들을 두둔하고 편을 들어서 천고를 통하여 동림당(東林黨)⁶³처럼 정의를 굳혀 실로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백금(伯禽)이 종아리를 맞은 것은 필경 무슨 죄이겠습니까.⁶⁴ 이는 아마도 ‘아버지는 저더러 잘하라고 하시지만 아버지도 다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반발을 일으킬까 걱정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일의 결과만 가지고 마음가짐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⁶⁵ 후세 유학자들의 편파적인 버릇입니다. 공명을 평해서 이윤과 여상에 비하여 형과 아우 같다고 한 것은⁶⁶ 옳은 비평입니다. 대개 천고의 군신에 대하여 일정한 단안(斷案)이 있는데, ‘일부(一夫) · 일부(一婦)가 그 살 곳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밀어 넣은 것과 같이 여긴다.’(《맹자》에 나오는 말) 하였으니, 만일 임금된 자가 모두 이런 심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면, 한 명의 죄없는 사람을 죽이고 한 가지 불의를 행해서 천하를 얻는다 하여도 이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호도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후세의 임금들에 대한 하나의 정평(定評)일 것입니다. 포악한 임금

60 그 당시의……묻고 : 현덕은 조조와 영웅을 논하다가, 우레가 일자 수지를 땅에 떨어뜨린 일이 있었다.

61 급할 때는……도망쳤으니 : 하비(下邳)의 전쟁에 패하여 두 부인과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것을 말한다.

62 선주(先主) : 유비(劉備)를 그의 아들 후주에 비겨서 선주라 하였다.

63 동림당(東林黨) : 명의 만력 연간에, 고헌성(顧憲成)이 고반룡(高攀龍)과 함께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맺은 유당(儒黨).

64 백금……죄이겠습니까 : 백금은 주공의 아들. 주공은 어린 조카 성왕에게 잘못이 있을 때는, 자기의 아들 백금에게 매질하였다 한다.

65 한 가지 일……것은 : 제갈량을 존경하여 유비까지 떠받들었다는 의미이다.

66 공명을……것은 : 두보(杜甫)가 제갈량을 칭찬한 시구 중에서 나온 말.

과 어두운 임금이라도, 오히려 때로는 충성을 받아들이고 옳은 일을 권장하는 일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어진 재상이라도, 자기에 대한 공격을 달게 받고 자기 스스로 언로(言路)를 열어 놓는 자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임금된 사람으로서는 비록 용치(離齒)⁶⁷ 같은 미운 사람이라도 때로는 마음을 놓고 안심하도록 할 수 있었으나, 신하의 처지에 있어서는 비록 한기(韓琦)·부필(富弼) 같은 어진 사람으로도 자기의 몸이 죽어 가면서도 자신에 대한 유감을 풀지 못했으니, 이는 천고를 통하여 신하된 자에 대한 단안일 것입니다.”

한다.

내가 흑정과 더불어 닳새를 같이 있었는데, 매양 이야기를 할 때 그는 언제나 탄식하는 소리를 자주 내었다. 그 소리는 한숨 쉬는 것으로, 옛날부터 이르던 위연태식(喟然太息)이란 말이 곧 이것이다. 나는,

“선생은 평소에 어째서 자주 탄식을 하십니까.”

하였다니, 흑정은,

“이것은 나의 한 가지 병으로서, ‘휴우’ 하고 기운을 내뿜는 버릇이 드디어 탄식으로 굳어 버렸습니다. 평생에 글을 읽어도 세상에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심중팔구이니, 어찌 이 병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한다. 나는 또,

“글을 읽을 때마다 세 번씩 탄식을 지으신다면, 선생의 탄식은 가 태부(賈太傅)⁶⁸의 여섯 번 지은 탄식보다도 6만 번이나 많을 것 같군요.”

하자, 흑정은 웃으면서,

“천하 일이란, 매양 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건너느냐 못 건너느냐는 싸움이라 할 수 있어, 제가 글을 읽다가도, 공자가 하수에 이르러 말쑥하기를, ‘내가 이 물을 건너지 못하는 것은 명(命)이야.’ 한 구절에 이르러 세 번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고, 항우(項羽)가 오강(烏江)을 건너지 않았다⁶⁹는 때문에 이르러 또 세 번 탄식하

67 용치(離齒) : 한 고조의 장수. 한 고조가 천하를 정하고 공신을 녹정할 때, 평소에 가장 미워하던 용치를 제일 먼저 공신으로 봉하여 모든 장수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켰다.

68 가 태부(賈太傅) : 가의(賈誼). 태부는 그가 장사왕(長沙王)의 태부로 귀양갔었기 때문이다.

69 항우……않았다 : 《사기(史記)》항우본기(項羽本紀)에 나오는 고사.

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종 유수(宗留守)⁷⁰가 세 번 외쳐 ‘하수를 건너라.’ 하는 데 이르러서 또 세 번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니, 이만해도 아홉 번이나 탄식을 한 것으로, 가 태부의 여섯 번 탄식보다 많지 않습니까.”

하고는, 둘이서 한바탕 크게 웃었다.

나는 또,

“머리 깎는 봉변을 당했으니, 지사(志士)로서 이미 만 번은 탄식을 하였겠지요.”

하였더니, 혹정은 얼굴빛을 변했다가 얼마 뒤에 낫빛을 바루고는, 머리 깎은 봉변이라고 쓴 종이를 찢어서 화로에 던지면서,

“노(魯)의 사람들이 사냥하기 경쟁을 하였는데, ‘나도 사냥 경쟁을 하겠다.’⁷¹ 했으니, 어찌 시중(時中)의 성인이 아니겠습니까.(성인도 시속을 따른다는 뜻) 이탁오(李卓吾)⁷²는 자진하여 갑자기 머리를 깎았으니, 이는 흥성(興性)이더군요.”

한다. 나는 또,

“듣건대 절강(浙江) 지방에서는, 머리 깎는 전방에다가 성세낙사(盛世樂事)라는 편액을 써 붙였다는데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들은 일이 없는데요. 이것은 석성금(石成金 청(淸)의 학자)의 쾌설(快說)⁷³과 같은 뜻이지요.”

한다. [전일 혹정과 이야기할 때에, 머리와 입과 발에 세 가지의 대액(大厄)이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었다.]

나는 또 묻기를,

“명(明)의 국가 창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70 종 유수(宗留守) : 송의 충신 종택(宗澤). 유수는 그가 동경(東京)의 유수로 있었을 때, 임금에게 하수를 건너자고 20여 번이나 소장을 올렸으나, 듣지 않으므로 분개해서 병을 얻어 죽을 때에, “하수를 건너십시오.” 하고 세 번 고함을 쳤다 한다.

71 나도……하겠다 : 《맹자》 만장편(萬章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72 이탁오(李卓吾) : 명의 저명한 사상가 이지(李贄). 탁오는 자요, 처음 이름은 재지(載贄). 가려운 병을 얻어서 머리를 깎고 파직을 당하였으며, 남녀의 공학을 실시하였다.

73 쾌설(快說) : 그의 저서 《전가보(傳家寶)》 사집(四集) 백여 종 중에 있는 글인 듯싶다.

하니, 혹정은,

“《주례(周禮)》에 이른바 승국(勝國)⁷⁴이라 한 것이 이것이지요. 공자가, ‘은(殷)에는 어진 임금의 6·7명이나 있다.’(《맹자》에 나오는 말)고 칭찬한 것처럼, 이것으로써 더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송(宋)의 시대란 볼 만한 것이 없었으니, 무력이 강하지 못한 것은 범중엄·한기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를 창건한 원칙은, 흡사 누대 선비의 집에서 그 자제들이 웅용(雍容)히 제사를 모시고, 빨리 말하거나 갑자기 얼굴빛을 고치거나 하는 법이 없고, 하인들은 조심스러이 발을 디디고, 뜰에서 빠른 걸음이나 큰 기침을 들을 수 없이, 이야말로 절이 끝나기도 전에 음식은 썩고, 사당이 타 버린 뒤에 축관(祝官)을 부르는 격이었습니다.”

한다. 나는 또,

“특별한 예악(禮樂)이 생겨날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실은 여러 방면으로 한(漢)의 제도를 본뜬 것이 적지 않지만, 그때는 섬라(暹羅) 소주를 마셔서 술이 크게 취하면 노래하는 놈, 우는 놈, 춤추는 놈, 욕설하는 놈들 모두가 천진을 가지고 행동했지만, 송조(宋朝)에 와서는 한의 찌꺼기 술을 물려 먹으면서도 서로 쳐다보고 술맛이 좋다고 하면서 몸을 똑바로 가지고 종일토록 마셔도, 질서가 어지럽지 않았으나 정말 진의(眞意)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실(宗室)의 대신 중에는 한 사람의 하간현왕(河間獻王)⁷⁵도 볼 수 없으니, 정(鄭)의 재육(裁育) 같은 인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고 대답한다. 나는 다시,

“정(鄭)은 어느 때 사람인가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명(明)의 종실 정왕(鄭王)의 세자(世子)이지요. 이름은 재육인데, 《율려정의(律呂精義)》를 지었습니다. 이 명(明)이야말로, 참으로 중소리로 시작하여 편경 소리로

74 승국(勝國) : 현존한 나라의 직전에 있던 나라. 현존한 나라가 그를 이겼다는 뜻. 청이 명을 이룰 때 하는 말.

75 하간현왕(河間獻王) : 한 경제(漢景帝)의 아들 유덕(劉德). 하간은 봉호요, 현은 시호. 실사구시(實事求是)의 학(學)을 처음 제창하였다.

끝냈던 것입니다.”

한다. 나는,

“그것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시 광명(光明)하여, 하나도 구차한 데가 없었지요.”

한다. 나는 다시,

“과연 그러했을까요.”

하고 묻자, 혹정은,

“태조(太祖) 운운 …… . [그는 붓으로 점만 툭툭 치면서 나를 향하여 무어라 무어라 하면서도 즐겨 쓰지 않는다. 이는 아마 명이 원(元)의 오랑캐를 몰아낸 것이 가장 광명정대(光明正大)하다고 하는 듯싶었다.] 건문(建文 명(明)의 연호)이 대궐 안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었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지만, 당(唐) 원종(元宗)은 필경 머리에 구리철사로 테를 매게 되었습니다.”⁷⁶

한다. 나는 다시,

“무슨 말씀인가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이보국(李輔國 당(唐)의 정치가)은 방망이로 장양제(張良娣)⁷⁷를 때려죽였고, 오래 취하는 치뇌주(鴆腦酒)를 바쳐 숙종(肅宗)을 병어리로 만들었지요. 천순(天順 명(明)의 연호)의 복위(復位)는 기적이어서, 천고에 볼 수 없는 일입니다.”⁷⁸ 천자가

76 김문……되었습니다 : 안록산의 난리에, 현종은 아들 숙종이 그 아버지도 모르게 임금이 되고, 현종을 퇴위시켜 감금하다시피 하며, 현종이 두통이 난다고 철사로 머리를 동여매고 실상 제명에 죽지 못한 반면에, 명 혜제는 그의 숙부 영락제(永樂帝) 주채(朱棣)에게 위를 빼앗겼으나 오히려 제명에 죽었다는 의미이다. 원종(元宗)은 청 성조(淸聖祖) 현엽(玄燁)의 현(玄)자를 기휘하여 당 현종(唐玄宗)을 원종(元宗)으로 고쳤다.

77 장양제(張良娣) : 당(唐) 숙종(肅宗)의 황후. 양제는 봉호, 장씨가 이보국을 처치할 것을 태자인 대종(代宗)에게 부탁한 것이 탄로나서, 숙종이 죽은 뒤에 이보국이 장씨를 때려죽였다.

78 천순……일입니다 : 북방족과 전쟁하는 중에, 황제의 위를 차지한 아우 경제(景帝)를 폐하고 8년 만에 다시 황제가 되었다. 이것으로 명은 왕통의 명분이 바로섰음을 증명한다는 의미이다.

잡히고 보면, 누가 능히 술잔을 올리고 일산을 받드는 욕⁷⁹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마는, 숭정(崇禎)으로 말하면 17년 동안 50명의 재상을 갈아 썼는데, 사람 쓰는 법이 이토록 어지러웠으니 일 처리도 엉망진창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군자는 차라리 부서질지언정 욕을 택하지 온전하다고 하여 기왓장을 택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야말로 숭정의 공명정대한 처사로서, 명(明)의 흥하고 망한 역사는 천고에 둘도 없는 모범이었습니다.”

한다. 내가 이때,

“사해(四海)의 남은 백성들.”

이라고 가는 글씨로 썼더니, 혹정은 얼핏 말하기를,

“청조(淸朝)가 나라를 얻을 때 공명정대했다는 것은, 천지에 대하여 유감이 없습니다. 대체로 국가를 창건한 자가 정권을 잡을 때는 전조(前朝)에 대하여 원수와 같이 대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입국 당초에 큰 은혜를 베풀어 명의 원수를 갚아 준 것은 우리 청조밖에 없습니다. 여덟 살 난 어린아이로서 중국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것은, 생민(生民)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우리 세조장 황제(世祖章皇帝)는 처음에는 천하를 차지할 마음이 없었고, 다만 천하를 위하여 대의를 밝히며, 명(明)의 원수를 갚고 천하 백성을 혈해(血海)와 골산(骨山) 속에서 구해 내려 하였으나, 하늘과 백성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귀순했던 것입니다. 맨 처음 숭정을 따라 죽은 대신 범경문(范景文 명(明)의 명신) 등 20명을 표창했고, 지난해에도 황제는 숭정의 죽음에 관련된 여러 신하들 1천 6백여 명에게 충민(忠愍)·민절(愍節) 등의 시호를 주었습니다. 공명정대하고 강상(綱常)을 올바르게 붙들어 잡은 일은, 삼황(三皇)·오제(五帝) 이래로 이러한 일을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천하를 차지하는 자는, 자기 집안에 부끄러운 일이 없어야만 능히 그 나라를 오래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을미년(1775년) 11월에 내각(內閣)에 내린, 숭정의 죽은 일에 대한 조서(詔書)를 좀 보자고 했더니, 혹정은 밤에 보여 주겠다고 허락하였다. 나는 다시 묻

79 술잔을……욕 : 진(晉) 민제(愍帝) 사마업(司馬業)이 유요(劉曜)에게 항복하여, 청의(靑衣)를 입고 술잔을 돌렸다.

기를,

“앞서 선생이 백이 · 숙제 이전에는 태백(泰伯)과 중용(仲雍)이 있었고, 백이 · 숙제 뒤에는 관숙(管叔) · 채숙(蔡叔)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였더니, 흑정이 미소를 띠면서 대답하지 않기에, 내가 다시 졸랐더니 흑정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의리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쇠를 녹여서 모형(模型)에 붓는 것과 같아서, 쇠 스스로가 무슨 물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형에 따라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또 조개껍질을 보는 것과 같으니, 조개껍질은 일정한 빛이 있기는 하지만 보는 사람이 바로 보고 옆으로 보는 데 따라 그 빛도 각각 다른 것입니다. 동쪽으로 트면 동쪽으로 터지고, 서쪽으로 트면 서쪽으로 터지는 것은,⁸⁰ 다만 물 자체에 있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다시 묻기를,

“물을 격동시켜서 올리면 산 위에까지 올릴 수 있으나, 그것이 어찌 물의 본성이겠습니까.”

하니, 흑정은,

“세상일이란 거꾸로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요. 공자는 말씀하시기를, ‘태백은 세 번이나 천하를 사양했다.’(《논어》에 나오는 말)고 칭찬했지만, 은(殷)의 주왕(紂王)으로 말한다면 그때 아직 뱃속에도 들지 않았을 적이지요, 당시 고공(古公)⁸¹의 일을 여러 제후(諸侯)들의 나라에 비교해 본다면 한 변방의 부庸(附庸 위성국(衛星國))된 나라에 지나지 못하니, 당시의 천하는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할 일이지요, 태백이 과연 누구에게 천하를 세 번씩이나 양보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주자(朱子)는, 계력(季歷)이 아들 창(昌 주 문왕의 이름)을 낳으며 거룩한 덕이 있어, 태왕(太王 고공의 묘호)이 이 때문에 은(殷)을 멸망시킬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지마는, 이는 잘못된 일입니다. 이는 너무 일찍 서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

80 동쪽으로……것은 : 《맹자》 고자(告子)에 나오는 구절로서, 맹자가 고자(告子)와 문답하였던 말.

81 고공(古公) : 주 문왕의 조부 단보(檀父). 고공은 봉호.

니 자기 집안이 창성하는 것을 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망령
되어 분수에 넘치는 일을 바랄 것입니까. 주자는 또 말하기를, ‘이 같은 뜻은 지극
히 공변된 마음에서 나왔다.’고 했으나, 이 역시 잘못된 말이니, 모르기는 하지만
는 지극히 공변된 마음이란 과연 어떠한 마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그렇고 보면,
주(周)가 국가를 창건한 사적에는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겠지마는, 다만 후세에 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공자가 홀연히 태백의 신상(身上)에 대하여 탄복한 것을 본
다면, 주가 국가를 창건할 시초에는 은연히 무슨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뇌공(雷公
뇌신(雷神))이 이에 대하여 주자를 공박한 이론은, 마치 조민(刁民 교활한 백성)들
이 소장을 바친 것과 같습니다.”

한다. 내가,

“뇌공이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모기령(毛奇齡)입니다. 국초의 대가(大家)라 합니다.”

한다. 나는 웃으면서,

“털보 뇌공 말입니까.”

하고 다시 물으니, 혹정은,

“그렇습니다. 또 위공(蝸公 고슴도치)이라고도 부릅니다. 전신이 모두 가시거든
요.”

한다. 나는,

“《서하집(西河集)》을 나도 한 번 얼핏 보았지만, 그가 경전(經典)의 뜻을 고증(攷
證)한 데는 혹 그럴싸한 의견이 없지도 않더군요.”

하고 말하자, 혹정은,

“대단히 망령된 사람입니다. 그의 문장도 역시 교활한 백성의 소장과 같은 점이 많
습니다. 모기령은 소산(蕭山) 사람이어서, 그 지방은 글하는 아전들이 많아 글장난
을 잘하므로, 안목 가진 사람들은 모기령을 지목하여 소산 티를 벗어나지 못했
다고 합니다.”

한다. 나는 또,

“문왕은 태왕의 막내아들의 아들인데, 태왕이 본래 어린 손자가 가룩한 덕(德)이 있음을 보았으니, 아무래도 태왕의 나이가 백 살은 먹었을 것이요, 기(岐)나 옹(雍)으로부터 형만(荊蠻)까지라면 만 리 길이 될 터인데, 백 살된 아버이를 집에만 남겨 두고 만 리 길에 약을 캐러 갔다니, 이야말로 3년 동안 앓는 환자를 위하여 7년 묵은 쑥을 구하는 것(중국의 속담)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는 태백을 보고 지극한 덕을 갖춘 인물이라 하고, 주자는 태왕을 가리켜 지극히 공변된 인물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아무런 충돌도 없는 백이와 태공의 사이와는 같지 않습니다.⁸² 태백으로 본다면 태왕이 지극히 공변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⁸³ 태왕으로 본다면 태백이 지극한 덕을 갖추었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⁸⁴ 성현들이 말씀한, 지극히 은미하고 지극히 정미한 뜻을, 겉만 밝은 얕은 지식으로는 도저히 추측조차 못할 바이지만, 저도 역시 이 사실에는 의심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니, 혹정은,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을 것은 아닙니다. 소자첨(蘇子瞻)은, 다만 외면만 보고 얼핏 무왕을 성인이 아니라고 배척했으나, 이것은 소자첨의 공부가 거칠기 때문입니다. 《논어(論語)》에는 문왕의 지극한 덕을 찬양하여, 천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도 오히려 은(殷)을 섬겼다고 했는데, 그 집주(集注 주희 저)에 보면, ‘형(荊)·양(梁)·예(豫)·서(徐)·양(楊)⁸⁵ 등의 여러 고을은 주(周)로 돌아가서, 은의 주왕(紂王)에게 속한 땅은 다만 청(靑)·연(兗)·기(冀) 등 세 고을뿐이다.’ 했으나, 이는 잘못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천하의 3분의 2라 함은 삼국시대 촉한(蜀漢)과 오(吳)·위(魏)와 같이 서로 정치(鼎峙)함과 같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虞)·예(芮)가 송사를 단념하고 물러간 것과 마찬가지로

82 이것은……않습니다 : 태왕이 막아들에게 왕위를 전하지 않고 문왕을 위하여 끝의 아들에게 위를 전했기 때문에, 태백은 아버지의 처리에 불평을 품은 듯이 아우 하나를 데리고 멀리 출가를 한 부자 사이의 충돌이 있는 듯함이라는 말.

83 태백……것이며 : 막아들인 자기에게 왕위를 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는 것.

84 태왕……것입니다 : 왕위를 계승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그렇다는 것.

85 형(荊)……양(楊) : 중국 고대 행정 구역의 9주(州) 중에 5주의 이름들이다.

지로, 3분의 2가 되는 천하의 인심이 주(周)로 돌아갔다는 것일 것입니다.⁸⁶ 왕망(王莽)이나 조조(曹操) 같은 자들은, 정말 천하의 3분의 2가 되는 땅을 점령하고서는 종주국(宗主國)을 섬기는 예절을 폐기하였지만, 문왕은 진실로 3분의 2가 되는 천하의 인심을 얻고서도 자기란 존재가 있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왕의 죄악을 꼬집어 보지도 않아서, 마치 자제들이 부형 앞에 하듯이 자기 몸을 굽혀 스스로 신하의 도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설자(說者 주희를 말한다)의 말과 같이 정말로 9주(州) 가운데 6주의 땅을 차지하고, 그 세력은 능히 은을 대신하여 천하를 차지할 만하였으나, 일부터 신하의 도리를 지켜 공손하게 몸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의 말과 같다면, 조조 같은 주 문왕을 무엇으로써 지극한 덕이 있었다 하겠습니까. 3분의 2란, 많은 수를 쪼갠 것이요, 그의 지극한 덕행이란, 바로 문왕이 시비를 가리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같은 점을 말한 것이니, 후세에서 말하는 소위, ‘하늘의 뜻과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돌아온들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란 말이 문왕을 두고 한 말입니다. 주자가 그를 무왕보다 낫게 쳐 준 것도 바로 이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볼 때 거북의 등에 털이나 난 듯, 토끼 머리에 뿔이나 돋은 듯이 이상하게 보고서, 세상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큰일을 만들어 보려고 떠드는 자들은, 저 뱀새의 동지⁸⁷나 하수를 마시는 물귀⁸⁸에 지나지 않는 존재일 것입니다. 옛날 세상에도 이러한 학문이 없지 않고 보니, 공자의 태백에 대한 평가도 그리 과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상 태백은 머리를 하늘로 두고 발을 땅에 붙인 한 개의 평범한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태왕이야말로 굳세고 참을성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86 우(虞)……것입니다 : 주 문왕 때에, 우와 예라는 두 나라가 땅 시비를 하여 판결을 하고자 문왕을 찾아갔다가, 주(周)에서는 백성들이 발두령을 서로 양보하는 아름다운 일을 보고, 자신들이 부끄러워서 되돌아와 서로 다투던 땅을 양보하였다고 전한다.

87 뱀새의 동지 : 뱀새가 숲 속에 동지를 지어도 고작 가지 하나를 차지하는 정도라고 한 장자(莊子)의 말을 인용한 것임.

88 하수를 마시는 물귀 : 물귀가 하수를 마셔봤자 고작 작은 배를 채우는 정도라고 한 장자의 말을 인용한 것임.

“《사기(史記)》에는 오자서(伍子胥 오(吳)의 정치가 오원(伍員, 자서는 자)를 군세고 참을성 있는 인물이라 하였고, 장주(莊周)는 은(殷)의 탕왕(湯王)을 뱃심종고 참을성 있는 인물이라 했더군요.”

하고 말하니, 혹정은,

“그렇습니다. 어질고도 사람을 죽일 줄 알고, 예절을 지키면서도 무력을 쓸 줄 알며, 지혜가 있으면서도 물을 줄 알고, 용맹이 있으면서도 머리를 숙일 줄 알며, 신의가 있으면서도 변할 줄 아는 것을 가리켜 군세고 참을성 있는 인물이라 합니다. 성정이 그렇지 않고서는 역시 혁신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또 반란을 바로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대체로 창업(創業)을 이룩하는 자는 갖은 풍상을 겪지 않고서는 하늘을 맑히고 땅을 평정하지 못합니다. 천지의 기운이 뒤바뀔 때는 바람과 서리와 우레와 우박이 없이는 해(歲)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 10월은 곧 천지 자연이 한번 뒤집히는 시절이니 어찌 무서운 변화가 없겠습니까. 주공은 선대의 아름다운 덕을 기술하여 한 편의 신도비(神道碑 죽은 사람의 사행을 기록한 비(碑))를 지었으니, 그 비문에,

영롱한 저 중추월을 님과 함께 구경하였지마는 | 玲瓏共玩中秋月

누라서 간밤에는 빗발이 창을 두들겼다 하는고(작자 미상) | 誰道前宵雨打窓

했습니다. 후세에서 참으로 태양이 천하를 얻는 데 무심했다고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또,

점검이 취해서 전연 알지 못했네(작자 미상) | 點檢醉睡渾不知

라는 말이 어찌 백정이 칼을 갈면서 엽불을 함과 다름이 있을 것이며,⁸⁹

89 점검이……것이며 : 송 태조 조광윤이 천자가 되기 전에 점검(點檢)이라는 군직으로 군막 속에 누워 술에 취해서 자는 동안에 부하들이 그를 임금으로 추대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조광윤은 술에 취해서 이 일을 전연 몰랐다 함을 풍자한 것이다.

침대 밖에 남이 자는 것 허용치 않는데 | 不容榻外他人睡

군막에서 몸가누지 못할 만큼 취해서야 되겠는가(작자 미상) | 肯自營中醉似泥

하였음도 역시 이를 말한 것입니다.⁹⁰ 태백의 지극한 덕은 천하를 양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를 양보한다는 말은 공자가 장래 일을 거꾸로 말씀한 것이요, 그의 지극한 덕이야말로 참으로 백성들이 이렇다고 칭찬해 낼 수 없는 점일 것입니다. 이는 바보가 아니면 귀머거리이니, 그는 전혀 은(殷)의 왕실에 어떠한 악한 천자가 태어날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요, 또 자기 집안에 어떠한 거룩한 성덕(聖德)을 지닌 아이(문왕)가 태어날 것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는 큰 천치가 아니면 바보를 면치 못했을 것이니, 말하자면 우리 태백이 천하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천하가 우리 태백의 이른바 백성들이 이렇다고 칭찬해 낼 수 없는 점을 몰랐던 것입니다. 주자가 그를 문왕보다도 높이 여긴 것도 이 까닭으로 서, 《춘추전(春秋傳 좌전(左傳))》에서는 이르기를, 태백은 태왕의 말을 듣지 않아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다고 했으나 이것은 잘못입니다. 태왕이 이런 것을 가지고 숙덕거리며 모의를 했는데 태백은 이것을 간절히 간(諫)했을 수 있겠는가. 만일 천하로 하여금 이 같은 태백의 행동을 지극한 덕이라고 쳐 준다면, 태왕의 일이야말로 도리어 난처할 것인즉,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한 하늘로 머리 두고 땅에 발을 디딘 평범한 인물이란 이를 말함입니다. 전에 제가 이른바 백이·숙제 이전에는 태백·중옹이 있었다는 말은 다만 《논어》의 집주를 좇아서 한 말이요, 지금 한 말과는 뜻이 다릅니다.”

한다. 나는 다시,

“백이·숙제의 뒤에는 관숙(管叔)·채숙(蔡叔)이 있었다고 한다면, 선생은 또한 장차 관숙·채숙의 덕을 태백에게 비하려 하십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90 침대……것입니다 : 조광윤이 임금이 된 뒤 아직 서북 변방을 평정하지 못한 것을, 자기의 침대 곁에 남의 소리를 듣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로 조보(趙普)와 이야기하는 중에 말했다.

“내가 말씀한 본지(本旨)는 이와 다릅니다. 다만 한(漢)의 국가를 창립한 것이 광명정대하다는 것을 밝혔을 따름이요, 관숙·채숙에게 도리어 지극한 덕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숙·채숙은 은(殷)의 왕실에의 충신이며 문왕의 효자들이라고 일컫는 이가 있으나, 이것이 아무리 꼬부라진 학자들이 세상에 아첨하는데 분개하고, 썩은 선비들이 함부로 남의 말을 따르는 것이 미워서 하는 말이지만, 이런 입론(立論)을 어찌 어그러진 이론이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사람들이 남의 고금 성패의 자취만을 보고, 의리를 굽히고 의리 위에 다른 의리를 덮어 씌워서, 추켜 세울 때는 하늘 위에까지 올려놓고 억누를 때는 땅속까지 파묻는 것을 개탄한 것입니다. 우리 선비들도 역시 종횡(縱橫)하는 습관이 없지 않으니, 억양함이 너무 심한 것도 역시 한낱 종횡입니다. 한(漢)의 건평(建平 한(漢)의 연호)·원시(元始 한(漢)의 연호) 시절에 왕망은 신야(新野)의 밭을 받지 않으니, 관리와 백성들이 대궐 앞을 떠나지 않고 황제에게 왕망을 칭송하는 글을 올린 자가 전후 48만 7천 5백 72명이요, 제후와 왕공과 열후(列侯)와 종실(宗室)들은 안한공(安漢公 왕망이 자칭한 봉호)에게 구석(九錫)⁹¹을 내릴 것을 머리를 조아려 황제에게 무수히 청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정으로 의논한다면, 적의(翟義)·진풍(陳豐)⁹² 같은 사람들은 어찌 주(周) 때의 주공이 모반한다고 유언을 퍼뜨린 관숙·채숙이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관숙·채숙이 성공하여 당시 주공에 대하여 왕법(王法)을 행할 공안(公案)이 성립되었던들, 비록 천수관음(千手觀音)이 있다 하더라도 주공을 역모죄로부터 구해 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왕안석(王安石)의 시(詩)에,

가령 당년에 그 몸이 죽었더라면 | 假使當年身便死

한평생 참과 거짓을 뒤라서 알았으랴 | 一生眞僞有誰知

91 구석(九錫) : 국가의 최고 훈업의 표창으로 아홉 가지의 선물을 내리는 것.

92 적의(翟義)·진풍(陳豐) : 두 사람은 한(漢)의 장수로서 왕망이 모반할 것을 알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실패하였다.

라고, 읊었지마는 그가 쉽게 죽지 않고 보니 성인인지 도적인지를 당장에 판단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천의(天意)가 아니겠습니까.”

하니, 혹정은,

“그것은 형공(荊公 왕안석의 봉호)의 시가 아니라 낙천(樂天 백거이(白居易)의 자)이 지은 것입니다. 주의 왕실은 원래 변고가 많은 집안이요, 주공은 또 비방을 많이 받는 성인입니다. 말(斗)을 쪼개고, 저울을 꺾고, 도적을 풀어놓는다(《남화경》에 나오는 말)는 말은 좀 괴상한 이론이지만, 실로 백대의 폐단이 되는 근원을 밝게 비춰 준 말입니다. 공자는 《춘추(春秋)》를 지은 뒤에 말씀하기를, ‘나의 공적을 아는 것도 《춘추》이며 나의 죄과를 아는 것도 《춘추》이다.’(《논어》에 나오는 말)라고 하였으니, 이로 보아 주공의 제작한 제도들도 장래에 어떤 화근이 되리라고 스스로 상심했을 것입니다. 근세에 먹을 만드는 자는 모두들 담성규(詹成圭 청(淸)의 제목가)를 본떠서 만들고, 바늘을 만드는 자는 대체로 이공도(李公道 청(淸)의 제침가)의 이름을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⁹³ 당 태종(唐太宗)은 제 환공(齊桓公) 노릇을 한 번 해 보고자 하여 갑자기 관이오(管夷吾)와 같은 인물을 구하려 하였을 때에, 위징(魏徵)은 천하의 간사한 인물⁹⁴로서 그 앞에 소리를 응하여 ‘예이’ 하고 긴 대답을 하며 나타나 얼굴을 마주 대고 딱 버티고 서서, ‘관중(管仲)이 여기 왔습니다.’ 하고 나선 셈입니다. 이런 때 누가 묻기를, ‘너 관중은 어찌서 공자(公子) 규(糾)와 함께 죽지 아니하였는가.’⁹⁵ 한다면 위징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성인이 나에게 죽지 말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또 묻기를, ‘어떤 성인이 너를 살려 주더냐.’ 하면, 위징은 노 나라의 공 부자인데, 그는 다문박식한데다가 지공혈성(至公血誠)을 지닌 성인으로서 만세에 사표가 되어, 말 한 마디 땅에 떨어

93 근세에……같습니다 : 모두 주공과 공자를 떠멘다는 의미이다.

94 위징(魏徵)……간사한 인물 : 위징은 본시 당 태종의 형인 건성(建成)의 부하로서 후일의 태종이 된 이 세민을 죽여 없애라고까지 권고한 일이 있었으나, 뒤에 당 태종이 황제가 되자 이 원한을 덮어 두고 그를 등용하여 유일의 협조자가 되었다.

95 너 관중……아니하였는가 : 관중은 애초에 제 환공의 아우 규(糾)의 부하로서, 제 환공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으나 그 뒤 규가 죽은 뒤에 도리어 제 환공을 도와서 대업을 이루었다.

저도 금이 되고 돌이 되어,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고 세상에 세워져 어긋남이 없으며, 이후 백대의 성인을 기다려도 틀림이 없을 것이요.’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또 공자가, ‘어찌 너를 죽지 말라고 허락했을 것인가.’ 하고 물으면, 위정은 소리를 높여 긴 소리로 옮기며, ‘어찌 성명 없는 평범한 지아비와 지어미의 신의를 지키는 버릇과 같이 개울 속에서 목매어 죽어, 아무도 알 바 없는 신세가 되리요⁹⁶ 했으니, 이것이 어찌 중니(仲尼 공자의 자)가 나를 죽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리요.’ 할 것이니, 이것은 비단 위정이 스스로 해석하였을 뿐 아니라, 실은 당 태종에게 붙어서 아침으로 한평생을 지낸 수단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그 동네의 보장(保正)으로 하여금 그의 네 이웃에다 통문이라도 돌렸다면 하후영녀(夏侯令女)가 아마도 귀를 베지 않았을 것입니다.”⁹⁷

한다. 나는 다시,

“위정에게 소백(小白 제 환공의 이름)은 형이요 규(紆)는 아우가 아닌가. 또 관중은 규의 올바른 신하도 못 되지 않았던가 하고 물어 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그렇습니다. 위정은 진왕(秦王 이세민이 천자가 되기 전의 봉호) 세민(世民)과 함께 모두 당(唐)의 태자인 건성(建成)의 부하였습니다. 위정의 신분은 원래 도사(道士)로서 허망한 도를 믿었습니다. 그의 십점소(十漸疏)는 아주 친절하게 깨우치는 것 같지마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천고에 중보(仲父 관중)가 죽을 리가 전혀 없으니, 정관천자(貞觀天子 당(唐) 태종. 정관은 그의 연호)도 모름지기 나 같은 시골뜨기를 죽일 까닭이 없으리라고 생각했으리이다. 그리하여 임금과 신하가 거간꾼이나 장사치의 노름으로 상하 없이 공리(功利)만 추구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고금의 성패에 있어 한 개의 단안(斷案)이었습니다. 성패라는 두 글자는 선비들의 입으로는 형용 못할 글자였으며, 오히려 제후(諸侯)의 집에 인의가

96 어찌……되리요 : 공자가 관중이 공자 규와 함께 죽지 않았음을 옳다고 변명하여 한 말. 《논어》 현문편(憲問篇)에 나온다.

97 하후영녀……것입니다 : 조위(曹魏) 때 열녀(烈女). 하후는 성이요, 영녀는 이름. 개가지지 않기 위하여 처음에는 머리를 깎고, 다음에는 두 귀를 베었다.

붙여 있을 뿐이요, 《제범(帝範)》⁹⁸의 한 편 글은 다만 요(堯)를 본뜨고 순(舜)을 꾸몄을 뿐입니다. 우리 선비들이 말하는 바 천명(天命)이란 것은 기수(氣數) 두 글자를 벗어나지 못했으니, 이 기수란 것은 역시 성패의 행적만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항상 말하듯이 하늘이 임금의 지위를 주고 인심이 저절로 돌아온다는 말은 한낱 거짓말이니, 예로부터 역리로 취하여 순리로 지키는 자 어느 누구를 천명이 돌봐주지 않았으며, 후직(後稷 중국 고대에 농사를 관장하던 관리)의 농사짓는 법으로 사람들이 지극한 도움을 받는 바에야 어느 귀신이 제향(祭享)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고 보니 날마다 한(漢)의 백성들이 왕망의 공덕을 찬송함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우(虞)의 귀신이 진(晉)이 주는 음식이라고 토했다(《좌전》에서 나온 구절)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혹정의 이 말은 속으로 무엇을 지목하는 점이 있는 것이요, 그저 역대를 평범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그는 매양 청(淸)의 창건한 것이 정당하다고 말끝마다 외고 있으나 그래도 이야기할 때는 때때로 자기의 본정을 탄로했으니, 특히 역대 왕조의 역순과 성패의 자취를 빌려서 이리저리 자기의 회포를 표시한 것이다.)

한다. 나는 다시,

“다만 운수로만 미룬다면 세상에 손댈 데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성인들은 천명이란 말을 자주 하지 않았으니, 이는 세상을 위하여 가르침을 세우는 데는 이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 바람이 등왕각으로 보내고⁹⁹ | 時來風送滕王閣

운이 가면 천복비에 벼락이 친다네¹⁰⁰ | 運去雷轟薦福碑

98 《제범(帝範)》: 당 태종이 지은 책으로 제왕들이 지킬 도리를 서술하였다.

99 때가……보내고: 등왕각은 강서성에 있는 유명한 정각. 당의 문화가 왕발(王勃)이 등왕각에서 열리는 문회(文會)에 당기가 어려웠을 때 바람이 배를 휘몰아서 마당(馬當)에서부터 남창(南昌)까지 하루에 도달하여, ‘등왕각시서(滕王閣詩序)’를 짓고서 이름을 드날렸다.

100 운이……친다네: 범중엄이 요주(饒州)에 있을 때에 어떤 서생 하나가 가난에 시달려서 천복사 비문을 박아서 팔려고 하니, 범중엄이 천본을 박을 종지와 먹을 준비하였는데, 하루저녁에 벼락이 천복비를 쳐서 부수었다. 묵객휘서(墨客揮犀)에서 나온 이야기.

라 하였으니, 세상 일이란 도시 때가 오고 운이 가고에 있나 봅니다.”

하니, 혹정은,

“그렇습니다. 소위 운수가 터진 인재(人才)는 하늘을 대신할 수 있다는 말이 그것입니다. 세상을 교화하는 것으로 본다면 비록 순리라고 할 것도 천의(天意)로서 보면 도리어 흠이 되고 반대로 어그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지마는, 바야흐로 일어나려 하는 이에게는 왕패(王霸)¹⁰¹가 거짓말로 얼음이 굳게 얼었다고 하였으나 하늘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따라 주었고,¹⁰² 지성을 들어 기도를 하더라도 반드시 원대로 들어주는 것이 없건마는, 나라가 망할 적에는 장세걸(張世傑 송(宋)의 충신)이 분향을 하면서 하늘에 빌던 대로 들어맞았습니다.¹⁰³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제때에 우는 닭 울음인데,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의 봉호)이 호구(虎口)를 벗어나게 하려 하여, 한 사람이 울음 소리를 내자 닭이란 닭은 모조리 따라서 울었습니다.¹⁰⁴ 천하에 틀림없는 것은 조수(潮汐) 같은 것이 없지마는, 송(宋)의 왕조가 더 버티지 못하게 되니, 전당(錢塘)의 조수(潮水)가 사흘 동안을 들지 않았습니

101 왕패(王霸) :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의 장수. 자는 원백(元伯). 어떤 본에는 후패(侯霸)로 되었으나 그릇된 것이다.

102 하늘은……따라 주었고 : 광무제가 왕랑(王郎)의 군사를 피하여 호타하(滹沱河)로 향할 때 왕패로 하여금 물을 건널 수 있겠는가를 보게 하였다. 왕패는 거짓으로 얼음이 얼었다 하였더니 군사가 그곳에 이르자 얼음이 과연 얼었으며, 건너자 곧 풀어졌다 하였다.

103 나라가……들어맞았습니다 : 장세걸이 몽고군에게 몰려 남해로 쫓겨 가면서도 송의 왕통을 유지하고자 혈육을 두 번이나 추대했으나 다 죽고, 세걸은 필경 경애(瓊崖)로 도망가는 길에 또 모진 태풍을 만나 하늘을 향하여 분향하면서 외치기를, 또 한 번 더 조씨의 왕통을 세워 보겠는데 하늘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거든 내가 탄 배를 얹어달라고 했더니, 말대로 바람이 당장에 배를 얹어버려서 세걸은 물에 빠져 죽었다 한다.

104 세상에서……울었습니다 : 맹상군이 진(秦)에 갔을 때 소왕(昭王)이 죽일 것을 알고 밤중에 도망하여 함곡관(函谷關)에 이르렀으나, 관문을 열 시간이 안 되었으므로 그의 문객 하나가 닭울음 소리를 내자 여러 닭이 다 울어서 관문이 열렸다 한다.

다.¹⁰⁵ 흥하고 망하는 판에는 귀신의 조화조차 거짓과 진실이 서로 엇갈리며 성실과 흘계가 함께 섞여져, 어느 사람이 천하를 얻게 될 때에도 하늘은 반드시 즐겨한 바 아니지만 자기만을 공교로이 도와주는 것 같고, 또 어느 사람이 천하를 잃게 될 때에도 하늘은 반드시 미워하지 않건마는, 잔인하고 흉악하기가 깊은 원수에게 하듯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우리나라 패륙(貝勒) 박락(博洛)이 군사를 거느리고 절강(浙江) 군사를 강 언덕으로 옮기는데 이때도 조수가 연일 들지 않았답니다.”

한다. 나는 또 물기를,

“중국에서 말하는 소위 섭정왕(攝政王)은 누구를 이른 것입니까.”

하니, 혹정은,

“이는 예친왕(睿親王)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의 휘(諱)는 다이곤(多爾袞)인데 우리 청(淸)의 주공(周公)이지요. 순치(順治) 원년(1644년) 4월에 ‘예친왕’이란 왕호를 주고 황제 앞에서도 수레를 타고 일산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내렸습니다. 성경(盛京)으로부터 대군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영원(寧遠)을 향하여 진군할 때에 이자성(李自成)이 벌써 북경을 점령하게 되자, 평서백(平西伯) 오삼계(吳三桂)는 우리 군사를 맞아서 산해관으로 들어오게 하여 원수를 갚고 흥적을 물리쳤습니다.¹⁰⁶ 예친왕이 관민들에게 유시(諭示)를 내려, 흥적만 잡을 뿐이요 백성은 살해하지 않고 함께 태평을 누리겠다는 뜻을 발표하니, 백성들은 모두 기뻐하였습니다. 5월에 예친왕이 조양문으로 나가는데 그가 탄 연(輦)은 명(明)의 노부(鹵簿 천자가 거동할 때 쓰는 의례)의 절차를 차리고 명의 문무 백관의 조회를 무영전(武英殿)에서 받았습니다.”

한다. 나는 또,

“이때는 천하를 도시 예친왕이 얻은 셈인데 어찌해서 자신이 천자가 되지 않았을

105 천하에……않았습니다 : 송말에 원(元)의 군사와 싸울 때 전당의 조수가 뜻밖에 사흘 동안이나 들지 않아서 송에게 불리하였다.

106 성경(盛京)……물리쳤습니다 : 이자성 때문에 자살한 송정 황제의 원수를 갚았다는 말.

까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이런 까닭에 우리 청조(淸朝)의 주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당시의 형편으로서도 역시 그렇게 하지 못할 내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친왕(親王)들은 하나하나가 모두英勇하고 호걸스러웠습니다. 우리 세조(世祖)는 9월에 북경으로 들어갔는데, 당시 밖으로는 강 원편이 평정되지 못했으나 안으로는 종실(宗室)의 어진 신하들이 보좌(輔佐)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다시,

“당시의 여러 친왕들 중에는 공덕으로 보아 섭정왕(攝政王) 같은 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열성실록(列聖實錄)》이 아직도 국내외에 두루 퍼지지 못했으니 응당 선생께서 모르실 것입니다. 명이 망한 뒤에 복왕(福王 명(明)의 신종(神宗)의 손자)은 강녕(江寧)에서 ‘천자’라 일컫고 연호를 고쳐 ‘홍광(弘光)’이라 하였습니다. 순치(順治) 2년(1645년) 5월에 예친왕(睿親王)은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으로 내려가 이긴 기세로 강을 건너 강녕까지 바로 이르렀습니다. 복왕은 무호(蕪湖)로 달아나 숨었다가 6월에 총병(總兵) 전용(田雄)과 마득공(馬得功)에게 잡혀서 항복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다시,

“예친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다탁(多鐸)이라고 하는데, 그의 영무(英武)스러운 점은 예친왕(睿親王)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영친왕(英親王)의 이름은 아제격(阿濟格)으로 이자성을 추격하여 토벌했고, 숙친왕(肅親王)은 장헌충(張獻忠 명(明)의 역신)을 손수 쏘아 죽여서 통쾌하게 여러 사람의 설분을 했습니다. 숙친왕의 이름은 호격(豪格)인데 모두가 하늘이 세운 것이니 누가 감히 당해낼 것입니까.”

한다. 나는 또,

“복왕(福王)이 만일 마사영(馬士英 명(明)의 역신)의 무리들을 물리치고 사가법(史

可法 명(明)의 충신) 같은 어진 사람들을 믿었던들, 강남(江南)의 땅을 어찌 대대로 지켜내지 못했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이 위연(喟然)히 탄식하고 하는 말이,

“하늘이 폐한 것인데 누가 다시 일으켜 주겠습니까. 그의 행적을 보면 전날의 유왕(幽王 주(周)의 폭군) · 여왕(厲王 한(漢)의 폭군) · 환제(桓帝 한(漢)의 용주(庸主)) · 영제(靈帝 한(漢)의 용주(庸主)) 등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습니다. 예친왕(睿親王)은 사가법에 보낸 글 속에 《춘추(春秋)》의 대의를 이끌어 임금의 죽임을 당했는데, 역적을 토벌하지 않고 새 임금을 세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책망하며¹⁰⁷ 또 말하기를, 역적이 쳐들어 와서 나라의 부모를 죽였건만 중국의 신민들은 활촉 한 개도 쏘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정은 목은 혐의를 없애버리고 군대를 갖추어 흉적을 소탕하여 천하를 위하여 임금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먼저 예절을 갖추어 회종(懷宗)과 황후를 장사지냈고 국가가 수도로 정한 북경은 이 자성으로부터 얻은 것이요, 명으로부터 빼앗은 것은 아니니 마땅히 존칭을 깎아버리고 번국(藩國)이 되어 길이 복을 누릴 것이니, 그리하면 조정으로서는 우빈(虞賓)으로 대접할 것이라 하였더니, 사가법의 답장에는, 국가는 없어지고 임금은 죽으니 사직(社稷)이 중한지라 금상(今上)을 맞아 임금으로 세우니, (혹정이 자기 스스로 주를 내기를, 명의 복왕(福王)이라 하였다.) 실로 하늘이 준 바요, 인심이 귀순하였습니다. 전하(殿下)가 수도에 들자, 우리 황제 · 황후를 위하여 발상(發喪)을 하고 복을 입게 되니, 무릇 대명(大明)의 신자된 자로서 누가 감격하여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 않으리요. 그런데 이에 《춘추》를 이끌어 내어 정통(正統)의 대의를 모르는 자와 같이 힐책을 하려 하니, 장차 무엇으로 인심이 거칠어져 가는 것을 붙들 수 있겠습니까. 왕망(王莽)이 한(漢)의 제위를 빼앗았을 때 광무(光武)가 중흥하였고, 조비(曹丕)가 산양(山陽 한(漢) 헌제(獻帝)의 폐위된 뒤의 봉호)을 폐하자 소열(昭烈)이 제위를 밝게 되었고, 회제(懷帝 진(晉)의 임금) · 민제(愍帝 진(晉)의 임금)가 북방으로 달아나자 원제(元帝 진(晉)의 임금)가 대를 이었고, 휘종(徽宗) · 흠종(欽宗)이 몽진(蒙塵)하자 강왕(康王 남송의 임금)이 위를 이었으니, 이는 모두 나라

107 예친왕……책망하며 : 숭정제를 자살하게 한 이자성을 토벌치 않았다는 의미다.

의 원수를 갚기 전에 국가의 위호를 바로잡은 것으로서 주자도 강목(綱目) 속에 이것을 커다랗게 쓰고 그러다고 배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황제(건륭 황제)가 친히 쓴 글 한 편 속에 그 시비를 바로잡았고, 또 황제가 비정(批定)한 《통감집람(通鑑輯覽)》은 극히 공평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북왕이 조금이나마 뜻을 분발하여 무언가 해 보려고 하였으면 송 고종(宋高宗)처럼 남쪽으로 건너가서 한 쪽에서라도 편안히 있었을 것인데, 드디어 마(馬 마사영(馬士英))·완(阮 명(明)의 역신 완대무(阮大鍼)) 같은 간당(奸黨)을 임용해서 옳고 그른 일이 거꾸로 되어 버렸는데, 비록 사가법이 혼자서 애써 고충(孤忠)을 기울여 보아도, 한 나무로 큰 집을 떠받들 수 없는 격이 되고 보니 황제의 이 유고(諭告)야말로 가히 천지와 더불어 같이 크다 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패하고 흥하는 일에 운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으니 이것을 어찌할 것입니까.”

했다. 나는 다시,

“사가법의 편지에는 또 귀국은 일찍이 명으로부터 봉호(封號)를 받게 되고 [나도 역시 스스로 주를 내기를, 귀국의 두 글자는 원서(原書)에는 지금 청(淸)을 말함이라고 했다.] 이제 난역(亂逆)을 몰아 쫓아 없었으니 가위 대이라 할 것인데, 이에 도리어 강토를 규정함으로써 덕을 끝까지 다하지 못하고 말았으니, 이런 것을 일컬어 의리로써 시작했다가 이해로써 끝을 낸다는 것이다 했으니, 이 글이야말로 일월과 더불어 밝은 빛을 다룰 만할 것입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깜짝 놀라면서,

“공(公)은 외국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글을 읽어 보셨습니까.” [이 두 편 글은 모두 이현석(李玄錫)의 《명사강목(明史綱目)》에 실려 있는 바 혹정의 짐작으로는 나를 외국인이라 하여 응당 명·청 사이의 일을 자세히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으므로 사가법의 답서를 모두 말한 뒤 그 하단(下段)에, 일찍이 봉호(封號)를 받았다는 등의 말에 주석(註釋)을 달았다. 그의 뜻으로는 섭정왕이 관내(關內)에 들어온 일을 국가끼리 서로 재난을 구해주듯 했으므로, 나는 계속해서 그 글을 외운즉 혹정은 내가 이 글을 갖추어 아는 것에 놀란 것이다.]

한다. 나는 또,

“사공(史公)의 이 글도 역시 금서(禁書)에 드는가요.”

하고 묻자, 혹정은,

“금서가 아닙니다. 황제가 손수 여러 편 글을 편찬하면서 이 글을 뽑아 실었습니다. 우리 청조(淸朝)의 관대하고도 숨기지 않은 점은 전대에도 듣지 못하던 일입니다.”

한다. 나는 또,

“이 두 글은 어느 편이 의리가 옳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빙그레 웃으면서,

“서로들 《춘추(春秋)》를 이끌어서 말했으나 그 《춘추》도 썩은 지 벌써 오래인지라, 모두들 하늘의 명수(命數)라 하니, 하늘이 순순(諄諄)히 말하는 것(《맹자》에 나온 말)을 누가 들었나요.”

하고는, 이내 지워 버린다. 나는 또,

“예친왕(睿親王)이 죽은 뒤에 무엇 때문에 그 집 재산이 모두 몰수되었나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손을 흔들면서,

“말을 하자면 길어집니다. 이는 치효(鴟梟)의 시(詩)¹⁰⁸를 짓게 된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정자(程子)가 일컫기를, 금등(金滕)¹⁰⁹은 근세의 축문(祝文)과 같은 것으로 태워서 땅에 묻는 법인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등에 간수하였다(《이정전서(二程全書)》에 나오는 말) 하여, 공교롭게도 주공의 고사(故事)에 맞추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신비(李宸妃)의 수은(水銀) 염습도 역시 한 가지 금등이 될 것입니다.¹¹⁰

108 치효(鴟梟)의 시 : 《시경(詩經)》의 장명(章名). 주공이 주의 동쪽 나라에 있을 때, 모반을 한다는 풍문을 지어낸 자들이 있으며, 주공 자신이 치효라는 새에 의탁하여 성왕에 대한 충성심을 읊은 것이다.

109 금등(金滕) : 《서경(書經)》 주서(周書)의 편명. 무왕이 병이 들었을 때 주공은 자기 몸을 희생하였다고 제관이 되어 축문을 지어 읽고는 그것을 금등으로 된 껍질 속에 간직해 두었더니, 그 뒤에 주공을 모함하는 소문이 돌자 등도에 피신해 있을 동안 성왕은 껍질 속에 든 축문을 내어 읽어 보고, 주공의 애매함을 알고서 주공을 다시 맞아들였다.

110 이신비……것입니다 : 이신비는 본시 송 진종 황후의 시비로서 진종의 폐임을 받아 아들을 낳은 것이 곧 인종이었으므로 황후는 그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이신비에게 비밀을 지키도록 하여 비빈 중에 두었더니 이신비가 급질로 죽자, 이 내용을 안 어느 신하가 황후가 모르게 황후의 예식으로 수은 염습을 하였던바, 황후가 죽은 뒤에 인종은 그가 자기의 생모임을 알고 통곡을 하면서 관을 쪼개어 보니 산 사람같이 황후 복색을 하고 있었다 하였다.

화림(華林)에서 나는 개구리 울음 소리는 공(公)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까, 사(私)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까.¹¹¹ 대체로 세상을 교화하기 위한 언론이란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저마다 제 들은 것을 제일이라 하여 이를 정당화시킵니다. 송의 사대부들은 이학(理學)을 말하기 좋아하지만 그 중에는 마음을 불교(佛敎)에 붙이는 자도 있고 도교(道敎)를 공행(躬行)하는 자도 있어, 21대의 전사(全史)는 모두가 연의(演義)한 것이요, 13경(經)의 주소(注疏)는 태반이 억지로 모은 글이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말은 대개가 모두 우언(寓言)입니다. 이같이 구구하게 얻은 지식이란 위로는 임금에게도 바칠 수 없고, 아래로 사손들에게도 가히 전할 수 없으며, 옆으로 동창(同窓)들에게 억지로 변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 늘은 해상(海上)으로부터 오신 이인(異人) 연암을 가리킨다(을 만났으니, 죽는 날까지 또 다시 만날 기약이 없으며 어찌 나의 충성인들 쫓구치지 않겠습니까.”

하고는, 산연(潸然)히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크게 웃더니,

“소요부(邵堯夫 소옹(邵雍). 요부는 자)는 매사에 사주(四柱)를 풀이하는 식으로 하였으니 정말 몹시도 막힌 사람이지요.”

한다. 나는,

“이를테면 분(盆)을 사면서 그것이 성한지 깨졌는지를 점검하지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춘(春) · 하(夏) · 추(秋) · 동(冬)과 인(仁) · 의(義) · 예(禮) · 지(智)와 황(皇) · 왕(王) · 제(帝) · 패(伯)와 금(金) · 목(木) · 수(水) · 화(火) 등 그의 학술이란 아무런 활기(活機)가 없고 정밀한 듯하면서도 거칠었기 때문에 주자는 그를 장자방(張子房)에게 따를 수 없다(《주자대전》에 나오는 말) 하였고, 또 그의 학문에는 간웅(姦雄)의 수단이 있어서 장주(莊周)보다 10배나 못하다(《주자대전》에 나오는 말) 하였으니 주자의 밝은 안목 앞에는 도망할 수 없었습니다. 주자는 장주를 평하여 그가 이치의 본질을 말한 것은 매우 좋은 의논이요, 그의 명분(名分)과 의리는 후세의

111 화림……것입니까 : 진 혜제(晉惠帝)가 화림원(華林園)에서 개구리 소리를 듣고 좌우에서 이 개구리의 울음이 관을 위한 것인가 사를 위한 것인가 하였을 때, 시중 가윤(賈胤)이 대답하기를, 관지에 있는 높은 관을 위할 것이요, 사지에 있는 높은 사를 위해 울 것입니다 하였다.

유학자들이 미치지 못할 바라(《주자대전》에 나오는 말) 하였으니, 이는 주자의 공변되고 밝은 점입니다.”

한다. 나는 다시,

“천지간에 가득찬 만사와 만물이 주자의 감정(勘定)이 아니면 위조물을 면하지 못했을 테지요.”

하고 물었더니, 혹정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그러면 주자의 뒤에 난 자는 모두 흙이나 나무로 빚어 놓은 형해(形骸)랍디까. 주자야말로 진량(陳亮 송(宋)의 학자)의 말을 지나치게 듣고 보니 당중우(唐仲友 송(宋)의 학자)는 너무 혹독한 탄핵을 당했던 것이며(주희의 탄핵으로 파면되었다), 《통서(通書 주돈이(周敦頤) 저)》를 잘못 해석하고는 사국(史局)의 주장을 반대하는 글을 꾸며대어 속이는 감이 있었으니, 소위 무극이태극(無極而太極)이라(《통서(通書)》에 나오는 구절)는 구절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만큼 한 붓으로 흐려버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말하기를,

“귀국의 문교(文教)는 사해에 퍼져 우리나라도 동쪽으로 미쳐 오는 교화를 입고 있지마는 중국과 외국이 다르고 보니, 국가를 창건하는 규모라든지 전수하는 심법(心法) 같은 것은 얻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로서는 글자가 같은 땅에 사는 터에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하였더니, 혹정은,

“나라를 세우는 규모란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오제(五帝)는 음악이 모두 다르고 삼왕(三王)은 예절이 모두 다르니 하(夏)는 충성을 숭상하고 은(殷)은 질박(質朴)한 것을 숭상하며, 주(周)는 문명(文明)을 숭상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니, 혹정은,

“그 원인을 살펴 본다면 비록 백세 동안이라도 그 손익(損益)을 알 수 있을 것(《논어》에 나오는 말)이니, 옛날 사람은 천하를 두고 금항아리에 비했지마는 오늘의

금항아리는 잘 익은 수박과 같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금항아리는 흠집이 나지 않지만, 수박은 깨어지기 쉬울 걸요.”

하였더니, 흑정은 손을 흔들면서,

“아니지요. 수박이란 겉은 푸르고 속은 누르며, 씨가 많고 맛이 시원하여 말하자면 천하를 천하 속에 간직함 셈입니다. 전조(前朝) 때 반란 사건을 증험해 보건대 빈민(貧民)을 구제하는 정책도 지극하지 않은 것이 없어 밖으로는 삼왕(三王)을 겸하고, 안으로는 이교(二敎 유불(儒佛))를 펴서 천하의 사대부를 몰아다가 문교와 명분 속에 모아 두었으므로 하찮은 백성들은 저마다 본래의 직분을 지켰습니다. 전대에 있어서 근본을 강하게 하고 지엽(枝葉)을 약하게 하는 정책이란 큰 도시를 점령하고 호걸들을 죽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전(田)·굴(屈)·소씨(昭氏)를¹¹² 관중(關中)으로 옮길 뿐이었고, 그들을 어루만져 안도시키는 수단을 몰랐지만, 오늘의 청조(淸朝)는 문모(文謨)와 무열(武烈)이 정비되어 전대보다 훨씬 훌륭하고 유학을 떠받들어 오로지 중국 땅에 퍼져 은연중 호걸들의 온당치 않은 마음을 녹이고, 봉지(封地)를 넓혀 외번(外蕃)들에게 두루 나누어 오랑캐들의 겸병(兼并)하는 세력을 쪼개고, 만주(滿洲)를 억눌러 군사와 국방에 관한 일을 맡김으로써 황제의 근본되는 기지를 튼튼히 하고, 치수(治水)하는 공사를 자주 착수하여 천하에 별별 야릇한 재주를 가진 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서 놀고 먹는 무리들을 위로(慰勞)하면서 삼가 몸을 바로잡아 황제의 행정(行政)을 할 뿐이니 세상일이 어찌 인위적인 사려(思慮)로 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요·순은 의상(衣裳)만을 드리우고 있어도 천하가 잘 다스려진 것은 자연의 섭리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대개 천하를 차지하고 통치를 할 때에는 백성이란 따라오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일이 알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니(《논어》에 나오는 말), 이는 요·순의 뜻인데 공자가 부연하였고, 진인(秦人 진 시황(秦始皇))이 실천한 것입니다.”

한다. 나는,

112 모든……소씨(昭氏)를 : 전씨는 제(齊)의 이름 높은 성이요, 굴씨와 소씨는 초(楚)의 이름 높은 성이다.

“또 이것은 기이한 의논이군요. 그 말을 들려 주십시오.”

하고 말하니, 혹정은,

“발 갈고 썸 파는 것이 분수를 따를 뿐이니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말은, 요(堯)가 미복(微服)으로 강구(康衢)에 나가서 들었을 때 속으로 슬며시 기뻐했던 점ियो, 공자가 위(衛)로부터 노(魯)에 돌아와 시(詩)·서(書)를 산정(刪正)하고 예(禮)·악(樂)을 바로잡은 것은 당시 세상 형편으로는 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봉건(封建)을 깨우치고 정전법(井田法)을 없애고, 시·서를 불사르며 선비들을 산 채로 파묻은 노릇은 천하를 통일하는 천자로서 크게 한 번 함직한 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제왕들은 자기의 덕을 요·순에게 비하면 기뻐하고 진 시황에게 비하면 성화를 내지만, 요·순을 배운 자가 있단 말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 시황의 사업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면서 한 시대의 천자로서 천하에 명(命)을 내려서 이것은 요·순의 사업이니 이를 실천할 것이요, 이것은 망한 진의 사업이니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듣지 못했으니 13경과 21사의 어디를 뒤져 보아도 이와 같습니다. 재상(宰相)을 소하(蕭何)나 조참(曹參)에게 비하면 감당할 수 없다고 표정을 하면서도 상양(商鞅)이나 이사(李斯)에게 비하면 잡아 먹으려 들지만 소하·조참과 방현령(房玄齡 당(唐)의 명상(名相))·두여회(杜如晦 당(唐)의 명상(名相)) 등은 한때 이름 높은 재상으로 쳐주는 자들이지만, 그들은 상양이나 이사의 죄인들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상양이나 이사 같은 자들은 오히려 공(公)을 앞세우고 사(私)를 막아 아래 위가 서로 믿게 되었지만, 그들의 공렬(功烈)을 저토록 적게 평가하는 것은 단지 그들의 학문이 유학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뿐입니다. 소하·조참은 원래 죄를 줄 만한 학문을 가지지 않아 겨우 자기 몸만 빠져 죄를 면했을 뿐입니다. 대체로 임금에게 잘 보이면 백성에게 인심을 잃고, 백성의 마음에 맞게 하면 임금에게 의심은 사는 법이니, 한 시대의 임금을 도와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령을 매어 두고 난간을 막아 두어 손 한 번만 실수하면 넘어져서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하였다.

윤형산(尹亨山)은 반중(班中)으로부터 나와서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소로 왔

다. 나와 흑정은 모두 의자에서 내려서 윤공에게 공손히 읊을 하였더니, 윤공은 바쁘게 나를 붙들어 의자에 앉히고 품속으로부터 담배통을 꺼내서 보이는데 그것은 붉은 만호(璚瑚)로 만든 것이다. 윤공은 또 품속에서 누런 보자기로 짠 색다른 비단 두 필을 꺼내어 나에게 보이는데 흑정은 연달아 황제께서 주신 것을 축하한다. 윤공의 기쁜 빛이 얼굴에 가득해 보인다. 그 한 가지는 아청빛 우단(羽緞)에 복숭아꽃을 수놓은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고동색 운문단(雲紋緞)에 금실로 신선과 부처를 수놓은 것이다. 이때 형산(亨山)은 바쁘게 우리가 이야기한 초지(草紙)를 훑어 보더니 곧 붓을 들어 쓰기를,

“건문 황제(建文皇帝)가 대궐 안에서 자기 명에 죽었다는 것은 본래 이런 일이 없는데 왕 선생(王先生)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한다. 흑정은,

“의심나는 것을 전하는 것도 역사가(歷史家)의 한 체제이지요.”

한다. 나는,

“오량(吳亮)¹¹³이 산적을 던졌던 고사는 어째서 참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흑정은,

“진실로 전배(前輩)들의 길고 짧은 변론들이 많지만 꼭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이 만일 참말일 때에는 어찌 천고에 기이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백룡암(白龍菴)의 고사(출처 미상)도 비록 이락와피(籬落臥披 갈현(葛玄)의 신선전(神仙傳)에서 나온 이야기)와 같은 글에 들지만, 역시 이것도 망사대(望思臺 당(唐) 무제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여 지었다) 내력과 같은 것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날날의 붓끝마다 솟아 오른 피는 | 筆筆心頭血

한 점만 떨어져도 천지에 물드누나(작자 미상) | 一落染天地”

나는 다시,

113 오량(吳亮) : 네 사람의 같은 이름이 있으니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사중빈(史仲彬 미상)의 《치신록(致身錄)》도 역시 후세 사람들의 모방해 지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그 책에는,

패물만 쓸쓸히 혼과 함께 달밤에 돌아왔네 | 環佩空歸月夜魂

해마다 접동새는 동청수에 우지시네 | 年年杜宇哭冬青

라고 읊었는데, 이는 애태우는 사람들의 괴로운 실정일 것입니다.”

한다. 형산은,

“어제 왕 선생의 말에 한(漢)의 창업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덕이 없었으므로 능히 예약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호령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조정에서 우레같이 움직이고 바람처럼 행할 때는, 그 어진 소리가 미치는 곳에 사방 억조의 백성들도 모두 그 득실을 판단해 낼 수 있지만, 그들의 안방에서 벌어지는 사생활로서 은밀한 행동과 조그마한 행실쯤은 바깥 사랑방에서 알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진 종실(宗室)에 하간현왕(河間獻王) 같은 이가 있어 이 같은 사실을 노래로 읊어 서술하고, 또 묘하게 능히 음률을 살핀 뒤에야 그 덕행(德行)에 맞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소위 금슬(琴瑟)이 맞으니 사시가 평화롭고 율려(律呂)가 골라서 만물이 통합된다는 것입니다. 한(漢)의 악가(樂歌)로서는 안세(安世)·방중(房中)이 가장 근사하다고 하지만, 혼자 한 환관(宦官)의 다리를 베고 누워서 미양궁(未央宮)의 서까래를 쳐다보고 헤아린다는 것¹¹⁴은 옛날 원수(元首)가 줌스럽다는 노래(《서경》에 나온다)와 큰 바람이 일어 남이여¹¹⁵라는 씩씩한 모습이 땅에 떨어진 셈입니다. 심지어 벽양(辟陽)의 수치는 바깥 세상에도 숨기기 어려운 일이요,¹¹⁶ 인체(人屍)의 혹독한 것은 신인(神人)이

114 혼자……것 : 젊은 환관과 추잡한 생활을 한 한 고조(漢高祖)를 가리킨 것이다.

115 큰 바람이 일어남이여 : 한 고조가 자기 출신 고향인 풍패(豐沛)에 갔을 때 부른 대풍가(大風歌)의 한 구절.

116 벽양……일이요 : 삼이기(審食其)의 봉호. 그는 미남자로서 한 고조의 총애를 받고 여후(呂后)와 불의

모두 분개할 노릇인즉¹¹⁷ 조단(造端)의 시초라 할지라도 이 같은 꼴로서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희(薄姬)는 위왕(魏王) 표(豹)의 미인이요,¹¹⁸ 효 경제(孝景帝)의 왕 황후(王皇后)는 금왕손(金王孫)으로부터 빼앗은 계집이요,¹¹⁹ 음려화(陰麗華)에게 자나깨나 사모하던 지저분한 일들이¹²⁰ 있지마는 누가 이것을 노래로 지어 읊었겠습니까. 이러한 왕실(王室)의 지친에는 하간현왕만한 이가 없고 보니, 관저(關雎)¹²¹의 교화나 이강(鰲降)¹²²의 아름다움같이 읊을 바도 못 되었으니, 이렇므로 풍류는 풍류대로 덕행은 덕행대로 따로 떨어진 것을 알 것입니다.”

한다. 나는 또,

“백등(白登)의 기이한 계교¹²³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니, 혹정은,

“그 계교란 비밀이라 세상에는 얻어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다. 나는 다시,

“그 기이한 꾀란 것은 적의 성 아래 무릎을 꿇고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일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비밀에 붙였습니까.”

의 관계가 있었다 한다.

117 인제……노릇인즉 : 여후가 한 고조의 애희 척부인(戚夫人)을 질투하여 고조가 죽은 뒤에 그의 수족을 자르고 눈알을 빼며 귀를 벤 뒤 병어리를 만들어 뒷간에 두고 사람돼지라 하였다.

118 박희……미인이요 : 위왕 표가 포로가 되자 한 고조는 그의 애희 박희를 빼앗아서 문제(文帝)를 낳았다.

119 효 경제……계집이요 : 왕 황후는 애초에 연왕(燕王) 장다(藏荼)의 손녀인 장아(藏兒)의 맏딸로서 장아의 첫 남편인 왕중(王仲)의 딸인데, 처음에는 금왕손에게 시집을 보냈다가 장아가 집을 치니 그 딸이 귀하게 되겠다 하여 금왕손으로부터 빼앗아 궁녀로 바쳐서 경제의 황후까지 되었다 한다.

120 음려화……일들이 : 후한 광무제가 황제가 되기 전에 음려화의 인물 잘난 것을 보고 탄식하기를, 여자를 얻는다면 음려화를 얻을 것이요, 벼슬을 할진댄 집금오(執金吾)가 되련다고 맹세를 하였다가 뒤에 음려화를 취했다.

121 관저(關雎) : 《시경(詩經)》의 장명(章名), 주희의 주석에 의하면 어진 후비의 덕을 찬송한 노래라 하였다.

122 이강(鰲降) : 요(堯)의 두 딸을 순(舜)에게 시집보낸 고사. ‘이’는 행장을 꾸림이요, ‘강’은 하가(下嫁)의 뜻이다.

123 백등……계교 : 한 고조가 산서성에 있는 백등이란 산에서 흉노(匈奴) 목돌(冒頓)에게 칠일 동안 포위당했을 때 모사 진평(陳平)의 말을 좇아 목들에게 미인계를 써서 포위에서 벗어났다는 기사가 있으나 그 내용은 창피해서 한의 역사에 밝혀지지 않았다.

하고 물으니, 윤공은 크게 웃으면서,

“먼저 사람들이 하지 못하던 말을 하시는군요.”

한다. 나는,

“그 당시 목돌(冒頓)은 응당 구슬을 입에 물고 관(棺)을 등에다 지는 허다한 절차를 몰랐겠지요.”¹²⁴

하였더니, 혹정은,

“옛날부터 중국은 오랑캐에게 성공한 일이 없어 강거(康居)가 항복을 하고 힐리(頡利)¹²⁵가 당(唐)의 궁정에 와서 춤을 춘 것은 울고 싶던 차에 지쳤음에 불과한 일이었습니다.”

한다. 나는 또,

“천하의 걱정거리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만승(萬乘)의 자리야말로 참으로 괴로운 것이니, 한 고조가 환관의 다리를 베고 집 천정을 쳐다볼 때야 8년 동안 경영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리가 내리고 물이 말라들때 이(齒)가 찬 것을 돌이켜 생각하니, 응당 천하 일이 도무지 계륙(鷄肋)¹²⁶ 같을 뿐이었겠지요.”

하니, 형산은,

“재상도 또한 그러하니 술과 계집과 재물에 지쳐날 때에, 젊어서 오색 찬란한 구름 속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렀을 때(과거의 창방)를 회상해 본다면 과연 어떠한 심사였겠습니까.”

한다. 이에 혹정은,

“영감님은 영수 가에 밭뽕이나 장만하고 저술(著述)이나 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하니, 형산은 크게 웃으면서,

“눈앞에 급급(汲汲)한 것은 모두 죽은 뒤 일을 계획하는 것이니 누에가 늙으면 저 절로 꼬치를 짓는 것이요, 사람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자 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다. 나는 또,

124 그 당시……몰랐겠지요 : 옛날 전쟁에 저서 항복할 때는 죽은 사람의 시늉을 차리던 의식.

125 강거……힐리(頡利) : 강거와 힐리는 신강성의 북부에 있던 고대 흉노족의 나라 이름.

126 계륙(鷄肋) : 닭의 뼈. 버리면 아깝고 먹어도 맛이 없다. 조위(曹魏) 때 문학가 양수(楊脩)의 말이다.

“혹정은 아직도 과거를 단념하지 않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니, 혹정은,

“이미 등우(鄧禹 후한 때의 장군)와 마찬가지로 남의 적막함을 웃었습니다.(단념했다는 뜻) 선생은 어떻습니까.”

한다. 나는,

“선생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니, 혹정은,

“백두(白頭)로 과거를 본다는 것은 선비의 수치입니다.”

한다. 이때 형산은 붓을 잡고 무엇을 쓰려다가 혼자서 크게 웃으면서 혹정에게 무슨 말을 하니 혹정 역시 크게 웃는다. 나는,

“두 선생이 그렇게도 웃으실 적에는 응당 절기(絕奇)한 일이 있는 거지요, 저는 그 까닭을 모르니 배를 쥐고 두 분의 즐거움을 도와 드릴 수 없습니다그러.”

하였더니, 둘이서는 더욱 크게 웃는 것이다. 형산은,

“강희(康熙) 기묘년(1699년) 과거에 1백 2세 된 거자(舉子)가 있었습니다. 성은 황이요 이름은 장(章)인데 광주(廣州) 불산(佛山)에 사는 사람이었지요.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번 과거에 급제를 못할 때는 오는 임오년(1702년) 과거에 올 것이요, 그때 또 급제를 못할 때는 을유년(1705년) 곧 내 나이 1백 8세 될 때에는 꼭 급제를 할 터이니, 그때 그나마 허다한 사업을 하여 국가를 위하겠다 하였답니다.”

하여, 나도 또한 절도(絶倒)함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다시,

“그 황장(黃章)이란 사람은 과연 을유년 과거에 급제를 했던가요.”

하고 물었더니, 두 사람은 고개를 흔들면서 더욱 웃음을 참지 못했다. 혹정은,

“그가 급제를 못할 때는 세상의 결함(缺陷)을 넉넉히 알 수 있겠지만, 만일 급제를 했다면 도리어 아무런 재미도 없는 일이지요.”

했다. 형산이 말하기를,

“선생은 오시는 길에 일찍 천산(千山)을 유람하셨는가요.”

하고 묻기에, 나는,

“천산은 1백여 리를 돌아야 가게 되고, 또 여정이 바빴기 때문에 다만 하늘 밖에

있는 두어 점 산봉우리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였다. 형산은 다시,

“노복(老僕)은 일찍이 무인년(1758년)에 강향(降香)¹²⁷ 행차 때 의무려(醫巫閭)까지 갔더니 귀국 인사들의 성명이 먹글씨로 써어져 있습니다.”

하기에, 나는,

“그 성명이 누구이던가요.”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모두 6, 7명 되었지만 누구였는지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한다. 내가 또,

“우리나라 선배(先輩) 김창업(金昌業)의 자는 대유(大有)요, 호는 노가재(老稼齋)인데, 일찍이 강희(康熙) 계사년(1713년)에 천산을 유람하였으니 의무려산에도 응당 제명(題名)한 데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말했더니, 형산은,

“천산은 저도 한 번 구경할 인연이 없었는데 혹시 가재(稼齋) 김공(金公)은 좋은 시구(詩句)를 지은 것이 있었나요.”

하고 묻기에, 나는,

“문집이 몇 권 있지만 아름다운 글귀는 한두 구절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김가재는 역시 창춘원(暢春苑)에서 이용촌 선생(李榕村先生)을 만났다는데 그는 당시 각로(閣老)였지요.”

했다. 형산은,

“용촌 선생은 강희 계사 연간에는 필시 남쪽으로 돌아갔을 터인데 어떻게 서로 만났단 말이요.”

하고 묻기에, 나는 다시,

“용촌 선생의 휘가 이광지(李光地)였지요.”

하고 물으니, 두 사람은 모두 그렇다고 머리를 끄덕인다.

형산이,

127 강향(降香) : 황제가 봉산(封山)할 때에 향을 하사하는 의식.

나는 아교를 달여서 해와 달을 붙여 두련다(사공도(司空圖)의 시) | 癡欲煎膠黏日月

라는 시를 읊는다. 이때 해는 이미 저물어 방안이 침침하였으므로 촛불을 켜놓았다. 나는,

인간의 촛불이란 켤 것이 무엇 있나 | 不須人間費膏燭

해와 달 이 두 빛이 이 천지를 쌍으로 밝혀다오 | 雙懸日月照乾坤

하고 읊었다. 흥정이 손을 흔들면서 먹으로 ‘쌍현일월(雙懸日月)’이란 네 글자를 지워 버렸으니, 대개 일·월을 쌍으로 쓰면 명(明) 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마침 ‘점교(粘膠)’라는 글귀에 대(對)를 맞추어 쓴 것인데, 그는 ‘쌍현일월’을 자못 꺼리는 모양이다. 나는 다시,

“어제 성묘(聖廟)에 배알했을 때 보니 주자를 전상에 올려 모셨으니, 이렇다면 11철(哲)이 되는 셈인데 언제부터 올려 모셨나요.”

하고 물으니, 형산은,

“강희 시절에 올려 모신 것인데, 10철은 원래 공자의 문하(門下)에서는 적당한 정론(定論)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한때 진(陳)·채(蔡) 사이에서 함께 난을 만났을 뿐인데, 당(唐)으로부터 오늘날까지 아무도 감히 다른 의논을 내놓지 못했지요. 유약(有若 공자의 제자)에 대한 말이 네 번이나 《논어(論語)》에 보이는데, 그가 성인과 비슷하게 생겼다 하여, 자하(子夏 복상(卜商)의 자)·자장(子張 존사(顓孫師)의 자)의 무리들은 심지어 공자를 섬기던 예로 섬기려고 했으니 그가 어질다는 것은 가히 알 수 있는 일이요, 공서적(公西赤 공자의 제자)은 예악(禮樂)에 뜻을 두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재질이 있었으니, 역시 재아(宰我 재여(宰予). 재아는 그의 자. 자아(子我))와 염구(冉求)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염구·재아의 언행(言行)은 여러 가지 사전(史傳)을 증험하지 않고, 《논어》에 나온 것만 상고하더라도 그 우열

(優劣)은 가히 한 가지로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유약과 공서적 두 분은 전상으로 올려 모시고 염구와 재아를 무중(庶中)으로 고쳐 모셔야 한다고 선배 정단간(鄭端簡 미상)·왕이상(王貽上 왕사진(王士禎). 이상은 자)의 의논이 모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상은 국자궐주(國子祭酒)로 있을 때 글을 갖추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다가 사람들에게 정지당하고 글이 올려지지 못했으니, 이야말로 만세의 공론이라 할만한 것으로 사류(士流)들이 지금껏 애석히 여기고 있습니다.”

한다. 형산은 다시 묻기를,

“박 선생(朴先生)은 지금 저술한 책이 몇 권이나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시집을 중국에 가지고 오신 것이 있습니까.”

하기에 나는,

“평생에 학식(學殖)이 노무(鹵莽)해서 일찍이 몇 권 책도 저술하지 못했습니다.”

하였더니, 형산은,

“비록 주공(周公) 같은 아름다운 재주가 있더라도 만일에 교만하고 인색하면 말할 거리도 못 되지요. 선생이 만일 ……” [이 다음은 미처 글씨를 쓰기 전에 기풍액(奇豐額)이 들어와서 나에게 황제가 하사한 담배통을 보이므로 드디어 자리를 파하여 일어섰다.]

하였다.

내가 입은 흰 모시옷은 해가 저물자 좀 서늘하였다. 이때 달이 추녀 끝에 걸렸는데 뜰에서 서로 산보할 때 형산이 내 옷을 만지면서,

“좌중이 맑은 기운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였다.¹²⁸

내가 호정과 이야기한 것이 제일 많았는데, 옛새 동안을 창문을 대하여 밤을 새워 가면서 이야기를 하였으므로 능히 조용히 할 수 있었다. 그는 진실로 평유(宏儒)요 괴걸(魁傑)이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중횡 반복이 많았다. 내가 우리 서울을 떠나서 8일 만에 황주(黃州)에 이르렀는데, 말 위에서 혼자 생각하기를,

“학식이 본래 없는 나로서 이번 중국에 들어가 만일 큰 선비를 만난다면 장차 무엇

128 좌중이……하였다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가하였다.

으로써 질문을 하여 그를 애먹여 볼까.”

하고, 드디어 옛날 들은 지식 중에서 ‘지전설(地轉說)’이라든가 ‘월세계(月世界)’ 이 야기를 찾아내어, 매양 말고삐를 잡고 안장 위에 앉은 채 졸면서도 누누(累累) 수십만 마디의 말을 연역(演繹)해서, 가슴속에 글자 아닌 글을 쓰고 하늘에 소리 없는 글을 읽어가면서 하루에 몇 권의 책을 꾸몄다. 이것이 말은 비록 이치에 닿지 않더라도 이치는 역시 따라 붙일 만하였지만, 말타기에도 더 피로했거니와 붓과 벼루도 들 사이가 없었다. 기이한 생각도 밤이 지나면 사충(沙蟲)과 원학(猿鶴)처럼 변천함을 면하지 못하는데,¹²⁹ 이튿날 다시 높은 산을 쳐다보면 뜻밖의 기이한 봉우리가 떠오르고, 또 바람 돛을 따라서 포개었다가 퍼졌다 한다. 이야말로 먼 길에 좋은 길동무가 되고 멀리 가는 데 지극히 즐거운 자료가 되었다. 열하(熱河)에 들어간 뒤에 먼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기안찰사(奇按察使) 풍액(豐額)에게 소개했더니, 풍액도 수궁은 했으나 전혀 이해는 못하였고, 혹정과 지정은 역시 분명히 알아듣지 못했으나 혹정은 이 학설을 그렇게 틀렸다고는 하지 않았다. 대개 혹정은 문답하는 데 민첩하여 종이를 잡으면 문득 수천 마디의 말을 내려 써서 종횡으로 떠벌리고, 천고의 경(經)·사(史)·자(子)·집(集)을 손에 닿는 대로 들춰내어 아름다운 구와 묘한 계(偈)가 입만 열면 선듯선듯 만들어지지만, 모두 조리에 닿고 맥락이 어지럽지 않았다. 더러는 동쪽을 가리키다가 서쪽을 치고,¹³⁰ 때로는 자기 말을 고집하되 견(堅)을 백(白)이라 하여 나를 치켜 올리고 억눌러서 나로 하여금 말을 꺼내게 했으니, 굉장히 박식하고 말을 좋아하는 선비라 이를 만하거늘 백두(白頭)인 채 궁한 처지로 장차 초목으로 돌아가려 하니 정말 슬픈 일이다. 연경(燕京)에 들어간 뒤에도 사람들과 더불어 필담(筆談)을 해 보면 모두 능란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며, 또 그들이 지었다는 모든 문편(文篇)들을 보면 필담보다 손색이 있었다. 그러고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글 짓는 사람이 중국과 다른 것을 알았으니, 중국은 바로 문자(文字)로써 말을 삼고 있으므로 경·사·자·집이 모두 입 속에

129 기이한……못하는데 : 군자는 원숭이와 학으로 변하고, 소인은 벌레와 모래로 변하였다는 말. 《포박자(抱朴子)》에 나오는 말.

130 동쪽을……치고 : 간사한 피를 쓴다는 말. 《通典 兵6》

서 흘러나오는 성어(成語)였다. 그 기억력이 남과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억지로 시문(詩文)을 지을 때는 벌써 그 고정(故情)을 잃어버리고 글과 말이 판이하게 두 가지 물건이 되어 버리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글을 짓는 자는 서어(齟齬)해서 틀리기 쉬운 옛날 글자를 가지고, 다시 알기 어려운 사투리를 번역하고 나면 그 글 뜻은 캄캄해지고 말이 모호하게 되는 것이 이 까닭이 아니겠는가. 내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국인(國人)들에게 두루 이 이야기를 하자 많이들 그렇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족히 개탄할 뿐이로다. 엄계우옥(嚴溪雨屋)¹³¹에서 심심풀이로 이를 쓰다.

131 엄계우옥(嚴溪雨屋) : 엄계의 비가 내리는 서옥(書屋). 엄계는 곧 연암에 있는 엄화계(嚴畫溪)이다.

참십륜포

찰십륜포(札什倫布)

반선액이덕니(班禪額爾德尼)를 찰십륜포(札什倫布)에서 보았다. 찰십륜포란, 서번(西番) 말로서 대승(大僧)이 거처하는 곳이란 말과 같다. 피서산장(避暑山莊)으로부터 궁성을 돌아서 오른쪽으로 반추산(盤捶山)을 바라보고 더 북쪽으로 십여 리를 가서 열하를 건너면, 산을 의지하여 동산을 만들었고 언덕을 뚫고 산 모퉁이를 끊어 산 뼈다귀만 드러내고 있는데, 저절로 언덕이 찢어지고 석벽이 깎여져 십주(十洲)¹와 삼산(三山)²의 모양같이 바윗돌이 착낙(錯落)하여, 마치 짐승이 입을 벌리고 새가 날개를 펴서 구름이 흩어지고 우레가 터지는 듯한데, 공중에 다리 다섯이 놓였고 다리로부터 층계로 길을 내어 그 평평한 곳에 용과 봉을 새겼다. 길을 따라 흰 돌로 된 난간이 구부러지고 꺾이어 문까지 닿았다. 또 두 개의 각문(角門)이 있는데 모두 몽고 군사가 지키고 있었다. 문에 들어서니 땅에는 벽돌을 깔아 층계로 세 길을 만들었는데, 흰 돌로 된 난간에는 모두 구름과 용을 새겼고 길은 한 다리로 합치게 되었다. 다리에는 구멍 다섯이 있고 대(臺)의 높이는 다섯 길이나 되는데, 난간을 돌렸고 모두 무늬 있는 돌에는 해마(海馬)나 기린 같은 짐승들을 새겼는데, 비늘과 뿔과 갈기와 발굽들은 모두 돌 빛깔을 따라서 했다. 대 위에는 전각 둘이 있는데 전각은 모두 처마를 겹으로 했고 황금 기와를 이었다. 집 위에는 여섯 마리 용이 걸어 다니는 듯이 만들어졌는데 모두 황금으로 그 몸뚱이를 만들었다. 둥근 정자나 굽은 집과 겹쳐 있는 다락과 포개어진 전각이나 드높은 현함과 층으로 된 행랑들은 모두 푸른빛·초록빛·자줏빛·남빛으로 된 유리 기와를 이어 억천만금의 비용을 들였다. 채색은 신기루(蜃氣樓)를 능가했고, 아로새긴 솜씨는 귀신도 부끄러워할 만하고 헛 신령이 우레를 뿜박하는 듯하고 어둑기는 새벽녘과 같았다. 동산 가운데는 새로 어린 소나무를 심었는데 산골짜기에 연해서 모두 곧고 크기는 한 길이나 되었다. 나무에는 종이를 매어 그 전에 심은 것을 표해 놓았다. 쉬어 심은 기이한 화초는 모두 처음 보는 것으로 그 이름도 알 수 없는데, 이

1 십주(十洲) : 중국 전설 중의 신선이 살고 있는 열 군데의 섬.

2 삼산(三山) : 역시 전설 중의 신선이 살고 있는 세 군데의 명산.

때 바야흐로 죽도(竹桃)가 만개했다. 나마(喇嘛) 수천 명이 모두 붉은 선의(禪衣)를 끌고 누런 좌계관(左髻冠)을 쓰고 팔뚝을 내놓고 맨발로 문이 메도록 물려드는데, 그들의 얼굴은 모두 칼로 깎은 듯, 검붉고 코가 크고 눈이 오목하며, 턱이 넓고 곱슬 수염에 손과 발은 사슬로 채우고 머리는 맨머리였다. 귀에는 금고리를 달고 팔뚝에는 용 무늬를 수놓았다. 전각 속 북쪽 벽 아래에는 침향(沈香)으로 높이가 어깨에 닿게 연꽃 탁자를 만들어 놓았는데, 반선은 남쪽을 향해서 다리를 꼬고 앉았다. 누런 빛 우단으로 된 관을 썼는데 말갈기 같은 털이 달렸고 모양은 가죽신같이 생겨 높이가 두 자 남짓이나 됐다. 금으로 짠 선의(禪衣)를 입었는데 소매가 없이 왼쪽 어깨에 걸쳐서 온몸을 옷으로쌌다. 오른편 옷깃 겨드랑 밑으로 오른 팔뚝을 드러냈는데 장대하기가 다리만 하고 금빛이었다. 얼굴빛은 누렇고 둘레가 예닐곱 뼘이나 되는데 수염 난 자리는 없고, 코는 쓸개를 떼어 달아맨 것 같으며, 눈썹은 두어 치나 되고 흰 눈동자가 겹으로 되어 음침하고 킁킁해 보였다. 왼쪽에는 낮은 상 두 개가 있어 몽고왕 둘이 무릎을 연해 앉았는데, 얼굴은 모두 검붉으며 그중 하나는 코가 뽀족하고 이마가 드높고 수염이 없었으며, 한 명은 얼굴이 깎인 듯하고 올챙이 수염에 누런 옷을 입었다. 중얼거리면서 서로 보고는 다시 머리를 들고 무엇을 듣는 듯했다. 나마 두 명이 오른편에 모시고 췌고 군기 대신(軍機大臣)은 나마의 밑에 서 있다. 군기 대신이 황제를 모실 적에는 누런 옷을 입었는데 반선을 모실 적에는 나마의 옷을 바꾸어 입었다. 내가 아까 황금 기와가 햇빛에 번쩍이는 것을 보다가 전각 속에 들어가니, 집 안은 침침하고 그가 입은 옷은 모두 금으로 짠으므로 살갗은 셋노랑게 되어 마치 황달병 걸린 자와 같았다. 대체로 금빛 깔로 뚱뚱 부어 터질 듯이 꿈틀거리는데 살은 많고 뼈는 적어서 청명하고 영특한 기운이 없으니, 비록 몸뚱이가 방에 가득하나 위엄(威嚴)을 볼 수 없고, 멍청한 것이 수신(水神)과 해약(海若)³의 그림과 같았다. 황제가 내무관(內務官)을 시켜서 조서(詔書)를 전달하게 하는데 오색 비단 한 필을 가지고 반선을 보게 하여, 내무관이 손수 비단을 세 곳에 나누어 사신에게 주었다. 이것은 이름을 ‘합달(哈達)’⁴이라

3 해약(海若) : 바다의 귀신. 《남화경(南華經)》 추수편(秋水篇)에 나온다.

4 합달(哈達) : 나마교에서 예물로 쓰는 얇은 비단.

하는 것으로, 대개 반선은 자기 말에 그의 전신(前身)이 파사팔(巴思八)이라 하고, 파사팔은 그 어머니가 향내 나는 수건을 물고 낳았으므로 반선을 보는 자는 반드시 수건을 갖는 것이 예절로 되어 있어, 황제도 매양 반선을 볼 때마다 역시 누런 수건을 갖는다 한다. 군기 대신의 처음 말로는, 황제도 머리를 조아리고 황육자(皇六子)도 머리를 조아리며 부마도 머리를 조아리니, 이번 사신도 응당 가서 절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했다. 사신은 아침에 이미 예부(禮部)와 다투어 말하기를, “머리를 조아리는 예절은 천자의 처소에서나 하는 것인데, 이제 어찌 천자에 대한 예절을 번승(番僧)에게 쓸 수 있겠소.”

하여 항의하였더니, 예부에서 말하기를,

“황제도 역시 스승의 예절로 대우하는데, 사신이 황제의 조칙을 받들었을 적에야, 같은 예로 대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했다. 사신이 즐겨 가지 않으려 하여 군이 서서 다투니, 상서(尙書)덕보(德保)는 노해서 모자를 벗어 땅에 던지고, 몸을 던져 방바닥에 쓰러지면서 큰 소리로,

“빨리 가, 빨리 들어가.”

하면서 사신을 손으로 가리켰다. 이때 군기 대신이 무슨 말을 하는데 사신은 못 들은 것 같았고, 제독(提督)이 사신을 인도하여 반선(班禪) 앞에까지 이르니, 군기 대신이 두 손으로 수건을 받들고 서서 사신에게 준다. 사신은 수건을 받아 가지고 머리를 들고 반선에게 주니, 반선은 앉은 채 수건을 받으면서 조금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수건을 무릎 앞에 놓으니, 수건이 탁자 아래까지 늘어졌다. 차례로 수건 받기를 마친 다음에 반선은 다시 군기 대신에게 주니, 군기 대신이 수건을 받들고 반선의 오른편에 모시고 섰다. 사신이 막 돌아서려 하는데 군기 대신은 오림포(烏林哺)에게 눈짓을 하여 중지시켰다. 이것은 대개 사신으로 하여금 절을 하게 하기 위함인데, 사신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머뭇머뭇 물려서서 검은 비단에 수놓은 요를 깐 몽고왕의 아랫자리에 앉았다. 앉을 때 조금 허리를 구부리고 소매를 들고는 이내 앉으니, 군기 대신은 얼굴빛이 황급해 보였지만 사신이 벌써 앉아버렸으니 또 한 어쩔 수가 없는지라 숫제 못 본 체했다. 제독은 수건을 나누어 얻을 때 남은 것이 한 자 남짓하였는데 이것을 반선에게 올리면서 조심스레 머리를 조아렸고, 오

림포 이하 모두들 공손히 머리를 조아렸다. 차를 몇 바퀴 돌린 뒤에 반선은 소리를 내어 사신이 온 이유를 묻는데, 말소리가 전각 안을 울려 독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머리를 숙여 좌우편을 고루 둘러 보더니, 미간(眉間)을 찡그리고 눈동자가 눈 속에서 반쯤 드러나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속으로 굴리는 것이 시력(視力)이 나쁜 사람 같았다. 눈동자는 더 희어지고 흐릿하여 더욱 정광(精光)이 없어 보였다. 나마가 말을 받아서 몽고왕에게 전하자, 몽고왕은 군기 대신에게 전하고 군기 대신은 오림포에게 전하며, 오림포는 우리 역관(譯官)에게 전하니, 대체로 이것은 오중(五重)의 통역이다. 상판사(上判事)조달동(趙達東)이 일어나 팔뚝을 건어붙이며,

“만고에 흥한 사람이로군. 옳게 죽을 리가 없을 거야.”

하기에, 나는 그에게 눈짓을 했다. 나마 수십 명이 붉고 푸른 모직과 붉은 탄자와 서장 향(香)과 조그마한 금 불상을 메고 와서 등급대로 나누어 주는데, 군기 대신이 받들고 있던 수건으로 불상을 닦았다. 사신은 그 다음에 일어서서 나왔는데, 군기 대신은 반선이 하사한 모든 물건을 펴 보고 황제께 아뢰기 위하여 말을 달려 갔다. 사신은 문을 나와 5·60보쯤 가서 절벽을 등지고 소나무 그늘 모래 위에 둘러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의논하기를,

“우리들이 번승을 볼 적에 예절이 많이들 소홀하고 거만해서, 예부의 지도대로 못했으니 저이는 만승 천자의 스승인지라, 앞으로 우리에게 득실이 없을 수 없을 것 이야. 그가 준 선물들을 물리친다면 불공하다 할 것이요, 받자니 또 명색이 없는 일인즉 장차 어찌하면 좋을까.”

하였다. 당시의 일이 창출간이라 받고 사양하는 것이 마땅한지 않은지를 계교(計較)할 여가도 없었고, 모두 황제의 조서에 매인 일인데다가 저들의 행사는 번개 치고 별 흐르듯이 삼시간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사신의 진퇴와 좌립은, 다만 저들의 인도에만 따를 뿐이어서 흠으로 뭉치고 나무로 깎은 허수아비나 마찬가지로 이다. 또 통역은 중역(重譯)이 되어 피차의 통관이 도리어 귀머거리와 병어리가 되어, 마치 별판에서 괴상한 귀신을 갑자기 만난 듯 어떻다고 측량할 수 없었다. 사신은 비록 묘한 말과 익숙한 행동이 있었지만 장황스레 늘어놓을 수도 없었고, 저

들도 역시 능히 그렇게 하지 못한 것도 그 형세가 그렇게 된 것이다. 정사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유숙하는 집은 태학관(太學館)이라서 불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 우리 역관을 시켜 불상 둘 곳을 찾아보게 하라.”

고 했다. 이때, 번인(番人)·한인(漢人) 할 것 없이 구경꾼이 성같이 둘러싸서 군뇌(軍牢)들은 몽둥이를 휘둘러 쫓았으나 흩어졌다가는 다시 모여들었다. 모자에 수정 구슬을 단 자와 푸른 깃을 꽂은 궁중의 근신(近臣)들이 와서 그 속에 섞여 서서, 염탐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영돌(永突)이 큰 소리로 나를 불러,

“사신께서 좋지 않은 기색으로 마당에 나왔아서 오랫동안 잘잘못을 의논하고 수군대시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공연히 의심을 사지 않을까요.”

하기에, 내가 돌아다 보니, 전에 황제의 조서를 전하던 소림(素林)이 내 등 뒤에 서 있다가 여러 사람 틈으로 나가 말에 올라 달려 가는 것이다. 여러 사람 중에 또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달려가는데, 자세히 보니 그들은 모두 환관 나부랑이들이다. 박불화(朴不花)⁵가 원(元)에 들어갔을 때부터 원의 내시들은 우리나라 말을 많이 배웠고, 명(明)의 시절에도 얼굴이 잘생긴 조선 고자들을 시켜 내시들에게 조선말 공부 시켰으니, 지금 우리를 엿보고 간 두 사람도 어찌 조선말을 배우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랴. 소림과 같이 있던 푸른 깃을 꽂은 자도 와서 말을 세우고 자못 오랫동안 있다가 갔는데, 그 왕래가 하도 빨라서 마치 나는 제비와 같았다. 사신과 역관들은 이 자들이 와서 엿듣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고 반선에게 받은 불상도 미처 처치하지 못했으므로, 자리를 파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모두 묵묵히 앉았는데, 황제는 어원(御苑)에서 매화포(梅花砲)를 놓고 사신을 불러 들어와 보게 하였다. 전각은 처마가 겹으로 되었고, 뜰에는 누런 장막을 치고 전각 위에는 일월과 용봉을 그린 병풍과 벌여 놓은 보물들이 심히 엄숙했다. 일천 관리들이 차서대로 섰는데 반선이 혼자 먼저 탁자 위에 앉으니, 일품(一品) 보국공(輔國公)들과 조정의 고관들이 모두 탁자 아래로 나아가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렸다. 반선이 손

5 박불화(朴不花) : 원 순제(元順帝) 때 곧 고려 공민왕(恭愍王) 때 우리나라 환관으로 원에 들어가, 황후의 사랑을 받은 자.

수 한 번씩 이마를 어루만져 주자 그들은 일어서서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여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얼마 후 천자가 누런 빛 작은 가마를 타니 다만 칼찬 5·6쌍 시위(侍衛)가 길을 인도한다. 풍악은 통소 한 쌍, 젖대 한 쌍, 징 한 쌍, 비파·생황·거문고와 구라파의 쇠 거문고 두세 대와 박자판 한 쌍이요, 의장(儀仗)도 없이 따르는 자는 백여 명쯤 되었다. 황제가 탄 가마가 앞에 이르자, 반선은 천천히 일어나 탁자 위에 몇 걸음 발을 옮겨 동쪽으로 향해 즐거운 빛으로 웃는 얼굴을 짓는다. 황제는 4·5칸 떨어져 가마에서 내려 빨리 쫓아가서, 두 손으로 반선의 손을 잡고 서로 흔들면서 마주 보고 웃고 이야기를 한다. 황제는 갓 꼭지가 없는 붉은 실로 짠 모자에, 검정 옷을 입고, 금실로 짠 두꺼운 요 위에 평좌(平坐)하고, 반선은 금 샅갓에 누런 옷을 입으며, 금실로 된 두꺼운 방석 위에 부처 모양으로 동쪽으로 나가 한 탁자 위에 앉는다. 둘의 방석은 무릎이 닿을 듯한데, 자주 몸을 기울여 서로 이야기할 적에는 반드시 둘이 서로 웃음을 띠고 즐거워했다. 자주 차를 올리는데 호부 상서(戶部尙書)화신(和珅)은 천자에게 바치고, 호부 시랑(戶部侍郎)복장안(福長安)은 반선에게 바치는데, 복장안은 병부 상서용안(隆安)의 아우로서 화신과 함께 시중(侍中)으로 귀한 품위가 조정에 진동한다. 날이 이미 저물자 황제가 일어서니 반선도 역시 일어나 황제와 함께 마주 서서, 둘이 서로 악수를 하고 얼마 있다가 등을 지고 갈라져 탁자에서 내려섰다. 황제는 이내 안으로 들어 가는데 나올 적의 차림대로 돌아가고, 반선은 황금 교자를 타고 찰십륜포로 돌아갔다.

중존평어(仲存評語)⁶

중존씨(仲存氏)⁷는 말하였다.

“《목천자전(穆天子傳)》⁸으로부터 이하 한의 《동방삭전(東方朔傳)》⁹ · 《비연외전(飛燕外傳)》¹⁰ · 《서경잡기(西京雜記)》(한(漢) 유흠(劉欽)이 지음) □□□ 등 서적은, 모두 궁중 밖에서는 참견할 것이 못되는 여관(女官)들이 쓴 책이므로 일체 이것을 패관(稗官)으로 돌리지만, 모두 족히 당시 제왕들의 취미와 행동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니, 여기에 실린 글은 무엇이랴 일컬을는지 모르겠다.”

하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중국의 사대부들로서 반선을 얻어 보지 못한 자는 도리어 우리에게 그 모양이 어땠더냐고 물었으니, 이것은 그들의 뜻이 사람의 이목을 더럽히지 않고자 함인데, 우리는 그들의 외설된 일에 이끌려서 아무 거리낌없이 하였으니 가히 수치스럽기 짝이 없다.”

6 중존평어(仲存評語) : 여러 본에 모두들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는 ‘주실루본’에 의하여 추가한다.

7 중존씨(仲存氏) : 연암의 처남 이재성(李在誠)의 자.

8 《목천자전(穆天子傳)》 : 주 목왕(周穆王)이 서역을 여행한 기록이다. 저자는 미상.

9 《동방삭전(東方朔傳)》 : 한 무제(漢武帝) 때 동방삭의 골계적(滑稽的)인 일을 기록한 것. 저자 미상.

10 《비연외전(飛燕外傳)》 : 한 성제(漢成帝) 때 황후인 비연의 자매(姊妹)에 대한 고사. 영현(伶玄)이 지었다고 한다.



반선시말(班禪始末)

“반선액이덕니(班禪額爾德尼)는 서번(西番) 오사장(烏斯藏 서장 지방의 일부)의 대보법왕(大寶法王)입니다. 서번은 사천(四川) · 운남(雲南)의 지경 밖에 있고, 오사장은 대개 청해(青海) 서쪽에 있는데, 옛 경(經)에는 당(唐) 때의 토번(吐蕃) 옛 땅으로 황중(湟中)¹에서 5천여 리 떨어져 있다 합니다. 혹은 반선을 장리불(藏理佛)이라고도 하는데, 소위 삼장(三藏)이 바로 그 땅입니다. 반선액이덕니는 서번 말로는 광명(光明) · 신지(神智)와 같은 말인데, 법승(法僧)들이 말하기를, ‘그의 전신(前身)은 파사팔(巴思八)이라’ 하여 그 말에 허탄하고 이상한 것이 많으나, 도술(道術)이 고명해서 때로는 징험(徵驗)이 있다고도 합니다. 대개 파사팔이란, 토파(土波)²의 계집이 새벽에 나가서 물을 길다가 웬 수건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주워 찻더니, 얼마 있다가 점점 기름으로 엉키며 이상한 향기가 나고, 먹으면 맛이 좋으면서 곧 사내의 생각이 나더니 무엇이 감촉되고 파사팔을 낳았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신성했다 합니다. 원 세조(元世祖)가 사막에 있을 때 그가 어려서부터 능히 《능가경(楞伽經 불경의 일종)》 등을 1만 권이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어 맞아 오니 과연 지혜가 있고 명랑하며, 전신이 향기롭고 걸음걸이는 천신 같으며, 목소리는 율려(律呂)에 맞는지라, 황제가 크게 기뻐하여 여래를 본 것 같이 기뻐했으며, 당시 요(姚) · 사(史)³와 같은 모든 어진 사람들도 모두 스스로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능히 소리를 맞춰 몽고의 새 글자를 만들어 천하에 반포하매 대보법왕(大寶法王)이란 호를 하사했으니, 이것은 불교의 존호요, 국토를 가진 왕의 작위는 아니었으나, 대개 법왕의 이름이 여기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죽자 황천지하일인지상선문대성지덕진지대원제사(皇天之下一人之上宣文大聖至德眞智大元帝師)라는 호를 하사했습니다. 그 뒤에 청산압마(淸藏壓魔)⁴라는 놀이가 있어, 군사 수만 명을 내어 비단 바지와 수놓은 도포를 입고, 수레나 말에는

- 1 황중(湟中) : 감숙 지방으로 흘러드는 서녕하(西寧河)의 좌우 서강족(西羌族)이 사는 곳.
- 2 토파(土波) : 땅 이름인 듯하나 미상.
- 3 사(史) : 원(元) 때 사씨(史氏) 중에 명인이 많았으나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 4 청산압마(淸藏壓魔) : 신을 맞아서 마귀를 누른다는 말.

깃대를 달고 보물로 일산을 만드는 등 모두 금주(金珠)와 보옥과 비단으로 장식하여 황성을 에워싸고, 사문(四門)을 지나고 나서 다시 서번과 한(漢)의 음악으로 산(巖)을 맞이하여 궁중으로 들이는데 이것을 파사팔교(巴思八敎)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는 본래의 교지와는 크게 틀려, 기괴하고 요란해서 귀신의 도까지 뒤섞이게 되었습니다. 황제와 후비와 공주들이 모두 소식(素食)을 해 가면서 산을 맞아서, 막배(膜拜)를 하고 억조 창생들의 복을 비는데, 이것을 소위 타사가아(打斯哥兒)가 파사팔(巴思八)을 만나는 놀잇날이라 하여, 심지어는 집을 파산하고 재산을 기울여, 만 리 길을 와서 보는 자도 있었다 합니다. 원(元)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이로써 일을 삼았으니, 그 교를 숭봉한 것이 이와 같았습니다. 동시에 담파(澹巴)라는 중이 있었고 그 뒤에 가린진(加隣眞)이란 중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서번 중으로서 비밀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파사팔교와는 달라서 능히만 사람의 마음을 알고 황제의 마음속까지 알아 맞힌다고 하여, 황제가 그들을 모두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역시 남에게 태어난다는 말이 아직 없었습니다. 홍무(洪武) 초년에 황제가 서번 여러 나라에 널리 유시를 내리자 이에 오사장(烏斯藏)이 먼저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했는데, 그 왕은 난파가장복(蘭巴加藏卜)이라는 중으로 오히려 황제의 스승이라고 자칭했습니다. 이때 여러 번지에 있는 황제의 스승과 대보법왕은 이미 자기 나라를 가진 칭호로 되어, 한(漢)이나 당(唐)의 선우(單于) · 극한(可汗)의 칭호와 같았습니다. 황제는 제사(帝師)란 명칭을 모두 고쳐서 국사라 일컫고, 옥으로 된 도장을 하사하는데 황제가 친히 옥의 품질을 보살펴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었고, 그 글에는 출천행지선문대성(出天行地宣文大聖) 등의 칭호를 썼던 것이나 역사가들이 이것을 생략했었습니다. 이 인(印)은 옥새와 같이 쌍룡이 얹힌 모습을 그렸는데, 그 뒤로 서번 여러 나라를 법왕이니 제사(帝師)니 하고 불러, 더욱 사신을 보내어 그 이름이 천자의 뜰에까지 들리게 된 자가 무려 수십 국으로서 이들을 모두 국사로 봉하고, 혹 대국사를 더해서 극진히 대우했습니다. 성조(成祖) 때에는 부마를 보내어, 서번의 중 탑립마(塔立麻)를 맞고자 법가(法駕)를 하사했는데, 받은 천자의 쓰는 것이나 다름없이 참람되었고, 금은 보화와 비단을 하사한 것이 이루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고제(高帝)와 고후

(高后)를 위하여 절을 세워 복을 빌었는데, 이때에 경운(卿雲)과 감로(甘露)의 상서와 조수·화과(花果)의 길조가 나타나니, 성조가 크게 기뻐하여 탑립마를 만행구족십방최승등여래대보법왕(萬行俱足十方最勝等如來大寶法王)에 봉하고, 금으로 짜고 구슬로 꿰 가사를 하사했으며, 그 막리들을 모두 대국사에 봉했습니다. 그가 가진 불가의 비법은 신통하여, 환술과 같은 것이 많아서 능히 조그마한 귀신을 시켜, 경각 사이에 만 리 밖에 있는 때 아닌 얻기 어려운 물건을 가져 오는 등, 그의 술법은 현란하고 괴망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서장 각지에 대승(大乘)이니 대자(大慈)니 하는 법왕의 칭호를 얻은 자도 있고, 또 천교(闡敎)·천화(闡化)라는 다섯 교왕이 있어서, 이 다섯 교왕의 조공 바치는 사신들이 서녕(西寧)·조항(洮漢) 사이를 설새없이 다니니 중국도 또한 일찍부터 그들의 번거로운 비용을 괴롭게 여겼으나, 실상은 넉넉한 대접으로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었고, 넓게 왕호를 봉하여 제각기 조정에 조공하게 함으로써 그 세력을 남모르게 쪼개었지만, 서번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더러 또한 중국이 주는 상금을 탐내어 조공하는 것을 오히려 이로운 일로 여겼었습니다. 정덕(正德)⁵ 연간에는 중관(中官)을 보내어 오사장 활불을 맞아오는데 황금으로 공물을 하고, 황제·황후와 왕비와 공주들은 서로 다투어 패물이나 노리개·머리꽃이 같은 보물을 내어 그를 맞는 비용으로 쓴 것이 몇 만 금으로 셀 정도였다 합니다. 그들은 온 지 10년 만에 돌아가기로 했었는데, 돌아갈 기한이 이미 다 되자 활불은 피해 숨어서 찾아볼 수도 없었고, 가졌던 보옥은 다 없어져 빈손으로 도망했다 합니다. 만력(萬曆) 때에는 또 신승(神僧) 쇠란堅錯(鎖蘭堅錯)라는 자가 있었는데, 역시 중국에 통하여 활불이라 일컬었다 합니다. 이것이 그 서번 이야기의 대략입니다.”⁶

한림서길사(翰林庶吉士)왕성(王晟)이 일찍이 나를 위하여 그 시말(始末)을 이같이 말했었다. 왕성의 집은 영하(寧夏)로 본래는 채씨(蔡氏)의 아들인데, 자기 말로는 그 숙부가 차(茶)를 팔기 위하여 자주 국경 밖으로 왕래하면서 서번 지방 사정을 익혔다고 한다. 또 왕씨는 대대로 서방(西方)의 관리로 있었는데, 왕성은 어려서부

5 정덕(正德) :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6 이것이……대략입니다 : “반선액이덕니……대략입니다” 이 단락은 왕성이 연암에게 일러준 말이다.

터 자못 오사장의 시말에 밝았었다. 왕성은 금년 초에 평생 처음으로 북경에 들어와 4월 회시(會試)에 몇 째 안 되게 합격했고, 전시(殿試)에 열셋째로 붙었다. 경서와 사기를 넓게 알고 기억하는 정신이 남에게 뛰어난 사람으로 내가 우연히 창중(敕中)에서 만나 그의 뜻을 살펴보니, 자못 자기도 기이한 인연으로 아는 것 같았다. 또 그는 처음 북경에 와서 교유하는 데도 넓지 못하고 기휘(忌諱)할 것도 알지 못하는 터이다. 그 이튿날 천선묘(天仙廟)로 나를 찾아와서 서번 중에 대한 일을 매우 자세히 말해 주었다. 그는 필담(筆談)도 물 흐르듯 하여 박식함과 문아한 것을 자랑하는 듯하나, 그의 말을 역사와 전기에 고증해 보면 실지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말하기를,

“파사팔을 비롯하여 중국에 들어온 자 중에 혹 어진 자도 있고 혹 그렇지 않은 자도 있었는데, 활불이란 칭호는 없었고 활불의 칭호는 명(明)의 중년 때부터 비롯하여, 비록 그를 승왕(僧王)이라 불렀지만 모두 처자를 가지고 있어 그 아들로 대를 잇게 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아내는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봉함을 받으려고 요청한 일이 없었으며, 그들에게 하는 중국의 예우가 비록 이르지 않는 데가 없음에도 특히 이것만을 아나한 것은 대개 그 왕들이 모두 중인 때문일 것입니다. 홀로 오사장만은 범승들이 서로 이어 스스로 왕이 되어 명(明)의 중년으로부터 그 후 오래도록 중국으로부터 봉호를 받는 번거로움이 없이, 항상 대법왕(大法王)·소법왕(小法王)이 있어 대법왕이 죽을 때는 소법왕에게, ‘아무데 아무개의 집에 아이가 날 때 이상한 향기가 날 것이니 그것이 곧 나다.’ 하고 부탁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왕이 이미 죽고 나서 아무데서 난다면 아이가 과연 나게 되고, 아이의 살에서 과연 향기가 나는가를 알아보고 나서 즉시 의장을 꾸미되, 보배로운 일산과 구슬 늘인 양산과, 옥 가마·금 수레를 갖추어 가지고 가서 그 아이를 수건에 싸서 맞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애당초 파사팔이 향기로운 수건에 감촉되어 난 때문이라 했습니다. 드디어 이를 길러서 소법왕으로 삼고 전에 있던 소법왕을 대법왕으로 삼는데, 지금의 반선인 대보법왕은 이미 14대째 환생한 법왕으로서 원(元)·명(明) 사이에 있었던 신승들은 모두 그의 전신이라 합니다. 그는 도중에 원의 시절에 타사가아(打斯哥兒)가 파사팔의 교를 맞을 때의 고사(故事)를 역력히 이야기하면서, 이

번에 자기를 맞이하는 예식이 간소한 의장과 악기를 써서 위의를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운휘사(雲麾使)와 난의십이사(鸞儀十二司)에 속한 의장을 모두 내게 하고, 태상시(太常寺)의 법악(法樂)과 청진악(淸眞樂)과 흑룡강(黑龍江)의 고취(鼓吹)와 성경(盛京)의 고취 등의 모든 음악으로서 교외에 나가 영접하게 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태상 음악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자세히 모릅니다.”

한다. 나는 또,

“청진악은 어떤 것이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회자(回子)들이 뜯는 70줄 대슬(大瑟)입니다.”

한다. 나는,

“흑룡강 고취란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그는,

“12구멍이 뚫린 용적(龍笛)으로 랄와가등(刺窩哥登)이라 하는데, 그 기계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한다. 나는,

“운휘사(雲麾使)와 난의(鸞儀)란 어떤 것입니까.”

하였더니, 그는,

“노마(路馬)⁷⁾에 견주면 어렵습니다.”

한다. 이때 주거인(周舉人)이 옆에 있다가 훈상(訓象)·훈마(訓馬)·정편(靜鞭)·골타(骨朶)·종천(櫻薦)·비두(篋頭)·선수(扇子)·반검(班劍)⁸⁾ 등을 열서(列書)하는데 그 종목이 수없이 많았다. 그가 이내 먹으로 지워 버려서 알 수 없게 되었다.

7 노마(路馬) : 노(路)는 큰 수레요, 마(馬)는 승마(乘馬). 《시경(詩經)》 채숙장(采芣章)에 나오는 말.

8 훈상……반검(班劍) : 이 여덟 가지는 황제가 거동할 때에 동원하는 기물의 명칭.

왕 한림(王翰林)의 자는 효정(曉亭)이다. 효정은 말하기를,

“반선은 도중에 내각(內閣)에 대해서 말하기를, ‘조왕(趙王)이 보운전(寶雲殿) 동편 마루에서 나를 위하여 금강경(金剛經)을 쓰던 중, 겨우 29자를 쓰자 때마침 가정문(嘉慶門)에 불이 붙어 조왕은 놀라서 정신이 산란하여 능히 다시 쓰지 못하였다고 하나 천하의 보배가 되었다 하며, 지금 그 글씨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은 것을 학사(學士)가 전했다.’ 하는데 조왕이라 한 것은 조맹부(趙孟頫)를 말하는 것입니다. 패엽(貝葉)에 29자를 옷으로 썼는데, 세상에서는 무슨 까닭에 29자만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안사(聖安寺) 부처 벉속에 감춰 두었던 것을 명(明) 천계(天啓) 연간에 강남 지방의 큰 장사치 ‘축(祝)’씨 성을 가진 자가 부처 몸통이를 고쳐 새기다가 이 글씨를 얻어서 몰래 갖고 갔더라고 합니다. 본조(本朝) 강희 연간에 황제가 남방으로 순행하는데 이과(李果)라는 늙은 선비가 이 글씨를 갖다가 바치매, 드디어 이것이 비부(秘府)에 간직되고 무근전(懋勤殿)⁹에는 황제가 이 글씨를 모사(摹寫)한 것까지 간직해 두었습니다. 창정(滄亭)에 이르자 반선이 글씨를 대하게 되어, 이에 탐본(搨本)을 보였더니 아니라 하면서 글씨의 힘이 고르지 못하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패엽에 쓴 진적(眞蹟)을 보였더니 기뻐하면서 이 글씨가 말로 진짜라고 하였습니다.”

하고, 효정은 또 말하기를,

“영락천자(永樂天子)가 나와 함께 영곡사(靈谷寺)에서 분향을 하는데, 천자의 수염이 아름다워서 그 수염을 쥐어 품속으로 넣다가 갓끈을 건드려 구슬 두 개가 떨어져 없어지니, 천자가 노하여 태감(太監)위방정(魏方庭)을 꾸짖었는데, 이때 유리국사(琉璃國師)가 흰 코끼리를 타고 따라 와서 육환장(六環杖)으로 절 문지기를 치니 그 문지기가 무서워서 우는데 국사가 손바닥으로 그 눈물을 받아 구슬 두 개로 되었고, 태감도 이로써 꾸지람을 면했다 하였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안 것은 유결(劉傑)의 《오운비기(五雲秘記)》에 실린 말을 읽은 것인데, 역대의 좋은 일, 굵은 일과, 제왕들의 수·요를 모두 점괘(占卦)처럼 적어둔 것으로 이 책은 금서(禁書)가 되어, 민간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비부에 간직해 둔 것이 있을 뿐인데, 반선은

9 무근전(懋勤殿) : 자금성 대궐 안에 있는 전각. 그림과 글씨를 진열해 두는 곳.

어디에서 이것을 알았을까 했습니다. 반선이 또 말하기를, 정덕 천자(正德天子)를 나의 표방(豹房)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정덕 시대에는 소위 활불이 일찍이 중국에 들어오지 않았음은 모두 증거가 있고, 옛 사람들의 전기에도 그렇게 말했으나 수 백 년 동안 내력이 끊어졌으니 모두가 황홀한 일입니다. 이로써 반선을 파사팔의 후신이니, 혹은 탐립마이니, 혹은 전대에 있던 활불들도 모두 반선의 윤회로 환생했다고 하는 것은 그 진위를 단정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한다. 내가 열하에 있을 때 몽고 사람 경순미(敬旬彌)가 나를 위해 말하기를, “서번(西番)은 옛날 삼위(三危 나라 이름) 땅으로 순(舜)이 삼묘(三苗)를 삼위로 쫓아 보냈다¹⁰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나라는 셋으로 되어 있으니, 하나는 위(衛)라 하여 달뢰라마(達賴喇嘛)가 사는데 옛날의 오사장이요, 하나는 장(藏)이라 하여 반선라마(班禪喇嘛)가 사는데 옛날의 이름도 역시 장이요, 하나는 객목(喀木)이라 하여 서쪽으로 더 나가 있는 땅으로서 이곳에는 대라마(大喇嘛)는 없고 옛날의 강국(康國)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땅들은 사천(四川)마호(馬湖)의 서쪽에 있어 남으로는 운남(雲南)으로 통하고 동북으로는 감숙(甘肅)에 통하여 당의 원장 법사(元裝法師)¹¹가 삼장(三藏)으로 들어갔다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원장이 갈 적에는 이 땅에 사람이 없었고 큰 물을 건너 갔었는데, 그가 돌아올 적에는 물은 말라버리고 촌락이 생겼으며, 당의 중엽에는 갑자기 토번(吐蕃)이란 큰 나라가 생겨서 중국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를 숭상했는지는 알 수 없고, 원의 초년에 불교가 북쪽으로 흘러 들어 번승(番僧)이 생겼는데, 그를 파사파(巴斯巴)(파(巴)는 팔(八)과 음이 같으니 역시 파사팔(巴思八)이다.)라고 불렀으나 이것도 별호요, 그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큰 신통력(神通力)을 갖추어 원의 초년에 제사(帝師)로써 대보법왕을 봉했고, 그가 죽은 뒤에는 그의 조카로 대를 잇게 했습니다. 명의 초년에 여러 법왕들이 중국에 왔을 때 성조(成祖)는 당의 예법을 따서 모두 우대하였는데, 그 중들도 역시 환술(幻術)을 할 줄 알아서 더욱 높이

10 순……보냈다 : 《서경(書經)》순전(舜典)에 나오는 한 구절.

11 원장 법사(元裝法師) : 《서유기(西遊記)》에 나오는 중. 곧 현장 법사(玄裝法師). 현(玄)은 청의 어휘를 피한 것이요, 장(裝)은 장(裝).

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라마는 대체로 명의 중엽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그 중에도 이상한 중이 있었으니 종객파(宗喀巴)라고 하는데, 역시 먼 곳으로부터 서장으로 들어온 자로서 이상한 술법이 있어, 한 번 보면 사람마다 놀라 자빠졌다고 합니다. 그는 또 남의 몸에 태어난다는 말도 있었는데 모든 법왕들은 그를 스승으로 삼아 그의 제자의 반열에 들기를 달게 여겼습니다. 종객파는 두 제자에게 그 대를 전했는데, 첫째는 달뢰라마(達賴喇嘛)이고, 둘째는 반선액이덕니(班禪額爾德尼)라고 했습니다. 달뢰라마는 이제 7대를 거듭 환생했고, 반선라마는 4대째 태어났다고 합니다. 본조의 천총(天聰 청 태종의 연호) 시절에 반선은 동방에 성인인 것을 알고 큰 사막을 넘어 사신을 보내서 조공을 해왔는데, 이로부터 해마다 사신들을 보내서 조공을 드리게 시작했습니다. 강희 때에 인조(仁祖)는 그를 중국으로 입조(入朝)시키고자 하였으나 일찍이 오지 못 했으며, 지난해에 만수절(萬壽節) [그는 스스로 주를 내기를 곧 금년이라 하였다. (스스로라는 것은 왕효정을 일컬었다.)]이 오면 입근(入覲)할 것을 청했으므로 우대해 주었으니, 대체로 이교에서 이름은 중이라 했지만, 실상인즉 도교(道教)였습니다. 정신이나 술법이나 주문(呪文) 같은 것이 도가(道家)와 비슷하고, 그 글의 넓고 깊은 것과 과장해 말하는 것이 또 한 도가에 비하여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또 호도(胡圖)와 극도(克圖)란 자가 있으니, 모두 그의 제자로서 역시 5·6대 이상을 환생했다 합니다. 국왕의 스승으로서 신통력은 없고, 다만 선리(禪理)에 대한 것을 잘 말했다 합니다.”

했다. 경순미는 또 말하기를,

“중의 이름을 가졌어도 실상은 도교라 하는 말은 곧 이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한다. 그러나 그 말은 분명하지 못하기에 나는,

“왕성(王晟)의 말과는 많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왕성의 말에는, 명의 중엽에 특이한 중이 있어 종객파라고 했는데, 그 만제자는 달뢰라마요, 다음은 반선액이덕니라 하고, 그는 또 말하기를, ‘천총 때에 반선이 큰 사막을 넘어 조공하러 왔다.’ 하였으니, 천총은 명의 중엽으로부터 1백여 년이나 되었고, 지금까지는 또 1백여 년이 되니, 한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인가요, 아니면 4대째 환생해서 한 이름을 답습한 것일까요. 그리고 소위 호도니 극도니 하는 자는 또 누구의 제자입니까.”

하고 묻고는 나는 또,

“국왕의 스승으로서 선리(禪理)를 잘 말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킨 것입니까.”

하고 물었으나, 순미는 모두 대답하지 않고 마침내 딴 이야기를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장성(長城) 아래에서 어느 손 하나를 만나 서번 일을 물었더니, 손은 대답하기를,

“서번은 옛날 토번(吐蕃) 땅으로, 장교(藏敎)를 숭상하고 있으니 역시 황교(黃敎)라고도 부르는데, 본래 그 나라의 풍속이 그러한 것으로, 중이란 명칭은 일부러 붙인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의 중이란 것은 실상 불교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한다. 이제 중국의 불교는 없어진 지 오래되었으니, 내가 열하에 있을 때 비록 조정의 귀관(貴官)들이라도 도리어 나에게 반선의 모습을 물어 보았으니, 대개 친왕(親王)이나 부마나 또는 조선 사신이 아니고서는 얻어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미 연경(燕京)으로 돌아오자 날마다 유황포(俞黃圃) · 진입재(陳立齋) 등 모든 사람들과 놀았는데, 그들은 일찍이 한 마디도 반선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내가 혹시 물어 보면 번번이 말하기를,

“그건, 원 · 명 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고, 또,

“우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하여 마침내 한 마디도 즐겨 말하지 않았다. 어느 날 고 태사(高太史) 역생(穧生)과 함께 단가루(段家樓)에서 술을 마시다가 고 태사가 반선의 말을 바야흐로 꺼내려 하는데, 그 자리에 풍생(馮生 풍병건(馮秉健))이란 자가 있다가 눈짓을 하여 그치니, 이것을 나는 심히 괴이하게 여겼다. 오래 있다가 들으니, 산서(山西)에 사는 포의(布衣) 하나가 일곱 가지 조목으로 상소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반선의 이야기를 크게 말했다가 황제가 크게 노하여, ‘살을 벗겨 죽이라.’ 했다 한다. 우리나라 역부(驛夫)들이 이것을 선무문(宣武門) 밖에서 많이 보았다 한다. 이로부터는 감히 다시 반선의 말을 물어보지 못했으니 비록 유황포 · 진입재처럼 서로 친한 사이에도 그러했고, 더구나 산서 포의 선비는 성명도 알아볼 수 없었다. 혹은 상소를 올

린 자는 거인(舉人) 장자여(張自如)라고 한다. 서번의 시말은 대체로 왕효정의 말만큼 자세한 것이 없는데, 이에 술을 뿌려서 불을 끄고, 물결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은 모두 난파(難巴)¹²나 달마(達摩)의 지난 사적이므로 여기에 쓰지 않는다.

12 난파(難巴) : 후한 때의 도가(道家). 자는 숙원(叔元).

반선시말후지(班禪始末後識)¹³

적이 말하건대, 옛날의 제왕들은 자기가 능히 배운 뒤에 그 사람을 신하로 삼았으므로 더욱 성스러웠고, 천자로써 필부(匹夫)를 벗 삼되 자기의 높은 것이 깎이지 않으므로 더욱 크게 되었으나, 후세에는 이러한 도가 없어졌음에 따라, 다만 호승(胡僧)이라든가 방술(方術)이라든가 비뚤어진 도라든가 하는 이단의 유에 대해서는 자기 몸을 낮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은 무엇 때문일까. 내가 이제 그 일을 목격했거니와, 반선이 과연 어진 자라면 황금집은 지금 황제로서도 능히 거처하지 못하는 터인데, 저 반선이 무엇이기에 감히 안연(晏然)히 점령하고 있었을까. 혹은 말하기를,

“원·명 이래로, 당(唐)의 토번 난리를 경계하여 반선이 오기만 하면 문득 봉하여 그 세력을 쪼개어 놓고, 그들을 대우하기를 신하의 예로 아니 했으니, 역시 유독 지금에 와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꼭 그런 것만도 아니리라. 당시에는 천하가 처음으로 정해진 때로서, 뜻이 일찍이 이렇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원에서 그의 제사(帝師)에게 황천지하일인지상선문대성지덕진지(皇天之下一人之上宣文大聖至德眞智)라고 호를 주었는데, 일인(一人)이란 천자를 가리킨 말이니, 천자는 만방(萬邦)에서 함께 임금으로 받드는 터에 천하에 어찌 다시 천자보다 높은 자가 있단 말인가.¹⁴ ‘선문대성지덕진지’는 공자를 가리킨 말이니, 백성이 생긴 이래로 어찌 다시 공자보다 어진 자가 있단 말인가. 원 세조(元世祖)는 사막에서 일어났으니 족히 괴이할 것도 없겠지만, 황명(皇明) 초년에 맨 먼저 이승을 찾아 귀족들의 자질로 하여금 스승으로 섬기게 하고, 널리 서번의 중을 불러서 높이 대접하면서도, 스스로 중국을 낮추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지존(至尊)을 깔고 선성(先聖)을 욕되며, 참다운 스승을 억눌러 나라를 세우는 시초부터 이것으로 자제들을 가르쳤으니, 또

13 반선시말후지(班禪始末後識)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본’을 따라 추록하였다.

14 백성……있단 말인가 : 《맹자(孟子)》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구절.

무슨 더러운 짓인가. 대저, 그 술법이란 능히 오래 살고 오래 본다는 것으로 이것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말인데, 이것으로 세속 임금들의 마음과 귀를 흐리고 말았을 뿐이다. 혹은,

“양(梁) · 진(陳)의 제왕들은 자기 몸을 버리고 불가(佛家)의 종이 되었으니, 중이 천자보다 높아진 지가 오래긴 했으나, 다만 황금 궁전을 지었다는 말은 듣지 못했었네 그러.”

라고 말하는 자 있으리라.

중존평어(仲存評語)¹⁵

중존씨(仲存氏)가 말하기를,

“이는 대저 모두 의심스러운 것을 전하는 글이나, 다음날 일대의 역사를 쓰려면 부득이 반선을 위해서 전(傳)을 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지나가서 이 글만큼도 자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외국 사람의 사사로운 기록이 역사 쓰는 사람의 참고가 되기에는 인연이 없으니, 이것은 가석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15 중존평어(仲存評語) : 여러 본에는 이 소제가 없었으나 이제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황교문답

황교문답서(黃敎問答序)¹⁾

남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흔히들,
“나는 용하계도 적국(敵國)의 비밀을 엿본다.”

하기도 하려니와, 또는,
“난 남의 나라 풍속을 잘 살피지.”

하고 과장한다. 나는 그들의 말을 반드시 믿지 않는다. 왜냐 하면, 남의 나라에 들어간 자가 어찌 길에 다니는 사람을 잡고 갑자기 그 나라의 정세를 캐어 물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첫째 불가한 일ियो. 그들과 말씨가 서로 같지 않아서 주고 받는 사이에 서로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 둘째 불가한 일ियो. 안팎의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저절로 형적(形迹)이 드러날 혐의가 있으니, 이것이 셋째의 불가한 일ियो. 말이 얕으면 그 나라 실정을 얻지 못할 것이고 말이 깊으면 기휘(忌諱)에 저촉되기 쉬우니, 이것이 넷째로 불가한 일ियो. 묻지 않을 것을 물으면 정탐을 하는 듯한 자취가 생길 것이니, 이것이 다섯째로 불가한 일ियो. 그 지위에 있지 않거든 그 정치를 꾀하지 않는 것이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의 도리일 것이니, 하물며 다른 나라일까 보냐. 그 나라의 크게 금하는 것을 물어본 연후에야 감히 들어가는 것은 남의 나라에 들어가 사는 도리라 하겠거늘, 하물며 대국(大國)일까 보냐. 이것이 여섯째로 불가한 일ियो. 더욱이 그 나라 장수나 재상들의 어질고 그른 것과 풍속의 맑고 흐린 것과, 만주와 중국의 등용되고 소외되는 것과 명(明)의 옛 실정은 더구나 물어서는 안 될 것이니, 이것은 비단 물어서 안 될 일일 뿐만 아니라 감히 생각도 못할 일이다. 저들도 또한 마땅히 대답할 것이 아니요 감히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다. 또 돈이나 곡식과 군사와 산천의 형승(形勝)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심한 관계가 없을 것 같지만 이것도 마땅히 말할 일이 못 되는 것이며, 저들도 또한 이를 의심하고 괴상히 여길 것이니, 그 까닭인즉 돈과 곡식은 국가의 허실에 관계되는 일ियो, 산천의 형승은 관액(關陜)과 요새(要塞)에 관계되므로 이것을 묻

1 황교문답서(黃敎問答序) : 여러 본에 모두들 이 소제(小題)가 없으나 여기서는 '주설루본'에 의하여 넣었다.

답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 옛날 사람들은 항상 언어를 문답하는 사이에 실정을 얻어서 교량과 시간과 또는 관리들의 등급 같은 것을 점쳐서 안 일도 있었다. 시가(詩歌)를 배풀고 음악을 들은 뒤에 시장 물가의 높고 낮은 것을 징험해 알아 맞힌 일도 있었다. 이미 옛 사람만 한 지식과 재주도 없으면서 한갓 조그만 글이나 짤막한 말로써 그 나라 실정을 얻는다는 것은 그 또한 어려운 일이거늘, 하물며 사해(四海)가 광대하여 끝간 데를 못 보는 데일까보나. 내가 열하에 이르러 잠자코 천하의 형세를 살펴 본 것이 다섯 가지가 있었다. 황제는 해마다 열하에 주필(駐驛)하게 되는데 열하란 장성(長城) 밖 궁벽한 땅이라, 천자는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 변두리의 거친 벽지에 와서 거처하는 것일까. 이름은 ‘피서(避暑)’라 하였지만 그 실상인즉 천자가 몸소 나가서 변방을 방비한 것이니, 이려고 본즉 몽고가 강했던 것을 가히 알 수 있겠다. 황제는 서번(西番)의 승왕(僧王)을 맞아다가 스승으로 삼아 황금으로 전각을 지어 그를 살게 하고 있으니, 천자는 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러한 몇몇하지 못한 참람된 예절을 쓰는 것일까. 명목은 ‘스승’으로 대접하지만 그 실상인즉 전각 속에 가두어 두고 하루라도 세상이 무사할 것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니, 이려고 보면 서번이 몽고보다도 더 강한 것을 알 수 있는 터로, 이 두 가지 일은 황제의 마음이 이미 괴롭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사람들의 문자를 보면 비록 그것이 심상(尋常)한 두어 줄 편지라 하더라도, 반드시 역대 황제들의 공덕(功德)을 늘어놓고 당세의 은택(恩澤)에 감격한다는 것은 모두 한인(漢人)들의 글이다. 대개 스스로 중국의 유민(遺民)으로서 항상 걱정을 품고 혐의하는 경계를 이기지 못하여, 입만 열면 칭송(稱頌)을 하고 붓만 들면 아침을 함으로써 자신들이 당세에서 벗어나 있는 듯이 생각한다. 이것을 보면 한인들의 마음도 이미 괴롭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사람과 필담(筆譚)을 할 때는 비록 심상한 수작을 한 것이라도 말을 마친 뒤에는 곧 불살라 버리고 쪽지 하나도 남겨 두지 않는다. 이것은 비단 한인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만인(滿人)들은 더욱 심하다. 만인들은 그 직위가 모두 황제와 근밀(近密)한 데 있는 터이므로, 법령이 엄하고 가혹한 것을 더욱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려고 보니 비단 한인들의 마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천하를 법으로 금하고 있는 자의 마음도 괴로울 것이다. 시장에서 파는 벼루 한 개의

값이 백 냥을 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슬프다. 천하가 일이 있으면 주옥(珠玉)이 굴러다녀도 거두어들이지 않지만 해내(海內)가 승평한 때는 기왓장이나 벽돌이 땅에 묻혀 있어도 반드시 캐내는 것이다. 부귀한 자들은 심심풀이로 취하여 보고, 빈천한 자들은 눈을 뒤집고서 거두어 간직하며, 취미로 감상하는 자는 우연히 한 번 만져만 보고, 우둔한 자는 발이 부르트도록 쏘다니며 구하여 발 갈다가 얻은 것, 낚시질하다가 건진 것, 송장 냄새나는 무덤 속에서 파낸 것까지도 천하의 보물로 여기고 있으니, 천하의 보물을 보배롭게 감상하는 마음도 또한 괴롭다 할 것이다. 이러고 보니 한 조각 돌로 족히 천하의 대세를 알아맞힐 수 있을 것이어늘 하물며 천하의 괴로운 심정이 돌보다 더 큰 것이 있음에랴. 이제 타고 남은 반선(班禪)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기록하여 《황교문답(黃敎問答)》이라 한다.

황교문답(黃敎問答)

내가 ‘찰십륜포(札什倫布)’로부터 먼저 숙소로 돌아오니, 지정(志亭)은 (자는 학성(郝成)이요, 호는 장성(長城)이다.) 나를 맞으면서,

“선생이 잠깐 보고 온 활불(活佛)의 얼굴 모양이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공은 그를 보지 못하셨나요.”

하였더니, 지정은,

“활불은 깊고도 장엄한 데 거처해서 사람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신통한 법술(法術)이 있어 사람의 장부를 들여다 본답니다. 보배로운 거울을 하나 걸어 놓았는데 사람이 간음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푸른 빛으로 비치고, 사람이 탐심이나 적심을 품으면 반드시 검은 빛으로 비치며, 사람이 위험하고 불측한 마음을 지니면 반드시 흰 빛으로 비치고, 오직 충효(忠孝)스러운 마음과 일심(一心)으로 부처를 공경하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붉은 빛 아지랑이에 누른 빛을 띄워 경운(慶雲)과 같이 거울 바닥에 서리게 되니, 이 다섯 색 거울이야말로 가히 두려운 것이지요.”

한다. 나는,

“이것은 진 시황의 조담경(照膽鏡)을 본떠서 이야기를 신통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담경은 역시 정사(正史)에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보니, 어찌 족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지정은,

“벽 사이에 그 거울이 없던가요.”

하고 묻는다. 나는 ‘오색경이 가히 두렵다.’라는 대목에 권주를 치면서,

“공이 푸르고 검고 흰 세 가지 마음이 스스로 없고 보면 무엇 때문에 이 거울이 그렇게 두려울까요.”

하였더니, 지정은,

“《법화(法華)》·《능엄(楞嚴)》 같은 모든 불경의 게(偈)들은 모두 사람을 위협하여

그 책을 존경하지 않으면 곧 화를 받는다고 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가 공하도록 하여 착한 길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대개 이 거울이나 마찬가지로 일이지요. 거울은 글자를 쓰지 않은 경전(經典)이요, 경전은 또 구리로 만들지 않은 거울 일 것입니다. 내가 비록 열흘 동안 담식(淡食)을 하고 열흘 동안 목욕을 했더라도, 혹시 간(肝) 구석이나 폐(肺) 틈에 터럭만 한 흠이라도 있다면 어찌 세 가지 빛깔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글쓴 종이를 찢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과연 진실로 신통하답니다. 활불에게 절을 하는 자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면, 활불이 친히 손으로 이마를 만지면서 웃음을 머금으면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만일 웃지 않으면 받는 복이 그리 크지 못하고, 또 활불이 눈을 감을 때는 절하던 사람은 겁이 나서 향불을 피우고 참회하면서 뼈저리게 회개하면, 자연히 죄악은 소멸되고 다시는 죄를 짓지도 않는답니다. 이것은 활불이 말로써 교훈하지 않고, 손 한 번 펴는 사이에 공과(功果)가 이 같은 것입니다. 화석(和碩) 친왕(親王)과 화석 액부(額駙)는 매일 아침 활불 앞에 절하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외인들이나 보통 관품(官品)들은 이런 사실을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다. 내가 그 내력을 물었더니, 지정은,

“건륭 40년 경에, 서방(西方) 사람들이 자자하게 말하기를, 활불 법왕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떠들었고, 혹은 이 법왕은 능히 사십세(四十世) 전신(前身)의 일까지도 안다고 했는데, 지금의 몽고 48부가 강하다 하지만 가장 서번을 무서워했고, 서번의 여러 나라들은 활불을 가장 무서워 한답니다. 활불이란 곧 장리대보법왕(藏理大寶法王)입니다. 명(明)의 양삼보(楊三寶)와 중 지광(智光) · 오향(吾香) · 하객(霞客) 등 여러 사람들은 서역(西域)의 여러 불교국을 두루 다닌 일이 있었는데, 오사장(烏斯藏)은 중국으로부터 1만여 리나 떨어져 있고, 이 나라에는 대보법왕(大寶法王)과 소보법왕(小寶法王)이 있는데, 서로 번갈아 후생(後生)에 환생하여 모두 도술이 있고 나면서부터 신성하니, 지금의 활불은 곧 옛날 원(元)의 시대의 서천(西天) 지방 부처의 아들이요, 대원 황제(大元皇帝)의 스승의 후신이랍니다. 지난해에, 내각(內閣)의 영공(永公 영귀(永貴))은 여섯 황자(皇子)를 배종(陪從)하여 불교

의 예식을 갖추고 가서 활불을 맞아 왔는데, 활불은 이미 황제의 귀한 신하들이 자기를 맞으러 올 것과 복경을 떠날 날짜와 귀신(貴臣)의 이름이 아무개라는 것까지도 알았다 합니다. [이름은 영귀(永貴)요, 현재 내각의 학사(學士)로 총애받는 신하라 한다.] 거처하는 곳은 모두 황금으로 지은 집이요, 그 사치하고 화려한 품은 중국보다도 굉장하더랍니다. 도중에서 신기한 일이 많이 있었고, 거처온 여러 나라의 번왕(番王)들은 심지어 몸뚱이를 불사르고 머리를 태우며 손가락을 끊고 살을 베는 자까지 있었답니다. 또 어리석은 백성 중에 불효한 자가 활불을 한번 보더니 갑자기 효심이 생겨, 아버가 괴상한 병에 걸리자 칼로 자기 왼쪽 옆구리를 베고 간(肝)의 한쪽 끝을 잘라서 구워 먹이니, 아버의 병이 즉시 낫고, 불효자의 왼쪽 옆구리도 금방 나아서 금시에 효자로 변하매, 나라로부터 표창을 받고, 고향에서는 정문(旌門)을 세우며, 몸을 부역에서 면제하였답니다. 또 산서(山西)에 어떤 어리석은 자는 형세는 거부(巨富)이나 평생에 인색하여 한 푼 돈도 쓰지 않더니, 길에서 활불을 쳐다보고는 곧바로 자비심이 생겨 드디어 10만 금을 녹여 일좌(一座) 부도(浮圖)를 세웠다 하니, 이것이 활불의 공덕 중의 대략입니다. 물을 만나도 다리나 배가 필요 없고, 맨발로 물을 밟아도 물결이 발목을 넘지 않았답니다. 강 건너 저쪽 언덕에 큰 범 한 마리가 길에 엎드려 꼬리를 흔들고 있었는데, 황자(皇子)가 화살을 빼어 쏘려 하니, 활불은 이를 말리면서, 수레에서 내려 범을 쓰다듬어 주자, 범은 그의 옷자락을 물고 무슨 호소할 일이 있는 것처럼 하며 남쪽으로 가매 활불도 따라가 보니, 큰 바위 틈에 굴이 있는데 범 한 마리가 바야흐로 젖을 먹이고 있고, 큰 뱀 두 마리가 범의 굴을 둘러싸고 범의 새끼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시다. 뱀의 한 마리는 젖먹이는 범과 겨루고, 다른 한 마리 뱀은 숫범과 겨루고 있었으나 범의 어금니로도 이것을 막을 도리가 없어 슬피 울다가 기진해 버렸습니다. 이때 활불은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주문(呪文)을 외우니, 두 마리의 뱀은 저절로 돌에 부딪쳐 죽었는데, 그 대가리 속에서 밤중에도 빛이 나는 진주가 한 개씩 나오자, 이 구슬을 한 개는 황자에게 바치고, 한 개는 학사(學士)에게 바쳤습시다. 이런 뒤에, 범은 열흘 동안이나 활불을 모시고 따라가면서 심히 공손하고 순하니, 황자는 범을 궤 속에 잡아 넣어 같이 데리고 가고 싶었으나, 활불은 이것을 불가하다

고 하여 중지시키고, 드디어 범을 경계하여 말하는 듯하니, 범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가버렸다 하니, 이는 그 범술의神通한 것입니다. 두 개의 구슬은 임금의 행차에 쓰는 물건으로 바쳤는데, 홍수나 가뭄 및 역질에는 신비스러운 물건이 되어 영험이 많다 합니다.”

한다. 나는 또,

“활불의 전생(前生) 일이란 비유하면, 느티나무 앞에 붙은 푸른 벌레가 꿀집을 뚫고 들어가 벌이 되고, 큰 송충이가 표범 가죽 같은 껍질을 벗고 범 나비가 되며, 누에가 나방이 되고, 굼벵이가 매미가 되며, 비둘기가 매가 되고, 매가 꿩이 되며, 꿩이 조개가 되고, 닭이 뱀이 되며, 뱀은 거북이 되는 등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이 모두 각성(覺性)이 있어 이렇게 변화된 몸을 가지고 능히 전생에 가졌던 형태를 안단 말인가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장주(莊周)가 호접(蝴蝶)의 꿈을 깬 것처럼 서로 판이하여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인가요. 만일 과연 활불처럼 전생에는 이 몸이 아무데 누구의 아들이요, 금생(今生)에는 이 몸이 다시 아무데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면 전생의 부모와 금생의 아버지 어머니가 오늘도 아무런 탈도 없이 한결같이 자애(慈愛)롭게 역력히 다 알아보고, 저마다 아무개냐고 부를 터이니 이려고서야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은혜롭게 여길 것이며,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즐거울 것입니까.” 했더니, 지정은 홀연 두어 줄기 눈물을 흘리면서 ‘무엇이 슬프고 무엇이 즐거울 것인가.’라는 구절에 권주를 쳤다.

이때 홀연 문 여는 소리가 나니, 지정은 바쁘게 글 쓰던 종이를 비벼서 손에 쥘다. 문이 열리고 보니, 같은 숙소에 있는 왕민호(王民□)였고, 뒤따라 들어오는 이는 역시 왕군(王君)과 같이 있는 추사시(鄒舍是)이다. 이들은 모두 거인(舉人)으로서 객지인 장성 밖에서 노는 사람들이다. 지난해에, 열하에 태학(太學)을 신설하였으니 북경 제도를 본떠서 세웠다. 이때 두 사람은 그 태학에서 머무르며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나를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지정이 두 손님을 향하여 무엇인가 글을 읽듯이 설명을 하는데, 두 손님은 한편으로 지정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책상 위에 권주 처놓은 데를 가리키는 것이 필경 내가 한 말을 전하는 것 같았다. 왕 거인(王舉人)은 내 성명과 자와 호를 써서 추 거인에게 보였는데, 왕은 벌써 숙면(宿

面)이요, 추는 처음 보기 때문이다.

추생(鄒生)이,

“귀국은 불교가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나요.”

하고 묻기에, 나는,

“소량(蕭梁 대통(大通 527~529) 연간에 중 아도(阿道)가 신라(新羅)에 처음 들어 왔지요.”

했더니, 그는,

“귀국의 사대부들은 세 가지 교 중에, 어느 교를 가장 숭상합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사실 신라나 고려 시대에는 사족으로서 비록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도 서교(西敎 불교)를 공부하지 않는 자가 없었으나, 우리나라(이조(李朝))가 나라를 세운 지 4 백 년에 사족으로서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공자의 글을 외우고 익힐 뿐입니다. 국내의 명산(名山)에는 비록 전대에 세운 명찰(名刹)들이 있으나, 이미 모두 황폐 되었고, 절에 사는 중들이란 대체로 천한 무뢰배(無賴輩)로서 종이나 뜨고, 신이나 삼아서 생업을 삼고 있으나, 명목은 비록 중이지만 눈으로 불경을 볼 줄도 모르니 누가 배척하기를 기다릴 사이 없이 그 교는 스스로 끊어질 것입니다. 또 국중에 도교(道敎)란 것이 없으므로 역시 도관(道觀)도 없는 까닭에 소위 이단(異端)의 교는 금절할 것을 기다릴 사이 없이 저절로 국중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했더니, 추생은,

“가위 천하 중의 낙국(樂國)입니다그러. 이단의 폐해는 성인들이 이미 우려한 터로 사람끼리 서로 잡아먹는다는 말까지 있어, 이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반드시 지나친 말이라고 여기게 하였으나, 요즈음 산중에 왕왕 사람을 잡아먹는 도사(道士)가 있어 어린애를 기르기는 더욱 어려우니, 순양(純陽) 동자(童子)가 제일 좋다고 해서 이를 찌서 먹는답니다. 심지어 밤에는 궤 속에 감추어 두어도 오히려 잃어버릴까 걱정이 되어서 이 지방의 관청에서는 이것을 적발하여 붙들고자 도관을 불살라 허물면, 다시 이름을 중의 명목에 붙여 두고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몸을 절간에 숨기고 있답니다. 심지어 은밀한 방 속에서 하는 비술(秘術)이라든지, 더러운 병에

쓰는 기이한 방문들은 모두 가난한 도사가 만든 것으로 사람들은 그들을 많이 따라다니며, 또는 몰래 이 술법을 배우고 있으니, 해괴하여 무엇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선(禪)과 석(釋)은 그 본지(本旨)에 어그러져 양루(仰漏)가 말한 바 소위 이름은 중인데, 실상은 도교라는 말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한다.

양루란 이는 몽고 사람 경순미(敬旬彌)의 자인데, 나와 더불어 이야기할 때에 중 이름이 도사 노릇을 한다는 말을 하였기에 나는 이를 지정에게 하였더니 지금 한 말은 지정이 아마 외워서 추생에게 말한 모양이다. 추생은 또,

“귀국에서도 옛날에는 역시 신승(神僧)이 있었나요. 그 이름을 듣고자 합니다.”

한다. 내가,

“우리나라가 비록 바다 한쪽에 있으나 풍속은 언제나 유교를 숭상하여 예나 지금이나 큰 선비나 학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생의 묻는 것은 이것이 아니고 도리어 신승 이야기고보니, 우리나라 풍속에는 이단의 학문을 숭상하지 않아 신승이 없는지라, 진실로 대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였더니, 왕군(王君)이 말하기를,

“이단 가운데도 또한 이단이 있어 도리어 그 도를 해치는 일이 있지요. 이제 우리 친구 추(鄒)는 귀국의 유교와 불교의 다른 점을 알고자 해서 한 말이지요.”

하니, 추생도,

“그렇습니다.”

한다. 내가,

“비록 중의 이름을 듣는다 해도 어찌 유교와 불교의 다른 점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추생은,

“유학하는 사람 중에도 도학(道學)과 이학(理學)의 이름이 있는데 귀국에서도 유학자 중에 또한 이런 분간이 있나요.”

한다. 나는,

“성문(聖門)의 설교(設敎)에는 오직 네 가지 과목²을 두어 이것을 일관(一貫)한 도는 다만 한 가지 이치일 것이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묻는 것이 바로 학문일 것입니다. 어찌 유문(儒門)에 함부로 딴 과목을 두어 이런 두 가지 명목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더니, 추생은,

“그렇습니다. 선생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공자의 문도(門徒) 70명이 그들의 스승에게 묻는 것은 인(仁)이나 효(孝)에 지나지 않는데, 후세에 와서는 그렇지 않아서 제자된 자가 맨처음 책을 펴 놓고서는 우선 이기(理氣)부터 묻습니다. 그러면 소위 선생은 옷깃을 여미고 자리에 올라 앉으면서 문득 말하는 것이 성명(性命)입니다. 요즈음 학자들의 학문은 하늘과 사람을 꿰뚫고 있지만 실지로는 한 고을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들의 이학이란 술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는 현상을 살피면서도《중용(中庸)》에 나오는 말) 한 가지 일도 판단을 못합니다. 이러한 학문을 하는 자를 소위 ‘이학선생(理學先生)’이라 합니다. 시골의 사숙(私塾)에서는 천품과 성질이 고루하고 행동이 못나고 괴이한 자라도 약간 경전(經傳)을 배우고 조금 훈고(訓詁)를 익히면 자리를 베풀고 강론을 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이야말로 썩어빠진 것을 맛보고는 숙숙(菽粟)이라 하고 누더기를 기워 모은 것을 구갈(裘褐)이라 하여, 자막(子莫)³의 집중(執中)을 오히려 정도(正道)를 지킨다 하고, 호광(胡廣)⁴의 처세하는 것을 스스로 중용(中庸)이라 하니, 이러한 학문을 하는 자를 소위 ‘도학군자(道學君子)’라 한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죽히 말할 것이 못 되지만 옛날 이단은 묵(墨)⁵을 버리고 유로 돌아오기도 하고, 유로부터 양(楊)⁶의 도로 붙는 자도 있어, 서로 시새우고 갈라지며, 서로 배반하고 저마다 딴 속셈을 가졌습니다. 오늘의 유학자들을 본다면 죽기까지 제 고장을 떠나지도 않고 한번 지반을 잡은 뒤에는

2 네 가지 과목 : 덕행(德行) · 언어(言語) · 정사(政事) · 문학(文學).

3 자막(子莫) : 전국 때 고집쟁이, 《맹자(孟子)》 진심상(盡心上)에 나온다.

4 호광(胡廣) : 후한의 정치가. 자는 백시(伯始). 모두들 천하에 중용을 지키는 이는 호공(胡公) 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칭찬이 있었으나 그 뒤에는 일을 잘못해서 조소의 대상이 되었다.

5 묵(墨) : 전국 때 저명한 사상가 묵자(墨翟). 그는 겸애주의(兼愛主義)를 제창하였다.

6 양(楊) : 역시 전국 때 철학자인 양주(楊朱). 극단의 이기주의(利己主義)를 제창하였다.

더욱 육경(六經)의 공부를 쌓아서 자기의 지위를 튼튼히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학설을 뒤바꾸어 새로운 가치를 올려, 반은 주자요, 반은 육象山(陸象山)으로 이들로 포주(逋主)를 삼아서, 머리를 감추기도 하고 머리를 들기도 하여, 물에 빠진 두어(蠹魚)가 여우나 쥐로 화한즉, 고증학(攷證學)을 가지고 성이나 사직단 같은 것을 근거를 삼고 뛰어난 인재들을 억눌러 바보로 만드는 동시에, 훈고학(訓詁學)으로써 재갈을 물립니다. 때로 용기를 돋구어 싸우다가도 상대방의 강력한 공격을 만나서 형세가 불리하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것이 요즈음 세상의 유학자들입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무섭고 두렵다 할 것이니, 저는 평생에 유학을 배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만일 능히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열어 이단의 학문을 제창하는 자가 있다면, 저는 장차 불원 천리하고 양식을 짊어지고 쫓아가 스승으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선생의 의론을 들으니 확실히 옳은 것을 지켜 소인의 마음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프게 합니다.”

한다. 추생의 용모를 보니 의젓하게 생겼으며 그의 언사는 방탕해서 칭도하는 것도 같고 조롱하는 것도 같으며, 변환하고 속이는 듯하여 모든 사건에 나를 업신여기는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선생의 이단을 물리치는 의론을 들으니 흠복함을 이기지 못하나 도리어 이렇게 괴상한 말을 하시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바다 한쪽에서 나서, 듣고 본 것이 적고 학식이 보잘것없으니, 대방가(大方家)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만, 잘하는 것을 칭도하고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군자의 덕의(德義)로 정당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족하(足下 상대방을 높인 말)는 성묘(聖廟)에 몸을 붙이고 있으면서 이단을 배우고 싶다 하니, 그 말씀이 만일 진정이라면 상국(上國)이 먼저 본을 보일 처지에 있으면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은 뜻하지 않은 일이요, 또 만일 그 말씀이 거짓이라면 외국에서 온 한 부유(腐儒)를 조롱하는 것이니, 먼 데서 온 사람을 대접하는 덕의가 아닐까 두렵습니다. 부끄러워서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하였더니, 추생은 사과하여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마침 심중에 격한 일이 있어 말머리가 왔다갔다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선생께서 이처럼 저를 죄주시니 저는 감히 오래 축하를 모시지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추생이 의자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니, 이것은 사과를 하는 뜻이다. 왕군이,

“저의 친구는 순실한 사람으로 그의 뜻은 본래 그렇지 않사운데, 선생이 잘못 의심한 것이니, 그가 이단을 배우고 싶다고 한 말은 구이(九夷)에 살고 싶다(《논어》에 나오는 말)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하고, 서로들 크게 웃기에 나도 따라서 웃었으나 심사가 끝내 개운하지는 못했고, 구이의 땅에 가서 살고 싶다는 비유가 더욱이 나로 하여금 한스럽게 하였다. 추생은 다시,

“선생의 이번 길은 오로지 서불(西佛)을 배망(拜望)하기 위한 것인가요, 또는 황제의 성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인가요.”

하고 묻는데, 그 동안 지정은 잠깐 문밖에 나갔었다. 나는,

“오로지 황제의 칠순(七旬) 경절(慶節)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지요. 황제의 조지(詔旨)가 없으면 어떻게 열까지 왔겠습니까. 어제 활불을 본 것도 역시 황제의 분부입니다.”

하였다. 왕군이,

“박 선생은 사신이 아니고 그 족형(族兄)되는 어른을 따라 구경차 오신 길이랍니다.”

하니, 추생은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다가,

“선생은 이번 길에 담인(嗔人)⁷이 무섭지 않습니까.”

한다. 나는,

“담인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니, 추생은,

“양련진가(楊璉眞加)⁸가 다시 세상에 태어났답니다.”

7 담인(嗔人) : 활불을 가리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라 하여 모욕하는 말이다.

8 양련진가(楊璉眞加) : 원 세조 때에 강남 석교(釋敎)의 총통이 되어서 송조의 임금과 대신들 무덤을 판

한다. 이때 왕군은 얼굴빛을 변하여 말다툼을 하려는 모습인데, 나는 그가 말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는 못하였지만, 그 사람의 기색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왕군이 추생을 책망하는 것 같았다. 이럴 즈음에 지정이 돌아와 자리에 앉아 글쓴 종이를 보자, 급히 손으로 찢어 입에 넣고 씹으면서 눈으로 추생을 보며 얼마 동안 말이 없다가 내가 한눈 파는 틈을 타서 입으로 나를 가리키면서 추생에게 눈을 주다가, 우연히 내 눈과 마주치자 몹시 부끄러운 빛을 보이더니, 이내 차를 청하면서,

“귀국 말은 하소(何宵 어느날 밤)에 낳았는지요.”

하고 묻기에, 내가,

“말 낳는 시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매 여러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지정이,

“소소(宵小)⁹라는 소(宵) 자로 써서 음이 같으면 쓰기를 같이 합니다.”

하니, 대개 그들은 음이 같으면 같은 뜻으로 쓰곤 한다. 나는,

“나라가 작은 까닭에 먹이는 짐승들도 따라서 작아집니다.”

했다. 나는 반선의 내력을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추생의 말에 무슨 곡절이 있기에 저 두 사람이 저렇게 기휘하는가 싶어 감히 함부로 묻지 못했다. 추생은 차를 마신 후에 바로 돌아가고, 지정 역시 다른 일이 있었고 나도 또한 일어나니, 왕군도 내 뒤를 따라 나왔다.

어느 날 내가 형산(亨山)을 찾았더니, 그는 대궐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다. [형산의 이름은 가전(嘉銓)이요, 성은 윤씨(尹氏)인데, 역시 태학에서 묵고 있었다. 벼슬은 대리(大理)요, 나이는 지금 일흔으로서 올해 봄에 치사(致仕)하였다.] 다시 지정의 처소에 들렀으나 빈 방에 아무도 없으므로 바로 발길을 돌려 나오려 하는데, 지정이 출타했다가 때마침 돌아오다 나를 보고는 매우 반가워하면서 내 손을 잡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모자를 벗어 벽에 걸고 나서 차를 청하더니,

것이 백 한 곳이요, 미녀와 보물을 받은 것이 많았다. 가(加)는 ‘박영철본’에는 가(珈)로 되었으나 잘못 되었다.

9 소소(宵小) : 작고 가늘다는 뜻. 곧 사람으로 말하면 소인을 소소배(宵小輩)라 한다.

“추 거인(鄒舉人)은 광사(狂士)이니 선생은 절대로 다시 만나지 마시오.”

한다. 나는,

“무엇을 가리켜 광사라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그의 뱃속에는 강개(慷慨)한 기운이 팍 차 있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토론을 할 때에는 좀처럼 지려고 하지 않고 욱질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혹시 노야(老爺)께서 그 사람의 성질도 모르고 주먹으로 때리거나 앓는가 걱정했습니다.”

한다. 나는 웃으면서,

“그 미친 짓은 따르지 못하겠군요.”

했더니, 지정은,

“저 같은 사람으로는 그 어리석음을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는 서로 크게 웃었다. 나는,

“활불이 양련(楊璉)의 후신이라는 것을 장군(將軍)은 이제 무슨 까닭으로 심히 꺼려하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저 추생 미치광이가 나를 끌어다가 남을 욱하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짐짓,

“양련이란 것이 무슨 욱입니까.”

하고 물으니, 지정은 좋지 않은 표정으로,

“차마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한다. 나는,

“왕팔(王八)이나 마박륙(馬泊六) 같은 몹시 나쁜 것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손을 흔들면서,

“아닙니다. 양련이란 원래 서번(西番) 중으로, 원(元) 때에 중국에 들어와 송조(宋朝)의 능침(陵寢)들을 파헤치기를 병화(兵火)보다 더 지독하게 하여, 보물과 구슬을 모은 것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그는 비술(秘術)이 있고, 산을 쪼개는 보검(寶劍)을 가지고 있는데, 주문을 외우면서 한번 치면 비록 남산(南山)에 석곽(石槨)이 아

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즉시 열리지 않는 것이 없어, 금으로 만든 오리나 옥으로 만든 물고기 같은 것이 땅을 차면 저절로 튀어 나오고, 구슬로 짠 옷과 옥 껍질이 낭자하게 벌려 있으며, 심지어 시체를 달아매고 수은(水銀)을 짜내며 시체의 뺨을 처가며 진주를 찾는답니다. 강남(江南) 사람들은 서로 옥하기를, 밥을 지어 곰보 양련에게 바칠 놈이라고 하는데, 이제 활불은 서번 사람이므로 그를 빌려다가 한번 옥한 것이요, 양련의 후신이라서 한 말이 아닙니다.”

한다. 나는,

“그는 무슨 까닭에 그토록 활불을 옥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그는 유학(儒學)을 업으로 삼는 고로 활불에게는 불복하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그가 만일 유학이 본업이라면, 저번에는 어째서 또 유학자를 옥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그는 미치광인지라 하늘이나 우레도 무서워하지 않고 왕법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인도 욕하고 부처도 욕하여, 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꾸짖어야만 정수리까지 차 있는 객기가 풀리는 모양입니다.”

하고는, 지정은 다시,

“귀국의 침묘(寢墓) 제도는 어떠합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비록 옛날 예법을 모방하지만, 나라 풍속이 검소한 것을 숭상하여 보옥을 순장하지 않고 공경과 귀인으로부터 아래로 필부(匹夫)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상장(喪葬)의 제도는 모두 주자의 가례(家禮)를 쓰고 있습니다. 또 땅이 궁벽한 한쪽에 있고 보니 병화(兵禍)도 자주 일어나지 않아 저절로 그러한 근심은 없습니다.”

했다. 지정은 감탄하면서,

“즐거운 나라 즐거운 땅에 즐겁게 나서 즐겁게 죽는 셈입니다. 주공(周公)이 예법을 만든 것은, 만세에 도적질할 마음을 열어 준 것이지요. 필부의 시체가 무슨 죄리오. 구슬을 가진 것이 죄이지요. 하물며 제왕가(帝王家)의 일이겠습니까. 천하를

위하여 그 어버이에게 겸소하게 하지 않는 것인데(《맹자》에 나오는 말) 천고 제왕의 말을 화로 삼으니, 이러므로써 한번 상난(喪亂)을 겪으면 파헤치지 않는 능침이 없어 경사(京師)의 유리창 같은 데서 파는 고완품(古玩品)은 모두 역대의 능침에서 나온 물건들이랍니다. 파문자마자 바로 파헤치기도 하고 문힌 세월이 오랏수룩 그 파헤치는 도수가 잦았으며, 이런 데서 파낸 물건일수록 더욱 보기(寶器)라고 쳐주어, 그 중에는 열 번이나 땅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있답니다. 이제 와서는 비록 장석지(張釋之 한(漢)의 법관)가 삽을 쥐고, 유향(劉向)이 삼태기를 잡아서 양후(楊侯 후한 때의 명신 양진(楊震))를 장사지낸다 하더라도 도적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무덤 속에서 나온 기완(器玩)이란 흥하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상서롭지 못한 데가 많을 터인데, 그것을 어찌 보물로 칩니까.”

하고 물으니, 지정은,

“참 그렇습니다. 은(殷)의 대야와 주(周)의 술잔은 그 해독이 만고에 내려와 후세의 일 좋아하는 자들이, 글 읽는 방이나 그림 그리는 마루나 위신을 높이는 방 치장에 이렇게 상서롭지 못한 그릇 아니고는 벌여 놓을 줄 모른답니다. 감상가들은 역력히 이것을 알아내는 것으로 박식하다 하였고, 수집가들은 부지런히 모아들이는 것으로 취미를 삼습니다.”

한다. 나는,

“장군 댁에도 역시 볼 만한 고기(古器)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저는 무인(武人)이라 능히 이런 것을 사 모을 수도 없고 대대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묵은 물건도 있을 수 없으나 다만 손바닥만 한 옛날 벼루 하나를 가졌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는 동파(東坡)가 손수 만든 것이라 하며 원장(元章 송(宋) 미불(米芾)의 자)의 낙관이 찍혀 있습니다. 또 원풍(元豐 송(宋)의 연호) 연간에 구리로 만든 푸른 금잔이 있습니다.”

한다. 내가 한번 구경하기를 청하자 지정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지금은 객지에 와서 묵고 있는 처지인즉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다. 나는,

“제가 듣기에는 강남(江南)에서 나는 서화와 기완은 교장(巧匠)들이 위조한 것이 많다는데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그릇 두 개도 창문(閨門 항주(杭州)에 있다)에서 아무렇게나 만든 것이 아니라고 어찌 보증하겠습니까. 저는 본래 감식이 깊지 못하여 바보 형세를 면치 못합니다.”

한다. 나는 다시,

“활불은 참으로 그러한 행동이 있었나요.”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무슨 행동이란 말입니까.”

한다. 나는 종이에 양(楊) 자를 써 보이니 지정은 손을 흔들면서,

“아닙니다. 그는 참으로 신통하였습니다.”

하고는, 또 부탁하기를,

“삼가 다시는 그(추사시(鄒舍是))를 찾아보지 마시오.”

하는데 지정의 뜻은 추를 마음 놓고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해서 말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또 묻기를,

“소위 라마(喇嘛)란 무슨 종족(種族)인가요. 이것도 몽고의 판 부족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아닙니다. 라마란 말은 서면에서 도덕(道德)을 일컫는 것으로, 소위 라마라 하면 이것은 모두 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몽고 사람들이 중이 되면 모두 라마 복장을 차립니다. 북경의 옹화궁(雍和宮)에 있는 중들은 모두 라마라고 불러 만인이 나 한인들도 라마에 몸을 붙여 중이 되는 자가 많으니, 이것은 의식이 풍족한 까닭이지요. 대체로 원(元)이나 명(明)의 시대는 번왕(番王)이 몸소 사신이 되어 조

공(朝貢)을 바쳤는데 3·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국경에 들면 항상 생기는 것이 많아서 혹 새하(塞下)에 머물러 있고 돌아가지 않은 자도 있었습니다. 홍무(洪武) 초년에는 변왕을 경중하고 사랑하기 비할 데 없이 하였고, 영락(永樂) 연간 으로부터 무종(武宗) 때에 이르기까지는 대우가 더욱 융숭해서 수도 안에 있는 여러 절간에 머물러 두고 대접했습니다. 금년 봄에는 금으로 궁전을 세우고 활불을 맞아다가 살게 했지만 옛날 원(元)이나 명(明)의 시절에 비한다면 그 접대하는 품이 못한 데가 많을 것입니다. 서번의 여러 법왕(法王)들은 그 거처하는 곳이 황금기와와 백옥 층대로, 문과 난간에는 침향(沈香)이나 강진(降眞 향나무의 일종)·오목(烏木 화류) 같은 목재를 쓰고, 창에는 수정(水晶)과 유리를 달고, 벽은 모두 화제(火齊 운모(雲母)의 일종)나 슬슬(瑟瑟 구슬의 일종) 같은 구슬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거처하는 집을 그의 본집에 비하면 토계(土階) 무자(茅茨 요의 궁전을 가리킨다)와 같은 것이라 오랫동안 머물기를 즐기지 않고 굳이 돌아가기를 청합니다. 황제는 내년에 오대산(五臺山)으로 거동을 할 때 친히 산서(山西)까지 전송을 해 준다는 약속을 하고 기일까지 이미 정했습니다. 그는 음률을 잘 알아 팔풍(八風)¹⁰을 점치고 열 나라 말에 능하합니다.”

한다. 나는,

“열 나라 말에 능하다면 무엇 때문에 이중으로 통역을 할까요.”

하고 물으니, 지정은,

“비록 소리는 잘 안다 하지만 어찌 능히 제자리에서 말뜻이 통할 수야 있겠습니까. 또 그가 올 적에는 나무숲 속에서 향내를 맡고서 신령스러운 나무 한 주를 뽑아다가 분에 심어가지고 왔습니다.”

한다. 나는,

“신령스러운 나무란 무엇인가요.”

하고 물으니, 지정은,

“이것은 이름을 천자만년수(天子萬年樹)라 하는데 엇걸린 나무와 뒤덮은 가지가 모두 천자만년(天子萬年)이란 글자 모양을 이루었으니 장주(莊周)가 이른바 3천

10 팔풍(八風) : 팔음(八音)과 같은 뜻으로 ‘팔풍지음(八風之音)’의 준말.

년으로 봄을 하고, 3천 년으로 가을을 한다는 나무로서 혹은 이 나무를 명령(冥靈)이라고 한답니다.”

한다. 나는,

“지금 집안에 있는 매화에서 연한 가지를 잘 잡아 옆으로 비스듬히 눕힌 거야 사람의 교묘한 재주이지 어디에 하늘이 만든 것입니까.”

하니, 지정은,

“아닙니다. 앞세 옆에 있는 힘줄이 모두 천자만년(天子萬年)이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이어서 그 앞세를 그려서

■ ■ ■ ■ ■ ■ ■ ■ ■ ■

나에게 보였다.¹¹ 나는,

“공은 일찍이 이 나무를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그 형상을 보지는 못했으나 다만 그 이름만 들었습니다. 요(堯)의 뜰에 있었던, 명(萐)¹²이요, 초(楚)에 있었다는 영(靈)¹³과 같아서 온 사해에 향기를 퍼뜨려 만국이 다 같이 평안하고 사시에 언제나 꽃이 핀답니다. 꽃은 열두 잎으로 꽃봉오리가 처음 터지는 것으로써 초하루인 것과 초생달의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되고, 꽃이 하루 한 잎씩 피어 열두 잎이 다 피고 보면 보름인 것과 달의 이그러지는 것을 알게 되며, 꽃이 하루 한 잎씩 말라 들어가 꽃 꼬투리가 떨어지면 그믐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수(萐樹)라고도 부르고 또는 영수(靈樹)라고도 부릅니다. 또 일찍이 황제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갑자기 남쪽을 향하여 찾물을 뿌리자 황제는 놀라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활불은 공손히 대답하기를, 방금 7백 리 밖에서 큰 불이 나서 1만 호나 되는 인가가 불타고 있는 것이 보이기에 비를 좀 보내 불을 끄는 것이라고 하더랍니다. 다음날 부신(郤臣)이 아뢰기를, 정양문(正陽門) 밖 유리

11 이어서……보였다 : 그 그림은 여러 본에 다 있는데, 여기에서는 거의 원형 그대로 복사하여 실었다.

12 명(萐) : 그 잎의 나고 떨어짐으로써 월력을 대신했다 한다.

13 영(靈) : 곧 위에서 말한 장주의 명령(冥靈).

창에서 불이 나서 망루(望樓)에까지 연소되어 화세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인력으로로는 끄지 못하겠더니 마침 대낮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는데 졸지에 큰비가 동북방으로부터 몰려와서 즉각에 불을 꺾다 하니, 대개 차를 뿌려 비를 보낸 시각이 꼭 불났던 때와 맞았답니다.”

한다. 나는,

“나도 북경에 도착하기 전에 도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난파(爛巴)도 술을 뿜어 비를 만들었다는데 이것이 무슨 기이할 것이 있겠습니까. 또 북경으로부터 이곳까지는 4백여 리인데 7백 리란 말은 무엇입니까.”

하였더니, 지정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험이 신통하다는 것이지요. 대체로 이곳은 북경으로부터 7백 리인데, 인조(仁祖 청(淸) 고종의 별칭)가 항상 이곳에 머물러 있고 보니 화석(和碩) 친왕(親王)을 비롯하여 각부 대신(閣部大臣)들이 다들 발섭(跋涉)하기를 꺼리게 되었으므로 특히 각 참(站)의 이수(里數)를 줄여서 4백 리로 만들어 항상 말을 달려 일을 아뢰게 하였으니 이것은 성군이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운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다. 내가 지정과 말할 때는 매양 동점(東漸)하는 교화와 사해에 퍼지는 문교(文教)를 칭송하였으므로 그는 나와 더불어 말하기를 즐겨했던 것이요, 또 추생이 망발을 하였으므로 짐짓 장황스레 말을 늘어놓아 나로 하여금 청각을 흐리게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대궐 밖에서부터 혼자 걸어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다락집에 올랐더니 거기에 웬 사람이 혼자서 밥을 먹다가 나를 보고는 수저를 놓고 옛 친구나 만난 듯이 의자에서 일어나 손을 잡아 맞으면서 자기 의자에 앉기를 청하고, 자기는 판의자를 이끌어서 마주 앉아 각각 성명을 써 보였다. 그의 이름을 보니 파로회회도(破老回回圖)요, 자는 부재(孚齋)며, 호는 화정(華亭)인데 지금 강관(講官)의 직책에 있었다. 나는 그가 만주 사람인 줄 알고 물었더니 몽고 사람으로서 종이를 만지는 것이라든가 글씨를 속히 쓰는 것을 보니 매우 솜씨가 정민했다. 나는,

“군은 박명(博明)이란 사람을 아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내 아우나 다름없습니다.”

한다. 나는,

“반정균(潘庭筠)을 아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일찍이 무영전(武英殿)에서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한다. 박명은 박식한 데다가 글씨를 잘 써, 나는 수십 년래로 그의 필적을 많이 보았던 터라, 그가 같은 몽고 사람이기에 물어 본 것이요, 또 그는 현재 강관의 직책에 있다기에, 반의 소식을 물어 그가 사는 집이 어딘지를 알고자 했더니, 반과는 그다지 친하지 못한 듯했다. 나는,

“세상에는 세 가지 교가 있는데, 귀국에서는 무슨 교를 가장 숭상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재(孚齋)는,

“어찌 중국 같은 큰 나라로서 세 가지 교만 있겠습니까. 그 도를 행하는 자는 모두 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한다. 나는,

“귀국은 몽고이지요. 중국을 이룬 것이 아닌데요.”

했더니, 부재는,

“저는 중화(中華)에서 성장하여 사막(沙漠)을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도 대국의 한 모퉁이겠으니 마땅히 우리 도가 성할 것입니다. 귀국에서는 무릇 몇 교나 있나요.”

하고 묻기에, 나는,

“유교가 있을 뿐입니다.”

했다. 부재는,

“인생의 무엇이 유교가 아니리요마는, 유교라고 부르고 보면 이미 구류(九流)의 열에 물려서게 되니, 유교같이 광대한 것을 가지고 도리어 세 가지 교라는 좁은 틀에 끼어 유(儒) 자 하나로써 끝을 맺으니, 이것이 이단을 조장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한다. 이때 마침 회회(回回) 사람 몇이 와서 술을 마시고 있다. 나는,

“저 사람들도 서번의 부락 사람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닙니다. 회회 사람들은 당(唐)의 시대에 회흘(回紇)이라고 불렀는데 당에 공을 세웠고, 또 역시 중국의 큰 걱정거리가 되던 나라로서 회골(回鶻)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대(五代) 시절에는 서쪽으로 돌궐(突厥) 땅을 침입해서, 한(漢)의 서역(西域) 땅이었던 곳을 점령하여 소위 청진교(清真敎)를 행했으니, 이 역시 이단 중의 한 교입니다. 천지 사이에는 다만 우리 도가 있을 따름인데, 우리 도의 일단(一端)을 얻은 자가 스스로 한 교를 만들어 부릅니다. 우리들 도를 배운 사람들은 바로 우리 도라고 부를 것이지 유교라고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한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저 사람을 대해서 부르는 말이니, 우리와 저 사람이 서로 대하게 될 때에는, 상대와 내가 서로 형성되는 터라 우리라는 한 편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므로 우리 자신을 우리에만 국한한다면, 우리와 상대자 사이가 공평하지 못할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이 천지 사이에 가장 공변된 이치인데, 또한 우리 한 사람의 물건을 만들어 판 사람이 와서 엿보지도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오도(吾道)라는 두 자를 확연(廓然)히 크게 공변된 칭호로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儒)에 대하여서는 이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만, 교(敎)에 이르러서는 어찌 도를 닦는 것이 교라(《중용》에 나오는 말)고 하지 않았습니까. 문교(文教)니 성교(聲敎)니 명교(名敎)니 하는 것은 모두 성인의 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도 교라 하고 저것도 교라고 하여 이단과 서로 혼돈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면, 교라는 글자가 장차 없어질 판입니다. 지금 우리 도라고 부르는 것을, 저들도 역시 그 교를 가져다가 우리 도라고 부르고 보면, 나중에는 우리 도까지 삭제해 버리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부재는,

“그런 일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선비들은 이단이란 것이 우리 도의 한 끝인 줄을 모르고서 분분하게 배격하다 보니, 저들도 비로소 앙연(昂然)히 머리를 쳐들어 우리 도와 대치하려 합니다. 양(楊)·묵(墨)이나 노(老)·장(莊) 등의 말은 모두

우리 도에 있는 말이요, 더구나 불교의 인과설(因果說)은 우리 도로서는 가장 깊이 배척하는 바이지만, 그 실상인즉 우리 도에서 먼저 말한 것입니다.”

한다. 나는,

“인과(因果)란 윤회(輪回)한다는 것과 다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아닙니다. 인과설이란 다만 어떤 일에 인연이 되면 어떤 것이 공(功)으로 나타난다는 것으로서, 비유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원인이 되고 거기서 나는 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요, 밭을 매는 것이 원인이라면 수확하는 것이 결과가 되는 것이요, 나무를 심는 것도 역시 그러하니, 그 꽃은 원인이 되고 열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옳은 길을 가면 길하고 역리를 따르면 흉하게 되는 것(《서경》에 나오는 말)이니, 이것이 우리 도의 인과로서, 옳은 길과 역리는 원인이 되고, 길하고 흉한 것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길흉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그림자와 소리처럼 따르고 쫓는 사이에 부응(孚應)하는 영험이 이같이 빠를 수야 있겠느냐고 합니다. 또 착한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아 있고, 착하지 않은 일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남을 것(《역경》에 나오는 말)이니, 이는 우리 도의 인과입니다. 그러나 재앙과 경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남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반드시 남는 것을 본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불교를 하는 자도 처음에 인과를 말한 것은 지극히 고명했지만, 다음에 우리 도에서 좋고 나쁜 일에는 반드시 보응(報應)하는 자취가 있다는 것을 보고는 윤회설(輪廻說)로 바꿨으니, 실상 우리 도에서는 병통으로 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백 가지 상서로운 것이 내려지고, 착하지 못한 일을 하면 백 가지 재앙이 내린다는 말도 우리 도의 인과설인데, 그렇다면 그 내려 주는 자는 누구일까요. 태서(泰西) 사람들은 자기의 몸을 공정한 데 두는 것이 심히 두터우면서 불교를 공박하는 데 더욱 힘쓰지만, 오히려 천당·지옥의 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도에서 한 마음으로 월(越)을 대한다는 말을 듣고 임(臨)했느니 감(監)하느니 보느니 듣느니 하여 분명히 주재(主宰)하는 것이 있다 하고, 재앙과 상서를 내린다는 내릴 강(降) 자를 가지고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체로 불가에서는 윤회설도 없었는데, 중국 사람

이 불경을 번역할 때에 그 말이 다르고 글도 서투르고 보니 형용하기가 어려워서, 보응설(報應說)과 윤회설로 번역하고 그 위에 인과설을 가져다가 관련시켰던 것입니다. 후세에 와서 선가(禪家)에서도 또 인과설을 말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여 이를 불교의 조박(糟粕)으로 여겼으니, 이는 가히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지금 법왕이 말하는, 남의 몸에 태어난다는 법은 윤회의 증거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재는,

“아닙니다. 남의 몸에 태어난다는 법은 윤회설과는 다릅니다. 소위 윤회설이란, 곧 여기 맹수(猛獸)가 있어 홀연히 불성(佛性)을 품게 되면 다음 대에는 좋은 값을 입어 착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요, 오늘의 중생(衆生) 중에도 짐승의 행실을 하는 자가 있으면 후생에 가서는 나쁜 보복을 받아 반드시 짐승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하는 말에 불과한 것으로, 조잡하고 어리석고 천박한 말들입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효자는 끊어지지 아니하여 | 孝子不匱

너와 같은 무리를 길이길이 주시리라¹⁴ | 永錫爾類

하였으니, 윤회설의 증거는 본래 이러한 것으로, 법왕이 말한 남의 몸에 태어난다는 것은 때문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듯이 자기 몸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다. 나는,

“참으로 이러한 이치가 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부재는,

“그가 주문을 가지고 기운을 움직이는 술법은 도가(道家)의 것과 같으나, 실상은 선가(禪家)에서 이르는 마선(魔禪)¹⁵일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일은 있을 법도 하고 없을 법도 해서, 제 자신이 중이 되어 보지 않고서야 참과 거짓을 어찌 능히 알겠

14 효자……주시리라 : 《시경(詩經)》 대아(大雅) 기취편(既醉篇)에 나오는 두 글귀.

15 마선(魔禪) : 불교의 참선 중에서 정통파가 아닌 참선.

습니까. 옛날 내가 진남(鎭南)에 있을 적에 공사의 틈을 타서 일찍이 이 일을 가지고 태학사(太學士)아계(阿桂)에게 묻기를, ‘서장 땅에 들어가 본 자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알지 못한 모양인데, 장군은 명철한 분이니 그 일이 필경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했더니, 아공은 대답하기를, ‘그 사실이 반드시 있고 없음을 물어 볼 것도 못 됩니다. 만일 우리 집안에서 지극히 총명스러운 자식 하나가 났는데, 네댓 살 때부터 일호도 세상일을 알리지 않고, 날마다 늙은 스승과 탁월한 선비로 하여금 그 옆을 떠나지 않고 성현의 말로써 그 마음을 적서 주고, 자란 뒤에는 먹고 입는 데 걱정이 없이 금옥과 금수 같은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물건들을 눈에 띄어도 마음에 두지 않도록 하여神明(神明)과 같이 공경하고 보면, 날마다 한결같이 도를 향하여 나갈 뿐이니 어찌 성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늙은 중으로 하여금 기르게 하여, 날마다 설법을 하고 부처를 극진히 존경하게 하여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세상 걱정으로 그 마음을 쭈그러지지 않도록 한다면, 또한 어찌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

하였다.

저녁에는 형산을 찾아,

“법왕이 다른 데 태어난다는 것이 윤회와 무엇이 다른니까.”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그것은 몸을 바꾸는 것이나 같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肉身)이란 바람과 비, 또는 덥고 추운 데 침노되어 머리털이 희어지고 가죽이 쭈그러져서 늙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흙이나 물·바람·비¹⁶ 같은 것으로 화해 버리게 마련이지만, 소위 밝은 정신과 금강(金剛)의 보체(寶體)는 본래부터 젊고 늙는 것이 없이, 한 개 비 장작이 다 타고 나면 다른 나무로 불이 옮겨 붙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유 하건대, 천 리 길을 가는 자가 자기 집을 짊어지고 가지는 못할 것이요, 반드시 속소를 갈아 가면서 갈 것입니다. 비록 천하에 다정한 사람이라도, 자기가 자던 주막집에 정이 들어 여기서 오래 머무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은 나무에 인연(因緣)하여 일어나서 잠시는 불과 나무가 서로 엉키어 기쁜 듯이 타다가도, 불이 다른 나

16 흙……비 : 불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몸뚱이를 구성하는 사대(四大) 원소.

무로 옮겨 붙을 때에 다시 먼저 타버린 재를 연모하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법왕이 다른 몸에 태어난다는 것도 다만 이런 말일 것이요, 윤회설이란 불가의 율서(律書) 일 뿐입니다. 옛날 한(漢)의 두 태후(竇太后 한(漢) 무제(武帝)의 황후)가 조관(趙綰)과 왕장(王臧)을 꾸짖으며¹⁷ 어찌 사공(司空)의 성단서(城旦書)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니 이는 유가의 말을 율서로 본 것입니다. 저들이 말하는 윤회설은 당시의 임금들이 제정한 제도로서, 오복(五服)·오형(五刑)이 모두 다 헌장(憲章)이 있어 경상(慶賞)과 위살(威殺)하는 것이 다 같이 문서를 따라서 공죄(功罪)도 보이기 전에 먼저 법문부터 갖춘 셈입니다. 불교를 하는 자는 세간의 공죄가 부당하고 상벌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발로 밟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기기 쉽다 해서 유명(幽冥)의 불칙한 데에 옮겨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속에서 징계하고 벌을 주려 하니, 옛 사람들의 이른바 남몰래 임금의 권세를 조종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유가에서는 또한 반드시 그들을 원수와 같이 공격하지는 않으니, 성인이 도로써 교양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또 천지는 한없이 크며, 풍속도 각각 다르고, 기운은 바르고 편벽된 것이 있으며, 이치도 경우에 따라 달라서, 마치 그곳에 담긴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나기도 하고 둥글기도 한 것과 같습니다. 고금 천하에 또한 윤회란 것이 없지 않으며, 또한 다른 몸에 태어나는 법도 없지 않고, 화식(火食)을 끊는 사람도 없지 않으며, 장생 불사하는 사람도 없지 않고, 또 이러한 이치가 전혀 없다는 사람도 혹(惑)한 탓이요, 이런 이치가 있다는 사람도 역시 혹한 탓입니다. 대체로 이런 이치가 왕왕 있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 왕왕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함부로 만 가지 이치에 맞추려 하거나 천하를 바꾸려 하는 것은 더욱 혹한 노릇입니다.”

한다. 나는,

“진·한 이래로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모두 이단이었으니, 진은 형명(刑名)¹⁸으로

17 옛날……꾸짖으며 : 조관(趙綰)과 왕장(王臧)이 신공(申公)을 맞이하여 명당(明堂)을 짓고 유학을 숭상하려 하였으나, 두 태후는 황(黃)·노(老)를 좋아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경제에게 꾸지람을 하였더니, 경제는 조관과 왕장을 가두어서 스스로 죽게 하였다. 성단서(城旦書)는 형서(刑書)를 이르는 말.

18 형명(刑名) : 유가의 인의(仁義)와는 달리 강력한 형법으로써 국가를 다스리려는 정치의 이론.

도 오히려 능히 천하를 겸병(兼并)했고, 한은 황(黃)·노(老)의 도로써 족히 백성을 가멸지게 하였습니다. 성인들은 비록 이단이 인의(仁義)를 억누를까 하여 근심하지만, 오늘 법왕이 말하는 남의 몸에 태어난다는 술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더라도, 그가 도리어 우리 유교에 의존하여 인의예지의 사이를 벗어나지 않고 인간 윤리를 근본으로 삼은 법칙 안에 설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요·순의 도에까지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했다. 형산은 눈을 감고 한참 동안 입속으로 염불을 하는 것 같더니, 얼마 후에야 눈을 뜨고 빙그레 웃으면서,

“선생님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이단과 우리 도를 비교해 보면, 비록 사정(邪正)과 수박(粹駁)의 분별은 있지만, 그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어진 것을 행하며 잔악한 일을 물리치고 살육을 없애는 점은 같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법왕의 법술을 무슨 도라고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소위 황교(黃敎)라고 합니다.”

한다. 나는,

“황교란 황(黃)·노(老)의 도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황백(黃白) 비승(飛昇)의 법술을 말하는 것인가요.”

하고 물었더니, 형산은,

“천지간에는 별스러운 세상과 별스러운 사람도 있어서 그 도야말로 이름 없는 것도 귀하게 여기며, 맑고 참되고 편안하고 즐거운 것이 그 사는 것이라면, 때를 맞추어 귀화(歸化)하는 것이 그 죽음이랍니다. 그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슬플 것이 없이 번갈아 가며 환생(幻生)해서 만겁(萬劫)을 겪어도 변하지 않고, 벼슬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 아는 것도 모르는 체하고, 그 모르는 것도 깨닫는 듯하여 혼돈(昏屯)히 법천(法天)에도 말이 없고, 난리나 살생을 좋아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꿈속같이 여기고 모든 사물을 요망된 것으로 보며, 모든 언어를 거짓으로 보고, 세상에 붙어사는 것을 모두 허탄한 것으로 보며, 사모하는 것을 장어로

보아, 부처도 아니요, 선술(禪術)도 아니며, 생각도 없고 걱정도 없으니, 이야말로 천지간에 별다른 세계를 꾸민 셈이요, 일종의 별다른 학문을 하는 셈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지인(至人)이나 신인(神人)들의 도이며, 자기 자신도 없고 공리(功利)도 모르는 학문입니다. 자휴(子休)¹⁹의 이른바 정신을 가다듬으면 백성이 병이 없고, 농사도 풍년이 든다는 말과, 요(堯)가 고산(姑山)·분수(汾水)를 보고 망연히 그 천하를 잊어버렸다²⁰고 한 것이 곧 이 도 같은 것이니, 비단 서번 여러 나라들이 그 교에 복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몽고 지방의 여러 부족들도 이 교를 숭신(崇信)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본조(本朝)의 정치와 교화는, 위로는 당·우를 능가하여, 성교(聲教)가 이르는 곳마다 모두가 편안하여 국경 밖의 풍진은 항상 맑았습니다. 대개 그 싸우고, 죽이며, 침략하고, 도적질하는 것은 나라의 풍속에 끼리는 바인즉, 역시 황교(黃教)란 것이 도리어 중국 성화(聖化)에 만 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한다. 이때 판 곳에서 일이 있는 듯하기에 즉시 일어나서 여천(麗川)의 처소로 갔다. [여천은 기풍액(奇豐額)의 자요, 그는 만주 사람이다.] 여천은 사천 어사(四川御史)단례(端禮)의 시, 칠언(七言) 50수(首)를 내어 보인다. 이 시는 황제가 공작(孔雀)의 깃을 하사한 데 대하여 읊은 것이다. 무관이 사품(四品) 이상의 지위가 되면 모자 앞에 깃을 다는 법이요, 문관도 황제로부터 하사를 받으면 역시 이것을 달게 되므로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시를 보니 섬세하고 교묘(巧妙)하고도 고와서, 그 절향(絕響)이 만당(晩唐)과 호원(胡元) 때의 시체(詩體)가 있었다. 여천이 나를 보고 비평하랴 청했지만 내 굳이 사양했더니, 여천도 역시 굳이 청한다. 대개 그는 내 재주와 식견을 보고자 함인데, 나도 역시 자신의 우拙(愚拙)함을 탄로하고 싶지 않아서 끝내 사양했던 것이다. 여천은 즉시 엽(簾)²¹이 틀린 데를 세 군데나 지적하면서 다시 접어 탁자 위에 놓더니, 형산의 율시(律詩) 하나를 내어

19 자휴(子休) : 《남화경(南華經)》 중에는 연속(連叔)으로 되었으니, 이는 오기인 듯하다.

20 정신을……잊어버렸다 : 《남화경(南華經)》 소요유편(逍遙遊篇)에 나오는 말. 가상적인 인물 연속의 말을 인용한 것.

21 엽(簾) : 율시(律詩)에 있어서 평측(平仄)을 보는 원칙.

보이면서 붓으로 함련(頡聯)²²의 대구인 연모(燕毛)와 웅장(熊掌)에 점을 찍으면서 웃고 하는 말이,

“이건, 구시(狗屎)로군. 이 사람이 한 정사(政事)도 모호하기가 이 시와 같겠지.”

한다. 나는,

“어찌 그리 경박합니까.”

했더니, 여천은 즉시 구시(狗屎) 두 자를 찢어서 입에 넣고 씹는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어른을 조롱하더니 그 별로 개똥을 자시는구료.”

했더니, 여천도 역시 크게 웃었다. 조금 있다가 형산이 들어와 셋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형산이 바로 나가기에, 둘은 서로 쳐다보고 웃었다. 어느 날 여천이 명륜당(明倫堂)으로 산보를 하는데 한 사람이 대야를 들고 뒤를 따르니, 여천은 서서 낮을 씻고 수건질을 한 다음 다시 걸어가면서 나를 보고 멀리서,

“박공.”

하고 부른다. 내가 바로 쫓아갔더니, 여천은,

“아까 황제가 어사한 누른 비단으로 봉한 것을 조금 맛봅시다.”

한다. 나는 곧 돌아와서 병을 기울여 보니 꼭 한 잔쯤 남았기에, 손수 들고 갔더니, 여천은 웃으면서,

“이것은 여지즙인데, 여지란 열매는 나무에서 떨어져 하루만 지나면 바로 향기와 빛깔이 변해서 만 분의 하나도 성하질 못합니다. 그러므로, 꿀에 담가 두어도 열에 아홉은 빛과 맛이 변하기 쉽습니다. 처음 나무에서 딸 때에는, 비록 입이 열리고 손이 열이라도 실로 그 맛을 형용하기 어렵지요. 저도 북경에 이르러서 이것을 하사받은 것이 한 번뿐이 아니어서, 어제도 또한 이것을 받았지요.”

하고, 인해 한 잔을 내어 소주 대여섯 잔에 타서 나에게 권한다. 내가 한 잔을 마시니, 맑은 향기가 입에 가득하여 달고 시원하기가 비할 데 없었다. 내가 여천에게 잔을 돌려 권했더니, 여천은 머리를 흔들면서 굳이 사양한다. 나는 과상히 여겨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22 함련(頡聯) : 읍시 팔구(八句) 중의 다섯째 구와 여섯째 구.

“저는 이미 불계(佛戒)를 좇아서 술을 끊은 지 오래입니다.

하루 줄곧 먹어저라 여지도 삼백 낱을 | 日食荔支三百顆

영남 사람 된 이 내 팔자 무방코야 | 不妨常做嶺南人

라는 것은 곧 동파(東波)의 시입니다.”

하고, 그는 또,

“저는 지금 열사(臬司 안찰사(按察使))의 자리에 있으면서 항상 이것을 먹습니다.”

하고는 또,

“영남(嶺南)이란 옛날 귀양살던 곳입니다.”

한다. 어느 날 밤중에 달이 밝기에 여천과 함께 대(臺) 위를 배회하다가, 밤이 깊고
이슬이 차서 여천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기로 청하면서,

“사신이 활불을 보지 않으려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하고 묻는다. 나는,

“사신은 조서(詔書)를 받들고 만나러 왔습니다.”

하였더니, 여천은,

“사신이 말에서 내려 도중에 앉아서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는 다시 조서를
내려 그만두라고 했더니,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어정거리나요.”

하는데, 그 말로 보아 자못 무슨 관계가 있는 듯하고, 그 정실(情實)을 파보려 하는
것 같기에, 나도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천은,

“사신의 반열 순서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한다. 나는,

“도중에 말에서 내렸다는 것은,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통관의 말에
군기 대신(軍機大臣)이 꼭 오게 되었다고 기다려서 같이 가는 것이 옳다 하기에,
궁성(宮城) 밑 나무 그늘 아래서 말에서 내려 피서(避暑)하면서 군기 대신을 늦도
록 기다리다가, 갑자기 분부가 내린 까닭에 중도에 그만두고 돌아온 것이요, 일부
러 자신이 늦게 온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여천은,

“사신이 책망을 당할 뻔하였고, 예부(禮部)의 여러 대인(大人)들은 이 때문에 겁을 내어 식사를 폐하고 있는데, 어제는 다시 황제의 은지(恩旨)를 들었으니, 이것은 세상에 없는 성전(盛典)입니다. 고려는 마땅히 사대(事大)하는 정성을 더욱 굳게 해야 할 것이요, 두 대인도 서로 은총을 치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묘중(廟中)에서 덕대인(德大人)을 만났더니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다. 나는 놀라고 괴이함을 깨닫지 못하여 천천히 대답하기를,

“우리나라가 대국과는 한 집이나 같은 터라, 이제 저와 공은 이미 안팎의 구별이 없지만, 법왕(法王)에 이르러서는 이는 서번 사람이고 보니, 사신으로서 어찌 감히 선뜻 만나보겠습니까. 이는 진실로 인신(人臣)으로서는 사사로운 외교가 없다는 의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번 성상(聖上)의 조서(詔書)를 받들고 보니, 사신이 또한 어찌 감히 가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여천은,

“진실로 의당한 말씀입니다. 어제 사신이 활불에게 절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황제의 성지를 받고 절을 하였던가요.”

한다. 실상 사신은 활불에게 절을 한 적은 없었으나, 그의 묻는 말이 몹시 깊은 의미기에 감히 절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어 붓을 쥔 채 주저하고 있는데, 여천이 먼저,

“조서를 받들고 갔으니, 응당 성은에 숙배(肅拜)한 것이나 같겠지요.”

하고는 또,

“존형(尊兄)도 활불에게 절을 했던가요.”

한다. 나는,

“다만 망견(望見)하였을 따름이지요.”

하였더니, 여천은 망견(望見) 두 자를 가리키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활불에게 아첨했다는 말이지요. 존형은 이미 분부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옷을 거꾸로 입고 뛰어나갔습니까.”

한다. 나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여 이내 사과하기를,

“관광(觀光)하는 데 미쳐서 그런 생각을 못했군요.”

하였다. 여천은 또 크게 웃으면서,

“그렇지요. 진실로 여진 분에게 행동이 완벽하기를 따졌음에 불과하니 만 번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한다. 나는,

“저는 이미 만 리 길에 관광차 나선 터라,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따라가서 금전 옥루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여천은,

“그렇지요.”

하고는 또,

“저의 전신(前身)은 본래 중입니다. 뒤에는 일찍이 한 번 …….”

하고는, 수십 자를 먹이 마른 붓으로 바빠 써서 뜻을 알 수 없었다. 나는 마침 촛불에 담배를 붙이느라고 자세히 보지 못하고 막 다시 보려 하는데, 이미 촛불을 이끌어 태워 방바닥에 던져 버리면서,

“저는 본래 유발(有髮)한 늙은 비구(比丘)입니다.”

한다. 나는,

“공은 일찍이 활불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천은,

“친왕(親王)이나 액부(額駙)·몽고왕(蒙古王)이 아니면 감히 볼 수 없습니다.”

하더니 또,

“저는 유학자의 갓을 쓰고 유학자의 옷을 입은 자로서, 평생에 흙으로 만든 고불(古佛)에게도 절을 안 했는데, 어찌 육신(肉身)의 가짜 부처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한다. 나는, 유발(有髮)이니 관유(冠儒)니 하는 말을 보고 실소(失笑)함을 금하지 못하여 굵다랗게 권주를 쳤더니, 여천은 내 마음을 알아채지 못한 모양으로 역시 크게 웃으면서 즉시 태워서 방 아래로 던진다. 나는,

“공은 자신을 스스로 유학자라고 하면서, 또 말마다 늙은 비구니 머리 있는 중이니

하는 것은 어찌된 셈입니까. 판 사람을 부처에게 아침을 한다고 책을 잡아, 저로서 본다면 가위 가불(假佛)의 제자(弟子)라 할 수 있으니, 힘써서 부처나 배우시지요.”

하였더니, 여친은 크게 웃으면서 가불 제자란 구절에 크게 권주를 치고는,

“만일 형이 재물이 많았다면, 저는 반드시 단골 손님을 삼았을 것이요.”

한다. 나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여친은 웃으면서,

“말 빚을 잘 갚으니까요.”

하고 또,

“한창려(韓昌黎)²³도 늙을 지경에는 마침내 선학(禪學)을 즐겼대지요.”

한다. 나는,

“양명(陽明 명(明)의 왕수인(王守仁). 양명은 호)의 학문은, 비록 편벽되기는 하지만, 창려와 같이 희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더니, 여친은,

“신진백(新建伯 왕수인의 봉호)이 명분과 이론은 자못 성하고, 그의 부처를 배척하는 것은 깊이 기골(肌骨)에 사무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쾌하게 해 줄 뿐이요, 창려의 장맹(壯猛)함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는 또,

“재 마루턱 위 구름을 보고 집을 생각하며, 관(關)에 쌓인 눈을 보고 말을 걱정했다²⁴는 말은, 이미 지난 일을 뉘우쳤던 것이지요.”

한다. 나는,

“지금 세상의 문장 대가로서 이 두 늙은이에 비교할 만한 이가 있습니까까.”

하고 물었더니, 여친은 대답하지 않고 이내 붓장난으로,

23 한창려(韓昌黎) : 당의 저명한 유학자요, 문학가인 한유(韓愈). 창려는 봉호.

24 재 마루턱……걱정했다 : 한유(韓愈)의 시에, “운횡진령가하재(雲橫秦嶺家何在), 설옹남관마부전(雪擁藍關馬不前)이라.”는 구절이 있다.

“공(空)은 곧 색(色)이요, 색도 역시 공이지요.”(불가의 말이다.)

한다. 나는,

“나는 너요, 너는 나로다.”²⁵

하였더니, 여친은 앞으로 와서 내 손을 잡고 한참 있다가,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고 또 내 가슴을 가리키더니 이내,

“그 중의 상모가 어떻습니까.”

하고 묻는다. 나는,

“여래존자(如來尊者)의 상과 비슷합니다.”

하였더니, 여친은,

“응당 살이 찢겼지요.”

하고는 탐(貪) 자를 크게 쓰면서,

“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취하지 않는 것도 없으니까 말이지요.”

한다. 나는,

“출가승(出家僧) 같지도 않은데 무슨 계율(戒律)이 있을까요.”

하였더니, 여친은,

“즐기지 않는 것이 없지요. 말 · 소 · 약대 · 양 · 개 · 돼지 · 거위 · 오리를 모두 먹
기도 하려니와 나귀를 통째로 먹으니, 살이 찢 수밖에 없잖아요.”

한다. 나는,

“탐색(貪色)도 하나요.”

하고 물으니, 여친은,

“그것 한 가지만은 범하지 않는가 보디다.”

한다. 나는,

“법술이 신통한가요.”

하고 물었더니,

“전혀 없답니다.”

25 나는……나로다 : 왕수인의 시에, “칠십년전왕수인(七十年前王守仁)은, 개문인시폐문인(開門人是閉門人)이라.”는 구절이 있다.

하고는 또,

“완적(阮籍)²⁶의 후신이 안 태사(顏太師)²⁷요, 안태사의 후신이 포염라(包閻羅)²⁸요, 포염라의 후신이 악무목(岳武穆)²⁹이라 한다니, 이것은 간사한 사람들이 가르친 말이지요.”

한다. 내가 지정이 말한 오색경(五色鏡) 이야기를 물었더니, 여천은,

“과연 그런 것이 있다고 합디다. 그런데 화제(火齊)로 만든 거울이라 합니다.”

한다. 다시 만년수(萬年樹) 이야기를 물었더니, 그는,

“들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겼답디까.”

하고 묻기에, 나는 학성(郝成)에게 들은 대로 대강 이야기를 하고,

“만일, 과연 그렇다면 참으로 신령된 나무지요.”

하였더니, 여천은 크게 웃으면서,

“존형은 이런 허망한 나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습니까.”

하면서, 또,

“활불은, 임종(臨終)할 때에는 자기의 학문을 말 한 구절로 전한다고 했답니다.”

한다. 내가 북경으로 돌아와서 사대부와 더불어 함께 논 일이 많았지만, 여천같이 철저히 불교를 배척해서 말하는 자는 보지 못했다. 어느 날 내가 방문 앞에 서 있노라니, 여천이 거울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 보고 다시 와서 내 얼굴을 비치다가, 또 장난으로 내가 차고 있는 주머니에 든 연주(聯珠)를 만지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유가가 가질 물건이 아닌데요.”

하기에, 나는,

“이것은 잣끈입니다.”

하였더니, 여천은,

“좀 빌려 보아야 믿을 수 있지요.”

26 완적(阮籍) : 진(晉)의 죽림칠현(竹林七賢)의 하나. 자는 사종(嗣宗).

27 안 태사(顏太師) : 당 현종(唐玄宗) 때 저명한 서예가요, 충신인 안진경(顏真卿). 태사는 벼슬이요, 자는 청신(淸臣).

28 포염라(包閻羅) : 송 인종(宋仁宗) 때의 저명한 법관인 포중(包拯), 죽어서 염라왕이 되었다 한다.

29 악무목(岳武穆) : 송 고종(宋高宗) 때의 저명한 충신 악비(岳飛). 자는 봉거(鵬舉).

한다. 즉시 주머니 속에서 꺼내 보였더니, 여천은 크게 웃었다. 대개 그는 처음에 그것을 염주(念珠)로 알았던 모양이다. 내가 벽에 걸린 조주(朝珠)를 가리키면서, “저것은 무슨 물건인가요.”

하였더니, 여천은,

“이것은, 국가의 명기(名器)로서 없을 수 없는 물건이외다. 대개 조복(朝服)을 입 으면 목에 염주를 거는 까닭에 이것을 조주라 하며, 그 값이 천만 냥이 되기도 한 답니다. 우각노(于閣老) 민중(敏中)의 자는 내재(耐齋)인데, 금년에 죽었지요. 7월 에 그 집 재산을 몰수해서 파는데, 조주 네 개 값이 은(銀) 3만 7천 냥이더랍니다. 그 값이 너무 많아서, 감히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황교문답후지(黃敎問答後識)³⁰

연암이 말하기를,

“천하에는 여러 가지 잡종락(雜種落)이 많다. 내가 열하에 이르러 왕이라 하여 모여든 자들을 많이 보았다. 몽고 사람으로서 중국에서 성장한 자는 그 문장과 학문이 만인이나 한인에게 어깨를 겨누지만, 그 용모는 험상스럽고 커서 아주 달랐으니, 더구나 그 48부의 추장(酋長)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추장들은 저마다 각기 왕호를 가져서 좌현(左賢)이니 곡리(谷蠡)니 하는데, 저희들끼리는 서로 예속(隸屬)되는 법이 없이 세력을 나누고 힘으로 버티고 있어, 누구든지 감히 먼저 움직이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은 진실로 중국이 안연(晏然)히 아무 일도 없을 수 있는 이유이다. 나는 몽고왕 두 사람을 찰십륜포(札什倫布)에서 보았고, 또 두 사람을 산장(山莊) 문 앞에서 보았는데, 그 중에도 늙은 왕 하나는 나이 방금 81세로서 허리가 굽고 피골이 썩은 것 같으며, 얼굴은 나귀처럼 길고 키는 거의 한 길이었다. 젊은 자는 귀신같이 생겼고, 종규도(鍾虓圖)³¹ 같기도 하였다. 서번 사람들은 더욱 사납고 날래고 추악해서, 괴상한 짐승이나 기이한 귀신 같아서 두려웠다. 회회국은 옛날 회골(回鶻)로서, 더욱 사나웠다 한다. 토사(土司) 남방 묘족(苗族) 두목의 칭호)는 서번이나 회골에 비하면 웅장하고 큰 것이 대개 같았다. 아라사(鄂羅斯)란 것은 흑룡강(黑龍江)에 있는 부락으로, 집마다 반드시 개 한 마리를 두는데, 개마다 크기가 나귀만 하고, 목에는 작은 방울을 10여 개나 달며, 턱 밑에는 여러 가지 끈을 장식해서 명에로써 수레를 끌게 했으니, 개 크기도 이 같거든 하물며 사람 일까 보나.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개를 이끌고 옆눈을 뜨고 통소를 분다. 그들의 갓이나 의복은 신분에 따라 모양이 다르므로 분간하기가 쉽다. 대개 만주는 비록 많이 번식했지만 아직 천하의 반이 못 되니, 그들이 중국에 들어온 지는 이미 백여 년으로, 수도(水土)에 익고 풍기를 길렀으므로 한인과 다를 것이 없이 맑아지

30 황교문답후지(黃敎問答後識)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제가 없었으나, 이제 '주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31 종규도(鍾虓圖) : 당 현종(唐玄宗)이 꿈에 본 귀신을, 오도현(吳道玄)을 시켜 그린 그림.

고 단아해져서 이미 저절로 문약(文弱)해지고 있으니, 오늘 천하의 형세를 돌이켜 볼 때, 그 두려운 바는 항상 몽고에 있고 딴 오랑캐에 있지 않다. 그것은 무슨 까닭일까. 몽고의 강하고 사나움은 서번이나 회회국만은 못하나, 전장(典章)과 문물이 가히 중원(中原)과 서로 대항할 만하기 때문이다. 유독 몽고는 땅이 서로 접하기가 백 리도 못 되는데, 흉노(匈奴)·돌궐(突厥)로부터 거란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국의 후예이다. 위율(衛律)과 중행열(中行說)³²이 이미 도망가는 소굴로 삼았거든, 하물며 그 전장과 문물이 아직도 옛날 원(元)의 유풍(遺風)을 가지고 있음에랴. 겹해서 군사와 말이 강장한 것은 본래 사막의 본질이고 보니, 천하의 법도가 한 번 해이(解弛)해지고 호흡이 잠깐 급해지면, 48부의 몽고왕들이 또한 한갓 강한 활을 가지고 새하(塞下)에 가서 토끼나 여우만 쫓을 뿐이리요. 내가 본 바로는 그들 추장이 이미 저와 같고 나와 더불어 이야기한 자들도 부재(孚齋)·양루(仰漏) 같은 사람은 모두 문학하는 선비이다. 옛날 유연(劉淵)³³이 새내(塞內)에 들어와 살 때에, 유주(幽州)·기주(冀州)의 명사들은 많이 그를 따라갔다. 연의 아들 총(聰)은 경사(經史)를 널리 알고, 약관(弱冠) 시절에 경사에 놀며 명사들과 더불어 사귀지 않는 이가 없었다. 슬프다. 천하가 한 번 흔들려 풀처럼 움직이고 바람처럼 일어나면, 어찌 연과 총의 무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알리요. 이것은 내가 눈으로 본 바 확실한 몇 사람이거든, 하물며 내가 얻어 보지 못한 자가 몇 사람인지 알지 못함에랴. 이제 내가 열하의 지세를 살펴보니, 대체로 천하의 두뇌(頭腦)와 같았다. 황제가 북쪽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두뇌를 누르고 앉아 몽고의 인후를 틀어막자는 것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몽고는 이미 날마다 나와서 요동을 뒤흔들었을 것이니, 요동이 한 번 흔들리고 보면 천하의 왼쪽 팔이 끊어지는 것이요, 천하의 왼쪽 팔이 끊어지고 보면 하황(河湟 영하성 지방)은 천하의 오른편 팔이라 혼자서 움직일 수는 없을 것이니, 내가 보기에는 서번의 여러 오랑캐들이 나오기 시작하여 농(隴)·섬(陝)을 엿볼 것이다. 우리 동방은 다행히 바다 한 쪽에 궁벽되어 있

32 위율……중행열(中行說) : 위율과 중행열은 한(漢) 때 한을 배반하고 흉노에게 항복하여 이적의 행위를 한 자.

33 유연(劉淵) : 오호(五胡) 때 전한(前漢)을 세운 흉노족 출신의 임금.

어서 천하 일에 상관이 없다 하겠으나, 내 이제 머리털이 흰지라 앞일을 가히 보지는 못할 것이로되, 30년을 넘지 않아서, 능히 천하의 근심을 걱정할 줄 아는 자가 있다면 응당 나의 오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할 것이다. 그러므로 호(胡) · 적(狄) 잡종의 일을 위와 같이 아울러 기록해 둔다.”
하였다.

중존평어(仲存評語)³⁴

중존씨(仲存氏)는 말하기를,

“다섯 가지의 망령된 일과 여섯 가지의 옳지 못한 일³⁵은, 모두 반드시 《예기(禮記)》곡례편(曲禮篇)에 있는 3천 가지 금지(禁止)하는 일은 아니지만, 예절을 아는 자는 자연히 이것을 범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비단 판 나라에 간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앉아서 한 사람을 접대하고 한 물건을 접할 때에도 다 그렇지 않을 수 없으니, 소위 말이 충성되지 못하고 행실이 도탑지 못하면 비록 자기 고을에서도 살 수 없다³⁶는 것이 곧 이것이다. 알지 못하는 자는, 이것은 연암이 남들에게 세상에 행세하는 방법을 가르쳤다고 할 것이나, 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바로잡는 법이 본래 마땅히 이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한 개의 반선(班禪)이지마는 처음 듣고 처음 보는 것인데, 그 괴상망측한 것은 말로는 능히 그 모양을 짐작할 수 없고, 보아도 그 빛깔을 능히 감정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말한 바는 한 날 한 자리에서 한 것이 아니요, 제각기 들은 바와 전한 바를 가지고 말했기 때문에, 그 천심(淺深)과 상략(詳略)함이 이처럼 같지 않았다. 대개 모두 놀랍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며, 칭찬하는 듯도 하고 조소하는 듯도 하며, 기괴하고 거짓말 같아서 모두 믿을 수가 없으니, 아무튼 이것들을 주워 모아서 쓰고, 조잡한 것들을 서술해서 한 편의 글을 이룬 것이다. 신령스럽고 현란스럽고 크고 곱고 비기도 하고 밝기도 하며, 섬세하고 교묘하여 평범하지 않은 이 문자는, 소위 활불이란 자의 법술의 내력을 특별히 깊이 캐어서 썼을 뿐만 아니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한 여러 사람들의 성정과 학식, 용모와 말솜씨 등도 푹푹히 나타내고 있었다.”

34 중존평어(仲存評語)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35 다섯……못한 일 : 연암의 심세편(審勢編)에 자세히 나온다.

36 소위……없다 : 《논어》위령공편(衛靈公篇)에 나오는 말.

하였다.

피서록

피서록 서(避暑錄序)¹

이 《피서록(避暑錄)》은 내가 피서산장(避暑山莊)을 구경했을 때에 쓴 글이다. 대체로 열하에는 36개소의 이름난 경치가 있는데, 강희가 일찍이 그 경치 좋은 곳마다 전각 하나씩을 두었다. 그 전각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았다.

연파치상(煙波致爽) 지경운제(芝逕雲隄)
무서청량(無暑淸涼) 연훈산관(延薰山館)
수방암수(水芳巖秀) 만학송풍(萬壑松風)
송학청월(松鶴淸越) 운산승지(雲山勝地)
사면운산(四面雲山) 북침쌍봉(北枕雙峯)
서령신하(西嶺晨霞) 추봉낙조(鍾峯落照)
남산적설(南山積雪) 이화반월(梨花伴月)
곡수하향(曲水荷香) 풍천청청(風泉淸聽)
호복한상(濠濮閑想) 천우함창(天宇咸暢)
난류회파(暖溜喧波) 천원석벽(泉源石壁)
청풍록서(靑楓綠嶼) 앵전교목(鶯囀喬木)
향원익청(香遠益淸) 금련영일(金蓮映日)
원근천성(遠近泉聲) 운범월방(雲帆月舫)
방저임류(芳渚臨流) 운용수태(雲容水態)
징천요석(澄泉遶石) 징파첩취(澄波疊翠)
석기관어(石磯觀魚) 경수운잠(鏡水雲岑)
쌍호협경(雙湖夾鏡) 장홍음련(長虹飲練)
보전총월(甫田叢穧) 수류운재(水流雲在)

그리고 전체를 합하여 피서산장이라 이름하고 강희가 친히 기(記)를 지었다.

1 피서록 서(避暑錄序) : 여러 본에는 이 소재(小題)가 없으나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금산(金山)은 줄기차게 뻗어 내리고 따뜻한 샘은 솟구쳐 흐른다. 구름 잠긴 동학은 깊디깊고 돌 쌓인 못엔 푸른 아지랑이 돌렸다. 경계가 넓고 초목이 무성하니 밭집에도 해롭진 않으리. 바람이 맑아 여름철도 서늘하니 사람의 수양할 곳으로 적당하구나. 내 일찍이 여러 차례 양자강 가를 순행하여 깊이 남방의 수려함도 알고, 두 번이나 진릉(秦隴 섬서·감숙성 지방)에 거둥하여 더욱 서토의 사정을 잘 알았으며, 북으로는 용사(龍沙 흑룡강 지방)를 지나고, 동으로는 장백산을 구경하여 산천과 인물의 아름다움을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모두 나의 좋아하는 바 아니었고 다만 이 열하는 길이 북경으로부터 가깝고, 땅은 거친 들판을 새로이 개척하였구나. 이에 높고 낮으며 멀고 가까운 거리를 측량하며, 빼어난 봉우리 자연의 형세를 따라서 소나무를 의지하여 집을 짓고 물을 이끌어서 정자에 둘렀으니, 이는 모두 사람의 힘으로써는 될 바가 아닐 것이다. 꽃다운 벌판을 빌렸을 뿐, 서까래의 새김이나 기둥의 단청에도 아무런 허비가 없었으나, 아늑한 임천(林泉)이 나의 정서에 맞음을 기뻐하노라. 날개가 찬란한 새들은 푸른 물 위에 노닐되 사람을 피하지 않고, 노는 사슴들은 저녁 별을 띠고 떼를 이루었구나. 솔개는 공중에 날고 고기는 물에 뛰노니 자유로운 분위기를 따름이요, 파란 빛과 붉은 기운은 마치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오르내리는구나. 이것이 곧 피서산장의 경개이다.”

이 글은 강희 50년(1711년) 6월 하순에 쓴 것이나 강희가 늘그막에는 주로 열하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때는 바야흐로 8월이 되었건만 북방의 더운 기운이 오히려 찌는 듯하므로, 나는 늘 흰 모시 홀적삼을 입었는데 대낮이 되면 땀이 흐르곤 했다. 유람하다 짬이 날 때마다 의자를 잣방 밖의 큰 회나무 밑으로 옮겨서 바람을 쏘였다. 이에 귀에 들은 것, 눈으로 본 것, 마음에 느낀 것들을 그 자리에서 얻는 대로 적어 보았다. 이름을 《피서록》이라 한다.

피서록(避暑錄)

기려천(寄麗川)은 만주 사람이다. 그는 성격이 몹시 교만하여 윤형산(尹亨山)을 멀리하는 빛이 얼굴에 나타났으나, 형산은 일부러 알지 못하는 체하고 얼굴에나 말씨에도 겸손할 뿐이다. 대체로 윤(尹)은 기(奇)에 비하여 나이가 20여 세나 많고 벼슬도 역시 조금 높은 편이다. 그러나 그는 한인이라 해서 마치 나그네처럼 된 처지였으니, 그 정세가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여천이 거처하고 있는 방이 나의 사관과 문이 마주 보이는 터라, 내가 형산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여천의 문 앞을 지나치게 되므로 나는 반드시 여천에게 먼저 들른다. 그러면 형산은 나의 뜻을 모르고서 반드시 나의 뒤를 따라서, 그곳에 잠깐 지체했다가 곧 일어서면서 다른 곳에 약속이 있다고 핑계한다. 여천은,

“윤공(尹公)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말이야.”

하고, 그의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깔깔대고 웃는다. 그리고 형산도 언젠가 돌아왔아서,

“저 비둘기처럼 생긴 눈이 여태껏 털을 벗지 못해.”

하면서 악평한다. 만족과 한족 사이의 심한 알력을 이로써 짐작할 수 있겠다. 또 어느날 여천이 나에게,

“전에 어떤 산동에 포정사(布政司)로 부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탐관으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그가 일찍이,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자 | 視民若子

법률은 산같이 엄중하리 | 立法如山

라는 주련(柱聯) 두 구를 지어서 아문(衙門)에 붙였더니, 그날 밤에 어떤 이가 그 끝에다 잇달아서,

우양도 아버지 것 창고도 아버지 것이니 | 牛羊父母倉廩父母

우리는 다만 아들 직분을 지키자 | 共爲子職而已矣

보물도 예서 일고 재산도 예서 생기니 | 寶藏興焉貨財興焉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일까 보냐 | 此豈山之性也哉

라고 썼더라는군요.”²

하면서 말을 나직이 한다. 이는 아마 형산을 가리키는 듯싶기에 나는 그 뒤에 우연히 형산더러,

“당신은 일찍이 산동 포사로 부임하신 일이 있소.”

하고 물은즉, 형산은,

“그런 일이 있었지요.”

하였다.

그 뒤에 연경(燕京)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 인사들과 이야기하다가 기(奇)를 아느냐고 물었으나 모두들 머리를 흔들 뿐이다. 풍병건(馮秉健)이 홀로 분개하는 어조로, “점잖은 선비가 어찌 되놈의 새끼를 안단 말ियो.”

한다. 나는 또,

“윤형산은 어떤 인물인가요.”

하고 물은즉, 모두들 기쁜 빛으로,

“그는 참으로 백락천(白樂天)과 같은 유의 인물이지요.”

하였다.³

광피사표패루(光被四表牌樓) 남쪽 골목 둘째 문은 동씨(董氏)의 집이다. ‘쌍청문(雙淸門)’이란 현판이 붙었는데 강희의 어필이다. 또 지금 황제가 쓴 ‘양세삼효(兩世三孝)’라는 액자가 붙어 있다. 이곳은 구외(口外)의 민가(民家)임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거동이 세 번이나 있었다 한다.

강희가 절강(浙江)에 순행할 때에 산음(山陰)에 살고 있는 노인 왕석원(王錫元) 등 5형제를 불러 보았다. 그들은 누런 머리에 어린 아이의 이빨이며 서로 붙들고 다닌다. 황제가 행궁(行宮)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들 다섯 중 만이와 둘째는 쌍둥이로 나이가 80이요, 그 다음은 78, 다음은 76, 다음은 75인데, 통계하면 3백 89세

2 우양도……썼더라는군요 : 여기서 ‘우양도……것이니’는 《맹자》 만장 상(萬章上), ‘우리는……지키자’는 《맹자》 이루 상(離婁上), ‘보물도……생기니’는 《중용》 26장, ‘이것이……보냐’는 《맹자》 고자 상(告子上)에 있는 말을 인용하여 엮은 것이다.

3 하였다. : ‘그 뒤에 연경……하였다’는 ‘수택본’에는 소주(小註)로 되었으나, 여기서는 여러 본에 의하여 대문(大文)으로 하였다.

이다. 그들의 자손은 모두 45명인데, 각기 비단을 나누어 주고 또 어필로 ‘일문인서(一門仁瑞)’라는 액자를 써서 주고 황태자는,

다섯 가지 비단 나무 이 세간의 영화이고 | 五枝錦樹榮今代

백세토록 높은 나이 한 집안에 모였구나 | 百秩仙籌萃一門

라는 주련을 써서 주었다. 이로 미루어서 요즘 그들의 정려(旌閭)나 표창하는 은전이 전대보다 지나침을 짐작할 수 있겠다.

북진묘(北鎭廟) 뜰에 서 있는 늙은 솔을 지금 황제가 친히 그림 그려서 검은 돌에 새겨 바위 배구레를 파고 간직했는데, 그 바위의 높이는 겨우 한 길 남짓하다. 이를 명(明) 때에는 취운병(翠雲屏)이라 불렀더니 지금 황제가 보천석(補天石)이라고치고 그림 곁에 시를 지어서 새겼다.

북진묘 서이러나 일산처럼 퍼진 솔이 | 鎭廟門西似蓋松

절반은 시들었고 푸른 잎도 상기로다 | 半存枯幹半籠蔥

정신이 어렸으니 포박자(갈홍(葛洪)의 호)를 보는 듯이 | 凝神如見抱朴子

얼굴을 그리자니 진소옹(미상)이 내 아니다 | 圖貌慙非陳少翁

밑에 서서 볼 양이면 비나 개나 의심이요 | 立下忽疑晴與雨

앞에 보이는 그 무엇이 색이 공임 깨닫고녀 | 現前可悟色兮空

유월이라 더운 날에 그루터기에 걸터앉아 | 何當六月其根坐

낭랑히 글을 외며 맑은 소 들어보렴 | 讀疏僉聽謖謖風

그리고는 건륭의 낙관이 찍혀 있다. 또,

“갑술년(1754년)에 내가 동쪽으로 순행하는 길에 친히 북진묘에 치제하고, 예가 끝나자 묘 속에 들어가서 두루 구경하였다. 늙은 솔 한 그루가 있는데 그 반은 벌써 철석같이 굳은 가장귀였고, 다만 동편 한 가지가 울창할 뿐이다. 오히려 기이하고 예곱은 품이 사랑스러웠다. 이내 나무 밑에 서서 이 그림을 그렸다. 구월 이십사일 어필.”

이라는 글이 있고 ‘천지위사(天地爲師)’라는 도장이 찍혔다. 황제의 글씨나 그림이 모두 공교롭다.

바위 곁에 또 삼한(三韓) 사람 김내(金鼐)의 시가 있었다.

의무려산 이마 턱에 때때로 오르거다 | 時登醫巫閭山頭
구름이랑 바다랑 한 눈에 다 보리라 | 雲含滄桑望裏收
돌 옷과 바위 털은 티끌 자취 혐의롭고 | 石髮巖衣嫌跡擾
우는 새 읊는 매미 사람 소리 섞이누나 | 鳥鳴蟬噪帶人幽
공중에 솟은 나무 늙은 용은 어디 가고 | 凌空樹古龍飛去
그 곁에 피는 꽃이 봉황 성터 남아 있네 | 傍地花新鳳壘留
북두성 높디높아 하늘 괴는 기둥이라 | 北斗惟神天一柱
가륵하신 우리 님은 억만 년을 누리소서 | 億年萬紀庇皇秋
그 끝에는 ‘화공(和公)’이란 낙관을 찍었으며 필력(筆力)이 몹시 웅졸하다. 혹은,
“이 시는 조선 사람 김내가 지은 것이다.”

하였으나, 이는 요동(遼東)을 또한 삼한이라 일컫는 줄을 모르고 한 말이다. 고정림(顧亭林)은 일찍이 관함이나 지명에 옛 이름을 빌려서 쓰는 것을 배격했으나, 아직도 그를 본받아 남용하는 이도 없지 않을뿐더러, 이 시가 비록 잘된 것은 아닐지라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의 구기(口氣)는 아니다.

난설현(蘭雪軒 이조(李朝)의 여류 문학가 허초희(許楚姬)) 허씨(許氏)의 시는 《열조시집(列朝詩集 전점익(錢謙益) 저)》과 《명시종(明詩綜 주이준(朱彝尊) 저)》에 실려 있는데, 혹은 이름으로, 또는 호를 쓰되 모두 경번(景樊)으로 적혀 있다. 내 일찍이 〈청비록서(淸脾錄序 《청비록》은 이덕무(李德懋) 저)〉를 쓸 때에 상세히 고증한 일이 있었다. 무관(懋官 이덕무의 자)이 연경에 있을 때에 그것을 축 한림(祝翰林) 덕린(德麟)과 당 낭중(唐郎中) 낙우(樂宇)와 반 사인(潘舍人) 정균(庭筠)의 세 사람과 함께 돌려 가면서 읽고 모두 칭찬했다 한다. 이제 내가 이곳에 와서 시 중의 빠지고 그릇된 곳을 논하다가 이내 허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더니, 윤공(尹公)이 말하기를,

“우회암(尤悔菴) 동(洞)⁴이 지은 〈외국죽지사(外國竹枝詞)〉⁵를 보면 그 첫머리에 귀국의 것을 지어 실었는데,

4 우회암(尤悔菴) 동(洞) : 청의 문학가. 회암은 호요, 동은 이름, 자는 전성(展成).

5 〈외국죽지사(外國竹枝詞)〉 : 외국의 지방 풍속을 칠언절구(七言絕句)로 읊은 것.

양화도 드는 어귀 살구꽃이 붉으레라 | 楊花渡口杏花紅
팔도 민요들이 그 나라의 국풍이라 | 八道歌謠東國風
못내 님을 그리노니 저 비경⁶ 여도사를 | 最憶飛瓊女道士
들보 올려 글 지려고 달나라에 노닌다오 | 上梁曾到廣寒宮”

라고 하였고, 그는 또 주석을 내기를,

“규수 허경변이 나중에는 여도사가 되었으며, 그는 일찍이 광한궁 백옥루(廣寒宮 白玉樓)의 상량문(上梁文)을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이에 허경변에 대한 그릇된 것을⁷ 상세히 변명하였더니, 윤과 기 두 사람이 각기 나누어 기록하여 간직한다. 중국의 명사들이 마땅히 이 일로써 또 한 번 저서의 자료를 삼을 것이다.

대체로 규중 부인으로 시를 읊는 것은 애초부터 아름다운 일은 아니나, 이 외국의 한 여자로서 꽃다운 이름이 중국에까지 전파되었으니, 가히 영예스럽다고 이르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인으로서는 일찍이 그의 이름이나 자가 본국에도 나타나지 못했은즉, 이 난설의 호 하나라도 오히려 분에 넘치는 일이어늘, 하물며 경변의 이름으로 잘못 알고는 군데군데에 기록되어서 천추에 찢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가 어찌 뒷세상의 재사(才思)가 풍부한 규중 재녀들의 의당히 경계하여야 할 겨울이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요술 중에는 술을 만들어 낸다는 주석(酒石)이 가장 요긴한 물건이다. 만일 참으로 이러한 돌이 있다면 의당히 천하에 다시 없는 보배가 될 것이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명(明)의 천계(天啓) 연간에 왜(倭)가 유구(琉球)를 쳐서 그 임금을 사로잡았는데, 유구의 태자가 그 나라의 세보(世寶)를 싣고 가서 그 아버지를 속(贖)하려 하다가, 배가 풍파에 휩쓸려서 제주(濟州)에 닿았다. 목사(牧使) 아무⁸가 배에 무슨 물건이 실렸느냐고 물으니, 태자가 주천석(酒泉石)과 만산장(漫山帳)이 있다고 답하였다.

6 비경(飛瓊) : 중국 여도사의 이름. 여기서는 허초희를 그에게 비한 것이다.

7 나는……것을 : 허경변은 본시 여도사 빈 부인(樊夫人)을 경모(景慕)하여서 지은 것인데, 변천(樊川) 두목(杜牧)의 아름다운 풍모를 연모하여 지었다는 그릇된 것을 변명하였다.

8 목사(牧使) 아무 : 김려(金鑣)의 《유구왕세자의전(琉球王世子外傳)》에는 이난(李瀾)이라 하였다.

주천석은 모양이 마뇌(瑪瑙)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오목하게 파이고 물 한 잔이 들 정도이다. 맑은 물을 채우면 곧 아름다운 술이 되고, 만산장은 바닷거미의 실에다 약으로 물빛을 들어서 뜬 것인데, 적게 펼치면 집 하나를 덮을 정도이나 넓게 펼치면 산 하나를 덮을 수 있으며, 작은 놋으로는 모기나 파리, 큰 놋으로는 뱀이나 이무기 따위가 모두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목사가 그것을 얻고자 청하였으나 태자는 허락하지 않으므로, 드디어 군사를 내어서 배를 에워싸니 태자가 돌과 창을 모두 바다 속에 던졌다. 목사가 배에 실은 물건을 다 몰수하고는 태자를 죽였다. 태자가 죽기에 임하여,

착한 말은 분간 없고 몸쓸 옷을 입은 이 몸 | 堯語難分桀服身

꿈이러나 이 죽음을 푸른 하늘 아오리카 | 臨刑何暇訴蒼旻

삼량⁹이 묘혈 판들 누구라서 속해 널꼬 | 三良臨穴誰能贖

두 아들 배를 탈 제 도적 어이 잔폭하오¹⁰ | 二子乘舟賊不仁

백골은 모래벌판 거친 풀에 얹혔어라 | 骨暴沙場纏有草

혼이야 고국 간들 슬퍼할 이 누구던고 | 魂歸古國吊无親

죽서루 밑 저 물 소리 처량도 한저이고 | 竹西樓下滔滔水

만고의 끼친 한을 분명히 울어 예네 | 遺恨分明咽萬春

라는 시 한 편을 읊었다.”

한다. 이 사실은 이중환(李重煥 이조 때 학자. 자는 휘조(輝祖))의 《택리지(擇里志)》에 실렸으며, 목사는 대간의 탄핵을 만나서 사형에 한 등급을 감하여 멀리 귀양보냈다 하였다. 나는 일찍부터 이 기록이 하나의 전설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하였으니, 이 일이 과연 참말이라면 목사의 죄악은 비록 거리에다 시신을 진열한다 해도 남음이 있을 것인데, 이제 그의 자손이 어찌 길이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유구 중산왕(中山王) 상녕(尙寧)이 해마다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편에 자주 글월과

9 삼량(三良) : 어진 세 사람. 춘추시대 때 진 목공(秦穆公)이 죽으매 순장(殉葬)시킨 엄식(奄息)·중행(仲行)·겸호(謙虎)를 가리킨 말이다.

10 두 아들……잔폭하오 : 전공 때 위 선공(衛宣公)의 두 아들 급(伋)과 수(壽)가 계모의 흉계에 의하여 배에서 피살된 일을 말한 것. 《左傳 桓公 16年》

예폐를 부쳐 오더니, 갑신년 뒤로는 다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다. 내 이번 걸음에 해외의 모든 나라 사신을 만나보지 못함이 더욱 유감이다. 아까 구경하던 요술 중의 주석으로 미루어 보면, 유구의 주석도 역시 요술의 하나인 듯싶다. 그리고 민중(閩中 복건성) 사람 왕삼빈(王三賓)이 말한 바와 같이, 바닷거미가 벼를 엮는다는 것이 진실이라면 이 만산장(漫山帳)은 이치에 그럴 법도 하다.

열하의 술집들은 몹시 변화하여 연경에 비해서 손색이 없었다. 바람벽 위에는 명인들의 글씨와 그림이 많이 붙어 있다. 유하정(流霞亭)에는,

높은 이름 좋은 벼슬 이제야 아랑곳가 | 功名富貴兩忘羊

나의 삶이 얼마런고 이 술 한 잔 기울이세 | 且盡生前酒一觴

고운 꽃 삼백 포기 심어 두고 보려무나 | 多種好花三百本

낮은 울타리 비바람에 향내 줄곧 풍기리라 | 短籬風雨四時香

라는 시가 붙어 있다. 또 취구루(翠裘樓)에 들렀더니 역시 벽 사이에 써 붙인 시가 있는데 먹 흔적이 아직도 젖은 듯싶다. 우민중(于敏中)이나 아극돈(阿克敦)의 필치인 듯싶기에 술아범더러,

“이 글씨 쓴 분이 누구냐.”

고 물으니, 그는,

“아까 어떤 손님이 이걸 써서 걸어 두곤 막 나갔답니다. 그러니 그의 성명이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한다. 그 시에 이르기를,

님을 섬겨 하올 맘은 한당만 못잖건만 | 致主初心陋漢唐

이 몸이 늙어 가서 밭집 아비 되었구나 | 暮年身計落農桑

내 긴 숲 속 소 발자국 동문 밖 나는 길에 | 草煙牛跡東郊路

술다락에 높이 누워 저녁 별을 보내누나 | 又臥旗亭送夕陽

(육유(陸游) 작)

라고 하였다. 이 두 시는 모두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지는 알 수 없겠으나, 바람을 쏘이면서 한 번 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감개가 무량하게 할 뿐이다. 둘 다 부채에 써 두었다가 돌아와서 윤형산에게 물은즉, 그들의 이름을 가르쳐 주

었으나 또 잊어버리고 말았다.

윤형산이 나더러,

“고려의 박인량(朴寅亮 고려 문종(文宗) 때 문학가. 자는 대천(代天)이) 당신에게 어떻게 되시나요.”

하고 묻기에 나는,

“귀국을 말한다면 모수(毛遂)¹¹와 모담(毛聃 미상)과 같은 터수일 것입니다. 저는 애초에 토성(土姓)으로 여덟 집이 나뉘었으므로 관향이 각기 달라서 서로 한 겨레가 되지 못하며, 역시 감히 분양(汾陽)¹²을 통곡(痛哭)할 수도 없는 터수입니다.”

한즉, 형산은 또,

“그러면 강희 연간에 박뇌(朴雷)라는 이가 있었는데, 그의 자는 명하(鳴夏)요, 역시 조선 사람이라 합디다. 이제 대청(大清)이 천하를 통일하여 중외가 한 집이 되고 보니 결코 푸른 입술의 혐의란 없을 것입니다.”

한다. 나는,

“푸른 입술의 혐의란 무슨 말입니까.”

한즉, 형산은,

“송(宋)의 원풍(元豐 송 나라 신종(神宗) 때의 연호) 연간에 고려 사신 박인량이 명주(明州)에 이르렀을 때에, 상산위(象山尉) 장중(張中)이 시로써 전송하였더니, 박인량의 답시(答詩) 서문에,

‘꽃 같은 얼굴이 곱게 불을 부니 이웃 여인의 푸른 입술이 움직임을 부끄럽게 하고, 상간(桑間)¹³의 야비한 소리로써 영인(郢人)의 백설(白雪)의 곡조¹⁴를 잇노라.’

는 글이 있었습니다. 언관(言官)이 낮은 벼슬에 있는 장중이 사사로 외국의 사신을 교제함은 부당한 일이라 하여 탄핵했습니다. 신종(神宗)이 좌우에게 ‘푸른 입술’이란 어떠한 고사인가 하고 물었으나, 대답하는 자 없어 조원로(趙元老)에게 물었더

11 모수(毛遂) : 전국 때 조(趙)의 평원군(平原君) 조승(趙勝)의 문하에 있던 변사(辯士).

12 분양(汾陽) : 당의 정치가 곽자의(郭子儀)의 봉호. 자도 역시 자의(子儀).

13 상간(桑間) : 하남성에 있는 지명. 음탕한 남녀들이 모여드는 곳.

14 백설(白雪)의 곡조 : 백설은 곡조 이름. 백아(伯牙)가 저속한 하리(下俚)를 탈 때에는 듣는 이가 많았는데, 백설을 타니 화답하는 자가 적었다 한다.

니, 원로가 아뢰기를, 《태평광기(太平廣記)》¹⁵에, 어떤 이가 본즉 이웃집 사내가 그 아내의 불 부는 것을 보고,

불 부는 예쁜 맵시 붉은 입술 오물오물 | 吹火朱唇動

썰나무 때고 나니 하얀 팔뚝 드러났네 | 添薪玉腕斜

멀리서 보아하니 연기 가린 저 얼굴이 | 遙看煙裏面

피는 것이 꽃이런가 안개 더욱 은은해라 | 恰似霧中花

는 시를 읊었다니다. 그 아내가 그의 남편에게 하는 말이, 당신도 어찌 그를 본받지 않느냐고 하였을 때에, 남편은 대답하기를, 당신이 먼저 불을 붙면 내 응당 본떠서 시를 지으리라 하고, 이내 읊되,

불 부는 님의 양은 푸른 입술 벌렁벌렁 | 吹火靑唇動

장작을 때고 나니 검정 팔뚝 비꼰구나 | 添薪墨腕斜

멀리서 보아하니 연기 가린 그 상관은 | 遙看煙裏面

무엇에 비할쏜고 구반다(추악한 귀신의 이름)가 이 아니냐 | 恰似鳩槃荼

라고 하였었는데, 이 이야기는 본래는 왕벽지(王闢之)¹⁶의 《민수연담록(澠水燕談錄)》에서 나왔다 하였습니다.”

한다.

내가 학지정(郝志亭)터러,

“장군은 비록 무관 출신이지만 장고(掌故)에 몹시 익숙하고 문필이 유려하여, 비록 이름 있는 학자나 늙은 선비라도 장군의 짝이 될 자 드물까 하오니, 귀국의 무관은 반드시 문관과 학문이 넉넉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장군은 특히 유가의 연원이 깊어서 정원(定遠)¹⁷의 문장이 금석에 새겼음을 본받은 것이옵니까.”

하고 물었더니, 지정은,

“저의 집은 대대로 농업에 종사하더니 이제 다행히 성스러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15 《태평광기(太平廣記)》: 송의 이방(李昉) 등이 어명을 받들어 엮은 책.

16 왕벽지(王闢之): 송 철종(宋哲宗) 때 학자. 벽지는 이름이요, 자는 성도(聖道).

17 정원(定遠): 후한의 명장 반초(班超). 정원은 봉호요, 자는 중승(仲升).

그러나 수(隨 한(漢) 때의 장수 수하(隨何) · 육(陸 미상) · 강(絳 한(漢) 때의 장수 주발(周勃), 강은 그의 봉호) · 관(灌 한(漢) 때의 장수 관영(灌嬰)의 한스러운 일은¹⁸ 그 유래가 벌써 오래지 않습니까. 저 같은 자는 수레에 싣거나 말로 셀 수 있을 만큼 많으니 무엇을 칭찬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태학사(太學士) 아계(阿桂)와 얼마 전에 태학사를 지낸 서혁덕(舒赫德)과 같은 분은 모두들 문장이 태평 성대를 이룩할 만하며, 무력이 어지러운 난리를 평정할 수 있고, 부귀와 수복(壽福)은 분양(汾陽) · 서평(西平 미상)이요, 공로와 훈벌은 배진(裴旆) 배도(裴度), 진은 봉호) · 문로(文潞)¹⁹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문관도 할 수 없고 무관 역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사이(四彝)²⁰가 모두 복종하고 풍진이 고요하니, 저 같은 자는 가위 한 개의 썩은 무부(武夫)였습니다.

서른 해 쉬지 않고 옛 병서를 읽고 나서 | 三十年來學六韜

꽃다운 그 이름이 당시에 문장이라 | 英名嘗得預時髦

나라에 몸을 던져 금 갑옷 입었을 제 | 曾因國難披金甲

아무리 가난해도 보배칼을 팔진 않네 | 不爲家貧賣寶刀

뛰노는 이 팔뚝에 화살 힘이 약다 하라 | 臂健尙嫌弓力軟

오히려 밝은 눈에 싸움 터를 바라보네 | 眼明猶識陣雲高

어젯밤 뜰 앞에서 가을 바람 일어나니 | 堂前昨夜秋風起

꽃 놓인 옛 전포를 보기도 부끄러라 | 羞見團花舊戰袍

이 조한(曹翰)의 시를 외고 나면 그들이 안장에 걸터앉아서 사면을 돌보던 모습²¹

이 못내 그리워질 뿐입니다. 옛날부터 글 읽은 장수로서 손무(孫武) · 오기(吳起) · 염파(廉頗) · 악의(樂毅) · 왕전(王翳) · 조충국(趙充國) · 반초(班超) · 심경지(沈慶之) · 한세충(韓世充) 등은 모두 70세가 넘도록 장수하였습니다.”

한다. 나는 웃으면서,

18 그러나……일은 : 위의 네 장수는 모두 무식하다는 이름을 얻은 자들이다.

19 문로(文潞) : 송 인종(宋仁宗) 때 명상 문언박(文彦博), 노는 봉호, 자는 관부(寬夫).

20 사이(四彝) : 사이(四夷), 연암과 필답하였기 때문에 이(夷)를 이(彝)로 하였다.

21 그들이……모습 : 전국 때 조(趙)의 장수 염파(廉頗)를 늙었다고 등용하지 않기에 그는 말에 올라서 자기는 늙어도 전장에 나갈 수 있음을 과시하였다.

“심경지는 글 모르는 까막눈인데, 어찌 글 읽은 장수라 하시오.”

하였더니, 지정은,

“심공(沈公)이 일찍이 농사일은 사내종에게 묻는 것이 의당하고, 길쌈 일은 여종에게 묻는 것이 의당하다²²” 하였으므로 그의 학문은 그 당시에 벌써 인정된 것이었고, 척남궁(戚南宮)은 더욱 시 공부가 깊어서,

호각 소리 처량할사 초목 그저 쓸쓸하군 | 畫角聲傳草木哀

구름 머리 높이 솟고 돌문이 열리누나 | 雲頭起對石門開

삭풍 불어 술이 찰 제 취하지도 않거니와 | 朔風邊酒不成醉

지는 잎 기러기는 요란스레 우는구나 | 落葉歸鴻無數來

다만 당 원²³과 쉬어 살기 아예 사라지면 | 但使元戈銷殺氣

이 몸이 헛 늙은들 그 무엇이 한이리요 | 未妨白髮老邊才

높은 봉에 이름 새김 이 내 뉘와 함께 할꼬 | 勒名峯上吾誰與

칼춤 추던 저 대 위에 그리워라 이 장군²⁴이 | 故李將軍舞劍臺

이라는 시를 읊었답니다. 그리고 보면 그의 장수 재주는 미칠 수 있겠으나 시 재주는 미칠 수 없겠습니까그려.”

하고 웃었다.

저녁 무렵에 풍운성(豐潤城)에 올랐더니 수염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내 앞에 와서 손을 들어 읊하면서,

“저의 성명은 임고(林臯)요, 절강에 살고 있습니다.”

하고, 나의 성명을 물어서 알자 놀라는 듯 반기면서,

“당신은 필시 초정(楚亭 박제가(朴齊家)의 호)의 일가시죠.”

한다. 나도 역시 놀라서,

“당신은 초정을 어떻게 잘 아시나요.”

한즉, 임고는,

22 농사일은……의당하다 : 이 몇 구절은 한(漢) 진평(陳平)의 말인데, 심경지가 빌려 썼던 것이다.

23 원(元) : 현(玄)이다. 청 나라 사람은 강희의 이름이 현엽(玄曄)이었으므로 ‘현(玄)’ 자를 피하여 ‘원(元)’자로 대신 썼다.

24 이 장군 : 이광(李廣)

“지난해에 초정이 같은 나라 사람 이형암(李炯菴 이덕무, 형암은 그의 호)과 함께 문창루(文昌樓)에 올랐다가 이내 그 고을 호형항(胡迴恒)에게 묵은 일이 있었습시다.”

하고, 성 밑에 있는 한 집을 가리키면서,

“저곳이 곧 호씨(胡氏)의 집이며, 그 바람벽 위에는 초정의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한다. 이에 변계함(卞季涵)과 정 진사(鄭進士) 각(珏)으로 더불어 함께 그 집을 찾으니 날이 벌써 어둑어둑하였다. 주인이 등불 넷을 켜서 벽을 밝혀 주기에 그 시를 한 번 낭독하니 이것은 곧 우리 집이 전동(典洞 이조 때 서울에 있던 동리)에 있을 때에 형암이 마침 왔다가 지은 것이다.

슬슬한 가을 소식 저 나무가 먼저 아네 | 沈寥秋令樹先知

춤 더움 다 잊으나 바보되고 말았구나 | 任忘暄涼做白癡

고요한 벽과 벽엔 벌레 소리 유난하곤 | 壁靜萬蟲勤自護

발 틈으로 새 한 마리 엿보기 일쭉러라 | 簾虛一鳥慣相窺

돈 벽²⁵일랑 버리거나 이 몸을 더럽힐 듯 | 拋他錢癖如將浼

나를 일러 서음(書淫)²⁶이라 하니 나는 이를 사양 않소 | 呼我書淫故不辭

중국 것만 좋다 하여 부질없이 그리 마오 | 好事中州空艷羨

요봉(淸(淸) 문학가 왕완(王琬)의 호)은 문필이요 완정(왕세진(王世禎)의 호)은 시라 하네 | 堯峯文筆阮亭詩

백로지(白鷺紙) 두 폭을 붙여서 쓴 것인데, 글씨 자태가 물 흐르는 듯하고 한 글자의 크기가 마치 두 손바닥만 하다. 전날에 우리들이 중국일을 이야기할 때에 부질없이 그리워만 했던 것이 이 몇 해 사이에 차례로 한 번씩 구경하였을 뿐 아니라, 이렇게 먼 만리 타향에서 이 시를 읽으며 마치 고인의 얼굴을 만나는 듯싶었다.

유리창(琉璃廠) 육일재(六一齋)에서 유황포(俞黃圃) 세기(世琦)를 처음 만났다. 그

25 돈 벽 : 화교(和嶠)가 그 가말기가 왕자에 비길 만하였으나 오히려 돈을 아꼈으므로 그를 전벽(錢癖)이라 하였다.

26 서음(書淫) : 황보림(皇甫謐)이 글 읽기를 지나치게 좋아하여 침식을 잊으므로 그를 서음(書淫)이라 하였다.

의 자는 식한(式韓)인데, 눈매가 맑고 눈썹이 길기에 나는 그가 혹시 반정균(潘庭筠) · 이조원(李調元) · 축덕린(祝德麟) · 곽집환(郭執桓) 등과 같은 명사인가 하고 의심하였다. 그들은 나보다 앞서 교유한 이가 있으므로 그들의 이름이 입에 향기롭고 그들의 수염이나 눈썹이 눈에 선하였던 까닭이다. 이제 유(俞)와 필담을 하는 사이에 그는 유혜풍(柳惠風 유득공(柳得恭). 혜풍은 호)이 그 숙부 탄소(彈素 유금(柳琴)의 호)를 연경으로 보내는 시에,

고운 국화 시든 난초 님의 수레 비치옵네 | 佳菊衰蘭映使車

맑은 구름 보슬비는 구월도 늦가을 | 澹雲微雨九秋餘

이 말씀 한 토막을 중토에다 전하고저 | 欲將片語傳中土

지북의 어떤 사람 다시금 글을 쓸꼬 | 池北何人更著書

를 써서 보였더니, 황포는,

“지북의 어떤 사람이란 누구를 이름이시오.”

하고 묻기에, 나는,

“이것은 완정이 지은 <지북우담(池北偶談)>에 실린 우리나라 김청음(金淸陰 김상헌(金尙憲). 청음은 호)의 고사를 쓴 것이지요.”

한즉, 황포는,

“글쎄, 《감구집(感舊集 왕세진 저)》 가운데 이름은 상헌(尙憲)이요, 자는 숙도(叔度)라는 이가 있더군요.”

한다. 나는,

“웁습니다. 저,

얇은 구름 가벼운 비가 시누이의 사당터에 | 淡雲輕雨小姑祠

고운 국화 시든 난초 팔월이 이때라네 | 佳菊衰蘭八月時

라는 시는 곧 청음이 지은 것이요, 또 완정의 논시절구(論詩絕句)에는,

맑은 구름 이슬비가 소고사가 여기로다 | 淡雲微雨小姑祠

빼어난 국화 지는 난초 때마침 팔월이야 | 菊秀蘭衰八月時

조선에서 오신 손님 그 말을 기억하니 | 記得朝鮮使臣語

동쪽 나라 그분네가 시를 과연 알더구먼 | 果然東國解聲詩

이라 하였으니, 혜풍의 이 시는 완정을 본받아서 지은 것입니다.”

한즉, 황포는 또,

“혜풍의 시는 실로 얻기 어려운 작품입니다. 동국 사람이 시를 안다는 말이 과연 그렇습니다. 그의 다른 작품을 더 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다. 나는 곧,

글을 읽다 눈물 지니 옛 역사가 아롱지네 | 看書淚下染千秋

물에 닿은 저 시인은 시름도 하도 할사 | 臨水騷人無限愁

확사(심덕잠(沈德潛)의 자)가 시를 엮되(《청시별재(淸詩別裁)》) 너무나 초라타라 |
稿士編詩嫌草草

《치청전집》²⁷ 있다 하니 어디서 구해 볼까 | 多靑全集若爲求

를 썼더니, 황포는 손을 흔들며 붓으로 ‘치청전집’ 닉 자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금서(禁書)랍니다. 철군(鐵君 이개(李鐸)의 자)의 선조는 애초에 귀국 사
람이라지요.”

한다. 나는,

“무슨 까닭으로 금법에 걸렸나요.”

하였더니, 황포는 답을 하지 않는다. 나는 또 잇달아서 그 다음 절의,

시 짓기로 이름 높은 객집환이 있다고녀 | 有箇詩人郭執桓

담원(곽태봉(郭泰峯)이 거처하는 곳)이 읊은 글귀 동국에 현사롭네 | 澹園聯唱遍
東韓

이제껏 삼 년이라 소식 그저 끊겼으니 | 至今三載無消息

처량한 이 꿈속에 물 소리 뿐이로세 | 汾水悠悠入夢寒

를 읊었더니, 황포는 평하려 들면서,

“곽은 어느 고을에 살고 있는 시인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그는 태원(太原)에 산답니다.”

하고, 또,

27 《치청전집》: 청 이개(李鐸) 저. 치청은 그의 호, 치청산인(多靑山人).

“사동망(師東望)과 양유동(梁維棟)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모두 다 모른다고 답한다. 나는 또,

“그러면 서점 중에는 갓 새긴 《회성원집(繪聲園集)》이 있겠습니까. 그 책머리에 사와 양의 두 서문이 있고, 역시 저의 것도 있습니까.”

한즉, 황포는 곧 ‘회성원집’ 녀 자를 써서 문수당(文粹堂)서사(書肆)의 편액(扁額)이다. 예 사람을 보내어 구했으나 없다 한다. 나는 또,

“선생은 반정균학사를 잘 아시나요.”

하고 물었더니, 황포는,

“일찍이 사귀어 본 일은 없습니다.”

한다. 나는,

“반 학사의 맥이 종인부(宗人府)²⁸에서 벽 하나가 가렸답니다. 제가 나라를 떠나올 때에 어떤 친구가 말하기를, ‘종인부 대문을 지나 오른쪽으로 돌면 그 맥이 있다.’ 합니다. 그러면 종인부가 여기에서 거리로 얼마나 됩니까.”

한즉, 황포는,

“선생이 예부(禮部)를 잘 알고 계시겠지요.”

하고 반문할 즈음에 마침 한 손님이 좌석에 들어앉더니,

“종인부를 찾을 것 없이 그 맥이 여기서 멀지 않소이다. 저 양매서가(楊梅書街)에 있는 단씨(段氏)의 백고약포(白藁藥鋪)에서 마주 선 문이 곧 반이 우거한 곳입니다.”

하고 설명한다. 황포가 그와 무어라고 이야기하더니 곧,

“지나해 가을에 그가 이곳으로 옮겨왔다 하는데, 선생은 누구를 통해서 그를 아셨나요.”

한다. 나는,

“저의 나라 사람 홍대용(洪大容)이 건륭 병술년(1766년)에 공사(貢使)를 따라서 연경에 왔다가 반을 만났고, 그 뒤에도 그와 서로 사귀어 본 이가 있으니, 저는 비록 그를 보지 못했으나 마음으로는 벌써 서로 통했습니다. 반은 글씨와 그림에도 능

28 종인부(宗人府) : 황족(皇族)의 관계 사무를 보는 관부.

하여 일찍이 스스로 복숭아와 버드나무를 그리고서,
우리 집은 서자호(서호(西湖)) 물가를 돌린 나무 | 吾家西湖邊樹
푸른 잎 붉은 꽃이 때마침 이월이라네 | 淺碧深紅二月時
이렇듯한 저 강남을 돌아가지 못하고는 | 如此江南歸不得
연한 티끌 분가루요 가는 꿈은 실일러라 | 軟塵如粉夢如絲
는 시를 써서 홍대용에게 주었습니다.”

한즉, 황포가 크게 권주를 치면서,
“선생의 벗 홍 수재(洪秀才)의 아름다운 글귀를 듣고자 합니다.”

한다. 나는,
“일찍이 외우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혜풍(惠風)이 탄소(彈素)를 연경으로 보내는
시에서,

푸른 잎 붉은 꽃이 때마침 이월이라오 | 淺碧深紅二月時
연한 티끌 분가루요 가는 꿈은 실일러라 | 軟塵如粉夢如絲
항주가 낳은 선비 그 사람은 반향조를 | 杭州舉子潘香祖
어여쁠사 그의 시구 남시와 어땡던고 | 可憐佳句似南施
하였으니, 우리나라 시인들이 중국의 명사를 그리워함이 이렇습니다.”

한즉, 황포는 또 이에 권주를 치면서,
“반은 진실로 이름 있는 선비이긴 하나 혜풍의 것도 역시 아주 아름답습니다.”
하고, 황포는 곧 그 종이를 거두어 품속에 넣으면서,
“제가 방금 <구당시화(毬堂詩話)>를 쓰고 있는데 다행히 이런 한 토막 재미있는 이
야기를 얻었소이다.”

하고는 이내 같이 문을 나와서 작별할 제, 황포는,
“이 길이 바로 양매서가로 가는 것입니다. 단씨의 약포는 저 문패에 큰 물고기를
그린 곳이 그 집입니다.”

하고, 한 곳을 가리켰다.
강녀묘(姜女廟)는 산해관 밖에 있는데, 이는 이른바 망부석(望夫石)이다. 왕건(王
建 당(唐) 시인. 자는 중초(仲初))의,

고운 님 바라던 곳 강물만이 예는구나 | 望夫處江悠悠

이 몸이 돌 될마정 고개도 안 돌리네 | 化爲石不回頭

나날이 이 산 위에 바람 불고 비 내릴 제 | 山頭日日風和雨

님이 돌아오시는 땀 이 돌 응당 입 열 것을 | 行人歸來石應語

이란 시가 곧 이것을 말함이다. 세간에서는 망부석이 이 한 군데뿐이 아니라 하나는 태평(太平)에 있고, 또 하나는 무창(武昌)에 있으니, 그러면 왕건이 읊은 것은 이 돌이 아님을 알겠다. 지금 이곳에 행궁(行宮)이 있는데, 그 웅장·화려함이 북진묘(北鎭廟)에 못지 않고, 또 과친왕(果親王)이 금자(金字)로 쓴 ‘진고명적(振古名蹟)’이라는 주련이 있으며, 건륭 8년(1743년) 10월에 황제가,

서늘 바람 늙은 가지 저녁 별에 우는 듯이 | 涼風頽樹吼斜陽

이제껏 구슬프게 고운 님을 그리웁네 | 尙作悲聲吊乃郎

천고의 내 절개를 자랑코자 하라마는 | 千古無心誇節義

이 몸이 죽고 죽음 강상을 위함이네 | 一身有死爲綱常

그날부터 내려오며 강녀라 이름 불러 | 由來此日稱姜女

당년에 그 슬픔은 기량을 울었다네²⁹ | 盡道當年哭杞梁

이 마음 본받아서 아름다움 지킨다면 | 長見秉彝公懿好

전한 말이 그르다손 무엇이 해로우랴 | 訛傳是處也何妨

라는 시를 지어서 돌에 새겼고, 돌 곁에는 작은 정자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진의정(振衣亭)이다. 대체로 청의 황실은 대대로 명필이 많으나 과친왕(果親王)이 더욱 이에 능하여 미원장(米元章)보다도 나을 듯싶었다.

사신을 따라서 중국에 들어가는 이는 반드시 칭호 하나씩을 가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역관을 종사(從事)라 하고, 군관을 비장(裨將)이라 하며, 놀 양으로 가는 나와 같은 이는 만당(伴當)이라 부른다. 우리나라 말에 소어(蘇魚)를 만당(盤當)이라 하니 대개 반(盤)과 반(伴)의 음이 같은 까닭이다.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면 아까 이른 바 반당은 은빛 모자와 정수리에 푸른 것을 꽂고 짧은 소매에 가쁜한 행장을 차리

29 기량을 울었다네 : 전국 제(齊)의 사람.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는데, 그의 아내가 무덤에 가서 우는 소리가 너무나 슬펐기 때문에 제인(齊人)은 그것을 노래로 불렀다 한다.

게 된다. 이를 본 길가의 구경꾼들은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새우라고 부른다. 어째서 새우라 하는지는 모르나 대체로 무부(武夫)의 별호인 듯싶다. 또 지나는 곳마다 어린이들이 떼를 지어 몰렸다가 일제히,

“가오리가 온다. 가오리가 오네.”

하고, 또는 말 꼬리에 따라오면서 다투어가며 지껄인다. 대체로 가오리가 온다는 것은 고려(高麗)가 온다는 말이다. 나는 일행더러,

“이제 세 가지 물고기로 변하는구먼.”

하고는 웃었다. 모든 사람들은,

“어째서 세 가지 고기라 하는고.”

한다. 나는,

“길을 떠날 때에는 반당이라 하였으니 이는 소어요, 압록강을 건넌 뒤로는 새우라고 하니 새우도 역시 고기의 한 족속이요, 되놈 애들은 모두 가오리(哥吾里)하고 부르니 이는 홍어(洪魚)가 아닌가.”

한즉, 사람들은 모두 크게 웃었다. 나는 이내 말 위에서 시 한 절을 불렀다.

푸른 깃 은 정수리 의젓한 무부로서 | 翠翎銀頂武夫如

천리라 요동 길을 사신 뒤를 따랐구나 | 千里遼陽逐使車

중국 땅에 들어서자 고기 별호 세 번째와 | 一入中州三變號

예부터 못난 이 몸 중이 씹는 좀이라오 | 鰕生從古學蟲魚

고려(高麗)는 애초에 고구리(高句驪)로부터 나온 이름이었는데, ‘구(句)’자와 ‘마(馬)’변을 생략한 것이다. 만일 산과 물이 곱다고 풀이해서 ‘고려’라고 읽는다면 이는 천자문(千字文) 중에 있는 금생려수(金生麗水)의 ‘려(麗)’자가 될 것이니 이는 거성(去聲)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평성(平聲)의 ‘리(麗)’로 발음한다. 수·당 때에도 고구리를 모두 ‘고리’라고 불렀으니 ‘고리’란 이름은 그 유래가 벌써 오래다. 이무관(李愬官)은 일찍이,

“고구리’란 말은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에 처음 나타났으며, 그들 조상은 금와(金蛙)인데, 우리나라 말로 와(蛙)를 개구리(皆句麗)라 하고 또는 왕마구리(王摩句麗)라 한다. 옛 사람들이 몹시 질박하여 곧 임금 이름으로써 나라 이름을 삼고는

성을 그 위에다 씌워서 ‘고구리’가 된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비록 일시의 조롱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마는 제법 이치에 맞는 말이다. 외국의 방언이 대체로 소리는 있으나 글자가 없는 것이 많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그 소리를 한자로 옮겼을 때 예를 들면, 은(銀)을 몽고(蒙古)라고 하고, 아름다운 금을 애신각라(愛新覺羅)라 하며, 장사(壯士)를 예락하(曳落河)라고 부르는 따위가 곧 그것이다.

산서(山西)에 살고 있는 사람 곽집환(郭執桓)의 자는 봉규(冢圭)³⁰요, 또는 근정(勤庭)이며, 호는 반오(半迂)요, 혹은 동산(東山)이며, 또는 회성원(繪聲園)이라 한다. 그는 건륭 병인년(1746년)에 났으며, 시와 글씨와 그림에 모두 능하고 집이 대대로 부유하였으며, 그의 집은 호산(虎山)을 뒤에 지고 앞에는 노천(蘆泉)이 흐르고 있다. 그의 아버지 태봉(泰峰)의 자는 청령(靑嶺)이요, 호는 금랍(錦納)이니 나라에서 중헌 대부(中憲大夫)의 직함을 주었는데, 뒤에 또 자정 대부(資政大夫)에 승진되었다. 금랍은 날마다 심덕잠(沈德潛)·가락택(賈洛澤) 등 모든 명사와 더불어 그 동산에서 시를 창수(倡酬)하였다.

봉규가 일찍이 그와 한 고을에 살고 있는 등문헌(鄧文軒) 사민(師閔)을 통하여 우리나라 명사들에게 담원팔영(澹園八詠)³¹의 시를 청하였으니, 담원은 곧 금랍이 거처하는 곳이었으며, 이 시는 대체로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함이다.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이 써 주었다.

붉은 파초 푸른 바위 담 너머로 솟아 뵈고 | 紅蕉綠石出東牆
한 그루 오동일랑 깊숙한 찰 간직했네 | 一樹梧桐窈窕堂
평생에 오만한 몸 손님 맛이 게을리하여 | 傲骨平生迎送懶
어른님 하시는 일은 저문 산에 절만 하네³² | 丈人惟拜暮山光
위는 내청각(來靑閣)을 읊었다.

30 봉규(冢圭) : 어떤 본에는 봉규(封圭)로 되었으나 잘못된 것이다.

31 담원팔영(澹園八詠) : 담원의 주위에 벌여 있는 팔경(八景)을 읊어서 축하하는 시.

32 절만 하네 : 송(宋) 서예가 미불(米芾)이 무위(無爲)라는 고을에서 커다란 괴석(怪石)을 발견하고는 의관을 갖추어 절하여 형(兄)이라 일컬었다.

남쪽 비탈 그림자는 진종일 나풀나풀 | 南陀竟日影婆娑
 그림자 물에 지자 나를 불러 누구인가 | 耐可呼吾亦喚他
 산들바람 잠깐 불 제 해오라기 저어가니 | 乍綴微風鳧鷖去
 요란한 물결 위에 백 동파³³가 설렁이네 | 不禁撩亂百東坡
 위는 감영지(鑑影池)를 읊었다.

코 끝에 희끗하며 보기는 보았건만 | 已觀微白鼻端依
 무엇이고 말으려니 콧구멍이 닫혔고나 | 欲辨藏神掩兩扉
 다만 암향 있어 꿈에 들어 싸늘하네 | 獨有暗香侵夢冷
 나부산³⁴ 밝은 달에 매화 가지 춤추는 듯 | 羅浮明月弄輝輝
 위는 소심거(素心居)를 읊었다.

근자 새긴 난간 위에 울한 솔이 덮여 있고 | 松覆深深記字欄
 기운 바위 넉출 달려 푸른 빛이 어울렸네 | 垂蘿欹石翠相攢
 그림 배에 바람 불어 가는 대로 두려무나 | 一任畫舫風吹去
 밤새도록 들려오는 찬 여울 물소리인 듯 | 盡夜寒聲瀉作灘
 위는 송음정(松陰亭)을 읊었다.

가볍게 뽞는 놀은 취한 녀를 깨우는 듯 | 暝輕堪醒醉魂花
 하늘 말이 높이 달려 푸른 갈기 너울너울 | 天裏行空翠鬣髣
 약 캐러 갔다가 옛 신선을 찾으려니 | 採藥將尋劉阮去
 적성³⁵ 아침 놀에 길마저 아득코너 | 路迷廉閃赤城霞
 위는 비하루(飛霞樓)를 읊었다.

33 백 동파 : 소식(蘇軾)이 미파(溪陂)에서 놀 때의 고사.

34 나부산 : 매화가 많이 난 고장.

35 적성(赤城) : 천태산(天台山) 부근에 있다.

꽃은 하도 은근하여 가는 입을 붙드는 듯 | 花似將歸強挽賓
비바람 어이하여 도리어 새우르고 | 囑他風雨反逢嗔
골짜 꽃 꺾어다가 화병에 모셔 두니 | 自從洞裏修瓶史
일년 삼백 육십 날이 어느 때가 봄 아니라 | 三百六旬都是春
위는 유춘동(留春洞)을 읊었다.

옥파리채 맑은 저녁 높은 대에 홀로 올라 | 玉塵清宵獨上臺
버들 울에 서리 내리고 기러기 슬피 울 제 | 杞棚霜落雁流哀
찢어지듯 한 소리에 가을 구름 흩어지고 | 一聲割裂秋雲盡
깨끗한 저 하늘에 달님 이제 오신다네 | 萬里瑤空皓月來
위는 소월대(嘯月臺)를 읊었다.

꽃다운 화예부인³⁶ 이 궁에 들어올 제 | 花蘂夫人初入宮
수줍은 채 말하자니 뺨이 먼저 붉었다네 | 含羞將語臉先紅
앵가의 사리즘이 그 무엇이 묘하던고 | 鸚哥舍利元非妙
아란의 깨달은 도를 누구라서 알아주리 | 誰識阿難悟道功
위는 어화현(語花軒)을 읊었다.

봉규가 그가 지은 ‘회성원집(繪聲園集)’ 각본(刻本) 한 권을 나에게 보내고는 서문을 청하였다. 그 글을 읽어본즉 청허(淸虛)하고도 쇄탈(灑脫)하여 세속 사람의 것과 같지 않고, 그는 약관 때부터 그 아버지의 가진 재산을 받았으며, 해내의 사객(詞客)들을 초빙하여 글과 술로 회합을 지었으니, 양유동(楊維棟)·노병순(盧秉純) 등이 모두 그 서문을 쓰게 되었다. 그의 ‘회진문서정(懷津門西亭)’이라는 시에,
향기 흩자 꽃이 지니 작은 정원 가을이라 | 香散花殘小院秋
추녀 끝에 달린 달은 갈퀴인양 되었으리 | 西亭簾角月如鉤
북으로 예는 외기러기 푸른 공중 스쳐오니 | 北來一雁橫空碧
그 그림자 동남으로 바다에 흘러드네 | 影下東南入海流

36 화예부인 : 오대 때 촉왕(蜀王) 맹창(孟昶)의 부인으로 절색에 문장을 겸하였다.

라 하였고, 또 그의 ‘제표요산수소폭(題表耀山水小幅)’이라는 시에는,

고기잡이 갯마을에 물빛은 밝았는데 | 蟹舍漁灣水色明
이슬 젖은 나무 숲에 흐렸다가 맑아지네 | 煙條露葉半陰晴
하늘가 구름 사이 외로운 배 멀리 저어 | 雲間天際孤帆遠
적막한 석양 속에 한 소리 기러기를 | 寂寞斜陽一雁聲
이라 하였고, 또 그의 ‘유감(有感)’에는,

강가에 밝은 달빛 가을이 맑노매라 | 壕梁月色照清秋
회남의 갈대 숲에 내 꿈이 돌리누나 | 夢繞淮南蘆荻洲
초원에 잠긴 비는 갯마을이 고요하고 | 雨暗楚原連浦靜
고목에 급한 바람 강물 소리 섞여 흘러 | 風催古木雜江流
외로운 배 방향 몰라 건곤이 넓은지고 | 孤舟无依乾坤濶
물과 구름 같은 신세 내 홀로 떠 있구나 | 隻影空持雲水浮
한없이도 쓸쓸한 건 시력이 끝난 그곳 | 最是蕭條極目處
머나먼 만리 길에 끝없는 나의 시름 | 迢遙萬里使人愁

이라 하였다. 내 일찍이 금오(金鰲 북경 궁중에 있는 다리(橋)와 옥동(玉簫 북경 궁중에 있는 다리(橋)) 사이를 배회한 일이 있으니, 저 우촌(雨村)이조원(李調元)과 추루(秋樓)반정균(潘庭均), 지당(芷塘)축덕린(祝德麟)의 모든 명류는 오히려 만나 볼 기회가 있었으나, 다만 괘씨 집환(執桓)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6년이나 되었다. 집환이 건륭 을미년 8월에 죽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회성원집’은 아마 중간된 책(本)이 있을 듯 싶기에 유리창 안에서 구하여 보았으나, 끝내 얻지 못했으니 한스럽다.

윤경(尹卿)이 검은 종이로 장정한 작은 부채를 내어서 대와 돌을 그리고 또 젖에다 금가루를 타서,

아름다운 푸른 대는 님의 풍채 보는 듯이 | 綠竹瞻君子
굽어진 저 언덕에는 님의 소리 듣는 듯이 | 卷阿矢德音
이 부채를 펼쳐 내어 그림 한 폭 그려 들고 | 揮毫開便面

두 손을 맞잡으니 마음마저 같으리³⁷ | 握手得同心

라고 써 있고, 그 밑에는,

“윤가전(尹嘉銓)이 쓰니 이때에 나이는 70이다.”

라고 썼다.

《명시종(明詩綜)》에 나의 5세조(世祖) 금양군(錦陽君)의 대동관제벽(大同館題壁)의 한 절로서,

한 나라의 흥가(한(漢) 성제(成帝)의 연호) 연간에 일어난 고구려 | 高句麗起漢鴻嘉

쓸쓸한 옛 궁터가 풀숲에 가리웠네 | 宮殿遺墟草樹遮

슬프다 을지문덕 그이가 죽은 뒤에 | 悵悵乙支文德死

나라가 망한 것 후정화 탓 아니라네 | 國亡非爲後庭花

가 실려 있다. 고구려의 일어남은 흥가 연감이 아니요, 곧 한 원제(漢元帝)의 건소(建昭) 2년(기원전 37년)이다. 성제(成帝)의 흥가 3년에는 백제(百濟)의 태조 고온조(高溫祚)가 직산(稷山)에 왕도를 정하였던 것을 선조께서 우연히 상고하지 못하셨던 것이다. 유식한(俞式韓)의 《구당록(毬堂錄)》에는 《일지록(日知錄)》을 이끌어서 조선 역사의 자료로서 《서경(書經)》 대전(大傳)을 고증삼아, 이 시 가운데서 쓴 흥가의 그릇된 것을 변증(辨證)하였으니, 중국의 선비들이 고거(考據)와 변증에 알뜰하여 이로써 박아(博雅)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대체로 이리하였다.

장주(長洲 우동이 살고 있던 지명) 우동(尤洞) 회암(梅菴)이 〈외국죽지사(外國竹枝詞)〉를 지으매, 그 첫머리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그 다음 백여 나라의 민요(民謠)와 토산(土產)의 대개를 소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일에 대하여서도 그의 서술이 오히려 그릇된 것이 많으니 하물며 해외 만 리의 먼 곳이라. 더군다나 문자가 없으니 무엇으로써 그들의 토속을 통할 수 있었겠는가. 그가 조선(朝鮮)을 두고 읊은 시에,

고구려를 하구려로 낮추어서 고쳤다니 | 高句麗降下句麗

조선이란 옛 이름이 보다 더 아름답네 | 未若朝鮮古號宜

37 아름다운……같으리 : 이 시는 벌써 《망양록(忘羊錄)》 중에 있었으므로 여기에서 주석은 생략하였다.

천 리란 그 서울엔 온갖 연극 벌여 있고 | 千里王京陳百戲

한 나라 옛 모습을 이곳에서 보겠구나 | 漢城猶見漢官儀

라 하고는 그 주(注)에는,

“옛 조선이 고구려에게 합병되었으므로 수(隋)가 그를 쳤으되 항복받지 못하고는 그를 낮추어서 ‘하구려(下句麗)’라 하였더니, 명(明)의 홍무(洪武) 연간에 그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고 조서(詔書)를 받들었으므로, 다시 조선의 이름을 회복시켰으며 한성(漢城)을 서울로 삼았다. 매양 조사(詔使)가 이르면 여러 가지 연극(演劇)을 진열하였다.”

라고 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긴 저고리 넓은 소매 절풍건은 머리에다 | 長衫廣袖折風巾

다듬 종이 이리 붓은 한자 쓰면 진서라네³⁸ | 砥紙狼毫漢字眞

스스로 쓴 역사에는 전통이 오래다니 | 自序世家傳國遠

《상서》의 구주³⁹ 속에 살고 있는 그들이라네 | 尙書篇內九疇人

라 하고는, 또,

작은 아이 여덟 살이 황창이라 부르는데 | 小兒八歲號黃昌

칼춤을 추다 말고 백제왕을 베었다네 | 舞劍能誅百濟王

8월이라 한가윗날 회소곡을 다시 불러 | 更唱嘉俳會蘇曲

아침 나절 그 길쌈이 대바구니 가득 찼네 | 朝來蠶績已盈筐

라고 하고, 또 그 주에,

“신라(新羅)의 황창랑(黃昌郎)이 8세에 그의 임금을 위하여 백제(百濟)에 가서 거리에서 춤추는데, 백제왕이 그를 불러 궁중에서 춤추게 하였더니, 그는 이내 그 칼로써 백제왕을 죽였다. 7월 보름에 신라왕이 왕녀(王女)로 하여금 육부(六部)⁴⁰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넓은 뜰에서 길쌈을 시작하여, 8월 보름에 이르러서 그들의 공적을 비교하여 이에 진 자가 비용을 담당하여 주연을 벌이고 서로 노래 부르며 춤

38 진서라네 : 당시에는 국문을 언문이라 하고 한자를 진서(眞書)라 하였다.

39 구주(九疇) : 기자(箕子)가 주 무왕(周武王)에게 진술한 〈홍범편(洪範篇)〉에 실린 정치 이론.

40 육부(六部) : 신라 초기에 그 서울인 경주를 중심으로 설치한 행정 구역.

추되, 이를 ‘가위(嘉俳)’라 하였다. 그 중 한 여자가 일어나 춤추며 회소곡(會蘇曲)을 불렀더니, 그 뒤에 조선이 신라를 깨치고 끼친 소리를 모의하여 황창과 회소의 두 곡조를 만들었다.”

하였다.

기려천(奇麗川)이 《소대총서(昭代叢書 청(淸) 장조(張潮) 저)》를 내놓고 이 글을 뽑아서 나에게 보낸다. 내가 윤형산(尹亨山)에게,

“이름을 ‘하구려(下句麗)’로 낮춘 것은 곧 왕망(王莽) 때 일입니다.”

한즉, 윤은,

“그렇습니다.”

한다. 나는 또,

“스스로 쓴 역사라는 구절은 온통 그릇된 것입니다. 기씨(箕氏)의 조선은 위만(衛滿)에게 축출된 것입니다.”

하였더니 윤은,

“그저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에서는 복잡한 관계인 동방(東方)의 삼국(三國)을 통틀어 이야기한 것이요, 오로지 귀국만을 가리킨 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가 이른바 전통이 오래다는 것은 대체로 그의 나라 이름 조선이 벌써 기자(箕子)로부터 임을 말하며, 귀국의 아름다움을 극도로 찬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는 본시 가작(佳作)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꿈 이야기를 하다시피 또는 가죽신을 격해 놓고 가려운 곳을 긁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다. 나는 또,

“그의 주(注)에 이르기를 조선이 신라를 깨쳤다는 것은 더욱 그릇된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려를 이었고, 고려는 신라를 이었으니 어찌 5백 년 앞의 신라를 깨칠 수 있겠습니까.”

한즉, 여천은,

“이야말로 을축(乙丑) · 갑자(甲子)라는 겁니다.”

하고, 크게 웃는다.

내가 윤경더러,

“현존한 시인(詩人)으로서 해내(海內)에 가장 으뜸될 분은 누구십니까.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윤경은,

“천하가 넓은지라, 홍장(鴻匠)과 묘재(妙才)가 진실로 없는 것은 아니로되, 저는 나이가 늙고 세상일을 모두 끊어버렸으므로 젊은 재자들은 아는 이가 없고, 다만 저의 늙은 벗으로서 원 태사(袁太史) 매(枚)라는 이가 있습니다. 그의 자는 자재(子才)였고 뜻이 고상하여 세속에 얽매이지 않는 선비입니다. 그는 벼슬을 사랑하지 않고 산수에 방랑하여 가장 회고적(懷古的)인 작품이 능수입니다.”

하고는, 이내 소리를 높여서 그의 시 두어 귀를 읊는다. 나는 그가 읊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글씨로 써서 보여 주기를 청하였다. 그의 〈박랑성시(博浪城詩)〉에,

약을 캐는 진인들은 봉래산을 향해 가고⁴¹ | 真人採藥走蓬萊
아득한 박랑의 모래벌⁴²은 망해대에 연했구나 | 博浪沙連望海臺
구정은 아직 잠기고⁴³ 삼호들은 일어섰네⁴⁴ | 九鼎尙沈三戶起
여섯 왕이 쓰러지자⁴⁵ 한 방망이 오는구려 | 六王纔畢一椎來
범과 용이 기개 높은들 누른 금은 다하였네 | 虎龍有氣黃金盡
산도깨비 소리 없고 흰 구슬만 슬프다네 | 小鬼無聲白璧哀
열흘 두고 찾아 못해 손을 마침 떼었다네⁴⁶ | 大索十日還撒手
그대 같은 기이한 재주 예부터 몇이런고 | 如君終古儘奇才

41 약을……가고 : 진 시황이 서시(徐市)로 하여금 동남(童男) 동녀(童女) 5백 명을 거느리고 바다 섬으로 보내어 불사약(不死藥)을 구했다.

42 박랑의 모래벌 : 장량(張良)이 창해 역사(滄海力士)를 시켜 박랑 모래벌에서 매복하였다가 첩퇴로써 진 시황을 쳤으나 잘못되어 다음 수레가 맞았다.

43 구정은 아직 잠기고 : 구정은 하우(夏禹) 때부터 내려오던 신기(神器)였으므로 나라가 망한 것을 구정이 잠겼다 한다. 여기서는 주(周)가 망했다는 말.

44 삼호들은 일어섰네 : 초(楚)의 항적(項籍)을 말한다.

45 여섯 왕이 쓰러지자 : 당시의 한(韓) · 조(趙) · 위(魏) · 연(燕) · 제(齊) · 초(楚)의 6국이 망했음을 말한다.

46 손을 마침 떼었다네 : 진 시황이 저격한 범인을 열흘 동안을 찾았으나 잡지 못했다.

하였으니, 그 시를 보아서도 가히 중국 사대부(士大夫)의 심경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형산이 구태여 이 시를 읊어 보임도 역시 그의 뜻이 명확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기려천(奇麗川)에게도 기피하지 않음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다.

강희 무오년(1678년)에 강우(江右)에 살고 있는 계문란(季文蘭)이라는 여인이 되놈들의 노략을 당하여 심양으로 가다가 진자점(榛子店)에 이르러서 바람벽 위에 시 한 절을 썼으되,

몽텅 머리 방망인양 옛 단장 가엸어라 | 椎髻空憐昔日粧

길 나선 초라한 양은 비단 치마 다 낡았네 | 征裙換盡越羅裳

아빠 엄마 어머신고 그곳 몰라 애태우며 | 爺孃生死知何處

봄 바람에 흐뭇 울어 심양으로 예는구나 | 痛哭春風上瀋陽

하고는, 그 아래에 또 쓰기를,

“저라는 계집은 곧 강우에 살고 있는 우 상경(虞尙卿) 수재(秀才)의 아내로서 지아비는 놈들에게 죽음을 당하였고, 이제 왕장경(王章京)에게 팔린 몸이 되어서 심양으로 가는 길ियो. 무오년 정월 21일에 눈물을 뿌려 벽을 닦고 이 시를 쓰노니, 오직 천하에 유심(有心)한 사람들은 이 글을 읽고서 이 몸을 가엸이 여겨 건져 주시옵길 바랍니다. 제 나이는 지금 21세외다.”

하였다. 그 뒤 6년 만인 계해(1683년)에 청성부원군(淸城府院君) 김공(金公) 석주(錫胄)가 사신으로 이곳을 지나다가 이 일을 기록하여 돌아왔고, 또 그 뒤 30여 년을 지나서 노가재(老稼齋) 김공(金公) 창업(昌業)이 역시 이곳을 지나니 바람벽에 쓴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고 하였다. 이제 나는 노가재보다도 60여 년 뒤인 이날에 또 이곳을 지나다가 이를 생각하여 배회하였으나 벽 사이의 글자는 다시 찾아 볼 곳이 없었다. 내 우연히 이 시로써 기풍액(奇豐額)에게 이야기하였더니 그는 산연(潸然)히 눈물지우며,

“진자점은 어디 있습니까까.”

하고 묻기에, 나는,

“산해관 밖에 있습니다.”

하였더니, 기는 곧 시 한 절을 읊었다.

붉은 단장 아침 나절 되놈에게 팔렸으니 | 紅粧朝落鑲黃旗
 호가의 슬픈 박자⁴⁷ 그 다섯째 글길러라 | 筳拍傷心第五詞
 천하에 많은 사내 맹덕이 이제 없으니 | 天下男兒無孟德
 천금이 있다손들 채문희를 속할쏘냐⁴⁸ | 千金誰贖蔡文姬
 강희의 산장시(山莊詩)는 통틀어 36마디였는데, 모두가 야비하고 졸렬하여 운치가 없으니, 대체로 그는 억지로 읊어서 평소의 포부를 자랑한 것인데 그의 모든 신하들이 반드시 못 글을 수집·나열하여 전주(箋注)를 내었으니, 한 예를 들면 그의 연파치상(煙波致爽)을 읊은,
 서늘한 이 산장에 가끔 와서 더위 피하니 | 山莊頻避暑
 잠자코 고요하여 떠들썩한 일 드무네 | 靜默少喧嘩
 는 아무런 주석도 필요하지 않건마는 그들은 양(梁) 소통(蕭統 양(梁)의 문학가, 자는 덕시(德施)) 시의,
 수레를 바삐 몰아 산장으로 가자꾸나 | 命駕出山莊
 든가, 유우석(劉禹錫) 시의,
 푸른 년출 그늘 속에 산장 하나 예 있구나 | 綠蘿陰下有山莊
 라든가, 대숙륜(戴叔倫)⁴⁹ 시의,
 지초 이랑 대추밭 길 오가기도 잦았고녀 | 芝田棗逕往來頻
 와, 손적(孫逖 당의 문학가) 시의,
 이 땅이 가장 맑으니 숲 속 정자 좋을씨고 | 地勝林亭好
 시절이 태평인 제 잔치도 자주로다 | 時清宴賞頻
 와, 위징(魏徵) 구성궁 예천명(九成宮醴泉銘)의,
 “황제께서 구성궁에서 더위를 피하셨다.”(그 서문의 한 구절)
 와, 양 간문제(梁簡文帝 자는 세찬(世纘)) 납량시(納涼詩)의,
 높은 오동 그 밑에서 더위를 피하노라니 | 避暑高梧側

47 호가의 슬픈 박자 : 한말 채문희(蔡文姬)가 되놈에게 몸이 팔리어 호가십팔박(胡笳十八拍)을 지어 스스로 슬퍼하였다.

48 채문희를 속할쏘냐 : 조조(曹操)가 천금으로 채문희를 속환하였다.

49 대숙륜(戴叔倫) : 당 현종(唐玄宗) 때 문학가. 자는 유공(幼公).

가벼운 바람 들어 옷깃이 서늘하군 | 輕風時入襟

과, 백거이(白居易) 시의,

봄철을 바라보며 꽃빛이 따뜻하고 | 望春花景暖

더위를 피하니 대 바람이 서늘코녀 | 避暑竹風涼

와, 《남사(南史)》 심린사전(沈麟士傳)의,

“나이가 80이 지났으나 귀와 눈은 오히려 총명하므로 남들은 그의 몸 수양이 정(靜)·묵(默)한 소치라고 말하였다.”

와, 황보증(皇甫曾) 당의 문학가. 자는 효상(孝常)) 시의,

화창한 바람엔 풀잎이 빼어나고 | 草長光風裏

잠자코 고요한데 꾀꼬리만 우는구나 | 鶯啼靜默間

와, 하손(何遜) 양의 문학가. 자는 중언(仲言)) 시의,

보는 거나 듣는 것이 떠들썩한 일 전혀 없네 | 視聽絕喧嘩

등을 이끌었으니, 이 시는 겨우 두 글귀에 지나지 않을 뿐더러 내용이 풀이하지 못할 것도 없거늘 어찌 허다한 전주(箋注)를 내었을까. 제용작가(帝庸作歌)⁵⁰라는 글이 있으나 어찌 허다한 출전을 밝힐 것이야 있으리요. 그러므로 주자(朱子)는 일찍이 말하기를,

“관관저구(關關雎鳩)⁵¹란 말은 애초부터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라고 하였으니, 이야말로 시학(詩學)에서의 대성(大成)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가두에 떠드는 말 하간전 외는 소리 | 街頭喧誦河間傳

규중의 슬픈 노래 양백화⁵²가 이 아니야 | 閨裏悲歌楊白花

이 시는 곧 점필재(佔畢齋)⁵³가 사방지(舍方知)를 풍자한 것이다. 사방지라는 자는 사천(私賤) 계층의 출신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여복(女服)을 가장하여 얼굴에 분과 기름을 단장하며 재봉을 배웠더니, 자라나서 조사(朝士)들의 집에 드나들곤 했다. 천순(天順) 7년(1463년) 봄에 사헌부(司憲府)에서 그 일을 풍문으로 듣고 체포하여

50 제용작가(帝庸作歌) : 《시경》 익직편(益稷篇)에 나오는 한 구절.

51 관관저구(關關雎鳩) : 《시경》 관저장(關雎章)의 첫 구절.

52 양백화 : 음탕한 일을 풍자한 패곡(俳曲)의 이름인 듯하나 출전 미상.

53 점필재(佔畢齋) : 이조 때의 문학가 김종직(金宗直)의 호. 자는 계은(季溫).

그가 평소에 간통하던 여보살에게 취조한즉, 보살은,

“그의 양도(陽道)가 유달리 큼니다.”

한다. 이에 여의(女醫) 반덕(班德)을 시켜서 만져 보았고, 또 영순군(永順君) 이보(李漕)와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등도 번차례로 실험하며 보고는 모두 혀를 뺏으면서,

“에이, 대단하더구만.”

하였다. 이때에 중국에서도 역시 이보다 먼저(뒤인 것을 잘못 센 것 같다.)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오군(吳郡)양순길(楊循吉)의 《봉헌별기(蓬軒別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성화(成化) 경자년(1480년)에 경사(京師)에 과부 하나가 여공(女紅)에 능란하고 젊고도 예뻐며, 또 신이나 버선이 네 치에 지나지 않을 만큼 작았다. 모든 부귀가에서 서로 맞이하여 수놓기를 배우기도 하였다. 그는 남자를 보면 문득 부끄러운 빛으로 회피하기도 하려니와, 밤이면 그에게 배우는 여자와의 서로 자누이되 자물통을 튼튼히 잠그곤 한다. 그러므로 남들은 더욱이 그가 자기 몸조심에 가장 엄격하다고 믿었다. 이때 태학생(太學生)으로 있던 아무개가 그를 연모하여, 처음에는 그의 아내를 누이동생이라 속이고 그 과부를 자기의 집에 맞이하고, 가만히 그 아내에게 타일러 밤들어 문을 열고 거짓으로 뒷간에 가는 듯이 하고는, 갑자기 방안으로 들어가 촛불을 끄니 과부는 고함을 치자, 그는 과부의 목덜미를 껴안고는 강탈한즉 곧 남자인지라 구속하여 관청에 보내어 조사하니, 그의 성은 상(桑)이요, 이름은 중(獐)이며, 나이는 24세인데 어릴 때부터 발을 싸 매었다 한다. 법사(法司)가 그 옥사를 위에 아뢰었더니 현종 황제(憲宗皇帝)가 이는 ‘인요(人妖)’라 하여 사형에 처하였다.”

한다.

망부석(望夫石)에는 천산(千山) 범광원(范光遠)의 시 일절이 쓰여져 있다.

성 쌓은 이 어디 가고 보이지를 앓는구나 | 不見築城人

다만 정녀 아씨 그 자취 완연구나 | 但見貞女迹

문노라 만리장성 너는 이를 알려니 | 試問萬里城

이 한 조각 돌에 비겨 봄이 어떠할꼬 | 何如一片石
 강희때 간행한 전당시(全唐詩)는 모두 1백 20권이 되는 거질이었으니, 마땅히
 빠진 것이 없을 것이로되 당 현종(唐玄宗)의 <어제사신라경덕왕(御製賜新羅景德
 王)>이라는 5언 10운(韻)의 시가 그 속에 실리지 않았다. 《삼국사(三國史)》에,
 “신라 경덕왕(景德王) 15년 봄 2월에 경덕왕은 당 현종이 촉(蜀)에 있다는 말을 듣
 고 사신을 보내어, 당의 절강으로부터 성도(成都)에 이르러서 공물(貢物)을 바쳤더
 니, 조서(詔書)로 말하기를, 신라왕이 해마다 조공을 바쳐서 능히 예악(禮樂)과 명
 분(名分)을 지키는 것을 가상하게 여겨 시 한 수를 지어준다 하고,
 넷 버리 나누어서 밝은 햇빛 나타나고 | 四維分景緯
 여러 가지 기상들이 그 속에 포함되네 | 萬象含中樞
 구슬과 피륙들은 온 천하에 깔려 있고 | 玉帛遍天下
 다리 놓고 배를 저어 우리나라 찾아드네 | 梯航歸上都
 아득한 이내 회포 푸른 물이 막혔더니 | 緬懷阻靑陸
 오랜 세월 흐르도록 우리 위해 수고했소 | 歲月勤黃圖
 망망한 하늘가를 그즈음 누가 알꼬 | 漫漫窮地際
 창창한 그 어란이 바다 구석 자리잡아 | 蒼蒼連海隅
 가륵한 이 나라는 명분을 지켰다네 | 興言名義國
 산천이 멀다 하여 허수로이 생각하라 | 豈謂山河殊
 우리 사신 갔을 때엔 풍속 교화 전해 있고 | 使去傳風教
 그들이 이에 오면 옛 법을 배워 가네 | 人來習典謨
 옷갓이 정제하니 예식을 알아 하고 | 衣冠知奉禮
 충실하고 믿음 지켜 유학을 높였구나 | 忠信識尊儒
 어린 정성 나타나니 하느님이 하감하고 | 誠矣天其鑒
 어질도다 그의 덕은 외롭진 않으리라 | 賢哉德不孤
 깃발 안고 함께 일어 인민을 기르리니 | 擁旌同作牧
 아름다운 이 선물은 생추⁵⁴에 비할쏘냐 | 厚貺比生蓂

54 생추(生蓂) : 《시경》 소아(小雅) 백구장(白駒章)에 나오는 말로서 예물(禮物)이라는 뜻.

님이 가진 푸른 뜻을 더 한층 굳게 하여 | 益重靑志
바람 서리 치더라도 어디까지 변치 마오 | 風霜恒不渝
라고 하였다.”

한다. 송(宋)의 선화(宣和) 연간에 고려의 사신 김부의(金富儀)가 이 시의 각본(刻本)을 가지고 관반(館伴)으로 있던 학사(學士) 이병(李瑋)에게 보였더니, 이병이 황제 휘종 황제(徽宗皇帝)에게 올렸는데 이내 양부(兩府)와 모든 학사들에게 보이고, 황제는 또,

“이 진봉시랑(進封侍郎)이 올린 시는 당 명황(唐明皇)의 글씨가 틀림없는 것이야.” 하고 가탄하여 마지않았다. 이 시가 이미 중국에 들어가서 도군(道君 송(宋) 휘종이 자칭한 별호)의 예상(睿賞)을 겪었으나, 후세 사람이 당시(唐詩)를 엮는 이는 모두 이를 수록하지 않았음을 보아서, 비로소 옛날의 잃어버린 글은 듣고 본 것으로 서만이 다할 바가 못 되고, 도리어 해외 편방(偏邦)의 선비가 이따금 천유(關幽)의 업적이 있음을 깨달았으니, 이 어찌 우리들의 다행이 아니리오.

오중(吳中)의 사람들은 예로부터 부박하고 허탄하며, 경솔하고 변덕이 많으나 대체로 문장이 공교롭고 글씨 그림을 잘하기로 이름 높은 선비가 많았다. 그러나 중원(中原)의 인사들은 모두 그들을 미워하여 장사치나 장쾌들을 지목할 때에는, 반드시 항주풍(杭州風)이라고 일컬으니 대체로 오인(吳人)은 교활한 술책이 많았던 까닭이다. 전당(錢塘) 전여성(田汝成)의 《위향총담(委巷叢談)》에,

“항주의 풍속이 부박하고도 허탄하여 남을 자랑함에도 가벼이 하려니와, 구차히 나무라기도 잘하여 한 길에서 들은 말들을 다시 생각하여 보지도 않는다. 예를 들면 아무개가 이상한 물건을 가졌다고 하거나, 또는 아무개의 집에 범상하지 않는 일이 생겼다고 한 사람이 외치면 못 사람이 따라서 남의 의심나는 일에는 스스로 증언하되, 마치 자기의 눈으로 환하게 본 듯이 하여 저 바람처럼 일 때에도 머리가 나타나지 않거니와, 지나는 곳에도 그림자가 없어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까닭으로, 상말에 ‘항주 바람은 포착하자 없어서 버린다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두 한 패가 되어 있네.’라고 하였거니와, 또 이르기를, ‘항주 바람은 한 묶음 파라네. 꽃은 쫓긋쫓긋 속은 다 비었다네.’라고 하였으며, 또 그들의 습속이 거짓을

만들어서 눈앞의 이익을 맞이하되, 신후(身後)의 일을 돌보지 않음도 일쑤이다. 그리하여 술에다 재를 타고 닭에다 모래를 채우고 거위 배때기에 바람을 불어 넣고, 고기나 생선에 물을 집어 넣으며, 천에 기름과 분을 바르는 따위의 일이 벌써 송(宋) 때부터 그러하였다.”

라고 하였다. 내 일찍이 기 귀주(奇貴州)⁵⁵에게 육비(陸飛)의 글씨와 그림이 공교함을 이야기하였더니, 기는,

“그쯤이야 아무 것도 아닌 별레입니다.”

한다. 이도 역시 항주풍을 두고 말함이다. 그들 북쪽 사람이 남쪽 선비를 미워함이 대체로 이러하였다.

최두기(崔杜機)성대(成大)의 〈이화암노승가(梨花菴老僧歌)〉에,

오왕이 연극 보다가 몽텅 상투 슬퍼했고 | 吳王看戲泣椎結

전수가 중이 되어 춘추 필법 위탁했네 | 錢變爲僧托麟筆

라 하였으니, 우리나라 선배들이 매양 중국 일에 대하여 풍문에 휩쓸려서 실적에 충실하지 못함이 일쑤이다.⁵⁶ 이에 이른바 오왕은 오삼계(吳三桂)를 말함이요, 전수는 전겸익(錢謙益)을 말함이다. 겸익이나 삼계가 모두 되놈에게 항복하여 머리털이 희도록 오래 살았으나 무료히 지나는 중에, 그 하나는 비록 의거(義舉)에 의탁하였으나 임금의 칭호가 벌써 참람하였고, 또 하나는 저서에 뜻을 붙였으나 대절이 이미 이지러졌으니, 비록 교활하게 후세의 공격을 회피하고자 한들 누가 믿어 주리요. 우리나라 상말에 대체로 사물(事物)에 어두운 것을 ‘몽롱춘추(朦朧春秋)’라 한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춘추를 이야기하기 좋아하나 몽롱하기가 이러한 종류와 같은 것이 많으니, 어찌 만인(滿人)들의 조소를 입지 않으리요.

송 휘종(宋徽宗)의 대관(大觀) 연간에 섭몽득(葉夢得)이 고려 사신의 관반(館伴)이 되었던니, 옛 규칙에 사신이 대궐 아래에 이른 지 달이 넘지 않아서 곧 돌려보내는 법이었는데, 휘종은 그로 하여금 전시(殿試) 신방(新榜)과 상지(上池) 상림원(上林

55 기 귀주(奇貴州) : 기풍액(奇豐額), 귀주는 그가 그 고을을 맡고 있었다.

56 최두기……일쑤이다 : 최두기는 멋모르고 변절한 오삼계가 상투를 보고 명(明)을 생각해서 울었다 하고, 또 전겸익이 청(淸)에 벼슬까지 한 것을 지사인 듯 칭찬하였는데, 이는 모두 ‘몽롱춘추’라는 것이다. 최두기는 조선 정조(正祖) 때 문학가로, 두기는 호요, 성대는 이름이며, 자는 사집(士集)이다.

苑)의 못)를 구경시키려고 하여, 드디어 거의 70일을 머물게 되었다. 사신이 자못 몸가짐을 삼가고 행동이 아담하였으므로 섭(葉)이 그를 전송하려 점운관(占雲館)까지 이르러서 하직하였더니, 그의 부사(副使) 한교여(韓皦如)가 섭에게 옥대(玉帶)를 주면서,

“이것은 애초에 당(唐)의 고물이었으며, 우리 선조부터 대대로 보배로 삼았던 거요.”

하고는, 또 스스로 홀(笏) 위에다가 시 한 수를 써서 주었다.

눈물이 그렇그렁 이별이 장차로다 | 泣涕汎瀾欲別離

이 몸이 한 번 가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 此生无復再來期

다만 보배 띠로 깊은 뜻을 베풀노니 | 謾將寶帶陳深意

이 물건 볼 때마다 이 사람을 잊지 마오 | 莫忘思人見物時

라 하였으나, 섭은 고려 사신의 옛 일에 물건을 끌어서 기증하는 예가 없었으므로 굳이 사양하고는 다만 그 시가 비록 박졸(朴拙)하긴 하나, 가히 그의 건전한 뜻은 짐작할 수 있겠다고 칭찬하였다 한다.

옹정(雍正) 초년에 직사(敕使) 서산(書山)이 부벽루(浮碧樓)에 시를 썼으며,

풍물은 아름다워 옛적과 같건마는 | 風物獨依舊

산천은 어찌하여 부끄럼을 띠었는고 | 山河猶帶羞

하였으니, 서산은 만인(滿人)인데도 불구하고 별안간 한(漢)을 생각하는 말을 지음은 무슨 까닭일까.

얼마 전에 상선(商船)이 바람을 만나서 웅진(甕津)에 닿았는데, 배 가운데에는 시에 능통한 자가 있어서 올시 한 편으로 수사(水使)에게 올렸으니,

고국에 누구 있어 변한 음률 슬퍼하랴 | 故國誰憐鍾簫變

타향에 이 몸이란 성명이 부끄럽소 | 殊方還愧姓名通

천고에 주의⁵⁷ 있어 신정에 빚은 눈물 | 千秋周顥新亭淚

바다에 뿌려본들 마를 줄이 있으랴 | 空灑滄溟水不窮

하였더니, 그 전편(全篇)을 얻어 보지 못함이 유감이라니와 그의 성명도 전하지 않

57 주의(周顥) : 진(晉)의 지사(志士). 자는 백인(伯仁). 신정에서 고국이 망하였음을 슬퍼하였다.

음이 한스러울 뿐이다.

《석림시화(石林詩話)》 섭몽득(葉蒙得) 저(著)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다.

“고려가 태종조(太宗朝)로부터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더니, 원풍(元豐) 초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매 신종(神宗)이 장성일(張誠一)을 관반(館伴)으로 삼고는, 그에게 다시 조회하는 뜻을 물었더니, 그는 답하기를,

‘우리나라가 거란과 더불어 이웃이 되었더니 그들의 주구(誅求)에 견디지 못한 국왕(國王) 왕휘(王徽)문종(文宗)의 휘 는 늘 《화엄경(華嚴經)》을 외어 중국이 재생하기를 빌었는데, 하룻저녁 꿈에 별안간 이 경사에 몸이 이르러서 성읍과 궁실의 번영함을 살살이 구경하고 꿈을 깨자, 이곳을 연모하여 즉시로 시를 읊으셨는데,

악한 인연 어이하여 거란에게 이웃되어 | 惡業因緣近契丹

한 해에 바친 공물 몇 가지나 괴롭혔네 | 一年朝貢幾多般

이 몸에 날개 걸쳐 먼 중국에 왔건마는 | 移身忽到中華裏

애달파라 깊은 대궐 누수 소리 날 새려네 | 可惜深宮滴漏殘

라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전수지(錢受之 전겸익(錢謙益), 수지는 자)의 이른바,

나라 안에 창이 없이 한 사람만 앉아 있네⁵⁸ | 國內无戈坐一人

는 김모재(金慕齋)⁵⁹가 지은 시인데 그의 본집(本集 《모재집(慕齋集)》)에 실려 있다. 수지가 《황화집(皇華集 화찰 저)》에 발(跋)을 달 때에 이 시를 들어서 조롱하였다. 그러나 그 실상은 화홍산(華鴻山)⁶⁰찰(察)이 조서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비로소 작용(作俑)한 것이다. 예를 들면,

넓디넓은 이 들판엔 가이 없는 물이요 | 廣野無邊水

기나긴 저 하늘엔 기러기 한 점뿐일러라 | 長天一點鴻

라는 따위가 곧 그것이다. 이는 야(野) 자는 넓게 쓰고, 천(天) 자는 길게 쓰며, 수(水) 자는 그 편방(偏傍)을 떼어서 무변(無邊)이 되고, 홍(鴻) 자는 비점(批點)을 처

58 나라……있네 : 국(國)자 속에 과(戈) 자를 떼고 일(一) 자와 인(人) 자를 더 넣은 듯하나 무슨 글자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다.

59 김모재(金慕齋) : 조선 때 유학자 김안국(金安國)의 호, 자는 국경(國卿).

60 화홍산(華鴻山) 찰(察) : 명(明)의 관리이면서 문학가. 홍산은 호요, 찰은 이름이며, 자는 자잠(子潛).

서 한 점(點)이 된다. 이를 일러서 두 글자의 뜻을 포함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배신(陪臣)이 원접사(遠接使)로서 용만(龍灣)에 가자면 반드시 사학(詞學)에 능통한 선비를 묘선(妙選)하여 종사(從事)를 삼아서 별안간 나타나는 응수(應酬)에 대비하였으며, 조사(詔使)는 역시 도중에서 으레 이러한 문제를 구상하여 두는 법이다. 이는 접반(接伴)을 곤란하게 하기 위함이다. 당시의 접반을 맡은 이들도 또한 반드시 이러한 문제를 미리 연습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이 드디어 한 예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를 기뻐서 함은 아니거늘, 수지가 홍산을 위하여 이 《황화집》에 발을 쓸 때에 그 실상(實狀)은 모두 없애 버리고는 다만 우리나라 사람의 한 글귀를 뽑아내어 웃음거리를 삼았을뿐더러 또 그들과 함께 창수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동국(東國) 인사의 마음을 후련하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일찍이 이 일을 들어서 유식한(俞式韓)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식한은 곧 이를 적어서 품속에 간직하되 마치 귀중한 보물을 얻은 듯이 기뻐하였다.

최간이(崔簡易)⁶¹의 〈삼일포시(三日浦詩)〉에,

갠 봉우리 서른 여섯 조개인 양 나비 눈썹 | 晴峰六六斂螺蛾

흰 해오라기 쌍을 지어 맑은 물결 희롱할 제 | 白鳥雙雙弄鏡波

사흘을 바장이곤⁶² 남은 다시 못 오시니 | 三日仙遊猶不再

십주 아름다운 곳이 많은 줄을 알았노라 | 十洲佳處始知多

라 하였다. 내 일찍이 사선정(四仙亭)에 올랐더니 심백수(沈伯修)⁶³가 이 시를 새겨서 정자 위에 걸었으나 이는 결코 가작은 아니다.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간이(簡易)가 왕감주(王弼州)⁶⁴를 만나러 갔더니⁶⁵ 그는 공무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서 수십 명의 서리(書吏)가 번차례로 문서를 아뢰는데, 감주는 교의에 기대고

61 최간이(崔簡易) : 조선 선조(宣祖) 때의 문학가 최립(崔立). 간이는 호요, 자는 입지(立之).

62 사흘을 바장이곤 : 국선(國仙) 영랑(永郎) · 술랑(述郎) · 안상(安詳) · 남석(南石) 네 사람이 사흘을 놀았다 해서 삼일포라는 이름을 얻었다.

63 심백수(沈伯修) : 조선 영조(英祖) 때 관리이며, 문학가인 심엄조(沈念祖). 백수는 자.

64 왕감주(王弼州) : 명의 문학가 왕세정(王世貞). 감주는 호.

65 만나러 갔더니 : 최립은 일찍이 이정귀(李廷龜)의 사행을 따라서 명에 갔다.

앉아 파리채를 휘두르면서 좌수우응(左酬右應)하되, 결재가 몹시 빠르매 못 사람들의 붓이 일제히 움직여서, 잠깐 사이에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고 또 10여 명의 청년이 각기 그들의 과작(課作)한 시(詩)와 문(文), 또는 소품(小品)·서종(書種) 등을 바치면 감주는 곧 붉은 먹으로써 비점(批點)을 치며 빨리 넘기는 손에는 붓이 멈춰 지지 않았다. 간이는 이를 보고 크게 경복(驚服)하여 시자(侍者)더러, ‘노야께서는 전에도 늘 저러시고 계셨던가.’ 하고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오늘은 마침 자리가 조용하여 조금 한가하신 편입니다. 노야께서는 전일에 벌써 시 1만 수(首)를 읊었으며 글 천 권을 지으셨답니다.’ 한다. 간이는 한참 잠자코 풀이 죽어 소매 속에 간직하였던 자기의 글을 내어서 가르침을 청하였더니 감주는, ‘글짓기에 뜻을 둔 분임은 알 수 있겠으나 다만 글 읽은 게 많지 못하고 문견이 넓지 못하니, 이제 돌아가서 창려(昌黎)의 글 중에서 <획린해(獲麟解)>⁶⁶를 5백 번만 읽고 나면 마땅히 글 짓는 혜경(蹊徑)을 알 것이오.’ 하였다. 간이가 크게 부끄럽고 한스러워서 감주를 만났던 일을 깊이 숨기고는 글 쓸 때에 일부러 뒤튼린 버릇으로 기괴한 글을 썼으니, 이는 이우린(李于鱗 명(明) 문학가 이반룡(李攀龍). 우린은 자)에게 배운 것이라 하였다. 우린은 원래 감주를 가장 두려워하는 바이므로 이것으로써 그를 한번 누르려던 것이다.”

허균(許筠)⁶⁷이 주 태사(朱太史)⁶⁸ 지번(之蕃)을 접대할 때에 주(朱)에게,
“일찍이 감주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까.”

하고 물었더니, 주는,

“일찍이 계사년(1593년) 봄에 태창(太蒼 강소성에 있는 지명)에 가서 감주에게 배움을 청하였더니, 감주는 그때에 남사구(南司寇)로서 치사(致仕)하였는데 얼굴은 중인(中人)에 비하여 지나침이 없으나, 눈빛이 별 같고 서재를 화원(花園)에 쌓고 문도를 모아서 술 마시며 시를 읊는데, 감주는 날마다 5·6말의 술을 마셔도 취하

66 획린해(獲麟解) : 불과 2백 자도 차지 않는 단편이지만은 논리의 정연함과 조직의 체계로 보아서 전형적인 고문장의 궤범이 된다.

67 허균(許筠) : 조선 광해군(光海君) 때의 저명한 문학가·사상가. 자는 단보(端甫).

68 주태사(朱太史) 지번(之蕃) : 명의 정치가요, 문학가. 자는 원개(元介) 또는 원승(元升).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던 일이 있다.

지 않고, 누구라도 시문(詩文)을 청하는 이가 있으면 시비(侍婢)로 하여금 음악으로 아뢰게 하면서 먹을 갈며 종이를 펴는 것이 마치 풍운과 귀신이 이는 듯이 빠릅니다.”

한다. 그는 또,

“그러면 감주도 누구를 두려워하는 이가 있단가요.”

한즉, 주는,

“공이 평생에 두려워하고 심복하는 이는 오직 창명(滄溟 이반룡의 호) 한 분이 있을 뿐이니, 그는 매양 글귀를 생각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이우린(李于麟)의 <진관시(秦關詩)>에,

푸른 용이 멀리 걸리니 진천에 비 내리고 | 蒼龍遠掛秦天雨

돌 말이 길이 우니 한원에는 바람 이네 | 石馬長嘶漢苑風

를 높은 목소리로 읊었으니 그는 어찌 두려운 이가 없으리요.”

하고 답하였다.

심분(沈汾 남당(南唐) 때의 문학가)의 《속신선전(續神仙傳)》에 이르기를,

“신라(新羅)의 빈공(賓貢)⁶⁹ 진사(進士) 김가기(金可紀 신라 때의 문학가)가 신선이 되었다.”

고 하였는데, 장효표(章孝標)의 <송김가기귀신라(送金可紀歸新羅)>라는 시에,

당나라에 과거 하여 말소리도 닮았더니 | 登唐科第語唐音

해돋이를 바라보곤 고국 생각 간절하다네 | 望日初生憶故林

일엽편주 바람 일 제 고래 등에 나는 듯이 | 風高一葉飛魚背

맑은 호수 그 가운데 삼산이 솟아나네 | 湖淨三山出海心

라 하였으니, 김가기가 본국(本國)으로 돌아온 것은 명확한 일이다. 그런데 《속신선전》에는,

“가기가 종남산(終南山) 자오곡(子午谷)에 살고 있더니, 그 뒤 3년 만에 뱃길로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와서 도복(道服)을 입고 종남산에 들어가 음덕(陰德)을 힘써 행하더니, 당(唐)의 대중(大中) 11년(857년) 12월에 별안간 표문(表文)을 올리기

69 빈공(賓貢) : 당(唐)에 외국 학생을 받기 위해 설치한 학과(學科), 곧 빈공과.

를, ‘신(臣)이 옥황(玉皇)님의 조서를 받자와 명년 2월 25일에 마땅히 하늘에 오르겠나이다.’라고 하였다. 선종(宣宗)이 이를 이상히 여겨서 궁녀(宮女) 네 명과 향악(香樂)과 금채(金綵)를 하사하고, 또 중사(中使) 두 사람을 보내어 가까이 모시게 하였더니, 그날에 이르러 과연 채색 구름과 난새·학새와 저·통소와 금·석과 깃 일산과 깃발이 공중에 가득하더니, 그는 학을 타고 승천하였다. 조사(朝士)나 서민(庶民)을 나눌 것 없이 구경하는 이가 산골짜기에 모여서 누구든지 우러러 절하며 이상하게 여기지 않은 이가 없었다.”

하였고, 한무외(韓無畏)⁷⁰의 《전도록(傳道錄)》에는, 또, “김가기가 최승우(崔承祐)⁷¹와 중 자혜(慈惠)와 더불어 신원지(申元之)를 좇아서 도술(道術)을 배우더니, 종리 장군(鍾離將軍)⁷²과 지선(地仙) 2백의 무리를 만났다.”고 일렀으나, 이는 아마 부회(傳會)한 이야기인 듯싶다.

나의 벗 나걸(羅杰) 중흥(仲興 나걸의 자)은 글 잘하고 괴걸(魁傑)한 선비이다. 그는 역리(易理)에 깊고 평생에 종(鍾 조위(曹魏) 때의 서예가 종요(鍾繇)·왕(王 왕희지(王羲之))의 서법(書法)을 사랑하여 휴지 한 장이나 편지 한 쪽을 얻게 되면, 언뜻 종이 뒷장에 예학명(瘞鶴銘)⁷³ 두어 글자를 쓰다가 때로는 종이가 부족하여 점이나 획을 마음껏 쓰지 못할 경우에는 붓을 움직여 종이 밖에까지 뻗어서, 앉은 자리가 모두 검게 하는 까닭에 만일 문밖에 중흥의 나막신 소리가 나면 반드시 먼저 연구(硯具)를 감춘 뒤에 나가서 맞이하고, 중흥이 방에 들어오자 반드시 먼저 좌우(左右)를 살펴서 종이와 붓을 찾아도 눈앞에 띄이지 않은 연후에야 비로소 인사를 교환하게 된다. 그의 진솔함이 이와 같았다.

지난 병신년(1776년) 동짓달에 그는 신 서장(申書狀) 사운(思運)⁷⁴을 따라서 연경(燕京)에 들어갔으니, 그때의 정사(正使)도 곧 금성위(錦城尉)로서 선비에 대한 대

70 한무외(韓無畏) : 조선 선조(宣祖) 때 신선이 되었다는데 방술에 저명하였다.

71 최승우(崔承祐) : 신라 진성왕(眞聖王) 때 문학가. 일찍이 당에 유학하였다.

72 종리 장군(鍾離將軍) : 한 고조(漢高祖) 때 장군 종리매(鍾離昧). 한신(韓信)을 위해서 자살하였다.

73 예학명(瘞鶴銘) : 육조(六朝) 때 양(梁)의 은사 도홍경(陶弘景)이 초산(焦山) 석벽 위에 지어 새긴 글의 탐본(搨本).

74 사운(思運) : 자는 형중(亨仲). 어떤 본에는 ‘사운(思運)’이란 두 글자는 소주로 되어있다.

우가 높아서, 그에게 아무런 검속을 가하지 않고 부채와 환약을 공급하기도 하려니와, 자주 역관에게 타일러서 그의 통행을 편리하게 하였으나 중흥의 천성이 몹시 진솔하므로 이르는 곳마다 저지를 당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마음껏 유람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중국의 이름 높은 선비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였다 한다. 그가 연경 길을 떠날 때에 내가 송도(松都)까지 전송하였다. 그가 돌아오자 중국의 제도를 모방하여 태평차(太平車) 한 대를 만들어서 그의 처자를 태우고는 적상산(赤裳山 전북 무주(茂州)에 있다) 속으로 들어간 지 이제 벌써 4년이 되어도 보이지 않는다. 이내 내가 이 길을 떠날 때에 상자 속에 두었던 친구들의 서찰과 시문을 찾아서 다시 간직하려다가 중흥이 옛날에 쓴 시를 발견하였는데 행초(行草)로 쓴 것이 자못 찬란하였다. 곧 행탁(行囊)에 집어넣었던 것을 이에 기 귀주(奇貴州)에게 내어 보였더니 기는,

“창건하고도 침울하며 그의 격력(格力)은 흡사 노두(老杜 두보를 높인 말)와 같아.”

하고는 크게 칭상(稱賞)하였다. 그의 <우성(偶成)>에,
 산 사립문 비었는데 옷갓을 다 버리고 | 山扉寥廓棄冠巾
 이 몸이 늙어갈수록 한가한 일뿐이라네 | 老去漸能幽事親
 빈 뜰에 홀로 앉으니 햇빛만 고요코야 | 階除留對日華靜
 공중에 지나는 구름 한 조각 또 한 조각 | 空外翻過雲片新
 꾀꼬리 어디서 오자 푸른 숲에 울어 있고 | 黃鳥忽來啼綠樹
 아롱진 꽃 수없이 청춘을 수놓는다 | 斑花無數度青春
 어느 것 한 물건이 내 뜻을 새오리요 | 知无一物違吾意
 하느님 길러 주시는 그 은덕을 저버리랴 | 不負皇天長育辰
 하늘가의 금서산은 산 밖에 또 산이고 | 天外錦西山復山
 요즈음 집을 지니 한가함이 늘상이라 | 近來卜宅不離閑
 외로운 봉우리 갠 바위 공중에 비졌구나 | 孤峰峭石依空翠
 벼랑 길 깊숙한 꽃 점점이 아롱졌네 | 側徑幽花點細斑
 나는 새도 조심스레 비 맞은 채 지나가고 | 鳥避譙檐沾雨過

꿀벌은 너도 나도 꽃향기로 배불리네 | 蜂窺爭占飮香還
 흥겨운 그날 그날 청려장을 짊고 일어 | 興長日日扶黎杖
 보고 읊고 읊고 보니 객의 시름 사라지네 | 一望一吟開旅顏
 흑치 장군(백제의 장군 흑치상지(黑齒常之)) 전장터서 그 동쪽에 자리 잡아 | 戰經
 黑齒郡之東
 타향살이 몇 해런고 일일마다 다 잘 아네 | 久住殊方事盡通
 깊은 산 새벽 구름 골짜기에 잠겨 있고 | 峽曉雲移幽洞翠
 시냇가 저녁놀은 옛 성에 붉었구나 | 澗曛日隱古城紅
 늦게 일고 일찍 잠도 멋대로 하려니와 | 晚興早寢從他好
 짧은 노래 긴 읊음이 그 맛이 무궁하구나 | 短詠長吟不自窮
 다만 지체하여 흥취마저 없다 하면 | 若道淹留無逸興
 나그네 이 시름을 어느 때나 씻으리요 | 何時得豁旅愁空
 라고 하였고, 또 그의 <불매(不寐)>에는,
 밤 들어 산 구름은 보암직도 한져이고 | 入夜喜看連峽雲
 먼 허공에 붉은 빛이 어지러이 떠오르네 | 遙空漸改赤紛紛
 처마를 향해 앉자 새 소리도 고요하곤 | 對簷獨坐息喧雀
 베개 괴고 잠깐 졸매 모기들이 모여드네 | 支枕乍眠還聚蚊
 산 나무 시냇 모래 부질없이 헤어 볼까 | 峰樹溪沙漫欲數
 남기성과 북두성은 저절로 무늬로다 | 南箕北斗自成文
 시름이 병이 된들 무엇이 해로우랴 | 未憐愁劇添新病
 아름다운 시를 낳아 비단에 수놓은 듯 | 剩得詩如刺繡紋
 이라 하였고, 또 <오침(午枕)>에는,
 낮 졸음에 잠겼더니 날씨가 찌는 듯이 | 昏昏午睡困炎蒸
 모든 일에 게을러서 하는 수가 없구나 | 萬事疎慵著不能
 책권을 펴 두니 엿보는 건 재미이고 | 未卷牀書窺紫燕
 벼루에 먹물 고여 파리를 배불리네 | 常餘硯墨飽青蠅
 길 지나던 손님들이 부질없이 찾아오곤 | 客過小徑虛相問

발 이랑이 거치니 아내마저 밍구나 | 妻對荒畦久欲憎
 맑은 빛이 별안간에 달돋이를 보고서는 | 忽得清光看月出
 붉은 해가 솟는가봐 그릇되이 의심코녀 | 錯疑赫日碾空昇
 라고 하였다.

귀주(貴州)는 이에 대하여 비평하되,

“실로 명구(名句)가 많긴 하나 이따금 음률에 맞지 않은 것이 있다.”

하니, 이는 대개 우리나라 음운(音韻)이 중국의 것과 같지 않으므로 가끔 음률에 어긋남이 있었던 것이다.

박충(朴充)과 김이어(金夷魚)는 모두 신라(新羅) 사람으로서 당(唐)에 들어가 빈공(賓貢) 진사(進士)에 합격하였다. 당 장교(張喬 당(唐) 소정 때의 문학가)의 <송김 이어봉사귀본국(送金夷魚奉使歸本國)>이라는 시(詩)에,

바다를 건너와서 선적(빈공과의 학적(學籍))에 올랐더니 | 渡海登仙籍
 고향에 돌아갈 쯤 한의(중국의 문물(文物))를 갖추었네 | 還家備漢儀
 라 하였고, 장교는 또 <송박충시어귀해동(送朴充侍御歸海東)>이라는 시에,

하늘가에 떠난 지 이제 벌써 스물 네 해 | 天涯離二紀

대궐에 드나들어 세 임금을 섬겼구나 | 闕下歷三朝

라고 하였더니, 중국의 인사들이 나와 처음 만날 때에 반드시 먼저 항해(航海)의 노정과 어느 곳에서 상륙하였는가를 묻기에, 나는 줄곧 육로를 따라 요동으로부터 산해관을 들어 연경에 닿았다고 답하면 그들은 혹시 믿지 않은 이가 있어서,

바다에 건너와서 선적에 올랐더니 | 渡海登仙籍

라는 글귀를 외어 고증(考證)을 삼으니, 이는 우리나라가 저 먼 바다 밖에 있는 유구(琉球)나 구라(毘羅 구라파)와 같은 나라인 줄로 아는 모양인즉 중국 사람들이 가끔 무식하기가 이와 같았다.

이무관(李愬官)이 묵장(墨莊)을 찾았을 때에 반추루(潘秋樓)에게 시를 청했더니, 묵장은 한림서길사(韓林庶吉士) 이정원(李晶元)이니 촉(蜀)의 금주(錦州) 사람이요, 추루는 반정균의 호이다. 반(潘)은,

“내 앞날에 시를 쓸 때 제법 생각을 허비하여 몹시 곤작(困作)이었기 때문에 시가

많지 못함을 한했더니, 요즈음 운철소(惲鐵簫 청(淸)의 문학가)의 한류(寒柳)를 읊은 책자(冊子)를 읽은즉, 왕추사(王秋史 청(淸) 문학가 왕평(王苹). 추사는 자)가 그 뒤에다 네 편의 시를 썼으며, 이 버들은 곧 명(明)은 상국(殷相國 미상)의 통악원(通樂園) 옛 나무였기에 느낌이 있어서 읊되,

서러운 이내 심사 화공에다 얘기할까 | 愁心都付畫工論
 애처로운 긴 가지가 깃마율이 꿈에 드네 | 淒絕長條夢水邨
 바다 한 편 묵은 정자 명사들은 흩어지고 | 海右亭荒名士散
 하늘가 지는 잎은 옛 동산만 남았다네 | 天涯木落廢園存
 반만 남은 지새는 달 봄 두고 이별할 제 | 半規殘月春留別
 석양 빛 어제대로 저녁 녀을 거두었네 | 一例斜陽暮斂魂
 예순 해를 읽어 오던 곱게 꾸민 그 책들을 | 六十年來看粉本
 먹 향기 종이 빛깔 티끌 속에 침침할 뿐 | 墨香靨色又塵昏
 그 둘째는,

슬슬 동풍 고루 불어 씻어 간 곳 새로운데 | 看遍東風宰地新
 잠긴 가지 나는 가지 모두가 정이 얹혀 | 蘸波吹絮摠情塵
 푸른 잎 매미 울던 그곳이 그리웁고 | 可憐碧葉吟蟬地
 붉은 난간 말 매딘 이 찾을 길 전혀 없네 | 不見紅欄係馬人
 낡은 다락 그림자에 늙은 두보 슬피했고 | 衰影驛樓傷老杜
 시름 어린 이 마음에 털보 그대 추억되오 | 離悰門巷憶髯秦
 자주(自注) : 진관사(秦關詞)에 이르기를, “꽃 밑에는 거둬 문이요, 버들 가에는 깊은 마을이다.”라고 하였다.

작화산 저 기슭에 우뚝 섰는 가지 밖에 | 鵲華山麓髯枝外
 맑은 호수 가에 앉아 수건 씻는 이만 뵈네 | 只有明湖冷濯巾
 그 셋째는,

화가나 시인들이 한꺼번에 사라졌고 | 畫人吟子一時稀
 아름다리 푸른 숲도 영성해진 옛 성일네 | 減盡金城翠十圍
 언덕 기슭 누운 가지 저문 눈 속 비껴 섰고 | 緣岸臥枝歇暮雪

어둔 빛이 스민 다락 겨울 해를 띠었구나 | 入樓暝色帶冬暉
 떨어진 잎 숨 죽인 채 소리도 적거니와 | 靜中黃葉無多響
 아득한 까치마저 두어 점이 날아가네 | 遠處昏鴉數點歸
 오히려 진흙 젖은 부질없는 한이 있어 | 猶有沾泥閒恨在
 다시금 봄이 온단들 한목 날지나 말아다오(버들꽃을 말한다) | 逢春莫更作團飛
 그 넷째는,
 칠십천⁷⁵ 소리소리 돌 절구질 하는 듯이 | 七十泉聲亂石春
 초라한 두 나무에 들 서리 자욱하네 | 兩株憔悴野霜濃
 전조에 세운 누대 모래톱이 남아 있고 | 前朝臺榭沙痕在
 늙을 무렵 변방살이 숲 그늘이 층층코녀 | 晚歲關河樹影重
 우연히 선비 위해 푸른 눈을 지어보나 | 偶爲士流青眼放
 흡사 기생처럼 흰 머리로 서로 만나 | 恰如女妓白頭逢
 오동꽃 떨어지곤 산 생강이 늙다 한들 | 桐花零落山薑老
 왕랑의 아름다운 얼굴⁷⁶ 뉘라서 알아볼까나 | 誰識王郎濯濯容
 라고 하였습니다.”

한다. 이에서도 한인(漢人)들이 접하는 것마다 감흥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것을 형산(亨山) 제공(諸公)에게 보였더니, 모두 슬픈 빛으로 눈물을 뿌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남약천(南藥泉) 구만(九萬)⁷⁷이 어사(御史)로 순행하다 성주(星州)에 이르러서, 밤
 에 본 고을의 선생안(先生案)⁷⁸을 열람하다가,

“제말(諸沫)은 만력(萬曆) 계사(1593년) 정월 아무 날에 도임(到任)하여 4월 아무

75 칠십천 : 왕추사가 살고 있던 성수천(聖水泉)은 원(元)의 우흥(于欽)이 품정(品定)한 72 천(泉) 중의 24 천이었으므로, 그는 《이십사 천초당집(二十四泉草堂集)》이 있었다.

76 왕랑의……얼굴 : 진(晉)의 왕공(王恭)의 얼굴이 아름다우므로 사람들이 탁탁한 봄 버들이라 하였다. 여기서는 왕추사가 서로 견준 것이다.

77 남약천 구만(九萬) : 조선 숙종(肅宗) 때 문학가며 정치가. 약천은 호요, 구만은 이름이며, 자는 운로(雲路).

78 선생안(先生案) : 그 고을 장관을 지낸 이의 성명과 약력을 기록한 책.

날에 파귀(罷歸)하였다.”

라는 말을 발견하고, 그는 우리나라에 제(諸)의 성(姓)을 지닌 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기에, 자못 괴이하게 여겨서 윤형성(尹衡聖)⁷⁹에게 물었더니, 윤(尹)은, “중국 강(江)·절(浙) 사이에 제씨(諸氏)가 살고 있으니, 제말의 조상은 아마 중국으로부터 나왔을 것이며, 임진왜란 때에 제말이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쳐서 그가 향하는 곳마다 승리하니, 이름이 곽재우(郭再祐)⁸⁰와 같이 높았다오.”

라고 답하였다 한다. 이 일은 《약천집(藥泉集 남구만의 시문집)》 중에 실려 있다. 약천과 같은 박식으로도 오히려 백 년 이내인 제말의 사적을 알지 못하였는즉, 그가 미천한 계층의 출신인 줄도 짐작할 수 있겠다. 그는 비록 공을 세움이 이렇다 했더라도 이름이 그만 묻혔으니, 어찌 그 억울함이 원혼이 되지 않았겠는가.

성주에 살고 있던 정석유(鄭錫儒)가 급제(及第)에 오르기 전에, 본 고을의 자제들과 함께 공령(功令 과체(科體)의 시문(詩文)을 짓느라고 동헌(東軒)에 유숙하니, 그 집 뒤에는 매죽당(梅竹堂)이 있고 당 앞에는 지이현(支頤軒)이 있었다. 하루는 정(鄭)이 지이현 속에서 홀로 거니는데 때마침 달이 몹시 밝았다. 별안간, 검은 사모(紗帽)를 쓰고 붉은 도포(道袍) 입은 이가 대밭 속으로부터 나오더니 수염을 쓰다듬으며,

“나는 이 고을 옛 목사(牧使) 제말이다. 나는 본시 고성현(固城縣)에 살던 백성으로 임진의 난을 당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왜적을 쳤으며, 조정(朝廷)에서 특히 성주 목사(星州牧使)를 제수(陟授)하였다. 저 웅해(熊海)·작영(斫營)·정진(鼎津)⁸¹ 등지에서 왜적을 맞으면 깨뜨리지 못한 적이 없었으나, 당시의 격문(檄文)이 없어지고 역사가 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때 정기룡(鄭起龍) 같은 여러 사람은 모두 나의 비장(裨將)이었다.”

하고는, 이내 허리에 찼던 보검(寶劍)을 뽑으면서,

“이 칼로써 일찍이 왜장(倭將) 몇 놈을 베었다.”

79 윤형성(尹衡聖) : 조선 숙종 때의 학자. 자는 경임(景任). 당시의 진주 목사(晉州牧使).

80 곽재우(郭再祐) : 조선 선조(宣祖) 때 저명한 장수. 자는 계수(季綬)요, 호는 망우당(忘憂堂). 홍의장군(紅衣將軍)이라 일컬었다.

81 웅해……정진(鼎津) : 모두 경상도에 있는 작은 지명들이다.

한다. 그는 이마 위에 불꽃이 펴 펴 이는 듯하고 성기고 뻗뻗한 수염이 움직이면서
시를 읊었다.

머나먼 산 길에선 구름과 함께 예고 | 山長雲共去

높디높은 하늘에는 달과 함께 외롭네 | 天迴月同孤

그는 또 말하기를,

“나의 무덤은 칠원(漆原 경남 창원)에 있으나, 자손이 없어서 이제껏 묵고 있다.”

하고는, 표연히 읊하고 물러가서 다시 대숲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 날이 밝은 뒤에
함께 그 일을 이야기한즉, 그들도 평일에 비록 선생안(先生案)에 제말이라는 이가
있었으나, 성(姓)도 쓰여 있지 않았음을 의심하였을 뿐, 그의 공렬(功烈)이 이렇게
가득함을 알지 못하였다가, 이제 별안간 알게 되어 감탄하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
는 이가 없었다. 감사(監司) 정익하(鄭益河)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석유를 불러 상
세히 물은 뒤에 바야흐로 장계(狀啓)를 올려 조정에 알리려 하였으나, 마침 벼슬이
갈렸으므로 여의치 못하고, 다만 칠원에 통첩하여 그의 무덤을 수축하고 묘지기
두 호(戶)를 두어 지키게 하였는데, 칠원의 원으로 있던 어사직(魚史迪)이 낮에 졸
다가 꿈에 한 관인(官人)이 와서 말하기를,

“나의 무덤은 이 동헌에서 몇 리쯤 되는 아무 마을 아무 좌향(坐向)에 있다. 감사가
마땅히 무덤을 수리하라 명령하실 테니, 그대는 유의할지어다.”

한다. 꿈을 깨자 이상히 여겼더니, 그날 저녁에 통첩이 이르렀으므로 어사직이 드
디어 그 무덤을 크게 수리하였다 한다. 제말은 실로 시골뜨기여서 살아 있을 때는
글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이런 가득한 공적이 있었다 해도 스스로 나타내지
못하고 본즉, 죽어서 그 억울한 영혼이 맺히어 흩어지지 않음이 이와 같을 뿐더러,
그는 또 능히 시를 읊을 줄 알았다 하였으니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신 평사(辛評事) 경연(慶衍)이 나이 열두 살에 배천(白川)에서 서울로 올라갈 제,
길에서 명(明)의 조사(詔使)를 만났다. 때마침 역놈이 신(辛)이 탔던 말을 빼앗았으
므로 그는 사정이 몹시 궁박하였다. 그는 도보로 조사의 점심참에 닿아 하소연하
였더니, 조사는 그의 얼굴이 백옥처럼 맑음을 보고 사랑하여, 길가에 서 있는 장승
(長丞)을 가리키면서,

“그대 능히 이를 두고 시를 읊는다면 마땅히 말을 주리라.”

하여, 신이 운자(韻字)를 청하니, 조사가 운자를 내어 주었다. 신은 곧 대답하기를,

초 패왕(항적(項籍))의 혼령인 양 천추에 남아 있네 | 楚伯千秋尚有靈

오강을 건널 체면 없어 형체만 남았구나 | 渡江无面只存形

당년에 한스러운 일은 음릉 길을 잃은 것이⁸² | 當年恨失陰陵道

언제나 길에 서서 앞잡이 노릇 하렵니다 | 長向行人指去程

하매, 조사가 크게 놀라서 탄식하여 칭상하고 문방(文房)의 여러 보물을 주었다 한다. 이 글이 무명씨(無名氏)의 작으로 《명시선(明詩選 명(明) 이반룡(李攀龍) 지)》에 실렸으며, 그는 광해(光海) 때 과거에 올라서 벼슬이 평안도(平安道) 병마(兵馬) 평사에 이르렀을 때에, 서쪽 변세에 일이 있어서 청천강(淸川江)을 아홉 번 건넜으며 이내 관에서 죽었는데, 그의 혼령이 여러 번 나타났다. 그 뒤 수십 년에 그의 벗 아무개가 그를 관서(關西) 도중에서 만났는데, 그는 친구의 자를 부르며 옛 일을 이야기함이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 벗에게 부탁하기를,

“나의 자손이 심히 가난한데 유물이 있는 것을 미처 전하지 못했네. 보도(寶刀)와 옥관자 한 쌍이 우리집 들보 위에 얹혀 있어도 집 권속들이 아무도 아는 이가 없으니 그대는 부디 이 말을 전해 주소. 이 두 가지 물건을 판다면 많은 값을 받을 것이네.”

하매, 그의 벗은 크게 이상히 여겨 돌아오자 곧 그 자손에게 이야기하여 함께 그 집을 들춰서, 마침내 보도와 옥관자를 발견하였다 한다. 우리나라에서 길 위에다가 매 10리 5리 마다 나무로 장군과 같이 깎은 등선을 세우고 지명과 이정을 기록하여 두는데, 이를 보통 ‘장승’이라고 부른다. 그것이 중국의 장정(長亭)·단정(短亭)과 같으므로, 우리나라 시민들은 흔히들 장정을 빌려 쓰면서 혹은 중국의 이정표도 우리나라 장승과 같은 줄만 알고, 또는 장정을 정장(亭長)으로 잘못 알기도 하니 심히 고루한 일이다. 내가 중국에 들어와 보니, 길에는 장정표를 세우고 아

82 음릉……것이 : 항적이 한 고조(漢高祖)와 싸우다가 해성(海城)에서 패하여 음릉으로 도망할 때, 어떤 노부의 말을 들어 길을 잃었고, 오강에 이르러서는 강동(江東) 사람들을 대하기 부끄러워 자살하였다.

무 땅이라 쓰고는, 그 좌우에는 단정표를 세우며, 동으로 아무 데까지가 몇 리요, 서로 아무 데까지가 몇 리라고 써 있었다. 이제 열하에 오는데 장정 밖에는 장정에 흔히들 신(汛) 자를 썼는데 무엇을 말한 것인지를 모르겠다.

신장(辛丈) 돈복(敦復)씨가 일찍이 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중종(中宗) 때 남주(南越) 조선 때 학자. 자는 계응(季應)가 열아홉 살에 급제(及第)하여 문형(文衡) 대제학(大提學)의 천에 올랐으며 벼슬이 전직(典職)에 이르렀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일이 많았다. 매일 아침 글방 선생에게 글을 배우는데 결석할 때가 많으므로 집안 사람들이 가만히 그의 뒤를 밟으족, 도중에 지레 어떤 숲 속으로 들어갔다. 한 정사(精舍)가 있는데 주인의 행동이 맑고 흰하여 속기(俗氣)가 없었다. 주가 그의 앞에 절하고 나아가서 글을 강론받고 반드시 해가 저문 뒤에야 돌아오곤 하였다. 집 사람들이 물으면 문득 괴변으로 대답하더니, 그 뒤 신선의 수련술(修鍊術)을 행하였고 그가 급제하자, 기묘사화(己卯士禍)를 만나 곡성현(谷城縣)에 귀양갔고, 이내 그곳에서 집을 정하고 살았다. 하루는 종을 시켜 편지를 갖고 지리산(智異山)청학동(靑鶴洞)에 들여보냈는데, 오채가 영롱한 집이 있고 극히 정려(精麗)하며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운관(雲冠)과 자의(紫衣)요, 또 하나는 늙은 중이었다. 둘이 종일토록 바둑만 두기에 그 종은 하루를 묵고 편지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었다. 종이 애초에 2월에 떠나 산에 들어갈 제는 초목이 바야흐로 무성하던 것이, 산을 나올 때에는 들판에서 익은 벼를 거두는 것을 보고 괴이히 여겨 물으니 곧 9월 초순이다. 남주가 죽을 때 나이가 30세였다. 널을 들어보니 유달리 가벼운지라, 집안 사람들이 관을 열고 본즉 빈 것이었고 그 안에 시가 쓰였는데,

창해에 떠난 배는 찾을 곳이 전혀 없고 | 滄海難尋舟去跡

청산에 나는 학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네 | 靑山不見鶴飛痕

라 하였다. 그 마을 앞에 김을 매던 농부가 공중에서 흘러내리는 음악 소리를 듣고 쳐다본즉, 남주가 말을 타고 등실 떠서 흰 구름 사이로 올랐다 한다. 지금 충주(忠州)에 살고 있는 진사(進士) 남대유(南大有)가 그의 방손(傍孫)이라 한다.”

한유(韓愈)의 시에도,

나무와 돌에도 요물이 생기더라 | 木石生妖變

하였지마는, 당(唐)의 말년에 소주(蘇州)에 살고 있던 중 의사(義師)는 나무로 새긴 부처를 만나면, 문득 한 군데 모아서 불살라 버렸다 한다. 우리나라 양주(楊州)회암사(檜巖寺)에 옛날부터 나무로 만든 큰 부처가 있어서 극히 영검스러우므로, 원근 사람들이 승속(僧俗)을 가리지 않고 모여들어 숭배해서 향화(香火)가 심히 성하였다. 나옹(懶翁) 이성계(李成桂)의 스승으로 있던 중(中)이 처음 주지(住持)가 되어 이 절에 도입할 제, 못 중들에게 명하여 그 부처를 끌어 내어 불사르게 하였다. 모두들 놀라고 두려워하여 군이 간했으나, 나옹은 듣지 않고 중 백여 명을 시켜 큰 동아줄로써 동여매라 하고 밀쳐당겼으나 털끝도 까딱하지 않았다. 나옹이 노하여 스스로 한 쪽 손으로 밀어 곧 넘어뜨리고 절 밖에 이끌어 내어 장작을 쌓고 태우니, 더러운 냄새가 견디지 못할 만큼 풍겼다. 대개 큰 뱀이 부처 뱃속에 서리어 있던 것으로 그런 뒤에는 오래도록 재환이 없었다 한다. 대체로 나무가 오랫동안 묵으면 접신(接神)이 되므로 허물어진 절간의 나무 부처에 많이들 이상한 요물이 붙는 법이니, 곧,

“나무와 돌에도 요물이 생기더라.”

함은 이를 말함이다. 오늘 저 반선(班禪)이 우리에게 준 부처는 길이가 거의 한 자나 될뿐더러, 아마 나무로 새긴 데다 금을 입힌 것인즉 이에겐 어찌 요물이 붙지 않았을 줄 알리요. 창졸간에 이 물건을 받긴 했으나, 일행의 상하가 모두 꿀 단지에 손 빠뜨린 듯이 어쩔 줄을 모르는 판이다. 내가 밤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잘 구처하겠습니까.”

하고 정사께 물었더니, 정사는,

“벌써 수역(首譯)을 시켜 작은 궤짝을 만들어라 하였네.”

한다. 나는,

“잘 하셨소이다.”

하였더니 정사는,

“뭐가 잘했단 말인가.”

하기에 나는,

“이는 강에 띄우고자 하는 의미뿐이겠죠.”

하고 대답하였더니, 정사가 웃기에 나도 웃었다. 대저 이 부처를 길가 사찰에 내
어버린다면 중국의 노역을 입을까 두렵고 또 이를 이끌고 입국한다면 마땅히 물의
(物議)를 일으킬 테니, 저들과 우리나라의 국경에서 순류(順流)에 띄워 바다에 추
방하는 수밖에 없고 보니, 띄울 곳은 압록강(鴨綠江)이 가장 좋을 것이다.

정호음(鄭湖陰) 사룡(士龍)⁸³은 평생에 호사로이 지냈다. 나이가 젊을 때 예조 좌랑
(禮曹佐郎)으로 박평성(朴平城) 원종(元宗)⁸⁴에게 나아갔더니, 평성이 때마침 수상
(首相)이 되어서 별장 깊숙한 곳에 앉아 시비(侍婢) 수십 명을 시켜 호음을 인도하
여 들어오게 하니, 호음이 접문을 지나 들어오는데 곳곳이 아롱진 누각이요, 구비
구비 붉은 난간이다. 평성은 못 위 반송(盤松) 그늘 밑에 앉았는데 좌우에는 시비
들이 모두 비단 치마를 질질 끌고 번갈아가면서 진귀한 음식상을 올리고, 또 기생
몇 패가 풍악을 하면서 날이 다하도록 기쁜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끝날 무렵에 호
음이 공사(公事)에 대한 결재를 청했으나 평성은,

“이 늙은 사람은 애초에 무인(武人)이라, 다행히 풍운(風雲)의 제회(際會)를 만나
몸이 이 자리에 이르렀으니, 다만 스스로 마음을 기쁘게 하여 성세(盛世)의 은혜를
보답할 따름이므로 그대가 가진 공사는 돌아가서 본조(本曹)의 판서(判書)에게 물
어보게.”

하고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호음은 망연히 어쩔 줄 몰랐다. 그리하여 그는 이 일을
평생에 연모하였으므로 늙을 때까지 호사를 계속하였다 한다. 이 이야기는 나의 6
세조(世祖) 금계군(錦溪君)⁸⁵의 《기재잡기(寄齋雜記)》에 실려 있다. 그리고 세속에
서 전하는 말에,

“호음이 평성의 이 일을 연모하여 호백구(狐白裘)를 흠치는 수단⁸⁶에 익숙하니, 그

83 정호음(鄭湖陰) 사룡(士龍) : 조선 중종(中宗) 때 문학가. 호음은 호요, 사룡은 이름이며, 자는 운경(雲卿).

84 박평성(朴平城) 원종(元宗) : 조선 연산군(燕山君)을 몰아내고 중종을 맞아들인 훈신. 평성은 봉호요, 원종은 이름이며, 자는 백운(伯胤).

85 금계군(錦溪君) : 조선 문학가 박동량(朴東亮). 금계는 봉호요, 자는 자룡(子龍).

86 호백구……수단 : 전국 제(齊)의 맹상군(孟嘗君) 전문(田文)이 진(秦)에서 붙들려 있을 때에, 그의 문

가 일찍이 강원 감사(江原監司)가 되었을 때 금강산(金剛山)에 들어가 정양사(正陽寺)에서 묵는데 순금 부처를 흠쳐서 드디어 크게 치부(致富)하더니, 나이 늙으매 그 일을 심히 참회하여,

정양사 깊은 곳 향불 태던 그날 밤에 | 正陽寺裏燒香夜

40년 그릇된 일을 거원⁸⁷인 양 깨우쳤네 | 蘧瑗方知四十非

라는 시를 읊었다.”

한다. 내 일찍이 정양사에 놀 때 과연 바람벽 위에 이 시가 쓰여 있음을 보았다. 이제 삼사(三使)들의 선사받은 금부처는 모두 셋인즉 수천 냥의 돈을 얻기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며, 만일 호음으로 하여금 이 경우를 만나게 하였으면 반드시 저 정양사에서만 잘못을 깨달았을 뿐 아니리라. 내 부사와 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크게 한바탕 웃었다. 나는 또,

“이제 이 불상이 불행히도 나무 몸통이인지라 멀찍이 물리쳐 버렸지만, 만일 순금으로 된 몸이었더라면 이단(異端)을 물리치자는 논(論)도 아마 좀 생각할 점이 있겠지요.”

하고는, 서로들 허리를 잡았다.

장자(莊子 《남화경(南華經)》)에 이르기를,

“말 머리에 굴레를 씌우고 소 코엔 코뚜레 꿰다.”

하였으니, 소의 코 꿰는 일은 옛날부터 그러함을 짐작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 소는 난 지 겨우 7, 8삭이 되면 벌써 코를 꿰다. 왕형공(王荊公)의 시에,

미련한 저 소에다 코를 꿰지 않을 양이면 | 牛若不穿鼻

맷돌 방아 찧으려도 곧잘 되지 않으리라 | 豈肯推入磨

하였으니, 맷돌 방아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수레 끌기나 밭 갈기야 어떠하겠는가.

이제 책문(柵門)에 들어온 뒤 열하에 이르기까지 호(戶)마다 기르는 소가 7·8두(頭) 이하가 없고, 혹은 3·40두에 이른다. 그런데 밭을 가나 수레를 이끄나 모두

객이 개구멍 도적질을 잘하여 진왕(秦王)의 흰 여우 갓옷을 흠쳐서 진왕의 애희(愛姬)에게 바치고 먼했다.

87 거원(蘧瑗) : 전국 때 위(衛)의 현인으로서, 나이 50이 되어서 49세까지의 잘못을 깨달았다.

뿔을 얹매어서 부리고, 하나도 코를 펜 놓은 없었으며, 소는 모두 유달리 크되 집집마다 방목하였으며, 작은 아이 하나가 수십 마리를 몰 수 있으나 다만 코를 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역시 뿔도 얹매지 않았으니, 중국 사람들의 소치는 기술이 비록 우리에게 미칠 바 아니었으나, 다만 코를 꿰지 않는 것은 역시 고금의 다름이 있는가 싶다. 그리고 진(晉) 두예(杜預 진(晉)의 학자. 자는 원개(元凱)의 상소(上疏) 중에도,

“전목(典牧)의 종우(種牛)가 4만 5천여 두나 있으나, 수레도 이끌지 않을뿐더러 늙을 때까지도 코를 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 있다. 이를 보아도 중국서도 옛날에는 부리는 소는 모두 코를 꿰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강녀묘(姜女廟)의 주련(柱聯)은 문 승상(文承相)이 쓴 것이 가장 비장(悲壯)하다. 그 글에,

강녀가 죽지 않았고나 천 년 묵은 조각돌이 정렬하고 | 姜女未亡也千年片石猶貞
진황은 어디로 갔는고 만리성엔 원망만 쌓였구녀 | 秦皇安在哉萬里長城築怨
라 하였는데, 글씨도 몹시 기굴(奇崛)하고 과친왕(果親王) 윤례(允禮)가 쓴 시는 역시 전려(典麗)하다.

푸른 전나무 잎은 고생살이 나머지요 | 栢葉從來常自苦
매화꽃은 곱잖아도 향기로 한몫 보네 | 梅花終古不爲妍
그 글씨는 신화(神化)한 듯싶고, 또 건륭(乾隆) 을해년(1755년) 동짓달에 황삼자(皇三子) 등금거사(藤琴居士)가 쓴 시는 또한 산한(酸寒)하다.

늙은 솔 허물어진 담장 옛 사당이 보이고녀 | 松老頽垣見古祠
임 위해 죽은 강녀 그 일이 슬프구나 | 崩城姜女事堪悲
집 방춥돌 바라다가 기절을 이루고는 | 藁砧望斷成奇節
환패만 남았으니 옛 자태를 보는 듯이 | 環佩空餘識舊姿
돌에 뿌린 눈물 자취 그날의 한이라냐 | 石洒淚痕當日恨
예는 물 구슬퍼서 이내 생각 자아내네 | 水流嗚咽後人思
정자 기슭 옷을 털매 쓸쓸하기 짝이 없어 | 振衣亭畔淒涼甚

임의 그 어린 눈동자 이제 더욱 그리워라 | 猶憶凝眸睽曼滋

그 글씨는 더욱 민묘(敏妙)하다. 그리고 방류요수(芳流遼水)는 건륭황제(乾隆皇帝)의 어필이요, 경절처풍(勁節淒風)은 과친왕의 글씨였고 ‘망부석(望夫石)’이란 세 글자는 태원(太原) 백휘(白輝)가 쓴 것이다.

중국 사람들은 글자로부터 말 배우기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은 말로부터 글 배우기로 옮겨가므로 화(華)·이(彝)의 구별이 이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말로 인하여 글자를 배운다면 말은 말대로 글은 글대로 따로 되는 까닭이다. 예를 들면 천(天) 자를 읽되 ‘한날천(漢捺天)’이라고 한다면, 이는 글자 밖에 다시 한 겹 풀이하기 어려운 언문(諺文)이 있게 된다. 설부(說部) 중에 《계림유사(鷄林類事)》⁸⁸가 실렸는데, 천(天)을 가른 한날(漢捺)이라 하였다. 작은 아이들이 애당초에 ‘한날(漢捺)’이란 무슨 말인 줄을 알지 못함즉, 더군다나 천(天)을 알 수 있겠는가. 정현(鄭玄)의 집 여종이 모두 《시경(詩經)》으로써 문답할 수 있었다 하여, 천 년 동안 아름다운 이야기가 떠돌고 있지만, 그 실제에 있어서는 중국 사람들은 부인이나 어린이도 모두 문자(文字)로 말을 하므로, 비록 눈으로는 정(丁) 자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으나 입으로는 봉(鳳)을 토(吐)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경(經)·사(史)·자(子)·집(集)은 모두 그들의 입에 익은 항용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의 어린이가 시내를 격해서 어머니를 부를 때,

물이 깊어서 건너지 못하되다 | 水深渡不得

라는 말을 처음 듣고는 크게 놀라서,

“중국엔 다섯 살 먹은 아이가 입을 열자 시가 이룩되데그려.”

한다. 이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말이 이러함이요, 무슨 뜻이 있어서 글귀를 이루려는 것은 아니다. 노가재(老稼齋)가 일찍이 천산(千山)에 놀러 갔다가 어떤 술 파는 촌 할미를 보고서,

“길이 궁벽하고 사람이 드문 이곳에 누가 술을 사 마시오.”

하고 물었더니 그는,

88 설부……계림유사(鷄林類事) : 설부는 명의 도종의(陶宗儀)가 엮은 것이요, 계림유사는 손목(孫穆)이 지었다.

꽃 향내 풍기니 나비 오도 저절로 | 花香蝶自來

라고 대답하였다. 여러 말이 아니되 사의(辭意)가 명창(明暢)하여 저절로 운치 있는 말이 되었다. 이는 다름 아니라, 글자로 인하여 말 배우기로 들어간 묘증(妙證)이다. 우리 집 소비(小婢)가 사람됨이 지극히 혼미(昏迷)하여, 어느 날 떡을 얻어 먹게 되었을 때, 엿을 얻어 가지고는 기뻐서 치하하는 말로,

“파촉(巴蜀)도 역시 관중(關中)입니다.”⁸⁹

하니, 이는 지패(紙牌 노름의 일종)에 유행되는 말이다. 그가 애초부터 파촉이나 관중을 아는 것이 아니었으나, 다만 그 둘이 다르지 않음을 알았은즉, 그 말은 저절로 맞아버린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중국말이 알기가 어렵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정씨(鄭氏)의 여종이 천고에 유식하기로 이름 높지 못한 것을 알았노라.

《청비록(淸脾錄)》 이덕무(李德懋)의 저 에 이르기를,

“삼한(三韓) 사람으로서 중국을 골고루 구경한 사람으로는 이익재(李益齋)이름은 제현(齊賢) 만한 이가 없을 것이다. 그의 유력(遊歷)한 것이 시(詩)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정형(井陘) · 예양교(豫讓橋) · 황하(黃河) · 촉도(蜀道) · 아미(峨眉) · 공명사당(孔明祠堂) · 함곡관(函谷關) · 민지(澠池) · 이릉(二陵) · 맹진(孟津) · 비간묘(比干墓) · 금산사(金山寺) · 초산(焦山) · 다경루(多景樓) · 고소대(姑蘇臺) · 도량산(道場山) · 호구사(虎口寺) · 표모묘(漂母墓) · 탁군(涿郡) · 백구(白溝) · 업성(鄴城) · 담회(覃懷) · 왕상비(王祥碑) · 효릉(峴陵) · 장안(長安) · 정장공묘(鄭莊公墓) · 허문정공묘(許文貞公墓) · 관용방묘(關龍逢墓) · 망사대(望思臺) · 무측천릉(武則天陵) · 숙종릉(肅宗陵) · 빈주(邠州) · 경주(涇州) · 보타굴(寶陀窟) · 월지사자현마(月支使者獻馬) 등이 있으니,⁹⁰ 그 발자취가 이른 곳이 모두 웅장한 곳이어서,

89 파촉……관중(關中)입니다 : 파촉은 중국 사천 지방이요, 관중은 섬서 지방으로서 한 고조 유방과 초 패왕 항적이 서로 먼저 관중을 점령하려고 경쟁을 할 때 생긴 말. 평 대신에 답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90 시(詩)에……있으니 : 정형은 하북성정형산 위에 있는 요새지. 예양교는 전국 때 절사(節士) 예양이 지백(智伯)을 위해서 조양자(趙襄子)를 저격하려고 숨었던 다리. 촉도는 사천성에서 섬서성으로 통하는 험로(險路). 아미는 사천성에 있는 산명. 공명사당은 제갈량(諸葛亮)의 사당. 공명은 그의 자. 함곡관은 하남성 서북부 황하의 계곡에 있는 요해의 관문. 민지는 하남성에 있는 호수명. 이릉은 하남성 효(穀)에 있는 명소. 맹진은 하남성에 있다. 주 무왕(周武王)이 은(殷)을 칠 때 제후를 모았던 곳. 비간묘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미처 보지 못한 곳이었고, 그 시도 마땅히 동방 2천 년 이래의 명가(名家)가 될 것이다. 그 화려하고 곱고 밝고 맑음이, 삼한의 궁벽하고 고루한 누습(陋習)을 활짝 벗어 버렸으나, 이즈음 사람들은 딱하게도 익재가 곧 이제 현임을 알지 못하고, 고군협(顧君俠 미상)이 《원백가시선(元百家詩選)》을 엮을 때도 고려 사람의 시는 한 수도 뽑히지 않았으며, 당시의 목암(牧菴)요공(姚公)⁹¹과 염자정(閔子靜 원(元) 문학가 염복(閔復), 자정은 자) · 장양호(張養浩 원(元) 문학가, 자는 희맹(希孟)) 등도 모두 익재의 시를 칭찬하였으나, 역시 한 수도 뽑힌 것이 없으니 이는 실로 괴이한 일이다.”

고 운운하였다. 익재의 무덤은 금천(金川) 지금리(只錦里) 도리촌(桃李村 개성(開城))에 있고, 그 밑에는 곧 익재의 구택(舊宅)이요, 구택에다 서원(書院)을 세워서 향례를 치르게 되었다. 나의 연암별업(燕巖別業)이 그 서원에서 십 리도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나도 일찍이 한두 번 서원에 가서 그 유집(遺集 《익재난고(益齋亂藁)》)를 읽고서, 더욱이 《청비록(淸脾錄)》의 논평한 말이 철론(鐵論)임을 믿었다. 그의 <사귀(思歸)》에는,

늦은 가을 청신(양자강 위에 있는 지명) 숲은 비 속에 잠겨 있고 | 窮秋雨鎖靑神樹
해 저물녘 백제성(양자강 위에 있는 지명)엔 구름이 비졌구나 | 落日雲橫白帝城
하였고, <이릉조발(二陵早發)》에는,

주사(이이(李耳)의 벼슬 이름)의 벼슬 이름)의 약 술에는 구름만 감돌고 | 雲迷柱史燒丹竈
문왕(주(周) 문왕) 비 피했던 능엔 눈마저 덮여 있네 | 雪壓文王避雨陵

는 은의 충신 비간의 무덤, 금산사는 강소성 진강부에 있는 명소, 초산은 강소성 단도현(丹徒縣)에 있는 명소, 대정루는 강소성감로사(甘露寺)에 있는 명소, 고소대는 강소성 오현(吳縣)에 있는 명소, 도량산은 강소성에 있는 명소이며, 호구사도 같다. 표모묘는 강소성 회음(淮陰)에 있는데, 한신(韓信)에게 밥을 먹인 표모의 무덤, 탁군은 하북성에 있는 지명, 백구는 위와 같음, 업성은 하남성에 있으며 단화도 같다. 왕상비는 하남성에 있으며 왕상은 진(晉)의 효자, 효릉은 하남성에 있는 명소, 장안은 섬서성에 있는 도시, 정장공묘는 전국 때 정장공의 무덤, 허문정공묘는 원의 유학자 허형(許衡)의 무덤, 문정은 시호, 관용방묘는 하(夏)의 충신 관용방의 무덤, 망사대는 한 무제(漢武帝)가 그의 아들 여 태자(戾太子)를 죽이고 후회하여 쌓은 대, 무측천릉은 당의 황후 무조(武曌)의 무덤, 숙종릉은 당 숙종의 무덤, 빈주는 섬서성에 있는 지명, 경주는 안휘성에 있는 지명, 보타굴은 절강성에 있는 명소, 월지사자 현마는 중앙 아시아 지방에 있던 월지국 사자가 헌납한 말을 보고 읊었다.

91 요공(姚公) : 원(元)의 문학가 요수(姚燹), 목암은 호요, 자는 단보(端甫).

하였고, 〈주행아미(舟行峨眉)〉⁹²에는

비에 쫓긴 송아지는 어점으로 돌아오고 | 雨催寒犢歸漁店

물결에 밀린 해오라기 손님 배를 따르더라 | 波送輕鷗近客舟

하였고, 〈다경루(多景樓)〉⁹³에는,

밤들어 풍경 울 제 포구에 밀물 들고 | 風鐸夜喧潮入浦

도롱이채 우뚝 서니 비 새는 그 다락을 | 煙簑暝立雨侵樓

하였고, 〈함곡관(函谷關)〉에는,

흙 주머니 그 입을랑 황하 북에 묶어두고 | 土囊約住黃河北

땅덩어리 둥글둥글 백일 서편 돌렸구나 | 地軸句連白日西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시인(詩人)들이 중국의 고사를 쓸 때, 멋대로 차용하기는 했으나, 정말 눈으로 보고 발로 밟아서 체험한 이는, 오직 익재 한 사람이 있을 따름이다. 내 이제, 한 번 고북구(古北口)를 나오자 스스로 옛사람보다 낫다고 생각되었으나, 다만 익재에 비한다면 참으로 모자라는 것이 많음을 깨달았다.

《감구집(感舊集 왕사진(王士禎) 저)》에 청음 선생(淸陰先生 김상헌(金尙憲), 청음은 호)의 시가 실려 있었다. 대개 왕이상(王貽上 왕사진, 이상은 호)의 전처(前妻) 추평(鄒平) 장씨(張氏)는 강남(江南) 진강부(鎮江府)추관(推官) 만종(萬鍾)의 딸이요, 도찰원(都察院)좌도어사(左都御史) 충정공(忠定公) 연등(延登)의 손녀이다. 승정(崇禎) 말년에 선생이 뱃길로 중국을 향하매, 길이 제남(濟南)을 거치게 되었다. 그때 장충정(張忠定)이 한 번 보고 곧 기뻐하여 옛새를 만류하고, 선생의 ‘조천록(朝天錄)’ 1권에 서(序)를 썼다. 이상이 선생을 익숙히 알게 된 것은 대개 그 처가를 통해서이다. 그가 선생의 시를 초록하여 실은 것은 다음과 같다.

늦은 가을 바닷가엔 기러기 처음 오고 | 三秋海岸初賓雁

깊은 밤 천문에는 객성 하나 번뜩인다⁹⁴ | 五夜天文一客星

92 주행아미(舟行峨眉) : 원제(原題)는 〈8월 17일 방주향아미산(八月十七日放舟向峨眉山)〉.

93 다경루(多景樓) : 원제에는 〈다경루배권일재용고인운동부(多景樓陪權一齋用古人韻同賦)〉.

94 깊은……번뜩인다 : 한 나라 엄광(嚴光)이 광무제(光武帝)의 배 위에 발을 올렸을 때 태사(太史)가 여쭙기를 객성이 제좌(帝座)를 범했다 하였다. 여기에서는 김상헌이 자기가 사신으로 왔음을 말한 것이다.

폭군의 모진 손에 돌다리는 끊어졌고 | 橋石已從秦帝斷
 은하성 높은 배에 사신 오길 허락했네⁹⁵ | 星槎猶許漢臣通
 조각달 오경 깊어 수역의 성 머리에 | 五更殘月水城頭
 외로이 역사 읊어 배 닿은 이 누구런고 | 咏史何人獨艤舟
 동쪽 바다 향해 서서 돌아갈 길 찾지 않고 | 不向東溟覓歸路
 북두성 의지하여 신주(중국의 별칭)를 바라보네 | 還依北斗望神州
 남쪽 장수 북쪽 손님 모래톱에 모여 들어 | 南商北客簇沙頭
 그림 새 푸른 주름 몇 군데나 배 뗏던고 | 畫鷁青簾幾處舟
 죽지사 함께 불러 팔 겨르고 지나가니 | 齊唱竹枝聯袂過
 성 속에 연월 가득 이곳도 양주(양자강 문화가 통하는 곳)인 듯 | 滿城煙月似揚州
 이들은 모두 이상이 이른바, 맑고 완순하여 가히 읊을 만하다는 작품이다. 이상은
 당시 해内の 시종(詩宗)이었으므로 사대부들은 그의 척자(隻字) · 편언(片言)에 대
 하여 다반(茶飯)처럼 입에서 떠나지 못하므로, 청음의 성명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선생의 천고 대절(大節)은 아는 이가 없었다. 학지정(郝志亭) 성(成)이 김
 숙도(金叔度 김상현, 숙도는 자)의 몇 편 가작(佳作)을 들었으면 하고 청하기에, 나
 는 답하기를,

“저는 애초부터 그의 시를 외는 것이 없고, 다만 이번 걸음에 청음 선생의 6대손
 (代孫) 이도(履度)의 별장(別章)이 있습니다.”

한즉, 지정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것 역시 기이한 일이군요.”

하기에, 나는 그 시를 내어 보였다. 지정이 두세 번 읊더니 그 뒤에 이 일을 그의
 초록한 《용재소사(榕齋小史)》중에 다음과 같이 실었다.

“화산(華山 김이도의 호) 김이도(金履度)는 조선 사신 김청음 상헌의 6세손인데,
 그의 <봉별연암조경(奉別燕巖朝京)> 원고(原稿)에는 ‘부연(赴燕)’으로 된 것을 지정
 이 ‘조경(朝京)’이라고 고쳤다. 이란 시에,

넓디넓은 저 연산은 사면에 벌여 있고 | 四面燕山濶

95 은하성……허락했네 : 한(漢)의 장건(張騫)이 서역(西域)으로 사신 가던 고사.

높다란 이 장성은 만 리를 뻗었구나 | 萬里秦城高
 그 중에 말 달리며 가시는 임이시여 | 中有垂鞭者
 백발이 성성하시니 먼 길에 수고할사 | 白髮行邁勞
 그 둘째다.

경개하신 담헌(홍대용(洪大容)의 호)이요 | 耿介湛軒子
 척당할사 연암님을 | 倜儻燕巖叟

사해가 넓건마는 그의 성명 다 알리라 | 海內知姓名

앞 가고 뒤따르니 높은 바람 한 가지라 | 高風屬前後

하고, 그 뒤를 이어서, ‘건륭(乾隆) 경자년 5월 23일에 화산 김이도는 쓰다.’라고 하였다. 그의 자(字)는 계근(季謹)이요, 글씨는 종요(鍾繇)와 왕희지(王羲之)를 본 받았으니 동국(東國)의 문장 기사(奇士)이다. 그의 벗 박연암(朴燕巖)·한석호(韓錫祐)와 함께 시주로써 막역의 친구를 삼았더니, 이해 8월에 박연암이 공사(貢使)를 따라 북경에 와서 나와 함께 만나 서로 기뻐하였다. 이에 나는 화산의 증행시(贈行詩) 석 장을 얻어 읽은즉, 그는 사모(四牡 《시경》의 편명, 사신을 보내는 시) 황화(皇華 《시경》의 편명, 사신을 보내는 시)의 끼친 뜻을 깊이 지니었다. 나는 그 중 두 마디를 뽑아서 기록하였다.” 원시(原詩)에는, ‘수방지성명(殊方知姓名)’과 ‘고풍계전후(高風繼前後)’라 했던 것을 지정이 수방(殊方)을 ‘사해(四海)’로, 계(繼)를 ‘속(屬)’으로 고쳤다.

지정은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연암의 족손(族孫) 남수(南壽)의 자는 산여(山如)요, 호는 금성(錦城)이니, 그는 얼굴이 아름답기가 관옥(冠玉 옥으로 꾸민 것)과 같다 한다. 그의 <증행(贈行)>에, 머리가 세었다고 임은 슬퍼하지 마오 | 莫云頭已白

이 하늘 이 땅이란 잠깐인 듯 가 없어라 | 天地忽無窮

요동성 넓은 들에 필마로 돌아 들면 | 匹馬遶東野

한 번 채찍 휘두르매 만리의 바람 부네 | 一鞭萬里風

라고 하였다.” 금성(錦城)은 우리 관형이므로 남수가 금성 박남수 산여라고 썼던 것을 지정은 그릇 호인줄 알았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나라의 고사(高士) 이재성(李在誠) 중존(仲存 이재성의 자)의 호는 지계(芝溪)인데, 연암의 부제(婦弟)이다. 그의 <증행(贈行)>에는,

압록강 두른 물은 띠처럼 되어 있고 | 鴨綠衣帶水

만 리라 저 장성은 묶어서 가을 것을 원고(原稿)에는 ‘연성(燕城)’이라 되었던 것을
지정이 ‘장성(長城)’이라 고쳤다. | 長城宿春之

머나먼 이 길 떠나 오가는 나그네여 원고에는 ‘고래경유객(古來經遊客)’이라 되어
있었다. | 悠悠遠行客

역력히 알고파라 묻노니 누구누구 | 歷歷知是誰

라고 하였고, 또,

열 해나 지나도록 바위 틈에 숨은 선비 | 十載巖棲客

새벽에 행장 묶어 먼 길을 떠난다니 | 晨裝告遠遊

반생을 글만 읽고 본 적이 없던 것을 | 半生方冊裏

이제야 구경하니 제왕의 거룩한 고을 | 今日帝王州

이라 하였고, 또,

뽕나무 활 다복 살은 일찍 품은 뜻이언만 | 宿昔桑蓬志

사슴 떼와 함께 놀아 불우한 지 몇 해런고 | 沈冥鹿豕群

오히려 두 눈 있으니 이 구경이 재미로써 | 猶被雙眼役

형클어진 백발 시름 잊어나 보을까나 | 可忘白頭紛

라고 하였고, 또,

여름 비 끓는 곳에 강물은 부풀고 | 雨熱關河漲

구름은 찌는 듯이 계문 숲이 낮게 보네 | 雲蒸薊樹低

청컨대 임이시여 먼 길에 조심하오 | 請君慎行李

임은 떠나 가시거다 부디 평안 하옵소서 원고에는 ‘면전신행역(勉旃慎行役)’이라
되어 있다. | 去矣莫棲棲

라고 하였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한석호(韓錫祐) 혜당(惠堂 한석호의 호)과 양상회(梁尙晦) 백후(伯厚 양상회의 자)와 이행작(李行綽) 유재(裕齋 이행작의 자)는 모두 개성(開城)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개성은 여씨(麗氏)의 옛 도읍인데, 그 나라 사람들은 송경(松京)이라 부른다. 이는 옛 개주(開州)이며 옛 이름은 촉막군(蜀莫郡)이다. 이곳에는 신숭(神嵩 개성(開城)의 진산(鎭山)) · 자하(紫霞 개성의 동명(洞名))의 좋은 경치가 있고, 문인(文人)과 운사(韻士)들은 오히려 을지생(乙支生) · 정인지(鄭麟趾)가 끼친 풍채를 지녔다. 이는 우리 성조(聖朝)의 문교(文教)가 널리 먼 나라에까지 미친 보람이었다. 혜당의 <송연암조경(送燕巖朝京)>에,

우연히 방향 몰라 이 몸을 붙인 곳이 | 偶爾無方住著身
한 하늘 아래건만 바다 동쪽 가이라네 | 一天之下海東濱
가까운 곳 먼 지역을 평등으로 본다 하면 | 如將遠邇看平等
문밖으로 안 나와도 만리 사람 되오리라 | 不出門時萬里人
새벽 달 뒤편에 걸려 시냇집 창이 밝고 | 曉月依山磻戶明
목련화 나무 밑에 남은 정서 이끌리네 | 木蓮花下藹餘情
중국의 아름다움 피꼬리는 모르고서 | 黃鸝不識中州好
이별이 서러 우나 소리소리 울더라 | 啼作陽關惜別聲
푸른 하늘 들을 덮어 사면을 둘렀는데 | 青天蓋野四周環
동남쪽 솟은 뒀는 한점 두점 사라지네 | 漸失東南點點山
요양에 들어서서는 무엇이 보이던고 | 行到遼陽何所見
햇바퀴 빙글 굴러 고국 산천 가리키네 | 日輪回指海雲間
만리 배에 몸을 싣고 바람에 저어가서 | 常願風漂萬里舟
천하 명루 곳곳마다 두루 올라 보고져라⁹⁶ | 遍登天下有名樓
유유히 필마로써 금대 길 달려 본들 | 悠悠匹馬金臺路
가을 바다 외로운 돛에 설렁임과 어떻더니 | 何似孤帆碧海秋
장성이 무너지자 나라도 그렇건만 | 長城自壞國隨之

96 만리……보고져라 : 연암의 아들 종간(宗侃)의 주(注)에, “삼가 상고하옵건대 이 두 글귀는 원집(原集) 중에 있는 것을 혜당(惠堂)이 이용한 것이다.”

도시와 인물이야 갑자기 변탄말가 | 朝市人煙遂不移
 공자문 사당에는 돌북이 상기 있어 | 夫子廟庭周石鼓
 인간 세상 몇 번이나 석양을 겪었던고 | 人間幾度夕陽時
 라고 하였고, 또 그의 <춘원세우(春院細雨)>에는,
 이슬이 방울짐을 오동잎이 먼저 듣고 | 露重梧先聞
 우레 소리 가벼우니 새들도 놀라지 않네 | 雷輕鳥不疑
 고운 풀 깊어가니 꿈이런가 의심하고 | 嫩草深疑夢
 짙어가는 꽃봉오리 흡사히 어린 듯이 | 濃花恰欲痴
 점점 개미 섬돌 위에 미끄럼을 타는 듯이 | 玄蟻緣階滑
 파랑 벌레 잎을 안아 그 재주 위태롭네 | 青蟲抱葉危
 물 속에 솟아 선 건 쌍무지개 멀리 뵈고 | 水立雙虹遠
 연기를 뚫고 가니 외론 새 더디고나 | 煙穿獨鳥遲
 시름에 잠긴 채로 홀로 앉은 나그네 | 悄悄孤客坐
 그리운 님 생각에 깊이깊이 잠겼구나 | 湛湛美人思
 라고 하였고, 백후(伯厚)의 <송연암조경(送燕巖朝京)>에는,
 눈이 닿도록 바라보니 갈 길이 실이라네 | 極目山河路一絲
 마음이 얹혔다면 따라갈 수 없단말가 | 心如相約未相隨
 떠나려는 이 자리에 한잔 술 거듭 권하니 | 離筵更進一杯酒
 때마침 석양이라 양류만 그저 청청 | 楊柳青青斜日時
 이라 하였고, 이형작(李行綽)의 <송별(送別)>에는,
 바닷가에 떠나는 임은 채찍 하나 믿을 뿐 | 濱海行人信一鞭
 먼 하늘 유월 철에 빗줄기 길이 달려 | 遼天六月雨長懸
 노정을 헤어보니 이에서 삼천 리를 | 計程從此三千里
 묻노니 어느 때에 연경에 이룰꼬 | 借問幾時可到燕
 라”
 하였다.

중국 사람들의 기록이 대체로 이와 같다. 이는 비단 원시(原詩)를 많이 점화(點化)

하였을뿐더러, 그가 이른바 을지생(乙支生)과 정인지(鄭麟趾)의 끼친 바람이라는 말은 더욱 허리를 잡을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을지생이란 사람이 없은즉, 이는 아마 을지문덕(乙支文德)을 이름일 것이다. 을(乙)·정(鄭)은 실로 수천 년이나 멀리 떨어진 인물인데, 이제 그들을 나란히 열거하였으니, 이는 아마 을(乙)은 《수서(隋書)》에 나타났고, 정(鄭)은 《고려사(高麗史)》를 편찬한 까닭으로 특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의 기록 중에 계근(季謹)이 한석호(韓錫祐)와 더불어 술로써 막역한 벗이라 하였으니, 가장 가소로운 일이다. 이 둘은 비단 서로 얼굴을 모를 뿐 아니라, 비록 같은 때에 살고 있었으나, 이름자도 통하지 못하였은즉 어찌 시주로써 막역한 벗이 되었겠는가. 더군다나 둘 다 평생에 술을 마시지 못했으니, 이를 어찌할꼬. 명일 내 별안간 길을 떠나게 되었기에, 그 그릇됨을 지적하지 못하고 말았다.

이불(李紱) 청 문학가. 자는 거래(巨來)의 《목당집(穆堂集)》 중 〈경인원조조조시(庚寅元朝早朝詩)〉에,

조선 사람 멀리 천자국에 통래한 지 오래되니 | 朝鮮內屬來王久

의관이 속될망정 괴이할 것 무엇 있나 | 肯怪衣冠太俗生

사모 쓰며 관복 입고 봄 들어서 공 바치니 | 紗帽版袍春入貢

바닷가 해돋이에 태평시절 누리고녀 | 海隅日出最昇平

하였으니, 아침 날 산장(山莊) 밖에 천관(千官)들의 퇴근하는 모습을 구경한즉, 붉은 병거지에 마제수(馬蹄袖)를 입은 차림들이,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기 짝이 없음에 비하여, 우리나라 사신들의 의관이야말로 신선처럼 빛이 찬란하였다. 그러나 그 거리에 노는 아이들까지도 놀라고 괴이하게 여겨서 우리를 도리어 연극하는 배우 같다고 하니, 아아, 서글프다.

이익재(李益齋)의 자는 중사(仲思)요, 또 하나의 호는 역옹(櫟翁)이며, 관(貫)은 경주(慶州)이고, 나이 15세에 급제에 올랐었다. 충선왕(忠宣王)이 원(元)의 수도에 머물 때 만권당(萬卷堂)을 세우고 동으로 돌아올 의사가 없어서 익재를 불러 부중(府中)에 두고 중국의 명류(名流) 조자양(趙子昂) 원(元)의 문학가, 서화가 조맹부(趙孟頫), 자양은 자)·원복초(元復初) 원의 문학가 원명선(元明善), 복초는 자) 등

과 함께 창수하였으며, 그는 또 서촉(西蜀)에까지 사신으로 간 적도 있거니와, 강남(江南)에도 강향(降香)⁹⁷하여 이르는 곳마다 제영(題詠)한 작품이 남의 입에 회자(膾炙)되었다. 그가 동으로 돌아오자, 다섯 임금을 섬겨 네 번이나 재상이 되었다. 충선왕이 고자질에 얽혀서 토번(吐蕃)에 귀양살이 갔을 때, 만 리를 달려가서 위문하되 충분(忠憤)의 마음이 간절하였다. 그 뒤에 김해후(金海侯)에 봉했더니 나이 81세에 졸하였고,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그의 시는 화려하고 곱고도 밝고 맑아서 우리나라 사람의 궁벽하고 고루한 기습에서 꽤히 탈피하였다. 그의 <노상(路上)>에,

말 위에 꼬덕꼬덕 축도난⁹⁸을 읊으면서 | 馬上行吟蜀道難

다시금 오늘 아침 진관(감숙성에 있는 관문(關門))으로 들어갈 제 | 今朝始復入秦關

푸른 구름 저문 날에 어부수(감숙성에 있는 수명) 막혀 있고 | 碧雲暮隔魚鳧水
붉은 나무 아침 숲은 조서산(감숙성에 있는 산명)이 여기라네 | 紅樹朝連鳥鼠山
문자는 남아 있어 천고 한을 더하였고 | 文字賸添千古恨
명리에 지친 몸은 언제나 한가할꼬 | 利名誰博一身閒

나의 생각 잠긴 곳은 안화사 옛 길에서 | 令人最憶安和路

죽장 망혜 짚고 신고 오가던 그 일편을 | 竹杖芒鞋自往還

하였는데, 내가 살고 있는 연암(燕巖) 뒷산 기슭에서 한 재 마루턱을 격하여 안화사(安和寺)의 옛 터가 있으므로 익재의 이 시를 읊을 때마다 그가 죽장 망혜로 이 사이에 서성이던 것을 연상하기도 하려니와 저 축도(蜀道)·진관(秦關)·어부(魚鳧)·조서(鳥鼠)의 이야기를 듣고서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은 듯이 멎하였거든, 하물며 나의 이번 걸음은 또 익재가 이르지 못한 곳일까보나.

송(宋) 원풍(元豐) 7년(1084년)에 경동(京東) 회남(淮南) 고을에 조서를 내려 고려(高麗) 정관(亭館)을 세우게 하였으므로 밀(密)·해(海) 두 고을에 시소(時騷)가 일어 백성이 도망한 자가 있었다. 그 이듬해에 소식(蘇軾)이 그곳을 지나다가 제도의

97 강향(降香) : 유명한 사원(寺院)이나 묘우(廟宇)에 내리는 치전(致奠).

98 축도난(蜀道難) : 축도의 험준함을 읊은 이백(李白)의 시가 있다.

웅장 화려함에 감탄하여 시 한 수를 읊었으되,
 처마 끝 높이 솟아 담장 밖에 나르는 듯 | 簷楹飛舞垣牆外
 능가 숲은 쓸쓸하여 도끼 자취 뿐이고나 | 桑柘蕭條斤斧餘
 오랑캐의 종으로서 다 내주고 보니 | 盡賜昆耶作奴婢
 내 몰라라 그들에게 얻은 것이 무에런고 | 不知償得此人無
 하였으며, 동파(東坡)가 고려를 미워함이 이르는 곳마다 이러하니, 만일 그로 하
 여금 강희(康熙)가 세운 33참(站)의 찰원(察院 조선 사신의 내왕을 위해 설치한 숙
 소)을 보았던들, 그는 또 무어라 하였겠는가.
 황산곡(黃山谷 송(宋) 문학가 황정견(黃庭堅). 산곡은 호)의 〈차운목보증고려송선
 (次韻穆父贈高麗松扇)〉에,
 은 마구리 옥 물리고 깨끗한 고치 종이 | 銀鉤玉唾明繭紙
 솔 부채 가벼운 바람 한꺼번에 보내 주네 | 松箒輕涼并送似
 가에롭다 이 부채가 책구루고려의 성(城) 이름 를 멀리 건너 | 可憐遠度幘溝漣
 더위에 알맞음이 내대자(피서립(避暑笠))와 어머하고 | 適堪今時襪襪子
 라 하였고, 또
 옥보다 결백한 문인 기운이 높고 차고 | 文人玉立氣高寒
 삼한에 사신 가서 삼신산을 보았다네 | 三韓持節見神山
 안기생(중국 신선의 이름)의 불사약을 의당고 얻어다가 | 合得安期不死藥
 티끌 속 이내 몸에 옛 겹질을 벗겨 주리 | 使我蟬蛻塵埃間
 하였으니, 이제 와서는 고려의 송선(松扇)이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
 다.
 내 일찍이 고 태사(高太史) 역생(械生)의 좌상(座上)에서 반정균(潘庭筠)의 〈차왕
 추사한류시(次王秋史寒柳詩)〉를 외었더니 한자리에 앉았던 손들이 모두 좋다고 칭
 찬한다. 나는 이내,
 “왕추사(王秋史)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풍명재(馮明齋) 병건(秉健)은,
 “이는 곧 역성(歷城) 왕 진사(王進士)인데, 이름은 평(平)이요, 자는 추사(秋史)이

며, 자호(自號)를 칠십이천주인(七十二泉主人)이라 하였으니, 반(潘)의 시에,
칠십천 소리소리 돌 절구질 하는 듯이 | 七十泉聲亂石舂
는 곧 이를 두고 이른 것이랍니다.”

하고, 능사헌(凌蕤軒 사헌은 능야의 호) 야(野)는,
“국조(國朝)의 시인으로서는 많이들 추사를 추앙합니다. 그는 일찍이,
어지런 폭포 속에 나막신 소리 누구던고 | 亂泉聲裏誰通屐
누른 잎 숲 사이에 스스로 글을 쓰네 | 黃葉林間自著書
라는 글귀를 읊었고, 그는 또,
누른 잎 떨어질 제 황소 등에 해 늦었고 | 黃葉下時牛背晚
푸른 뫼 이지러진 곳 술 취한 손님 지나가네 | 靑山缺處酒人行
를 읊었으므로, 한때 사람들은 그를 왕황엽(王黃葉)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한다.

고 태사 역생 풍승기(馮乘驥 풍병진. 승기는 자) 등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명성당(鳴盛堂)에서 이야기하다가 도보(道甫 이조 때의 문학가·서예가 이광사(李匡師)의 자)가 쓴 글씨첩 하나를 내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살펴보더니, 이윽고 나에게,
“이 글씨는 동한(東韓)에 있어서 어떤 등류(等流)에 속합니까.”
한다. 나는 이에 대하여 멍하니 무엇이랴 대답하기 어렵기에 다만,
“우연히 행장(行裝)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여, 스스로 옛날 조자(趙資)⁹⁹의 말처럼 슬쩍 피해버렸다.¹⁰⁰
《일하구문(日下舊聞 주이준(朱彝尊) 저)》에 《동국사략(東國史略 저자 미상)》과 《고려사(高麗史 정인지(鄭麟趾) 등의 저)》 열전(列傳)의 말을 실었는데, 그 글에,
“고려 세자(世子)가 원(元)에 들어가서 원제(元帝)를 편전(便殿)에서 만날 제, 그가 무슨 글을 읽느냐고 물으니, ‘세자는 선비 정가신(鄭可臣 고려 때의 정치가. 자는 헌지(獻之))·민지(閔漬 고려 때의 문학가. 자는 용연(龍涎))가 따라왔으며 시위

99 조자(趙資) : 삼국 때 오(吳)의 번사. 자는 덕도(德度). 조위(曹魏)에 사신 갔을 때 임기응변이 많았다.

100 슬쩍 피해버렸다 : ‘고 태사 역생 …… 피해버렸다’ 까지의 이 한 절은 다른 본에 없던 것을 이에 ‘일제 본’에 의하여 넣었다.

하는 여가를 타서 그들에게 《효경(孝經)》과 《논어(論語)》를 질문합니다.’ 하였더니, 원제가 기뻐하여 세자에게 명하여 그들과 함께 들어오게 하고 자리를 주고서, ‘본국(本國)의 세대(世代)가 서로 전해온 순서와 치란(治亂)의 자취와 풍속의 아름다움을 말하라.’ 하여 조금도 지루하게 여기지 않고 들었다. 그 뒤 공경에게 명하여 교지(交趾 월남(越南))를 치려고 할 때 그 두 사람을 불러 함께 의론하니, 그 진술한 것이 뜻에 맞기에 정가신에게는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주고, 민지예겐 직학사(直學士)를 제수하였다.”

하고, 열전(列傳)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원제(元帝)가 세자를 자단전(紫壇殿)에서 불러 볼 때 가신이 뒤를 따랐더니, 원제가 명하여 앉게 하고 이내 명하여, ‘갓을 벗기되 수재(秀才)는 머리를 묶을 필요가 없으니 의당 건(巾)을 써야 될 것이야.’ 하였다. 그리고 어안(御案) 앞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둥글면서도 조금 뾰죽하고 빛은 깨끗하며, 높이는 한 자 다섯 치며, 그 안은 술 댕 말쑥 수용될 만하다. 이는 마하발국(摩訶鉢國 미상)에서 바친 낙타조(駱駝鳥)의 알이라 한다. 원제가 세자에게 구경시키면서 이내 세자와 종신(從臣)들에게 술을 내리고 가신으로 하여금 시를 읊게 하였다. 가신이 시를 드리되,

알이라 했지마는 크기는 항아리라 | 有卵大如甕

그 속에 간직한 건 늙지 않는 봄이리다 | 中藏不老春

원컨대 천세 수를 입이 먼저 누리시고 | 願將千歲壽

남은 은택 나누어다 해동에도 미치소서 | 醺及海東人

라 하니, 원제가 기뻐하여 자기의 식탁에서 국을 하사하였다.”

주곤전소지(朱昆田小識)¹⁰¹

주곤전(朱昆田)은 상고해 말하건대, 고려의 세자는 곧 충선왕(忠宣王) 장(璋)이다. 그는 일찍이 만권당(萬卷堂)을 수도에다 지은 자이고, 정가신은 동국(東國)에 있을 때 《친추금경록(千秋金鏡錄)》을 지었으며, 민지는 《세대록년절요(世代錄年節要》고려사》에는 세대편년절요(世代編年節要)로 나옴》를 증수(增修)하였고, 또 《본국편년강목(本國編年綱目)》 42권을 지었다 하나, 아깝게도 그 책들을 얻어 볼 수가 없었다.

내 일찍이 〈자씨묘지명(姊氏墓誌銘)〉과 〈수씨이공인묘지명(嫂氏李恭人墓誌銘)〉을 지어서 중국 사람에게 부탁하여 해내(海內)의 아름다운 글씨를 받으려 하였다. 호부 주사(戶部主事) 서대용(徐大裕 진 때의 문학가. 자는 효목(孝穆))은 호주(湖州) 사람으로 애초부터 서로 알지 못하는 처지였으나 시를 부쳐 왔다.

바다 밖에 경을 전한 이름 높은 그 부자 | 海外傳經名父子
문을 닫고 진종일을 산중에 살고 있네 | 閉門終日在山中
평생에 부끄러운 일 서릉 글씨 못 따르니 | 平生遠愧徐陵筆
붉은 산호 저 필가를 부러워하지 않는다고 | 不羨珊瑚作架紅
그 둘째이다.

지석 글씨 이 두 편을 뒷날에 연마하여 | 二銘他日爲工書
천애에 부쳐 드려 어김이 없으리라 | 遠寄天涯定不虛
들 따오기¹⁰² 집 닭이니 웃지나 마음소서 | 野家雞休竊笑
부재한 저 젊은이도 상여(한(漢) 때의 문학가. 사마상여(司馬相如))에 질 바 없다고
| 不才年少亦相如

101 주곤전소지(朱昆田小識)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제가 없이 별주(別注)로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철루 본’을 좇았다. 주곤전은 주이준(朱彝尊)의 아들인데, 자는 서준(西峻) 또는 문양(文盎).

102 들 따오기 : 유익(庾翼)의 고사. 여기에서는 서대용이 스스로를 들 따오기에 비하였다.

하고는, 또 자주(自注)를 하였으되,

“이때 행기(行期)가 벌써 바뻘으므로 소해(小楷)를 짓지 못하고, 잠깐 표제(表弟)를 시켜 쓰고 그 초본(草本)은 아직 머물러 두었으니, 다시 써서 부쳐 드릴 생각입니다. 이를 연암(燕巖) 족하(足下)께 드리오니, 한 번 웃고 받으시옵소서. 양호(陽湖)척암(惕菴) 서대용(徐大裕)은 초하옵니다.”

하였다. 그 글씨를 본즉, 역시 아름다운 글씨였고 두 명(銘)은 전당(錢唐) 양정계(楊廷桂)가 쓴 것인데, 양정계는 곧 서대용의 표제(表弟)이다.

오조(吳照)는 강서(江西) 사람이다. 그의 자는 조남(照南)이요, 호는 백암(白菴)이다. 그가 석호(石湖)에 놀 때 지은 시가 모두 아름다웠다.

그 첫째이다.

울창한 동산 내 사라져 새벽 햇빛 누르고녀 | 茂苑煙鎖曉日黃
두어 소리 노를 저어 횡당(산서성에 있는 명승지)으로 가자스라 | 數聲柔櫓出橫塘
푸른 뒀 둘러 있어 면면이 그림이라 | 靑山面面開圖障
한 탑이 솟았으니 이곳이 상방이요 | 一塔凌空見上方
그 둘째이다.

작은 물결 바람 불어 가는 비늘 체질하네 | 水縐微波漾細鱗
떼를 지은 해오라기 호숫가에 서 있고나 | 沙鷗白鷺立湖濱
치이자는 어디 있노 옛 풍류를 상상하니 | 風流想像鷗夷子
이 땅에 고사 남아 미인(서시(西施))을 실었다네 | 此地曾經載美人
그 셋째이다.

능가산 그 기슭에 그 절이 능가사라 | 楞伽山下楞伽寺
산 어구에 물 둘러여 한 굽이가 비꼰고나 | 水繞山門一曲斜
새벽 중 치고라도 까치는 날지 않고 | 敲罷曉鍾鴉未散

빈 낭각 고요한데 오동꽃만 떨어지네 | 空廊人靜落桐花
그 넷째이다.

어린 벼삭 짙막짙막 이랑마다 푸르를 제 | 短短秧針綠滿疇
물구름 아득하여 서늘한 가을 흡사코나 | 水雲渺渺似涼秋
이 사이 기쁨이란 농사가 제일이라 | 此間最是爲農樂
맨 종아리 계집아이 소 치기도 잘도 하이 | 赤脚吳娃解飯牛
그 다섯째이다.

마름잎 물에 떠서 들 오리를 덮는고나 | 菱葉浮波覆野鳧
아름다운 그 경개는 망천도¹⁰³가 분명코나 | 分明佳景輞川圖
비낀 다리 푸른 버들 몇 그루나 서 있던고 | 斜橋幾樹青青柳
옛 시인 범석호¹⁰⁴를 못내 그려 하노라 | 憶煞詩人范石湖
그 여섯째이다.

호수 밖엔 뫼가 있고 뫼 아래엔 밭이 있네 | 湖外有山山下田
비 내리나 내 끼이나 호수 빛은 다 좋을사 | 湖光宜雨亦宜煙
다른 날 이곳에다 내 집을 옮긴다면 | 他年我若移家住
밭 일이 곧 끝나자 배 저어 설렁이리 | 耕罷西疇便刺船
조(照)의 나이는 바야흐로 30여 세였고, 거인(舉人)이라 한다.¹⁰⁵

103 망천도(輞川圖) : 당의 시인 왕유(王維)가 있던 산서성의 명소 망천의 그림.

104 범석호(范石湖) : 송의 문학가 범성대(范成大). 석호는 호.

105 조(照) …… 한다 : “오조는 강서”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수택본’에서는 누락되었다.

피서록보(避暑錄補)

《조선시선(朝鮮詩選)》중에 이달(李達)의 〈보허사(步虛詞)〉를 실었다.

세 뿔이 높이 솟고 빨강 비단 날린다 | 三角嵯峨拂紫稍
머리카락 흩어진 채 가는 허리 드리웠다 | 散垂餘髮過纖腰
서왕모(중국 고대의 선녀(仙女))와 잔치 열어 언뜻 끝내고선 | 須臾宴罷西王母
한가락 난새 피리 벽도화로 향하누나 | 一曲鸞笙向碧桃
그 주(注)에 이르기를,

“삼한(三韓)의 부인은 머리칼을 틀어서 수식(首飾)을 만들었고, 처녀는 말아서 뒤 에다 드리웠는데, 모두 아계(鴉髻)를 짓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으므로 남은 머 리칼이 가는 허리에 드리워져 있다.”

하였으니, 이 책은 명의 유격장군(遊擊將軍) 남방위(藍芳威), 자(字)는 만리(萬里) 가 만력(萬曆) 임진년(1652년)에 우리나라를 구원하러 왔을 때 엮은 것이라 한다. 청장(靑莊 이덕무(李德懋))이 이르기를,

“이 책은 곧 오명제(吳明濟) 자어(子魚)가 동에 왔을 때 뽑은 것이니 어떤 경로를 밟아서 남(藍)의 것으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잘못된 곳이 많아서 아름다운 책(本)은 못 될 것이다.”

하였다. 마고(麻姑 중국 고대의 선녀)의 소상 정수리에, 머리칼을 뭉쳐서 상투를 만들고 남은 털은 흩어 드리웠다는 것은, 곧 보허사(步虛詞 중국 시인이 지은 보허 사)에 있는 말이니 어찌 반드시 유독 우리나라 부인만을 가리킨 것이리요. 남이 우 리나라 계집아이들의 머리 땀을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시를 풀이한 것이 었다.

만력(萬曆) 병오년(1606년)에 허균(許筠)이 신라와 고려 이래의 시가(詩歌)를 뽑아 서 4권을 만들어 주 태사(朱太史) 지번(之蕃)에게 보였더니, 주(朱)가 하룻밤 사이

에 모두 열람을 마치고, 그 이튿날 허균에게 말하기를,

“고운(孤雲 최치원(崔致遠)의 호)의 시는 약(弱)하고, 이인로(李仁老)와 홍간(洪侃)의 것이 가장 아름답다.”

하였다. 옛 역사를 상고하건대, 고려 이인로의 호는 쌍명재(雙明齋)인데, 일찍이 원(元)에 사신으로 가서 원조(元朝) 관문(館門)의 춘첩(春帖)을 지어 중국에 이름을 드날렸으니, 명(明)의 학사(學士)가 우리나라 사신을 만나면 그 시를 외어서 들려 주는 자가 있었다.

푸른 눈썹 아리따이 버들인 양 드리웠고 | 翠眉嬌展街頭柳

흰눈 펄펄 나부끼니 고개 위 매화 향기롭네 | 白雪香飄嶺上梅

천리라 우리 가원 의구한줄 믿어저라 | 千里家園知好在

봄바람이 남 먼저 알아 해동으로 오는구나 | 春風先自海東來

홍간의 호는 홍애(洪崖)였는데 그의 〈조조마상시(早朝馬上詩)〉는 다음과 같았다.

붉고 푸른 공중이요 시냇물은 흐르누나 | 紫翠橫空澗水流

풍연이 천리 아득 창주와 비슷하여라 | 風煙千里似滄洲

돌다리 서녘 기슭 남대로 예는 길에 | 石橋西畔南臺路

홀 괴고 뒤편 보니 한 해 가을 또 왔구려 | 拄笏看山又一秋

공자(孔子)는 일찍이 말씀하기를,

“나의 도(道)가 행하지 못할진대 뗏목 타고 바다로 뜨겠다.《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말)”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구이(九夷)의 나라에 살고 싶어라. 군자(君子)가 사는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논어》 자한에 나오는 말)”

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선비가 걸핏하면 이 말씀을 끌어 들여 구실(口實) 삼아 말하기를,

“공자께서 환란의 시대에 태어나셔서 위태롭고 어지러움을 싫어하여 도가 이미 행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곧 동쪽으로 올 것을 생각하여 감탄의 말씀을 나타낸 거야.” 하였다. 김우문(金宇文 청(淸) 학자) 허중(虛中 김우문의 호)의 <기유세서회(己酉歲書懷)>에 이르기를,

충충히 나라를 떠난 지 문득 한 해를 격했구려 | 去國慇懃遂隔年

공사에 유익이 없이 두 일이 다 아득하고녀 | 公私無益兩茫然

당시에 의논한 일 굳지가 못할시고 | 當時論議不能固

오늘의 궁한 시름 어여쁠사 그 무언가 | 今日窮愁何足憐

살거나 죽거나 인연이 정해 있고 | 生死已從前世定

올거나 그르거나는 뒷사람에 맡기리라 | 是非留與後人傳

외로울사 이내 몸이 상수로 들지 못할진대 | 孤臣不爲沈湘恨

삼한의 별유천을 창연히 바라려네 | 悵望三韓別有天

라 하였으니, 그가 출처(出處)의 즈음에 걱정이 많았던 것이었으므로 은근히 시가(詩歌) 중에 뜻을 붙였으니, 대체로 신세(身世)가 곤궁해서 문득 동으로 오기를 생각하여, 적이 스스로 공자가 살고 싶었던 뜻에 의거하려 한 것이었다.

중국 사람이 나에게 선비화(仙飛花)란 어떤 것인가를 물었으나, 나는 그 나무는 다른 종류가 없을뿐더러 일이 영괴(靈怪)에 가까웠으므로 대답하지 않았다. 퇴계 선생(退溪先生)께서 읊은 선비화수(仙飛花樹)에 이르기를,

옥인 양 높이 솟아 절 문을 비겼으니 | 擢玉亭亭倚寺門

석장이 화한 뿌리라고 중은 말을 하는고야 | 僧言錫杖化靈根

그 가지 머리에는 조계수 있었으니 | 枝頭自有曹溪水

천지간 우로 은택 빌리지 않으리라 | 不借乾坤雨露恩

라 하였으니, 이 나무는 순흥(順興)부석사(浮石寺 영주군(榮州郡)에 있다)에 있는데, 이는 곧 신라 시대의 옛 절이다. 신라 때 중 의상(義湘)이 장차 서역(西域)으로 들어갈 제 석장을 그가 살고 있던 집 문앞 처마 밑에 꽃으면서 이르기를,

“내가 떠난 뒤 이 지팡이에 반드시 가지와 잎이 돋을 것이요, 또 이 나무가 마르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음을 알지어다.”

라 하였다. 의상이 떠난 뒤, 절 중이 그가 거처하던 방에다 소상을 모셨더니, 그 지팡이는 창 앞에서 곧 가지와 잎이 돋았는데 비록 일월의 광명은 쏘였으나 우로(雨露)의 은택은 입지 않았다. 길이는 겨우 처마에 닿을 만큼 한 길 남짓하여 1천 년 동안 한결같았다.

광해군(光海君) 때 경상 감사(慶尙監司)정조(鄭造)가 이 절에 이르러 이 나무를 보고 요수(妖樹)라 하여 톱으로 베어 버리게 하였다. 절 중이 죽음으로써 다투었으나, 정조는 이르기를,

“선인(仙人)이 짊었던 지팡이를 나도 짊고 싶다.”

하고는 마침내 끊어 갖고 가 버렸다. 그 나무에서는 곧 두 줄기가 뻗어나서 전날 것과는 다름이 없었다. 계해년(1623년) 반정(反正 인조 반정) 때에 정조는 대역(大逆)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그 나무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길이 푸르르고 또 잎이 피었다 떨어졌다 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선비화라 불렸으나, 역시 꽃 피는 것은 보질 못하였다. 박홍준(朴弘僞)은 내 일가 사람인데, 그가 어릴 때 이 절에서 놀다가 장난으로 그 한 줄기를 끊었으나 나무는 다시금 줄기가 솟아 전과 다름없더니, 홍준은 수십 년 전에 곤장에 맞아 죽었다. 우연히 이에 기록하여 부박한 청년들에게 경계하기로 한다.

선조(宣祖) 신묘년(1591년) 간에 성주(星州)쌍계사(雙溪寺) 중이 종이 한 쪽을 바위 틈에서 발견하였는데 절구(絕句) 열 마디가 씌어 있었다. 그 첫째 마디에 이르기

동쪽이라 이 나라에 화개동이 예 있으니 | 東國花開洞
 술향아린 양 그 가운데 별세계가 있더구나 | 壺中別有天
 선인이 예 있으니 옥베개를 베인 채 | 仙人堆玉枕
 그 신세 어떻던고 천년이 잠깐이라 | 身世倏千年
 하였는데, 그 글씨의 획이 깨끗하였으며 세속에서 전하는 고운의 필적과 크게 다름이 없었다.

금(金)의 사람들이 고려의 일을 읊은 시 중에는 아름다운 글귀가 많았다. 이 승지(李承旨) 안(晏)의 자는 치미(致美)인데,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읊은 <평주중화관 후초정(平州中和館後艸亭)>에 이르기를,

등꽃이 깔린 땅에 향내는 아직 남고 | 藤花滿地香仍在
 솔 그림자 높이 솟아 차가움이 흠어졌구나 | 松影拂雲寒不收
 노는 손님 이를까보아 산새는 두려워하는 듯이 | 山鳥似嫌遊客到
 한 소리 울음 울어 작은 정자 고요를 깨치누나 | 一聲啼破小亭幽
 라 하였고, 왕 도운(王都運) 적(寂)의 자는 원로(元老)이니, 계주(薊州 중국 직예성(直隸省)에 있는 주명(州名)) 옥전(玉田 현명(縣名))에 살던 사람이다. 그의 <송장 중모사삼한(送張仲謀使三韓)>에 이르기를,

바다에 비친 깃발들은 낙랑으로 나가누나 | 照海旌出樂浪
 집에 들고 성묘하니 이 길이 빛나누나 | 過家上塚路生光
 압록강 복사 잎은 건널목에 맞이하고 | 鴨江桃葉朝迎渡
 파령에 송화 따서 밤 들어 차 달이네 | 嶺松花夜煮湯
 조서를 삼가 지님 지초인 양 수결 놓고 | 恩詔肅持芝檢重
 취한 채찍 낮게 드리우니 옥 갈집이 길디기오 | 醉鞭低裊玉鞘長
 길가 백성 웃으면서 천차 길을 가리키되 | 遺民笑指天車道
 남양의 성 다른 임금 흡사히도 같을세라 | 酷似南陽異姓王
 라 하였다. 그의 자주(自注)를 상고하여 보면,

“고려에서는 중국 사절(使節)을 가리켜 모두들 천차(天車) 아무 벼슬이다 하였으니, 이 일이 염자수(閔子秀)의 《압강일기(鴨江日記)》에 실려 있었다.”

라 하였고, 장한(張翰)의 자는 임경(林卿)이니 수용(秀容 미상)에 살던 사람이다. 고려에 사신으로 와서 읍은 <과평주관(過平州館)>에 이르기를,

어저께 용천관(의주관(義州館))이 벌써 보니 기이하여 | 昨日龍泉已自奇
한 봉우리 푸른 빛이 처마 눌러 나직해라 | 一峯寒翠壓簷低
두 가지 겹하였음이 평주관만 못하더군 | 兼并未似平州館
지붕 위엔 층 봉우리 집 아래엔 시냇물을 | 屋上層巒屋下溪
라 하였고, <금교역(金郊驛)>에 이르기를,

산관이 소연하여 이다지 맑았으니 | 山館蕭然爾許清
이경 머리 위에 가을 기운 깨달았네 | 二更枕簟覺秋生
서넛 창 시 읊을 곳이 더욱 아름다우구려 | 西窓大好吟詩處
솔 소리 듣고 나서 또 들으리 빗소리를 | 聽了松聲又雨聲
라 하였고, 채송년(蔡松年)의 자는 백견(伯堅)이니, <고려관중(高麗館中)>에 이르기를,

참조개 높은 품미 아침 해장 도와주고 | 蛤蜊風味解朝醒
솔 위에 구름 어리어 비가 개지 않는구나 | 松頂雲凝雨不晴
고요한 층층 처마 사람 소리 끊어지고 | 消消重簷斷人語
푸른 향아리 봄 죽순에 술을 함께 기울이네 | 碧壺春筍更同傾
늦바람 높은 나무 홍금이 맑디맑고 | 晚風高樹一襟清
사람과 푸른 향아리 서로 비취 밝았고나 | 人與縹甕相照明
사녀(진(晉)의 여류 문학가)의 가는 읊음 깊은 운치 있으니 | 謝女微吟有深致
해산과 별과 달이 모두들 정에 걸리누나 | 海山星月摠關情

라고 하였고, 이훤(李通)의 자는 평보(平甫)이니, 그의 <사고려(使高麗)>에 이르기를,

나라를 멀리 떠나 오천 리를 예 왔으나 | 去國五千里
오히려 말머리는 동으로 향하누나 | 馬頭猶向東
벼슬에 얹힌 정은 파초 덮은 사슴이요 | 宦情蕉葉鹿
속세에 관한 맛은 역귀 속의 벌레라 | 世味蓼心蟲
피로한 베개 위엔 삼경의 꿈이 오고 | 倦枕三更夢
먼길 손님 얹은 옷엔 팔월 바람 불었에라 | 征衫八月風
산천의 가을 빛이 눈앞에 가득하니 | 山川秋滿眼
돌아가자 외론 생각 기러기에 부치려오 | 歸思寄孤鴻
라 하였고, 위뇌계(魏雷溪) 도명(道明)의 자는 원도(元道)이니, 그의 <고려관편량정시(高麗館偏涼亭詩)>에 이르기를,

푸른 바다 반 굽이에 달팽이 뿔 그 나라요 | 碧海半灣蝸角國
봄바람 겨우 십 리 오리 머리 물결치네 | 春風十里鴨頭波
라 하였으니, 여기에서 이 나라가 극히 좁고도 작아서 족히 눈에 차지 못하다는 의
미가 넘쳐 흘렀다. 평양연광정(練光亭) 주련(柱聯)에 써 있는,
긴 성 한 편에는 넘실대는 그 물이요 | 長城一面溶溶水
넓은 들 동쪽 머리엔 점점이 산이로다 | 大野東頭點點山
라 하였으나, 이는 애초부터 아름다운 글귀가 아니었으니, 만일 중국 사람으로 하
여금 이곳에 올라와 보게 했다면 어찌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으리요.



양매시화서(楊梅詩話序)

내가 유황포(俞黃圃) 세기(世琦)를 유리창(琉璃廠)에서 처음 만났는데, 그의 자(字)는 식한(式韓)이며 거인(舉人)이다. 그 뒤 열하로부터 북경에 돌아오자, 곧 황포와 약속하여 양매서가(楊梅書街)에서 이야기하기를 무릇 일곱 차례나 하였다. 황포가 해내(海內)의 명사들을 많이 소개하였다. 능 거인(凌舉人) 야(野), 고 태사(高太史) 역생(域生), 초 한림(初翰林) 팽령(彭齡), 왕 한림(王翰林) 성(晟), 풍 거인(馮舉人) 승건(乘健) 등이 모두 재주가 높고 운치가 맑아서, 그들의 작품에는 편언(片言)과 척자(隻字)라도 입맛에 향기롭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필담했던 초고가 거의 여러 명류(名流)들이 가져간 바 되었다. 그리하여 돌아올 때 행장을 점검하여 보니 겨우 10분의 3,4가 남았는데, 더러는 술취한 뒤에 이룩된 난초였고, 또는 저무는 햇빛에 달린 필적이었다. 비유하건대 마치 저 여산(廬山)¹의 새벽 구름인 양, 참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또는 소옹(小翁 중국 고대 선인(仙人))이 휘장을 가리고 앉아 옥패(玉佩) 소리가 더딘 듯싶었다. 엄계(嚴溪)²에서 한가한 날에 며칠 아침을 뒤적거리서 비로소 그 순서를 정하였다. 아아, 당시의 일을 상상해 보건대, 나 홀로 붉은 난간에 비스듬히 기대서 많은 손님을 눈맞이 하니 말과 수레가 앞뒤를 잇달았으며, 언론이 시작되어 흥금을 터놓고 농담을 주고받던 일이 마치 눈에 보이는 듯하며, 이야기가 분분하여 마치 저 담화(曇花)³가 어지러운 듯하였다. 긴 해를 보내면서 파리채⁴를 휘두르며 손과 팔이 함께 바빴으니, 인간에 이 기쁨이야말로 어느 때에 잊어질 수 있으리요.

전방표(錢芳標)의 자는 보분(寶汾), 또는 보분(葆汾)이니, 강남(江南) 화정(華亭)에 사는 사람이다. 병오년에 거인(舉人)으로서 벼슬이 중서사인(中書舍人)에 이르렀다. 일찍이 <내직잡시(內直雜詩)>⁵가 있으니, 그 1절에 이르기를,

1 여산(廬山) : 강서성(江西省)에 있는 명승지(名勝地).

2 엄계(嚴溪) : 연암서당(燕巖書堂) 앞에 있는 시내 이름.

3 담화(曇花) : 《법화경(法華經)》에서 이르는 우담발화(優曇鉢花)의 약어.

4 파리채 : 사슴의 꼬리로 만든 불자(拂子). 이야기를 할 때 휘두르는 제구.

5 <내직잡시(內直雜詩)> : 내부(內府)에 당직(當直)하면서 잡감(雜感)을 읊은 시.

붉은 주사 거듭 찍어⁶ 경전 그 빛 고운 종이 | 丹砂印重鏡箋勻
 조선서 보낸 글월 해 걸러 자주 오네 | 隔歲朝鮮拜表頻
 섬나라 낭호필이 망가졌음 못 믿거나 | 不信狼毫窮島筆
 승두 같은 글씨⁷ 위부인의 필첩이네⁸ | 蠅頭慣擗衛夫人
 라 하였다. 중국 사람이 흔히들 우리나라 백추지(白硯紙 도침(搗砧)한 백지)와 낭
 미필(狼尾筆)로서 시편(詩編)에 나타내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에는 애초에 낭(狼)
 이 없었으니 어찌 그 꼬리로써 만들 수 있었으리요. 보분(寶汾)이 이른바 ‘경전(鏡
 箋)’⁹이란 곧 백추지였으니 종이가 몹시 매끄럽고, 낭의 털이란 곧 우리나라 사람
 의 이른바 ‘황모(黃毛)’였으니, ‘황(黃)’이란 곧 예서(禮鼠 족제비)였으나 국산 예서
 는 쓸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국내에서 쓰는 것이 모두 당황모(唐黃毛)였음에도 불구
 하고 중국 사람은 이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자관(寫字官)이 중엽
 (中葉) 이전에는 모두 위부인의 글씨체를 썼으나, 요즘에 이르러서는 모두 홍무
 정운체(洪武正韻體)¹⁰를 쓰게 되었다.

6 붉은……찍어 : 시전지(詩箋紙)에 붉은 주사로 무늬를 찍은 것.

7 승두 같은 글씨 : 파리 대가리처럼 가는 글씨.

8 위부인의 필첩이네 : 진(晉)의 왕희지(王羲之)의 스승이던 위부인이 쓴 서첩(書帖).

9 경전(鏡箋) : 거울같이 맑고 매끄러운 시전지.

10 홍무정운체(洪武正韻體) : 명(明)의 홍무(洪武) 때에 악소봉(樂韶鳳) 등이 칙명을 받들어서 편찬하였
 다.

양매시화(楊梅詩話)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의 사장(詞章)을 뽑을 때는, 대체로 잘 다듬어 빛깔을 내기도 하려니와 깎아 내기도 하고 끊어 버리기도 하여, 다만 그 유명한 글귀만을 뽑았던 것이다. 비유하건대, 거친 숲을 불사른 뒤에야 아름다운 나무가 스스로 나타남과 다름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하자과 잘못되었던 것을 덮어서 아름다운 경지(境地)로 이끌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습속에는 반드시 남의 문장이나 험한 글귀들을 꼬집어 내곤 하였다. 그리하여 가끔 농조로 쓰여진 시제(詩題)나 글귀는 일시적인 농담에서 나온 것으로서, 반드시 그 사람의 기억에 남아 있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도 기어코 남에게 전파(傳播)하여 그의 이름과 성을 들어서 질책하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려니와, 더러는 이 한 가지의 일로서 그의 일생의 업적을 덮어 버리기도 하였으니,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내 일찍이 왕사진(王士稹)¹¹이 엮은 《감구집(感舊集)》을 보았는데, 그 중에 청음(淸陰)¹²의 시(詩)를 뽑았으되 고치고 끊어 버린 것이 많기에 상세히 기록한다.

11 왕사진(王士稹) : 청(淸)의 이름 높던 문학가. 호는 어양산인(漁洋山人).

12 청음(淸陰) : 조선 인조(仁祖) 때 사람 김상헌(金尙憲)의 호.

동란섭필

동란섭필서(銅蘭涉筆序)¹

내가 유황포(俞黃圃) 세기(世琦)를 찾았더니, 책상 위에 무늬 있는 돌로 만든 연병(硯屏)이 놓였고, 연병 옆에는 난(蘭) 한 포기 있었다. 자세히 보니 구리를 부어서 만든 것인데, 봉 같은 눈이 바람을 맞으며 자줏빛 이삭이 이슬에 젖었으니, 참으로 기이하게 만들었다. 나는 며칠 동안 빌려다가 내가 거처하는 방 동쪽 벽 밑에 놓고, 편액(扁額)을 ‘동란재(銅蘭齋)’라 하였다.

1 동란섭필서(銅蘭涉筆序) : 모든 본(本)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본’에 의하였다.

동란섭필(銅蘭涉筆)

건륭(乾隆) 41년 병신(1776년)에, 유구(琉球) 사신이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돌아가기를 청했다. 유구 정사(正使) 이목관(耳目官) 상숭유(尙崇猷)와 도통사(都通事) 모경창(毛景昌)이 사정에 따라 빨리 돌아갈 것을 승낙해 달라고 청한 글에,

“승유 등은 왕명을 받들고 건륭 39년(1774년)에 조공을 하고자 복건(福建) 무창(撫昌)으로부터 병패(兵牌)를 발급 받고, 연로(沿路)에서 일행의 호송(護送)을 받아 작년 12월 1일에 북경에 도착했습니다. 은혜로운 분부를 내려 반열에 따라 행례하게 되고, 조하(朝賀)할 때와 원조(元朝)와 명절에는 작은 나라의 말직 관리로서 천안(天顏)을 가까이서 뵈었고, 게다가 상급(賞給)과 식사까지 돌봐 주시어, 승유 등은 감격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공무를 이미 끝내고 한가히 거처하고 있습니다. 유구는 땅이 해외에 속하여 왕래할 때는 오로지 바람만 믿고 있으니, 이때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귀국할 시기에 알맞기 때문입니다. 승유 등이 북경에 올 때는 바로 한겨울이라, 강물이 얼어서 부득이 왕가영(王家營)을 거쳐 바로 육로로 왔습니다. 지금 돌아간다면 때가 바로 중춘(仲春)이라, 바람은 화창하고 땅은 따뜻하여 기정(起程)하기에 알맞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청하오니, 대인(大人)은 황상의 지극한 뜻을 받들고 멀리서 온 자의 사정을 보살피, 전례에 비추어 육로로 제령(濟寧 산동성에 있다)까지 가서 배를 타고 돌아가도록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로 하면 응당 미리 대인에게 글로 밝혀야 될 일이오나, 빨리 칙서와 병부(兵部)의 문서를 2월 초순 안으로 내리도록 주청해 주시면, 승유 등은 소식을 듣는 대로 출발하겠사온 바, 실로 이 은혜는 천추에 잊지 못할 것입니다. 건륭 41년 1월 24일에 갖추어 올립니다.”

하였는데, 그 서술이 솔직하고 말이 간곡하였다. 이것은 옛 당보(唐報 관보의 일종)에 실린 것인데, 이번에 우리나라 사신이 몇 번 올린 글도 응당 당보에 실려서 천하에 유전(流傳)될 것이다.

유구국이 조공을 하는 규례는 유황(疏黃) 1만 근, 적동(赤銅) 1천 근, 석랍(錫蠟) 3

천 근이라 한다.

《태평어람(太平御覽)》²에 이르기를,

“한(漢) 때의 괭리자고(霍里子高)는 조선 사람이다. 새벽에 일어나 배를 젓다 보니, 한 백수(白首) 광부(狂夫)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찬 채 물을 건너려 할 때, 그 아내가 말렸으나 듣지 아니하고 드디어 물에 빠져 죽었다. 그 아내는 공후(箜篌)를 뜰으며 노래를 불렀다.

임은 가람 건너지 마옵소서 하였으나 | 公無渡河

임은 기어이 가람 건너시다가 | 公終渡河

임은 빠져 숨졌으니 | 公淹而死

임이시여 그 어찌할꼬 | 當奈公何

그 소리가 몹시 처절하였는데, 곡조가 끝나자 역시 물 속에 몸을 던져 죽었다. 자고는 집에 돌아와 노랫소리를 옮겨서 그의 아내 여옥(麗玉)에게 이야기했더니, 여옥은 매우 슬퍼하면서 공후를 이끌어 그 노래를 본떠서 불렀으니, 이것을 ‘공후인(箜篌引)’이라 한다.”

하였다. 내가 열하에서 태학(太學)에 있을 때 악기를 구경했으나, 소위 ‘공후’라는 것은 보지 못했고, 여러 번 사람을 시켜 북경 유리창(琉璃廠)에 가서 보게 하였으나, 이 악기를 얻어 보지 못하여 그 모양을 알지 못하였다.

천비(天妃)는 세속에서 전하기를 ‘황하(黃河)의 귀신’이라 한다. 이제 청(淸)에서 칙령으로 천후(天后)로 봉하였다는 바, 회회(回回) 사람들이 이 교에 많이 들었다고 한다. 천비라는 귀신의 열두 글자의 존호(尊號)는 청의 사전(祀典)에 실려 있다. 우리나라 도포와 갓과 띠는 중국의 중옷과 흡사하다. 그들이 여름에 쓰는 갓을, 혹은 등(藤)으로 만들고, 혹은 종려(棕櫚)로 만들기도 한다. 도포는 특히, 깃이 모가 난 것이 좀 다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포는 모두 검정 공단이거나 문사(紋紗)를 쓰고, 가난한 자는 오히려 수화주(秀花紬)나 야견사(野繭紗)로 도포를 만들어

2 《태평어람(太平御覽)》: 송 태조(宋太祖)의 명을 받아서 이방(李昉) 등이 엮었다.

입는다. 나는 변의(卞醫) 관해(觀海)와 더불어 옥전(玉田) 어느 상점에 들어갔더니, 수십 명이 둘러서서 우리들이 입은 베도포 만든 제도를 자세히 구경하다가, 매우 의아하게 여기면서 저희들끼리 서로 말하기를,

“저 중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니, 한 사람이 희롱으로 대답하여,

“사위국(舍衛國) 급고원(給孤園) 석가여래가 설법하던 곳)으로부터 왔겠지.”

한다. 우리들이 조선 사람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도포와 갓을 보고 서 결승(乞僧)들과 비슷하다고 조롱하는 것이다. 대체로 중국의 여자와 승려(僧侶)와 도류(道流)들은 옛날 제도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관은 모두 신라의 옛 제도를 답습한 것이 많았고, 신라는 처음에는 중국 제도를 본뜬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풍속이 불교를 숭상하므로, 민간에서는 중국의 중옷을 많이 본떠서 1천여 년을 지난 오늘에 이르도록 변할 줄을 모르고, 도리어 중국의 승려가 우리의 나라 의관을 본떴다고 말했으니, 어찌 그렇겠는가.

중의 갓이, 등나무 실로 짠 것은 그 빛이 우리나라 초립(草笠)과 같고, 종려나무 실로 짠 것은 우리나라 주립(朱笠)과 같다. 등나무 갓에는 종려나무 실로 무늬를 놓고, 종려나무 갓에는 등나무 실로 무늬를 놓는다. 몽고 사람들도 역시 여름철에 갓을 쓰는데, 가죽으로 만들어 도금(鍍金)을 한 위에 구름 무늬를 그린 것이 많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겨울에도 갓을 쓰고 눈 속에도 부채를 들어, 타국의 치소(嗤笑)를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향시(鄕試 지방고시) 규정은 첫 번째 사서(四書)로 글짓는 것 세 편과 성리론(性理論) 한 편을 일주야에 마치고, 두 번째로 경문(經文) 네 편과 배율(排律)³ 한 편을 하루 동안에 마치고, 세 번째로 책(策)⁴ 다섯 편을 역시 일주야에 마치는데,

3 배율(排律) : 장편시로서, 글귀마다 운율을 배열(排列)하는 시제(詩體)의 하나.

4 책(策) : 산문으로 문제에 따라 자기의 포부와 실력을 서술하는 문체의 하나.

모두 천여 자씩 된다. 회시(會試)⁵ 규정도 역시 향시와 같고, 전시(殿試)⁶는 단번에 책(策) 한 편을 써서 역시 일주야에 마치는데, 반드시 글은 만여 자가 되어야 한다. 또 이 격식에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한림(翰林)에 들어갈 수 있고 전시 뒤에는 또 조고시(朝考試)가 있어 조(詔 황제의 지시문) · 고(誥 황제의 교서) · 논(論 논문) · 시(詩) 등을 시험보이는데, 시간은 하루로 계산하여 마친다. 향시나 회시에서, 다섯 편 책(策) 중 세 조(條)는 옛날 역사에서 글제를 내고, 두 조는 시무(時務)에서 제목을 낸다. 전시는 시무뿐이요, 한 번 향시에 합격하면 이내 거인(舉人)이 되고, 회시 때마다 직접 응시할 수 있다. 비록 회시에 합격을 못하더라도, 10여 년 뒤에는 고을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탁오(李卓吾 명(明)의 사상 · 문학가 이지(李贄), 탁오는 자(字))는 머리가 가려워서 공공연하게 머리를 깎았더니, 중국 사람들은 또한 그를 흉성(凶性)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대체로 중국 사람들이 머리를 깎을 징조라고 할 것이다. 지금 중국 사람의 머리 깎는 풍속은 금 · 원 시절에는 없던 풍속이니, 만일 중국이 낳은 진주(眞主) 명 태조(明太祖) 같은 이가 있다면, 건곤(乾坤)을 맑게 숙청할 것인데, 우민(愚民)들이 이런 습속에 젖은 지도 이미 1백여 년이 지나고 보니, 또한 머리를 묶고 모자를 쓰자면 도리어 가렵고 불편하다고 할 자가 없지 않았다.

내가 중국에 들어오는 연로(沿路) 2천여 리 사이에, 때는 바야흐로 여름과 가을의 중간이라, 지독한 더위로 낮에는 언제나 네댓 번씩 말에서 내려 인가에 들어가 쉬어 가곤 했다. 두 길이나 되는 파초(芭蕉)며, 태호석(太湖石 태호산(太湖產)의 괴석(怪石))이며, 도미(荼蘼 꽃이름)를 올린 시령이며, 반죽(斑竹)으로 두른 난간들을 왕왕 보았고, 섬돌을 덮은 푸른 대와 주렴에 가득 찬 푸른 오동나무를 도처에서 많이 보았다.

고려 때는 송의 장삿배들이 해마다 자주 예성강(禮成江)에 닿았으며, 백화(百貨)가 물려들었다. 고려왕은 예절을 차려서 대우했으므로, 당시에 서적들은 훌륭히 갖추

5 회시(會試) : 향시에서 급제한 자를 수도에 모아서 치르는 두 번째의 고시로서, 합격자에게는 진사(進士)라는 학위를 주었다.

6 전시(殿試) : 황제가 직접 정전에서 보이는 중앙 고시의 일종.

어졌고, 중국의 기물(器物)로서 안 들어온 것이 없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뱃길로 중국 남방과 통상을 하지 못하므로 문헌에는 더구나 캄캄하며, 삼왕(三王)⁷의 일을 몰랐던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강남(江南)과 통하므로, 명(明)의 말년에 고기(古器)와 서화와 서적과 약료(藥料)가 장기(長崎) 지방에 폭주(輻輳)하여, 지금의 겸가당(兼葭堂) 주인 목씨(木氏) 홍공(弘恭)의 자는 세숙(世肅)인데, 3만 권의 책을 가지고 중국의 명사와도 많은 교제가 있다고 한다.

반선(班禪)이 거처하는 자리는, 앞은 평상이요 뒤는 거울이며, 왼편에는 종을 달았고 오른편에는 옥을 걸었으며, 위에는 물을 소반에 떠 놓았고 아래에는 보도(寶刀)를 걸었는데, 진종일 분향하고 있다 하니 아연히 한 번 웃을 일이다.

지금의 호부 상서(戶部尙書) 화신(和珅)은 황제의 충신(寵臣)으로, 구문제독(九門提督)을 겸해서 귀명(貴名)이 조정에 떨치고 있다. 황제의 탄일(誕日)에 내가 산장(山莊) 문밖에 이르렀더니, 공헌(貢獻)하는 물건들이 문 앞까지 폭주하고 있는데, 모두 누른 보를 덮은 것이 금부처가 아니면 옥그릇들이라 했다. 화신이 실어 온 물건은, 진주로 만든 포도 한 덩굴이 그 속에 있었다고 하며, 금과 은·오동(烏銅)으로 빛을 내어 덩굴과 잎을 만들고, 화제(火齊 구슬의 일종)와 슬슬(瑟瑟 구슬의 일종)로 포도알을 만들었는데, 이야말로 초룡주장(艸龍珠帳 극단적인 사치품)이라 아니할 수 없겠다.

강희황제(康熙皇帝)의 만수절(萬壽節)은 3월인데, 강희 계미년(1703년) 이날은 구경(九卿)이 모두 고옥(古玉)과 서화를 진상하여 축하하였다. 물건은 모두 내부(內府)로 받아들이는데, 왕사정(王士禎 왕사진의 별명)은 당시 형부 상서(刑部尙書)로 있으면서, 역시 자기 집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왕진경(王晉卿 송(宋)의 관리) 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⁸ 장권(長卷) 뒷장에 미원장(米元章)의 글씨와 동파(東坡)의 긴 시구가 쓰인 것을 바쳤더니, 강희는 분부하여 말하기를,

7 삼왕(三王) : 명(明)이 망한 뒤에 남방으로 도망한 왕족으로서, 임시 정부를 조직한 복왕(福王)·계왕(桂王)·당왕(唐王).

8 연강첩장도(煙江疊嶂圖) : 연기가 끼인 강물에 첩첩이 쌓인 산을 그린 것이다.

“저번에 가져 온 그림들은 대개 옛 물건이 없고, 이 그림 뒤에 있는 미원장의 글씨가 매우 아름다우니, 특히 받아들이고 사정을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이것으로 강희 시절의 고옥(古玉)이나 서화를 헌납하는 절차가 미상불 걸치레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바, 이것이 다시 바뀌어 금부처와 진주 포도로 되고 말았은즉, 신하로서 사사로이 황제에게 물건을 선사하는 버릇은 강희가 처음 열어 놓은 것이다. 화신은 방금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으므로, 황제도 역시 말하기를,

“신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제 집 일은 잊어버리고 내게만 바치는구나.”

라고 한 것으로 보아, 황제는 장차 반드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사해의 부자로서도 이런 진주 포도가 없었는데 화신은 대체로 어디서 이것을 얻었을까.”

그렇게 되면 화신도 위태로운 처지이다.

경직도(耕織圖)는 송(宋) 때 생겼는데, 오잠령(於潛令)으로 있던 사명(四明) 누도(樓璘 송(宋)의 관리)가 지어서 사릉(思陵 송(宋) 고종(高宗)의 능)에 헌납했다. 단(段)마다 현성 황후(憲成皇后)의 제자(題字)가 있는데, 강희 때에 와서 다시 명령해서 모사하였으니, 단마다 강희의 시가 친필로 씌어 있다. 건륭 연간에는 휘주(徽州)의 지방관이 각 단에 먹판각으로 본떠서 정교하게 새겼다. 먹은 모두 네 갑인데, 한 갑에 먹 열두 개씩을 넣어 값이 은 1백 30냥이 된다고 한다. 건륭 신묘 연간(1771년)에 그 값이 이렇다고 했는데, 병신년(1776년)에는 값이 떨어져 80냥이 되었다고 한다. 이번에는 나는 몸소 유리창(琉璃廠)에 와서 두 갑을 찾아내었는데 사람의 솜씨로 만든 것 같지는 않았다. 나는 서문포(徐文圃) 황(璜)에게 값을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먹은 질품이 아니요, 또 차서로 보아 먹 두 자루가 빠졌으므로,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지만, 그대로 값은 60냥에서 떨어지지는 않는다.”

라고 하였다.

서황(徐璜)은 내게 말하기를,

“장서(藏書)를 좀먹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한식(寒食)날 밀가루에다 납일(臘日)날 받은 눈 녹인 물을 섞어 풀을 쭈어서 장황(裝潢)을 하면 좀이 먹지 못하고, 조협(皂莢)의 가루를 책 속에 넣어 두면 역시 좀이 먹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송의 왕문헌(王文憲 미상)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양필방(養筆方 붓을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유황(硫黃)을 끓여 붓촉을 퍼서 담그는데, 소동파는 황련(黃連 한약재)을 끓인 물에 경분(輕粉 한약재)을 섞고 붓촉을 적시었다가 말려서 간수했다고 합니다. 황산곡(黃山谷)은 천초(川椒)와 황벽(黃蘗 한약재)을 달인 물에 붓을 적시어 보관하면 더욱 좋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방사(方士)의 말에 삼신산(三神山)은 봉래(蓬萊)·방장(方丈)·영주(瀛洲)인데, 바다 가운데 있어서 언제나 신선이 왕래하면서 놀고 사는 데라고 한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이런 산이 있다 하고, 우리나라는 역시 금강산을 봉래라 하고, 제주 한라산(漢拏山)을 영주라 하고, 지리산을 방장이라 하고 있다. 《황여고(皇輿考)》에는 이르기를,

“천하의 명산이 여덟이 있는데, 그 중에 다섯은 중국에 있어 태산(泰山)·화산(華山)·소실(少室)·수양(首陽)이요, 그 외에 셋은 외지에 있다.”

하였으니, 이것은 잘못된 말이다. ‘황여고’에는 방사의 말을 따라 세 산이 외지에 있다고 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분분하게 저마다 있고 없는 것을 겨루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천하의 명산이 어찌 여덟에 그칠 것이라. 중국의 명산이 어찌 다섯에 그칠 것이며, 외지의 명산이 또한 어찌 셋에만 그칠 것이라.

‘황여고’에는,

“천하에 큰물 셋이 있어 황하(黃河)·장강(長江)과 압록강이 그것인데, 압록강은

역시 외지에 있다.”

하였고, 《양산묵담(兩山墨談)》 진정(陳霆)의 저(著)에 이르기를,

“장회(長淮)는 남북의 큰 한계가 되는데, 장회 이북은 북조(北條)가 되어 모든 물은 황하를 조종으로 삼고 있으므로 ‘강(江)’이란 이름을 붙인 물은 없고, 장회 남쪽은 남조(南條)가 되어 모든 물은 대강(大江 양자강(揚子江))을 조종으로 삼고 있으므로 ‘하(河)’라는 이름을 붙인 물은 없다. 두 가닥 물 이외에 북으로 고려에 있는 물은 혼동강(混同江)·압록강이라 하고, 남으로 만조(蠻詔 지명)에 있는 물은 대도하(大渡河)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禹)의 치수 사업 중에 들지 않았다.”

하였으나, 나는 이 말들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과 하(河)는 맑고 흐린 것으로 구별한 것이니, 내가 압록강을 건널 때 강 넓이는 한강(漢江)보다 넓은 것이 없으나, 물이 맑기는 한강에 비할 만했다. 북경에 이르기까지 무려 물을 10여 차나 건너면서, 때로는 배로 건너고 때로는 발로 건넜다. 물이름은 혼하(混河)·요하(遼河)·난하(灤河)·태자하(太子河)·백하(白河) 등인데, 어디나 누른 흙탕물이다. 대체로 들에 흐르는 물은 탁하고, 산골물은 맑다. 압록강의 발원지는 장백산으로서, 국경의 여러 산속을 흘러내리므로 언제든지 물이 맑다. 동팔참(東八站)의 여러 물들은 모두 맑으니, 이것도 이유는 같은 것이다. 나는 비록 장강(長江)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근원이 민아산(岷峨山) 같은 첩첩한 산중에서 발원하여 삼협(三峽)을 뚫고 내려올 것이고 보니, 물이 맑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소위 남조(南條)의 물들이 하(河)라고 이름 붙인 것이 없는 것은, 초(楚)의 남쪽은 산도 많고 돌도 많으므로 물이 모두 맑은 까닭이다. 그러니 만조(蠻詔)의 대도하(大渡河)도 필시 평양에서 발원하여 물이 탁하므로 하수라 불렀을 것이다.

양순길(楊循吉 명(明)의 문학가)의 지이(志異)에는 이르기를,

“황조(皇朝)의 문신(文臣)으로 가장 높은 품작(品爵)을 받은 자가 몇 명 되지 않는 중에, 위령백(威寧伯) 왕공(王公)이 그 한 사람이다. 공은 궁중 과거 보는 날을 당하여, 글쓰기를 겨우 마치자 갑자기 겨드랑 밑으로부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 종이

를 붙여올려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조정의 신하들과 함께 과거보던 자들은 일제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니, 그 시권(試券)이 점점 높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 마침내 보이지 않았다. 궁중의 관리들이 이 일을 황제에게 여쭙었더니, 명령을 내려 다른 종이로 다시 써서 올리게 하였고, 뒤에 공은 집현(執憲)의 벼슬을 거쳐 대사마(大司馬)를 지내고백작(伯爵)에까지 이르렀다.”

하였으니, 이는 곧 왕월(王越)의 사적이다. 우리나라 성종조(成宗朝) 때 경복궁(景福宮) 간의대(簡儀臺) 가에 중국 조정에서 쓰는 시권 한 장이 떨어져 있었는데, 봉함에 왕월의 이름이 붙어 있었다. 조정은 중국 사절 편에 이 시권을 보냈더니, 천자는 왕월의 사람됨이 남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가상히 여겨서 즉시로 집현의 직책을 맡겼다. 순길의 기록에는 다만 회오리바람이 시권을 날렸다는 말만 하고 그 시권이 어디에 떨어진 줄은 몰랐으며, 그가 집현을 거쳐 승진을 한 일은 죄다 말하면서, 실상 우리나라를 거쳐 천자에게 주달되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원시비서(原始秘書 저자미상)》에 이르기를,

“고려의 학문은 기사(箕子)로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학문은 서복(徐福 진 시황 때의 방사(方士) 서시(徐市). 복은 별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안남(安南)의 학문은, 한(漢)의 군현(郡縣) 제도를 세우고 자사(刺史)를 두어 중국의 문화를 퍼서 뒷날 오대(五代) 말기에 절도사(節度使) 오창문(吳昌文)의 시기에 와서야 성황을 이루었다. 중국으로부터의 문화가 외지로 퍼져 나간 지 수천 년 사이에, 그들의 학문이란 모두 이적(夷狄)의 풍습을 면하지 못하고 궁하며 고루해서, 성인의 가르침을 계승하기 부족함은 대개 그 성음(聲音)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묘하고 심오한 이치야 붓 끝으로 가히 전할 수 없으므로 서로 합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가위 절실한 이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음(叶音)의 묘미를 알지 못하므로 유미암(柳眉菴)⁹을 지음(知音)에 능하다고 불렀지만, 그가 언문(諺文)

9 유미암(柳眉菴) : 조선 중종(中宗) 때 학자 유희춘(柳希春). 미암은 호요, 자는 인중(仁仲). 암(菴)은 암(巖)이 잘못된 것이다.

으로 해석한 모시(毛詩)¹⁰는 협음을 따르지 못하였으므로, 운(韻)이 끊어진 곳이 많았다. 예를 들면, ‘왕희지차(王姬之車 《시경》중의 문구)’란 차(車) 자를 마(麻) 자 운을 따르지 않고 어(魚) 자 운을 따라서 ‘거(車)’ 음으로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유양잡조(酉陽雜俎 단성식(段成式) 저(著))》에 보면,

“요사이 어떤 바다 사람이 신라로 가는 길에 바람에 밀려서 한 섬 위에 이르니, 산에 가득하게 흑칠(黑漆) 젓가락이 달린 큰 나무가 많았다. 그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젓가락들은 모두 칠나무의 꽃이나 수염들이다. 그는 이내 백여 쌍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써 보았더니, 무거워서 쓸 수가 없었다. 뒤에 우연히 이 젓가락으로 찻물을 젓다가 보니, 그대로 녹아 버렸다.”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허튼 소리만 같다. 우리나라 남쪽 섬 속에 만일 이런 나무가 있었다면, 어찌 듣지 못했을 이치가 있으랴.

허항중(許亢宗 미상)의 《행정록(行程錄)》에는,

“동주(同州)로부터 40리를 가서 숙주(肅州)에 이르러 동쪽을 바라보면 큰 산이 보이는데, 금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신라산(新羅山)이라 부르고, 이 산중에는 인삼과 백부자(白附子) 같은 약재가 많이 나는데, 그 산이 고구려와 접경해 있다.”

하였으나, 이것은 허튼 소리다. 동주와 숙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금 나라 사람들이 ‘신라산’이라 가리킨 데가 어찌 고구려와 접경이 될 수 있겠는가. 가위 남북의 위치가 뒤바뀐 셈이다.

〈고려인삼찬(高麗人蔘讚 작자 미상)〉에,

세 가지에 다섯 잎이 | 三椹五葉

양지를 등지고 응달로 향했구나 | 背陽向陰

나를 얻고져라 이곳을 오려거든 | 欲來求我

가나무 밑에 찾아와 주려무나 | 假樹相尋

10 모시(毛詩) : 《시경(詩經)》에 모형(毛亨)과 모장(毛萇)의 전(傳)이 있으므로 ‘모시’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중국의 문헌에는 이 글을 많이들 싣고 있다. 유자나무 잎은 오동잎과 비슷하면서 매우 넓어서 그늘이 많이 지므로, 인삼이 이런 음지에서 자란다고 한다. 가나무는 곧 우리나라에서 책 판각에 쓰는 이른바 ‘자작나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천한 것인데, 중국에서는 분묘(墳墓)에 이 나무를 많이 심어서, 청석령(靑石嶺 심양과 산해관 중간에 있다) 같은 데는 숲을 이루고 있었다. 《대당신어(大唐新語 당(唐) 유숙(劉肅) 저(著))》에 보면,

“이습예(李襲譽 당(唐) 관리. 자는 무실(茂實))는 성질이 검소하고 독서를 좋아해서 책을 베낀 것이 수만 권이나 되었는데, 그는 자제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토록 가난하나, 수도에는 나라에서 하사한 밭이 열 이랑이 있어 밥은 먹을 수 있고, 하남(河南)에는 뽕나무 1천 주를 심어 둔 것이 있어 옷은 입을 수 있고, 책 1만 권을 베껴 두었으니 넉넉히 벼슬자리를 구할 만하니, 너희들은 함께 이 세 가지에 근면한다면, 무엇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할 것인가.’ 하였다.”

하였으니, 나 역시 성질이 재물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으나, 평생에 베낀 책을 점검해 보니 불과 10권이 차지 못하고, 연암 골짜기에 손수 심은 뽕나무가 겨우 열 두 포기로, 긴 가지라는 것이 겨우 어깨에 닿을지 말지 하매, 일찍이 슬픈 한탄을 금할 수 없었던 바, 이번에 요동(遼東)을 지나오면서 밭가에 둘러선 뽕나무숲을 바라보다가, 끝없이 넓은 것을 보고는 또 망연히 정신만 얼떨떨하여졌다.

중원 사람들은 《시경》의 소서(小序 복상(卜商)이 지었다 한다)는 반드시 없앨 수 없다고 하는데, 완정(阮亭황사진의 호)의 말은 아주 공정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정자(程子 정이(程頤))가 소서를 일러, ‘이것은 반드시 당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역사에서 성공과 실패의 자취를 밝혀 전하려고 한 것이다.’ 한 것이 곧 이것이다. 이것이 없었다면 이 시편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또 대서(大

序 복상이 지었다 한다)는 중니(仲尼)의 저작으로서, 모두 대의를 얻은 것이라 하였는데, 주자는 두 정자(程子 정호(程顥)와 정이)를 학문의 조종으로 삼으면서도 소서에 이르러서는 의견을 달리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학초망(郝楚望 명(明)의 학자 학경(郝敬). 초망은 호)이 시 한 편마다 반드시 주자의 주석을 반박한 것도 역시 옳지 못하다. 상숙(常熟) 고대소(顧大韶) 중공(仲恭 고대소의 자(字))은 책 한 권을 저술하는데 모전(毛傳 한(漢) 모형(毛亨)의 《시전(詩傳)》을 주장하되, 모전이 잘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야만 정주(鄭註 한 나라 정현(鄭玄)의 시경 주)를 참고하고, 모·정의 주가 반드시 통하지 않는 데가 있어야만 주자의 주석을 참고로 하였고, 모·정·주의 것이 모두 통하지 않을 때는 여러 학설을 망라해서 자기의 의견과 절충했다. 엄찬(嚴粲)의 시집(詩輯)은, 주자의 주석이 나온 이후에 특별히 제가(諸家)의 주석보다 우수하다 하나, 대전(大全)이란 것들은 주자의 주석을 부연한 것이므로 아무런 발명도 없으니, 장독 덮개로나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대저 중국 사람들이, 주자가 소서를 없앴 것을 배척하는 것은, 이 세상의 한 가지 큰 시론(時論)이 되었다. 주죽타(朱竹垞)의 《경의고(經義攷)》2백 권이다. 예는 주자를 배척하여 목과(木瓜 《시경》의 편명)에서 제 환공(齊桓公)을 찬미한 것이라든지, 자금(子衿 《시경》의 편명)에서 학교 폐지한 것을 풍자한 것이라든지, 야유만초(野有蔓草 《시경》의 편명)와 유왕(幽王)을 풍자하고, 정홀(鄭忽 정 나라의 공자(公子))을 풍자한 모든 시는 경전(經傳)을 깊이 상고하여 모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인데, 주자는 모두 이것을 반대하여 자기의 의사대로 함부로 결정해서 소서를 모두 없애 버렸다. 그러나, 그는 실상 소서를 많이 이용하면서, 유독 정(鄭)·위(衛)의 시¹¹만은 정성(鄭聲)을 버리라(《논어》에 나오는 구절)는 한 마디 말에 근거하여 모두 음탕한 시의 부류에 남겨 두었으니, 소리는 음탕하지만 시는 음탕하지 않다고 한 말은 서하(西河 모기령의 호) 모씨(毛氏 모기령(毛奇齡))의 학설로서, 대체로 소서를 두둔하는 자의 학설은 모두 이와 같았다. 말로는 이 주석이 주자의 친필이 아니요, 반드시 그의 문인의 손에서 나왔으리라 하지만, 이는 ‘문인’이란 명색을 붙여 마음놓고 공격하자는 심산인 것이다. 《송사(宋史)》 ‘유림전(儒林傳)’ 중에 왕백

11 정(鄭)·위(衛)의 시 : 《시경》중의 정풍(鄭風)과 위풍(衛風).

(王栢)이 말하기를,

“《시경》3백 편은 어찌 모두 공자의 손으로만 정착된 것이라. 추린 시 중에, 혹은 민간에서 부박한 입에 떠돌아다니는 시들 중에서 한(漢)의 선비들이 이것을 주워 모아 보태어 편찬했을 것이다.”

했으니, 이 말이 심히 이치에 합당하다. 그런즉 중국에서 지지(支持)하는 소서 중에 어찌 한(漢)의 선비들이 부회(傳會)한 것이 없겠는가.

내가 일찍이 초 한림(初翰林) 팽령(彭齡)과 고 태사(高太史) 역생(穉生)과 함께 단가루(段家樓)에서 술을 마시면서 분분히 소서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 내가 큰 소리로,

“《시경》 3백 편은 당시의 여항(閭巷)에 떠돌아다니는 풍요(風謠)에 불과할 것입니다. 즐겁고 아프고 희로(喜怒)와 애락(哀樂)이 있을 때에는 이런 소리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니, 후충(候虫)과 철새(時鳥)가 스스로 울고 읊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풍요를 모아서 글자와 구절을 맞추어 학교에 벌여놓고 악기에 맞춘 것이 소위 열국(列國)의 풍요로서 ‘시(詩)’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생긴 것입니다. 작자의 성명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소서》에는 시를 설명하면서 반드시 시의 저작자가 있다고 하며 이것이 누구누구의 작품이라고 하여 마치 후세의 《전당시(全唐詩)》와 같이 말하나, 이것은 틀림없이 억측으로서 초중경(焦仲卿)의 아내가 지었다는 것은¹² 엉뚱한 말입니다. <고시(古詩) 19수>¹³는 언제 작가의 성명이 있었습니까.”

하였더니, 여러 사람들이 모두 잠잠하였으나 겉으로 보건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았다. 대개 《소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자유(蘇子由 송(宋)의 문학가 소철(蘇轍), 자유는 자(字))로부터 시작하였고, 《소서》를 공격하기는 정협제(鄭夾際 송(宋)의 문학가 정초(鄭樵), 협제는 호)로부터 시작하였고, 주자의 주석을 공

12 초중경(焦仲卿)……것은 :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라는 장편 서사시(敘事詩)를 한말(漢末) 여강부(廬江府) 소리(小吏) 초중경의 아내가 지었다 하였다.

13 <고시(古詩) 19수> : 혹은 매승(枚乘)의 작이라 하고, 혹은 부의(傅毅)·장형(張衡)·채옹(蔡邕) 등이 지었다 한다.

박하기는 마단림(馬端臨 송(宋)의 학자) · 모기령(毛奇齡) · 주이준(朱彝尊) 등에게 이르러서 극심했으며, 근세에 와서는 아주 시의(時義)로 되어 버렸다.

오군(吳郡) 풍시가(馮時可 명(明)의 학자)의 《봉창속록(蓬窓續錄)》에,

“취두선(聚頭扇)은 곧 겹쳐 개는 부채로서, 영락(永樂) 연간에 중국에 공물로 들어 가 국내에 많이 유행되었다. 동파(東坡)는 말하기를, ‘고려의 백송선(白松扇)은 펴면 넓이가 한 자가 넘고 접으면 불과 두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된다 하였으니, 왜인들이 만든 겹정대 뼈에 금색으로 면을 칠한 것이 곧 이것이다. 내가 북경에 닿으니 외국 도인(道人) 이마두(利瑪竇)가 나에게 왜선(倭扇) 너 자루를 보냈는데, 합치면 손가락 하나의 부피도 못 되는데 매우 가볍고 바람이 잘 나고 또 든든했다.’ 하였다.”

했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중국에서 처음에는 이런 부채가 없었고, 모두 단선(團扇)으로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미선(尾扇)이었던 것이다. 대개 옛 그림에 보이는 파초잎 · 오동잎 · 흰깃 같은 것으로 만든 것이 이것이다. 우리나라 기물로서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이 많이 있으니, 접는 부채도 고려는 일본에서 배웠고 중국은 고려에서 배워 갔는데, 중국에서 큰 부채를 ‘고려선(高麗扇)’이라 부르면서 만든 품이 질박하고 조선 종이에 기름을 먹여 가는 서화를 그린 것을 자못 진기롭게 여겼다.

구라파 철현금(鐵絃琴)은 우리나라에서는 ‘서양금(西洋琴)’이라 부르고, 서양 사람들은 ‘천금(天琴)’이라 부르고, 중국인들은 ‘번금(番琴)’ 또는 ‘천금’이라 부른다. 이 악기가 어느 때 우리나라에 나왔는지 알 수 없으나, 향토 곡조를 여기에 맞추어 풀어 내기는 홍덕보(洪德保)로부터 시작되었다. 건륭 임진년(1772년) 6월 18일에, 내가 홍덕보의 집에 앉았을 때 유시(酉時 하오 6시)쯤 되어 그가 이 악기 해득하는 것을 나는 목견했다. 대개 흥은 음악 감상에 예민해 보였고, 또 이것이 비록 작은 예술이지만 벌써 그것이 맨 처음으로 된 발견이므로, 나는 그 일시(日時)를 자세히 기록했던 것이다. 그것이 전(傳)한 지 이제 9년 사이에 넓게 퍼져서 금사(琴師)로서 이를 탈 줄 모르는 자가 없었다. 오군 풍시가(馮時可)가 처음 북경에 와서 이

마두로부터 이것을 얻어 가졌는데, 구리 철사로 줄을 만들어 손으로 타지 않고 작은 나무쪽으로 건드리면 그 소리가 한층 더 맑았다고 했으며, 또 자명종(自鳴鍾)은 겨우 작은 향합만 한데 정밀한 쇠로 만들어서 하루 열두 시간에 열두 번을 치니 역시 이상하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모두 《봉창속록(蓬窓續錄)》에 실려 있었다. 대개 이 두 가지 기계는 명(明)의 만력 연간에 처음으로 중국에 전했다고 한다. 내가 있는 산중의 양금(洋琴)은 등에 《오음서기(五音舒記)》라고 낙인(烙印)이 찍혔는데, 만든 것이 매우 정밀하였으므로, 이번 중국에 온 김에 남의 부탁을 위하여 이것을 구해 보고자 두루 돌아다니면서 구경했으나, 소위 《오음서기》는 끝내 얻지 못했다.

《단청기(丹青記 저자 미상)》에 이르기를,

“왕유(王維 당(唐)의 문학가)가 기왕(岐王 미상)을 위해서 큰 돌을 한 개 그렸는데, 붓 가는 대로 휘두르고 보니 아주 천연(天然)의 운치가 있는지라, 기왕 보물로 여겨서, 때로 처마 밑에 홀로 앉아 주시(注視)하면서 산중 생각을 하노라니, 유연(悠然)히 넘치는 운치가 있었다. 그 뒤 몇 해를 지나니 그림에 더욱 정채(精彩)가 돌았는데, 어느 날 아침 폭풍우가 몰아치고 뇌성 벽력이 함께 일어나면서 갑자기 돌이 날려 가고 집도 함께 무너졌다. 웬 영문인지 모르다가 뒤에 보니, 그림 축(軸)에 빈 종이만 남았으므로 이에 그림에 있던 돌이 날아간 것을 알았을 뿐이다. 헌종(憲宗) 때 고려에서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모년 모월 모일에 큰 풍우가 일고 신숭산(神嵩山 개성(開城)의 송악) 위에 웬 이상한 돌 하나가 날아와 떨어졌는데, ‘왕유’라는 글자가 박혀 있으므로 중국서 날아온 돌인 줄을 알고 감히 그대로 머물러 둘 수 없어서 사신을 보내어 가져다 바칩니다’ 했다. 황제가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여 왕유의 수적(手蹟)을 가져다가 비교해 보았더니 터럭만큼도 틀림이 없었다. 황제는 비로소 왕유의 그림이 신묘한 것을 알고 국내에 두루 그의 그림을 찾아 궁중에 간직하고 땅바닥에 닭과 개의 피를 뿌려 돌이 날아가지 않도록 예방했다.”

하였으니,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중국 《제해(齊諧 괴담(怪談)을 수록한 글)》의 기록들이 허탄하고 틀린 것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고구려를 고려로 부

르는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고구려는 당 고종(唐高宗) 영휘(永徽) 연간에 망했
은즉, 허종 때에 어떻게 사신을 보낼 수 있었을 것인가. 또 왕씨의 고려는 송악산
(松岳山) 밑에 도읍했고, 송악을 ‘신숭(神嵩)’이라 불렀는데, 만약 이것이 왕씨의
고려였다면, 고려 태조가 나라를 일으킨 것은 주량(朱梁 주전충(朱全忠)이 세운 후
량(後梁)) 우정(友貞 후량의 말제(末帝))의 정명(貞明) 4년(918년)이니, 현종보다 1
백여 년 뒤 연대이고, 왕유는 또 당 명황(唐明皇) 때 사람인즉 현종보다 1백여 년
앞섰으니, 그 둘이 날아갔다는 이야기는 본래 황탄하고 기록도 또 심히 틀렸으니,
이는 필시 왕월(王越)의 시권 이야기를 희미하게 본떠 만든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동파(東坡)에게는 가장 잘못 보였던 모양이다. 고려가 송(宋)에게 서사
(書史)를 구하면, 동파는 한(漢)의 동평왕(東平王 동평현왕(東平憲王)) 고사(故事)
를 인용하여 상소를 올려 준열하게 배척했다. 그가 항주(杭州)통판(通判)으로 있을
때, 고려의 조공 사신이 주군(州郡)의 관리를 능멸(凌蔑)하고, 당시 사신을 인도하
는 관리들이 모두 관고(管庫 창고의 관리(管理))로서 세도를 믿고 제 맘대로 날뛰
어 예절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 사람을 시켜 이르기를,

“먼 지방 사람들이 중국을 사모하여 오니 반드시 공손하여야 할 터인데, 지금 보니
이렇게도 방자하니 이는 너희들이 잘못 지도한 것이라, 만일 이것을 고치지 않으
면 마땅히 황제께 아뢰리라.”

하니, 인도하던 관리들이 두려워서 수그러졌다. 고려 사신은 폐백을 관리에게 보
내면서 편지 끝에 날짜를 갑자(甲子)만을 썼더니, 동파는 이를 물리치면서,

“고려가 우리 조정에 신하로 자칭하면서 연호를 쓰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받
겠는가.”

하니, 사신은 글을 바꾸어 ‘희녕(熙寧 송(宋)의 연호)’이라 쓰자, 그제야 체례(體禮)
에 맞았다 하고 받았으니, 이것은 동파의 묘지(墓誌)에 실렸다.

원우(元祐) 5년(1090년) 2월 17일에 왕백호(王伯虎) 병(炳)을 만났더니 그는 말하
기를,

“옛날에 추밀원(樞密院)예방(禮房)검상문자(檢詳文字)로 있을 때 비로소 고려 공안(高麗公案)을 보았는데, 처음에 장성일(張誠一)이 거란 이야기를 하면서 거란의 군막 속에 고려 사람이 있어 자기 나라 임금이 중국을 사모하고 있다는 뜻을 말하더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돌아와 이를 황제에게 아뢰었더니, 황제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고려 사신을 불러 볼 뜻을 갖게 되었다. 추밀사(樞密使) 이공필(李公弼)이 뜻에 맞추어 친필로 문서를 황제에게 올려 고려 사신을 부르자고 청하여, 드디어 발운사(發運使) 최극(崔極)에게 명령하여 상인을 보내어 부르게 했다. 세상에서는 최극의 그른 것을 알면서도 공필의 잘못은 모르고 있으며 장성일 같은 자는 죽히 이야기할 것도 없었다.”
하였다.¹⁴

“회동제거(淮東提舉) 황실(黃實)의 말로는 고려에 사신으로 갔던 사람의 이야기로서, 보낸 선물 중에는 가짜 금은(金銀) 알이 있었는데, 고려인들은 모조리 깨뜨려 알맹이까지 쪼개 보니 사신들은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다. 이때 고려 사람들은, ‘감히 우리가 오만한 것이 아니라, 혹시 거란 사람들이 보고 진짜로 여길까봐 걱정스러워서 그러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고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보낸 선물을 거란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혹은 이 일을 상세히 알지 못하고는 말하기를, 거란이 고려가 우리에게 내통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고, 더러는 다른 기회에 고려로써 거란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자도 있으니, 이 어찌 틀린 것이 아니라.”¹⁵
하였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동파의 지림(志林)에 실려 있는데, 자첨(子瞻 소식의 자)은 당시 고려를 불러 사귀는 것을 실계(失計)라고 생각한 것이다. 여러 가지 기술(記述)한 것을 보건대 모두 국가를 위한 깊은 걱정이다. 그러나 당시 송(宋)의 사대

14 하였다. : ‘원우 5년……없겠다’ 여기에 이르기까지가 첫째 이야기다.

15 회동제거……아니라 : ‘회동제거’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가 둘째 이야기다.

부들은 유달리 고려가 중국에 향한 정성이 적심(赤心)에서 나온 것을 몰라 주었다. 요(遼)와 금(金)이 견제가 되어 있으므로 송을 섬기지 못한 것이 고려의 역대 조정으로서는 지극히 유감스러웠던 것이다. 송 나라 학자들의 서적을 얻으면 분향을 하면서 공손히 읽는 지극한 정성을 드러내지 못한 채, 한갓 중국의 사대부들로부터 천대를 받은 것은 족히 한심스러운 일이다. 나는 왕훙정(王鵬汀)과 더불어 극히 변명했던 것이다.

《명산기(名山記 저자 미상)》에 말하기를,

“강원도 금강산 속에 소(泓) 하나가 있으니 ‘관음담(觀音潭)’이라 한다. 소 가의 언덕 이름은 ‘수건애(手巾崖)’라 하고 돌 북판에는 오목하게 방아획 같은 데가 있으니 세속에서 전하는 말에는 관음보살이 빨래하던 곳이라 한다.”

하였다.

승정(崇禎) 정축년(1637년) 11월 11일 정조사(正朝使) 건주(建州)와 더불어 화해를 한 뒤이다. 한형길(韓亨吉) 조선 선조(宣祖) 때의 관리)과 서장관(書狀官) 이후양(李後陽 미상)의 일행이 사절로 갔을 때, 정례의 진상품 외에 별공(別貢)으로 홍시(紅柿) 30바리를 가져다 바쳤더니, 칙사는 또 다시 2만 개를 더 바치라고 독책한다. 당시의 칙사는 영아아대(英俄兒代 만인(滿人)) · 마복탑(馬福塔)¹⁶ · 대운증(戴雲曾 미상) 등으로 연로에서 말을 달려 사냥을 하면서 고을 기생들의 수청을 강요하여 조금이라도 여의치 못할 때는 매질을 하고 야료를 낭자히 했고, 왜인들도 역시 말 3백 필과 매 3백 마리와 황새 3백 마리를 구하였다. 이번 걸음에 가지고 온 방물(方物)이란 종이와 자리에 불과했으나, 중국은 우리가 유숙하는 비용을 치르는 것만 하더라도 언제나 10여만 냥이 든다고 하니, 청 나라 초기에 비한다면 가위 도리어 중국에 폐를 끼치는 셈이 된다.

서위(徐渭 명 나라 문학가)의 《노사(路史)》에 이르기를,

“당 나라 시절에 고려는 송연묵(松煙墨 소나무 연기 그을음으로 만든 먹)을 진상했

16 마복탑(馬福塔) : 청(淸)의 장수. 우리나라에서는 흔히들 마골대(馬骨大)라 한다.

는데, 이것은 송연(松煙)에다가 사슴의 아교를 섞어 만든 먹으로서 ‘유미(隃麋)’라고 불렀다.”

하였는데, 왕완정(王阮亭)의 고증에 의하면, 한(漢)의 고을 이름으로서 유미라는 데가 있는데, 그 땅에서 석묵(石墨)이 나기는 하나 고려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을 뿐, 당 나라 시절에는 애초에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일까. 유미에서 난다는 석묵은 필시 요사이 쓰고 있는 석탄일 것이다. 한 나라 시절에는 석탄을 뭇 줄은 모르고 석묵이라 했는지 모르겠다.

명(明)의 만력 9년(1581년)에 서양 사람 이마두(利瑪竇)가 중국에 들어와 북경에 머무른 지 29년에 중국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도 그를 믿는 자가 없었고, 다만 그의 역법(曆法)을 주장한 자는 서광계(徐光啓 청 나라 과학자) 한 사람뿐으로 드디어 그는 만세력(萬歲曆)의 조종(祖宗)으로 되었은즉 ‘만력(萬曆)’이란 연호는 이마두가 중국에 들어올 조짐이었던가.¹⁷

만력 임진년(1592년)에 신종(神宗) 천자가 군사를 크게 내어 동쪽으로 우리나라 난리를 구했는데, 이 당시 내부(內府)의 은을 허비한 것이 8백만 냥이라 한다.

신라 시대 토산(土產)으로 대화어아금(大花魚牙錦) · 소화어아금(小花魚牙錦) · 조하금(朝霞錦) · 백접포(白氎布)가 있었다.

왕원미(王元美 왕세정(王世貞). 원미는 자(字)는 조선 종이를 일컬어 주었고 서문장(徐文長 서위(徐渭). 문장은 자)은 조선 종이로서 돈 같이 두꺼운 것을 심히 사랑했고, 종백경(鍾伯敬 명 나라 문학가 종성(鍾惺). 백경은 자)은 일찍이 조선 종이에 당(唐) 유신허(劉慎虛 당 나라 문학가)의 시 14수를 썼다.

중국에서는 진사(進士) 급제(及第) 출신으로 일갑(一甲)이 세 사람인데, 첫째가 ‘장원(壯元)’이요, 다음이 ‘방안(榜眼)’이며, 또 다음은 ‘탐화(探花)’라 하여, 장원은 즉 시로 한림원(翰林院) 수찬(修撰)의 벼슬을 주고, 방안과 탐화는 한림원 편수(編修)를 준다. 이갑(二甲)은 8·90명인데 그 중 첫째는 ‘전려(傳臚)’라 하여 역시 한림의 벼슬을 주고, 삼갑(三甲)은 백여 명 되는데 이갑과 함께 모두 조고(朝考 황제가 친림하여 보이는 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바, 혹은 한림 후보도 되고, 혹은 육부(六

17 만력……조짐이었던가 : 만력(萬曆)이란 연호가 만세력(萬歲曆)을 운한 참언(讖言)이라는 것이다.

部)의 주사(主事)도 되고, 혹은 지현(知縣)도 되고, 여기에 참여 못하면 진사로 되 돌아간다. 우리나라에서 지별(地閥)을 따져서 3관(館)¹⁸에 벼슬을 나누는 규정에는 비할 바 아니다.

옹정(雍正) 임자년(1732년)에 역관(譯官) 최수성(崔壽誠)이 고교보(高橋堡)를 지나다가 오광빈(吳光霽)을 만났다고 한다. 광빈은 일찍이 오삼계(吳三桂)의 위조 사령을 받고 이 때문에 귀양살이를 하다가, 그대로 눌러 이곳에 살아 왔는데 당시에 나이 87세로 귀가 먹고 정신이 혼몽하여 아무런 수작도 못하고, 당시의 문적(文籍)들을 내어 보냈는데 그 첫째의 것은,

“천하도초토병마대원수주왕(天下都招討兵馬大元帥周王 오삼계(吳三桂)의 손자 오세번(吳世璠))은 관직을 올려 임명한다. 우주가 혼몽하여 긴 밤중에 사는 것 같은데, 우리러 천의(天意)를 받들어 의병을 일으켜 백성을 구하고자 하니, 반드시 슬기롭고 용맹 있는 인재를 얻어 함께 승평한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 여기에 오광빈을 얻게 되어 금오시위유격(金吾侍衛遊擊)에 임명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임명하는 본을 보인다. 이 때문에 문건을 출급하는 데 해당 관원은 여기에 따라 일을 맡을 것이다. 너는 이 임무를 맡고 반드시 더욱 분발하고 노력할 것이요, 그 반열에 처하여 공훈을 많이 세워 등용한 책임을 담당하라. 만일 특수한 공로를 세울 때는 자연 특별한 관직과 포상이 있을 것이니 너는 부디 배나 노력할 것이다. 이 문건을 유격 오광빈에게도 준용할 것이다. 주(周) 4년(1681년) 5월 27일.”

이라 하였고, 그 둘째의 것은,

“병부(兵部)의 관리를 승임시키는 데 관하여 내리노라. 홍화(洪化 주(周)의 연호) 원년(1678년) 7월 16일, 병과(兵科)에 뽑힌 이소보(李少保)와 금오위좌장군(金吾衛左將軍) 호제(胡題) 등을 등용함에 관한 문건에 의하면, 이번에 알게 된 시위유격(侍衛遊擊) 오광빈은 사람이 되어 노련하여 응당 참장(參將) 직함을 주고, 국내의 일을 맡길 터인 바, 오광빈의 임명장에 의한 비준 문서를 보내라는 것이다. 이것은

18 3관(館) : 예문관(藝文館) · 교서관(校書館) · 성균관(成均館).

협의를 의하여 임용하기로 하였는데 병부에서는 이에 따라 준수할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문건을 갖추어 보내니, 해당 관리는 해당 부서의 지시에 따라 직무를 맡길 것이다. 이상 임명을 받은 오광빈은 이대로 시행하라. 홍화 원년 7월 21일.”

이라 하였고, 또 하나의 문서는 호부(戶部)에서 관원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청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광빈에게 호부원외랑(戶部員外郎)으로 임명한 문건이다. 여기에도 “홍화 2년 7월 26일”이라 하였고 인장과 수결이 갖추어졌다 하니, 대개 오삼계는 군대를 일으킨 지 4년 만에 연호를 고치고 스스로 <구석선문(九錫禪文)¹⁹⁾>을 지은 것은 이극용(李克用 후당(後唐)을 창립한 임금)으로서도 못한 바로서, 그는 죽음을 맹세하고 다음날 당(唐)의 사직(社稷)을 회복하기를 약속했던 것이다. 대명(大明)의 유민(遺民)들이 날마다 의기(義旗)를 바라고 있는데 천하에 누가 주가(周家)의 ‘홍화’라는 연호를 알까보냐. 오광빈은 오히려 이 문건을 가장(家藏)의 고적으로 삼고자 하였으니, 그의 뜻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요, 또한 당시의 정치가 관대했다는 것도 짐작되는 일이다.

흡독석(吸毒石 독기를 빨아내는 돌)은 크기가 대추만 하고 검푸른 빛깔이다. 소서양(小西洋)에 있는 일종의 독사(毒死) 머리 속에 든 돌인데, 이 돌은 능히 사갈(蛇蝎)과 지네 같은 여러 가지 독충들에게 물린 상처를 낫게 하고, 발치와 일체의 독종과 악창을 고친다. 이 돌을 종기 부위에 놓으면 종기 부위에 붙어 떨어지지 않다가 독기를 다 빨아내면 돌이 저절로 떨어지고 종기는 당장에 낫는다 한다. 그러나 반드시 사람의 젖(乳) 한 종지를 준비했다가 떨어진 돌을 빨리 집어넣어 젖빛같이 약간 노란빛이 날 때까지 담가 둔 후에 맑은 물에 잘 씻고 닦아서 다음 번에 쓸 수 있도록 한다. 만일 너무 오랫동안 젖에 담가 두면 돌의 독이 모두 빠져서 오랜 뒤에는 영험이 없어진다 한다.

산해관(山海關)에 가기 10여 리 전에 강녀묘(姜女廟)가 있다. 새로 행궁(行宮)을 세웠고, 망부석(望夫石) 옆에는 조그만 정자가 있어 ‘진의정(振衣亭)’이라 부른다. 진(秦)의 시절에 범칠랑(范七郎)이 장성(長城)을 쌓다가 육나산(六螺山) 아래서 죽었

19 구석선문(九錫禪文) : 천자가 제후에게 최고 공훈을 표창하는 아홉 가지의 문건을 내릴 때의 고시문.

는데, 그의 아내는 허(許)씨(氏)요, 이름은 맹강(孟姜)으로, 섬시 동관(同官) 사람이다. 혼자 수천 리를 가서 칠랑의 유해를 간수해 가지고 이곳을 지나면서 쉬었다고 하여 후세 사람들이 사당을 세웠다 한다. 강녀(姜女)는 마침내 유해를 지고 바다로 들어가 죽었는데, 며칠이 못 되어 바다 가운데서 바윗돌 하나가 솟아나 조수가 밀려 와도 물에 잠기지 않았다 한다. 망부석이란 세 글자는 태원(太原) 백휘(白暉)의 글씨요, ‘작여시관(作如是觀)’ 낙 자는 내각수찬(內閣修撰) 하정좌(賀廷佐)의 글씨요, 이반(李蟠)이 지은 사기(祠記)는 고병(高鼎)의 글씨다. 사당 뒤에는 비석 네 개가 섰는데, 하나는 장간(張揅)의 글로서 황명 만력 갑오년(1594년)에 세운 것이요, 하나는 장시현(張時顯)의 글로서 만력 병신년(1596년)에 세웠고, 하나는 정관이(程觀頤)의 글로서 강희 기유년(1669년)에 세웠고, 하나는 고제대(高齊岱)의 글로서 강희 무진년(1688년)에 세운 것이다. 당의 시절 왕건(王建)이 읊은 ‘망부석’은 무창(武昌)에 있는데, 후자는 이르기를,

“진의 시절에는 섬(陝)이라 부르지 않고 낭(郎)이란 이름도 없었으며, 강(姜)이라는 성을 보아서 제(齊)의 계집일 것이다.”

라고 한다.

왕민호(王民皐)는 청의 건국에서 한 임금 제도를 찬미하여,

“밖으로는 삼왕(三王)이요, 안으로는 이교(二教)라 하였으니, 이는 대저 석가와 노자(老子)의 학설에 유교를 섞어서 빛깔을 낸 것입니다.”

한다. 옹정(雍正) 시대에 황제에게 비밀히 청하는 자가 있어, 중들을 모두 배필을 정해 주어 환속(還俗)하도록 하면 직속 군대 백만은 얻을 것이라 했으므로, 옹정은 조서를 내려 통유(洞諭)하기를,

“불교와 노교는 심성(心性)의 근원과, 선악의 감응(感應)과, 이기(理氣)의 근본에 두고 있다. 예로부터 천하를 다스리는 자는 윤상(倫常)에 근본을 두고 사업의 공적에 표준하였으니, 이 두 가지 교는 예악(禮樂)과 형정(刑政)의 구역에 참여하지 않

았다. 그것이 혹 밝은 교화에 방해될까 두려워서 밝은 임금과 어진 천자는 이것을 소홀히 하여 멀리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사람의 성품에 어긋난다고 하여 이것을 없앴다는 일은 듣지 못했다. 요새 나에게 비밀히 불교를 혹독하게 비방하면서 중들을 모두 환속시키자고 청하는 자가 있으나, 내가 걱정하는 것은 비록 한 지아비 한 지어미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하게 될까 걱정하는 바이다. 이제 그들의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속인으로 만든다면, 제자리를 얻지 못하는 자가 수백만 명이 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중들은 곧 환과(鰥寡)와 고독(孤獨)으로서 마땅히 불쌍히 여겨야 할 자들이다. 소위 이학(理學)을 한다는 자들은 석가와 노자를 욕하는 것으로써 스스로 이학자로 자처하고 있으나, 이 습관은 어느 경전에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무릇 이학이란 궁행 실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데, 만일 헛되이 석가와 노자를 비방하는 것으로써 이학을 삼는다면, 이는 천박한 생각일 것이다. 국가가 이학을 떠받드는 뜻은 본래 이같은 뜻이 아니니, 만일 요망한 말로써 사람들을 의혹시키고 작간과 범죄를 하는 자가 모두 중이라 한다면, 그들이 자기 교에 실천 궁행이 없음이지 기율을 범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동이 어찌 이교의 책임이라 하겠느냐. 또 요사이 중죄를 범하고 극형을 받은 자가 하필 승려와 도사(道士)들뿐이리요. 법이 공평하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고, 주장하는 이론이 공평하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복시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 유시(諭示)하는 바이다.”

하였다. 이것은 민상(閔相) 응수(應洙) 조선의 정치가. 자는 성보(聲甫))의 《계축연행록(癸丑燕行錄)》 속에 실려 있는데, 왕씨의 말과 서로 부합된다.

건륭 40년 을미년(1775년) 11월 20일에, 내각은 아래와 같은 황제의 유시를 받들었다.

“충정(忠貞)을 숭상하고 장려하는 것은 풍속과 교화를 세우고 신하의 절개를 고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로부터 조정이 한 번 바뀌어 전조(前朝)의 충신으로 나라를 위하여 죽은 신하들의 기록이 드물었을 뿐 아니라 이름도 바뀐 것이 있다. 오직 우리 세조 장항제(世祖章皇帝)는 나라를 세우고, 먼저 숭정 말년에 순국한 신하

들 중에 태학사 범경문(范景文 명(明)의 명신) 등 20여 명에게 특히 시호(諡號)를 내렸으니, 전조의 충신들을 생각하는 그의 성스러운 도량을 우러러 볼 때 실로 만고에 뻗칠 만한 광전(曠典)이라 할 것이다. 당시는 겨우 전문(傳聞)에 근거하고 아뢰는 사건마저 두루 알아볼 여가가 없었으므로, 이런 표창을 받은 자의 수효가 이에 불과했으나, 조금 지나서 남은 행적들이 드러나고 또 다시 판정을 거쳐야 할 것은 지금의 명사(明史)에 실린 것을 보더라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가법(史可法)이 외로운 충성을 맹세하고, 망해가는 판국을 붙들려다가 마침내 몸을 바친 일이라든가, 또 유종주(劉宗周 명(明) 학자) · 황도주(黃道周 명(明) 학자) 등은 조정에 서면 기탄없는 바른말로 못 아침배와 마주 대항하고, 어려운 시기를 만나 나라의 위기를 당하면 목숨을 바치니 넉넉히 일대의 훌륭한 인물이 될 만하므로, 이런 인물들은 응당 표창하고 찬양해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혹 고성(孤城)을 사수하기도 하고, 전진에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포로로 붙들려 참살을 당하는 등 죽음을 초개처럼 여긴 자도 있었다. 당시는 임금이 거느린 군사가 진격함에 따라 저절로 범령을 엄하게 펴서 귀순자와 반역자를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이 지난 뒤에 평탄한 심정으로 이런 인물들을 의논한다면, 그들은 모두 질풍(疾風)에 경초(勁草)처럼 부끄러울 바 없는 인물로서, 제 몸을 희생하여 명절(名節)을 온전히 했으니, 그 심정인즉 역시 가궁한 것이다. 비록 복왕(福王)²⁰은 창졸간에 한쪽 구석에서 조정을 만들었고, 당왕(唐王)과 계왕(桂王 영력제(永曆帝))이 또 유리(流離)하여 자취를 감추다가 나라를 위하여 다시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시 여러 사람들은 갖은 고생을 겪어가면서 함께 따라 목숨을 버리면서도 의리를 취하여 능히 각각 충성을 다했으니, 어찌 이런 일을 인멸시키고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 마땅히 사서(史書)를 상고하여 모두 시호를 표창해야 할 것이다. 혹 포의(布衣)의 출신으로서 성명도 잘 모를 자들도 강개(慷慨)한 이가 없지 않았겠지만, 이들에게 일일이 시호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 역시 저마다 고향에다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받들어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우리 태조의 실록(實錄)을 공손히 읽어보니, 살이호(薩爾許) 전쟁에서 명의 양호(楊鎬) 등은 20만 대군을 끌어 모아 사

20 복왕(福王) : 명이 망한 뒤에 마사영(馬士英) 등이 남경에서 세운 주유송(朱由崧)의 봉호.

로(四路)로 나누어 우리 흥경(興京)을 침범하자, 우리 태조와 태종(太宗)과 패륜(貝勒) 대신들은 정병 수천을 거느리고 그들의 군대를 반 이상 섬멸해서, 당시 명의 양장(良將) 유정(劉挺)·두송(杜松)·양호 등은 모두 진중에서 죽었다. 근일에, 나는 이 사적을 들어 글 한 편을 지어 그들의 충렬을 찬양하여 역사에 전하도록 하였다. 오직 이같이 국가를 창건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 편에 반항하여 선봉으로 오는 자는 응당 용서 없이 무찔러 죽이는 것이 마땅했지만 칼날과 창끝을 무서워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여 싸우는 태도는 적군이라도 가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또 명이 망할 무렵 손승종(孫承宗 명(明)의 충신)·노상승(盧象昇 명(明)의 충신) 등은 우리 군대에 저항하다가 몸이 들녘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고, 주우길(周遇吉)·채무덕(蔡懋德)·손전정(孫傳廷) 등은 목을 내놓고 몸을 짓밟혀 가면서 적을 막다가, 몸은 죽었어도 그들의 늠름한 태도는 오히려 생기가 있었다. 오로지 명의 정치가 해이했던 까닭으로 만력 시대로부터 숭정에 이르기까지 간신(奸臣)이 꼬리를 물고 환관이 횡행하여, 흑백이 뒤섞이고 충신과 양신은 흔적이 없게 되어 언제나 이를 갈면서 불평을 하게 되었다. 복왕 때에 이르러 혹은 시호를 추봉(追封)한 자가 있으나, 이것도 처리가 공평치 못하여 종잡을 수 없었다. 나는 오직 공평 무사하게 그들을 전형하여 무릇 명의 말년에 절개를 완전히 지킨 신하들로 이미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는 한결같이 우대하고 표창하여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나 전겸익(錢謙益)과 같이 스스로 깨끗한 듯이 큰소리를 치다가 부끄러운 빛도 없이 항복을 해 왔거나, 김보(金堡)·굴대균(屈大均)등과 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요행히 살아 보고자 거짓 중 노릇을 한 자들은 모두 창자도 없고 수치도 모르는 자들이니, 이런 무리들이 과연 절개에 죽을 자이겠는가. 그들은 오늘 내가 표정(表旌)한 이름 속에도 들어 있는 듯하니, 이에 이미 목숨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언어와 문자를 빌려 스스로 살 것을 찾는 시늉을 엄폐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들의 진퇴의 절차가 근거 없는 것을 명백히 배척할 것이며, 어둠 속에 표창을 받은 것을 삭탈하여 하나의 상이나 별을 가장 명백히 밝혀, 천하만세로 하여금 사리에 비추어 선악을 밝힘으로써 강상(綱常)을 세우고, 이로써 또 잘한 것을 표창하는 나의 뜻을 알게 하여 다오. 시호를 받을 여러 사람들은 아을

명사와 집람(輯覽 저자 미상)에 실린 바를 두루 조사하되 세조 때의 전례에 비추고, 본래의 관직에 따라 시호를 줄 것이다. 시호의 결정을 어떻게 분별하여 처리할 것인가는 태학사와 구경(九卿)·경당(京堂)·한림·첨사(詹事)·과도(科道) 등을²¹ 모아 협의하여 보고할 것이다. 아울러 여기서 중외(中外)에 이를 통유(通諭)하노니 알아서 시행하라.”

하였다. 이 조서에 보면, 우리나라 삼학사(三學士)²²와 청음(淸陰)의 사적이 응당 청 태종(淸太宗)의 실록에 실렸을 터인데 아무런 기록도 없음은 무슨 까닭일까. 대체로 외국의 신하로서 중국을 위하여 춘추의 대의를 지킨 일은 천고에 없었던 것으로, 건륜은 천하 만대를 위하여 스스로 공정을 표방하면서 다만 우리나라의 여러 현인(賢人)들에 대하여는 조금도 보인 데가 없으니, 그 일이 외국에 관계되었다 하여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인가. 중국 인사들이 왕왕 청음에 관하여 언급을 했다는 것도 다만 몇 편의 보잘것없는 시구로 기록하는 데 그쳤을 뿐이요, 그의 큰 절의(節義)가 일월과 더불어 빛을 다룰 만한 것은 하나도 듣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또한 우리나라와의 강화(講和)가 실상 관외(關外)에 있었을 때 일이고 보니 중국 사람들로서는 아직 이 사적을 자세히 알지 못한 까닭일까. 그렇지 않으면 수답(酬答)하기를 꺼려서 짐짓 모른 체 함인가. 또는 일부러 《감구집(感舊集)》에 왕어양(王漁洋) 사정(士禎)이 지은 《감구집》 중에는 청음 선생의 시가 실렸고, 그 소서(小序)에는 그의 관함과 이름과 자가 기록되었다. 말 못할 뜻을 잠시 표시한 것일까. 내 매양 청음 두 글자를 들을 때마다 미상불 머리털이 움직이고 맥이 뛰어 비록 아무도 모르게 목 속에서 배회하는 말을 입 밖으로 감히 내지 못하지만, 거의 왕혹정(王鶴汀)이 말한 바와 같이 체증이 생기려 하고 있으니 어찌할 것이냐. 어찌할 것이냐.

요동(遼東)에 이르기 전에 동쪽으로 왕상령(王祥嶺)이란 고개가 있고, 고개를 넘어 10여 리를 가면 냉정(冷井)이 있는데, 사행(使行)이 있을 때는 장막을 치고 조반을

21 구경(九卿)……등을 : 도찰원(都察院)의 소속 육과(六科)의 급사중(給事中)과 15도(道) 감찰어사(監察御史)의 총칭.

22 삼학사(三學士) : 병자호란에 척화신(斥和臣)으로 이름 높았던 홍익한(洪翼漢)·오달계(吳達濟)·윤집(尹集).

먹는 곳이다. 돌로 쌓은 우물이 아니요, 길가에 솟은 샘으로, 물 즐기는 확을 넘고 있다. 물 맛은 달고 맑으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차다. 우리나라 사신이 올 때마다 흘려 넘치게 솟다가도 조선 사람이 떠나면 즉시 말라 버린다고 하니, 대개 요동은 본래 조선 땅이므로 기운이 서로 감응해서 그렇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난리를 피할 복지(福地)가 열 곳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세상에서 전하기를, 우리나라의 명승(名僧)무학(無學)²³과 방사(方士) 남사고(南師古)²⁴가 잡은 곳이라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복지란 임금이 파친한 곳만 한 데가 없을 것이니, 비록 포의(布衣)와 미천한 선비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피난처가 될 것이다. 임금을 모시고 그 좌우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니, 갑자기 병란(兵亂)을 당하면 사녀(士女)가 물 끓듯이 매양 심산 절협을 찾아 바위 구멍에 몸을 감추니, 그 슬기롭지 못한 것이 심하기도 하다. 양식이 이미 떨어지면 반드시 먼저 주려 죽을 것이니 이것이 그 어리석은 것의 하나요, 군사도 못보고 범이나 짐승에게 해를 입을 것이니 그 어리석음의 둘이요, 외간 소식이 끊어져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니 그 어리석음의 셋이요, 풀과 나무와 안개 이슬에 먼저 병이 들 터이니 그 어리석음의 넷이요, 만일 토적(土賊)을 만나면 반드시 약한 놈이 먹힐 터이니 그 어리석음의 다섯이라. 세상이 불행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하고 본즉, 의주(義州)와 남한(南漢)은 모두 복지가 되는 것이다. 당시에 피난 간 사람들은 이 두 곳이 절지(絕地) 고성(孤城)이라 했으나, 나는 왕령(王靈)이 있는 곳에는 천지가 힘을 같이 하고 백신(百神)이 보호할 터이니 나라가 있으면 제 몸도 있을 것이요, 나라가 망하면 제 몸도 망할 것이다. 몸을 멀리 초망(草莽) 속에 숨기고 하찮은 충성을 지킨다고 구렁 속에 사는 것은 차라리 살아서 충신이 되고, 죽어서 외로운 귀신이 되는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일찍이 〈송계기행(松溪記行)〉 인평대군(麟坪大君)이 지은 것이다. 을 보니,

“청병(淸兵)이 송산(松山)에 진격하여 포위했을 때 우리나라 효종 대왕(孝宗大王)

23 무학(無學) : 이성계가 한양에 도읍 정하는 일을 도와주던 중 박자초(朴自超). 무학은 승호(僧號).

24 남사고(南師古) : 조선 선조(宣祖) 때 사람으로서 풍수설(風水說)에 가장 저명하였다.

이 봉림저(鳳林邸)에 있을 적인데, 소현세자(昭顯世子 효종의 형)를 모시고 함께 청의 진중에 있었다. 막차(幕次)가 지세로 인해서 불편하여 겨우 판 곳으로 옮겼던 바, 이날 밤 영원총병(寧遠總兵) 오삼계(吳三桂)가 기병(騎兵) 1만여 명을 거느리고 예운 것을 뚫고 도망하려던 곳이 바로 처음에 군막을 쳤던 곳이다.”

라고 하였으니, 당시에 군막을 옮긴 것은 하늘이 돕고 귀신이 보살폈던 것이다. 우리나라는 1백 명이 넘는 종인(從人)들이 만일 왕령(王靈)에 의탁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그들의 습격에 유린당하는 변을 면했을 것인가. 그러므로 나는 불행히 아홉 번 죽을 고비를 당할지라도 임금을 모시고 있는 자리가 곧 복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열하에 있을 때에, 반선(班禪)이 거쳐하는 금전(金殿) 용마루 위에 금으로 만든 한 쌍의 누런 용이 말처럼 일어서서 있었다. 길이는 모두 두 길이 넘는데, 밑에서 보는 것이 이럴 적에야 그 길이와 높이를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양이 보통 그림에 보는 신룡(神龍)과는 같지 않았다. 양용수(楊用修 명(明) 학자 양신(楊慎), 용수는 자)의 《단연록(丹鉛錄)》에는,

“용은 새끼 아홉 마리를 낳는데, 용이 되지 못하면 첫째는 비희(鼯鼠)인데 모양이 거북 같이 생겨 무거운 짐을 잘 지키는데, 지금의 비석 바탕 돌로 거북 모양을 만든 것이 이것이요, 둘째는 치문(鴟吻)인데 성질이 바라보기를 좋아하므로 지금 지붕 모퉁이에 짐승 모양으로 만든 것이요, 셋째는 포뢰(蒲牢)인데 울기를 잘하므로 지금의 종(鍾)에 매는 끈이 되었고, 넷째는 폐간(狔狂)인데 모양이 범과 비슷하므로 옥문 앞에 세웠고, 다섯째는 도철(鸞鷟)인데 성질이 먹기를 잘하므로 솔뚜껑에 붙이고, 여섯째는 패하(鰐鰕)인데 성질이 물을 좋아하므로 다리 기둥 위에 세웠고, 일곱째는 애자(睡毗)인데 성질이 죽이는 것을 좋아하므로 칼자루에 새겼고, 여덟째는 금태(金鯢)인데 모양이 사자 같고 성질이 연기와 불을 좋아하므로 향로에 세우고, 아홉째는 초도(椒圖)인데 모양이 소라 같이 생기고 성질이 문을 닫고 잘 숨으므로 문간에 세웠다.”

라고 하였다.

또 금전(金殿) 사각에 있는, 금으로 만든 황룡(黃龍)은 용마루 위에 있는 것과 모양이 또 달랐다. 치미(鷗尾)니, 치문(鷗吻)이니 하는 말도 전하는 기록이 모두 다르다. 대개 중국에서는 궁전을 이룩할 때는 반드시 치미와 치문을 먼저 만들어서 그 집의 성하고 허물어질 것을 점치게 되므로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 《대류총귀(對類總龜 저자 미상)》에는 말하기를,

“용이 새끼 아홉 마리를 낳는데, 하나는 조풍(嘲風)으로 모험을 좋아하므로 전각 귀퉁이에 세우고, 하나는 치문(蚩吻)으로 삼키기를 좋아하므로 전각 용마루에 세운다.”

하였고, 《박물지일편(博物志逸篇 저자 미상)》에는 말하기를,

“이문(螭吻)은 모양이 짐승 같은데 바라보기를 좋아하므로 전각 모에 세우고, 만전(鰐)은 형상이 용과 비슷한데 성질이 풍우를 좋아하므로 지붕 용마루에 쓴다.”

하였으니, 《단연록(丹鉛錄)》 이야기와 모두 다르다. 한 무제(漢武帝)의 백량전(柏梁殿)에 불이 났는데, 무당이 말하기를,

“이름을 규(虬)라 하는 바닷고기가 있어 그 꼬리가 치(鷗)와 비슷한데 물결을 치면 비가 내리므로 그 형상을 따라 만들어 전각 용마루 위에 얹어 두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였고, 또 건장궁(建章宮)에 불이 나서 무당은 예방으로 치미(鷗尾) 형상을 전각 용마루에 설치할 것을 아뢰었다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배 꼬리를 치라고 하는데 치미라는 치인 것 같기도 하다. 또 《박물지일편(博物志逸篇)》에는,

“비희(蜼)는 성질이 무거운 것을 지기 좋아하므로 비석을 지게 하였고, 이호(螭虎)는 모양이 용 같이 생기고 성질이 문채를 좋아하므로 비문 위에 세운다.”

하였고, 또 《대류총귀》에는 말하기를,

“용의 아홉 마리 새끼 중에 하나는 패하(霸夏)라 하여 무거운 것을 좋아하므로 비석 바탕으로 하였고, 비희는 글을 좋아하므로 비문의 양쪽에 새긴다.”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역시 다 각각 다르니, 용 새끼의 명호(名號)와 성정(性情)을 무엇으로 알 것인가. 옛날 이야기의 부희(附會)함이 이런 것이 많았다.

북희씨(伏羲氏)로부터 지금의 건륭 황제까지 정통(正統)을 이은 천자가 모두 2백 50명이다. 만일 여후(呂后 한(漢)의 여치(呂雉)와 무후(武后 당(唐) 무조(武曌)와 정통이 아닌 천자 조조(曹操)의 위(魏), 손권(孫權)의 오(吳)와 남북조(南北朝)로부터 오대(五代)까지 통계(通計)한다면 모두 85명이 될 것이요, 참위(僭僞)한 제왕 후예(后羿)로부터 주(周)의 홍화 황제(洪化皇帝)인 오삼계(吳三桂)까지 친다면 도합 2백 70명이요, 춘추(春秋) 때 임금으로 불린 것이 4백 90여 명이다.

산동(山東) 등 여러 곳을 순행하면서 농사를 관리 감독하고 겸하여 군무를 정리하던 도찰원우부도어사(都察院右副都御史)악(岳)은 황제의 거룩한 덕이 갖추어 지극하시고 하늘의 어진 마음이 가지런히 높으시어 상서로운 기린(麒麟)이 나서 아름다운 응보(應報)가 밝게 비치고 있는 일을 삼가 보고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옹정 10년 임자년(1732년) 6월 13일 포정사(布政使) 정선보(鄭禪寶)가 조주거야 현지현(曹州鉅野縣知縣) 요개춘(寥開春)의 보고에 근거하여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옹정 10년 6월 초 5일 신성보(新城保)지보(地保) 축만년(祝萬年) 등이 말하기를, ‘이 보에 속한 이가장(李家莊) 이은(李恩)의 집에서는 금년 6월 초 5일 진시(辰時)에 소가 기린을 낳았는데, 금빛이 싸고 돌아 진시(辰時)와 사시(巳時) 두 시(時)를 지낸 뒤에는 원근의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모두들 기이하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기린이 난 곳까지 직접 가서 삼가 자세히 검사해 보니, 노루 몸통이에 소 꼬리였습니다. 몸통이에는 모두 갑옷 같은 것을 뒤집어 썼는데 붉은 털로 기운 것같이 얼룩거렸고, 광채가 찬란하여 실로 성대(聖代)의 상서로운 징조로 보이기에 상부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본직(本職)이 즉시 사람을 거야(鉅野 산동성에 있다)로 보내어 더 자세히 조사했던바,

그들의 말에 의하면, 기린의 몸통이는 길이가 1척 8촌이요, 높이가 1척 6촌이요, 노루 몸통이에 소 꼬리로 머리에는 고깃덩이로 된 뿔이 났고, 이마에는 곱슬 털이 있으며, 눈은 수정 같고 이마는 백옥 같으며, 온 몸에는 비늘 갑옷이 되어 모두가 푸른 빛을 띠었다 합니다. 비늘들은 자줏빛 털로 기운 것 같고, 등은 검정 빛으로 서 세 마디로 되었는데, 가운데 마디는 털이 모두 꼳꼳이 섰고, 앞마디는 털이 앞으로 향하고, 뒷마디는 털이 모두 뒤로 향했다 합니다. 가랑이와 배와 발굽과 다리에는 흰 털이 났고, 꼬리 길이는 5촌 5푼인데 꼬리 끝에는 검정 털 4개가 났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본직에게 보내 왔으므로 본직이 삼가 열람해 보니 실로 즐겁기 짝이 없었습니다. 즉시 공손히 향안(香案)을 설치하고 대궐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려 경축하기를, 우리 황제 폐하께서는 도덕이 청녕(淸寧)에 맞으시고, 공훈이 화육(化育)에 참여하여 하늘의 뜻을 본받아 정교를 세워서 육부(六府)²⁵가 다스리고 삼사(三事)²⁶가 조화되었으며, 표준을 세워서 백성에게 퍼 주었고, 오전(五典 오륜(五倫))이 도타워지자 구주(九疇)²⁷가 펴졌습니다. 그리하여 빛나는 별이 제 궤도에 따르고 상서로운 하늘에는 쌍구슬(해와 달)이 반짝이고, 맑은 이슬이 달에 맺혀서 수놓인 듯한 이 지구에서 방울방울 듣고 있습니다. 황하(黃河)는 조(曹 산동성에 있는 지명)·단(單 산동성에 있는 지명) 사이에 맑았으니 그 물결이 비단 진(秦 섬서성)·농(隴 감숙성)에서만 맑은 것이 아니요, 상서 구름은 수(洙 산동성에 있는 수명(水名))·사(泗 산동성에 있는 수명)의 가에 나타났으니 어찌 진(滇 운남성)·검(黔 귀주성)에서만 빛났으리까. 이제 거야의 시골에서 다시 상서로운 기린이 나타났는데, 사슴의 몸통이에 소의 꼬리로써 이상한 꼴을 지녔고, 외 뿔에 둥근 발은 모두 괴이한 물건이라 하였습니다. 본직(本職)은 삼가 《서경(書經)》과 《춘추(春秋)》를 상고하여 보니 복건(服虔 후한(後漢)의 학자)의 주(注)에 이르기를, ‘왕위에 있는 이가 보살핌이 밝고 예법이 다달았을 때에 기린이 나타난다.’ 하였고, 또 《예위(禮緯 저자 미상)》의 두위의(斗威儀 예위의 일종)에는 이르기를, ‘임금이 정

25 육부(六府) :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있는 말로,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을 이룸.

26 삼사(三事) : 《서경(書經)》대우모(大禹謨)에 있는 말로,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을 이룸.

27 구주(九疇) : 기자(箕子)가 주 무왕(周武王)에게 진술한 아홉 가지의 정치 요강(要綱).

치와 송사가 없으면 기린이 교외(郊外)에 나타난다.’ 하였고 《효경(孝經)》의 원신계(援神契 《효경》의 편명)에 이르기를, ‘임금의 덕이 새와 짐승에게까지 이르면 기린이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현원(軒轅 황제(黃帝))의 조정에는 기린이 놀았다는 기록이 있고, 성왕(成王) · 강왕(康王)의 때에 인지(麟趾 《시경》의 편명)를 노래하였습니다. 이 신물(神物)이 탄생함을 보아서 더욱이 상서로운 증험을 보았습니다. 이는 실로 우리 황제께옵서 그 공경이 사표(四表)에 빛나기를 마치 일월이 내려 쬐는 것과 같으며, 정치가 팔굉(八紘)에 두루 미쳐서 마치 건곤이 널리 덮였음과 같았습니다. 하물며, 이 동성(東省)은 땅이 수도와 멀지 않아서 교화가 더욱 빠르고 길이 강구(康衢)에 접하여 은혜를 입음이 가장 흡족하였으니 이로서도 기린의 상서를 신빙할 수 있겠습니다. 오색의 찬란한 빛은 문명이 크게 열릴 것을 미리 점쳤으며, 사령(四靈 기린 · 봉 · 거북 · 용)의 으뜸이었으니, 다가오는 복록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본직은 외람되이 봉강(封疆)의 책임을 맡아서 이런 성미(盛美)한 일을 만났사오니 하늘로부터 내린 명령에서 완전한 복록이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원컨대 승항(升恒)²⁸의 찬송을 본받아서 배무(拜舞)의 정성을 펴려 하옵니다. 엎드려 비옵건대 이 일을 사신(史臣)에게 내리시어 중외(中外)에 선포하고, 교수(郊薮)에 일러서 천추에 하악(河岳)의 기이한 일을 표하며, 도서(圖書)에 실어서 만고에 규루(奎婁)²⁹의 별을 빛내옵소서. 황제께옵서는 친히 보아서 시행하시옵기를 빌면서 이 글을 갖추오니 귀부(貴部)에 자문하시어 대조해 보시옵기를 바랍니다.”

하였으니, 이는 예부(禮部)에 바친 글이다. 이 글을 보고한 것은 산동 독무(督撫) 악(岳)이란 성을 가진 자이다. 이 글은 우리나라 과려(科儷) 과거문(科擧文)의 병려체(駢儷體) 문체에 비교하면 소활하나 화려하고 풍성한 맛이 있어 저절로 고색(古色)이 났다. 윤형산(尹亨山)이 일찍이 말하기를,

28 승항(升恒) : 《시경(詩經)》구여(九如)의 글귀로서, “해가 오르는 듯이 달이 이지러지지 않는 듯이”라는 뜻.

29 규루(奎婁) : 이십팔수(二十八宿) 중의 별 이름으로, ‘규’는 문명을 맡은 별이요, ‘루’는 원목(苑牧)을 맡은 별이다.

“산동에는 편벽되어 기린이 잘 나서 강희 때는 네 마리를 모두 소가 낳았고, 용정 때는 다섯 마리를 낳았는데 소가 두 마리를 낳고 돼지가 세 마리를 낳았으며, 금상(今上) 성조(聖朝)에는 다섯 마리를 낳았는데, 사천(四川) · 복건(福建) · 절강(浙江) · 하남(河南)에서 두 해 동안에 모두 소가 낳았고, 한 마리는 직예(直隸) 양향(良鄉)에서 돼지가 낳았답니다.”

하였다.

순치(順治) 병신년(1656년) 10월 16일에, 네 공주(公主)가 각각 막북(漠北)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몽고왕의 처인 까닭이다. 길은 옥하관(玉河館) 앞을 거쳐 갔는데, 몽고왕은 부하들을 데리고 약대와 말을 장하게 차리고 달리는데, 공주도 역시 말을 타고 갔다. 번인(番人)과 한인들이 그 뒤를 따라 가는 것은 모두 멀리 전송을 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인평대군(麟坪大君)이 본 일이라 한다.

건륭 41년 병신년(1776년) 1월 25일에 내각이 황제의 유시를 받들었는데, 그 글에는,

“전에 명의 말년에 순절(殉節)한 여러 신하들이 저마다 각각 그 임금을 위해서 바친 의리와 충렬이 가상할 만하다 하여 시호를 내리기 위해 이를 조사해 밝힘이 마땅하므로 즉시 태학사(太學士)와 구경(九卿) · 경당(京堂) · 한림(翰林) · 첨사(詹事) · 과도(科道)들에게 명하여 의논을 모아 주문(奏聞)해서 충량(忠良)한 자를 표창함으로써 후세 자손들로 하여금 본받게 하였던 것이다. 다시 생각건대 건문(建文 명(明)의 혜제(惠帝). 건문은 연호)이 쫓겨 날 때 그 신하들로서 절개를 지켜 죽은 자로 사책(史冊)에 실린 이는 매우 많았는데, 당시의 영락(永樂 명(明) 성조(成祖). 영락은 연호)은 지위가 본래 번신(藩臣)으로서 모반하여 음모로 나라를 빼앗았으니,³⁰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당연히 의리로 보아 함께 한 하늘 밑에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제태(齊泰)나 황자징(黃子澄)은 경솔할 뿐 아니라 피가 적었고, 방효유(方孝孺)는 식견이 오회하여 어린 임금을 돕기에 부족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임금을 떠받들고 역적을 베어 없애고자 한 심정은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대세

30 모반하여……빼앗았으니 : 연왕(燕王)이던 성조가 조카인 혜제를 축출한 것을 말한다.

가 이미 기울어졌으나 오히려 군사를 모집하여 끝내 저항하면서 목숨을 바치고 일족이 희생되었으니 백절불굴한 그들의 정성은 세상에 교훈할 자료로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 경청(景淸)이나 철현(鐵鉉) 등은 혹은 강개 비분하게 자기 몸을 바쳤고, 혹은 잡자코 의리를 지켜, 비록 죽는 방법은 달랐으나 지조와 절개는 넘쳐나서 모두 대의를 밝혔다고 할 수 있는 자들이다. 심지어 동호(東湖)의 초부(樵夫)나 솔 땀장이까지도 비록 성명은 없어져 드러나지 못했지만 그 심정들은 모두 죽히 가상하다 할 것이다. 특히영락은 성질이 잔학하여 자기 맘대로 음형(淫刑)을 써서 참혹한 도륙(屠戮)을 마치 외 덩굴을 끊듯이 단번에 죽여 없앴으니 사람의 심리라고 볼 수 없었다. 나는 역사를 읽다가 여기에 이르러서는 미상불 분하고 한스러움을 참지 못했다. 명의 중엽(中葉)에 이르러 비록 조금 법을 늦추었으나 사정에 따르고 곡휘(曲諱)하여 끝내 드러내어 표창을 못했으므로 충신과 의사들의 옳은 행실은 오랫동안 나타내지 못했으니 실로 민망하고 불쌍한 일이다. 무릇 전조의 혁명(革命) 시기에 우리에게 반항하여 온 자까지도 그들의 충성을 생각하여 특히 표창을 해주었는데, 더구나 건문 시대의 여러 신하들은 불행히 내란을 당하여 나라를 위해 몸을 바쳐 인(仁)을 이루고 의(義)를 취했거늘 어찌 이를 그대로 사라지도록 묻어 없앨 것인가. 이들에게도 마땅히 모두 시호를 하사하여 어둠을 헤치고 광명을 밝혀야 할 것이다. 공도(公道)를 바로잡아 처리할 것은 전에 지시한 대로 태학사에게 맡겨 한꺼번에 자세한 조사와 의논을 합쳐서 나에게 보고함으로써 충정(忠貞)을 숭상하고 장려하는 나의 지극한 뜻에 맞도록 하라.” 하였다.

황명(皇明) 순정 11년(1638년)에 우리나라 장수 이시영(李時英)이 군사 5천을 거느리고 전주(建州)로 들어갔더니 청인은 시영을 협박하여 앞장을 세우고 명의 도독(都督) 조대수(祖大壽)와 송산(松山)에서 싸우게 했다. 토병(土兵)들은 모두 정밀한 충을 가지고 있어 조대수의 군사를 많이 죽였는데, 조대수는 군중에 하령하여 청병(淸兵)의 머리 하나에는 은 5십 냇을 주고, 조선 군사의 머리 하나에는 은 1백 냇을 준다 하였다. 조선 군사 중에 이사룡(李士龍)은 성주(星州) 사람으로서 홀로 차마 충에 탄환을 재지 못하고 무릇 세 번을 쓰아도 아무도 상하지 않았던 바 이는

본국의 심정을 밝히려 함인데 청인이 이것을 깨닫고 드디어사룡을 베어 조리를 돌렸다. 조대수의 군사는 이것을 바라보고 모두 크게 울었고, 대수는 이에 깃발 위에 큰 글씨로 조선 의사(義士) 이사룡(李士龍)이라 써서 시영의 군사를 선동하였다. 지금 성주 옥천(玉川) 위에 충렬사(忠烈祠)가 있으니, 곧 이사룡을 제사 지내는 곳이다. 진실로 황제로 하여금 사룡의 이름을 듣게 했다면 특별히 시호를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나는 송산을 지나면서 글을 지어 사룡의 혼을 조상하였다.

전목재(錢牧齋) 겸익(謙益)의 자는 수지(受之)다. 그의 신분은 반은 중국이요 반은 오랑캐이며, 그의 문장은 반은 유교요 반은 불교이다. 그의 명절(名節)은 땅을 쓸 다시피 되어 마침내는 부랑자(浮浪子)의 칭호를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위로 스승되는 손고양승종(孫高陽承宗) 고양은 손승종이 살던 지명(地名)이다)에게 부끄러울 것이요, 아래로는 그의 제자 구 유수 식사(瞿留守式耜 유수는 벼슬 이름)에게 부끄러울 것이요, 중간으로는 그의 아내 하동군(河東君) 유여시(柳如是)³¹에게 부끄러울 것이다. 수지(受之)가 늙어 죽을 때는 하동군이 아직도 젊었는데, 여러 악소년들이 수지를 질투하던 나머지 유를 욕보이고자 했더니, 유는 자살해 버렸다. 지금 건륭의 조서를 보면 수지를 배척해 말하기를,

“스스로 청류(淸流)인 듯이 큰소리를 치다가, 뻔뻔스러운 얼굴로 항복을 하고서 거짓 중 노릇을 하여 창자도 없고 수치도 몰랐다.”

하였으니, 가위 전겸익으로서도 부끄러워 죽을 일이다. 우리나라 선비들은 수지의 이 같은 실행(失行)을 모르고 다만 그의 《유학(有學 전겸익의 시문집)》과 《초학(初學 전겸익의 시문집)》 등 책만을 보고는 그를 미상불 애석히 여길 뿐 아니라, 그의 시문(詩文)을 초출하여 문 승상(文丞相 문천상(文天祥), 승상은 벼슬)이나 사첩산(謝疊山 사망득(謝枋得), 첩산은 호)의 글 아래에 많이 늘어놓기도 한다. 근년에는 자못 그의 책판을 없애고 간직하기를 금하는 영이 있다는 말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31 그의……유여시(柳如是) : 여기에서는 아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첩이었다. 하동군은 봉호가 아닌 별칭. 자는 미무(藤蘿), 본 성명은 양애(楊愛). 그가 일찍이 전겸익에게 절자하기를 권했으나 좇지 못했다.

과거 공부를 하는 속생(俗生)으로서는 반드시 다 알지 못할 것이므로 여기 자세히 기록해 둔다.

소동파가 고려를 미워하는 것은 까닭이 있다. 당시에 고려는 오로지 거란을 섬기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을 사모할 뜻으로 때로는 송의 조정을 찾았다. 중국 선비들은 고려의 충정(衷情)을 알뜰히 보아 주지 않고 혹은 조정을 정탐하지나 않는가의 의심한 것은 전혀 괴이할 것이 없다. 또 그 조공하는 길이 명주(明州)로부터 하륙(下陸)하여 반드시 유신(儒臣)으로 관반(館伴)이 있어, 그 막대한 비용은 요의 사신에 다음 가고 있다. 국가와의 외교도 아니요 속번(屬藩)도 아닌데, 강한 하(夏)를 접대하는 것보다 더 많으니 당시 사대부들이 무익(無益)하다고 말한 것도 마땅한 일이다. 지금 우리 조정이 황명(皇明)에 충순(忠順)한 지도 이미 3백 년이나 되어 일심으로 중국을 사모하기는 고려보다 더 했건만, 동림당(東林黨)³²의 무리들은 문득 조선을 좋아하지 않았다. 전목재는 동림당의 괴수인즉 우리나라를 야비한 오랑캐라고 보는 것을 청론(淸論)으로 삼았으니 분하고 억울함을 이길 수 있으랴. 더구나 우리나라 시문(詩文)에 이르러서는 말살(抹殺)하기가 일췌여서 그의 《황화집(皇華集)》발(跋)에 보면,

“본조(本朝)의 시종(侍從)으로 있던 신하가 칙사가 되어 고려에 갈 때는 으레 《황화집》을 편찬한다. 이 책은 가정(嘉靖) 18년 기해년(1539년)에 황천(皇天) 상제(上帝)에게 태호(泰號)를 올리고 황조(皇祖)·황고(皇考)에게 성호(聖號)를 올릴 때 홍산(鴻山) 화수찬(華修撰) 찰(察)이 황제의 조서를 반포하면서 지은 것이다. 조선의 문체(文體)는 평연(平行)한데 여러 사림(詞林)들이 깎고 고치는 것을 아끼지 않고 먼 곳 사람들을 회유하는 데에 뜻을 두었으므로 보배롭고 고운 시구는 극히 적었다. 그 중 배신(陪臣)의 편집(篇什)을 보면 글자 두 자가 일곱 자의 뜻을 포함하였으니, 예를 들면,

나라 안에 창도 없이 한 사람만 앉아 있네 | 國內无戈坐一人

32 동림당(東林黨) : 명의 고헌성(顧憲成)이 고만룡(高攀龍) 등과 더불어 무석(無錫)에 있는 동림서원(東林書院)에서 시정(時政)과 인물을 논하여 동림당의 지목을 얻었다.

와 같은 글귀는 그 나라의 소위 동파의 체(體)일 것이니, 제공(諸公)은 아예 그들과 더불어 창수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우리나라 문체가 진실로 그의 말과 같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어찌 혈뜯기를 이 같이 할 수가 있었으랴. 나는 짐짓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목재가 우리나라를 휘방하는 것이 동파와도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전증(錢曾)의 자는 준옥(遵玉)이니, 목재의 족손(族孫)이다. 서건학(徐乾學 청나라 학자)과 함께 경전 해석을 편집하여 당시 오매촌(吳梅村 청나라 학자 오위업(吳僞業). 매촌은 자) · 공지록(龔芝麓 청나라 학자 공정자(龔鼎孳). 지록은 호)과 함께 삼대가(三大家)로 불렸다. 모두 명조의 현달한 관리로서 역시 지금의 청조에 버슬한 자들이다. 그가 조선에 칙사로 나갈 유홍훈(劉鴻訓)에게 준 목재의 글을 주석한 것을 보면 말이 실상이 아닌 것이 많고, 또 이 제독(李提督 명나라 장군 이여송(李如松))이 조선을 원조한 일에는 더욱 잘못된 기록이 많으니 가히 개탄할 일이다. 지금 황제가 전겸익을 배척한 조서에서 말하기를,

“오히려 문자(文字)를 빌려 구차하게 살아남은 허물을 덮어 가리려고 하였다.”

한 것은 그의 간사한 심정을 깊이 조감한 것이니, 고려판(高麗板) 유문(柳文 유종원(柳宗元)의 글)의 발(跋)을 쓴 것 같은 유가 그것이다. 그 발에는,

“고려 판각(板刻) 당(唐)의 《유선생집(柳先生集 유종원의 시문집(詩文集))》은 견지(繭紙)가 탄탄하게 정치하였으며 자획이 가늘고 뾰뚱해서 중국에서도 역시 좋은 책이라 할 것이다. 배신(陪臣) 남수문(南秀文 조선 때의 학자)의 발문 앞뒤에는 공손히 쓰기를, ‘정통(正統) 무오년(1438년) 여름과 정통 4년(1439년) 겨울 11월이라.’ 하였으니, 정삭(正朔)을 높여서 천하를 통일하고 있는 뜻이 내왕하는 편지에도 숙연히 나타나 있었다. 대개 기자의 풍교(風教)가 그대로 남아 있고 명의 문화가 만맥(蠻貊)에게까지 베풀어진 것은 실로 당의 시절에 비교할 바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기울어지다시피 명이 망한 뒤에 고려는 동문(同文)의 꿈을 짓지 않은 지 오래였다. 나는 이 책을 어루만지면서 산연(潸然)히 눈물을

흘렸다.”

하였다. 배신(陪臣)으로서 교서를 받들어 책을 편찬한 자는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里),³³ 직제학(直提學) 김빈(金鎰), 박사(博士) 이영서(李永瑞),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 조수(趙須) 등이요, 남수문의 응교(應敎) 직함을 썼는데, 조산대부 집현전응교 예문관응교지제교 경연검토관 겸춘추관기주관(朝散大夫集賢殿應敎藝文館應敎之製敎經筵檢討官兼春秋館記注官)이라 하였다. 이제 아울러 써서 이로써 조선의 고사(故事)를 보존하려 한다. 조선 사람들이 매양 동문몽(同文夢)이란 한 마디 말을 고실(故實)로 삼아서 과거 때에 시제(詩題)로 쓰고 있으니 더럽기 심하고 심한 노릇이다. 진입재(陳立齋 미상)의 집에는 고문백선(古文百選)과 유문초(柳文抄)가 있었는데, 모두 한구자(韓遘字)³⁴로서 이것을 고려판(高麗板)이라 하여 자못 귀중히 여기고 있으니 대개 이 발문에 근본한 것이다.

우리나라 함천(陝川) 해인사(海印寺) 홍류동(紅流洞)에 원용각(元戎閣)이 있어 명의 중군도독태보(中軍都督太子太保) 이여송(李如松)이 쓰던 갓과 전포와 당시에 지은 시 한 편을 보관해 두었다. 내가 일찍이 해인사를 유람할 때에 갓과 도포를 구경하니, 갓 모자 둘레가 세 아름이나 되니³⁵ 그 머리통의 크기를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절에 있는 중 가운데 키가 가장 큰 자를 뽑아 전포를 입혀 보았더니 땅에 한 자나 남게 끌렸다. 만력 임진에 우리나라가 왜인의 침로를 당했을 때 공(公)은 요계보정산동군무제독(遼薊保定山東軍務提督)으로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나라를 도와 평양(平壤)으로 달려 나와서 왜장(倭將) 평행장(平行長)을 모란봉(牧丹峰) 아래서 격파시켰다. 장사(壯士) 누국안(婁國安)을 행장의 영채에 보내서 빼앗아 간 왕자 순화군(順化君) 조선 선조(宣祖)의 여섯째 아들과 대신 김귀영(金貴榮)·황정옥(黃廷弼) 등을 빼앗아 왔다. 그는 본국으로 돌아간 지 6년 뒤에 요동에서 전사했는데, 의관을 갖추어 장사를 지내도록 조서를 내리고 소보(少保)의 벼슬을 추증(追贈)하고 시호를 충렬(忠烈)이라 붙였다. 공은 우리나라로 올 때에 군사를 몰아 조

33 최만리(崔萬里) : 조선 세종 때의 학자. 이(里)는 이(理)의 잘못. 자는 자명(子明).

34 한구자(韓遘字) : 조선 숙종(肅宗) 때 한구(韓構)가 쓴 활자. 구(遘)는 구(構)의 잘못.

35 갓 모자……되니 : 여기서의 아름 단위는 양팔 둘레의 아름이 아니고 양손 둘레의 아름이다.

령(鳥嶺)을 넘어 문경(聞慶)으로부터 충주(忠州)로 돌아왔으므로 그의 것과 전포가 함천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공은 본래 조선 사람으로 그의 원조(遠祖)는 영(榮)인데, 홍무(洪武) 연간에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가 양평(襄平)에 살았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의 근본을 아는 자가 드물지만 일찍이 왕이상(王貽上)의 《대경당집(帶經堂集)》에 실린 청의 병부시랑(兵部侍郎) 이휘조(李輝祖)의 신도비(神道碑)에는,

“철령(鐵嶺) 이씨는 영원백(寧遠伯) 성량(成樑)으로부터 시작하고 문벌이 명의 시절부터 드러나기 시작하여 본조에 들어와서는 가문이 더욱 커져서 안으로는 경악(經輓)에 참례하게 되고, 밖으로는 장수의 지위에 나아가게 되었다. 이씨의 선조는 조선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양평에 옮겨 오기는 영이었는데, 영은 처음 군공(軍功)으로 철령위도지휘사(鐵嶺衛都指揮使)를 받았고, 그의 아들은 문빈(文彬)이요, 문빈의 아들 다섯중 맏이가 춘미(春美)요, 춘미의 아들이 경(溍)이요, 경의 아들이 영원(寧遠)이요, 영원의 장자(長子)가 공이다.”

했으니, 휘조는 춘미의 아우 춘무(春茂)의 후손이다. 이로써 공이 우리나라 출신인 것을 더욱 알 수가 있겠다. 승정 말년에 공의 아들과 여백(如栢)·여매(如梅)의 아들들이 조선으로 탈신(脫身)해 온 것은 그 부형들이 조선에서 큰 공을 세웠으즉 비단 옛 은혜를 판 것만이 아니라 역시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제 고향으로 향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 혁명이 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휘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우리나라에 온 여러 이씨들도 감히 그 소자출(所自出)을 밝혀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선무문(宣武門) 안 침운패루(瞻雲牌樓) 앞에서 한 미소년(美少年)을 만났는데, 그는 말하기를, 영원백의 후손으로 이름은 홍문(鴻文)이라 하였다. 이튿날 나를 비단 점방으로 찾아와 품속에서 인쇄한 족보(族譜) 두 권을 내놓는데, 곧 《철령이씨세보(鐵嶺李氏世譜)》로서,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계통을 이어서 곧 조선 사람이라 하였으니, 내가 전에 알던 것과 더욱 들어맞아 의심할 것이 없었다. 홍문의 할아버지 되는 편덕(偏德)은 금년에 나이 82세인데, 풍증으로 기동을 하지 못하고 그 손자로 하여금 두루 조선 사람의 여관을 찾아, 뜻 있는 사람을 만나 이것을 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살피도록 하기 위함이라 한다. 더구

나 이원(李瑄 미상) 같은 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벼슬을 하고 있는 줄 모르고, 나 역시 감히 영원백의 후손으로 누구 누구가 본국에 있다고 분명히 말을 못했다. 날이 저물어 여관으로 돌아와 급히 촛불을 켜고 내원(來源)의 무리와 더불어 보니, 대개 영원백의 장자가 여송(如松)이요, 여송의 한 아들이 성충(性忠)이요, 성충의 아래로는 무후(無後)라 하였는데, 이것은 성충이 달아나서 조선으로 도망해 온 까닭이다. 내 비록 이원과 일면(一面)도 없으나, 마땅히 조선으로 나가면 전하려 한다.

만력 시절에 형문(荊門 호북성에 있다) 사람 강국태(康國泰)는 법에 걸려 요양(遼陽)에서 귀양을 살았다. 도독(都督) 유정(劉挺)이 건주(建州)를 칠 때 국태는 종군했다가 전사했고, 아들 세작(世爵)은 나이 17세에 바로 청군(淸軍) 속에 들어가 아버지의 시체를 찾았다. 병부(兵部)웅정필(熊廷弼)이 휘하에 두었더니, 요양이 함락되자 세작은 마등산(馬登山)으로 도망해 들어갔다가 밤에 참호를 헤엄쳐 요새(要塞)를 빠져 나와서 다시 봉황성(鳳凰城)을 지키더니, 성이 함락되자 금석산(金石山)으로 들어가 날마다 나뭇잎을 먹으면서 죽음을 면하고, 의주(義州)로 나와서 드디어 난리를 피하여 회령부(會寧府)에 살았는데, 항상 초(楚) 제도의 관을 쓰고 자기 집을 초책당(楚幘堂)이라 불렀다. 내가 금석산을 지날 때 의주 마부꾼들이 가리키면서 세작이 은신했던 곳이라 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기이한 말이 많았다.

고려 충선왕(忠宣王)휘는 장(璋)이다. 은 원(元)에 가서 연경 저택에 만권당(萬卷堂)을 짓고, 염복(閔復)·요수(姚燾)·조맹부(趙孟頫)·우집(虞集) 등과 더불어 교유하면서 서사(書史)를 연구했다. 원에서는 그를 심양왕(瀋陽王)에 봉하고 승상으로 삼았다. 박사 유연(劉衍) 등을 강남(江南)으로 보내어 서적을 사들이다가, 배가 파선하여 당시 판전교(判典校) 홍약(洪濤)이 남경(南京)에 있으면서 1백 정(錠)을 연에게 주어 서적 1만 8백 권을 사가지고 돌아왔다. 또 황제에게 품하여 책 4천 70 권을 왕에게 하사했으니, 이것은 모두 송의 비각(秘閣)에 간수했던 책들이다. 심양왕은 원 나라 영종(英宗)에게 강남에 강향(降香)할 것을 청하여, 강소(江蘇)·절강(浙江)에 놀아 보타산(寶陀山)에 이르렀고, 이듬해에 또 강향을 청하여 금산사(金山寺)까지 이르렀더니, 황제는 사자를 보내어 급히 불러 군사를 시켜 옹위해 가지고 본국으로 호송(護送)하라 명령했다. 왕은 지체하고 즉시 떠나지 않으니, 황제는

명령하여 머리를 깎고 불경을 공부하라는 핑계로 토번(吐蕃)의 살사길(撒思吉) 땅으로 유배(流配) 시켰다. 박인간(朴仁幹) 등 18명이 그를 따라 갔는데, 이곳은 연경에서 1만 5천리나 떨어진 곳이니, 충선왕이 어찌 한갓 왕의 천승(千乘) 지위를 버리고 서적만 탐혹해서 그랬을 것이라. 옛날 남월왕(南越王) 율타(尉陀)는 육가(陸賈) 한(漢) 때의 변사(辯士))를 만나고 매우 기뻐서 며칠 동안 머물면서 그와 함께 술을 마셔가며 말하기를,

“월(越)에서는 족히 더불어 이야기할 사람이 없더니, 당신을 만난 뒤로 날마다 못 듣던 소문을 듣는 것이 이 같거든 참으로 눈으로 보게 됨이리요.”

했다 하니, 소위 하백(河伯)이 바다를 보고 탄식한 것³⁶⁾과 같도다. 당시의 종신(從臣) 이제현(李齊賢)의 무리는 비록 문학과 재망(才望)으로 우리나라 거벽(巨擘)이라 일컬었지만, 염(閔) · 요(姚) · 조(趙) · 우(虞)의 틈에 끼었다면 응당 하백이 바다를 본 것처럼 부끄러워 했을 것이다. 옥동교(玉棟橋) 가에서 멀리 오룡정(五龍亭)을 바라볼 때 참으로 이른바 인간의 세상이라 하겠다.

육비(陸秘)의 자는 기잠(起潛)이며, 호는 조음(篠飲)이요, 항주(杭州) 인화(仁和) 사람이다. 건륭 병술년(1766년) 봄에 엄성(嚴誠) · 반정균(潘庭均)과 함께 연경에 와서 홍덕보(洪德保)와 간정호동(乾淨衡衡)에서 사귄 회우록(會友錄)이 있는데, 나는 일찍이 이 책에 서(序)를 써 주었다. 조음의 집은 서호(西湖)인데 동네 이름은 호서대관(湖墅大關)의 주아담(珠兒潭)이다. 기잠은 말하기를,

“육계(肉桂 한약 재료)는 교지(交趾 월남(越南)) 산물로 근세에는 구하기 어려우며, 육계는 성질이 화기(火氣)를 이끌고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계피(桂皮 한약 재료)는 숨은 화기를 일으키는 것이므로 그 용처가 아주 같지 않습니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망령되어 두꺼운 계피를 육계로 대용(代用)하고 있으니 위험한 일이다. 나는 일찍이 이 이야기를 두루 의원들과 약국에 알렸던 바, 마침 통주(通州) 어느 약국에서 육계를 찾았더니 주먹 만한 놈을 내어 보이면서 값은 은

36 하백(河伯) …… 탄식한 것 : 《남화경(南華經)》 추수편(秋水篇)에 나오는 구절.

50냥이라 했다. 범생(范生)이란 자가 나를 따라 오면서 가만히 말하기를,

“이것도 진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도 진품이 떨어진 지 이미 20여 년이나 되었답니다.”

하였다.

《진택장어(震澤長語 저자 미상)》에 이르기를,

“조종(祖宗) 때 세용(歲用)은 황납(黃蠟) 한 가지로만 말하더라도, 국초(國初)에는 일년에 불과 2천 근이던 것이 경태(景泰)·천순(天順) 사이에는 8만 5천 근이 되었고, 성화(成化) 이후는 12만 근으로 불었으니 그 나머지는 가히 미루어 알 것이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정덕(正德) 16년(1521년)에 공부(工部)의 아뢰는 것을 보면, 건모국(巾帽局)에서 소비되는 내시(內侍)의 신에 드는 삼실과 사모(紗帽)와 가죽 등 재료가 성화 연간에는 20여 만이요, 정덕 8·9년에는 46만에 이르고, 말년(末年)에는 72만에 이르렀다 하니, 이것으로도 그 나머지는 가히 알 만한 것이다.”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돈 열 푼을 한 돈이라 하고 열 돈을 한 냥이라 한다. 지금 중국에서는 백 60푼이 1초(鈔)요 16문(文)이 1백(陌)이다. 우리나라 풍속에는 돈 한 문(文)을 한 푼(分)이라 하고 돈 열 푼을 한 돈(錢)이라 한다. 이형암(李炯菴) 덕무(德懋)는,

“이것은 저울과 자에서 나온 것이라 10리(釐)가 한 푼이요, 10푼이 한 촌(寸)이며, 10촌이 일척(一尺)인데, 돈 1문의 두께는 10리(釐)를 쌓은 두께로 한 푼이 되고, 문의 두께는 10푼의 두께로 일 촌이 되니 백 문의 두께는 한 자이다. 저울로 치면 10리가 1푼이요, 10푼이 한 돈이고, 열 돈이 한 냥이니, 지금 돈의 명수(名數)는 저울

에서 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돈은 대소와 후박(厚薄)이 고르지 못해서 이를 표준하기 어렵다.

《해외기사(海外記事)》 1권은 영표(嶺表)의 두타(頭陀) 산업(汕廠)이 강희 갑술(1694)에 대월국(大越國)에 갔을 때 본 여러 가지 일을 기록한 것이다. 대월국은 경주(瓊州) 남쪽 해로(海路)로 만여 리인데 매일 아침이면 전조(箭鳥)란 새가 바다 가운데로부터 날아와 배를 한 바퀴 돌고 앞으로 향해 날아갔다. 뱃사람들은 이것을 신조(神鳥)라고 하며, 바다 가운데 물결 위에는 여러 가지 괴이한 것이 보였다. 혹은 붉고 혹은 검은 작은 기가 있어 잠깐 잠겼다가 잠깐 뜨곤 하였다. 이것은 한 가지가 지나가면 한 가지가 다시 와서 계속하여 십여 가지씩 오는데, 뱃사람들은 이것을 귀전(鬼箭)이라 하며 보기만 해도 이롭지 못하다고 한다. 풍랑(風浪)이 크게 일고 운무(雲霧)가 자욱하게 밀려오면 조룡(鳥龍)이 꿈틀거리며 배 왼편에 나타나는데, 뱃사람들은 급히 유황과 닭털을 태우고 더러운 물건을 물에 뿌리면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했다. 하루 저녁에는 음운(陰雲)이 검검하고 성월(星月)이 빛이 없는데 홀연 뒤에서 화산(火山)의 불빛이 돛대 위에 가까이 비치더니 마치 불(燒)과 석양처럼 밝아 왔다. 뱃사람들은 나무로 뱃전을 두드리며 계속 소리를 내었으니, 이런 지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배의 키가 그 몸뚱이에 걸린 것을 알았다. 배를 조금 옆으로 돌리자 불은 감추어져 보이지 않았으니, 대개 이것은 해추(海魷)의 눈에서 나는 번갯불이라 한다. 이미 그 나라에 이르니, 모두 나체(裸體)에 머리를 풀고 수건으로 앞을 가렸을 뿐이다. 북상투를 틀고 이빨에는 옷칠을 하고 물 위에는 연꽃이 띄는데, 푸른 잎이 번들거리며 뿌리도 없고 줄기도 없었다. 그 나라에서 전쟁을 할 때는 모두 코끼리를 사용하고 국왕이 연무(演武)할 때는 코끼리 열 마리로 짝을 지어, 등에는 붉은 칠을 한 안장을 엮고 세 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에 함께 타는데, 모두 금 투구에 초록빛 옷을 입고 창을 들고 그 등에 선다. 풀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 축대 위에 벌여 세운 다음 군진(軍陣) 모양으로 동고(銅鼓)를 연해 울리고 화기(火器)를 함께 쏘면, 여러 군사들은 앞으로 돌격하여 코끼리 떼에 부딪친다. 이때 코끼리 떼는 역시 축대를 밟고 올라가 앞으로 달아나는데, 모든 군사들은

물러서서 피하고 코끼리들은 저마다 코로 풀사람을 맡아 들고 돌아온다. 국가에서 죄인을 사형할 때는 코끼리를 놓아 사람을 몇 길 위로 던지고 이빨로 받게 하여 가슴과 배를 뚫어 시체가 금시에 썩도록 하기에, 산업이 이 형벌을 없애도록 권했었다. 국왕은 말하기를,

“이 나라 산중에는 서우(犀牛)와 코끼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산 채 코끼리를 잡는 데는 길들인 암코끼리 두 마리를 써서 숫놈을 띄어 오게 하여, 굵은 밧줄로 발을 묶어 나무 사이에 매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며칠 동안 굶긴 다음 상노(象奴)를 시켜 점점 가까이 가서 먹을 것을 주어, 조금씩 길을 들인 뒤에 두 암놈이 끼고 돌아옵니다.”

라고 하였다. 때는 마침 이른 봄이라 논에는 푸른 모가 이미 이삭을 맺고, 거름도 주지 않는데도 한 해에 세 번 수확을 한다고 한다. 풍토(風土)와 기후는 항상 따뜻하여 그들이 습기를 돕고 별이 따가워 쇠라도 녹일 것 같으므로 만물은 가을과 겨울에 피어난다고 한다. 일은 밤에 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지혜가 있고, 나무는 파라밀(波羅密)·야자(椰子)·빈랑(檳榔)·산석류(山石榴)·정향(丁香)·목란(木蘭)·변말리(番茉莉)가 많다. 그 시골 촌락들은 모두 초가에 대 올타리이다.

강희 을미(1715년) 연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진국(黑眞國) 사람이 여자와 같이 가는 것을 산해관(山海關) 밖에서 만났다. 영고탑(寧古塔) 동쪽으로 수천 리를 가면 빙해(氷海)가 있어 5년에 한 번씩 육지(陸地)까지 얼어붙는데 나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흑진국이다. 일찍이 육지에 통하지 못한 지 10여 년에 흑진국 사람 하나가 줄지에 얼음을 건너 서쪽 언덕에 이르렀다. 처음에는 무슨 물건인지 분별하지 못하겠더니 자세히 살펴본즉 사람이었다. 온몸을 짐승 가죽으로 둘러썼고 다만 얼굴만 드러냈는데 머리털은 양털처럼 곱슬머리였다. 변방 사람들이 산 채로 붙들어 북경으로 보냈다. 강희 황제가 그를 불러 보고 밥을 주었더니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생선과 날고기만 먹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앞에 벌여 놓고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가 보았더니, 끝내 돌아보지도 않았다. 여자를 끌어다가 뵈었더니 즉시 흔연히 끌어안았다. 이에 황제가 총명한 여자를 골라 배필로 삼아 주고 또 영리

한 시위(侍衛) 다섯 명을 여자와 함께 보호하여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오곡 종자와 농사하는 법을 가르쳐 보냈더니, 5년 뒤에 그는 여자와 함께 다시 빙해를 건너 와서 은혜를 사례했는데, 주먹만 한 큰 구슬 몇 개와 길이가 한 길 넘는 초피(貂皮)를 갖다 바쳤다. 여자 말에는,

“나라는 큰 바다 가운데 있는데 임금도 어른도 없으며, 키가 큰 사람은 세 길이나 되고 작아도 한 길 넘어 되며, 오직 금수를 사냥하고 생선과 자라를 날로 먹는 것 뿐이요, 바다 속에는 구슬이 가득하여 광채가 괴상하여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한다. 이것은 일암(一菴 미상)의 《연행기(燕行記)》에 실려 있었다. 나는 이야기를 하다가 학지정(郝志亭)에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도 대동소이(大同小異)했다. 이로써 더욱 천하는 넓고 없는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소위 군기 대신(軍機大臣)이란 모두 만인(滿人)이다. 일찍이 듣건대, 국중에 기밀(機密)한 큰일이 있으면, 황제는 비밀히 군기 대신을 불러서 함께 높은 누각(樓閣)에 올라가면 밑에서 사닥다리를 치워 버렸다가 누상(樓上)에서 방울 소리가 난 연후야 도로 그 사닥다리를 가져다 놓는다. 비록 며칠이라도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좌우의 누구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한다. 옹정(雍正) 때 군기 대신은 망곡립(莽鵠立)이었는데, 몽고 사람으로 그림을 잘 그려 일찍이 강희 황제와 옹정 황제의 초상을 그렸다. 악이태(鄂爾泰) · 팡공야(彭公冶)는 모두 문무(文武)를 겸한 재사였으며, 김상명(金常明)은 우리나라 의주 사람으로 역시 군기대신의 칭호를 띠고 있었다. 지금 복차산(福次山)은 밀운점(密雲店)까지 따라왔는데 나이는 25 · 6세 가량으로 역시 군기 대신이라 불렀다.

옹정 2년(1724년) 정월 경자에 함천감(欽天監)이 아뢰기를,

“해와 달이 벽(壁)을 합하여 함께 밝고 오성(五星)이 구슬처럼 연하여 영실(營室)³⁷의 다음으로 돌아드니, 그 위치는 취자(娶妻)³⁸의 궁에 해당하옵니다.”

37 영실(營室) : 28개 성좌(星座) 중의 하나인 실성(實星) 성좌.

38 취자(娶妻) : 미성(尾星)의 16도와 규성(奎星)의 사도에 있는 성좌.

한다. 황제는 직명을 사관(史館)에 붙여 중외(中外)에 알리게 하였다. 또 옹정 4년(1726년)에 친히 적전(籍田)³⁹에 나가 밭을 가는데 가화(嘉禾)가 한 줄기에 두 이삭 으로부터 8·9이삭까지 나왔었다. 이때 오중(吳中)에서는 상서로운 고치를 바쳤는데 크기가 모자만 했다고 하며, 이 밖에도 기린이 나타나고 봉황이 울고 황하가 맑아지며 경운(慶雲)이 뜨고 단 이슬과 신령스러운 지초가 났다는 등, 이런 상서가 없는 해가 없었다. 사사정(查嗣庭 청(淸) 때의 관리)의 일록(日錄)에는 이런 상서는 도리어 재앙이 있을 변으로 삼았고, 혹은 중국에 진인(真人)이 나올 조짐이라 하였다. 사(査)의 옥사(獄事)가 생기자 옹정 황제는 중외에 조서를 내리기를,

“너희 한인들이 이미 태평을 함께 누리면서 그 복을 국가에 돌릴 줄 모르고 반드시 진인이 꼭 나온다고 하니, 이것은 진실로 무슨 마음인가. 이는 정말 반역을 생각하는 백성들이다.”

운운하여, 이 옥사에 연좌된 수가 수만 호에 달했던 바 70성(省)에서 나타난 상서는 옹정 때 이르러서 더욱 많았으며, 한인이 문득 옛 한(漢 망한 명 나라)을 생각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 이는 과연 상서로운 조짐이 아니라 재앙의 조짐인가 보다.

청(淸) 경릉(景陵)의 호는 곧 성조인 황제(聖祖仁皇帝)다. 그 아들은 모두가 명사(名士)로, 과친왕(果親王) 윤례(允禮)의 글씨는 축지산(祝枝山 명(明) 축윤명(祝允明). 지산은 호)에게 비교할 바 아니다. 강녀묘(姜女廟)와 북진묘(北鎮廟)에는 모두 과친왕의 주련(柱聯)이 있었고, 무령현(撫寧縣) 서소분(徐苔芬)의 집에도 역시 과친왕의 글씨가 있기에 나는 모사해 오려고 했으나 길이 바빠서 못하였다.

강희는 아들이 모두 20명이었는데 재자(才子) 이친왕(怡親王) 윤상(允祥), 장친왕(莊親王) 윤록(允祿), 과친왕(果親王) 윤례(允禮), 옹정 황제는 윤진(允禎)인데 넷째 아들이요 팔왕(八王) 윤아(允)와, 구왕 윤당(允禔)과, 십삼왕 윤지(允禩)와, 십오왕 윤우(允祐)와, 염친왕(廉親王) 윤기(允)와, 십사왕은 윤제(允禔)인데 본명은 윤정(允禎)으로, 이는 여러 번 큰 공을 세워 중망(衆望)을 모았다. 강희의 병이

39 적전(籍田) : 황제가 종묘(宗廟)에 바칠 곡식을 친히 경작하는 밭.

위급하자, 한의 각로(閣老) 왕담(王惓)과 함께 고명(顧命)을 받으면서 ‘진(禎)’ 자를 ‘정(禎)’ 자로, 넷째 아들인 것을 열넷째 아들로 잘못 알았다가, 왕담은 죄를 입고 윤정은 역적 괴수로 되었는데, ‘정(禎)’ 자를 ‘제(禪)’ 자로 고쳤다 한다.

우리나라 서해안 장연(長淵)·풍천(豐川) 해변의 고기잡이에는 중국 배들이 휩쓸고 있다. 이들은 모두 각화도(覺華島) 사람으로 매년 5월 초에 와서 7월 초에 돌아간다. 잡는 것은 방풍(防風 한약 재료)과 해삼(海參)뿐으로 때로는 육지에 내려 양식을 청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황제께 아뢰어 금지할 것을 청했다. 강희 54년(1715년) 2월에 예부에서 주청하여 문서를 돌려 봉천 장군(奉天將軍)·봉천 부윤(奉天府尹)과 산둥(山東)·강남(江南)·절강(浙江)·복건(福建)·광둥(廣東) 등지의 독무(督務)에게 신칙(申飭)하여, 연해 수사영(水師營)에서는 조선에 가까운 해상에서 고기를 잡지 못하도록 하고, 밀항(密航)하여 바다를 건너다가 붙들려 조선에 보낸 자를 엄하게 치죄(治罪)할 것과, 그 지방 관리와 해당 부서는 협의하여 역시 엄격히 신칙하고, 조선 연변을 지키는 관리나 군사들이 불시에 순찰하여, 만일 이런 자를 발견할 때는 즉시 붙들어 압송할 것을 운운하였다. 지금 중국 배가 서해안에 오면 지방 이교(吏校)들이 즉시 지방관에게 보고하지만, 실상은 금지할 방도가 없으즉, 알고도 모른 채하고 있다가 돌아갈 시기를 기다려 멀리서 배 떠나는 날짜를 묻고 그제야 수영(水營)에 아뢰기를, 방금 배가 왔다고 하면 수영은 일변 조정에 보고하는 한편, 그 지방 관리에게 그날로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는데, 실상인즉 모두 귀 막고 방을 도둑질하는 격이니, 우리나라 국경 수비가 실로 한심한 일이다.

한(漢)의 제도⁴⁰에 삼공(三公)의 월봉(月俸)은 3백 50곡(斛 곡은 10말)이다. 이 밖에 중 이천석(中二千石)으로부터 백석에 이르기까지 무릇 14등급으로 나누었으니, 중 이천석의 월봉은 1백 80곡이요, 백석의 월봉은 16곡이다. 후한(後漢) 시대 대장군과 삼공의 월봉은 3백 50곡이요, 중 이천석의 월봉은 72곡에 돈이 9천 냥이요, 백석의 월봉은 4곡 8두에 돈 8백 냥이다. 진(晉)의 제도는 품질(品秩)에 있어 제 일 등이 1천 8백 곡이요, 후주(後周)에서는 구명(九命)과 삼공이 1만 석이요, 하사(下

40 한(漢)의 제도 : 관리의 연봉을 곡식의 석수로 표시하던 한(漢)의 관제(官制).

士) 일명(一命)에는 1백 25석이다. 당의 제도는 정일품(正一品)이 매년 7백 석에 돈 3만 1천 냥이요, 종9품(從九品)에 이르러는 52석에 돈 1천 9백 70냥이다. 송의 제도는 41등급인데, 재상과 추밀사(樞密使)가 매월 돈 3백 1천 냥(30만 냥)이요, 보장정(保障正)에 이르러는 2천 냥이다. 명에서는 정일품에 매월 쌀 87석을 주고, 종9품에 5석을 준다. 대체로 비교해서 춘추 전국(戰國) 시대는 대신의 녹봉이 1만 종(鍾 1종은 10부(釜)이다)이라 하였은즉, 한의 삼공의 월봉은 너무 약소한 편이다. 지금 청의 녹봉 제도와 지방관들의 보수를 보면 명의 제도보다 적은 편이다.

고려 중서(中書) · 상서령(尙書令)과 문하시중(門下侍中)은 연봉이 쌀 4백 석이요 조교(助教)에 이르러는 쌀 10섬이다. 우리 조정에서는 정일품은 연봉 98석에 명주 6필, 정포(正布) 15필, 저화(楮貨) 10장이요, 종9품은 12석에 정포 2필, 저화 1장이요, 임진왜란 뒤는 일품 연봉이 60여 석에 명주와 정포 · 저화는 없었다. 대개 녹봉 제도가 전 시대보다 검약해진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관원이 많아진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겨울철 창살에 종이를 붙이는데 사이에 인물과 화초를 그려 넣은 유리 조각을 끼운다. 방 안으로부터 밖을 보면 작은 것이라도 뵈지 않는 것이 없으나 밖에서 안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원래 구양초(歐陽楚 구양초옹인데 옹(翁)자가 빠졌다)의 어가사(漁家詞)에 나오는 화호(花戶) 유창(油牕)이다. 연로(沿路)의 저자에서 채색 그림을 그린 유리를 파는 자가 아주 많은데 이것은 모두 창살에 끼우는 것이다.

구슬을 목에 거는 제도는 반드시 5품 이상이라야 하였는데, 한림(翰林)들은 7품이라도 거는 것이 허락됐다. 지현(知縣)이 되면 걸지 못하는 법인데 통관(通官) 오림포(烏林哺)와 서종현(徐宗顯)의 무리들도 함께 구슬을 걸 수 있는 것은, 외국 사람에겐 영화롭게 보이기 위하여 권도로 걸게 한 것이다.

명(明) 2백 70년 간에 세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으니, 태조 고 황제는 중으로서 몸을 일으켰고, 건문 황제는 대내(大內)에서 중으로 늙었으며, 숭정 황제는 머리를 풀고 나라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다.

왕양명(王陽明)의 도학과 척남궁(戚南宮)의 무략(武略)과 왕남명(汪南溟) 명 나라 문화가 왕도곤(王道昆, 남명은 자)의 문장으로, 모두 사나운 아내가 있어 평생

을 급실거리고 감히 제 기운을 내지 못했다 하니, 또한 명의 세 가지 이상한 일에 들 만하다.

강희 연간에 왕사정(王士禎)은 형부(刑部)에 있으면서 매일 원서(爰書 죄인들의 초사를 기록한 책)를 열람해 보니, 성(姓)이 묘씨(妙氏) · 도씨(島氏) · 반씨(盤氏) · 민씨(民氏) · 전씨(纏氏) · 저씨(杵氏) · 유씨(劉氏) · 율씨(律氏) · 다씨(茶氏) · 연씨(煙氏) · 양씨(穰氏) · 수씨(首氏) · 비씨(卑氏) · 위씨(威氏) · 빙씨(氷氏) · 감씨(坎氏) · 탐씨(楊氏) · 남씨(攬氏) · 자씨(慈氏)가 있었는데 모두 중국의 희성(稀姓)이다. 내가 심양에 이르니, 빈희안(貧希顔) · 희헌(希憲) 형제가 있어 모두 강남 대상(大商)이라 했고, 산해관(山海關)에 오니 구승(臼勝)이란 자가 있어 거인(舉人)이라 했다. 우리나라에도 역시 부씨(夫氏) · 양씨(良氏) 등은 모두 탐라(耽羅)출신이요, 또 불씨(不氏) · 궤씨(鵀氏)도 있는데, 비단 성이 드물 뿐만 아니라 글자도 역시 상고할 수 없으니 괴상한 일이다.⁴¹

세상에 전하기를, 웅백(雍伯)이 옥을 심었다 하는데, 지금 내가 지나가는 옥전현(玉田縣)이 바로 이곳이다. 《오후청(五侯鯖 저자 미상)》에 실린 이야기로, 설경(薛瓊)은 지극한 효자로서 집이 가난하여 나무를 하러가다가 우연히 늙은 농부를 만났더니, 그가 무슨 물건을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은실(銀實)인데, 서쪽 벽토(壁土)를 파다가 동분(銅盆)에 심으면 꼭 은을 얻을 것이다.”

하므로, 그 말대로 심었더니 열흘이 되어 싹이 나고 다시 열흘이 되어 꽃이 피는데, 꽃빛은 은색이어서 자개와 같았다 하며, 열매가 맺었는데 모두 은이었다 한다. 고태사(高太史) 역생(域生)이 나에게 말하기를,

“서역(西域)에서는 양의 배꼽을 심는데, 양을 잡을 때 먼저 배꼽을 따서 이를 흔으

41 우리나라에도……일이다 : ‘수택본’에는, “옛날 이루(離婁)의 이씨(離氏)가 있어서 감씨(坎氏)와 더불어 혼인하고 저씨(杵氏)가 구씨(臼氏)와 더불어 짝이 되었으니, 가히 하늘이 정해 준 배필이라.” 하였다.

로 두껍게 심으면 1년 만에 양이 생긴다 하며, 그것이 땅 위에 얹드려 꼭 짐승 모양으로 되었다가 천둥 소리를 들으면 배꼽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원사(元史)》에 실렸습니다.”

하니, 양의 배꼽을 심을 수 있다면 은과 옥도 역시 심을 수 있을 것인가.

옹정(雍正) 원년(1723년)의 조서에 이르기를,

“대행(大行) 황제의 서사(書笥) 속에서 아직 반포하지 않은 유지(論旨)를 찾아내었으니, 그 내용에, ‘명 태조(明太祖)는 포의(布衣)로서 일어나 천하를 통일하였으니, 문(文)을 경(經)으로 삼고 무를 위(緯)로 삼기는 한 · 송의 여러 임금의 따르지 못할 바요, 그 뒤로 대를 이은 임금들도 역시 전 시대와 같이 포학하고 음탕하나 나라를 망치던 자취는 없었은즉, 이제 지파(支派) 자손 하나라도 찾아서 관직을 주고 춘추 제사라도 받들고자 한다. 내가 생각해 보니, 옛 역사에는 동루(東樓)⁴²를 기록했고, 《시경(詩經)》에는 백마(白馬)를 노래했는데,⁴³ 후세에서는 모두 이를 의심하고 기 회해서 역대 임금의 종사(宗祀)가 끊어지고 말았다. 나는 황고(皇考) 강희(康熙)이다. 의 하늘 같은 마음을 받들고, 멀리 옛 임금의 성한 덕을 본받아서, 삼가 대행황고(大行皇考) 성조 인황제(聖祖仁皇帝)의 유지를 반포하여 명 태조의 지파 자손을 찾아 적당한 직함(職銜)을 주고, 그로 하여금 춘추 향사(享祀)를 하도록 할 것이다’ 했다.”

하였다. 이때 주씨(朱氏) 한 사람이 성명을 바꾸어 숨기고 외읍에 벼슬을 하더니, 원수의 직고(直告)로 인하여 황제가 그를 불러 그 근본을 자세히 묻고는, 특별으로 국공(國公)에 봉하고 명(明)의 제사를 받들도록 했다고 한다.

파극집(巴克什)은 만주말로 큰 선비를 일컫는 것이다. 청 태종(淸太宗) 때 파극집 달해(達海)란 자가 있었는데, 만주 사람으로 나이 21세에 죽으니, 제자로서 효복(孝服)을 입은 자가 3천 명이나 되어 신인(神人)이라 불렀다 한다. 신라 사다함(舍多含)은 15세에 풍표(風標)가 청수(淸秀)하고 지기(志氣)가 방정해서 당시 사람들

42 동루(東樓) : 주 무왕이 천하를 통일한 뒤에 하우(夏禹)의 후손을 동루에 봉하였다.

43 백마(白馬)를 노래했는데 : 기자가 백마로 조주(朝周)한 일을 읊었다.

이 화랑(花郎)으로 삼았더니, 그 무리가 천여 명이나 되었다. 나는 이것을 달해의 숙성(夙成)한 데 비했더니 풍병건(馮秉健)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신라 화랑의 칭호가 이학 선생(理學先生)보다 훨씬 낫습니다. 명(明)의 육경대(陸瓊臺)는 천자(天資)가 고매해서 나이 겨우 약관(弱冠)에 선비들을 동림(東林)⁴⁴에 모아 강론을 하는데, 옷을 걷고 허리를 구부리면서 방 안에 벌여 서는 제자가 하루 아침에도 8백 명이나 되었답니다.”

하였다.

명의 특진광록대부 전군도독부 좌도독(特進光祿大夫前軍都督府左都督) 남창(南昌) 유공(劉公) 정(鋌)의 자는 자신(子紳)이다. 그는 대도(大刀) 쓰기를 좋아하며 대도의 무게가 백 20근이나 되니, 유대도(劉大刀)라 불렸다. 전라도 순천부(順天府)에 있는 열무관(烈武觀)은 곧 그가 임진년에 조선을 도우러 왔을 때 군사를 시찰하던 곳이다. 정이 이 제독(李提督)을 따라 진격하여 왜군의 추장(酋長) 행장(行長)을 문경(聞慶)에서 무찔렀다. 제독은 본국으로 돌아가고 정은 혼자 성주(星州)에 주둔하면서, 거성(莒城)에 들어가 도독 진린(陳璘)과 함께 행장을 순천 앞 바다에서 격파하고, 예교(曳橋)를 포위했으나 10여 일에 행장은 도주했다. 그가 동쪽으로 출사(出師)한 것은 전후 7년인데, 공이 가장 컸고 그 뒤 20년에 심하(深河) 싸움에서 죽었다. 명(明)이 출사할 때 정이 보졸(步卒) 5천으로 왜병을 공격하겠다 하니, 신종황제(神宗皇帝)가 이를 장하게 여겨 허락한 것이다. 명의 사기에는 행장이 가만히 군사 천여 명을 출전시키며 정이 드디어 물러났다 했으나, 이것은 모두 잘못된 사기이다. 사기에 또 이르기를,

“두송(杜松)의 군사가 패하자, 양호(楊鎬)가 말을 달려 정을 불렀으나, 기병이 가기 전에 정은 이미 죽었다.”

하였다. 지금 청의 천자는 정조(正朝)에 반드시 먼저 종묘(宗廟)에 제사 지내고 친히 당자(堂子)에 참배하는데, 혹은 등 장군(鄧將軍)의 묘라고도 하고 혹은 유대도

44 동림(東林) : 명의 동림당(東林黨)의 학자가 강학하던 동림서원(東林書院).

(劉大刀)의 사당이라고도 하며 중국 사람들은 몹시 이것을 비밀히 하여 기뻐한다. 혹은 말하기를,

“유정이 갑자기 죽자 그의 영혼은 심히 영험이 있어, 천자가 친히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천하에 큰 역질이 돌고 흉년이 들며, 종묘에도 문득 재이(災異)가 생겨 편안하지 못하다.”

라고 하였다.

박송당(朴松堂 송당은 박영의 호) 영(英)은 양녕대군(讓寧大君)의 외손이다. 천자(天資)가 호매(豪邁)하고 또 부후(富厚)하며 나이 17세에 요동에 들어가 짐비둘기를 사 가지고 왔다. 내가 요동에 이르렀을 때, 한 전방에서 먹이는 비둘기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저녁이 되면 날아 돌아와 각각 제집을 찾아든다. 전방 안에는 큰 돌 구유에 미리 잣물을 만들어 두었다가 요동 들에 나가 콩을 배부르게 주워 먹은 비둘기가 돌아와 다투어 잣물을 먹고 콩을 모두 토해 놓으면 이것으로 말을 먹였다.

왕원미(王元美)의 《완위여편(宛委餘編)》에는 여자로서 병관(兵官)이 된 자가 실렸는데, 군사마(軍司馬) 공씨(孔氏)는 고침(顧琛)의 어머니요, 정렬 장군(貞烈將軍) 왕씨는 왕흠(王廕)의 딸이다. 당 행영절도(行營節度) 허숙기(許叔冀)의 부하 왕씨 · 당씨(唐氏) · 후씨(侯氏)는 모두 그 행영에서는 과의(果毅 군관(軍官) 이름) 출신 교위(校尉)들이다. 진(陳)의 여자 백경아(白頸鵝)가 거란의 회화 장군(懷化將軍)이 되었다 하였으나, 당 태종이 신라의 선덕 여왕(善德女王)을 추증하여 광록대부(光祿大夫)로 삼고, 또 진덕 여왕을 주국(柱國)에 책봉하여 낙랑군왕(樂浪郡王)으로 봉했으며, 또 왕이 죽자 고종이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로 추증(追贈)한 것은 실리지 못했다. 나는 일찍이 이덕무(李德懋)의 《이목구심서(耳目口心書)》에서 이 기록을 보았다. 유리창(琉璃廠)에 있는 양매서가(楊梅書街)에서 능야(凌野)와 고역생(高域生)과 더불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이 말을 했더니, 능과 고, 그 밖의 여러 사람들도, 자못 넓게 안다고 나를 칭찬하였다.

나는 가는 곳마다 낙화생(落花生)과 귤병(橘餅) · 매당(梅糖) · 국차(菊茶) 등으로

대접을 많이 받았는데, 모두가 복건 · 절강 지방에서 나는 것이다. 양매(楊梅)는 5월에 익으며 그 빛이 붉고 크기는 한 치쯤 되고, 성분이 더워서 많이 먹으면 이가 상한다 한다.

정효(鄭曉 명 나라 학자)의 《고언(古言)》에 이르기를,

“구양영숙(歐陽永叔 구양수(歐陽修), 영숙은 자)은 계사(繫辭)를 비방하고, 사마군실(司馬君實 사마광(司馬光), 군실은 자)은 맹자(孟子)를 비방하며, 왕개보(王介甫 왕안석(王安石), 계보는 자)는 춘추(春秋)를 잘못되었다 하고, 두 정자(程子)는 옛날 대학(大學)을 고치고, 회암 선생(晦庵先生)은 자하(子夏 복상(卜商)의 자)의 시서(詩序)를 쓰지 않았던 일들은 모두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다. 나도 적이 여기에서 느낀 바 있었다.

사람은 아는 것을 너무 자랑하고 함부로 책을 기술할 것이 아니니, 강희 연간에 왕사정(王士禎)의 저서가 가장 많았는데, 그의 필기(筆記)에서 말하기를,

“《풍속통(風俗通)》에, 한의 태수(太守)에 뇌선정(先井) 그 자주(自注)에 정(井)의 음은 담(膽)이다. 이란 자가 있어 스스로 말하되, 자기 성명 석 자에 두 자는 통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내 일찍이 이 말을 이무관(李懋官)에게 했더니, 무관은 말하기를,

“이것은 어양(漁洋)이 잘못 안 것입니다. 《풍속통》에는 교지 태수(交趾太守)로 뇌선(賴先)이란 자가 있는데 뇌() 자는 뇌(賴) 자의 고자(古文)이고, 또 《옥해(玉海 왕응린(王應麟) 저)》에는, 한에 뇌단(賴丹)이란 교위(校尉)가 있었으니, 이것은 뇌선과 뇌단을 합하여 두 사람의 이름을 한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단(丹) 자는 정(井) 자의 본문(本文)이니, 주를 내어 음이 담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하였다. 단가루(段家樓)의 술 자리에서 누명재(漏明齋)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누는 이무관의 박식한 것이 어양보다도 낫다고 하였다.

《춘명몽유록(春明夢游錄)》북평(北平) 손승택(孫承澤)의 저 에 이르기를,

“그들의 국사(國史) 《고려사(高麗史)》를 상고해 보니, 원(元)의 전성 시절에 원 효왕(元孝王 고려의 고종(高宗))이 강화도(江華島)로 옮기니, 원도 어쩔 수가 없어서 다만 그가 육지에 오르지 않는 것만 책망했었다. 그는 필경 원에 복종했지만 마침내 육지에 오르지 않고, 그의 아들 순효왕(順孝王 고려의 원종(元宗))에 이르러 친히 왕주(王主) 원(元)의 공주(公主)를 맞아 원의 복색으로 함께 가마를 타고 본국으로 들어왔다. 보는 자들이 해괴히 여겼으며, 그때 따르는 종실들은 머리를 깎지 않았다 하여 왕은 이를 책망하였다. 그 아들 충렬왕(忠烈王) 때에 이르러 재상으로 부터 하료(下僚)에 이르기까지 머리를 깎지 않는 자가 없었고, 다만 금내(禁內)에 있는 학관(學館)에서만 머리를 깎지 않았으므로, 좌승지(左承旨) 박환(朴桓)이 집사(執事)를 불러 일러서, 이때에야 관학생(館學生)들도 모두 머리를 깎았다.”

하였다. 청이 처음 일어날 제 한인을 붙드는 대로 머리를 깎았으며, 정축년(1637년) 맹약(盟約)에는 우리나라 사람의 머리는 깎지 않았다. 대개 여기에는 까닭이 있으니 세상에서 전하는 말에는,

“청인들이 여러 번 한(汗) 청(淸)의 태종(太宗)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를 깎도록 명령하라고 권했으나, 한(汗)은 묵연(默然)히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여러 패륜(貝勒)들에게 이르기를, 조선은 본래 예의로 이름이 나서 머리털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이제 만일 억지로 그 심정을 꺾는다면 우리 군사가 돌아온 뒤에는 반드시 반복(反覆)할 터이니, 그들의 풍속에 따라 예의로써 얹매어 두는 것만 못할 것이다. 저들이 도리어 우리 풍속을 익혀 기사(騎射)에 편리해진다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다.”

하고, 드디어 그만두었다. 우리로서 말하자면 다행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들로서 계교한다면 우리들의 문약(文弱)함을 그대로 두려워한 것이었다.



옥갑야화(玉匣夜話)

옥갑(玉匣)에 돌아와서 모든 비장들과 더불어 머리를 맞대고 밤들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연경은 옛날에는 풍속이 순후하여 역관배가 말하면 비록 만 금이라도 무난히 빌려주었는데, 이때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모두 사기로써 농사를 삼으니 이는 실로 잘못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서른 해 전에 한 역관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이 연경에 들어갔다가 돌아올 제 그 단골 주인을 보고서 울었다. 주인은 괴이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강을 건널 때에 가만히 남의 은(銀)을 가지고 왔더니 일이 발각되자 제 것까지 모두 관(官)에 몰수되었습니다. 이제 빈 손으로 돌아가려니 무엇으로도 생활할 수 없겠기에 차라리 이곳에서 죽고자 합니다.”

하고는 곧 칼을 빼어 자살하려 하였다. 주인이 놀라서 급히 그를 껴안고 칼을 빼앗으면서,

“몰수된 은이 얼마나 되는지요.”

하였더니, 그는,

“삼천 냥입니다.”

하였다. 주인은,

“사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음이 걱정이지, 은이 없기로 무엇이 근심이요. 이제 이곳에서 죽고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의 처자에게 어떻게 하려는 거요. 이제 내가 당신에게 만 금을 빌려 드릴 테니 다섯 해 동안을 늘이면 아마 만 금은 남겠지요. 그때 가서 본전으로 나에게 갚아 주시오.”

하고는, 그를 돌보면서 위안하였다. 그는 이미 만 금을 얻자, 곧 물건을 많이 사가

지고 돌아왔다. 그 당시에는 그 일을 아는 이가 없었으므로 모두들 그의 재능을 신기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는 과연 다섯 해 만에 큰 부자가 되었다. 그는 곧 역원(譯院)의 명부에서 자기의 이름을 깎아버리고는 다시 연경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윽고 그의 친구 하나가 연경에 들어가기에, 그는,

“연경 저자에서 만일 아무 단골 주인을 만나면 그는 웅당 나의 안부를 물을 테니 자네는 그의 온 집안이 몹쓸 유행병을 만나서 죽었다고만 전해 주게.”

하고, 가만히 부탁의 말을 던졌다. 그 친구는 이 말이 너무나 허황함으로 곤란한 빛을 보였다. 그는,

“만일 그렇게만 하고 돌아온다면 마땅히 자네에게 돈 일백 냥을 바치겠네.”

하고, 단단히 부탁하였다. 그 친구가 연경에 들어서자 그 단골 주인을 만났다. 주인이 역관의 안부를 묻기에, 그 친구의 부탁한 바와 같이 답하였더니, 주인은 곧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한바탕 슬피 울면서,

“아아, 하느님이시여. 무슨 일로 이다지 좋은 사람의 집에 이렇듯 참혹한 재앙을 내리셨나요.”

하고는, 곧 백 냥을 그에게 주면서,

“그이가 처자와 함께 죽었다니 주장할 이도 없을 테니, 당신이 고국에 돌아가시는 그 날로 나를 위하여 오십 냥으로 제물을 갖추고, 또 나머지 오십 냥으로 재(齎)를 벌여서 그의 명복(冥福)을 빌어 주시오.”

하였다. 그 친구는 몹시 아연했으나 벌써 거짓말을 하였는지라, 하는 수 없이 백 냥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그 역관의 온 집안은 벌써 역질을 만나서 몰사하였다. 그는 크게 놀라는 한편 두렵기도 하여 그 일백 냥으로 그 단골 주인을 위하여 재를 드리고, 죽을 때까지 다시 연행(燕行)을 폐기하고는, 말하기를,

“내 무슨 낮으로 그 단골 주인을 만나겠어.”

라고 하였다.

어떤 이가 말하기를,

“이 지사(李知事) 추(樞)는 근세에 이름 있는 통역관이었으나 평소에 입에는 돈 이
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40여 년을 연경에 드나들었으되 그 손에는 일찍이 은을
잡아본 적이 없었으며, 근실한 군자(君子)의 풍도를 지녔다.”

한다.

어떤 이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성군(唐城君) 홍순언(洪純彦)은 명(明) 만력(萬曆) 때의 이름난 통역관으로서 명
경(明京)에 들어가 어떤 기생 집에 놀러 갔었다. 기생의 얼굴에 따라서 놀이채의
등급을 매겼는데, 천 금이나 되는 비싼 돈을 요구하는 자가 있었다. 홍(洪)은 곧 천
금으로써 하룻밤 놀기를 청하였다. 그 여인은 나이 바야흐로 16세요, 절색을 지녔
다. 여인은 홍과 마주 앉아서 울면서 하는 말이, ‘제가 애초 이다지 많은 돈을 요청
한 것은 실로 이 세상에는 모두들 인색한 사나이가 많으므로 천 금을 버릴 자 없으
리라 생각하고서 당분간의 모욕을 면하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루 이
틀을 지나면서 관 주인을 속이는 한편, 이 세상에 어떤 의기를 지닌 남자가 있어
서 저의 잡힌 몸을 속(贖)하여 사랑해 주기를 희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창관(娼館)에 들어온 지 닷새가 지났으나 감히 천 금을 갖고 오는 이가 없었더니,
이제 다행히 이 세상의 의기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公)은 외
국 사람인 만큼 법적으로 보아서 저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시기에는 어렵사옵
고, 이 몸은 한번 더럽힌다면 다시 씻기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한다. 홍은 그를
몹시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창관에 들어온 경로를 물었더니, 여인은 답하기를, ‘저
는 남경(南京) 호부 시랑(戶部侍郎) 아무개의 딸이옵니다. 아버지께서 장물(贓物)
에 얽매었으므로 이를 갚기 위하여 스스로 기생 집에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죽음을
속하고자 하옵니다.’ 한다. 홍은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나는 실로 이런 줄은

물랐소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몸을 속해 줄 테니 그 액수(額數)는 얼마나 되는지요.’ 했다. 여인은 말하기를, ‘이천 냥입니다.’ 하였다. 홍은 곧 그 액수대로 그에게 치르고는 작별하기로 하였다. 여인은 곧 홍을 은부(恩父)라 일컬으면서 수없이 절하고는 서로 헤어졌다. 그 뒤에 홍은 이에 대하여 괘념(掛念)하지 않았다. 그 뒤에 또 중국을 들어갔는데, 길가에 사람들이 모두들 ‘홍순언이 들어오나요.’ 하고 묻기에, 홍은 다만 괴이하게 여겼을 뿐이었더니, 연경에 이르자, 길 왼편에 공장(供帳)을 성대하게 베풀고 홍을 맞이하면서, ‘병부(兵部) 석 노야(石老爺)께서 환영하옵니다.’ 하고는 곧 석씨(石氏)의 사저로 인도한다. 석 상서(石尙書)가 맞이하여 절하며, ‘은장(恩丈)이시옵니까. 공의 따님이 아버지를 기다린 지 오래되었답니다.’ 하고는 곧 손을 이끌고 내실로 들었다. 그의 부인이 화려한 화장으로 마루 밑에서 절한다. 홍은 송구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석 상서는 웃으면서, ‘장인(丈人)께서 벌써 따님을 잊으셨나요.’ 한다. 홍은 그제야 비로소 그 부인이 곧 지난날 기생 집에서 구출했던 여인인 줄을 깨달았다. 그는 창관에서 나오게 되자 곧 석성(石星)의 계실(繼室)이 되었던 바, 전보다 귀하게 되었으나 그는 오히려 손수 비단을 짜면서 군데군데 보은(報恩) 두 글자를 무늬로 수놓았다. 홍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보은단(報恩緞) 외에도 각종 비단과 금은 등을 이루 헤아리지 못할 만큼 행장 속에 넣어 주었다. 그 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석성이 병부에 있으면서 출병(出兵)을 힘써 주장하였으니, 이는 석성이 애초부터 조선 사람을 의롭게 여겼던 까닭이다.”

어떤 이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조선 사람 장사치들과 친하고도 단골 주인인 정세태(鄭世泰)는 연경에서의 갑부(甲富)였다. 그러던 것이 세태가 죽자, 그 집은 곧 일패도지(一敗塗地)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에게는 다만 손자 하나가 있었는데, 못 사내 중에 절색(絕色)이었으나 어려서 극장(劇場)에 몸을 팔았다. 세태가 살아 있을 적에 회계(會計)를 보던 임가(林哥)는 이때에 와서 이름난 부자가 되었는데, 극장에서 어떤 미남자가 연극하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퍽 애처롭게 생각하던 차에 그가 정씨(鄭氏)의 손자인 줄을 알고는 서로 껴안고 울었다. 곧 천 금으로 그를 속(贖)해 집에 데리고 돌아와 집 사

람들에게 타이르기를, ‘너희들은 잘 대우하렸다. 이 이는 우리 집 옛 주인이니 결코 배우의 몸이라 해서 천시하지 말라.’ 하고는 그가 자라난 뒤에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살림을 시켰다. 그는 몸이 살찌고 살결이 몹시 희며, 또한 얼굴이 아름답고도 화려하였다. 그는 아무런 일도 없이 다만 연(鵝) 날리기로써 성 안을 노닐 따름이었었다.”

옛날 이곳에서 물건을 매매할 때는 봇짐을 끌러 검사하지 않고, 곧 연경에서 싸보낸 그대로 갖고 와서는 장부와 대조해 보아도 조금도 그릇됨이 없었다. 어느 때인지 흰 털감투로써 겹을 쓴 것이 있었는데 돌아와서 끌러 본즉 모두 흰 모자였다. 그러나 저쪽에서 고의로 그러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저곳에서 검사해 보지 못했던 것을 스스로 후회하였더니, 정축년(1517년)에 두 번이나 국상(國喪)을 당하자¹ 도리어 배나 되는 값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역시 그네들의 일이 옛날과 같지 않다는 전조(前兆)인 것이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화물을 반드시 스스로 단속하고, 단골 집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다 한다.

어떤 이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변승업(卞承業)이 중한 병에 걸리자 곧 변돈 놀이의 총계를 알고자 하여 모든 과계(夥計) 장부(帳簿)를 모아 놓고 통계를 내어본즉, 은(銀)이 모두 50여 만 냥이나 적립되었다. 그의 아들이 청하기를, ‘이를 훔는다면 거두기도 귀찮을 뿐더러 시일을 오래 끌면 소모되고 말 테니 그만 여수(與受)를 끊는 것이 옳겠습니다.’ 했을 때 승업은 크게 분개하면서, ‘이는 곧 서울 안 만호(萬戶)의 명맥(命脈)이니 어찌서 하루아침에 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고는, 곧 빨리 돌려 보내게 하였다. 승업이 이미 나이 늙으매 그의 자손들에게 경계하기를, ‘내 일찍이 공경(公卿)들을 섬겨본 적이 많은데 그들 중에 나라의 권세를 잡고서 자기의 사사 이익을 꾀하는 이치고 그 권세가 삼 대를 뺀 이가 없더라 말이야. 그리고 온 나라 사람 중에서 재물을 늘리는 이들이 으레 우리 집 거래를 표준 삼아서 오르내리는 것도 역시 국론(國論)

1 국상(國喪)을 당하자 : 2월에는 정성 왕후(貞聖王后) 서씨(徐氏)의 국상이 있었고, 3월에는 인원 왕후(仁元王后) 김씨(金氏)의 국상이 있었다.

인 만큼, 이를 흠어 버리지 않는다면 장차 재앙이 미칠거야.’ 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그 자손이 번창하면서 모두들 가난한 것은, 승업이 만년에 재산을 많이 흠어버린 까닭이다.”

나도 역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일찍이 윤영(尹映)이란 이에게 변승업의 부(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부는 애초부터 유래가 있어서 승업의 조부 에는 돈이 몇 만 냥에 지나지 않았더니, 일찍이 허씨(許氏) 성(姓)을 지닌 선비의 은 십만 냥을 얻어서 드디어² 일국의 으뜸이 되었던 것이 승업에게 이르러서 조금 쇠퇴된 셈이다. 그가 처음 재산을 일으킬 때에 역시 운명이 있는 듯싶었다. 허생(許生)의 일로 보아서 이상스러우니, 허생은 끝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으므로 세상에서는 그를 아는 이가 없었다 한다. 이제 윤영의 이야기를 적으면 다음과 같다.

2 승업의……드디어 : 옥갑야화(玉匣夜話)로 되어 있는 여러 본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옥류산관본(玉溜山館本)’ 진덕재야화(進德齋夜話)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허생전(許生傳)

“허생(許生)³은 목적골에 살고 있었다. 줄곧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터 위에 해묵은 은행나무⁴가 서 있고, 사립문이 그 나무를 향하여 열려 있으며, 초옥 두어 칸이 비바람을 가리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였고, 그의 아내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 겨우 입에 풀칠하는 셈이다. 하루는 그 아내가 몹시 주려서 훌쩍훌쩍 울며 하는 말이,

‘당신은 한 평생에 과거(科擧)도 보지 않사오니 이럴진대 글은 읽어서 무엇하시리오.’

하였다. 허생은,

‘난 아직 글 읽기에 세련되지 못한가 보오.’

하고 꺾꺾대곤 했다. 아내는,

‘그러면 공장이 노릇도 못하신단 말예요.’

하였다. 허생은,

‘공장이 일이란 애초부터 배우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겠소.’

하니, 아내는,

‘그럼, 장사치 노릇이라도 하셔야죠.’

한다. 허생은,

‘장사치 노릇인들 밑천이 없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겠소.’

3 허생(許生)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옥류산관본’을 따라서 추록하였다.

4 은행나무 : 흔히들 살구나무로 해석하나 잘못된 것이다.

하였다. 그제야 아내는 곧,

‘당신은 밤낮으로 글 읽었다는 것이 겨우 어찌할 수 있겠소 하는 것만 배웠소그려. 그레 공장이 노릇도 하기 싫고, 장사치 노릇도 하기 싫다면, 도둑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떻소.’

하고는 몹시 흥분하는 어조로 대꾸했다. 이에 허생은 할 수 없이 책장을 덮어 치우고 일어서면서,

‘아아, 애석하구나. 내 애초 글을 읽을 제 십 년을 채우렸더니 이제 겨우 7년밖에 되지 않는군.’

하고는, 곧 문밖을 나섰으나, 한 사람도 아는 이가 없었다. 그는 곧장 종로 네거리 에 가서 저자 사람들에게 만나는 대로,

‘여보시오, 서울 안에서 누가 제일 부자요.’

하고 물었다. 때마침 변씨(卞氏 변승업(卞承業)의 조부)를 알려주는 이가 있었다.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았다. 허생이 변씨를 보고서 길게 읊(揖)하며,

‘내 집이 가난해서 무엇을 조금 시험해 볼 일이 있어 그대에게 만 금(萬金)을 빌리러 왔소.’

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곧 만 금을 내주었다. 그러나 그는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어디론지가 버렸다. 변씨의 자제(子弟)와 빈객(賓客)들은 허생의 꼴을 본즉, 한 비렁뱅이였다. 허리에 실패를 둘렀으나 술이 다 뿔쳐 버렸고, 가죽신을 켜나 뒷굽이 자빠졌으며, 다 망그러진 갓에다 검은 그을음이 흐르는 도포(道袍)를 걸쳐 입었는데, 코에서는 맑은 물이 흘쩍흘쩍 내리곤 한다. 그가 나가 버린 뒤에 모두들 크게 놀라

며,

‘아버지, 그 손님을 잘 아십니까.’

하고 물었다. 변씨는,

‘몰랐지.’

‘그러시다면 어찌 잠깐 사이에 이 귀중한 만 금을 평소에 면식도 없는 자에게 헛되이 던져 주시면서 그의 성명도 묻지 않음은 무슨 까닭이십니까.’

했다. 변씨는,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엔 반드시 의지(意志)를 과장하여 신의(信義)를 나타내는 법이다. 그리고 얼굴빛은 부끄럽고도 비겁하며, 말은 거듭함이 일쑤이니라. 그런데, 이 손님은 옷과 신이 비록 떨어졌으나 말이 간단하고 눈 가짐이 오만하고 얼굴엔 부끄러운 빛이 없음으로 보아서 그는 물질(物質)을 기다리기 전에 벌써 스스로 만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아마 그의 시도하려는 방법도 적지 않거니와, 나 역시 그에게 시도함이 없지 않는 거다. 그리고 주질 않는다면 모르려니와 기왕 만 금을 줄 바에야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느냐.’

하였다.

이에 허생은 이미 만 금을 얻어 갖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언뜻 생각하기를,

‘저 안성(安城)은 기(畿) · 호(湖)의 접경이요, 삼남(三南)의 어귀였다.’

하고는, 곧 이에 머물러 살았다. 그리하여 대추 · 밤 · 감 · 배 · 감자 · 석류 · 굴 ·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값을 배로 주고 사서 저장했다. 허생이 과실을 도고(都庫)⁵ 하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지 얼마 아니 되어서

5 도고(都庫) : 물건을 도거리로 혼자 맡아서 파는 일.

앞서 허생에게 값을 배로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십 배를 치렀다. 허생은,

‘어허, 겨우 만 금으로 온 나라의 경제(經濟)를 기울였으니 이 나라의 얕고 깊음을 짐작할 수 있구나.’

하고는, 곧 칼·호미·베·명주·솜 등을 사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거두면서,

‘몇 해만 있으면 온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지 못할 거야.’

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서 망건(網巾) 값이 과연 십 배나 올랐다. 허생은 늙은 뱃사공에게,

‘영감, 혹시 해외(海外)에 사람 살 만한 빈 섬이 있는 것을 보았나.’

하고 물었더니, 사공은,

‘있습디다그려. 제 일찍이 바람에 휩쓸려서 줄곧 서쪽으로 간 지 사흘 낮밤 만에 어떤 빈 섬에 닿았습디다그려. 그곳은 아마 사문(沙門)·장기(長崎) 사이에 있는 듯싶은데, 모든 꽃과 잎이 저절로 피며, 온갖 과일과 오이가 저절로 성숙되고, 사슴이 떼를 이루었으며, 노니는 고기들은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더이다.’

한다. 허생은 크게 기뻐다.

‘자네 만일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준다면 부귀(富貴)를 함께 누릴 걸세.’

했다. 사공은 그의 말을 좇았다. 이에 곧 바람 편을 타고 동남 쪽으로 그 섬에 들어갔다.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 바라보며,

‘땅이 천 리가 채 못 되니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나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 부가옹(富家翁)의 노릇쯤은 하겠구나.’

하고, 섬섬한 표정을 지었다. 사공은,

‘섬이 터엉 비고 사람 하나 구경할 수 없으니 뉘와 함께 사신단 말씀이시오.’
했다. 허생은,

‘덕(德)만 있으면 사람은 저절로 찾아드는 거야. 나는 오히려 내 덕 없음이 걱정이
지 사람 없음이 무슨 걱정이 될 건고.’

했다. 이때 마침 변산(邊山)에 도적 수천 명이 떼를 지어 있었다. 주(州)·군(郡)에
서 군졸을 징발하여 뒤를 쫓아 잡으려 하였으나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못 도적 역
시 잠시도 밖으로 나와서 노략질을 하지 못하여 바야흐로 주리고 곤한 판이었다.
허생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의 괴수(魁帥)를 달래기 시작했다.

‘너희들 천 명이 합쳐 돈 천 냥을 훔쳐서 서로 나누어 갖게 되면 각기 얼마나 되겠
는고.’

하고 물었다. 그는,

‘하나 몫이 한 냥밖에 더 되나유.’

한다. 허생은 또,

‘그럼 너희들의 아내는.’

하자, 못 도적은,

‘없어유.’

한다.

‘그럼 너희들의 밭은 있겠지.’

했더니, 이때에 못 도적은 웃으며,

‘밭 있구, 아내 있다면야 어찌 이다지 괴롭게 도둑질을 일삼겠수.’

한다. 허생은,

‘정말 그렇다면 아내를 얻고 집을 세우고, 소를 사서 농사지어 살면, 도둑놈이란 더러운 이름도 없을뿐더러 살림살이엔 부부(夫婦)의 낙(樂)이 있을 것이며, 아무리 나와서 쏘다닌다 하더라도 체포당할 걱정이 없고, 길이 잘 입고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했다. 못 도적은,

‘그야 정말 소원이겠지만 다만 돈이 없을 뿐이여유.’

한다. 허생은 껄껄 웃으며,

‘너희들이 도둑질 한다면 돈이 그렇게 그리다면 내 너희들을 위해서 마련해 줄 수 있으니 내일 저 바닷가를 건너다 보면 붉은 깃발이 바람결에 펄펄 날리는 게 모두 돈 실은 배일 거야. 너희들 멋대로 가져 가려무나.’

했다. 허생은 이렇게 못 도적에게 약속하고는, 어디론지 가버렸다. 못 도적은 모두 그를 미친놈으로 알고 웃었다. 그 다음날이었다. 그들은 시험삼아 바닷가에 이르렀다. 허생은 벌써 삼십만 냥을 싣고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나란히 절하며,

‘이제부터 오직 장군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한다. 허생은,

‘이것을 힘껏 지고 가는 게 어때.’

했다. 이에 못 도적이 다투어 돈을 저보려 했으나 백 냥을 채우지 못했다. 허생은,

‘너희들 힘이 겨우 백 냥도 들지 못하면서 무슨 도둑질인들 변변히 할 수 있겠는

가. 이제 너희들이 비록 평민(平民)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이름이 도적의 명부(名簿)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지 않다. 그러니 내 이곳에서 너희들 돌아오길 기다릴 테니 각기 백 냥씩을 갖고 가서 하나의 뭍에 계집 한 사람과 소 한 필씩을 데리고 오려다.’

했다. 못 도적은,

‘예이.’

하고, 모두들 흠어져 버렸다. 그리고 허생은 스스로 이천 명이 일 년 동안 먹을 식량을 장만하고 기다렸다. 못 도적은 과연 기일이 되자 다 돌아오되 뒤떨어진 자 없었다. 이에 모두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이렇게 도적떼를 데리고 사라지니 온 나라 안이 잠잠하였다. 이에 나무를 베어 집을 세우고, 대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지질(地質)이 온전하매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목정밭은 갈지 않고 김매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씩이나 달렸다. 삼년 먹을 식량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에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日本)의 속주(屬州)로서 호수(戶數)가 31만이나 되는데, 바야흐로 큰 흉년이 들었는지라 드디어 다 풀어 먹이고는 은(銀) 백만 냥을 거두었다. 허생은 탄식했다.

‘이제야 내 조금 시험해 보았구나.’

하고는, 곧 남녀 2천 명을 모두 불러 놓고,

‘내 처음 너희들과 함께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이 문자(文字)를 만들며 옷갓을 지으려 하였는데 땅이 작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다. 너희들은 어린애가 나서 손가락을 잡을 만하거든 오른손으로 쥐기를 가르치고 하루를 일찍 낚어도 먼저 먹게 사양하려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며,

‘가지 않으면 곧 오는 이도 없겠지.’

하고, 또 돈 50만 냥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를 때면 이를 얻을 자 있겠지. 백만 냥이면 이 나라엔 용납할 곳이 없으니 하물며 이런 작은 섬일까보냐.’

하고, 또 그 중에 글을 아는 자를 불러내어 배에 태우고,

‘이 섬나라에 화근(禍根)을 뽑아 버려야지.’

하고는, 함께 떠나왔다. 온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하소연할 곳마지 없는 자에게 돈을 나눠 주고도 오히려 10만 냥이 남았기에,

‘이것으로 변씨에게 빌린 것을 갚아야지.’

하고는, 곧 변씨를 찾아 보고서,

‘그대, 날 기억하겠소.’

하고 물었다. 변씨는 놀란 어조로,

‘자네, 얼굴빛이 조금도 전보다 낫지 않으니 만 냥을 잃어버린 모양이지.’

한다. 허생은 깔깔 웃으며,

‘재물로써 얼굴빛을 좋게 꾸미는 것은 그대들이나 할 일이지. 만 냥이 아무리 중한 들 어찌 도(道)를 살찌게 한단 말야.’

하고는, 곧 돈 10만 냥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한때의 주림을 참지 못해서 글 읽기를 끝내지 못했으니, 그대의 만냥을 부끄러워할 뿐이로세.’

했다. 변씨는 크게 놀라서 일어나 절하며 사양하고는 십분의 일의 이문(利文)만을 받으려 했다. 허생은 그제야 크게 노하여,

‘그대는 어찌 날 장사치로 대우한단 말인가.’

하고는, 소매를 뿌리치고 가 버린다. 변씨는 하는 수 없어 가만히 그 뒤를 따라 밟았다. 그는 남산 밑으로 향하더니 한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가 버린다. 마침 늙은 할미가 우물 곁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변씨는,

‘저 오막살이는 뉘 집이고.’

하고 물었다. 할미는,

‘허 생원(許生員) 댁입니다. 그분이 가난하되 글 읽기를 좋아하더니 어느 날 아침 집을 떠나고는 안 돌아온 지 벌써 다섯 해나 된답니다. 그리고 다만 아내가 홀로 남아서 그가 집 떠나던 날에 제사를 드린답니다.’

한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姓)이 허(許)인 줄을 알고 탄식하고 돌아왔다. 그 이튿날 자기의 은(銀)을 다 가지고 가서 그에게 바쳤다. 허생은,

‘내 일찍이 부(富)하려 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을 취하겠는가. 나는 이제부터 그대를 믿어 밥을 먹겠으니 그대가 자주 와서 나를 돌봐주게그려. 다만 식구를 헤아려 식량을 대며 몸을 재어서 베를 마련해 준다면 일생에 그것으로 만족할지니 무슨 까닭에 재물로써 나의 마음을 괴롭히겠나.’

하고, 사양한다. 변씨는 백방(百方)으로 허생을 달래었으나 끝내 막무가내였다. 변씨는 이로부터 허생의 의식이 결핍되었을 것을 짐작되는 대로 반드시 손수 날라다 대어 주면, 허생은 역시 흔연(欣然)히 받되 혹시나 분량이 초과되면 곧 기뻐하지 않는 어조로,

‘그대가 어째서 내게 재앙을 끼쳐 주려 하누.’

했다. 그러나 술병을 차고 가면 더욱 기뻐하여 서로 권커니 마시거니 하여 취하고야 말았다. 그러저럭 몇 해를 지나고 본즉 피차에 정이 날마다 두터워졌다. 어느

날 조용히,

‘다섯 해 동안에 어떻게 백만 금을 벌었습죠.’

하고 물었다. 허생은,

‘이건 가장 알기 쉬운 일일세. 우리 조선(朝鮮)은 배가 외국과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국내(國內)에 두루 다니지 못하는 까닭으로, 백물(百物)이 이 안에서 생산되어 곧 이 안에서 소비되곤 하지 않나. 대체로 천 냥이란 적은 재물이어서 물건을 마음껏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이를 열로 쪼갠다면 백 냥짜리가 열이 될지니 이를 가지면 아무래도 열 가지 물건이야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물건의 무게가 가벼우면 돌려 빼기 쉬운 까닭으로 한 가지 물건이 비록 밀렸다 하더라도 아홉 가지 물건에 이문이 남는 법이니 이는 보통 이문을 내는 길ियो, 저 작은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방법이지. 그리고 대체로 만 금만 가지면 족히 한 가지 물건은 다 살 수 있으므로 수레에 실린 것이면 수레를 모조리 도매할 것이며, 배에 담긴 것이라면 배를 온통 살 수 있겠고, 한 고을에 가득 찬 것이라면 온 고을을 통틀어서 살 수 있을 것이니, 이는 마치 그물에 코가 있어서 물건을 모조리 훑어들임과 같지 않겠나. 그리하여 물의 산물(產物)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니, 물에서 나온 고기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니, 의약(醫藥)의 재료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그 하나를 슬그머니 독점해 버린다면, 그 한 가지의 물건은 한 곳에 갇히매 모든 장사치의 손 속이 다 마르는 법이니, 이는 백성을 못살게 하는 방법이야. 뒷세상에 나랏일을 맡은 이들이 행여 나의 이 방법을 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걸세.’

한다. 변씨는,

‘에당초 당신은 무엇으로써 내가 만 금을 내어 줄 것을 예측하고 찾아와 빌리기로 했던 거요.’

했다. 허생은,

‘이는 반드시 자네만이 내게 줄 것이 아닐세. 만 금을 지닌 자 치고는 주지 않을 자 없겠지. 내 재주가 족히 백만 금을 벌 수는 있겠으나 다만 운명은 저 하늘에 달려 있는 만큼 내 어찌 예측할 수 있었겠나. 그러므로 나를 능히 쓰는 자는 복(福)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는 반드시 부(富)에서 더 큰 부를 누릴 테니 이는 곧 하늘이 명하는 바라, 그가 어찌 아니 줄 수 있겠나. 이미 만 금을 얻은 뒤엔 그의 복을 빙자(憑藉)해서 행한 까닭에 움직이면 문득 성공하는 것이니, 만일 내가 사사로이 혼자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성패(成敗)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

한다. 변씨는,

‘지금 사대부(士大夫)들이 앞날 남한(南漢)에서의 치욕을 씻고자 하는데, 이야말로 슬기 있는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슬기를 펼 때인 만큼 당신과 같은 재주로 어찌 괴롭게 어둠에 잠겨서 이 세상을 마치려 하시오.’

했다. 허생은,

‘어허, 예로부터 어둠에 잠긴 자가 얼마나 많았던고. 저 조성기(趙聖基)졸수재(拙修齋)는 적국(敵國)의 사신(使臣)으로 보낼 만하건마는 베잠방이로 늙어 죽었고, 유형원(柳馨遠)반계거사(磻溪居士)은 넉넉히 군량을 나를 만하였으나 저 해곡(海曲)⁶에서 바장이고 있지 않았던가. 그리고 보니 지금의 나랏일을 보살피는 자들을 가히 알 것이 아니겠는가. 나로 말한다면 장사를 잘하는 자인 만큼 내 돈이 넉넉히 아홉 나라 임금의 머리를 살 수 없음은 아니로되 아까 저 바닷속에 그걸 던지고 온 것은 아무런 쓸 곳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네.’

한다. 변씨는 곧 “후유” 하며 긴 한숨을 내쉬고 가 버렸다.

변씨는 애초부터 정승(政丞)이완(李浣)⁷과 친했다. 이공(李公)은 때마침 어영 대장

6 해곡(海曲) : 여기서는 전라도 부안(扶安)을 가리킨 말.

7 이완(李浣) : 조선 효종(孝宗) 때 무신. 자는 정지(澄之).

(御營大將)⁸에 취임되었다. 그는 일찍이 변씨와 이야기하다가,

‘지금 저 위항(委巷)과 여염(閭閻) 사이에 혹시 기이한 재주가 있어서 커다란 일을 같이 할 만한 자가 있느냐.’

했다. 변씨는 그제야 허생을 소개했다. 이공은 깜짝 놀라며,

‘기특하이, 정말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의 이름은 무어라 하던고.’

한다. 변씨는

‘소인이 그와 상종한 지 삼년이나 되었습니다만, 아직껏 그 이름은 몰랐소이다.’

했다. 이공은 또,

‘그 이가 곧 이인(異人)이야. 자네와 함께 그를 찾아가 보세.’

하고는, 밤들어 이공은 수행 자들을 다 물리치고 변씨만을 데리고 걸어서 허생의 집을 찾았다. 변씨는 이공을 말려 그 문밖에 세워 놓고 혼자서 먼저 들어가 허생을 보고 이공이 찾아온 사연을 갖추어 말했다. 허생은 들은 체 만 체 그저 하는 말이,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빨리 풀게.’

한다. 그리하여 서로 더불어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이 오랫동안 바깥에 있을 을 딱하게 여겨서 자주 말을 하였으나 허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느덧 밤은 이미 깊었다. 허생은 그제야,

‘손님 좀 불러 볼까.’

한다. 이공이 들어왔다. 허생은 굳이 앉아서 일어서지 않았다. 이공은 몸둘 곳이 없을 만큼 불안했다. 황급히 국가에서 어진 이를 구하는 뜻을 진술했다. 허생은 손을 저으며,

8 어영대장(御營大將) : 어영청(御營廳)의 주장(主將), 종이품(從二品).

‘밤은 짧고 말은 기니, 듣기에 몹시 지루하이. 도대체 지금 너의 벼슬은 무에라지.’
한다. 이공은,

‘대장(大將)이랍니다.’
했다. 허생은,

‘그렇다면 네 판엔 나라의 믿음직한 신하라고, 내 곧 와룡선생(臥龍先生)⁹과 같은
이를 천거할 테니 네가 임금께 여쭙어서 그의 초려(草廬)를 삼고(三顧)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한다. 이공은 머리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이건 어렵사오니, 그 다음의 것을 얻어 들고자 하옵니다.’
했다. 허생은,

‘나는 아직껏 「제이의(第二義 첫째가 아니고 다음 것)」란 배우질 못했거든.’
한다. 이공은 굳이 물었다. 허생은,

‘명(明)의 장병(將兵)은 자기네들이 일찍이 조선에 묵은 은의(恩義)가 있다 하여 그
의 자손들이 많이 동으로 오지 않았나. 그리하여 그들은 모두 떠돌이 생활에 고독
한 홀아비로 고생하고 있다니, 네 능히 조정에 말씀드려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골고루 시집보내고, 김류(金瑬)와 장유(張維)¹⁰ 따위들의 집을 징발해서 살림살이

9 와룡선생(臥龍先生) : 촉한(蜀漢) 제갈량(諸葛亮)의 호.

10 김류(金瑬)와 장유(張維) : 이 둘은 모두 조선 인조(仁祖)의 소위 반정공신(反正功臣). 김류의 자는 관옥(冠玉)이요, 장유의 자는 지국(持國). ‘수택본’ · ‘서울대학본’ · ‘대만영인본(臺灣影印本)’에는 이귀(李貴) · 김류(金瑬)로 되었고, ‘계서본(溪西本)’ · ‘자연경실본(自然經實本)’ · ‘박영철본’ · ‘광문회본(光文會本)’ · ‘김택영본(金澤榮本)’ · ‘김택영중편본(金澤榮重編本)’ · ‘주실루본’ · ‘국립도서관본’에는 훈적(勳戚) 권귀(權貴)로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일재본’ · ‘옥류산관본(玉溜山館本)’ · ‘녹천산관본(綠天山館

를 차려 줄 수 있겠느냐.’

한다. 이공은 또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그것도 어렵소이다.’

했다. 허생은,

‘이것두 어렵구 저것두 못한다 하니 그러고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가장 쉬운 일 하나 있으니 네가 할 수 있겠느냐.’

한다. 이공은,

‘듣고자 원하옵니다.’

했다. 허생은,

‘대체로 대의(大義)를 온 천하에 외치고자 한다면, 첫째 천하의 호걸을 먼저 사귀어 맺어야 할 것이요, 남의 나라를 치고자 한다면 먼저 간첩(間諜)을 쓰지 않고서는 이룩하지 못하는 법이야. 이제 만주(滿洲 청(淸))가 갑자기 천하를 맡아서 제 아직 중국 사람과는 친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판 아닌가. 그럴 즈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솔선적(率先的)으로 항복하였은즉 저편에서는 가장 우리를 믿어 줄 만한 사정이 아닌가. 이제 곧 그들에게 청하기를, 우리 자제들을 귀국에 보내어 학문도 배우려니와 벼슬도 하여 옛날 당(唐)·원(元)의 고사(故事)를 본받고, 나아가 장사치들의 출입까지도 금하지 말아 달라 하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친절을 달콤하게 여겨서 환영할 테니 그제야 국내의 자제를 가려 뽑아서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지식층(知識層)은 가서 빈공과(賓貢科)¹¹에 응시하고, 세민(細民)들은 멀리 강남(江南)에 장사로 스며들어 그들의 모든 허실(虛實)을 엿보며, 그들의 호걸(豪傑)을 체결(締結)하고선 그제야 천하의 일을 껴함직 하고 국치(國恥)를 씻을 수 있

本)에 의하였다.

11 빈공과(賓貢科) : 당(唐)으로부터 이미 빈공과를 설치하여 우리나라의 유학생을 받았다.

지 않겠어. 그러고는 임금을 세우되 주씨(朱氏)¹²를 물색(物色)해도 나서지 않는다면 천하의 제후(諸侯)들을 거느려 사람을 하늘에 추천한다면, 우리나라는 잘되면 대국(大國)의 스승 노릇을 할 것이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백구(伯舅)¹³의 나라는 무난할 게 아냐.’

한다. 이공은 무연(撫然)히,

‘요즘 사대부(士大夫)들은 모두들 삼가 예법(禮法)을 지키는 판이어서 누가 과감하게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겠습니까.’

했다. 허생은 목소리를 높여,

‘이놈, 소위 사대부란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이(彘)¹⁴ · 맥(貊)의 땅에 태어나서 제 멋대로 사대부라고 뽐내니 어찌 양심하지 않느냐. 바지나 저고리를 온통 희게만 하니 이는 실로 상인(喪人)의 차림이요, 머리털을 한 데 묶어서 송곳같이 찌는 것은 곧 남만(南蠻)의 방망이 상투에 불과하니, 무엇이 예법(禮法)이니 아니니 하고 뽐낼 게 있으랴. 옛날 번오기(樊於期)는 사사로운 원망을 갚기 위하여 머리 잘리기를 아끼지 않았고,¹⁵ 무령왕(武靈王)은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고 호복(胡服) 입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거늘,¹⁶ 이제 너희들은 대명(大明)을 위해서 원수를 갚고자 하면서 오히려 그까짓 상투 하나를 아끼며, 또 앞으로 장차 말달리기 · 칼치기 · 창찌르기 · 활 튀기기 · 돌팔매 던지기 등에 종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넓은 소매를 고치지 않고서 제 판은 이게 예법이라 한단 말이나. 내가 평생 처음으로 세 가지의 꾀를 가르쳤으되, 너는 그 중 한 가지도 하지 못하면서 네 판에 신임

12 주씨(朱氏) : 명(明)의 황족(皇族).

13 백구(伯舅) : 제후 중에 가장 큰 나라, 또는 황제의 만외숙의 나라.

14 이(彘) : 이(夷)와 같은 뜻으로 썼다.

15 옛날……않았고 : 번오기(樊於期)는 전국 시대 때 진(秦)의 장수 이름. 일찍이 망명하여 연(燕)에 갔다가 형가(荊軻)에게 제 머리를 주어 원수를 갚으려 하였다. 《사기(史記)》 형가전(荊軻傳)에 나온다.

16 무령왕……않았거늘 : 무령은 전국 때 조(趙)의 임금 조웅(趙雍). 무령은 시호. 《사기》 조세가(趙世家)에 나온다.

받는 신하라 하니, 소위 신임 받는 신하가 겨우 이렇단 말이나. 이런 놈은 베어 버려야 하겠군.’

하고는, 좌우(左右)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공은 깜짝 놀라 일어나 뒷들창을 뛰어나와 달음박질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 이튿날 다시 찾아갔으나 허생은 벌써 집을 비우고 어디론지 떠나버렸다.”

허생후지(許生後識)¹⁷ I ¹⁸

혹자는 이르기를,

“그이는 황명(皇明)의 유민(遺民)이야.”

한다. 숭정(崇禎) 갑진년(甲辰年)¹⁹ 뒤로 명의 사람들이 많이들 동으로 나와 살았으니 허생도 혹시 그런 분이라면 그 성은 반드시 허씨가 아니리라 생각된다. 세속에서 전하는 말이 있으니 다음과 같았다.

“조 판서(趙判書) 계원(啓遠)²⁰이 일찍이 경상 감사(慶尙監司)가 되어 순행차로 청송(靑松)에 이르렀을 때, 길 왼편에 웬 중 둘이 서로 마주 베고 누웠다. 앞선 마졸(馬卒)이 비켜달라 고함을 쳤으나 그들은 피하지를 않고, 채찍으로 갈겨도 일어나지 않기에 여럿이 붙들어 끌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조(趙)²¹가 이르러 가마를 멈추고는,

‘어디에 살고 있는 중들이냐.’

하고 물었더니, 두 중은 일어나 앉아 한결 더 뻗뻗한 태도로 눈을 흘기고 한참 동안 있다가 하는 말이,

‘너는 헛된 소리를 치며 출세를 하여 감사의 자리를 얻은 자가 아니냐.’

한다. 조가 중들을 보니 한 명은 붉은 상판이 둥글고, 또 한 명은 검은 상판이 길었으며, 말하는 태가 자못 범상치 않았다. 가마에서 내려 그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중은,

17 허생후지(許生後識)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본’을 좇아서 추록하였다.

18 I : 또 한 편이 발견되었으므로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하였다.

19 숭정(崇禎) 갑진년 : 1664년. 실은 청 나라 강희 4년이었으나 조선에서는 오히려 명의 연호인 숭정을 썼다.

20 계원(啓遠) : 조선 효종 때 관리. 자는 자장(子長).

21 조(趙) : ‘박영철본’에는 조공(趙公)으로 되었으나 김택영(金澤榮)이 추가한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수택본’과 ‘주설루본’을 좇았다. 이 후지(後識) 중 다음에 나오는 것도 이에 따랐다.

‘따르는 자들을 물리치고 나를 따라 오려무나.’

한다. 조는 몇 리를 따라 가노라니 숨은 가빠지고 땀은 자꾸만 흘러 좀 쉬어서 가기를 청했더니 증은 화를 내어,

‘네가 평소에 여러 사람들과 있을 때는 언제나 큰소리를 하면서 몸에는 갑옷을 입고 창을 잡아 선봉(先鋒)을 맡아서 대명(大明)을 위하여 복수와 설치를 하겠다고 떠들더니, 이제 보아 몇 리의 걸음도 못 걸어서 한 자국에 열 번 혈떡이고, 다섯 자국에 세 번을 쉬려고 하니 이려고서 어찌 요(遼)·계(薊)의 별판을 맘대로 달릴 수 있겠느냐.’

하고 꾸짖었다. 그리고 어떤 바위 밑까지 닿으니 나무에 기대어서 집을 만들고, 땀 나무를 쌓고는 그 위에 가 눕는 것이었다. 조는 목이 몹시 말라 물을 청하였다. 증은,

‘에퀴이, 귀인이니 또 배도 고프겠지.’

하고는, 황정(黃精)²²으로 만든 떡을 먹이려고 술잎 가루를 개천 물에 타서 주었다. 조는 이마를 찡그리며 마시지 못한다. 증은 또,

‘요동 벌은 물이 귀하므로 목이 마르면 말 오줌을 마시는 것이 일쑤렸다.’

하며, 크게 호통치고는, 두 증은 마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손 노야(孫老爺), 손 노야.’

하고 부르더니, 조에게,

‘오삼계(吳三桂)가 운남(雲南)에서 군사를 일으키어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지방이 소란한 것을 네가 아느냐.’

22 황정(黃精) : 한약재의 일종. 도사(道士)들이 장생(長生)을 위하여 복용했다 한다.

하고 묻는다. 조는,

‘들은 적이 없소이다.’

하였더니, 두 중은 탄식을 하면서,

‘네가 방백(方伯)의 몸으로서 천하에 이런 큰 일이 있건마는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는 함부로 큰소리만 쳐서 벼슬자리를 얻었을 뿐이로고.’

한다. 조는,

‘스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였더니, 중은,

‘물을 필요가 없어. 세상에는 역시 우리를 아는 이가 있을거야. 너는 여기에 앉아서 조금만 기다리렷다. 내가 우리 선생님하고 꼭 같이 와서 너에게 이야기를 하련다.’

하고는, 일어나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간다. 조금 뒤에 해는 지고 오래 지나도 중은 돌아오지 않는다. 조는 밤 늦도록 중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으나 밤은 깊어 푸나무에는 우수수 바람 소리가 나면서 범 싸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조는 기겁을 하고 거의 까무러쳤다. 조금 뒤에 여럿이 횃불을 켜들고 감사를 찾아왔다. 그리하여 조는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골짜기 속을 빠져 나왔다. 이 일이 있는 지 오래 되어도 조는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여 가슴속에는 한을 품게 되었다. 뒷날, 조는 이 일을 우암 송 선생(尤菴宋先生)에게 물었더니, 선생은,

‘이는 아마도 명(明)의 말년 총병관(總兵官) 같아 보이네.’

한다. 조는 또,

‘그는 언제나 저를 깔보고, 네니 또는 너니 하고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선생은,

‘그들이 스스로 우리나라 중이 아님을 밝히는 것이고, 땀나무를 쌓아둔 것은 와신상담(臥薪嘗膽)²³을 의미함일세.’

한다. 조는 또,

‘올 때면 반드시 손 노야를 찾으니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했더니, 선생은,

‘그는 아마 태학생(太學生) 손승종(孫承宗)을 가리킨 듯싶네. 승종이 일찍이 산해관(山海關)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던 만큼, 두 중은 아마 손(孫)의 부하인 듯하네.’

하였다.”

23 와신상담(臥薪嘗膽) : 전국 때 월왕(越王) 구천(句踐)이 오(吳) 나라가 망했음을 한하여 땀나무 위에 누워서 괴로움을 체험하여 광복을 맹세하였다.

허생후지(許生後識)²⁴ II

나의 나이가 20살(1756년) 되었을 때 봉원사(奉元寺)에서 글을 읽었는데, 어떤 손님 하나가 음식을 적게 먹으며 밤이 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선인(仙人) 되는 법을 익혔다. 그는 정오가 되면 반드시 벽을 기대어 앉아서 약간 눈을 감은 채 용호교(龍虎交)²⁵를 시작했다. 그의 나이가 자못 늙었으므로 나는 존경하였다. 그는 가끔 나에게 허생의 이야기와 염시도(廉時道)²⁶·배시황(裴是晃)²⁷·완흥군부인(完興君夫人)²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잇달아 몇 만언(萬言)으로써 며칠 밤을 걸쳐 끊이지 않았다. 그 이야기가 거짓스럽고 기이하고 괴상하고 홀황하기 짝이 없는 것들로, 모두 들음직하였다. 그때 그는 스스로 성명을 소개하기를 윤영(尹映)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병자년(1756년) 겨울이다. 그 뒤 계사년(1773년) 봄에 서쪽으로 구경갔다가 비류강(沸流江)²⁹에서 배를 타고서 십이봉(十二峯)³⁰ 밑까지 이르자, 조그마한 초암 하나가 있었다. 윤영이 홀로 중 한 사람과 이 초암에 붙여 있었다. 그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듯이 기뻐하면서 서로 위안의 말을 나누었다. 대체로 열여덟 해를 지났지만 그의 얼굴은 더 늙지 않았다. 나이 응당 팔십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나는 듯하였다. 나는 그에게,

“허생 이야기 말입니다. 그 중 한두 가지 모순(矛盾)되는 점이 있더군요.”

- 24 허생후지(許生後識)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이에서는 ‘주설루본’을 좇아 추록하였으며, 또 여러 본에는 모두 이 편이 없었고, 다만 ‘일재본’·‘옥류산장본(玉溜山莊本)’·‘녹천산장본(綠天山莊本)’을 좇아서 추록하였다.
- 25 용호교(龍虎交) :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물과 불의 교합 도인술(導引術)의 하나.
- 26 염시도(廉時道) : 신광수(申光洙)의 《석북잡록(石北雜錄)》과 이원명(李源命)의 《동야휘집(東野彙輯)》에는 염시도(廉時道)로 되어 있고, 일명씨의 《성수총화(醒睡叢話)》에는 염희도(廉喜道)로 되어 있다.
- 27 배시황(裴是晃) : 이익(李翼)의 《성호사설(星湖僞說)》에는 배시황(裴是晃)으로 되어 있고, 이규경(李圭景)의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演文長箋散藁)》에는 배시황(裴是晃)으로 되어 있다.
- 28 완흥군부인(完興君夫人) : 완흥군은 인조(仁祖) 때 정사공신(靖社功臣) 삼등의 하나인 이원영(李元榮)인 듯하다.
- 29 비류강(沸流江) : 평안도 성천(成川)에 있는 물 이름.
- 30 십이봉(十二峯) : 성천부 동북 30리에 있는 흘골산(屹骨山), 속칭 무산(巫山) 12봉이라 한다.

하고 물었더니, 노인은 곧 풀이해 주는데 역력히 그저께 겪은 일이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그는 또,

“자네, 지난날 창려(昌黎)³¹의 글을 읽더니 의당….”³²

하고는, 또 뒤를 이어서,

“자네, 일찍이 허생을 위해서 전(傳)을 쓰려더니 이젠 글이 벌써 이룩되었겠지.”
하기에, 나는 아직 짓지 못했음을 사과하였다. 이야기 할 때 나는,

“윤 노인(尹老人).”

하고 불렀더니, 노인은,

“내 성은 신(辛)이요, 윤이 아니거든. 자네 아마 잘못 안 것일세.”
한다. 나는 깜짝 놀라서 그의 이름을 물었더니 그는,

“내 이름은 색(穡)이라우.”

한다. 나는,

“영감님의 옛 성명은 윤영이 아닙니까. 이제 갑자기 고쳐서 신색이라니 무슨 까닭
이십니까.”

하고 따졌더니, 노인은 크게 화를 내면서,

“자네가 잘못 알고서 남더러 성명을 고쳤다구.”

한다. 나는 다시 따지려 했으나 노인은 더욱 노하여 파란 눈동자가 번뜩일 뿐이다.
나는 그제서야 비로소 그 노인이 이상한 도술을 지닌 분임을 알았다. 그는 혹시 꽤

31 창려(昌黎) : 한유(韓愈)의 봉호.

32 … : 원전(原典)에 한 글자가 탈락되었다.

족(廢族)이나 또는 좌도(左道) · 이단(異端)으로서 남을 피하여 자취를 감추는 무리 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문을 닫고 떠날 무렵에도 노인은,

“허생의 아내 말씀이요, 참 가없더군요. 그는 마침내 다시 주릴 거요.”

하면서, 혀를 찼다. 그리고 또 광주(廣州)신일사(神一寺)에 한 노인이 있어서 호를 샷갓 이생원이라 하는데 나이는 아흔 살이 넘었으나 힘은 범을 껴잡았으며, 바둑과 장기까지도 잘 두고 가끔 우리나라 옛 일을 이야기할 제 언론이 풍부하여 바람이 불어 오는 듯했다. 남들은 그의 이름을 아는 이가 없었으나 그의 나이와 얼굴 생김을 듣고 보니 윤영(尹映)과 흡사하기에 내가 그를 한번 만나보려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세상에는 물론 이름을 숨기고 깊이 몸을 간직하여 속세를 유희(遊戲)하는 자가 없지 않은즉 어찌 이 허생에게만 의심할까보나. 평계(平谿)³³ 국화 밑에서 조금 마신 뒤에 붓을 잡아 쓴다. 연암(燕巖)은 기록하다.

33 평계(平谿) : 연암서당(燕巖書堂) 앞에 있는 시내 이름.

차수평어(次修評語)³⁴

차수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는 대체로 규림(虬嶠)³⁵으로써 화식(貨殖)에, 합친 것이었으나 그 중에는 중봉(重峯)³⁶의 봉사(封事),³⁷ 반계(磻溪)³⁸의 수록(隨錄),³⁹ 성호(星湖)⁴⁰의 사설(僞說)⁴¹ 등에서 말하지 못했던 부분을 능히 말하였다. 문장이 더욱 소탕(疎宕)하고 비분(悲憤)하여 압수(鴨水) 이동에 있어서의 유수한 문자이다. 박제가(朴齊家)는 삼가 쓰다.”⁴²

34 차수평어(次修評語) : 여러 본에는 모두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주설루본’을 찾아 추록하였다. 차수(次修)는 박제가(朴齊家)의 자.

35 규림(虬嶠)·화식(貨殖) : 당(唐) 두광정(杜光庭)이 지은 《규림객전(虬嶠客傳)》과 한(漢) 사마천(司馬遷)·반고(班固)의 《화식열전(貨殖列傳)》.

36 중봉(重峯) : 조선 선조(宣祖) 때 유학자 조현(趙憲)의 호.

37 봉사(封事) : 조현이 중국에 갔다 돌아와서 임금에게 올린 글.

38 반계(磻溪) : 조선 실학파(實學派) 학자 유흥원(柳馨遠)의 호.

39 수록(隨錄) : 유흥원이 실학의 이론을 저술한 책.

40 성호(星湖) : 조선 실학파 학자 이익(李瀾)의 호.

41 사설(僞說) : 이익의 저서. 그의 제자 안정복(安鼎福)이 유산하여 《성호사설유선(星湖僞說類選)》을 만 들었다.

42 박제가(朴齊家)는 삼가 쓰다 : 어떤 본에는 이를 중존(仲存)의 평어라 하였으나 잘못되었다.



행재잡록 서(行在雜錄序)¹

아아, 황명(皇明)은 우리 상국(上國)이다. 상국이 속국에게 주는 물건은 비록 터럭 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하늘에서 떨어진 듯이 그 영광이 전국을 움직이고 경사스러움이 만세(萬世)에 끼칠 것이요, 그 따뜻한 말과 몇 줄 되는 편지쪽을 받들더라도 높기는 운한(雲漢)과 같고, 놀랍기는 우레와 같으며, 감격하기는 때를 맞추어 오는 비와 같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상국인 까닭이다. 무엇을 상국이라 하느냐. 중국을 가리켜 하는 말이니, 우리 선왕(先王)들과 여러 조정에서 명(命)을 받은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도읍인 연경(燕京)을 경사(京師)라 하고, 그 순행(巡幸)하는 곳을 행재(行在)라 하며, 우리나라 토물(土物)을 바치는 것을 직공(職貢)이라 하고, 당시의 임금을 천자(天子)라 하며, 그 조정을 천조(天朝)라 하고, 사신이 그 조정에 가는 것을 초천(朝天)이라 하고, 그 나라 사신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천사(天使)라 하여, 우리나라 부인이나 어린애들까지도 상국을 말할 때는 언제나 하늘이라 일컫지 않는 법이 없어 4백 년을 하루같이 하였으니, 대개 우리가 명실(明室)의 은혜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옛날 왜인(倭人)이 우리 강역(疆域)을 뒤엎었을 때 신종 황제(神宗皇帝)는 천하의 군사를 몰아 우리나라를 원조해서 자기의 사재까지 말려가면서 군비에 다 써서 우리의 삼도(三都 서울·개성·평양)를 회복하고 우리의 8로(路)²를 도로 찾아 주었으며, 우리 조종(祖宗)은 없어진 나라를 가지게 되었고 우리 백성들은 이마에 문양을 새기고 풀 옷을 입는 오랑캐의 풍속을 면하게 된지라 그 은혜 뼈에 사무쳐 만세(萬世)에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모두 상국의 은혜인 것이다. 지금의 청(淸)은 명(明)의 구신(舊臣)들을 어루만져 사해(四海)를 통일하고서 여러 대를 두고 우리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왔었다. 우리가 물건을 바치는데, 금은 토산(土產)이 아니라 해서 이것을 그만두게 하고, 말이 작고 약하다 하여 이를 면제했고, 쌀·모시·종이·자리 같은 폐백도 해마

1 행재잡록 서(行在雜錄序)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실루본'을 찾아 추록하였다.

2 8로(路) : 당시 이조의 여덟으로 나눈 행정 구역.

다 그 수를 감했으며, 몇 해 동안 칙사(勅使)를 내보낼 만한 일도 반드시 그냥 처리하고 송영(送迎)하는 폐단을 없애도록 하였다. 이번 우리나라 사신이 열하에 들어오자 특히 군기 대신(軍機大臣)을 보내서 맞게 하고 조정에 있어서는 대신들의 반열 속에 서도록 명령하고 연극을 볼 때에는 조정의 대신들과 나란히 하여 즐기도록 하며, 또 조서를 내려 정공(正貢) 이외에 별사(別使)가 바치는 방물(方物)은 길이 면제하게 했으니, 이는 실로 세상에 없는 성전(盛典)으로서 일찍이 황명(皇明) 시대에도 있어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대해 주는 것으로 여길 뿐 이것을 은혜로 생각지 않고, 걱정으로 여길 뿐 영화로 생각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상국이 아닌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황제가 있는 곳을 행재(行在)라 일컬어서 그 사실을 기록하지만 상국이라 이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중국이 아닌 때문이다. 우리가 힘을 굽혀서 저들에게 복종하고 본즉, 그들을 대국이라 하는 것이요, 대국이 능히 힘으로써 우리를 굴복하게 하기는 했으나 우리가 처음 수명(受命)한 바 천자는 아니었다. 이제 그들이 준 여러 가지 우대와 공물을 감면해 주라는 명령은 대국으로서는 작은 것을 돌보아 주고 먼 곳을 회유하는 정사에 지나지 않고 본즉, 비록 대(代)마다 한 번씩 공물을 없애주고 해마다 한 번씩 폐백을 면제해 주더라도 이는 우대일 뿐, 우리가 이르는 은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슬프다. 오랑캐의 성질은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가죽 폐백이 부족하면 개나 말을 받고, 개나 말이 부족하면 주옥(珠玉)을 받는 것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사랑하고 이해하며 관대하고 용서해서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을 베풀지 않아도 여기거나 거절하는 것이 없으니, 바로 우리의 사대(事大)하는 정성이 족히 저들을 감동하게 하여 그들의 성질을 부드럽게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의 뜻은 역시 아직도 하루라도 우리를 잊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하면 저들이 중국에 산 지 백여 년에 아직 한 번도 자기 땅을 객지로 생각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아직 한 번도 우리 동방을 이웃으로 생각지 않은 적이 없었다. 오늘과 같이 사해가 승평(昇平)한 날에 와서 가만히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대우를 두텁게 하는 것은 그 덕을 팔고자 함이요, 인정을 맺는 것은 진실로 방비를 해이하게 하고자 함이다. 탄 날 자기 땅으로 돌아가 국경을 누르고 앉아서 옛날 군신의 예로써 따져 주

린 해에는 구제를 청하고, 전쟁이 날 때에는 도움을 바란다면, 어찌 오늘날의 구구한 종이나 자리 같은 공물을 면제해 주는 것이 판 날에 견마(犬馬)와 주옥(珠玉)을 청하는 자료가 되지 않으리라고 할 것인가. 그러므로 가히 걱정이 될지언정 영화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지금 황제의 뜻이 반드시 그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동방이 대국의 후한 대우를 받은 지 여러 해가 되었은즉, 인심이 편안해져서 소홀하기가 쉬운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황제에게 올린 글과 칙유(勅諭)를 아울러 기록해서 천하의 걱정거리를 먼저 걱정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바이다.

행재잡록(行在雜錄)

예부(禮部)가 대사(大使) 장(張) 회동사역관(會同四譯館)의 대사. 장문금(張文錦)의 자는 환연(煥然)이요, 순천 대흥(大興) 사람이다. 사람됨이 키가 작되 다부지게 생겼다. 에게 분부하기를,

“이제 황제의 뜻을 받들어 이르노니 조선(朝鮮)으로부터 온 정부사(正副使)가 열하에 와서 예를 행할 것이니 즉시 이 뜻을 조선 사신에게 전하고 열하로 같이 가게 하라. 관원과 종인(從人)들의 성명을 베낀 것을 즉시 정찬사(精饌司) 음식을 맡은 관청)로 보내고 내일은 곧 데리고 떠나게 하라. 이것을 특히 분부하는 것이다. 8월 초 4일 초저녁.”

이라 했다.

예부가 대사 장에게 분부하기를,

“황제의 뜻을 받들어 조선 사신 등을 데리고 열하로 가서 예를 행할 것은 이미 명령했거니와, 즉시 사신의 성명과 수행관들의 성명을 함께 베낀 것을 곧 예부로 보내고 기다리라 했는데 아직도 보고가 이르지 않았으니, 황제의 뜻을 받든 바에 어찌 늦출 수가 있는가. 속히 베껴서 예부로 보낼 것을 서서 기다리노라. 다음으로 수행할 통관(通官)오림포(烏林浦) · 사가(四哥)서종현(徐宗顯)이다. · 보수(保壽)박보수(朴寶樹)이다. 등 세 사람에게 즉시 이 분부를 전해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일 사시(巳時)에 조선 사신들을 데리고 임구(林邁)에 가서 잘 것을 특히 분부하노라. 아울러 분부할 것은 대사 장이 내일 묘시에 아문(衙門)에서 기다리면 면대해서 알려 줄 일이 있으니 이것을 특별히 분부하노라. 8월 초 4일.”

이라 했다.

조선국 진하 겸 사은사(朝鮮國進賀兼謝恩使)로 먼저 열하 행재소(行在所)로 간 명단은 다음과 같았다.

“정사(正使)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부사(副使)이조 판서잠시 차함(借卿)이다. 정원시(鄭元始), 서장관 겸 장령(書狀官兼掌令)조정진(趙鼎鎭)과 대통관(大通官)홍명복(洪命福) · 조달동(趙達東) · 윤갑중(尹甲宗)과 종관(從官)주명신(周命新)정사의 비장(裨將)이다. 정창후(鄭昌後) · 이서귀(李瑞龜)부사의 비장이다. · 조시학(趙時學)서장관의 비장이다. 과 따르는 사람 64명으로 이상 모두 74명과 말 55필.”

“신(臣) 조(曹)와 신(臣) 덕(德)은 아뢰나이다.” 만인 상서(尙書)는 덕보(德甫)요, 한인 상서는 조수선(曹秀先)인데, 육부(六部)가 모두 만인과 한인을 써서상서와 시랑(侍郎)을 두었다.

조선국 사신으로 만수절(萬壽節) 경하차로 온 정사금성위 박과 이조 판서 정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달 초 9일에 열하에 도착시켜 신 등이 별도로 사람을 보내어 잘 보살펴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건륭 45년 8월 초 9일에 아뢰고 황제의 아셨다는 뜻을 받들었다.

“신 조와 신 덕은 사정에 따라 삼가 천은(天恩)을 감사하는 사건에 대하여 아뢰나이다. 조선국 사신 금성위 박과 이조 판서 정 등이 올린 글을 보면, ‘엎드려 아뢰노니 국왕이 황제의 칠순(七旬) 만수절을 당하여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여 저희들을 시켜 국서를 받들고 경하차 오게 되어 열하에 이르러 예식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미 영광과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이요, 또 다시 성지(聖旨)를 입어 소국(小國) 사신으로 하여금 천조(天朝)의 이품(二品) · 삼품(三品) 대신들의 다음에서 예식을 행하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은 격외(格外)의 일이었고 실로 천고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삼가 마땅히 돌아가서 국왕에게 아뢰어 황은(皇恩)에 감격할 것이요, 저희들의 춤출 듯 기꺼운 정성을 청컨대 예부의 대인(大人)들은 이 뜻을 대신 아뢰어 주십시오.’

하고, 진정으로 문서를 갖추어 왔으므로 이로써 삼가 주문(奏聞)합니다.”

건륭 45년 8월 10일에 아뢰고 다 아셨다는 뜻을 받들었다.

“예부는 삼가 주문(奏聞)하는 일로써 상주하나이다. 이달 12일에 신 등이 분부를 좇아 회동이변원(會同理藩院)사원(司員)들을 보내서 조선 사신 정사 박과 부사 정과 서장관 조 등을 데리고 찰십륜포(札什倫布)에 가서 액이덕니(額爾德尼)에게 뵈는 예절을 행하였습시다. 예가 끝나자, 앉으라 하고 차를 마시며, 그 나라의 원조와 아울러 입공(入貢)하는 내력을 물으매, 사신들은 대답하기를, ‘황상의 칠순 되는 큰 경사를 축하하는 표(表)를 올리고 아울러 천을 삼가 사례하러 온 것입니다.’

하니, 액이덕니는 듣고 나자 심히 기뻐하여 즉시,

‘영원하도록 공손하면 자연 복을 얻으리라.’

신칙을 하면서, 사신에게 내리는 동불(銅佛)과 서장향과 모직 옷감을 주니 그들은 머리를 조아려 사례하였습니다. 사신 등에게 준 동불 등 물건의 목록을 적어 황제께 보이기 위해서 여기에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건륭 45년 8월 12일에 아뢰고, 아셨다는 뜻을 삼가 받들었다.

반선사후지(班禪事後識)³⁾

사신이 반선을 본 이야기는 내가 <찰십륜포기(札什倫布記)>에 갖추어서 실었다. 이제 예부의 주문한 글을 보면, 액이덕니를 절해 뵈었다든가 사신에게 물건을 주었을 때 사신 등이 즉시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를 했다고 운운한 것은 모두 허망한 것이다. 그러나 상주한 말에는 사세가 부득이했던 것이다. 다만 내가 목격한 바를 자세히 기록하여 산 속에 돌아가 등을 별에 쏘이는 날 한 번 웃음거리로 삼을 터인데, 이 글을 보는 자는 마땅히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정사에게 동불(銅佛) 1틀, 보료 18매, 합달(哈達) 1개, 합달(哈達)은 폐백(幣帛)과 같은 말이다. 붉은 빛 탄자 2필, 서장향 24묶음, 계협편(計夾片) 1주머니. 무슨 물건인지를 모르겠다.

부사에게 동불 1틀, 보료 14매, 합달 1개, 붉은빛 탄자 1필, 서장향 20묶음.

서장관에게 동불 1틀 보료 10매, 합달 1개, 붉은빛 탄자 1필, 서장향 14묶음.

3 반선사후지(班禪事後識)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재(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본’을 좇아 추록하였다.

동불사후지(銅佛事後識)⁴

소위 동불이란 것은 높이가 한 자가 넘으니, 이것은 호신불(護身佛)이라 한다. 중국에서는 으레 멀리 여행하는 자에게 서로 선사하여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조석으로 공양하는 것이요, 서장 풍속에는 연례(年例)로 진공(進貢)하는데, 부처 한 틀로써 방물을 삼는 것이니, 이번 이 동불도 법왕이 우리 사신을 위해서 여행의 무사함을 비는 가장 아름다운 폐백으로 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부처와 인연을 가진 일이 있고 보면, 평생에 누(累)가 되는 것이거늘 하물며 이것을 준 자가 번승(番僧)이었음에랴. 사신이 이미 북경으로 돌아오자, 그 폐백들을 모두 역관들에게 내주었으나 여러 역관들도 역시 퐁오춤처럼 더럽다고 보아 은 90냥에 팔아 일행의 마두배(馬頭輩)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으나 마부들도 이것으로는 술 한 잔도 사먹을 수 없다 했으니, 결백하다면 결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른 나라 풍속으로 본다면, 고루한 시골 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예부는 공무(公務)를 위하여 보낸 조선국 공문 한 통을 병부(兵部)로 보내기 위하여 돌려 발송하는 것이 옳다.

주객사(主客司)⁵는 행재소 예부의 공문에 준하여 아뢰다. 본부에서 상주한 조선 사신이 열하에 도착한 문서 한 통과 또 상주한 조선 사신이 천자의 은혜를 공손히 사례한다는 문서 한 통과 또 반선(班禪) 액이덕니가 조선 사신에게 준 물건의 명목한 통을 응당 따로 베껴서 알리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각 상주문(上奏文)들은 원문대로 베낄 것은 물론이요, 유지(諭旨)를 받들고 이송(移送)한 글까지도 베껴서 담당할 곳에 보내어 처리하게 할 것이다. 방례과(房禮科)와 절강(浙江 절강의 관원)도 아울러 시행한다.

예부는 삼가 예의(禮儀)에 관한 일을 상주하나이다. 건륭 45년 8월 13일은 황제의 칠순 만수성절에 경하례(慶賀禮)를 행하겠습니다. 이날 난의위(鑾儀衛 황제의 의

4 동불사후지(銅佛事後識) : 여러 본에 모두 이 소재(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분'을 좇아 추록하였다.

5 주객사(主客司) : 황제 직속 접빈처(接賓處).

례를 맡은 관청)는 미리 황제의 법가로부(法駕鹵簿 황제가 타는 수레)를 담백경성전(淡泊敬誠殿) 뜰에 차려 놓고 중화소악(中和韶樂)을 담박경성전 처마 밑 양편에 베풀고 단폐대악(丹陛大樂)을 이궁(二宮) 문안 양편의 정자 속에 북향하여 차리고 호종(扈從)하는 화석친왕(和碩親王) 이하 여덟 사람과 공작(公爵) 이상과 몽고의 왕공(王公) 토이호특(土爾扈特) 등은 모두 망포보복(蟒袍補服)을 입고 담박경성전 앞에 이르러 벌여 서고 문무 대신과 조선국 정사와 토사(土司)⁶들은 이궁 문 밖에 각각 등급에 따라 벌여 서고 3품 이하 각 관원과 조선의 부사와 번자(番子)·두인(頭人)⁷들은 피서산장(避暑山莊) 문 밖에서 각각 품급(品級)에 따라 벌여 설 것입니다. 이때 예부의 당관(堂官)이 황상께서 용포(龍袍)와 곤복(袞服)을 입고 담박경성전 보좌(寶座)에 오르실 것을 주청(奏請)할 것입니다. 중화소악을 지으면 건평지장(乾平之章)⁸을 아릴 것이요, 황상께서 자리에 오르시면 음악을 그칠 것입니다. 난의위의 관원이 명편(鳴鞭)⁹을 하라고 소리를 지르면 뜰 아래서 세 번 명편을 하고 명찬관(鳴贊官)¹⁰이 반열을 차립니다. 이때에 단폐대악을 연주하는데, 건평지장(乾平之章 악장 이름)을 아뢰면 홍려시(鴻臚寺)의 관원이 여러 왕들과 문무관을 인도하여 각각 반열을 차려 섭니다. 명찬관이 창을 하는데 무릎을 꿇라고 창하면 왕들 이하 모든 관원들은 모두 나아가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일어나라고 창을 하면 왕 이하 모든 관원들은 세 번 꿇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합니다. 명찬관이 물러서라는 창을 하면 왕 이하 모든 관원들은 다 함께 제자리에 돌아와 서게 합니다. 이때에 음악은 그치고 난의위의 관원이 계하에서 세 번 명편(鳴鞭)하면 예부의 당관은 예식이 다 끝났음을 아뢰고, 중화소악을 지어 태평지장(太平之章 악장 이름)을 연주합니다. 황상이 타신 수레는 환궁하시게 되고 음악이 그치면서 왕공 이하 모든 관원들은 모두 나오게 됩니다.

내감(內監 환관)은 황상이 내전에서 보좌에 오르시기를 주청하면 비빈(妃嬪)들은

6 토사(土司) : 남방 민족(蠻族)들의 추장.

7 두인(頭人) : 만주의 벼슬 이름.

8 건평지장(乾平之章) : 악장(樂章)의 이름.

9 명편(鳴鞭) : 채찍을 울려 정숙하기를 경고하는 의례.

10 명찬관(鳴贊官) : 창홀(唱笏)하는 집사(執事).

용포와 곤복을 갖추어 황상 앞에 내놓으면서 여섯 번 숙배(肅拜)하고, 세 번 무릎을 꿇고 세 번 절하는 예를 행하면 예식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황상께서 자리에서 일어나면 비빈들은 대궐로 돌아가고 황자(皇子)와 황손(皇孫)·황증손(皇曾孫)들이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으로써 삼가 갖추어 주문하나이다.

주객사(主客司)는 행재소 예부의 문서에 의존해서 아래와 같이 알리노라. 건륭 45년 8월 12일에 내각은 다음과 같은 황상의 유지를 받들었노라.

“조선은 번봉(藩封)을 대대로 지켜서 본래부터 공손하다고 일컬었고 해가 바뀔 때마다 직공(職貢)을 정성껏 하는 것은 가상한 일이다. 때로 특별한 칙유(勅諭)를 내리고 또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는 등 일이 있을 때는 유구(琉球) 같은 나라와 같이 역시 글을 갖추어 진사(陳謝)하게 되는데 오직 조선국만은 반드시 토물을 갖추고 나서 표문(表文)을 부쳐서 정성껏 바쳐 왔다. 저번에도 그들의 사신이 멀리 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폐백을 돌려보낸다면, 발섭(跋涉)하는 수고만 더하겠기에 그것을 높이 평가하여 정공(正貢)으로 삼아서 우대하고, 그 나라는 자기를 직분을 분명히 지켜 정공을 보낼 때에는 따로 예물을 갖추어 바쳐서 왕래하기에 더 복잡하고 보니 한 가지 의식이 더 많아진 셈이다. 지금 우리 두 나라는 서로 성의로 맺어지고 한 몸과 같이 되었으니 이러한 번거롭고 헛된 절차가 무슨 필요가 있을 것인가. 올해 짐(朕)의 만수절에도 그 나라에서는 표문을 갖추어 사신을 열하 행재소까지 보내어 우리 조신(朝臣)과 일제히 예를 행했다. 가지고 온 표문과 예물은 그들의 경축하는 정성으로 받으려니와 다음부터는 세시(歲時)나 경절의 정공만을 전례대로 받을 것이며, 그 외의 진사(陳謝)하는 표문이나 예물은 모두 정지시켜 짐의 먼 나라를 생각하여 실상을 주로 하고 허식을 취하지 않는 지극한 뜻에 맞도록 하라.”

신 덕과 신 조는 사정에 의하여 천은을 삼가 사례한다는 일에 대하여 아뢰나이다. 조선국 사신 금성위 박과 이조 판서 정 등이 글을 올렸습니다.

“삼가 황상의 만수절을 당하여 구역(九域)에 경사가 넘쳐 흘러서 본국으로서는 기

땀을 이기지 못하여 변변치 못하나마 진하(進賀)하는 정성을 본받았던 바 예부에서 성승(聖僧)을 뵈옵고 복을 받았다는 문구를 여기에다 첨가하였다. 이에 격외(格外)의 은상(恩賞)을 특별히 소방(小邦)에 내려 천한 사신에게까지 미쳤으니, 예부에서 이 대문을 고쳐서, “국왕과 사신과 아울러 따라온 사람들에게 비단과 은을 더 주었다.”라고 하였다. 영광의 힘 입은 바는 실로 전후에 없었던 일입니다. 삼가 마땅히 돌아가서 국왕에게 여쭙어서 예부에서 이 대문에다 따로이, “표문을 갖추어 감사의 뜻을 올렸습니다.”라고 첨가하였다. 황은(皇恩)에 감격하게 할지니 예부의 대인들도 대신 전하여 아뢰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 일을 삼가 갖추어 아뢰나이다. 건륭 45년 8월 14일에 아뢰고 다 아셨다는 뜻을 받들었다.

행재잡록후지(行在雜錄後識)¹¹

필첩식(筆帖式)¹²에 있는 문부 가운데는 이러한 뜻으로써 쓴 글이 원본과 많이 달랐으니 대개 예부가 옮겨 상주할 적에 첨개(添改)한 까닭이다. 사신은 크게 놀라 일 말은 역관을 시켜 먼저 예부의 조방(朝房)으로 가서 그 이유를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바치는 글을 몰래 고쳐서 우리가 모르게 하였느냐.”
했더니, 낭중(郎中)은 크게 노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바친 글이 사실을 전부 빼놓았기 때문에 예부의 대인들이 너희 나라를 위해서 주선하여 이미 품(稟)해서 바친 것인데, 너희들은 덕 되는 것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기를 쓰고 와서 질문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나.”
고 하였다.

6부(部) 가운데 예부가 가장 거행하는 일이 많아서 천지(天地) 교묘(郊廟)와 산천의 제사를 비롯하여 황제의 기거와 사해 만국의 일이 관계되지 않는 일이 없었다. 내가 열하에 있을 때 예부가 거행하는 일에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것을 보아서 천하 일을 짐작할 수 있었다. 황제가 사신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을즉, 예부는 여기 따라서 즉시 글을 올려 전주(轉奏)¹³하겠다고 협박하여 명령했다. 이것은 사신의 의리에 해당하는 일이라 사례를 하고 않는 것은 사신의 자유일 것이다. 사신이 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외국 사신이 제 스스로 사례를 하여 상주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번거롭고 시끄러운 폐단이라고 물리치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서 오직 글을 제때에 올리지 못하여 전주(轉奏)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사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맘대로 글귀를 고쳐서 대체(大體)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한때 황제를 기쁘게 할 자료만 필요로 하여 스스로 위를 속이는

11 행재잡록후지(行在雜錄後識) : 여러 본에 이 소재(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실루본’을 좇아 추가하였다.

12 필첩식(筆帖式) : 청(淸) 때 각 관청에서 만주어로 문서를 만드는 서기(書記)의 벼슬 이름.

13 전주(轉奏) : 남을 대신하여 어떤 일의 내용을 임금에게 상주하여 전함.

죄를 범하고 외국의 멸시를 달게 취하고 있다. 예부가 이와 같으니 다른 여러 부아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사신은 며칠이 안 되어 응당 돌아가야 할 처지여서 자문(咨文)도 절로 받아 갈 만한 터인데, 먼저 서둘러서 발송을 하여 자기 공로를 세우기에 눈이 어두워 마치 위항(委巷) 소인의 행세를 한다. 대국의 일이 어찌 그리 천박하니 이것으로서는 족히 천하의 법도를 삼을 수 없을 것이다. 또 심히 걱정되는 것이 우리 일에 분주히 서두르는 것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황제의 명령이 엄하고 급한 것을 두려워해서 그러는 것이다. 사신은 앓은 채로 예부의 독촉만 받고 어렵고 쉬운 일 할 것 없이 오직 속히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저들도 모르게 대우를 후하게 해준다는 것으로써 세도를 부리는 것이다. 몇 해 이래로 이미 이러한 규례(規例)가 생겨 통관(通官)과 서반(序班 벼슬 이름)도 그 사이에 조종할 바가 없어 우리 사신에게 불평을 쌓은 지도 이미 오래되었다. 만일 황제가 일조에 조회를 보지 않고 예부의 거행이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서반 한 사람으로써 넉넉히 우리 사신의 진퇴를 제약할 수 있었고, 더욱더 예부가 분주하게 구는 것은 본래 황제의 기쁨을 사는 미봉(彌縫)의 일이었음에랴. 사신 된 자는 이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무릇 사신의 진퇴에 관한 일은 전혀 예부에 관계되는 것이니, 사신이 독촉해서 이루는 일은 담당 역관을 상대할 따름이요, 담당 역관은 통관에게 부탁할 뿐이요, 통관은 아문(衙門)에 부탁할 뿐이어서 소위 아문이란 것은 곧 사역(四譯)의 제독(提督)과 대사(大使)를 말함이다. 제독과 대사가 예부의 당관(堂官) 사이에는 엄격한 등차가 있어서 쉽게 청탁을 못할 처지이다. 그러므로 사신의 의심과 노여움은 항상 역관에게 있으니, 이것은 대개 자신이 언어를 능히 통하지 못하는 까닭으로 다만 피차에 역관의 혀만 믿기 때문이다. 사신은 이미 속는다고 의심하고 역관은 항상 해명하기 어려움을 원망하여 상하의 사정과 처지가 간격이 생기어 서로 통하지 못하니, 역관에 대한 사신의 독촉이 더할수록 서반(序班)과 통관(通官)의 조종은 더욱 심해진다. 진퇴와 완급(緩急)이 비로소 손아귀에 들어 얼핏하면 뇌물을 찾는 것이 해마다 더하고 늘어 드디어 하나의 전례가 되었다. 이제 그들의 조종을 받는

일이란 돌아갈 기한의 연기나 문서의 접수 여부에 불과할 뿐이지만, 만일 급한 일이 생겨서 대국에서 사신을 접대하는 것이 전일과 달라서 정상을 보전하지 못하고 보면, 여관 속에 깊이 앉아 있는 자는 외국의 배신(陪臣)에 불과할 뿐이니 장차 누구를 믿을 것인가. 오직 서반에게 목을 달아매어 예부에 관한 모든 일은 비로소 패연(沛然)함을 얻어서 공공연히 조종을 부리게 될 것이니 사신된 자는 가히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청(淸)이 일어난 지 백 40여 년에 우리나라 사대부들은 중국을 오랑캐라고 하여 부끄러워하고 비록 사신의 내왕은 힘써 하면서도, 문서의 거래라든지 사정의 허실은 일체 역관에게 맡겨 두고, 강을 건너 연경에 이르기까지 거쳐 오는 2천 리 사이에 각 주(州)·현(縣)의 관원과 관역의 장수들은 그 얼굴을 접해 보지 못했을 뿐 아니라, 또한 그 이름조차 모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통관(通官)이 공공연히 뇌물을 찾는데, 우리 사신은 그들의 조종을 달게 받고 역관은 황황히 받들어 행하기에 겨를이 없어서 항상 무슨 큰 기밀이나 숨겨둔 것 같은 것은 이야말로 사신들이 망령되이 자기 편을 높은 체하는 데 허물이 있는 것이다. 사신이 담당 역관에 대하여 너무 의심을 하는 것은 정리가 아니요, 지나치게 믿는 것도 또한 옳지 않으니, 만일 일조에 걱정이 생기면 세 사신은 장차 말 없이 서로 쳐다보고 한갓 담당 역관의 입에만 의존할 것이니, 사신된 자는 힘써 연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연암은 쓰다.

중존평어(仲存評語)

중존씨(仲存氏)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이는 모두들 깊은 걱정과 먼 생각이다. 이 편은 원집(原集) 중에 실려 있는 은화(銀貨)를 의논한 한 단락(段落)과 함께 정치를 맡은 자는 마땅히 익숙히 연구하여야 하겠다.”



금료소초서(金蓼小抄序)¹⁾

우리나라 의학(醫學) 지식은 그다지 넓지 못하고 약 재료도 그다지 많지 못하므로, 모두 중국의 약재를 수입해다 쓰면서도, 항시 그것이 진품이 아닌 것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넓지 못한 의학 지식을 가지고, 또 진품이 아닌 약재를 쓰고 있으니, 병은 으레 낫지 않는 것이다. 내가 열하에 있을 때에 대리시경(大理寺卿) 윤가전(尹嘉銓)에게,

“요즘 의서(醫書)들 중에, 새로운 경험방(經驗方)으로 사서 갈 만한 책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윤경(尹卿)은,

“근세의 일본(日本) 판각 《소아경험방(小兒經驗方)》이 가장 좋은 책인데, 이 책은 서남 해양 중에 있는 하란원(荷蘭院)²⁾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또 서양의 《수로방(收露方)》이란 책이 극히 정미로우나, 시험해 보니 그다지 효력이 없었는데, 이는 대체로 사망의 기후와 풍토가 다르고, 옛날과 지금 사람들의 기품과 성질이 다른 까닭입니다. 방문만 따라서 약을 준다는 것은, 조괄(趙括)³⁾의 병법(兵法) 이야기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정속금릉쇄사(正續金陵瑣事)》에는 역시 근세의 경험들을 많이 수록하였고, 또 《요주만록(蓼洲漫錄)》이란 책이 있고, 또 《초비초목주(苕蓓草木注)》·《굴옹초사략(橘翁草史略)》·《한계태교(寒溪胎教)》·《영추외경(靈樞外經)》·《금석동이교(金石同異考)》·《기백후청(岐伯侯鯖)》·《의학감주(醫學紺珠)》·《백화정영(百華精英)》·《소아진치방(小兒診治方)》 등은 모두 근세의 저명한 학자들이 지은 책이어서, 북경 책사에서는 무엇이나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나는 연경으로 돌아와 하란(荷蘭)의 《소아방(小兒方)》과 서양의 《수로방》을 구해 보았으나 모두 얻지 못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책들도 더러는 광둥(廣東)

1) 금료소초서(金蓼小抄序)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서는 ‘주설부분’을 찾아 수록하였다.

2) 하란원(荷蘭院) : 화란(和蘭)의 교회(敎會).

3) 조괄(趙括) : 전국 때에 조(趙)의 장수의 이름. 그는 그의 아버지 조사(趙奢)의 병법(兵法)을 잘 외기는 하나, 이용 변통할 줄은 몰랐다.

지방 각본(刻本)들이라 말했으나, 책사들에서도 모두 그 명목조차 몰랐다. 우연히 《향조필기(香祖筆記 청의 왕사진(王士禎) 저)》를 들추다가 그 중에서 《금릉쇄사(金陵瑣事)》와 《요주만록》의 기록을 발견했으나, 그 원서(元書)는 모두가 의학 관계의 내용은 아니었고, 《이상(貽上 왕사진 저)》의 기록은 전부가 경험에 관계되는 기록이었으므로, 나는 수십 종의 법을 따서 베끼고, 이 밖의 잡지와 필기 중에 실린 옛날 방문과 잡록들을 아울러 초록하여, 〈금료소초〉라 이름하였다. 내가 살고 있는 산중에는 의서도 없고 약제도 없으므로, 가다가 이질이나 학질에 걸리면 무엇이든 가늠으로 대중하여 치료를 하는데, 때로는 맞는 것도 있기에 역시 아래에 붙여 산골 속에서 쓰는 경험방을 삼으려 한다. 연암(燕巖)은 쓰다.

금료소초(金蓼小抄)

《물류상감지(物類相感志 저자 미상)》에 이르기를,

“산길을 가다가 길을 잃을 염려가 있을 때는, 향충(向蟲) 한 마리를 잡아 손에 쥐고 가면 길을 잃지 않는다.”

하였다.

《유환기문(遊宦紀聞 송(宋) 장세남(張世男) 저)》에는 신경(腎經)이 허하여 허리가 아픈 병을 치료하는 데 정사수(程沙隨)⁴의 방문을 기재하였으니,

“두충(杜沖 한약재의 일종)을 술에 담갔다가 불에 구워 말린 뒤에, 땀아서 가루를 만들 때 재를 없게 하여 술에 타서 마신다.”

하였고 또,

“날것이나 찬 것을 먹고서 양가슴이 아픈 데는, 진수유(陳茱萸 한약재의 일종) 5·60개를 물 한 잔에 달여, 찌꺼기를 버리고 평위산(平胃散 한약정) 3돈종을 넣어서 다시 달여 먹는다.”

하였고, 또,

“사수(沙隨)가 항시 임질(淋疾)을 앓았는데, 날마다 백동과(白東朮 한약재의 일종) 큰 것 세 개씩을 먹고 나았다.”

하였다.

강린기(江隣幾 미상)의 《잡지(雜志)》와 《후청록(侯鯖錄 송 조영치(趙令時) 저)》 중에 모두 적혀 있기를,

“옛 약방문에 쓰인 한 냥종은 지금의 석 냥종이 된다. 이는 수(隋) 때에 이르러서 석 냥을 합쳐서 한 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였다.

《풍창소독(楓窓小牘 일명씨(逸名氏) 저)》에, 동파(東坡)의 《일첩록(一帖錄)》 중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이끌었다.

“발병에는 위령선(葳靈仙 한약재의 일종)과 우슬(牛膝 한약재의 일종) 두 가지를

4 정사수(程沙隨) : 송의 장형(張迥), 사수는 호요, 자는 가구(可久).

가루로 만들어 꿀에 버무려서 환을 만들어 공복에 먹으면 신효를 보게 된다.”

수종(水腫)을 다스리는 데는, 논에서 나는 우렁이와 큰 마늘과 차전초(車前草 한약재의 일종)를 한데 갈아, 끈직한 지짐떡만큼씩 고약으로 만들어 배꼽 위에 붙여 두면, 물이 대소변에 따라 나오고 곧 병이 낫는다.

해소를 낫게 하는 경험방으로서, 향연(香櫟)의 씨를 발라내고 얇게 썰어 가늘게 조각을 내어서 청주(淸酒)와 함께 연하게 간 뒤에 사기 탕관에 넣고는, 저녁 때부터 새벽 오경(五更)까지 흠뻑 익혀 가지고, 다시 꿀에 타서 잘 버무려 두고는, 자다가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떠 먹으면, 매우 효험이 있는 것이다. 또 남쪽으로 뺨은 부드러운 뽕나무 가지 한 묶음을 한 마디씩 잘게 잘라 가마에 넣고, 물 다섯 보시기를 부은 뒤에 한 보시거나 되도록 달여서 목이 마를 때마다 마실 것이다.

송 효종(宋孝宗 조신(趙奭))은 게를 많이 먹고 이질을 앓았다. 때마침 엄방어(嚴防鰐)란 자가 있어서, 새로 캔 연뿌리를 잘게 갈아서 더운 술에 섞어 썼더니, 과연 나았다.

붉은 막이 덮인 눈병을 다스리는 데는, 흰 소라(白螺) 한 마리를 까서, 황련(黃連 한약재의 일종) 가루에 버무려서 하룻밤 이슬을 맞혔다가 새벽에 보면, 소라의 살은 녹아서 물이 된다. 이 물을 눈에 떨어뜨리면 붉은 막이 저절로 사라진다.

고기 가시가 목에 걸렸을 때는 개의 침을 먹고, 곡식 가시랭이가 목에 걸렸을 때는 거위의 침을 넘기면 즉차할 것이다.

무릇 물에 빠진 사람이나 쇠부스러기를 먹었을 때는 오리 피를 먹으면 곧 낫는다.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자는, 전갈(蝎) 온 마리를 독을 없애고 가루로 장만하여 술에 타서 콧구멍에 방울로 떨어뜨리면, 소리가 들리며 낫는다.

구기자(枸杞子)로 기름을 짜서 등불을 켜고 책을 읽으면, 시력을 더 좋게 할 수 있다.

쇠 연장에 베었거나 다쳤을 때는, 외톨이 밤을 말려 갈아서 가루를 내어 붙이면 곧 낫는다.

후비유아(喉痺乳蛾 편도선 염증)에는 두꺼비 껍질과 봉미초(鳳尾草 한약재)를 잘게 갈아서 상매육(霜梅肉 한약재)과 함께 술에 삶아 각각 조금씩 섞어서는, 다시

갈아 가지고 가는 베로 짜서 즙을 내어 거위깃으로 찍어 환부에 바르면, 담(痰)을 토하고 곧 멍울이 사라진다.

약창이나 나쁜 종기가 처음 돋을 때, 당귀(當歸 한약재의 일종) · 황벽피(黃檗皮 한약재의 일종) · 강활(羌活 한약재의 일종)을 가늘게 가루로 내어 노사등(鷺鷥藤 한약재의 일종)을 날것 채로 찢어서 즙을 내어 섞어서 종기 자리의 네 변두리에 붙이면, 자연히 독기를 빨아 내거나 한데로 모여 작게 돌치게 되어 터지기도 한다. 그러나 종기머리, 곧 테두리 자체에 붙여서는 아니 된다.

필기(筆記) 중에 이르기를,

“송(宋) 때 경산(徑山)에 살고 있던 중이 동산에 들어갔다가 뱀에게 발을 물렸을 때, 마침 손으로 왔던 어떤 중이 이를 치료하는데, 먼저 맑은 물을 길어 씻고, 또 계속 물 몇 섬이 들도록 바꾸어 씻어서 끓아 썩은 살을 다 없애 버리고, 상처에 흰 힘줄이 보일 때 부드러운 명주에다가 약 가루를 묻혀 상처 속에 집어 넣으니, 더러운 진물이 샘솟듯 솟아났다. 그 이튿날 맑게 씻고는 처음 모양으로 약을 발라 두니, 한 달 만에 독은 다 뽑아지고 살갗은 예전과 다름 없게 되었다. 그 약방문인즉, 향백지(香白芷 한약재의 일종)를 가루로 만들어 오리주둥이 · 담반(膽礬 한약재의 일종) · 사향(麝香)을 각기 조금씩 넣었다. 이는 《담수(談藪 저자 미상)》에 실려 있다.”

여자들이 경도로 인하여 출혈이 심할 때는 당귀(當歸) 한 냥종과 형개(荊芥 한약재의 일종) 한 냥종을 술 한 종지와 물 한 종지에 달여 마시면 곧 그친다.

무주(撫州)에 살고 있던 상인이 이질을 만나 매우 위급하자, 태학생(太學生) 예모(倪某)가 당귀 가루를 아위(阿魏 한약재의 일종)로써 환을 지어 끓인 물에 세 번 복용시켜 곧 낫게 하였다.

또 이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황화(黃花 한약재의 일종)와 지정(地丁 한약재의 일종)을 찢어 거기에서 난 즙을 술 한 잔 분량에다 벌꿀을 조금 타서 먹으면 신효를 본다.

습담(濕痰)으로 종기가 나서 걸을 수 없을 때는, 도꼬마리 · 목홍화(木紅花) · 나복영(蘿菈英) · 백금봉화(白金鳳花) · 수룡골(水龍骨) · 화초(花椒) · 괴조(槐條) · 창

출(蒼朮) · 금은화(金銀花) · 감초(甘草) 등 열 가지를 달여 환부에 김을 씌도록 하고, 물이 조금 따뜻할 때를 기다려 곧 씻는다.

소장(小腸)의 산기(疝氣)에는, 오약(烏藥 한약재의 일종) 6돈쫘과 천문동(天門冬 한약재의 일종) 5돈쫘을 맹물에 끓여 먹으면 신호가 난다.

소변이 잘 통하지 않을 때는, 망초(芒硝 한약재의 일종) 한 돈쫘을 보드랍게 잘라 용안육(龍眼肉 한약재의 일종)으로 싸서 잘 씹어 넘기면 당장에 효력을 본다.

혹을 다스리는 방법은, 땃가지를 써서 혹 위쪽의 살 껍질을 피가 나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긁어 헤치고는, 구리에 푸른 녹을 헤친 곳에 넣고 고약으로 붙여 둔다.

절골을 잇는 방법으로는, 기왓장을 불에 달구고 잘 말린 자라 반 냥쫘을, 뜨거운 데로 물에 적시어 자연동(自然銅) · 유향(乳香) · 몰약(沒藥) · 채과자인(菜瓜子仁) 등을 각기 등분해서 가늘게 가루를 내어 한 푼 반 쯤씩 술에 타 먹되, 상체가 상했을 때는 밥을 먹은 뒤에 먹고, 하체가 상했을 때는 식전에 먹는다.

온역(瘟疫)으로 머리와 얼굴이 부었을 때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금은화(金銀花) 두 냥쫘을 걸게 달여 한 잔 마시면 곧 사라진다.

바늘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는, 참나무 숯가루 서 돈쫘을 우물물에 타서 먹어도 좋고, 또 자석(磁石)을 향문에 대 두면 끌어당겨 나온다.

형개(荊芥) 이삭을 가루로 만들어 3돈쫘을 술에 타서 먹으면, 중풍증이 당장에 낫는다.

주마감(走馬疳)을 다스리는 데는, 또 장이나 소금에 절이지 않은 홍합(紅蛤)보다 조금 작은, 와룡자(瓦礫子 홍합과 비슷함)를 불에 태워 남은 재 덩이를 찬 땅에 두고 잔으로 덮어 씌워 다 식기를 기다렸다가 끄집어내어,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 환부에 발라 스며들도록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말 발굽을 태운 재에 소금을 조금 뿌려 환부에 바르기도 한다.

천연두가 내뿜다가 검게 잦아들 때에, 침향(沈香) · 유향(乳香) · 단향(檀香 향의 일종) 등을, 다소를 불구하고 화롯불에 태우고, 아이를 안아 그 연기 위에 쬔면 즉시 내뿜는다.

악창을 다스리는 데는, 동과(冬瓜) 한 개를 복판을 쪼개어, 먼저 한 쪽을 현 데에

엮어 붙인다. 동과가 더워지면 더운 데는 베어 버리고, 다시 가져다 붙여, 열이 식어지면 그만둔다. 또 다른 방문으로는, 마늘을 찢어서 떡처럼 만들어 현 데에 엮고 불을 당겨 뜬다. 뜨면 아프지 않기도 하고, 또는 아프기도 한데, 아픈 데는 뜨고 아프지 않으면 그만둔다.

어린이들의 귀 뒤에 나는 부스럼을 신감(腎瘡)이라 하는데, 지골피(地骨皮 한약재) 만을 가루로 내어 곱은 نرم은 뜨거운 물에 타서 씻고, 가는 نرم은 참기름에 섞어 문지른다.

광둥(廣東) · 광서(廣西) 지방과 운남(雲南) · 귀주(貴州) 등지에는 벌레 독이 많은데, 음식을 먹은 뒤 당귀를 씹으면 곧 독이 풀린다.

엽포주(葉蒲州 미상)의 〈남암전(南巖傳)〉 중에, 칼에 다친 상처를 치료하는 방문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단옷날 벤 부추를 찢어 즙을 낸 뒤, 거기다가 석회를 섞고, 다시 찢어 익혀서 떡을 만들어 상처에 붙이면, 피는 곧 멈추고, 뼈까지 상했더라도 아물게 되어 신호를 볼 것이다.”

의이(薏苡 울무)의 일명은 간주(幹珠)라고도 한다.

《계신잡지(癸辛雜志)》에 이르기를,

“목이 메었을 때는 장대산(帳帶散 한약재의 일종)을 쓰되, 다만 백반(白礬 한약재의 일종) 한 가지만을 쓰면 낫지 않기도 한다. 남포(南浦) 땅에 늪은 의원이 있어 가르치기를, 오리주둥이와 담반(膽礬)을 부드럽게 갈아 아주 독한 초에 섞어서 마시라고 한다. 어떤 관가의 늪은 호위병의 아내가 이 병을 앓아 이 방문으로 약을 썼더니, 약을 목구멍으로 넘기자마자 뽀뽀한 담을 두어 되나 토하고는 당장에 효험을 보았다.”

하였고, 또,

“눈에 티가 끼었을 때는, 곰의 쓸개를 정한 물에 조금 풀어 타서 눈곱 먼지와 눈알을 죄다 씻고, 빙뇌(氷腦) 한두 쪽을 쓰되, 근지러울 때는 생강가루를 조금 넣어, 때때로 은 젓가락으로 찍어 눈에 떨어뜨리면 신호를 본다. 눈이 충혈되었을 때도 역시 쓸 수 있다.”

하였다. 또 <민소기(閔小記 저자 미상)>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연와(燕窩)에는 검은 것, 흰 것, 붉은 것 등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붉은 것은 제일 구하기가 어렵고, 흰 것은 능히 담(痰)을 고칠 수 있고, 붉은 것은 어린애들의 흥역에 좋은 것이다.”

당 태종(唐太宗)이 이질을 앓는데, 여러 의원들이 약을 써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다. 금오(金吾 벼슬 이름) 장사(長史) 장보장(張寶藏)이 방문을 올렸는데, 그에 의하여 필발(華髮 한약재)을 젖에 달여 먹었더니 당장에 나았다.

주공근(周公謹)⁵이 괄창(括蒼)⁶에서 나는 진피(陳皮 한약재)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두창(痘瘡)을 치료하는 데 쓴다 하였는데, 환자의 빛이 새까매지고, 뒤틀어지고, 입술이 얼음장처럼 찰 때, 개파리 일곱 마리를 쥘어, 거르지 않은 술에 타서 조금 씹 먹이면, 얼마 못 되어 붉은 윤기가 전과 같이 돌게 된다. 겨울철에 개파리는 개의 귓속에 있다.”

하였다.

천연두 독 때문에 밖으로는 죄어들고 안으로는 막히고 할 때는, 땀 허물 한 벌을 정하게 씻어 불에 쪄어 말리고는, 다시 천화분(天花粉 한약재)을 같은 분량으로 부드럽게 가루로 만들어, 양(羊)의 간을 파서 속을 쪼개고 약 가루를 집어넣은 뒤, 세 겹질로 동여매고는 뜨물에 삶아 익혀서 썰어 먹으면 열흘이 못 가서 곧 낫는다.

줄지에 더위를 먹어 숨이 막혔을 때는, 큰 마늘 한 줌과 길바닥의 별에 쪼른 뜨거운 흙을 섞어 갈아서 이긴 뒤, 다시 새로 길어 온 물을 부어 걸러서 찌꺼기를 버리고 마시면 낫는다. 이 말은 《피서록(避暑錄)》 중에 실려 있다.

단풍나무 버섯을 먹으면, 웃음을 참을 수 없게 된다. 도은거(陶隱居)⁷의 본초주(本草注)에 보면,

“땅을 파고 냉수를 부어 휘둘러서 흐리도록 만들었다가, 조금 뒤에 이 물을 떠 마신다. 이것을 지장(地蠶)이라 부르며, 여러 가지 버섯독을 낫게 할 수 있다.”

5 주공근(周公謹) : 이름은 주밀(周密). 공근(公謹)은 자.

6 괄창(括蒼) : 절강성에 있는 산명(山名).

7 도은거(陶隱居) : 이름은 도홍경(陶弘景). 은거는 그의 호 화양은거(華陽隱居).

하였다.

《향조필기(香祖筆記)》에 이르기를,

“황생(黃生) 아무개는 여주(廬州) 사람으로, 우리 고을로 유람와서 단방(單方)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모두 효험이 있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을 적으면, 속결되는 병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각지 벗긴 대비마(大蓼麻 한약재) 1백 50날과 괴화나무 일곱 치(寸)를 향유(香油) 반 근에 넣어, 사흘 밤낮을 걸어 두었다가 타도록 볶은 뒤, 찌꺼기를 버리고 비단(飛丹 한약재) 넉 냥종을 넣어 고약을 만들어서 우물 속에 사흘 동안을 담가 두었다가 밤에 끄집어내어, 먼저 피초(皮硝 한약재) 녹인 물로 환부를 씻고 이 고약을 붙인다. 치질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대변을 본 뒤 감초(甘草) 끓인 물을 뒷물로 하고, 오배자(五倍子 한약재)와 여지초(荔枝草 한약재) 두 가지를 사기 남비에 달인 물로 씻는다. 여지초의 다른 이름은 나하마초(癩蝦蟆草)로서 사철, 언제나 있는데 면은 푸르고 안쪽은 희며, 얇은 구멍이 더덕더덕 있으면서 괴상한 냄새를 피우는 것이 곧 이 풀이다. 또 혈붕(血崩)⁸중에는, 저종초(豬鬃草 한약재) 넉 냥종을 동변(童便)과 청주(淸酒) 각 한 종지씩에 섞어 넣어 한 종지가 되도록 달여서 따뜻하게 먹는다. 저종초는 사초(莎草)와 같고 잎은 둥글다. 정하게 잘 씻어서 쓸 것이다.”

하였다.

왕개보(王介甫)는 언제나 편두통을 앓기에, 신종(神宗)이 궁중에서 쓰는 방문을 하사하였는데, 새 나복(蘿菔)의 즙을 내어 생룡뢰(生龍腦 한약재)를 조금 넣고 골고루 잘 섞은 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약 방울을 콧구멍에 떨어뜨린다. 왼쪽 머리가 아플 때는 오른쪽 콧구멍에 넣고, 오른쪽 머리가 아플 때는 왼편에 넣는다.

원앙초(鴛鴦草)는 덩굴로 자라나서 누른 꽃과 흰 꽃이 마주 쌍으로 핀다. 이 약은 웅저(癰疽 등창과 같은 종기) 같은 독종을 치료하는 데 더욱 신기하다.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할 수 있다. 심존중(沈存中)⁹ 양방(良方 소심양방(蘇沈良方)의 약칭)에 실린 금은화(金銀花)가 곧 그것이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노옹수(老翁鬚)라

8 혈붕(血崩) : 여자의 경도가 과다하게 계속하는 병.

9 심존중(沈存中) : 이름은 심괄(沈括), 존중은 자.

고도 하는데, 본초주(本草注)에는 그를 인동(忍冬)이라 하였고, 《군방보(群芳譜 명(明) 왕상진(王象晉) 저)》에는 노사등(鷺鷥藤)이라 하였으며, 또 금차골(金骨)이라 고도 하였다.

사재항(謝在杭 미상)의 《문해피사(文海披沙)》 중에 이르기를,

“슬가(蝨瘡) 이에 물려서 헌데가 된 것)은 황룡연수(黃龍沿水 미상)로 다스리고, 응성충(應聲蟲) 병은 뇌환(雷丸 한약종)과 쪽으로 다스리고, 식폐계충(食肺系蟲 폐를 먹는 벌레)은 달조(獺爪 수달의 발톱)로 다스리고, 격식충(膈食蟲 명치를 먹는 벌레)은 남즙(藍汁)으로 다스리고, 얼굴에 돋은 창은 패모(貝母 한약재)로 다스린다.”

하였다.

무창(武昌)소남문(小南門)의 헌화사(獻花寺)에 있는 늙은 중 자구(自究)란 자는, 음식으로 목이 막히는 병에 걸려 죽으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 놓고 말하기를,

“내가 불행히 이 병에 걸려 죽기는 하나, 가슴속에는 필시 무슨 물건이 있기 때문 일 터이니, 죽은 뒤에 가슴을 갈라 보고 입관(入棺)을 해 달라.”

하였다. 그 제자들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 비녀처럼 생긴 뼈 한 개를 끄집어내었다. 이 뼈를 불경 공부하는 책상 위에 두었는데, 오랜 뒷날에 군사를 거느리고 가던 어떤 장교가 이 방을 빌려 썼다. 어느 날, 부하들이 거위를 잡을 때 쉽사리 다 죽이질 못하여 이 뼈로 찢러 죽이자, 거위 피가 뼈에 묻은 즉시 뼈는 당장에 사라져 없어졌다. 뒷날, 그 제자가 역시 목 메는 병이 들었을 때, 전일 일이 생각나서 거위 피로 나올 수 있을 것을 깨닫고, 이를 여러 차례 먹었더니 드디어 나았다. 이 내 이 방문을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려서, 누구나 다 낫게 되었다.

난산(難產)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행인(杏仁 살구씨) 한 알의 껍질을 벗겨서 한 쪽에는 날 일(日) 자를 쓰고 또 한 쪽에는 달 월(月) 자를 써서 꿀을 묻혀 붙이고, 붉은 꿀로 환을 만들어 백비탕이나 혹은 술을 마셔서 넘긴다. 이 방문은 어떤 방술(方術)하는 중이 전한 것이다.

손사막(孫思邈 당(唐)의 학자)의 《천금방(千金方 천금요방(千金要方)의 약칭)》에 이르기를,

“인삼탕(人蔘湯)은 반드시 흐르는 물을 써서 달일 것이지, 끈 물을 쓰면 효험이 없는 법이니, 이는 《인삼보(人蔘譜 저자 미상)》에 실려 있는 말이다.”

하였다.

《담포기(談圃記 저자 미상)》에 이르기를,

“증노공(曾魯公 미상)이 나이 70여 세에 이질에 걸렸는데, 고향 사람 진응지(陳應之)가 수매화(水梅花)를 납차(臘茶)에 복용하도록 하여 곧 나았다.”

하였으나, 수매화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참사(參事 벼슬 이름) 장탁(張鐸 송(宋)의 무관(武官))의 말에 의하면,

“비둘기를 기르면 어린애들의 감질(疳疾)을 다스린다. 비둘기를 많이 기르고, 매일 새벽마다 어린애들로 하여금 방문을 열고 비둘기를 날리게 하면, 비둘기의 기운이 낮에 부딪쳐서 감질이 없어진다.”

하였다.

《권유록(倦遊錄 저자 미상)》에 쓰여 있기를,

“신가현(辛稼軒)¹⁰이 산질(疝疾)에 걸렸을 때, 어떤 도인(道人)이 가르치기를, 울무알과 황토로 바른 동쪽 벽토를 한데 볶아서, 다시 물에 달여 고약을 만들어 자주 먹었더니 산질이 곧 사라졌고, 정사수(程沙隨)도 이 병에 걸리자, 가현이 이 방문을 가르쳐 주어서 역시 나았다.”

하였다.

《문창잡록(文昌雜錄 송 요원영(廖元英) 저)》에 이르기를,

“정주 통판(鼎州通判) 유응신(柳應辰)이 생선 뼈에 걸린 병을 다스리는 방문을 전해 왔는데, 역수로 흐르는 물 반 잔을 떠다 놓고, 먼저 환자더러 병의 증세를 묻고 그로 하여금 그 기운을 빨아들인 다음에, 동쪽으로 향하여 원(元)·형(亨)·이(利)·정(貞) 네 자를 일곱 번 외고 공기를 들여마신 다음, 숨을 내쉬지 않은 채 물을 조금 마시면 즉시 낫는다.”

하였다.

수질(水疾 물에서 얻은 병)을 다스리는 법은, 배를 젓는 노(櫓)가 서로 마찰하는 데

10 신가현(辛稼軒) : 송의 학자 신기질(辛棄疾). 가현은 호요, 자는 유안(幼安).

를 조금 끓고 또 배 밑에 묻은 때를 조금 끓어서 환약을 만든 다음, 소금물로써 세
알을 넘기면 신호가 난다.

붙임[附]

얼굴에 난 수지(水痣)는 속칭 무사마귀(武射莫爲)라 한다. 그를 다스리는 방법
은, 가을의 바닷물로 씻으면 곧 없어진다. 나의 종제(從弟) 유원(綏源)이중(履仲)
이 8·9세 때 얼굴에 무사마귀를 함빡 덮어 쓰다시피 하여서 백약이 무효였는데,
어가(魚哥) 성을 가진 늙은 의원이 있어 8·9월의 바닷물로 자주 씻으면 낫는다고
가르쳐 주어, 당장에 효험을 보았다.

내가 여남은 살 났을 때 얼굴에 함빡 쥐의 젖을 뒤집어 쓰게 되었는데, 눈시울과
귓가가 더욱 심했다. 더덕더덕 밥티가 붙은 것 같아서, 언제나 거울만 들여다보고
울면서 화를 냈지마는 백약이 무효였다. 때가 바로 봄 여름철이어서 가을철까지
바닷물을 기다릴 수 없어, 염정(鹽井)의 물거품을 물에 타서 몇 차례 씻고는 그대
로 말렸더니, 아주 신호를 보았다. 나는 이 방법을 널리 전했더니, 효험을 아니 본
자가 없었다.

왕혹정(王鵠汀)의 종인 약가(鄂哥)는 나이 스물 한 살인데, 얼굴이 깨끗하게 생겼
었다. 마침 이질에 걸려 많이 앓던 판이라, 혹정은 나에게 우리나라 태의(太醫)를
좀 청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의사를 청할 필요가 없소. 축축한 땅을 파고 지렁이 수십 마리를 잡아 백비탕에
넣어 끓여 짜서, 목이 마를 때 이 물을 많이 마시면 효험을 볼 것입니다.”

하였더니, 혹정이 당장에 시험하여 곧 나았다.

목생(穆生)이란 자가 마침 학질을 앓아서, 혹정은 나에게 인도하여 보이고 방문을
청한다. 나는 이슬에 생강즙을 타서 마실 것을 가르쳐 주었더니, 목은 사례를 하먼
서 가 버렸는데, 그 이튿날 회정(回程)했으므로 이것을 먹고 효험을 보았는지 모르
겠다. 대체로 이 생강즙은 학질 고치는 데 좋은 방문으로, 생강 한 뿌리를 즙을 내

어 하룻밤을 한데 내어 두었다가, 해뜨기 전에 동향(東向)하고 앉아 마신다. 여러 번 시험했으나 다 나았다.

고북구(古北口)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목에 혹이 많이 달렸는데, 여자가 유달리 더하였다. 나는 혹정에게 한 방문을 가르쳐 주면서,

“혹이 만일 담핵(痰核)이라면, 끼니마다 밥을 먹을 때 먼저 한 술을 떠서 손바닥 위에 놓고 밥을 동글동글하게 비벼 쥐고 있다가, 밥을 마친 뒤에 소금을 밥에 조금 넣고 엄지손가락으로 섞어 개어서 상처에 오랫동안 붙이면 저절로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밥은 멍쌀로 지어서 씹습니다.”

하였다.

해산을 빨리 시키는 데는, 피마자 한 알을 찢어 발바닥 한복판에 붙이면 순산을 한다. 순산한 뒤엔 곧 떼어 버려야 한다. 만일, 이를 잊어버리고 떼지 않으면 대하증(帶下症)이 생기기 쉽다.

양기를 돕는 데는, 가을 잠자리의 머리와 날개와 다리를 떼어 버리고, 곱게 갈아서 쌀뜨물에 반죽을 하여 환을 만들어 세 홉을 먹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한 되를 먹으면 늙은이가 젊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방문은, 기록하여 왕혹정에게 준 것들이다.

환희기

환희기서(幻戲記序)¹

아침에 광피사표패루(光被四表牌樓)를 지나는데 패루 아래 만인이 거리에 둘러서서 웃음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웬 사람이 싸우다가 졸지에 죽어서 길에 가로 넘어진 것을 보고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걸음을 재촉해서 지나노라니, 종자(從者)가 뒤에서 갑자기 쫓아오면서 부르기를, 괴이한 구경거리가 있다고 한다. 나는 멀리서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종자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하늘 위에 가서 복숭아를 훔치려다가 지키는 자에게 얻어맞고서 땅에 툭 떨어졌습니다.”

한다. 나는 해괴스럽다고 꾸짖고 돌아다보지도 않고 왔더니, 그 이튿날 또 그곳을 가는데 대체로 천하의 기이한 재주와 음란한 장난과 잡스러운 연극 패들이, 모두 천추절에 열하로 가려고 기다리면서 날마다 패루에 나와 백 가지 노름을 연습하고 있었다. 비로소 어제 종자가 본 것이 곧 요술(妖術)의 한 가지인 것을 알았다. 대개 상세(上世)로부터 이런 데 능한 자가 있어 소귀(小鬼)를 부려 사람의 눈을 속였으므로 이것을 요술이라 한다. 하(夏)의 시절에 유루(劉婁 술사의 이름)는 용을 길들여 공갑(孔甲 하의 임금)을 섬겼고, 주 목왕(周穆王) 때에 연사(偃師 술사의 이름)²란 자가 있었고, 목적(墨翟)³은 군자인데 능히 목연(木鸞)을 날렸으며, 후세에도 좌자(左慈)·비장방(費長房 동한(東漢) 때의 요술사)의 무리는 이런 술법을 가지고 사람을 놀렸고, 연(燕)·제(齊)의 오괴(迂怪)스러운 선비들은 신선 이야기로써 당시 임금들을 의혹시켰으니 이것은 모두 요술이다. 당시에 능히 이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그 술법이 서역(西域)에서 나왔으므로, 구라마십(鳩羅摩什)⁴과 불도징(佛

1 환희기서(幻戲記序)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주설루본’을 좇아 수록하였다.

2 연사(偃師) : 산 사람과 다를없는 인형을 만들었다.

3 목적(墨翟) : 전국 때 공자와 병칭하던 학자로서 겸애설(兼愛說)을 주창한 철인.

4 구라마십(鳩羅摩什) : 구마라십(鳩摩羅什)의 오기(誤記). 서역 귀자(龜茲)의 명승.

圖澄),⁵ 달마(達摩)⁶ 같은 자들이 더욱 요술을 잘할 줄 알았을 것이다. 혹은 말하기를,

“이런 술법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스스로 왕법(王法) 밖에 두어서 이를 주절(誅絶)시키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묻기에, 나는 답하기를, “이는 중국 땅이 커서 한없이 넓으며 끝이 없어 이런 것도 같이 길러내므로 정치에 병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만일 천자가 좀스러워서 이런 것을 자로 계교하고 깊게 추궁한다면, 도리어 깊숙한 곳에 잘 보이지 않게 살다가 때로 나와서 세상을 흐려 놓을 것이니, 천하의 근심이 클 것 이므로 날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장난삼아 구경하게 하면 비록 부인이나 어린이라도 이것을 묘술로 알게 되어, 죽히 마음을 놀래고 눈을 현란하게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이 임금된 자로서 세상을 어거하는 방법이 아니겠소.”

하고는, 드디어 그 구경한 바 여러 가지 요술 스무 가지를 기록하여 장차 우리나라의 이 노름을 못 본 자에게 보이고자 한다.

5 불도징(佛圖澄) : 진(晉) 때 천축(天竺)의 명승. 어떤 본에는 불국증(佛國證)으로 되었으나 잘못되었다.

6 달마(達摩) : 양 무제(梁武帝) 때 인도로부터 들어온 명승. 선종(禪宗)의 시조.

환희기(幻戲記)

요술쟁이가 대야에 손을 씻고 수건으로 정하게 닦은 뒤에 얼굴을 정제하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손바닥을 치고 이리저리 뒤집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인 뒤에, 왼손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은 환약을 만지고 이나 벼룩을 잡듯이 마주 비비니, 갑자기 가느다란 물건이 생겨 겨우 좁쌀날만 했다. 연거푸 이것을 비비니 점점 커져서 녹두알만 해지고 차차 앵두알만 하다가 다시 빈랑(檳榔)만 하더니 차츰 달걀만 해졌다. 두 손바닥으로 재빨리 비벼 굴리니 둥근 것이 더 커져서 노랗고 흰 것이 거위알만 해졌다. 조금 있더니 이번에는 차차로 커지지 않고 별안간 수박만 하게 된다. 요술쟁이는 두 무릎을 꿇고 가슴을 벌리고 더 빨리 비벼 장고를 끌어안은 듯 팔뚝이 아플 만하여 그치더니, 이내 탁자 위에 놓는데 그 몸통이는 둥글고 빛은 셋 노랗고, 크기는 동이만 한 것이 다섯 말 들이는 되어 보이며, 무게는 들 수가 없고 단단하여 깨뜨릴 수가 없어 돌도 아니요 쇠도 아니며, 나무도 아니요 가죽도 아니며 흙도 아니요, 둥근 것이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이 냄새도 없고 향기도 없이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만치 제공(帝工)⁷ 같았다. 요술쟁이는 천천히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다시 그 물건을 만지는데, 부드럽게 굴리고 가만히 쓰다듬으니 물건은 부드러워지고, 손을 슬며시 대니 가볍기가 물거품 같아 점점 줄어들고 사라져서, 잠깐 사이에 다시 손바닥 속으로 들어가는데 다시 두 손가락으로 집어서 비비다가 한 번 튀기니 즉시 사라져 버린다.

요술쟁이는 사람을 시켜 종이 몇 권을 길게 찢어서 큰 통에 있는 물 속에 집어 넣고 손으로 그 종이를 빨래하듯 저으니, 종이는 풀어지고 흐트러져서 흙을 물 속에 넣은 것과 같았다. 여러 사람들을 두루 불러 통 속에 있는 종이가 물과 섞인 것을 보이니 가위 한심한 일이다. 이때 요술쟁이는 손뼉을 치고 한 번 웃더니 두 소매를 걷고 두 손으로 통에 있는 종이를 건져 내는데, 마치 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듯이 하니, 종이는 서로 이어져 나오는데 처음에 길게 찢을 때와 같고 이은 흔적이 없었다. 어느 사람이 풀로 발랐는지 띠와 같이 수백 발이나 되는 것을 땅바닥에 풀어놓

7 제공(帝工) : 눈도 코도 없이 누른 주머니처럼 생긴 귀신 새 이름. 《산해경(山海經)》에 나온다.

아 바람에 펄럭거렸다. 다시 통 속을 보니 맑고 깨끗하여 찌꺼기 하나 없이 새로 길은 물과 같았다.

요술쟁이는 기둥을 등지고 서서 사람을 시켜 손을 뒤로 젖혀 붙이고 두 엄지손가락을 묶으라 했다. 기둥은 두 팔 사이에 있고 두 엄지손가락은 검푸르게 되어 아픔을 참지 못하니,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보다가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이가 없었다. 조금 있더니 요술쟁이는 기둥에서 떨어져 서는데 손은 가슴 앞에 있고 묶은 데는 전이나 다름없이 아직 풀리지 못했다. 손가락의 피는 한 곳으로 모여서 빛은 더욱 검붉어 몹시 아픈 것을 견디지 못했다. 여러 사람이 이에 노끈을 풀어주니 혈기가 점점 통하고 노끈 자리는 오히려 붉었다. 우리 일행인 역부(驛夫)가 눈을 모아 자세히 보다가 심중으로 노하여, 얼굴빛을 변해 의분을 내고는 주머니를 털어 돈을 내어 큰 목소리로 요술쟁이를 불러 먼저 돈을 주고는, 다시 한 번 자세히 보기를 요구했다. 요술쟁이는 원망하는 듯이,

“내가 너를 속이지도 않았는데 너는 나를 못 믿으니 네가 맘대로 나를 묶어 보려무나.”

한다. 역부는 분기를 내어 먼저 노끈은 던져버리고 자기가 가진 채찍을 끌러 입에 물어 축인 다음 요술쟁이를 붙들어 등에 기둥을 지우고 뒷 손을 젖혀서 묶는데 먼 것보다 훨씬 세게 묶었다. 요술쟁이는 아프다고 소리를 치는데 뺨속까지 아파서 콩알만 한 눈물이 떨어진다. 역부가 크게 웃으니 구경꾼들이 더욱 많아졌는데, 벋는 것을 볼 사이도 없이 요술쟁이는 벌써 기둥을 떠나 서 있고 묶은 데는 아직도 풀어지지 않았다. 이런 신통한 것을 세 번이나 보였으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요술쟁이는 둥근 수정 구슬 두 개를 탁자 위에 놓았는데 구슬을 계란보다 조금 작았다. 한 개를 입을 벌리고 집어 넣으니 목구멍은 좁고 구슬은 커서 삼키지 못하고 구슬을 토해 내어 도로 탁자 위에 놓았다. 다시 광주리 속에서 계란 두 개를 내어 눈을 부릅뜨고 목을 늘이고서 알 하나를 삼키는데, 마치 닭이 지렁이를 삼키는 것 같고 뱀이 두꺼비 알을 삼키는 것 같아 목 속에 걸려서 거죽으로 흑이 달린 것 같았다. 다시 알 하나를 삼키니 과연 인후를 틀어막아 재채기하고 구역질하며, 목에 핏대가 서자 요술쟁이는 후회하고 살고 싶지 않은 듯이 대 젓가락으로 목구멍을

쭈시니 젓가락이 꺾어져 땅에 떨어진다. 이제 어쩔 수가 없어 입을 벌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는데 목구멍 속에는 조금 흰 것이 드러난다. 가슴을 치고 목을 두드리며, 답답하고 찢찢매는 꼴을 보고 사람들은,

“조그만 재주를 경솔히 자랑하다가 아아, 이제는 죽는구나.”

하였다. 요술쟁이는 가만히 귀가 가려운 듯이 듣더니 귀를 기울이고 굽는 것이 무슨 의심이 있는 것처럼 손가락 끝으로 귓구멍을 후벼 흰 물건을 끄집어 내니 과연 계란이었다. 이때에 요술쟁이는 오른손으로 계란을 쥐고 여러 사람 앞에 두루 보이더니, 왼쪽 눈에 넣었다가 오른편 귀에서 뽑아내고 오른편 눈에 넣었다가 왼편 귀에서 뽑아내며, 귓구멍에 넣었다가 뒤통수로 뽑아내는데 목에는 아직도 계란 한 개가 남아 있었다.

요술쟁이는 흰 흙 한 덩이로 땅에 큰 동그라미를 그어 여러 사람들을 동그라미 밖에 둘러앉게 했다. 요술쟁이는 이때 모자를 벗고 옷을 끄르고 시퍼렇게 간 칼을 내어 땅 위에 꽂아 놓고 다시 땃가지로 목을 쭈서 계란을 깨뜨리려 했다. 땅을 버티고 서서 한 번 토해도 알은 종내 나오지 않아 이에 그 칼을 빼어 좌에서 우로 휘두르고 우에서 좌로 휘두르다가, 공중을 쳐다보고 한 번 던져 이것을 손바닥으로 받더니, 또 한 번 높이 던지고는 하늘을 향하여 입을 벌리니 칼 끝이 바로 떨어져 입 속에 꽂힌다. 이때에 여러 사람들은 얼굴빛을 변하여 모두 벌떡 일어나고 깜짝 놀라 말이 없는데, 요술쟁이는 고개를 젓히고 두 팔을 늘리고 뻗뻗이 한참 선 채, 눈 한 번 깜박하지 않고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참 있다가 칼을 삼키는데, 병을 기울여 무엇을 마시듯 목과 배가 서로 마주 응하는 것이 성난 두꺼비 배치럼 불룩 거렸다. 칼고리가 이에 걸려 칼자루만 넘어가지 않고 남아 있다. 요술쟁이는 네 발로 기듯이 칼자루를 땅에 쿵쿵 다져 이와 고리가 맞부딪쳐 딱딱 소리가 났다. 또 다시 일어나서 주먹으로 칼자루 머리를 치고서 한 손으로 배를 만지고 한 손으로는 칼자루를 잡고 내두르니, 배 속에서 칼이 오르내리는 것이 살가죽 밑에서 붓으로 종이에 줄을 긋는 것 같았다. 여러 사람들은 가슴이 섬뜩하여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린애들은 무서워서 울면서 안 보려고 엎어지고 기어서 달아났다. 이때에 요술쟁이는 손뼉을 치고 사방을 돌아보고 늙름하게 바로 서서 이내 천천히 칼을 뽑

아 두 손으로 받들어 들며, 여러 사람들의 바로 눈 앞에 두루 보이면서 인사를 하는데, 칼 끝에 붙은 핏방울에는 아직도 더운 기운이 무럭무럭 났다.

요술쟁이는 종이를 나비 날개처럼 수십 장을 오리고 손바닥 속에서 비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고는,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한 어린이에게 눈을 감고 입을 벌리라 하고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니, 그 어린이는 발을 구르면서 울었다. 요술쟁이는 웃으면서 손을 떼니 어린이는 울다가 토(吐)하고 또 울다가는 토하는데, 청개구리를 연달아 수십 마리를 토하여 모두 땅바닥에서 뛰놀곤 하였다.

요술쟁이는 탁자 위를 정하게 닦더니 붉은 탄자 보자기를 툭툭 털어 탁자 위에 펴 놓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손뼉을 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보였다. 요술쟁이는 천천히 탁자 앞으로 와서 한 손으로 보자기 복판을 누르고 한 손으로는 보자기 귀통이를 집어 올려 젖히니, 붉은 새 한 마리가 한 번 울면서 남쪽을 향해서 날아갔다. 또 한 번 손을 동쪽으로 쳐드니 푸른 새가 동쪽을 향해서 날아갔다. 손을 보자기 밑에 집어 넣어 가만히 참새 한 마리를 집어내는데 빛은 희고 입부리는 붉었다. 두 발로 허공을 허우적거리다가 요술쟁이의 수염을 움켜잡았다. 요술쟁이가 수염을 쓰다듬으니 새는 다시 요술쟁이의 왼쪽 눈을 쫓았다. 요술쟁이는 새를 버리고 눈을 문지르니 새는 서쪽을 향해서 날아갔다. 요술쟁이는 분해서 한숨을 쉬면서 다시 가만히 손을 넣어 검정 참새 한 마리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하다가, 잘못해 놓쳐서 참새가 땅에 떨어져 돌아서 탁자 밑으로 들어가니, 어린이들이 서로 참새를 붙잡으려고 하자 새는 일어나 북쪽을 향하여 날아갔다. 요술쟁이는 분이 나서 보자기를 집어 치우니, 수없는 집비둘기들이 한꺼번에 날개를 치면서 나와 빙빙 돌다가 지붕 처마 위에 모여 앉았다.

요술쟁이는 작은 주석병을 가지고 오른손으로 물 한 대접을 떠서 병 주둥이에 철철 넘도록 붓더니, 대접을 탁자 위에 놓고 대젓가락을 가지고 병 밑을 찌르니, 물이 병 밑으로 방울져 흐르는데 조금 있다가 낙숫물처럼 줄줄 흘렀다. 요술쟁이는 고개를 젓히고 병 밑을 입으로 부니 새던 물이 툭 그쳤다. 요술쟁이는 공중을 향해서 옆으로 흘려보면서 입 속으로 주문(呪文)을 외니, 물은 병 주둥이로부터 몇 자 높이나 솟아 땅바닥에 가득히 쏟아졌다. 요술쟁이는 소리를 지르면서 솟아오르는

물 중간을 움켜 잡으니, 물은 중간이 끊어지면서 꾸부러져 병 속으로 들어갔다. 요술쟁이는 다시 대접을 가져다가 물을 도로 따르니, 병에 든 물의 분량은 처음과 같고 땅바닥에 물이 흐른 자국은 몇 동이나 쏟은 것 같았다.

요술쟁이는 금고리 두 개를 내어 탁자 위에 놓더니 여러 사람들을 두루 불러서 이 고리를 보였다. 크기는 두 뼘이나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둥글둥글 한 것이 천작(天作)으로 되었다. 요술쟁이는 이때 두 손을 짝 벌리고 각각 고리 하나씩을 쥐고는 내둘러 춤을 추면서 공중을 향하여 고리를 던졌다가 고리로 고리를 받으니, 두 고리는 서로 이어져서 이어진 고리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는데, 끊어진 데도 없고 틈자리도 없으니 누가 이를 때를 보았으랴. 요술쟁이는 이때 두 손을 짝 벌리고 두 손으로 고리 하나씩을 잡고 한 번 떴었다 한 번 붙였다 하고, 한 번 이었다 한 번 끊었다 하며, 꿇고 잇고 떼고 붙이곤 했다.

요술쟁이는 수놓은 모직물 보자기를 탁자 위에 펴놓고 보자기 한 구석을 약간 들어 주먹만한 자춧빛 돌 한 개를 집어내어, 칼 끝으로 조금 찌르고 돌 밑에 잔을 바치니 소주가 조금씩 흘러 내렸다. 잔이 차면 그치는데 여러 사람들이 다투어 돈을 내어 술을 사 먹는다. 사괴공(史劄公)을 청하면 돌에서 사괴공이 흘러나오고, 불수로(佛手露)를 청하면 돌에서 불수로가 흘러나오며, 장원홍(壯元紅)을 청하면 장원홍이 흘러나온다. [사괴공·불수로·장원홍은 모두 술의 이름이다.] 한 가지만 능한 것이 아니라 청하는 대로 문득 응하여 한 줄기 매우 향기는 위(胃)에 들어가면 불이 붙어진다. 연거푸 수십 배를 쏟더니 홀연히 돌 있는 곳을 잃어버렸다. 요술쟁이는 놀라지도 않고 당황하지도 않으며, 멀리 백운(白雲)을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돌이 하늘 위로 올라갔소이다.”

하였다.

요술쟁이는 손을 보자기 밑에 넣어 빈과(蘋果) (빈과는 곧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사과(沙果)요, 중국의 이른바 사과는 곧 우리나라의 임금(林檎 능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없었는데, 동평위(東平尉) 정공(鄭公) 재륜(載崙)이 사신으로 갔을 때에, 가지에 접을 붙여 동쪽으로 돌아온 뒤로 우리나라에 비로소 많이 퍼졌으며, 그 이

름이 잘못 전한 것이라고 한다.) 세 개를 끄집어냈다. 가지가 연하고 잎이 붉은 것을 한 개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에게 사라고 청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를 흔들고 즐겨 사지 않으면서,

“네가 전일에 항상 말풍으로 사람을 희롱한단 말을 들었거든.”

한다. 요술쟁이는 웃으면서 이것을 변명하지 않는데 여러 사람들은 다투어 사서 먹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비로소 사자고 청하니 요술쟁이는 처음에는 아끼는 듯하다가, 얼마 뒤에 한 개를 집어 주니 우리나라 사람이 한 입 베어 먹고는 바로 토하는데, 말풍이 한 입 가득 차서 온 저자 사람이 모두 웃었다.

요술쟁이는 바늘 한 줌을 입에 넣고 삼켰는데 근지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말하는 것이나, 웃는 것이 평상과 다름없이 밥을 먹고 차를 마셨다. 천천히 일어나서 배를 문지르고 붉은 실을 비벼서 콧구멍에 넣고 한참 동안 섰더니, 재채기를 몇 번 하고는 코를 쥐어 콧물을 내고 수건을 내어 코를 씻고 나서 콧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코털을 뽑는 것 같더니, 얼마 만에 붉은 실이 콧구멍에서 조금 보였다. 요술쟁이는 손톱으로 그 실 끝을 집어 당기니 실이 한 자 넘게 나오면서 갑자기 바늘 한 개가 콧구멍에서 누워 나오는데 실에 꿰어져 있었다. 가느다랗게 질질 끌려 빠지는 실은 자꾸 길어져서 백 개 천 개 바늘이 실 한 끝에 꿰어졌고, 혹은 밥알이 바늘 끝에 붙어 있었다.

요술쟁이는 흰 빛 대접 하나를 내어 여러 사람들에게 얹어 보이더니 땅바닥에 놓았는데 아무 물건도 없었다. 요술쟁이는 사방을 돌아보면서 손뼉을 쳐 보이고는 접시 한 개를 가져다가 대접을 덮고 사방을 향하여 노래처럼 부르더니, 얼마 있다가 열어 보니 은 다섯 쪽이 있는데 모양은 흰 마름처럼 생겼다. 요술쟁이는 사방을 돌아보고 손뼉을 쳐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는 다시 접시로 대접을 덮고서 공중을 향하여 옆으로 흘려보고 진언(眞言)을 외는 소리가 욱하는 것 같더니, 얼마 있다가 열어 보니 은(銀)은 돈으로 화하여 그 수효는 역시 다섯 개였다.

요술쟁이는 은행 한 소반을 땅 위에 놓고 큰 향아리로 이것을 덮고 공중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다가 한참 만에 열어보니, 은행은 보이지 않고 모두 산사(山査 한약재의 일종)가 되었다. 다시 그 향아리로 덮고 공중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다가 한참

만에 열어 보니, 산사는 보이지 않고 모두 두구(荳蔻 한약재의 일종)가 되었다. 다시 향아리를 덮고 공중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다가 한참 만에 열고 보니, 두구는 보이지 않고 모두 붉은 오얏이 되었다. 다시 향아리를 덮고 공중을 향하여 주문을 외우다가 한참 만에 열고 보니 붉은 오얏은 보이지 않고 모두 염주(念珠)가 되었다. 전단(梅檀)⁸으로 여러 개의 포대(布袋)⁹ 목상(木像)을 조각하였는데 하나하나가 웃음을 머금고 낱알이 뚱뚱하여 한 줄에 1백 8개를 꿰 것이, 처음도 끝도 없이 가지런했다. 아무리 자세히 보아도 어디서부터 시작하여 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때 요술쟁이는 사방을 돌아보면서 손뼉을 쳐 여러 사람들을 두루 불러 용한 술법을 자랑했다. 다시 그 향아리를 덮어서 땅 위에 얹었다가 뒤집어 놓으니, 향아리는 밑으로 가고 소반은 위에 있게 되었다. 옆눈으로 보면서 화가 난 듯이 소리를 치고 한참 만에 열어 보니, 염주는 하나도 없고 맑은 물이 철철 넘치며, 한 쌍의 금붕어가 향아리 속에서 활발히 노는데 물을 먹고 진흙을 토하고 한 번 뛰고 한 번 헤엄치곤 했다.

요술쟁이는 한 자 넓이나 되는 꽃 자기 쟁반 다섯 개를 탁자 위에 놓고 다시 가는 뗏개비 수십 개를 탁자 아래 놓았는데, 뗏개비의 대소와 장단은 화살과 비슷하고 모두 끝을 뾰족하게 깎았다. 뗏개비 한 개를 가지고 그 끝에 쟁반을 얹고 대를 돌리니, 쟁반은 기울지도 않고 빠돌아가지도 않으며, 도는데 조금 느리게 돌면 다시 손으로 쳐서 빨리 돌게 한다. 쟁반은 빨리 도는 바람에 미처 떨어질 사이도 없었다. 쟁반이 조금 기울 때는 다시 뗏가지로 질러 올리면 쟁반이 한 자 넘어 높이 솟았다가 똑바로 뗏개비에 그대로 내려 앉아 팽팽 돌았다. 요술쟁이는 이것을 오른 쪽 신 속에 꽂아 놓으니 쟁반은 저절로 돌고 있었다. 다시 한 개비로 쟁반을 처음처럼 돌리다가 왼편 신 속에 꽂고 또 한 개비로 돌리다가 오른편 옷깃에 꽂고 다른 한 개비는 왼편 옷깃에 꽂으며, 또 다른 한 개비는 끝에 쟁반을 얹어 흔들고 치밀고 팽팽 돌리니 손으로 칠 때마다 쟁쟁 소리가 났다. 이때 요술쟁이는 뗏개비에 뗏개비를 잇달아 꽂는데 쟁반은 무겁고 뗏개비는 길어지니 뗏가지 중동이 절로 구부

8 전단(梅檀) : 남양 지방에서 나는 명향(名香).

9 포대(布袋) : 불경에서 이르는 칠복신(七福神)의 하나로서 '미륵보살'이라고도 하는 중.

러지는데, 쟁반은 떨어져 부서질 생각도 않고 돌리기를 그치지 않는다. 땃개비 10여 개를 이은즉 높이가 지붕 위에까지 올라갔다. 요술쟁이는 이었던 땃개비를 천천히 하나씩 빼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 탁자 위에 도로 놓았다. 이때 요술쟁이는 입에 땃개비 하나를 담뱃대처럼 물고 입에 문 땃개비 끝에 높은 땃개비를 세우며, 두 팔을 늘어뜨리고 뻗뻗이 한참 동안 서니 이때 구경꾼들은 빼가 자릿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이는 쟁반을 아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상 목격하기가 너무 위험해서였다. 별안간 바람이 일어 땃개비는 과연 중동이 부러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일제히 놀라 소리를 치자, 요술쟁이는 역시 재빨리 쫓아가 쟁반을 슬며시 받아서, 다시 공중으로 높이 1백 척이나 되게 던져 놓고 사방 구경꾼을 돌아보면서 편안한 듯 쟁반을 받는데, 자랑하는 빛도 없고 뽐내는 기색도 없이 옆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했다.

요술쟁이는 벼알 네댓 말을 앞에 놓고 두 손으로 다투듯이 움켜쥐고 짐승 고기처럼 잠깐 사이에 다 먹어 버리니 땅바닥은 활은 듯했다. 이때 요술쟁이는 땅바닥을 버티고 겨를 토하는데, 침이 뭉쳐서 덩어리가 되어 나왔다. 겨가 다 나오더니 계속해서 연기가 입술과 이 사이에 어리어 손으로 수염을 씻고 물을 찾아 양치질을 해도 연기는 끝내 그치지 않았다. 답답함을 참지 못하여 가슴을 치고 입술을 쥐어 뜯으며 연거푸 물을 몇 그릇 마셨으나, 연기의 형세는 더욱 심하여 입을 벌리고 한번 토하니 붉은 불이 입에 찼다. 젓가락으로 집어내니 반은 숯이요 반은 타고 있었다.

요술쟁이는 금호로병(金葫蘆瓶)을 탁자 위에 놓고 또 녹동(綠銅) 화병을 내놓는데 공작의 깃이 꽃혀 있더니, 조금 있다 보니 금호로병이 간 곳이 없다. 요술쟁이는 구경꾼들 중의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 노야(老爺)가 감추었어.”

하니, 그 사람은 노하여 얼굴빛이 변해 가지고,

“어찌 이렇게 무례하단 말야.”

했다. 요술쟁이는 웃으면서,

“노야께서는 정말 거짓말을 하십니다. 호로병은 노야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하니, 그 사람은 크게 노하여 입 속으로 욕을 하면서 옷을 한 번 털어 보이니, 홀연 품속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서 호로병이 떨어졌다. 온 저자가 일제히 웃으니 그 사람은 묵묵히 있다가 딴 사람 등 뒤에 가서 섰다.

요술쟁이는 탁자 위를 깨끗이 닦고 도서(圖書)를 진열하고 조그만 향로에 향불을 피우고 흰 유리 접시에 복숭아 세 개를 담아 두었는데 복숭아는 모두 큰 대접만 했다. 탁자 앞에 바둑판과 검고 흰 바둑알을 담은 통을 놓고 초석을 단정하게 깔아놓았다. 잠깐 휘장으로 탁자를 가렸다가 조금 후에 걷으니, 구슬 관에 연잎 옷을 입은 자도 있고, 신선의 옷과 신 차림을 한 자도 있으며, 나뭇잎으로 옷을 해 입고 맨 발로 있는 자도 있고, 혹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기도 하며, 혹은 지팡이를 짚은 채 옆에서 있기도 하고, 혹은 턱을 고이고 앉아서 조는 자도 있어 모두가 수염이 아름답고 얼굴들이 고기(古奇)했다. 접시에 있던 복숭아 세 개가 갑자기 가지가 돋고 잎이 붙고 가지 끝에 꽃이 피니, 구슬관을 쓴 자가 복숭아 한 개를 따서 서로 베어 먹고, 그 씨를 땅에 심고 나서 또 다른 복숭아 한 개를 절반도 못 먹었는데 땅에 심은 복숭아나무는 벌써 몇 자를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 바둑 두던 자들이 갑자기 머리가 반백(斑白)이 되더니 이윽고 하얗게 세어 버렸다.

요술쟁이는 큰 유리 거울을 탁자 위에 놓고 시령을 만들어 세웠다. 이때 요술쟁이는 여러 사람들을 두루 불러서 거울을 열어 구경시키는데, 여러 층 누각과 몇 겹 전각이 아름다운 단청을 곱게 했는데, 관원 한 사람이 손에 파리채를 잡고 난간을 따라 서서히 걸어갔다. 아름다운 계집들이 서넛씩 짝을 지어 보검을 가지고 혹은 금병을 받들고, 혹은 봉생(鳳笙)을 불고 혹은 비단 공도 차며, 구름 같은 머리와 아름다운 귀고리가 묘하고 곱기 비할 바 없었다. 방 안에는 백 가지 물건과 수없는 보물들이 참으로 세상에서 부귀가 지극한 사람 같았다. 이때 여러 사람들은 부러움을 참지 못하여 서로 구경하기에 바빠서 이것이 거울인 줄도 잊어버리고 바로 뚫고 들어가려 했다. 이때에 요술쟁이는 구경꾼들을 꾸짖어 물리치고 즉시 거울 문을 닫아 더 오래 보지 못하도록 했다. 요술쟁이는 한가로이 걸어서 사방을 향하여 무슨 노래를 부르다가 또 거울 문을 열어 여러 사람을 불러 와 보라고 했다. 전각은 적막하고 누사(樓榭)는 황량한데 일월이 얼마나 지났는지 아름다운 계집들은

어디로 가고 한 사람이 침상 위에서 옆으로 누워 자는데, 옆에는 아무 물건도 없고 손으로 귀를 받치고 이마 밑으로 김 같은 것이 연기처럼 떠오르는데, 처음은 가볍고 끝은 둥그렇게 늘어진 젖통 같았다. 종규(鍾馗)¹⁰가 누이를 시집보내고 올빼미가 장가를 드는데, 버들 귀신이 앞을 서고 박쥐가 기를 들고 이마에서 나오는 김을 타고 올라가서 안개 속에서 논다. 잠자던 자는 기지개를 켜면서 깨려다가 또 잠이 드는데, 갑자기 두 다리가 두 수레바퀴로 바뀌면서 바뀌살이 아직 덜 되었는데, 이때 구경꾼들은 징그러워 하지 않는 자 없어 거울을 가리고 등을 돌리고 달아났다. 세계의 몽환(夢幻)이 본래 이와 같아서 오히려 거울 속의 염량(炎涼) 변천도 현저히 달랐다. 일체 인간의 가지가지 일들이 아침에 무성했다가 저녁에 시들고, 어제 부자가 오늘은 가난하고 잠깐 젊었다가 갑자기 늙는 것이 꿈속에 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슬쩍 죽었다가 바야흐로 살고,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으며, 무엇이 참이요 무엇이 거짓인지 모를 일이다. 세상에 착한 마음을 지닌 착한 사내와 보살(菩薩)의 형제들에게 말하노니, 헛 세상에 꿈 같은 몸과 거품 같은 금과 번개 같은 비단으로 큰 인연을 맺어서, 기운에 따라 잠시 머무를 뿐이니 원컨대, 이 거울을 표준삼아 덩다고 나아가지 말고, 차다고 물러서지 말며, 있는 돈을 흠어서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할지이다.

요술쟁이는 큰 동이 하나를 탁자 위에 놓고 수건으로 정하게 닦고 붉은 옷감으로 위를 덮으며, 장차 무슨 요술을 하려고 주선할 즈음에 품속에서 접시 하나가 쨍그렁하고 땅에 떨어지면서 붉은 대추가 흩어지니, 여러 사람들은 일제히 웃고 요술쟁이도 역시 웃었다. 그릇과 도구를 주워 담아 이내 놀음을 파하니, 이것은 재주가 없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날이 저물어 바로 파하려 했으므로 일부러 파탄(破綻)을 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본래 이것이 거짓인 것을 보여 준 것이다.

10 종규(鍾馗) : 당(唐) 오도자(吳道子)가 그린 귀신의 이름. 무과(武科)에 응시하여 불합격한 귀신이라 하였다.

환희기후지(幻戲記後識)¹¹

이날 홍려시 소경(鴻臚寺少卿)¹² 조광련(趙光連)과 의자를 나란히 하고 요술을 구경했는데, 나는 조경(趙卿)에게 말하기를,

“눈으로 시비를 분별 못하고 참과 거짓을 살피지 못한다면, 비록 눈이 없다고 한대도 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요술쟁이에게 속는 것은 눈이 일찍이 헛되게 보여 그런 것이 아니라 눈으로써 밝게 본다는 것이 도리어 탈입니다.”

하였더니, 조경은,

“비록 요술을 잘하는 자가 있더라도 소경에게는 눈속임을 할 수 없을 것이니 눈이란 과연 뜻뜻한 것일까요.”

한다. 나는,

“저의 나라에 서화담 선생(徐花潭先生)¹³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에서 우는 자를 만나 네 어찌 우느냐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내가 세 살에 소경이 되어 이제 40년이 되었는데, 전일에는 걸음을 걸을 때는 발을 의지해서 보고, 물건을 잡을 때는 손을 의지해서 보고 성음(聲音)을 들어 누구인지 분별하니 귀를 의지해서 보고, 냄새를 맡아 무슨 물건인지 살피니 코를 의지해서 보았습니다. 판 사람들은 두 눈만 가졌지만 나는 손과 발과 코와 귀가 모두 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한 하필이면 수족과 귀와 코뿐이겠습니까. 해가 이르고 늦은 것을 낮에 피로한 것으로 보고, 물건의 형용과 빛깔을 밤에 꿈으로 봅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고 일찍이 의심과 혼란이 없었는데, 이제 길을 걸어오다가 홀연히 두 눈이 막아지고 동자가 스스로 열려 천지가 넓고 크며, 산천이 요란하게 엉켰고, 만물이 눈을 가리고 모든 의심이 가슴을 막아서, 수족과 귀와 코는 착각을 일으키고 전도(顛倒)되어서 모두 뜻뜻한 것을 잃고 보니, 묘연(渺然)히 우리 집조차 잊어버려서 돌아갈 수가 없으므로 읊니

11 환희기후지(幻戲記後識)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에서는 ‘수설루본’을 좇아서 수록하였다.

12 홍려시 소경(鴻臚寺少卿) : 홍려시는 손님을 접대하는 관청. 소경은 차관(次官).

13 서화담 선생(徐花潭先生) : 조선 명종(明宗) 때의 학자 서경덕(徐敬德). 자는 가구(可久). 물질불변론(物質不變論)을 주장하였다.

다.’ 하더랍니다. 화담 선생은 말하기를, ‘네가 네 길잡이에게 물어보면 길잡이가 응당 스스로 알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그는 말하기를, ‘내 눈이 이미 밝았으니 길잡이에게 물으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니 선생은 말하기를, ‘도로 네 눈을 감으면 너가 서 있는 곳이 곧 네 집일 것이다.’ 했으니, 이로써 논한다면, 눈이란 그 밝은 것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오늘 요술을 구경하는 데도 요술쟁이가 눈속임을 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는 자가 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했더니 조정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연(飛燕 한(漢) 조 황후(趙皇后)의 별호)은 너무 파리고 옥환(玉環 당(唐) 양태진(楊太真)의 별호)은 너무 살찐다고 하는데, 무릇 ‘너무’라고 하는 말은 ‘지나치게 심하다’는 말로서 이미 그 살찌고 파리한 것을 의논하면서 경솔히 심하다는 말을 더 붙였은즉, 이것은 이미 절세(絕世)의佳人)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임금(한 성제(漢成帝)당 현종(唐玄宗))의 눈은 살찌고 파리한 데 흘렸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광명한 눈과 진정한 소견이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태백(太伯)이 몸에 먹으로 문양을 그리고 약을 캔 것은 효도로서 요술을 부린 것이요,¹⁴ 예양(豫讓)이 몸에 옷칠을 하고 솥을 먹은 것은 의리로써 요술을 부린 것이요,¹⁵ 기신(紀信 한 고조(漢高祖) 때의 장수)의 누렁 뚜껑에 털로 원편을 꾸민 수레는¹⁶ 충성으로써 요술을 부린 것이요, 패공(沛公 한(漢) 고조가 천자가 되기 전의 봉호)의 요술은 깃발로 부렸고(기신에게 주어 투항을 가장하게 함을 말함), 장량(張良)의 요술은 돌로 부렸으며,¹⁷ 전단(田單 전국 때 제(齊)의 장수)은 소로써,¹⁸

14 태백(太伯)……것이요 : 주(周)의 태백이 그 아버지의 뜻을 살피서 왕위를 아우에게 양보하고 머리를 깎고 몸에 무늬를 그려 형만(荊蠻)으로 피신하였음을 말한다.

15 예양(豫讓)……것이요 : 전국 때 사람, 그의 임금 지백(智伯)의 원수를 갚기 위하여 거짓 병어리가 되어서 조양자(趙襄子)를 죽이려 하였음을 말한다.

16 기신(紀信)……수레는 : 한 고조가 항적(項籍)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평복으로 도망치게 하고, 기신이 대신하여 누른빛 휘장을 씌운 천자가 타는 수레를 타고 항적의 진중에 들어가 항복을 가장했다가 잡혀 죽었음을 말한다.

17 장량(張良)……부렸으며 : 장량이 황석공(黃石公)이라는 이인으로부터 병서(兵書)를 얻었는데, 황석공은 장량에게 말하기를, “이 뒤에 나를 찾으려거든 이 산 밑에 누른 돌이 곧 나다.”라고 한 고사.

18 전단(田單)……소로써 : 전단이 오제 용문(龍文)을 입힌 소의 뿔에 불을 붙여 적진으로 몰아넣어 승전하였다.

초평(初平 미상)은 약으로써, 조고(趙高 진(秦)의 승상)는 사슴으로써,¹⁹ 황패(黃霸 한 선제(漢宣帝) 때의 승상)는 참새로써, 맹상군(孟嘗君)은 닭으로써 요술을 부렸고,²⁰ 치우(蚩尤 황제(黃帝) 때 제후의 하나)의 요술은 동두(銅頭)와 철액(鐵額)으로 부렸으며 (머리는 구리 이마는 쇠), 제갈량(諸葛亮)의 요술은 목우유마(木牛流馬)로 부렸고,²¹ 왕망(王莽)의 금등(金騰)에서 명을 청한 것은 요술이 되다가 만 것이요,²² 조조(曹操)가 동작대(銅雀臺)에서 향을 나눈 것은²³ 요술의 파탄이요, 안녹산(安祿山)의 적심(赤心)²⁴ 과 노기(盧杞 당 덕종(唐德宗) 때의 간신)의 남면(藍面) 얼굴이 귀신의 얼굴처럼 생김은 모두 요술의 졸한 것이었습니다. 예로부터 부인들이 더욱 요술을 잘 부려 포사(褒姒 주(周) 유왕(幽王)의 애희)의 봉화(烽火)²⁵와 여희(驪姬 진(晉) 헌공(獻公)의 애희)의 벌²⁶이 그러한 것이었으나, 성인(聖人)이 신성한 도으로써 교화를 베푸는 데도 역시 그런 것이 있으니, 나는 비록 뜰에 난 풀²⁷이 아침쟁이를 가리키고 소악(韶樂)을 듣고 봉황이 날아왔다(舜(舜)의 고사)는 것은 감히 의심 못한다 하더라도 황룡(黃龍)이 배를 등에 졌다(禹(禹)의 고사)는 것과 불

- 19 조고(趙高)……사슴으로써 : 조고가 권세를 독차지하여 반대자를 없애기 위한 시험으로, 사슴을 이세(二世) 호해(胡亥)에게 바치면서 말이라고 해도 아무도 반박하는 자 없었음을 말한다.
- 20 맹상군(孟嘗君)……부렸고 : 맹상군이 진(秦)에서 구금당하여 도망치는데, 함곡관(函谷關)에 닿았으나, 닭이 울기 전에는 문을 열지 못하므로 그 부하로 있는 자가 닭울음을 잘하여 관문을 열게 하였음을 말한다.
- 21 제갈량(諸葛亮)……부렸고 : 제갈량이 목우유마를 발명하여 산악 지대에 군량을 수송하였음을 말한다.
- 22 왕망(王莽)……것이요 : 왕망이, 주공(周公)이 금등에 글을 넣었던 옛 일을 본떠서 자기에게 황제의 위(位)를 전하라는 금등 문건을 꾸며서 나라를 빼앗았음을 말한다.
- 23 조조(曹操)……것은 : 조조가 위공(魏公)으로 있을 때 동작대를 짓고 죽을 때에 궁녀(宮女)들에게 향(香)을 나누어 주며, 사후라도 동작대에 와서 자기에게 제사하라 하였음을 말한다.
- 24 안녹산(安祿山)의 적심(赤心) : 안녹산이 특히 배가 부르매 당 현종이 농로 밭속에 무엇이 들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기를 언제나 붉은 정성이 들어 있다 하였음을 말한다.
- 25 포사(褒姒)의 봉화(烽火) : 포사의 성질이 잘 웃지를 않아 유왕은 포사를 웃기기 위하여 일없이 봉화를 들어, 제후들이 속아 군사를 몰고 모여들었다가 헛걸음함을 보고 비로소 웃었다.
- 26 여희(驪姬)의 벌 : 태자 신생(申生)을 미워하여 신생이 벌을 자기의 속옷에 일부러 집어 넣었다고 모함하여 신생을 죽제한 것을 말한다.
- 27 뜰에 난 풀 : 요(堯)의 대궐 뜰에 났던 풀로 아침하는 신하를 가리킨 지영초(指佞草).

은 까마귀가 집에 들어왔다는 것²⁸은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신성(神聖)한 자나 우범(愚凡)한 자는 누구나 한 가지 알지 못할 일이 있는데, 혹은 현대 딱지를 즐기는 자가 있고, 혹은 노새 울음소리를 즐기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비록 요술이라 해도 가할 것이요, 비록 천성이라 해도 또한 가할 것입니다. 요술의 술법은 비록 천변만화를 하더라도 죽히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천하에 가히 두려워할 만한 요술이 있으니, 그것은 크게 간사한 자가 충성스러운 체하는 것과 향원(鄉愿)²⁹이면서도 덕행이 있는 체하는 것일 겁니다.”

한다. 나는,

“호광(胡廣) 동한 말 여섯 임금을 역사한 신하) 같은 삼공(三公)은 중용(中庸)으로 요술을 하고 풍도(馮道)³⁰와 같이 오대(五代)를 정승 살이한 것은 명철(明哲)한 것으로 요술을 부렸으니, 웃음 속에 칼이 있는 것이 입 속으로 칼을 삼키는 것보다 더 혹독하지 않을까요.”

하고는 서로 크게 웃으면서 일어났다.

28 붉은……것 : 주 무왕(周武王)이 제후들과 동맹하고자 가는 길에 강을 건너니 붉은 까마귀가 날아들었다 한다.

29 향원(鄉愿) : 시골 사람으로 아무런 특색이 없이 겸손하고 삼가는 체하는 사람. 《논어》에 나오는 말.

30 풍도(馮道) : 오대가 혼란할 때 요령 있게 벼슬자리를 지켜 오대 사성(四姓)을 역산한 사람.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¹⁾

연경(燕京)으로부터 열하에 이르는 데는 창평(昌平)으로 돌면 서북쪽으로는 거용관(居庸關)으로 나오게 되고, 밀운(密雲)을 거치면 동북으로 고북구(古北口)로 나오게 된다. 고북구로부터 장성(長城)으로 돌아 동으로 산해관(山海關)에 이르기까지는 7백 리요, 서쪽으로 거용관에 이르는 2백 80리로서 거용관과 산해관의 중간에 있어 장성의 험요(險要)로서는 고북구 만한 곳이 없다. 몽고가 출입하는 데는 항상 그 인후가 되는데 겹으로 된 관문을 만들어 그 요새를 누르고 있다. 나벽(羅壁)²⁾의 지유(識遺)에 말하기를,

“연경 북쪽 8백 리 밖에는 거용관이 있고, 관의 동쪽 2백 리 밖에는 호북구(虎北口)가 있는데, 호북구가 곧 고북구이다.”

하였다. 당(唐)의 시초부터 이름을 고북구라 해서 중원 사람들은 장성 밖을 모두 구외(口外)라고 부르는데, 구외는 모두 당의 시절 해왕(奚王 오랑캐의 추장)의 근거지로 되어 있었다. 《금사(金史)》를 상고해 보면,

“그 나라 말로 유알령(留斡嶺)이 곧 고북구이다.”

했으니, 대개 장성을 둘러서 구(口)라고 일컫는 데가 백으로 헤아릴 수 있을 정도다. 산을 의지해서 성을 쌓았는데, 꿰어진 구렁과 깊은 시내를 입을 벌린 듯이 구멍이 뚫린 듯이 흐르는 물이 부딪쳐 뚫어지면 성을 쌓을 수 없어 정장(亭障)³⁾을 만들었다. 황명(皇明) 홍무(洪武) 시절에 수어(守禦) 천호(千戶)를 두어 오중관(五重關)을 지키게 했다. 나는 무령산(霧靈山)을 돌아 배로 광형하(廣磬河)를 건너 밤중에 고북구를 빠져 나가는데, 때는 밤이 이미 삼경(三更)이 되었다. 중관(重關)을 나와서 말을 장성 아래 세우고 그 높이를 헤아려 보니 10여 길이나 되었다. 필연(筆硯)을 끄집어내어 술을 부어 먹을 갈고 성을 어루만지면서 글을 쓰되,

“건륭 45년 경자 8월 7일 밤 삼경에 조선 박지원(朴趾源)이 이곳을 지나다.”

1 야출고북구기(夜出古北口記) : ‘다백운루본(多白雲樓本)’에는 도고북구하기(渡古北口河記)로 되어 있다.

2 나벽(羅壁) : 송의 학자. 자는 자창(子蒼).

3 정장(亭障) : 요새(要塞)같이 만들어 사람의 출입을 검열하는 곳.

하고는, 이내 크게 웃으면서,

“나는 서생(書生)으로서 머리가 희어서야 한 번 장성 밖을 나가는구나.”

했다.

옛적에 몽 장군(蒙將軍 몽염(蒙恬))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임조(臨洮)로부터 일어나서 요동에 이르기까지 성을 만여 리나 쌓는데, 그 중에는 지맥(地脈)을 끊지 않을 수 없었다.”

하였으니, 이제 그가 보니 그가 산을 헤치고 골짜기를 메운 것이 사실이었다. 슬프다. 여기는 옛날부터 백 번이나 싸운 전쟁터이다. 후당(後唐)의 장종(莊宗)이 유수광(劉守光)⁴을 잡자 별장(別將) 유광준(劉光濬)은 고북구에서 이겼고, 거란의 태종(太宗)이 산 남쪽을 취할 적에 먼저 고북구로 내려 왔다는 데가 곧 이곳이요, 여진(女眞)이 요(遼)를 멸망시킬 때 희운(希尹 여진의 장수)이 요의 군사를 크게 꺾었다는 곳이 바로 이곳이요, 또 연경을 취할 때 포현(蒲覓 여진의 장수)이 송의 군사를 패한 곳도 여기요, 원 문종(元文宗)이 즉위하자 당기세(唐其勢 여진의 장수)가 군사를 여기에 주둔했고, 산둔(撒敦 여진의 장수)이 상도(上都) 군사를 추격한 것도 여기였다. 독견첩목아(禿堅帖木兒)⁵가 쳐들어 올 때 원의 태자는 이 관으로 도망하여 흥송(興松)으로 달아났고, 명의 가정(嘉靖) 연간에는 암답(俺答 미상)이 경사(京師)를 침범할 때도 그 출입이 모두 이 관을 경유했다. 그 성 아래는 모두 날고 뛰고 치고 베틀 싸움터로서 지금은 사해가 군사를 쓰지 않지만 오히려 사방에 산이 둘러 싸이고 만학(萬壑)이 음삼(陰森)하였다. 때마침 달이 상현(上弦)이라 고개에 걸려 떨어지려 하는데, 그 빛이 싸늘하기가 갈아 세운 칼날 같았다. 조금 있다가 달이 더욱 고개 너머로 기울어지자 오히려 뾰족한 두 끝을 드러내어 줄지에 불빛처럼 붉게 변하면서 햇불 두 개가 산 위에 나오는 것 같았다. 북두(北斗)는 반남아 관 안에 꽃혀졌는데, 별레 소리는 사방에서 일어나고 긴 바람은 숙연(肅然)한데, 숲과 골짜기가 함께 운다. 그 짐승 같은 언덕과 귀신 같은 바위들은 창을 세우고 방패를 벌여 놓은 것 같고, 큰 물이 산 틈에서 쏟아져 흐르는 소리는 마치 군사

4 유수광(劉守光) : 후량(後梁)의 장수로서 뒤에 연(燕)의 황제라 자칭하였다.

5 독견첩목아(禿堅帖木兒) : 몽고 사람. 원실(元室)의 지예(支裔).

가 싸우는 소리나 말이 뛰고 북을 치는 소리와 같다. 하늘 밖에 학이 우는 소리가 대여섯 번 들리는데, 맑고 긴 것이 피리소리 같아 혹은 이것을 거위소리라 했다.

야출고북구기후지(夜出古北口記後識)⁶

우리나라 선비들은 생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을 때까지 강역(疆域)을 떠나지 못했으나, 근세의 선배로서 오직 김가재(金稼齋)⁷와 내 친구 홍담헌(洪湛軒)이 중원의 한 모퉁이를 밟았다. 전국(戰國) 시대 일곱 나라에서 연(燕)이 그 중의 하나인데 우공(禹貢)의 구주(九州) 《서경(書經)》의 편명(篇名)에는 기(冀)가 이 하나이다. 천하로써 본다면 가위 한 구석의 땅이지만 원과 명을 거쳐 지금의 청에 이르기까지 통일한 천자들의 도읍터로 되어 옛날의 장안(長安)이나 낙양(洛陽)과 같다. 소자유(蘇子由)⁸는 중국 선비지만 경사(京師)에 이르러 천자의 궁궐이 웅장함과 창륜(倉廩)·부고(府庫)와 성지(城池)·원유(苑囿)가 크고 넓은 것을 우러러 보고 나서 천하의 크고 화려한 것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거늘, 하물며 우리 동방 사람으로서야 한번 그 크고 화려한 것을 보았다면 그 다행으로 여김이 어떠했으리요. 지금 내가 이 걸음을 더욱 다행으로 생각한 것은 장성을 나와서 막북(漠北)에 이른 것은 선배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 그러나 깊은 밤에 노정(路程)을 따라 소경같이 행하고 꿈속같이 지나다 보니 그 산천의 형승(形勝)과 관방(關防)의 웅장하고 기이한 것을 두루 보지 못했다. 때는 가을 달이 비끼어 비치고, 관내(關內)의 양쪽 언덕은 벼랑으로 깎아 쏘았는데, 길이 그 가운데로 나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담(膽)이 작고 겁이 많아서 혹 낮에도 빈 방에 들어가거나 밤에 조그만 등불을 만나더라도 미상불 머리털이 움직이고 혈액이 뛰는 터인데, 금년 내 나이 44세건만 그 무서움을 타는 성질이 어릴 때나 같다. 이제 밤중에 홀로 만리장성 밑에 쏘는데, 달은 떨어

6 야출고북구기후지(夜出古北口記後識)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이에서는 '주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7 김가재(金稼齋) : 조선 문학가 김창업(金昌業). 가재는 그의 별호인 노가재(老稼齋)의 준말.

8 소자유(蘇子由) : 송의 문학가 소철(蘇轍). 자유는 그의 자.

지고 하수(河水)는 울며, 바람은 처량하고 반딧불이 날아서 만나는 모든 경계가 놀랍고 두려우며 기이하고 이상하였건만 홀연히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고 기흥(奇興)이 발발(勃發)하여 공산(公山)의 초병(草兵)⁹이나 북평(北平)의 호석(虎石)¹⁰도 나를 놀라게 하지 못하니, 이는 더욱이 다행으로 여기는 바이다. 한스러운 바는, 붓이 가늘고 먹이 말라 글자를 서까래만큼 크게 쓰지 못하고, 또 장성의 고사(故事)를 시로 쓰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날에 동리에서 다투어 병술로 위로하며, 또 열하의 행정(行程)을 물을 때에는, 이 기록을 내 보여서 머리를 모아 한 번 읽고 책상을 치면서 기이하다고 떠들어 보리라.

일야구도하기(一夜九渡河記)

하수는 두 산 틈에서 나와 돌과 부딪쳐 싸우며 그 놀란 파도와 성난 물머리와 우는 여울과 노한 물결과 슬픈 곡조와 원망하는 소리가 굽이쳐 돌면서, 우는 듯, 소리치는 듯, 바쁘게 호령하는 듯, 항상 장성을 깨뜨릴 형세가 있어, 전차(戰車) 만 승(萬乘)과 전기(戰騎) 만 대(萬隊)나 전포(戰砲) 만 가(萬架)와 전고(戰鼓) 만 좌(萬座)로서는 그 무너뜨리고 내뿜는 소리를 족히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모래 위에 큰 돌은 홀연(屹然)히 떨어져 섰고, 강 언덕에 버드나무는 어둡고 컴컴하여 물지킴과 하수 귀신이 다투어 나와서 사람을 놀리는 듯한데 좌우의 교리(蛟螭)가 붙들려고 애쓰는 듯싶었다. 혹은 말하기를,

“여기는 옛 전쟁터이므로 강물이 저같이 우는 거야.”

하지만 이는 그런 것이 아니니, 강물 소리는 듣기 여하에 달렸을 것이다. 산중의 내집 문 앞에는 큰 시내가 있어 매양 여름철이 되어 큰비가 한 번 지나가면, 시냇물이 갑자기 불어서 항상 거기(車騎)와 포고(砲鼓)의 소리를 듣게 되어 드디어 귀에 젖어 버렸다. 내가 일찍이 문을 닫고 누워서 소리 종류를 비교해 보니, 깊은 소

9 초병(草兵) : 팔공산(八公山)에 서 있는 풀까지도 군사로 보였다는 부견(符堅)의 고사.

10 호석(虎石) : 한(漢)의 이광(李廣)이 우북평(右北平)의 바위를 범으로 보고서 활을 쏘았다는 고

나무가 통소 소리를 내는 것은 듣는 이가 청아한 탓이요, 산이 찢어지고 언덕이 무너지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분노한 탓이요, 못 개구리가 다투어 우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교만한 탓이요, 대피리가 수없이 우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노한 탓이요, 천둥과 우레가 급한 듯한 것은 듣는 이가 놀란 탓이요, 찻물이 끓는 듯이 문무(文武)가 겹친 듯한 것은 듣는 이가 취미로운 탓이요, 거문고가 궁(宮)과 우(羽)에 맞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슬픈 탓이요, 종이 창에 바람이 우는 듯한 것은 듣는 이가 의심나는 탓이니, 모두 바르게 듣지 못하고 특히 흥중에 먹은 뜻을 가지고 귀에 들리는 대로 소리를 만든 것이다. 지금 나는 밤중에 한 강을 아홉 번 건넜다. 강은 새외(塞外)로부터 나와서 장성을 뚫고 유하(榆河)와 조하(潮河)·황화(黃花)·진천(鎭川) 등 모든 물과 합쳐 밀운성 밑을 거쳐 백하(白河)가 되었다. 나는 어제 두 번째 배로 백하를 건넜는데, 이것은 하류(下流)였다. 내가 아직 요동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 바야흐로 한 여름이라, 뜨거운 별 밑을 가노라니 홀연 큰 강이 앞에 당하는데 붉은 물결이 산같이 일어나 끝을 볼 수 없으니, 이것은 대개 천리 밖에서 폭우(暴雨)가 온 것이다. 물을 건널 때는 사람들이 모두 머리를 우러러 하늘을 보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머리를 들고 쳐다 보는 것은 하늘에 묵도(默禱)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물이 돌아 탕탕히 흐르는 것을 보면, 자기 몸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고, 눈은 강물과 함께 따라 내려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현기가 나면서 물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머리를 우러러 보는 것은 하늘에 비는 것이 아니라, 물을 피하여 보지 않으려 함이다. 또한 어느 겨를에 잠깐 동안의 목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랴. 그 위험함이 이와 같으니, 물소리도 듣지 못하고 모두 말하기를,

“요동 들은 평평하고 넓기 때문에 물소리가 크게 울지 않는 거야.”

하지만 이것은 물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요하(遼河)가 일찍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밤에 건너보지 않은 때문이니, 낮에는 눈으로 물을 볼 수 있으므로 눈이 오로지 위험한 데만 보느라고 도리어 눈이 있는 것을 걱정하는 판인데, 다시 들리는 소리가 있을 것인가. 지금 나는 밤중에 물을 건너는지라 눈으로는 위험한 것을 볼 수 없으니, 위험은 오로지 듣는 데만 있어 바야흐로 귀가 무서워하여 걱정을 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야 도(道)를 알았도다. 마음이 어두운 자는 귀와 눈이 누(累)가 되지 않고, 귀와 눈만을 믿는 자는 보고 듣는 것이 더욱 밝혀져서 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내 마부가 발을 말굽에 밟혀서 뒷차에 실리었으므로, 나는 드디어 혼자 고삐를 늦추어 강에 띄우고 무릎을 구부려 발을 모으고 안장 위에 앉았으니, 한 번 떨어지면 강이나 물로 땅을 삼고, 물로 옷을 삼으며, 물로 몸을 삼고, 물로 성정을 삼으니, 이제야 내 마음은 한 번 떨어질 것을 판단한 터이므로 내 귓속에 강물소리가 없어지고 무릇 아홉 번 건너는데도 걱정이 없어 의자 위에서 좌와(坐臥)하고 기거(起居)하는 것 같았다. 옛날 우(禹)는 강을 건너는데, 황룡(黃龍)이 배를 등으로 떠받치니 지극히 위험했으나 사생의 판단이 먼저 마음속에 밝고 보니, 용이거나 지렁이거나 크거나 작거나가 죽히 관제될 바 없었다. 소리와 빛은 외물(外物)이니 외물이 항상 이목에 누가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똑바로 보고 듣는 것을 잃게 하는 것이 이 같거늘, 하물며 인생이 세상을 지나는데 그 험하고 위태로운 것이 강물보다 심하고, 보고 듣는 것이 문득 병이 되는 것임에랴. 나는 또 우리 산중으로 돌아가 다시 앞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증험해 보고 몸 가지는데 교묘하고 스스로 총명한 것을 자신하는 자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만국진공기(萬國進貢記)¹¹

건륭(乾隆) 45년 경자에는 황제의 수(壽)가 일흔인데 남방으로부터 바로 북으로 열하까지 돌아 왔다. 가을 8월 13일은 곧 황제의 천추절(千秋節)이다. 특히 우리나라 사신을 불러 행재소(行在所)까지 와서 뜰에 참여하여 하례하도록 했다. 나는 사신을 따라 북으로 장성을 빠져 주야로 달렸다. 길에서 보니 사망으로부터 공헌(貢獻)하는 수레가 만 대는 될 것 같고, 또 사람은 지고, 약대에는 싣고, 가마에 태우고 가는데, 형세가 풍우와 같았으며 들것에 메고 가는 것은 물건 중에서 더욱 정하고 다치기 쉬운 것들이라 하였다. 수레마다 말이나 노새를 예닐곱 마리씩 끌리고,

11 만국진공기(萬國進貢記) : '다백운루본'에는 진공만차기(進貢萬車記)로 되었다.

가마는 흑 노새 네 마리에 끌려 위에는 누른빛 작은 깃발에 진공(進貢)이란 글자를 써서 쫓았다. 진공물들은 모두 거죽은 붉은 빛 탄자와 여러 빛 모직 옷감과 대 삿자리나 등자리로 썼는데, 모두 옥으로 만든 기물(器物)들이라 한다. 수레 하나가 길에 넘어져 바야흐로 고쳐 싣는데, 거죽을 싣 등자리가 조금 떨어진 틈으로 보니, 꺾은 누른 칠을 하여 작은 정자 한 칸만 했다. 가운데는 자유리 보일좌(紫琉璃普一座)라고 썼는데, 보(普) 자 아래와 일(一) 자 위에는 글자가 두서너 자 있어 보였으나 자리 끝이 덮여져서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유리 그릇의 크기가 이만큼 할 적에는 다른 여러 수레에 실은 짐을 이로써 미루어 알 수 있었다. 날이 이미 황혼이 되니 더욱 수레들이 길을 다투어 재촉해 달리는데, 햇불이 마주 비치고 방울 소리가 땅을 흔들며 채찍 소리가 별판을 울리는 가운데 범과 표범을 우리에게 집어 넣은 것이 10여 수레나 되는데, 우리에는 모두 창문이 있고 범 한 마리를 넣을 만큼 만들었다. 범들은 모두 쇠사슬로 목을 매어 눈은 누르고 독스러웠다. 바닥에 뒹굴고 있는 몸뚱이는 늑대같이 나지막하고 텅수룩한 털과 꼬리는 삽살개 같았다. 이 밖에 곰과 여우와 사슴 등속은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사슴 중에도 붉은 굴레를 씌워 말 몰듯 몰고 가는 것은 길들인 사슴이다. 악라사(鄂羅斯)라는 개는 높이가 거의 말만 하고, 온 몸의 뼈는 가늘고 털이 짧고 날씬한 것이 우뚝 서니 여윈 정강이는 학같이 보이고, 꼬리는 뱀같이 놀며, 허리와 배는 가느다랗고, 귀로부터 주둥이까지는 한 자나 되는데 이것이 모두 입이었다. 능히 범이나 표범도 죽인다고 한다. 훨씬 큰 닭이 있는데, 모양은 약대와 같고 높이는 서너너댓 자나 되고 발은 약대 발같이 되어 날개를 치면서 하루 3백 리는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름을 타계(駝雞)라 한다. 낮에 본 것은 모두 이런 종류로서 상하가 길 가기에 바빠서 무심코 지나가다가 날이 저물자, 마침 하인들 중에 표범 우는 것을 들은 자가 있어 드디어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범 실은 수레를 가 보고서야 비로소 하루에 수없는 수레를 지나 보낸 것이 비단 옥기(玉器)나 보물뿐이 아니라, 역시 사해 만국의 기금(奇禽)과 괴수(怪獸)도 많았던 것을 알았다. 연극 구경을 할 때에 지극히 작은 말 두 마리가 산호수(珊瑚樹)를 싣고 전각 속으로부터 똑똑히 나왔다. 말의 크기는 겨우 두 자에 몸빛은 황백색(黃白色)인데, 갈기머리는 땅에 솔솔 끌리

고 울음을 울고 뛰고 달리는 것이 준마(駿馬)의 체통을 갖추었다. 산호수의 가지는 엉성한 것이 말보다 컸다. 아침에 행재소 문 밖으로부터 혼자 걸어서 여관으로 돌아오다가 보니, 부인 하나가 태평차(太平車)를 타고 가는데 얼굴에는 분을 희게 바르고 수놓은 비단 옷을 입었으며, 차 옆에는 한 사람이 맨발로 채찍질을 하면서 차를 모는데 몹시 빨리 갔다. 머리털은 짧아 어깨를 덮었고, 머리털 끝은 모두 말려들어 양털처럼 되었는데, 금고리로 이마를 돌렸다. 얼굴은 붉고 살찌고 눈은 고양이처럼 둥근데, 수레를 따르면서 구경하는 자들이 복잡하고, 검은 먼지가 날려서 하늘을 덮었다. 처음에는 차를 모는 자의 모양이 이상하므로 미처 차 속에 있는 부인을 살펴 보지 못했는데, 다시 한 번 자세히 들여다 보니, 이는 부인이 아니라 사람 형상을 한 짐승 종류였다. 털손은 원숭이처럼 생겼고, 가진 물건은 접는 부채 같은데, 잠깐 보건대 얼굴은 아주 예쁜 것 같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 보니 노구(老嫗)와 같고 요괴스럽고 사납게 생겼으며 키는 겨우 두 자 남짓한데, 수레의 휘장을 걷어 올려서 좌우를 돌아보는 눈이 잠자리 눈같이 보였다. 대체로 이것은 남방에서 나는 것으로 능히 사람의 뜻을 안다고 하며 혹은 말하기를, “이것은 산도(山都 원숭이의 일종)이다.” 라고 한다.

만국진공기후지(萬國進貢記後識)¹²

내가 몽고 사람 박명(博明)에게 이것이 무슨 짐승이냐고 물었더니 박명은 말하기를,

“옛날에 장군 풍공(豐公) 승액(昇額)¹³을 따라서 옥문관(玉門關)을 나서서 돈황(燉

12 만국진공기후지(萬國進貢記後識)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이에서는 ‘주실루본’에 의하여 추록하였다.

13 승액(昇額) : 만주 사람. 풍신액(豐申額)인 듯하나 미상.

煌)으로부터 4천 리를 떨어진 골짜기에 가서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장막 속에 두었던 목갑(木匣)과 가죽 상자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같이 간 막려(幕侶)들이 차차 알아보니 잃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군중에서 말이 있기를, ‘이것은 야파(野婆)가 절도해 간 것이라 하므로 군사를 내어 야파를 포위했더니 모두 나무를 타는데, 나는 원숭이처럼 빨랐다.’고 합니다. 야파는 형세가 궁하매 슬피 울면서 즐거워 붙들리지 않고 모두 나무 가지에 목을 매어 죽으니 이래서 잃었던 물건을 모두 찾았는데, 상자나 목갑은 잠가 놓은 그대로 있었고 잠근 것을 열고 보니 속에 기물들도 역시 버리고 다친 것이 없었습니다. 상자 속에는 붉은 분과 목걸이와 머리꽂이 패물들을 많이 넣어 두었고, 아름다운 거울도 있었으며 또 침선(針線)과 가위와 자까지 있었는데, 야파는 대개 짐승으로서 여자를 본떠 치장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은 것이라 합니다.”

한다. 유황포(俞黃圃 유세기(俞世琦). 황포는 호)가 나에게 막북(漠北)의 기이한 구경을 묻기에 나는 타계(駝雞)를 말했더니, 황포는 하례해 말하기를, “이것은 먼 서쪽 지방에 사는 기이한 새로서 중국 사람들도 말만 들었을 뿐 그 형상을 보지 못했는데, 공(公)은 외국 사람으로서 능히 보았습니다.”

한다. 산도(山都)를 말했으나 이것은 보았다는 사람이 없었다. 내가 열하로부터 돌아올 때에 청하(淸河)에 이르러 거리에서 난장이 하나를 보았는데, 키는 겨우 두 자 남짓하고 배는 크기가 복만 하여 불쑥 내밀어서 그림에 있는 포대화상(布袋和尚)¹⁴ 같고, 입과 눈이 모두 낮게 붙었고 팔뚝과 다리도 없이 손과 발이 몸통이에 그대로 달렸고 담배를 물고 뽐내면서 걷는데, 손을 펴서 흔들면서 춤을 추었다. 사람을 보면 문득 크게 웃고 홀로 머리를 깎지 않고 뒤통수에 상투를 했으며 선도진(仙桃巾)을 걸쳤다. 무명 도포에 소매가 넓고 배를 통째 들어 내놓고 모양이 웅중(熊中)한 것이 말로 그 형용이 기괴함을 다할 수 없으니 조물주(造物主)는 가위 장난을 펴 좋아하는 모양이다. 내가 이것을 황포에게 이야기했더니, 황포와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그의 이름은 천생이물인(天生異物人)으로서 자라의 놀음을 하는 것인데, 지금 거

14 포대화상(布袋和尚) : 불교에서 말하는 일곱 복신(福神) 중의 하나.

리에서는 이런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다. 나의 평생에 괴이한 구경은 열하에 있을 때만 한 것이 없었으나 그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많고, 문자로써는 능히 형용할 수 없어서 모두 빼놓고 기록하지 못하니 가히 한스러운 일이다. 평계(平溪 연암서당(燕巖書堂) 앞 시내 이름)의 비 내리는 집에서 연암을 쓰다.

상기(象記)¹⁵

만일 괴상스럽고 잡스럽고 우습고 기이하며 거룩한 것을 구경하려면 먼저 선무문(宣武門) 안에 있는 상방(象房)에 가 봐야 할 것이다. 내가 북경에서 코끼리를 본 것이 열여섯 마리인데, 모두 쇠사슬로 발을 묶어서 움직이는 모양을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코끼리 두 마리를 열하 행궁(行宮) 서쪽에서 보았던 바 온 몸을 꿈틀거리면서 걸어 가는 것이 풍우(風雨)가 움직이는 듯 몹시 거창스러웠다. 내가 언젠가 동해(東海)에 나갔을 때 파도 위에 말처럼 우뚝우뚝 선 것이 수없이 많으며 집채같이 큰 것이 물고기인지 짐승인지 해돋기를 기다려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해가 돌기도 전에 그것들은 바닷속으로 숨어 버렸었다. 이번에 코끼리를 십보 밖에서 보았는데 그때 동해에서 보았던 것과 방불할 만큼 크게 생겼다. 몸뚱이는 소 같고 꼬리는 나귀와 같으며, 약대 무릎에, 범의 발톱에, 털은 짧고 잿빛이며 성질은 어질게 보이고, 소리는 처량하고 귀는 구름장같이 드리웠으며, 눈은 초생달 같고, 두 어금니는 크기가 두 아름은 되고, 길이는 한 장(丈) 남짓 되겠으며, 코는 어금니보다 길어서 구부리고 펴는 것이 자벌레 같고, 코의 부리는 굽벙이 같으며, 코끝은 누에 등 같은데, 물건을 끼우는 것이 족집게 같아서 두루루 말아 입에 집어 넣는다. 때로는 코를 입부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다시 코 있는 데를 따로 찾아보기도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코 생긴 모양이 이럴 줄이야 누가 뜻했으랴. 혹은 코

15 상기(象記) : ‘박영철본’에는 이 편이 희본명목기(戲本名目記) 밑에 있었으나, 이제 ‘수택본’을 따라 여기에 옮겼다.

끼리 다리가 다섯이라고도 하고, 혹은 눈이 쥐는 같다고 하는 것은 대개 코끼리를 볼 때는 코와 어금니 사이를 주목하는 까닭이니, 그 몸뚱이를 통틀어서 제일 작은 놈을 집어가지고 보면 이렇게 엉뚱한 추측이 생길 만하다. 대체로 코끼리는 눈이 몹시 가늘어서 간사한 사람이 아양을 부리는 눈 같으나 그의 어진 성품은 역시 이 눈에 있는 것이다. 강희 시대에 남해자(南海子)¹⁶에 사나운 범 두 마리가 있었는데, 길을 들일 수 없어서 황제가 노하여 범을 코끼리 우리로 몰아 넣게 했더니, 코끼리가 몹시 겁을 내어 코를 한 번 휘두르자 범 두 마리가 제 자리에서 넘어져 죽었다고 한다. 코끼리가 범을 죽이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범의 냄새를 싫어하여 코를 휘두른 것이 잘못 부딪혔던 것이다. 아아, 세간 사물(事物) 중에 털끝같이 작은 것이라도 하늘이 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다 명령해서 냈을까보냐. 하늘은 형체로 말한다면 천(天)이요, 성질로 말한다면 건(乾)이요, 주재(主宰)하는 이는 상제(上帝)요, 행동하는 것은 신(神)이라 하여 그 이름이 여러 가지요, 또 일컫는 명색이 너무 친밀하다. 허물이 없이 말하자면 이(理)와 기(氣)로서 화로와 풀무로 삼고, 성장과 품부를 조물(造物)이라 하여 하늘을 마치 재주 있는 공장이에 비유하여 망치·도끼·끌·칼 같은 것으로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역경(易經)》에 말하기를,

“하늘이 초매(草昧)¹⁷를 지은 것이다.”

하였는데, 초매란 것은 그 빛이 검고 그 형태는 안개가 낀 듯하여 마치 동이 틀 무렵 같아서 사람이나 물건을 똑바로 분간할 수 없다 하니,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늘이 캄캄하고 안개 낀 듯 자욱한 속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면 무엇일까. 땃돌에 밀을 갈 때에 작고 크거나 가늘고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지는 것이니 무릇 땃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 뿐인데, 가루가 가늘고 굵은 데야 무슨 마음을 먹었겠는가. 그런데 설자(說者)들은 말하기를,

“땃이 있는 놈에게는 이를 주지 않았다.”

하여 만물을 창조하는 데 무슨 결함이라도 있는 듯이 생각하나 이것은 잘못이다.

16 남해자(南海子) : 북경 숭문문(崇文門) 남쪽에 있는 동산.

17 초매(草昧) : 천지가 개벽되면서 만물이 혼돈한 현상.

감히 묻노니,

“이를 준 자는 누구일 것인가.”

한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주었지요.”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하늘이 이를 준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다면, 사람들은,

“하늘이 이것으로 먹이를 씹으라고 주었지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다시,

“이를 가지고 물건을 씹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사람들은,

“이는 하늘이 낸 이치입니다. 금수는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그 입을 땅에 구부려 먹을 것을 찾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학의 정강이가 높고 보니, 부득이 목이 길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래도 입이 땅에 닿지 않을까 하여 입부리를 길게 해준 것이요, 만일 닭의 다리가 학과 같았다면 할 수 없이 마당에서 굶어 죽었을 것이라오.”

하고 말하리라. 나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말·닭·개 같은 것에나 맞는 이치다. 하늘이 이를 준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무엇을 씹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면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주어서 입을 땅에 닿으려고 하면 이가 먼저 땅에 걸리니 물건을 씹는 데도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는가.”

혹은 말하기를,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리라. 그러나 나는 다시,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빙자하려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한 것만 못할 것이 아닌가.”

했더니, 이때에야 말하는 자는 자기의 주장을 우겨대지 못하고 수그러졌다. 이는 언제나 생각이 미친다는 것이 소·말·닭·개뿐이요, 용·봉·거북·기린 같은

짐승에게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까닭이다. 코끼리는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눕히니, 그 코는 천하에 상대가 없으나 쥐를 만나면 코를 가지고도 쓸모가 없어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섰다니, 이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섭다고 하면 아까 말한 소위 하늘이 낸 이치에 맞다고는 못할 것이다. 대체로 코끼리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인데도 그 이치에 있어 모를 것이 이 같거늘, 하물며 천하 사물이 코끼리보다도 만배나 복잡함이라. 그러므로 성인이 《역경》을 지을 때 코끼리 상(象) 자를 따서 지은 것도 이 코끼리 같은 형상을 보고 만물이 변화하는 이치를 연구하게 하려는 것이다.¹⁸

승귀선인행우기(乘龜仙人行雨記)

14일에 피서산장(避暑山莊)에 들어가서 바라다 보니 황제는 누런 휘장을 늘인 전각 속에 깊이 들어 앉았다. 뜰 밑 반열에는 사람도 드문데, 홀로 노인 하나가 상투에 선도건(仙桃巾)을 걸고 누른 장삼에 검고 모난 직령을 달아 입었는데, 모두 검은 선을 둘렀고, 허리에는 붉은 비단 띠를 띠며, 붉은 신을 신고, 반백(半白) 수염이 가슴을 지났으며, 지팡이 끝에는 금호로(金葫蘆)와 비단 축(軸)이 달렸고, 오른 손에는 파초선(芭蕉扇)을 쥐고, 큰 거북 위에 서서 두루 뜰을 도는데, 거북은 머리를 위로 젖히고 무지개처럼 물을 뿜는다. 거북은 검푸른 빛에 크기가 맏방석만 하고 처음에는 가는 비를 뿜어 전각의 처마와 기와를 적시고 물방울이 튀어서 안개처럼 자욱하다. 혹은 화분을 향하여 뿜기도 하고 혹은 가산(假山)을 향해서 뿌리기도 한다. 조금 있더니 비가 더욱 커져서 처마 물은 폭우처럼 쏟아져 햇빛이 비낀 전각 모퉁이는 수정 주렴을 드리운 듯하고, 전각 위의 누른 기와는 흘러내릴 듯이 물이 많다. 동산의 동쪽 나무 잎은 더욱 맑고 화려하며 물은 한 뜰에 가득하여 흠족하게 축인 뒤에 오른쪽 장막 속으로 들어갔다. 황문(黃門) 수십 명이 각각 대

18 《역경》……것이다 : 《역경》에 사상(四象)이 팔괘(八卦)를 낳고 팔괘가 육십사괘를 낳는다는 사물 변화의 이치를 말하였다.

비를 들고 마당에 물을 쓰는데, 거북의 배에 비록 물을 백 섬이나 간직하더라도 이 같이 뿌리지는 못했을 것이다. 또 사람이 입은 옷은 적시지 않았으니, 그 비를 오도록 하는 공로가 가위 귀신이라 하겠다. 만일 사해에 비를 바라는 것이 이렇게 한 뜰을 적시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일은 다 되었다 하리라.

만년춘등기(萬年春燈記)

황제가 동산 동쪽에 있는 별전(別殿)으로 옮겨 거둥하는데, 1천 관리들이 피서산장을 나와서 모두 말을 타고 궁장(宮牆)을 따라 5리나 가서 원문(苑門)으로 들어갔다. 좌우에는 부도(浮圖)가 있어 높이 예닐곱 길ियो, 불당과 패루(牌樓)가 몇 리를 뻗었으며 전각 앞에는 누른 장막이 하늘에 연했는데, 장막 앞에는 모두 흰 천막을 침침하게 둘러쳤고, 천백 개의 채색 등불이 걸려 있다. 앞에는 붉은 빛 궤문이 세 곳이나 섰는데, 높이가 모두 팔구 길은 되었다. 풍악을 아뢰고 잡희(雜戲)를 시작하자 해는 이미 저물었는데, 누른 빛 큰 궤짝을 붉은 궤문에 다니 갑자기 궤 밑으로부터 크기가 북만 한 등불 하나가 떨어지자 등불은 노끈에 이어져서 그 끝에서는 저절로 불이 붙어 탄다. 노끈을 따라 타 올라가서 궤짝 밑에 닿으니 궤짝 밑으로부터 또 한 개 둥근 등불이 매달리고 노끈에 붙은 불은 그 등불을 태워 땅에 떨어뜨린다. 궤짝 속으로부터 또 쇠로 만든 채롱 주렴이 드리워지는데 주렴 면에는 모두 전자(篆字)로 수(壽)·복(福) 글자를 썼고, 불은 글자에 붙어 새파란 불에 한 동안 타다가 수·복 자 불은 스스로 꺼져 땅에 떨어진다. 또 궤짝 속으로부터 연주등(聯珠燈) 백여 줄이 드리우는데, 한 줄에 4·50등씩 되었고 등불 속은 차례대로 저절로 타면서 일시에 환하게 밝았다. 또 1천여 명의 미모의 남자들이 있어 수염은 없고 비단 도포에 수놓은 비단 모자를 쓰고 각각 정(丁) 자 지팡이 양쪽 끝에 모두 조그만 붉은 등불을 달고, 나갔다 물러섰다 하여 군진(軍陣) 모양을 하더니 줄지에 삼좌(三座) 오산(龍山)¹⁹으로 변했다가 줄지에 변해서 누각(樓閣)이 되고, 줄지에

19 오산(龍山) : 자라 등 위에 쫓다는 삼신산(三神山)의 가장.

네모진 진형(陣形)으로 변한다. 이미 황혼이 되자 등불 빛은 더욱 밝아지더니 갑자기 만년춘(萬年春)이란 석자로 변했다가 또 갑자기 천하태평(天下太平)의 네 글자로 변하고 줄지에 변하여 두 마리 용이 되었는데, 비늘과 뿔과 발톱과 꼬리가 공중에서 꿈틀거린다. 경각(頃刻) 사이에 변환하고 이합(離合)하되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글자 획이 완연(宛然)한데, 다만 수천 명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이것은 잠시 동안의 놀음이지만 그 기율(紀律)의 엄한 것이 이와 같은데, 더욱이 이 법으로 군진에 임한다면 천하에 누가 감히 다칠 것이라. 그러나 덕에 있는 것이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거늘 하물며 놀음으로 천하에 뵈일 것이라.

매화포기(梅花砲記)

날이 이미 황혼이 되자 만포(萬砲)가 동산 안에서 나오는데,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 매화꽃이 사방으로 흩어져 마치 숯불을 부채질하면 불꽃이 튀어 흐르는 것 같았다. 거울을 들여다 보면서 웃음을 짓는 듯 바람을 맞이하여 춤을 추는 듯도 하려니와 마치 노포(魯褒)²⁰의 돈이 이지러진 듯 토끼 주둥이가 살아나지 못한 채(이지러진 달을 말함) 이어져서, 온갖 화병(花瓶)을 진열하고는 여사(女士)가 그 품위의 상하를 평정하는데, 화방(花房)에 드리운 술이 분명하고 봉오리에 찍힌 검은 점이 가느다란 듯이 된 것들이 모두 불꽃으로 화하여 난다. 조수(鳥獸)와 충어(蟲魚)의 족속이 날아가고 뛰놀고 하는 것이 모두 정상(情狀)을 갖추었는데, 새는 흑 날개를 벌리기도 하고, 입부리로 깃을 문지르기도 하며, 흑 발톱으로 눈깔을 비집기도 하고 흑 벌과 나비를 쫓기도 하여 흑 꽃과 과실을 쪼아 먹기도 한다. 짐승은 모두 뛰놀고 버티며 입을 벌리고 꼬리를 펴서 천태와 만상이 모두 꽃불로 펄펄 날아 가서 반공에 이르러서는 시름시름 꺼지곤 한다. 대포 소리는 더욱 커지고, 불빛은 더욱 밝아지면서 1백 신선과 1만 부처가 날아 올라가 혹은 뗏목을 타고, 혹은 연잎 배를 타며, 혹은 고래와 학을 타고, 혹은 호로병(葫蘆瓶)을 들고, 혹은 보검(寶劍)을 차

20 노포(魯褒) : 진(晉)의 학자. 자는 원도(元道). 전신론(錢神論)을 지었다.

며, 혹은 석장(錫杖)을 짚고, 혹은 맨발로 갈대를 밟기도 하며, 혹은 손으로 범의 이마를 어루만지면서 허공에 떠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없는데, 눈으로 다 볼 새가 없이 번득번득 눈이 어른거렸다. 정사(正使)가 말하기를,

“매화포(梅花砲)가 좌우로 벌여 있는 것은 그 통이 혹은 크고, 혹은 작아서 긴 놈은 서너 길이 되고, 짧은 놈은 서너 자가 되어 우리나라 삼혈총(三穴銃)같이 만들었고, 불꽃이 반공에서 가로 퍼지는 것이 우리나라 신기전(神機箭)과 같네그려.”

한다. 불이 다 꺼지기 전에 황제는 일어나 반선(班禪)을 돌아다 보고 잠깐 이야기를 하더니 가마를 타고 안으로 들어갔다. 때는 바야흐로 어두웠는데, 앞에서 인도하는 등불이 하나도 없었다. 대체로 여든한 가지 놀음에 매화포로써 끝을 맺는 바 이것을 구구대경회(九九大慶會)라고 불렀다.

납취조기(蠟嘴鳥記)

납취조(蠟嘴鳥)는 비둘기보다는 작고, 메추리보다는 큰데, 회색빛에 푸른 날개요, 큰 입부리가 납초와 같으므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다. 또 오동조(梧桐鳥)라고도 하는데, 능히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 무릇 가르치고 시키면 소리를 응해 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길들여 거리에서 놀리는 자가 골패 서른두 개를 그릇 속에 담고 손바닥으로 비벼서 섞어 놓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골패 한 개를 잡아서 무슨 골패인지 알고 난 연후에 그 골패를 새 놀리는 자에게 주면 새 놀리는 자는 여러 사람들에게 두루 보인 뒤에 다시 그릇 속에 넣고 손으로 바빠 흩어지도록 섞은 다음 새를 불러 그 골패를 가져 오라고 하면, 새는 즉시로 그릇 속에 들어가 입부리로 그 골패 쪽을 물고 날아 나와 나무 가름대 위에 올라 앉는데, 그것을 취해 보면 과연 알아 두었던 그 골패 쪽이었다. 또 오색기(五色旗)를 세워놓고 새로 하여금 아무 빛 깃대를 뽑아 오라고 하면 역시 대답을 하고, 그 깃대를 뽑아 사람에게 준다. 종이로 만든 겹 치마의 누른 집을 실은 수레를 코끼리에게 메우고, 새로 하여금 수레를 몰라 하면 새는 머리를 수그리고 코끼리 배 밑으로 들어가 입부리로

코끼리 두 다리 틈을 물고 이것을 민다. 무릇 멧돌을 갈고 말타고 활쏘고 범춤·사자춤을 추어 사람의 지휘에 따르는데, 하나도 착오가 없었다. 또 종으로 구중(九重) 함문(闔門)이 있는 조그만 전각을 만들고 새로 하여금 전각 속에 들어가 무슨 물건을 가져 오라 하면, 새는 즉시 날아 들어가 호령에 따라 물고 나와서 탁자 위에 벌여 놓는다. 비록 언어는 앵무(鸚鵡)만은 못하나 그 교묘한 꾀는 오히려 나은 것 같았다. 얼마 동안 부리고 나니 새는 열을 이기지 못하여 입을 버리고 혀를 빼물고 털과 깃이 땀에 젖었다. 매양 한 번 놀릴 때마다 희롱으로 깨 한 알씩을 먹이는데, 새 놀리는 자는 매양 자기 입에서 꺼내 주는 것이었다.

희본명목기(戲本名目記)

구여가송(九如歌頌) · 광피사표(光被四表) · 복록천장(福祿天長) · 선자효령(仙子效靈) · 해옥첨주(海屋添籌) · 서정화무(瑞呈花舞) · 만희천상(萬喜千祥) · 산령응서(山靈應瑞) · 나한도해(羅漢渡海) · 권농관(勸農官) · 담폭서향(蒼蘅舒香) · 헌야서(獻野瑞) · 연지헌서(蓮池獻瑞) · 수산공서(壽山拱瑞) · 팔일무우정(八佾舞虞庭) · 금전무선도(金殿舞仙桃) · 황건유극(皇建有極) · 오방정 인수(五方呈仁壽) · 함곡기우(函谷騎牛) · 사림가락사(士林歌樂社) · 팔순분의권(八旬焚義券) · 이제공당(以躋公堂) · 사해안란(四海安瀾) · 삼황헌세(三皇獻歲) · 진만년상(晉萬年觴) · 학무정서(鶴舞呈瑞) · 복조재중(復朝再中) · 화봉삼축(華封三祝) · 중역내조(重譯來朝) · 성세승유(盛歲崇儒) · 객소요(嘉客逍遙) · 성수면장(聖壽綿長) · 오악가상(五岳嘉祥) · 길성첨요(吉星添耀) · 후산공학(緱山控鶴) · 명선동(命仙童) · 수성기취(壽星既醉) · 낙도도(樂陶陶) · 인봉정상(麟鳳呈祥) · 활발발지(活潑潑地) · 봉호근해(蓬壺近海) · 복록병진(福祿并臻) · 보합대화(保合大和) · 구순이취현(九旬移翠巖) · 여서구가(黎庶謳歌) · 동자상요(童子祥謠) · 도서성칙(圖書聖則) · 여환전(如環轉) · 광한법곡(廣寒法曲) · 협화만방(協和萬邦) · 수자개복(受茲介福) · 신평사선(神風四扇) · 휴징첨무(休徵疊舞) · 회섬궁(會蟾宮) · 사화정서과(司花呈瑞菓) · 칠

요회(七曜會) · 오운룡(五雲籠) · 용각요첨(龍閣遙瞻) · 응월령(應月令) · 보감대광명(寶鑑大光明) · 무사삼천(武士三千) · 어가환음(漁家歡飲) · 홍교현대해(虹橋現大海) · 지용금련(池湧金蓮) · 법륜유구(法輪悠久) · 풍년천강(豐年天降) · 백세상수(百歲上壽) · 강설점년(降雪占年) · 서지헌서(西池獻瑞) · 옥녀헌분(玉女獻盆) · 요지향세계(瑤池香世界) · 황운부일(黃雲扶日) · 혼상수(欣上壽) · 조제경(朝帝京) · 대명년(待明年) · 도왕회(圖王會) · 문상성문(文象成文) · 태평유상(太平有象) · 두신기취(杜神既醉) · 만수무강(萬壽無疆).

8월 13일은 곧 황제의 만수절(萬壽節)이다. 이때 전 3일 후 3일에도 한가지로 연극 놀이를 했는데, 모든 관리들은 오경(五更)에 대궐로 들어가 황제에게 문후(問候)하고 묘시(卯時 오전 6시) 정각에 반열에 참여하여 연극을 구경하고 미시(未時 오후 2시) 정각에 파하고 나온다. 희본(戲本)은 모두 조신(朝臣)들이 황제에게 바친 시와 부(賦)와 가사(歌辭) 같은 것으로 연극을 만들어 하는 것이다. 따로 무대를 행궁(行宮) 동쪽 누각(樓閣)에 설치했는데, 처마 높이는 다섯 길이 넘는 기를 세울 만하고, 넓이는 수만 명이 들어설 만했다. 이 무대를 세웠다가 허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이 쉽게 된다. 무대의 좌우에는 나무로 가산(假山)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전각과 같고 이상한 나무 숲이 그 위에 얹혀 비단을 오려서 꽃을 만들고 술을 달아서 과실을 만들었다. 연극 한 막(幕)씩을 할 때마다 배우들이 무려 수백 명씩 나오는데, 모두 비단에 수놓은 옷을 입었고 연극이 바뀔 때마다 옷도 바꾸어 입는데, 모두 한족(漢族)들의 의관이다. 연극을 장치할 때는 잠시 비단 막으로 무대를 가리면 무대 위는 조용하여 인기척이 없고, 다만 신소리만 들리다가 조금 지나서 막이 열리면 무대에는 산이 생기고,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소나무가 서고 햇빛이 나는 듯이 되는데 이것은 소위 구여가송(九如歌頌)이다. 노래는 모두 우조(羽調)의 높은 음으로서 악률(樂律)이 높아 마치 하늘 위에서 나는 소리 같아 청탁(淸濁)과 서로 화(和)하는 음이 없었다. 악기는 모두 생황 · 저 · 피리 · 종 · 경쇠 · 거문고 · 비파 등의 소리로서 다만 북소리만 들리지 않고, 간간히 바다 소리가 들렸다. 삼시간에 산이 옮겨지고 바다가 없어지는데 한 가지도 복잡한 것이 없이 정연하였다. 황제와 요 · 순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본을 따지 않은 의관이 없이 제목에 따라 연

극을 했다. 왕양명(王陽明)²¹은 말하기를,

“소(韶)는 순의 한 편 연극이요, 무(武)는 무왕의 한 편 연극일진대 결(桀) · 주(紂) · 유(幽) · 여(厲) 같은 폭군들에게도 한 편씩의 희본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오늘 노는 연극은 곧 오랑캐의 한 편 희본일지도 모를 일이다. 내 이미 계절(季札 오(吳)의 명신)과 같은 지식이 없으니, 그들의 도덕과 정치를 무엇이라 논할 수 없으나 대체로 음악의 성품이 높고 외로움이 극도에 달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귀지 못할 것이요, 노래가 맑으면서도 너무 격하면 아랫사람이 숨을 곳이 없을 것인즉, 중국에 전래하던 선왕(先王)의 음악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겠다.

21 왕양명(王陽明) : 명의 학자 왕수인(王守仁). 양명은 호.

구외이문

반양(盤羊)

반양은 사슴의 몸에 가는 꼬리가 있으며 두 뿔이 구부러졌고, 또 등에는 겹친 무늬가 있었다. 밤이면 뿔을 나뭇가지에 걸고 자서 다른 짐승의 침범을 예방한다. 그 모양은 마치 노새처럼 생겼으며, 더운 날씨에 떼를 지어 다니므로 티끌과 이슬이 서로 엉기어 뿔 위에 풀이 나곤 한다. 혹은 그를 영양(羴羊)이라 하고, 또는 원양(羴羊)이라 부른다. 《설문(說文 한(漢) 허신(許慎) 저)》에,

“영양은 커다란 양(羊)에게 가는 뿔이 돋친 놈이다.”

하였고, 육전(陸佃 송(宋) 학자. 자는 농사(農師))의 비아(埤雅)에는,

“원양은 마치 오(吳)의 양과 같이 생겼으면서도 커다랗다.”

하였다. 이제 만수절(萬壽節)을 맞이하여 몽고에서 이를 황제께 드려서 반선(班禪)에게 공양한 것이다.

채요(彩鷄) · 호접(蝴蝶)

강희(康熙) 40년(1701년)에 황제가 구외(口外)에서 피서(避暑)할 제 날리달번두(喇里達番頭 번족(蕃族)의 이름) 사람이 채요(彩鷄 장끼같이 생긴 새매) 한 동주리와 파란 날개 호접(蝴蝶) 한 쌍을 바쳤는데, 채요는 범을 사로잡을 수 있으며, 호접은 새를 잘 잡았다. 이 기록은 왕이상(王貽上 왕사진(王士禛, 이상은 자)의 《향조필기(香祖筆記)》에 실려 있다.

고려주(高麗珠)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진주를 보배롭게 여겨서 고려주(高麗珠)라 부르고 있다. 빛이 희미기가 차거(磽礧)와 같으며, 이제 모자 챙 앞뒤에 한 알씩을 달아서 남북

을 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진주로서 무게가 8푼 이상이면 벌써 보물로 인정되었다. 황제가 가진 것은 7돈이나 되는 무게였는데, 이로써 악한 꿈을 누르는 보물로 삼았고, 황후(皇后)의 것은 6돈 4푼인데, 흰 가지처럼 생겼다. 건륭 30년(1765년)에 황후가 그 진주를 잃었을 제 회후(回后 회회(回回族) 출신의 황후)가 황후를 고자질하여 수사한 끝에 궁중 호위 군졸 집에서 나타났으므로 황후가 곧 폐출(廢黜)을 당하여 냉궁(冷宮)에 갇히었다. 귀주 안찰사(貴州按察使) 기풍액(奇豐額)이 모자 끝에 우리나라 진주를 달긴 하였으나 빛깔이 몹시 좋지 못하였다. 기(奇)는 말하기를,

“이 진주는 두께 육칠 리(六七釐)에 값이 마흔 냥이라오.”

하기에, 나는,

“이 진주, 토산(土產)이 아니어요. 혹시 홍합(紅蛤)을 먹다가 입 안에서 발견되는 데, 이를 육주(陸珠)라 하나 너무 가늘어서 보배로울 것 없고, 부녀들의 머리꽃이와 귀이개 따위에 꾸민 것은 대체로 왜산(倭產)이며 붉은 빛깔이 제법 보배롭더군요.”

하였더니, 기 안찰(奇按察)은,

“아니어요. 이진 조개 껍질을 둥글게 간 것이었고 진주는 아니라고. 귀국의 진주를 사랑함은 조개 기운이 없이 천연적으로 보배로운 빛깔이 나기 때문이지요.”

하고 웃는다. 이 말이 매우 이치에 맞는 것이기는 하나 나는 알지 못하겠다. 우리나라 진주가 어디에서 나며, 또 누가 캐어서 이처럼 세상에 널리 깔려 있게 되었는지.

승정상신(崇禎相臣)

승정제(崇禎帝)가 위에 오른 지 17년 사이에 상신(相臣)들의 임면(任免)이 모두 50명이다. 변방을 지키는 장수가 조금이라도 임금의 명령을 어긴다면 곧 그 머리를 잘라 구변(九邊)에 돌렸으니, 그때 군율(軍律)의 엄격함이 역대에 드물었으나 역시

승패(勝敗)와 존망(存亡)의 운수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고 말았다.

이상아(伊桑阿) · 서혁덕(舒赫德)

강희 때의 상업(相業) · 문장(文章) · 학문(學問)이 갖추어진 이를 논하면 모두 이상아(伊桑阿)를 추천하게 된다. 그는 만주 사람이었으며 강희 무진(1688년)에 예부상서(禮部尙書)로서 대배(大拜)하여 상위(相位)를 누린 지 열다섯 해 만에 죽으니, 나이는 여든여섯이요, 시호는 문단(文端)이다. 그는 예순세 살에 구양(歐陽 구양수(歐陽修))이 결휴(乞休)하던 예를 이끌어서 서른 번이나 소장을 올렸으나, 그 사의(辭意)가 갈수록 더욱 간절하였으므로 윤허(允許)를 얻었다. 그리고 근년에 이르러 상업(相業)의 상한 이로서는 서혁덕(舒赫德)이 으뜸인데, 서(舒)는 역시 만주 사람이었으며, 상부(相府)에 있는 지 40여 년 만인 지난해에 죽으니, 나이는 여든여덟이었으며, 남들은 그를 문로공(文潞公 송(宋)의 명신 문언박(文彦博). 노공은 봉호)에 비하였다.

왕진묘(王振墓)

지난해 곧 건륭 기해(1779년)에 왕진(王振)¹의 무덤을 서산(西山)에서 발견하여 그 관(棺)을 쪼개어 수죄(數罪)하면서 시신을 찢고, 그 파당들의 20여 무덤을 모두 파헤쳐 목을 잘랐었다. 《명사(明史)》를 상고하면,

“임금이 토목(土木 보(堡)의 이름)에 이르자 왕진의 수레와 짐바리가 천여 대나 되었다. 적병(敵兵)의 사면 추격을 입어 일시에 종관(從官)과 장병들이 모두 함몰되었다.”

하였으니, 왕진이 어찌 혼자서 빠졌으며, 또 당시에,

1 왕진(王振) : 명 영종(明英宗) 때 환관으로서 정권을 잡아 폭정을 행하였다.

“왕진의 한 집안을 다 베고 마순장(馬順長)을 때려 죽이고, 왕진의 조카 왕산(王山)까지 거리에서 시신을 찢었다.”

하였으니, 그 파당이 어찌 무덤이 있었으리. 그러나 천순제(天順帝 명(明) 명종. 천순은 연호)가 복위(復位)되자 왕진의 벼슬을 돌리고 사당을 세워 제사하였은즉, 그의 무덤이 남아 있었음도 괴이함은 아니리라.

조조수장(曹操水葬)

건륭 무진(1748년)에 황제가 장하(漳河)에서 고기잡이를 하는데, 헤엄치는 자가 별안간 허리가 끊어져 물 위에 떠오른다. 황제가 군졸 수만 명을 풀어 그 냇물 옆을 파서 물을 돌리고 살펴보니, 물 속에는 수많은 쇠뇌에 살이 메워져 있고 그 밑에는 무덤이 있었다. 드디어 발굴하여 한 관(棺)을 얻었는데, 은해(銀海)와 금부(金甌) 등의 부장품(副葬品)도 있거니와 황제의 면류관(冕旒冠)과 옷차림을 갖추었으니, 곧 조조(曹操)의 시신이었다. 황제가 친히 관묘(關廟) 소열(昭烈)의 소상(塑像) 앞에 나아가 그 시신을 꿇리고 목을 잘랐었다. 이는 비단천고 신인(神人)의 분통을 씻은 것뿐만이 아니라, 쾌히 70총(塚)²의 의안(疑案)을 깨쳤다.

위충현(魏忠賢)

승정(崇禎) 초년에 위충현(魏忠賢)을 봉양(鳳陽)에 귀양 보내고, 그 집을 적물(籍沒)시켰다. 충현이 군졸을 거느려 몸을 옹위하매 황제가 크게 노하여 명령을 내려서 충현을 체포하였다. 충현이 면치 못할 것을 짐작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그 시신을 하간(河間)에서 찢었으니 충현이 어찌 무덤이 있으리요. 강희 때 강남도 감

2 70총(塚)……깨쳤다 : 조조가 후세에 무덤이 파헤쳐질까 두려워하여 죽은 뒤 72개의 가짜 무덤을 만들게 하였다 한다.

찰어사(江南道監察御史) 장원(張瑗)이 소장을 올렸으되,
 “황제께옵서 지난해 남으로 거둥하실 제, 명령을 내려 악비(岳飛)의 무덤을 수축하
 시고, 또 우겸(于謙)의 비(碑)에 글을 쓰셨사오니, 이는 실로 두 신하의 충성이 일
 월(日月)을 꺾으며, 정의가 산하(山河)보다 장한 까닭으로 이를 표창하여 온 천
 하 사람에게 선전하심이 아니옵니까. 제가 칙명을 받들어 서성(西城)을 돌보고 앞
 으로 나아가 서산(西山)의 일대를 거쳐 향산(香山)벽운사(碧雲寺)에 이르렀답니다.
 절 뒤에 높은 집과 돌린 담장이 몇 리나 뿔이고, 성한 숲이 뻗었으며 단청이 어리
 었으니, 이는 곧 명(明)의 역신(逆臣) 위충현의 무덤이었습니다. 그 위에 우뚝한
 두 개의 높은 비(碑)가 나란히 섰는데, 두 비면(碑面)에는 ‘흠차총독 동창관기관사
 장석신사 내부공용고 상선감인무 사례감병필 총독남해자 제독보화등전 완오 위공
 충현지묘(欽差總督東廠官旗辦事堂惜薪司內府供用庫尙膳監印務司禮監秉筆總督南
 海子提督保和等殿完吾魏公忠賢之墓)’라 쓰여 있었사오니, 수도가 가까운 곳에 오
 히려 이런 더럽고 포악한 자취가 남아 있는즉 장차 어떻게 대악(大惡)을 징계하며,
 공법(公法)을 밝히겠사옵니까. 하물며 장차 칙명을 받들어 명사(明史)를 수찬(修
 纂)하게 되었사온즉, 무릇 명말(明末)의 화를 입은 충량(忠良)한 모든 신하를 위하
 여 전(傳)을 쓰지 않을 수 없겠사옵니다. 그렇다면 밝은 하늘 햇빛 아래 어찌 간신
 (奸臣)의 남은 패당이 대담하게도 하늘을 모르고 법을 무시한 일을 용서하겠나이
 까. 우리러 바라옵건대 폐하(陛下)께서 지방의 유사(有司)에게 칙명을 내리시어 그
 비를 엮고 무덤을 깎게 하옵소서. 책명을 내리시면 그 고을 관원들과 함께 그 일을
 치르겠습니다.”

하였다. 이것으로 따진다면 왕진(王振)도 의당 무덤이 있었으리라 생각되기에 이
 에 아울러 기록하여서, 이로써 명말(明末)에 법률 숭상이 몹시 엄격하였건만 기강
 (紀綱)이 이렇게 서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양귀비사(楊貴妃祠)

청(淸)이 나라를 세울 제 오로지 어진 사람을 표창하고 악한 자를 누르는 법전으로써 천하 민심을 가라앉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주(薊州) 반산(盤山)에 안녹산(安祿山)의 사당이 있음은 물론이요, 동탁(董卓 동한 때의 역신) · 조조(曹操) · 오원제(吳元濟 당(唐)의 역신) · 황소(黃巢)³ 따위까지도 가끔 사당이 있으니, 어찌 있는 곳에서 헐어 버리지 않았을까.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구외(口外) 길가에 양귀비(楊貴妃)의 사당이 있는데, 안녹산의 소상(塑像)도 있다 한다. 마부들이 들어가 보니 양귀비의 상은 요염(妖艷)하기가 마치 살아 있는 듯싶고, 안녹산의 상은 뚱뚱보에다 흰 배가 드러난 채 갇은 추태가 보이더라 한다. 이러한 음사(淫祠)를 헐어 버리지 않음은 이로써 뒷사람들을 경계함이 아닐까 싶었다.

초사(樵史)

이 《초사(樵史)》 한 권은 누가 지은 것인지 모르겠으나 명(明)의 황실(皇室)이 망한 연유를 기록하여 그 비분(悲憤)한 생각을 붙인 것이다. 그 중 객씨(客氏)⁴ 및 웅정필(熊廷弼 명(明)의 장수)을 죽인 일은 특히 이문(異聞)이 많았으며, 또 그 중에는 만력제(萬曆帝 명(明) 신종(神宗), 만력은 연호)가 조선(朝鮮)을 구원하다가 창고가 텅 비고, 인민이 유리되었으나 조정에 있는 신하들이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그 순간에 한 망령된 자가 시임(時任) 상신(相臣)에게 채광(采礦)하기를 헌책(獻策)하자, 그는 흔연히 받아들였으므로 인민이 더욱 크게 곤궁하고 모두 도적으로 변하여 나라가 망하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말에 애절한 곳이 많아서 정사(正使)와 함께 읽으니, 눈물이 저절로 떨어짐을 깨닫지 못하였다. 다만 갈 길이 바빠서 베끼지 못하였으며, 이는 금서(禁書)이기 때문에 다만 이 등본(謄本) 한

3 황소(黃巢) : 당 희종(唐僖宗) 때 농민을 대표하여 폭동을 일으킨 사람.

4 객씨(客氏) : 명 희종(明熹宗)의 유모(乳母)로서 위충현과 간통하여 악정을 함께 하였다.

책이 있을 뿐이라 한다.

주각해(麀角解)

오직 천자(天子)만이 한 나라의 예법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황제가 월령(月令)⁵을 고쳤으니 이를 보아서 증빙할 수 있으리라. 나의 연암초당(燕巖草堂)에 일찍이 푸른 사슴이 와서 앞 냇물을 마시는데, 머리는 마치 물레처럼 되었기에 가만 가만 가서 자세히 그 털과 뿔을 살펴보려는 차에 사슴이 크게 놀라 뛰어가 버려서 마침내 그 상세한 것은 알지 못하고 말았다. 이제 내 장성(長城) 밖을 나와 날마다 진공한 사슴 떼를 구경하였는데, 큰 놈은 노새처럼 생겼고, 작은 놈도 나귀처럼 되었을 따름이었다. 새문(塞門) 안에 돌아와 한 약포(藥舖)에 앉았을 제 사슴 뿔이 성기면서도 길이가 모두 네댓 자나 되는 것이 집안에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모두 녹용(鹿茸)이라 한다. 나는,

“이건 모두 미용(麋茸)이요, 녹용을 좀 보여 주시오.”

하였더니, 약포 주인은,

“미(麋)는 녹(鹿)의 큰 놈⁶이란 말을 들은 일은 없습니까. 녹의 큰 놈이 미라면 미의 작은 놈은 녹이 될 것인즉 그 뿔이 무엇이 다르겠어요.”

하며 깔깔댄다. 나는,

“하지(夏至)에 녹각(鹿角)이 빠지므로 《역경(易經)》에 있어서 구괘(姤卦) 《역경(易經)》에 나오는 64괘의 하나가 되는 동시에 일음(一陰)이 나므로 그것이 보음(補陰)의 제(劑)가 되고, 동지(冬至)엔 ‘미각(麋角)’이 빠지므로 역경에 있어서 복괘(復卦)가 되는 동시에 일양(一陽)이 나므로, 그것이 보양(補陽)의 제가 되는 법인즉 둘의 효과와 쓰임이 아주 다르다 하오.”

하였더니, 포주는,

5 월령(月令) : 《예기(禮記)》의 편명. 옛날 천자가 실시할 일을 열두 달에 배정한 일종의 연중행사표.

6 미(麋)……큰 놈 : 《맹자(孟子)》양혜왕 상(梁惠王上) 주(註)에 나오는 구절.

“선생은 아직 시헌서(時憲書 책력)를 보시지 못하셨나요. 벌써 월령(月令)이 고쳐 졌답니다. 황제께서 일찍이 미와 녹의 뿔에 대하여 의문을 품었으므로 온 천하에 명령을 내려 글자 중에서 녹(鹿) 변을 지닌 것으로서 뿔이 돋친 놈은 모두 사로잡 아다가 해자(海子 남해자(南海子), 동산 이름) 중에 길러서 따로 갈라 놓고 서로 흘 레하지 말게 하였더니, 하지(夏至)에 이르러 미(麋)나 녹(鹿)은 모두 같은 때에 뿔 이 빠지고, 동지(冬至)에 뿔이 빠지는 놈은 주(麀) 하나뿐이므로 곧 동짓달 월령 중의 미각해(麋角解)를 주각해(麀角解)라 하였답니다.”

한다. 이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관북(關北)에서 나는 녹용(鹿茸)이 반드시 녹용이라 할 수 없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녹용이 날이 갈수록 귀해지니, 어찌 이상 하지 않으랴. 나는 또,

“주(麀)라니, 그 모양이 어떠하오.”

하고 물었더니, 포주는,

“일찍이 보진 못했습니다만 혹은 말하기를, ‘앞은 녹(鹿)인데 뒷치레는 말이라’ 합 디다.”

한다. 대체로 월령을 고치더라도 천자의 위세(威勢)가 아니라면 온 천하 사람들의 마음을 복종시키는 어려운 일일 것이므로,

“오직 천자라야 예법을 고쳐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던 것이다.

하란록(荷蘭鹿)

그 포주(鋪主)가 또 말하기를,

“녹(鹿) 중에도 극도로 작은 놈이 있더군요.”

하며, 스스로 제 주먹을 보이면서,

“이에 불과하더군요. 일찍이 하란(荷蘭 화란(和蘭))에서 바쳐 온 녹(鹿) 한 쌍을 보 았습니다만 푸른 바탕에 흰 무늬가 놓였습니다다.”

한다.

사답(砵答)

나는 또 포주에게,

“귀포(貴舖) 중엔 희귀한 약료(藥料)가 갖추어져 있는지요.”

하고 물었더니, 포주가,

“초목(草木)과 금석(金石)을 논할 것 없이 이름을 지적하신다면 곧 올려 드리렵니다.”

한다. 나는,

“희귀한 진품(珍品)이 별안간 생각에 떠오르지 않는구려.”

하였더니, 포주가 동편 바람벽 밑 불게 칠한 궤짝을 가리키며,

“이 속에 사답(砵答) 하나가 있는데, 참 희귀해서 얻기 어려운 자료지요.”

한다. 나는,

“사답이란 무슨 물건이어요.”

하고 물었더니, 포주는 웃음을 짓고 일어나면서,

“구경하시는 것이야 관계하지 않겠죠.”

하고 궤를 열더니, 둥근 돌 하나를 끄집어낸다. 크기는 두어 되들이 바가지와 같고 모양은 흡사 거위알처럼 생겼다. 나는,

“이건 수마석(水磨石)이 아뇨. 무슨 희롱이요.”

하였더니, 포주는,

“어찌 감히 짐짓 오만 무례하오리까. 이진 타조의 알인데 이름지을 수 없는 괴상한 병을 치료할 수 있답니다.”

한다.

입정승(入定僧)

장성(長城) 밖 백운담(白雲塔)의 돌 감실 속에 요(遼) 때에 입정(入定)한 중이 있는데, 그는 육신(肉身)이 이제까지 허물어지지 않고, 약간 따사로우며 부드러운 윤기가 흐르나, 다만 눈을 감은 채 기식이 없을 뿐이다.

별단(別單)

북경(北京) 사람 하류(下流) 중에 글자를 아는 자가 매우 드물었다. 소위 필첩식(筆帖式) 서반(序班 칭(氍) 때의 하급 관리)에는 남방의 가난한 집 아들이 많았는데, 얼굴이 초라하고 야위어서 하나도 풍후한 자가 없었으며, 비록 봉급을 받기는 하나 극히 적어서 만리 객지에서 생계가 쓸쓸하고, 가난하고 군색한 기색이 얼굴에 나타났었다. 우리 사행이 갈 때면 서책이나 필목의 매대는 모두 서반패가 이를 주장하여 그 사이에서 장쾌(駟僧)의 노릇을 하여 그 남은 이문을 먹었다. 그리고 역관들이 그 사이의 비밀을 알려고 들면, 반드시 서반을 통해야 하므로 이들이 크게 거짓말을 퍼뜨리되, 일부러 신기하게 꾸며서 모두 괴괴망측하여 역관들의 남은 돈을 골려 먹는다. 시정(時政)을 물으면 아름다운 업적은 숨기고 나쁜 것들만을 꾸며서 천재(天災)와 시변(時變)과 인요(人妖)와 물괴(物怪) 따위에도 역대에 없던 일을 모았으며, 심지어 변세의 침략과 백성들의 원망에 이르기까지 한때 소란한 형상의 표현이 극도에 달하여, 마치 나라 망하는 재화가 조석에 박두한 듯이 장황하게 과장 기록하여 역관에게 주면, 역관은 이것을 사신에게 바친다. 서장관이 이를 정리하여, 듣고 본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실이라 하여 별단(정식이 아닌 별지의 예단(禮單))에 써서 임금께 아뢴다. 그 거짓이 이러하였으며 임금께 아뢰는 말씀이 얼마나 근엄한 일이기에, 어찌 함부로 돈만 허비하여 허황하고 맹랑한 말들을 사서 반명(反命)의 자료를 삼으랴. 사신이 자주 드나든 지 백 년이 되도록 겨우 이러하였을 뿐이었다. 가장 염려되는 일은 이 따위 문서가 불행히 유실된 채 저들에게 끼

쳐진다면 그 피해가 과연 어떠하겠는가. 이번 열하(熱河)에 오가는 일로 말한다면 모두 목격(目擊)한 일이어서 가장 사실적인 기록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먼저 보내 드린 장계(狀啓) 끝에 붙여 아뢴 한두 가지의 사건(事件)에는 시회(時諱)에 저촉될 만한 것이 없지 않은즉,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는 줄곧 걱정으로 날을 보내곤 하였다. 내 생각에는 저들의 정세에 대해서 허실(虛實)을 논할 것 없이, 장계 끝에 붙여 아뢰는 글은 모두 언서(諺書)로 써서 장계가 도착되는 대로 정원(政院)에서 다시 번역하여 올림이 좋을 듯싶다.

등즙교석(藤汁膠石)

왕삼빈(王三賓)의 말에 의하면,

“진(溍 운남성의 별칭) · 검(黔 귀주성의 별칭) 지방에 깨어진 돌을 붙이는 대나무가 있는데, ‘양도동(羊桃籐)’이라 하며 그 즙(汁)을 내어 돌을 붙여서 공중에 걸쳐 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비록 수십 길이라도 한 번 이어지면 끊어지지 않고, 마치 종이에 풀칠하고 널판에 아교칠한 것 같아서 검주(黔州) 사람들은 이를 ‘점석교(黏石膠)’라 부른다.”

한다. 그 말이 몹시 황당하긴 하나 우선 그대로 기록하여 다른 이의 참고로 삼으려 한다.

조라치(照羅赤)

번역된 몽고(蒙古) 말 중에 필자치(必闥赤)는 서생(書生)이요, 팔합식(八合識)은 사부(師傅)를 이름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삼청(三廳) 하인(下人)을 ‘조라치(照羅赤)’라 하니, 아마 고려(高麗) 때의 옛 말인 듯싶다. 그때는 외울(畏兀)의 말을 많이 배웠은즉, 조라치도 역시 몽고 말이리라.

원사천자명(元史天子名)

원사(元史)를 읽어보면 천자의 호와 이름부터 몹시 이상하여 늘 읽기 어려움이 딱 하였다. 구외(口外)에 원 나라 때 세운 황폐한 절 하나가 있어서 허리가 잘린 빗돌에 원 나라 모든 임금의 공덕을 빠짐없이 새겼는데, 성길사(成吉思)라 한 것은 태조(太祖)요, 와활태(窩闊台)는 태종(太宗)이요, 설선(薛禪)은 세조(世祖)요, 완택(完澤)은 성종(成宗)이요, 곡률(曲律)은 무종(武宗)이요, 보안독(普顏篤)은 인종(仁宗)이요, 격견(格堅)은 영종(英宗)이요, 홀도독(忽都篤)은 명종(明宗)이요, 역련진반(亦憐真班)은 중종(中宗)을 말함이다.

만어(蠻語)

만어(蠻語) 중에 애막리(愛莫離)는 중국말의 유숙연(有宿緣)이요, 낙물혼(落勿渾)은 중국말의 몰염치(沒廉恥)요, 예락하(曳落河)란 만주말의 장사(壯士)이다.

여음리(麗音離) · 동두등절(東頭登切)

역졸(驛卒)이나 구종군 따위가 배운 중국말은 그릇됨이 많았다. 그들의 말은 저희도 모르는 채 그대로 쓰고 있다. 냄새가 몹시 악한 것을 ‘고린내(高麗臭)’라 한다. 이는 고려 사람들이 목욕을 하지 않으므로 발에서 나는 땀내가 몹시 나쁜 까닭이다. 그리고 물건을 잃고는 ‘똥이(東夷)’라 한다. 이는 동이가 흠쳐 갔다는 말이다. 그러면 려(麗)의 음은 리(離)요, 동(東)은 ‘터우멍(頭登)’의 절음(切音)임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나쁜 냄새가 나면, “아이, 고린내.” 하고, 어떤 사람이 물건을 흠쳤다고 생각될 때에는,

“아무개가 ‘퉁이(東夷)’야.”

한다. 그리하여 ‘퉁이’는 곧 물건을 훔쳤다는 별명인 양 되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않으랴.

병오·을묘년 원조의 일식[丙午乙卯元朝日食]

황제가 등극하는 날에 향안(香案)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느님께 감사하였다. 그날 밤 꿈에 옥황(玉皇)께서 황제에게 백년 장수(長壽)를 점지한다 하였다. 황제는 다시금 향안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하느님께 감사드리기를,

“저는 오는 을묘년(1795년)에 이르러서 이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그러하오면 저의 통치하는 햇수가 황조(皇祖 강희 황제)보다 한 해가 적을 것이옵니다.”

하였다 한다. 올해에 함천감(欽天監 기상대(氣象臺)의 장(長)이 여쭙기를,

“이 뒤 6년 만인 병오년(1786년) 원조(元朝)에 일식(日蝕)이 있고, 또 10년 만인 을묘년 원조에도 역시 일식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므로, 황제는 계획을 변경하여,

“만일 을묘년에 선위(禪位)한다면 새 천자 원년(元年)에 마침내 일식을 맞이할테니, 원조의 조하(朝賀)는 그로 하여금 정지하게 될 것이다.”

한다. 이것은 송 고종(宋高宗)이 명색으로 선위를 선언하였으나, 그 실은 금 나라 사람과 맞서지 않으려는 의도에 다름없는 일이다. 황제는 또 그 뒤를 이어서,

“만일 을묘년을 지나면 짐이 통치하는 햇수가 황조보다 도리어 두 해가 많을 테니, 이는 미안한 일이다.”

했다 한다. 그러나 이는 극히 요망한 말이어서 반드시 황제의 말이 아니리라 생각된다. 예로부터 제왕(帝王)들이 등극한 지가 오래되면 사방에서 다투어 상서로운 물건을 바침은 물론이요, 모든 신하들이 뜻을 엿보아 경축을 꾸미자니 저절로 지나친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마는, 그렇다 해서 어찌 오늘 미리 미래에 일식할 것을

점쳐서 그 선위할 해를 앞당겼다 물렸다 할 수 있으리요. 이는 반드시 천하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한낱 옛 성인(聖人)의 꿈일을 빌려서 황제의 옳지 못한 점을 덮어 버리는 일이라.

육청(六廳)

열하태학(太學)의 대성문(大成門) 밖 동쪽 바람벽 속에 건륭(乾隆) 43년(1778년)에 내린 글을 모셔 놓았다. 그 글에 이르기를,

“수도 동북 4백 리에 열하가 있다. 그 지점은 고북구(古北口) 북녘에 있는데, 곧 우공(禹貢) 기주(冀州)의 변두리였으며, 하(夏) · 은(殷) · 주(周) 때의 유주(幽州) 지경이다. 진(秦) · 한(漢) 이후엔 판도(版圖)에 들지 않았고, 원위(元魏) 때엔 안주(安州) · 영주(營洲) 두 고을을 세웠고, 당(唐)에서는 영주도독부(營州都督府)를 두었으나, 불과 잠깐 기관(機關)을 내지(內地)에 두었을 뿐이요, 요(遼) · 금(金)과 원(元)에 이르러서는 시향(始鄕)이라 하였으나, 옛 땅은 곧 황폐하게 되었고, 명(明)에선 대녕(大寧)을 버려서 이역(異域)으로 보았었다. 앞서 승덕주(承德州)를 세웠으니, 이제 의당 이를 부(府)로 승격시켜 다시금 시설을 더하고, 그 나머지 육청(六廳)도 객랄하둔청(喀喇哈屯廳)은 난평현(灤平縣)으로, 사기(四旗)는 풍녕현(豐寧縣)으로 고치고, 팔구청(八溝廳)은 그 땅이 비교적 넓으므로 평천주(平泉州)를 만드고, 오란합달청(烏蘭哈達廳)은 적봉현(赤峰縣)으로, 탑자구청(塔子溝廳)은 건창현(建昌縣)으로, 삼좌탑청(三座塔廳)은 조양현(朝陽縣)으로 각기 고쳐서 아울러 승덕부(承德府)에 통할하게 하라.”

하였다.

삼학사가 성인하던 날[三學士成人之日]

미관첨사(彌串僉使) 장초(張超)의 일기(日記) 중에,

“오 학사(吳學士) 달계(達濟)와 윤 학사(尹學士) 집(集)이 정축년(1637년) 4월 19일에 피살되었다.”

하였으므로, 그 양가(兩家)가 일기를 빙거하여 19일에 제사를 올리었다. 정축은 곧 명(明)의 승정(崇禎) 10년이었으며, 두 학사가 살해를 당한 때는 청인(淸人)들이 심양(瀋陽)에 있을 때였다. 그리고 홍 학사(洪學士) 익한(翼漢)에 대한 일은 그 일기(日記) 중에 실리지 않았으니, 그 성인(成仁)한 날이 명확히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으므로 역시 두 학사와 같이 19일에 제사를 올리었다. 이제 청인이 엮은 청 태종 문황제(淸太宗文皇帝)의 사적 중에,

“승덕(崇德) 2년(1637년) 3월 갑진(甲辰)에 조선(朝鮮)의 신하 홍익한(洪翼漢) 등을 죽여서 두 나라의 맹세를 깨뜨리고, 군사를 일으켰으며 물의를 빚어내어 명 나라를 우단(右袒)한 죄를 밝혔다.”

하였으니, 승덕은 곧 청 태종의 연호(年號)였으며 3월 갑진은 일간(日干)을 따져 보면 초엿새에 해당되고, 그 중의 등(等)이란 글자가 있음을 보아서 오(吳) · 윤(尹) 두 학사의 죽음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3월 초엿새리라 생각된다.

당금의 명사[當今名士]

당세 해내(海內)의 명사(名士)로서는 양국치(梁國治) · 팽원서(彭元瑞)와 기균(紀勻)의 호 효람(曉嵐)과 오성흠(吳聖欽) 또는 대구형(戴衢亨) 및 그의 형 심형(心亨) 등은 모두 오(吳) 땅의 사람이었고, 축덕린(祝德麟) · 이조원(李調元) 등은 촉(蜀)의 면죽(綿竹) 사람이다. 내게 대심형이 쓴 주련(柱聯) 한 쌍이 있다. [‘개질군언수기아(開軼群言守其雅), 무금육기위지청(撫琴六氣爲之淸)’이다.]

고아마홍(古兒馬紅)

고아마홍이라는 자는 곧 의주(義州) 관노(官奴) 정명수(鄭命壽)이며, 강공렬(姜功烈)이라는 자는 원수 강홍립(姜弘立)의 이름이다. 그들은 모두 이름을 고치고 뒤에 귀화하였는데, 명수(命壽)는 가장 흉악하여 제 부모의 나라를 모욕함이 극도에 이르렀으므로, 필선(弼善) 정뇌경(鄭雷卿)이 분개를 이기지 못하고 명수를 찔러 죽이려 하던 나머지 그 원리(院吏) 강효원(姜孝元)과 의논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명수의 모든 간리(姦利)에 관한 일을 청인(淸人)에게 고발하게 하였으나, 그들은 도리어 글월 올린 자를 베고 정뇌경과 강효원도 사형에 처할 제, 명수로 하여금 형장을 감독하게 하여 극히 참혹하였다. 그 뒤 청인 역시 명수가 우리나라에 죄가 컸음을 깨닫고 참하였다. 강홍립은 광해군(光海君) 때에 도원수(都元帥)가 되어서 심하(深河) 싸움 뒤에 항복하였더니, 인조(仁祖)가 반정(反正)하자 그의 온 가족이 도륙되었다는 헛된 소문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도로 군사를 이끌고 평산(平山)까지 이르렀으므로, 조정에서는 할 수 없이 홍립의 가족을 군문 앞에 내세웠다. 그의 숙부 진(緝)이 홍립의 잘못을 꾸지람하매 홍립이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얼마 안 되어 청인도 역시 홍립의 거짓을 깨닫고, 강화(講和)한 뒤에 가버릴 제 홍립을 머무르게 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처리를 맡겼으나, 조정에서는 청인의 강함이 두려워 죽이지는 못하였다. 홍립이 그의 양화도(楊花渡)에 있는 강정(江亭)에 몸을 붙였으나, 나라 사람들을 볼 낯이 없어서 방안을 나가지 않고, 다만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만 밖으로 들렸다. 그 후 5,6년 뒤에 그 집 사람이 목매어 죽었다 한다.

동의보감(東醫寶鑑)

우리나라 서적(書籍)으로서 중국에서 간행된 것이 극히 드물었고, 다만 《동의보감(東醫寶鑑)》 25권이 성행(盛行)하였을 뿐이었는데 판본이 정묘하기 짝이 없었다. 우리나라의 의술이 널리 퍼지지 못하고, 토산 약품이 옳지 못하였으므로 선조 대

왕(宣祖大王)께서 태의(太醫) 허준(許浚)과 유의(儒醫) 정고옥(鄭古玉 고옥은 정작의 호) 작(碣)과 의관(醫官) 양예수(楊禮壽) · 김응택(金應澤) · 이명원(李命源) · 정예남(鄭禮男) 등에게 명령을 내려 국(局)을 차리고 이를 편찬할 제, 내부(內府)의 의방(醫方) 5백 권을 내어 고증의 자료로 삼아서 선조 병신(1596년)에 시작하여 광해군 3년 경술(1610년)에 이룩하였으니, 때는 곧 만력(萬曆) 38년이다. 그 간본(刊本) 서문(序文)의 문장이 제법 소창(疎暢)하였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 동의보감은 곧 옛 명(明) 때 조선 양평군(陽平君) 허준이 엮은 것이다. 상고하건대 조선 사람들은 애초부터 문자(文字)를 알며, 글 읽기를 좋아하였고, 허(許)는 또 그 중의 세족(世族)이어서 만력 때 봉(筭 조선 때의 문학가. 자는 미숙(美叔) · 성(箴 자는 공언(功彦) · 균(筠 자는 단보(端甫)) 등 형제 세 사람이 모두 문장으로 날렸으며, 그의 누이 동생 경빈(景嬪 허초희(許楚姬)의 자)의 재명(才名)이 더욱 그의 오빠들보다 뛰어났으니, 구변(九邊)의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걸출한 자였던 것이다. 그 ‘동의(東醫)’라는 말은 무엇일까. 그 나라가 동쪽에 있으므로 의원에서 동(東)이라 일컫는 것이었다. 옛날 이동원(李東垣 금(金)의 의학자 이고(李杲). 동원은 호)이 《십서(十書)》를 지었고, 북의(北醫)로서 강(江) · 절(漸)에 행세하였으며, 주단계(朱丹溪 원(元)의 의학자 주진형(朱震亨). 단계는 호)가 《심법(心法)》을 지었고, 남의(南醫)로서 관중(關中)에 나타났더니, 이제 양평군이 비록 궁벽한 외국에 태어났으나, 능히 아름다운 책을 지어서 중국에 유행되었으니, 대체로 말이란 족히 전할 것을 기약하는 것이지, 어떤 지역으로써 한계를 지을 것은 아니리라. 또 ‘보감(寶鑑)’이란 무엇을 이름일까. 햇빛이 새어나오고 잠든 안개가 풀리듯이 살을 나누며, 갈피를 쪼개어, 독자로 하여금 책장을 들추게 하면 요연히 거울처럼 광명함을 말함이었다. 옛날 나익지(羅益之 원(元)의 의학자 나천익(羅天益). 익지는 자)가 《위생보감(衛生寶鑑)》을 짓고, 공신(龔信 미상)이 《고금의감(古今醫鑑)》을 지었을 때 모두 ‘감(鑑)’이라 이름하였으나, 지나치게 과장하였다고 의심하지 않았었다. 적이 논하건대 사람에게는 오직 오장(五藏)이 있을 뿐이요, 병은 칠정(七情)⁷에 그치는 것이다. 그 사이 천품이 편벽되고, 온전하고, 점염(漸染)함이 얇고 깊은

7 칠정(七情) : 희(喜) · 노(怒) · 애(哀) · 구(懼) · 애(愛) · 오(惡) · 욕(欲).

과, 증세의 통하고 막힘에 차이가 있어서 양후(兩候 1후는 5일간) 간의 맥박이 움직이면 부(浮)·중(中)·침(沈) 등의 세 부(部)가 있으므로, 가만히 살펴보면 마치 저 발이랑처럼 한계가 있으니, 넘을 수도 없거니와 햇불처럼 밝아서 덮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황(大黃 한약의 일종)이 체한 것을 내려가게 하는 줄만 알고서 속을 식히는 것인 줄은 알지 못하며, 부자(附子)가 허함을 돕는 줄만 알고, 독을 끼친다는 것을 모른다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인(至人)은 병이 나기 전에 다스리고 이미 이룩된 뒤에 약을 쓰지 않는 법이니, 병이 난 뒤에 다스림은 가장 하책(下策)임에도 다시금 용렬한 의원에게 맡긴다면 어찌 낫기를 바라리요. 심지어 사리(私利)를 품은 자는 애초에 병 없는 사람을 다스려 공적을 남기려 하고, 처음 이에 종사한 자는 병자를 이용하여 공부하려 함이 일쑤인즉, 《역경(易經)》중의 ‘약을 쓰지 말라는 점사(占辭)나, 남쪽 사람은 항심(恒心)이 없다.’(《논어》에 나오는 구절)는 경계가 마치 이런 무리를 위하여 어떤 덮개를 떼버리는 듯싶었다. 옛날 편작(扁鵲 전국 때의 의학자)이 이르기를, ‘사람들은 병자가 많음을 걱정함에 비하여 의원은 병 보는 방도가 적음을 골치않는다.’ 하였으나, 현(軒 황제(黃帝)의 별칭. 현원(軒轅)·기(岐)⁸ 이후로 대대로 명의(名醫)가 있어서 이제 이르러서는 그 저술의 번다함이 거의 한우충동(汗牛充棟)할 만큼 적음을 걱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방문을 써서 맞고 안 맞는 것이 있으니, 어찌하여 옛 사람이 각기 본 바로 학설(學說)을 끼친 것이 아니겠는가. 대체로 선택하는 데 정밀하지 못한 자는 설명이 상세하지 못하고, 하나에 집착된 자는 옳은 길을 해치는 것이다. 이는 다름아니라 남의 병을 고치고자 하면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지 않았단든지, 또는 남의 마음을 고치고자 하면서 그의 뜻을 통하지 못한 까닭이리라 생각된다. 이제 이 책을 살펴 보면 첫째 내경(內景)⁹을 논하였음은 그 근원을 따름이요, 다음에 외형(外形)을 논한 것은 그 끝을 나눈이었고, 다음에 잡병(雜病)을 논한 것은 그 증세를 분간함이었고, 다음에 탕약과 뜸질로써 마친 것은 그 방법을 정함이였다. 그 중에서 인용한 책으로 말한다면, 《천원옥책(天元玉冊 저자 미상)》으로부

8 기(岐) : 황제의 신하 기백(岐伯). 황제와 함께 중국 의학계의 시조.

9 내경(內景) : 내과(內科) 계통. 원래에는 도가(道家)의 용어(用語).

터 《의방집략(醫方集略 저자 미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80여 종이나 되는데, 모두가 우리 중국의 책들이었고, 동국(東國)의 책은 불과 3종뿐이었다. 옛 사람이 이룩한 방법을 따르면서 능히 신통하게 밝혀낸 것이 있어서 우주(宇宙) 사이의 결함을 보충하고 4대(大 땅 · 물 · 불 · 바람)에 양기(陽氣)를 베풀었다. 이 책은 이미 황제에 올려서 국수(國手)임이 인정되었으나, 다만 여태까지 비각(秘閣)에 간직되어 세상 사람이 엿보기 어려웠다. 얼마 전에 차사(齎使 염운사(鹽運使)의 별칭) 산좌(山左) 왕공(王公 미상)이 월(粵 광둥 · 광서 · 운남 · 귀주의 총칭)을 맡았을 제, 시속의 의원이 그릇됨이 많음을 딱하게 여겨 사람을 수도에 보내어 이를 베꼈으나, 미처 간행하지 못한 채 곧 그곳을 떠나 버리고, 순덕(順德)에 살고 있는 명경(明經)¹⁰좌군(左君)한문(翰文)은 나의 총각 때부터의 친구였는데, 개연(慨然)히 이를 간행하여 널리 전하기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3백 민(緡)이 넘는 돈을 소비하였으나 조금도 아끼는 빛이 없었다. 대체로 그 마음은 병든 생명을 건지고 물건을 이롭게 할 마음이었고, 그 일인즉 음양(陰陽)을 조화하는 일인 동시에 천하의 보배는 의당 천하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니, 좌군의 어진 마음이 크도다. 판각이 끝난 뒤에 나에게 서(序)를 부탁하므로 드디어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머리에 쓴다. 건륭(乾隆) 31년 병술(1766년) 난추(蘭秋 7월의 별칭) 상완(上浣 상순)에 원임 호남소양예릉흥녕계양현사 충경오임신계유병자사과 호광향시동고관(原任湖南邵陽禮陵興寧桂陽縣事充庚午壬申癸酉丙子四科湖廣鄉試同考官)번우(番禺 지명)능어(凌魚 청(淸)의 학자. 자는 서파(西波))는 쓰노라.”

하였다. 내 집에는 좋은 의서가 없어서 매양 병이 나면 사망 이웃에 돌아다니며 빌려 보았더니, 이제 이 책을 보고서 몹시 사 갖고자 하였으나, 은 닷 냥을 낼 길이 없어서 섭섭함을 이기지 못한 채 돌아올 제, 다만 능어가 쓴 서문(序文)만을 베껴서 뒷날의 참고에 자(資)하려 한다.

10 명경(明經) : 국가 고시에 경서(經書)로써 합격한 자. 청(淸)에서는 공생(貢生)을 명경이라 하였다.

심의(深衣)

우리나라의 심의(深衣)는 반드시 삼베로 만들고 무명으로 하지 않으니 이는 그릇 된 일이다. 삼으로 짠 것은 의당 마포(麻布)라 하여야 하며, 모시로 짰다면 저포(苧布)요, 무명으로 짰다면 면포(綿布)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방언(方言)에 포(布)를 베(保)〔보외(補外)의 번역이다.〕라 하므로 포(布) 자를 보포(保布)라고 읽는다. 다만 삼만을 짜는 이를 오로지 베라 한다. 그리하여 마포(麻布) 저자는 베전(蓍布)요, 저포(苧布) 저자는 모시전이라 부르나, 다만 면포(綿布)에 대해서 구별 지을 것이 없었다. 방언에 면화(綿花)를 목화(木花)라 하므로 무명베를 목(木)이라 하나, 그들은 면포가 곧 대포(大布)임을 알지 못하므로 면포를 대포라 부르지 않고도 그 저자를 백목전(白木麤)이라 하였으며, 심지어 두 가지의 세금(稅金)을 대포에 부과하면서 전세목(田稅木)·대동목(大同木)이라 하고, 대포는 곧 이와 별개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전세목이니 대동목이니 하는 이름이 관가의 문부(文簿)에까지 올려져 온 나라가 쓰고 있었다. 어찌서 대포라 부르느냐 하면, 옛날 순수하게 흰 옷에는 포백(布帛)의 무늬가 알맞는다 하였으니 무명은 모든 직물(織物)에서의 바탕인 동시에 오채(五采)의 찬란한 빛을 꾸미기는 어려우나, 그 바탕이 검소하고 빛이 순수하여 무늬 아닌 무늬가 있으므로,

“대포(大布)의 옷(《좌전(左傳)》에 나오는 구절).”

이라는 말이 곧 이를 이름이었고, 또,

“완전하고도 아무런 허비가 없음이 선의(善衣)의 감이다(출처 미상).”

하였으니, 완전하고도 허비가 없다는 말은 무명베를 이름이었고, 대포의 옷이란 곧 심의(深衣)를 이름이다. 중국의 삼승(三升) 베는 양털에다 무명을 섞어 함께 베를 짠 것이었는데, 우리나라 장사치들이 삼승을 도매로 떼어다 파는 곳을 유독 ‘청포전(靑布廛)’이라 하고, 아울러 대포를 팔면서 그를 ‘큰 베(大保)’라 하고, 또는 ‘문삼승(門三升)’이라 하여 값을 배로 받았으나, 백목전에서 이를 알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의 이름과 실지를 규명하지 못한 까닭이었다. 중국의 상복(喪服)은 모두 면포로 한다. 이번에 길에서 만났던 상복을 입은 사람들은 마포 옷이란 하나도 볼 수

없었고, 두건도 역시 면포로 하였다. 때가 바로 한여름 철이라 땀과 기름이 흠뻑 젖어서 두건이 저절로 꺾여졌다. 내가 입고 있는 면포 겹옷을 중국 사람들은 뒤적거려 보고는 올 짜인 것이 매우 정밀함을 진지하게 여겨, 감으로 사기를 요구하는 이가 많았다. 나는,

“중국엔 어쩌서 가는 베가 없는가요.”

하고 물었더니, 그들은 모두 탄식하면서,

“중국은 대체로 여러 가지의 비단을 입어서 대포(大布)로 옷을 지어 입기를 부끄러워하고 보니, 옛날 성인이 만든 원대하고도 경제적인 제도를 버려 두고 연구도 않은 지가 오래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포대나 전대를 만들 때는 베를 짜기는 하나, 굵고 거칠어서 이것으로는 선의(善衣)의 감이 될 수 없습니다.”

한다. 나는,

“선의란 어떤 옷인지요.”

하였더니, 그는,

“선의란 좋은 옷입니다.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다들 상품품 좋은 옷 한 벌씩은 가지고 있어 무늬로써 귀천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심의란 것은 귀천이나 남녀의 구별이 없고, 길흉의 구별도 없이 꼭 같은 복장입니다. 이를 대포로써 만드는 것은 그 검소함을 표시하는 것이니, 이것이 어찌 좋은 옷감이 아니겠습니까.”

한다. 우리나라 유가(儒家)에서는 더욱이 심의를 중난히 여겨 그림을 그린다, 말로 설명을 한다 하여 서로 부산하게 다투기도 한다. 소매와 깃 따위를 두고 내가 옳다거니, 네가 그르다거니, 한 치 한 푼을 서로 고집하고 있지마는 면포와 마포 중에서 무엇이 심의의 옷감인지도 모르니, 어찌 우스운 일이 아닐까보나.

나약국서(羅約國書)

“건륭(乾隆) 44년(1779년) 12월에 나약국(羅約國) 가달(假)은 황제 폐하(陛下)께 글을 올립니다. 신(臣)이 듣자오니 삼황(三皇)이 처음 나오고 오제(五帝)가 뒤

를 이어 하늘을 대신하여 역조 창생 위에 군림할 제 하필, ‘중국에만 임금이 있으라.’ 하고, ‘오랑캐에게는 임금이 없으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은 넓고 커서 한 사람이 혼자 주재할 바 못 될 것이요, 우주는 광대하여 한 사람의 독차지 할 바가 못 됩니다. 천하는 곧 천하 인민의 천하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닐 것입니다. 신은 나약 지방에 있어 도시들이란 불과 몇 백 리요, 강토는 3천 리를 넘지 못합니다마는 언제나 이를 만족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하로 말하자면 중원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만승의 주인이 되어 도성들이 몇 천 리요, 강토가 몇 만 리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족하다는 욕심을 가지고 매양 남의 강토를 병탄할 뜻을 가지니, 하늘이 살기(殺氣)를 내면, 귀신이 울부짖는 법이요, 땅이 살기를 내면 용과 범이 달아나 숨는 법이요, 사람이 살기를 내면 천지가 뒤집혀지는 법입니다. 요(堯)와 순(舜)은 도덕이 있으며 온 세상이 조공을 바쳤고, 우(禹)와 탕(湯)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니, 만국이 손을 잡고 섬기게 되었다 합니다. 또 진 시황(秦始皇)은 자주 흉노(匈奴)를 정벌하다가 그의 몸통이가 썩은 고기가 되었고, 거란은 중원 땅을 한 번 유린하다가 몸이 소금에 절인 제파(帝狔)¹¹가 되고 말았다 합니다. 덕은 쌓은즉 저와 같고, 악의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길흉과 화복은 뿌리와 가지가 서로 맞닿는 것과 같고, 그 믿음직함은 춘·하·추·동이 제때에 닥침과 같고, 그 힘은 뇌성벽력과 같으니, 어찌 조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이치에 순응하는 자라 해서 반드시 생명을 보존하지 못하였으며, 역행하는 자라 해서 반드시 멸망을 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의 이치가 상도에 벗어남이요, 천도가 뒤틀려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이 홀로 무슨 마음으로 순천부(順天府 북경의 별칭)를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을 것입니까. 비록 폐하가 친히 육사(六師 친위군(親衛軍))의 정예를 인솔하고 초원과 사막 지대에 왕래하다가 우리를 하란산(賀蘭山 감숙성에 있다) 기슭에서 행여 만난다 하더라도, 채찍을 들고 서로 문안을 하고, 말 위에서 천하를 의논할 것입니다. 이때에는 바로 구름 사막 만리 길에 범과 용이 자웅을 겨루게 될 것입니다. 대체로 전쟁이란 두 편이 다 이기

11 제파(帝狔) : 요(遼)의 임금 아율덕광(耶律德光)이 죽었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시체의 배에 소금을 잔뜩 넣은 뒤 본국으로 가져갔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를 제파라 불렀다.

는 법이 있을 수 없고, 복이란 쌍방에 한꺼번에 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대를 해산하고 전쟁을 중지하여, 생명들의 질고를 풀고 군사들의 가난을 늦추어 줌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마땅히 해마다 조공을 바쳐서 대대로 신하라 일컬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약국에도 문학으로는 공자(孔子)와 맹자(孟子) 같은 성현의 경술(經術)이 있고, 무략으로는姜太公 명망(命望). 태공은 시호)과 손자(孫子 손무(孫武)) 같은 이의 《육도(六韜 여망 저)》·《삼략(三略 황석공이 지은 병서(兵書))》이 있는 이상 어찌 중국에 머리를 숙여 많은 양보를 하여야겠습니까. 원하옵건대 폐하께서는 익히 살펴주옵소서. 이에 대신 다리마(多里馬)를 보내어 폐하께서 계신 대궐에 배알하여 삼가 충심을 보이옵는 바,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덮고 감격한 눈물은 땅에 사무치옵니다.”

조 역관(趙譯官) 달동(達東)이 별단(別單)을 꾸미려다가 이 글을 서반(序班)으로부터 얻어 밤에 나에게 보였다. 서장관(書狀官) 역시 와서 이르기를,

“아까 나약국서를 보셨는지요. 세상일이 크게 야단났습니다.”

한다. 나는,

“세상일이란 원래 그런 것이요. 그러나 세상에는 애초에 나약국이란 없는 것인가 하오. 내가 20년 전에 일찍이 별단 중에서 이 같은 문서를 보았는데, 역시 황극달자(黃極獐子)는 부질없이 쓴다고 했습니다. 선배들과 함께 둘러앉아 한 번 읽은 뒤 매우 북방을 우려한 적이 있었죠. 더러는, 청(淸)의 정권을 대신할 자는 ‘황극’이라고 말하는 이도 없지 않았죠. 이제 이 글을 본즉, 가감 없이 그것과 비슷하오. 서반배들이라는 게 모두 강남(江南) 빈민들의 자식으로서 객지에서 몸 붙일 곳이 없어 이 따위의 터무니없는 소리를 날조하여 우리 역관들에게 공비(公費) 돈을 받고 속여 파는 것이요. 별단에는 비록 보고 들은 사건을 실게 하긴 하지만 대체로 모두 길목에서 들은 이야기들이었으니, 어째서 이 신빙할 수 없는 허탄한 소리를 사행 때마다 돈을 주고 사서는 막중한 어전에 여쭙는 자료로 삼는단 말이요. 내 의견으로는 별단 중에 적당하게 짐작하여 취사를 함이 좋겠어요.”

하였더니, 서장관 역시 꼭 그러하여야 할 것을 깊이 납득하였다. 그러나 조 역관은 이에 대하여 펍 변명하려고 애쓰는 모양이기에, 나는 그에게,

“그대는 나이 젊어 사리를 잘 모르네. 우리나라 사대부(士大夫)들은 건성으로 춘추(春秋)만 떠들어서 왕(王)을 높이며 오랑캐를 물리치려는 공담(空談)을 해 온 지 1백여 년에 중국 인사들인들 어찌 이런 마음이 없을 것인가. 그러므로 연갱요(年羹堯) · 사사정(查嗣庭) · 증정(曾靜) 같은 따위들이 상서스러운 일을 보고는 재앙이라 하고, 좋은 정치 실적을 악정이라고 무함하여 온 세상을 선동하고, 문자로 베껴 전파시켜 마치 위급한 형세가 조석에 박두한 듯이 한 것이지. 그리하면 우리 역관들은 허탄한 소리에 속아 넘어가 저절로 바보 놀음을 하네. 그리고 삼사(三使)는 오랫동안 깊은 여관 속에 앉아 소일할 끼리가 없어서 울적할 즈음에, 걸핏하면 자녀들을 불러 새로운 소문을 물을 때에 길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로써 답답한 가슴을 풀곤 했지. 그러면 사신은 아무 것도 모르고 수염을 추어올리고 부채를 치면서, 오랑캐놈들이 백년 운수가 있으라 하고는 바로 강개하게 강 복판에서 노(櫓)를 치던(조적(祖狄)의 고사)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참으로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일세. 더구나 먼저 보내는 군관이 밤낮 없이 질주를 할 때는 절반은 말 등 위에서 잠과 꿈으로 지내는 형편이니, 혹시 문서를 저들 국경 안에서 떨어뜨린다면 닥쳐올 재변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하였다. 서장관은 크게 한바탕 웃었으나 일변 놀라면서 조 역관에게 무어라 경계(警戒)하는 모양이다. 그 뒤 추리고 남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다.

불서(佛書)

불교의 서적이 처음 중국에 들어온 것은 불과 42장(章)으로서 그 뒤 불경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태반이 위(魏) · 진(晉) 시대의 문인들의 손으로 지어낸 것이다. 이런 사업이 요진(姚秦) 때 성행하였고, 소량(蕭梁) 때 극성하였으며 당(唐)에 이르러서 완전히 갖추어져 거의 유가(儒家)의 전적들과 상당하였다. 대체로 상고 이래로 이미 이런 학문이 있어서 황제(黃帝) · 광성자(廣成子) 황제(黃帝)의 스승) · 남곽자기(南郭子綦 《남화경》에 나오는 도사(道士) · 묘고야산인(藐姑射山人 《남화경》에

나오는 도사(道士) · 허유(許由) · 소부(巢父)¹² · 변수(卞隨) · 무광(務光)¹³ · 장저(長沮 《논어》에 나오는 은사) · 결익(桀溺 《논어》에 나오는 은사) 등은 일찍이 그들을 가리켜 부처라 한 자도 없거니와 또 그들은 일찍이 아무런 저서가 없었으므로 후 세에 와서 불교가 외국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만 알고 중국에서 먼저 이런 도가 있었다는 일을 똑똑히 모르고들 있다. 공자(孔子)는 이르기를,

“우리 도는 하나로 꿰뚫는 거야(《논어》에 나오는 구절).”

하였고, 노자(老子)는,

“성인은 하나를 껴안는 거야(《도덕경》(道德經)에 나오는 구절).”

하였는데, 불씨(佛氏)는,

“만 가지의 법(法)이 하나로 귀착되는 거요(불경(佛經)에 나오는 구절).”

하였으니, 그의 이른바 만 가지의 법이 하나로 귀착한다는 말은 곧 우리 유가(儒家)의 이치는 하나이나 만 가지로 달라진다는 말과 그 지닌 뜻은 미상불 비슷한 것이었다. 세상에 떠도는 불교 서적이란 모두가 《남화경》(南華經)의 주석이요, 남화경은 또 《도덕경》(道德經)의 풀이에 불과한 것이다. 저들은 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 나고 생각들이 다 탁월하였으니, 어찌 인의(仁義)와 예악(禮樂)이 함께 천하를 다 스리는 대법칙이 되는 줄을 몰랐으리요. 불행히 그들은 망하는 세상에 태어나서, 본질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 있는데 눈을 찌푸리며 상심을 하다가 본즉, 차라리 태고(太古)의 정치를 연모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이른바 성인을 없애고 슬기를 버리고 도량형기(度量衡器)를 파괴해야 된다(《남화경》에 나오는 구절)는 따위의 이야기는 모두 세태와 풍속에 분개해서 나온 말들이다. 3천여 년 이래로 이런 책을 배척한 자가 한 사람뿐만이 아니언마는 이 책들은 필경 보존되어 있고, 또 이런 책이 있다 해서 천하가 조용하고 어지러운 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거늘 저 한창려(韓昌黎) 한유(韓愈), 창려는 자)는 맹자(孟子)가 일찍이 양자(楊子) 양주(楊朱), 극단적인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와 묵자(墨子) 묵적(墨翟), 사회주의(社會主

12 허유(許由) · 소부(巢父) : 허유와 소부는 철인(哲人)으로 요(堯)가 그들에게 천하를 양보하였으나 받지 않았다.

13 변수(卞隨) · 무광(務光) : 탕(湯)이 변수와 무광에게 천하를 양보하려 하였으나 받지 않고 물에 빠져 죽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인이라 부른다.

義)의 선구자)를 배척함을 희미하게나마 보고 역시 도교와 불교를 배척하는 것으로써 자기의 교조로 내세웠다. 맹자의 재능이 다만 양자·묵자만을 배척함으로써 아성(亞聖 맹가(孟軻)의 별칭. 공자 다음이라는 뜻)이 된 것도 아니언마는, 한창려는 곧 그의 책을 불사름으로써 맹자의 뒤를 계승하려고 하였으니, 한창려는 과연 그 책을 불사를 능력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황명마패(皇明馬牌)

상서원(尙瑞院)에 보관되어 있는 명(明)의 마패(馬牌 황제가 친히 발급하는 통행증)는 길은 누런 빛 무늬 없는 비단에 오목(烏木)을 축(軸)으로 한 두루마리다. 길이는 두 자 네 치요, 넓이는 다섯 치 남짓하고, 가장자리에는 이룡(螭龍)을 수놓은 복판에 안장을 갖춘 붉은 말 한 필이 놓여 있다. 황제의 지시문(指示文)을 썼는데, “공무로 가는 인원이 역을 통과하는 데는 이걸 나누어 가지고 가서 맞추어 본 다음에야 마필의 제공을 허락한다. 만일 이것을 맞추지 않고 함부로 역말을 준다든가,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정실에 따라 수용한 자는 함께 중죄로 다스릴 것이니, 마땅히 이 명령을 지킬지이다. 홍무(洪武) 23년(1390년) 월 일.”

이라 하였다. 글자는 모두 검정 실로 수를 놓았고, 연호(年號) 위에는 옥새(玉璽)를 찍었다. 그 새문(璽文)에는, ‘제고지보(制誥之寶)’라 하였다. 그리고 왼편에는 ‘통자칠십호(通字七十號)’라고 가는 글씨로 썼으며, 아래쪽 연폭(聯幅)에는 작은 옥새의 절반을 찍었다. 또 붉은 말 한 필을 그린 축(軸)에는 ‘통자육십칠호(通字六十七號)’라 하였고, 푸른 말 한 필을 그린 축은 ‘통자육십팔호(通字六十八號)’였고, 또 붉은 말 두 필을 그린 축은 ‘달자삼십호(達字三十號)’라 쓰여 있다. 대체로 홍무(洪武) 경오년(1390년)에 군산도(群山島)를 거쳐서 배가 출발하여 금릉(金陵)으로 조회할 때에 내린 마패의 네 종류이다. 또 붉은 말 두 필을 그린 축은 만력(萬曆) 27년(1599년) 월 일 ‘달자십육호(達字十六號)’였고, 또 붉은 말 두 필을 그린 축은 ‘달자십삼호(達字十三號)’로서 그 지시문과 연호는 검정 실로 수를 놓았고, 네 가장자

리는 이룡(螭龍)을 수놓고 그 위에 옥새를 찍은 것이 모두 홍무의 제도와 같았다. 그리고 왼편에 가늘게 쓴 통(通)자와 달(達)자 등의 몇몇 자호(字號)는 모두 수를 놓지 않았음을 보아서 이들은 아마 임시로 몇째 자호라고 써서 옥새의 반절을 찍어서 내준 것이리라. 그리고 ‘홍무통자육십칠호’의 푸른 말 이하의 여덟 필 말은 모두 안장과 굴레를 그리지 않았으니, 대체로 만력 기해년(1599년)에 요양(遼陽) 길 이 막히고 보니, 가도(假島)로부터 등주(登州)에 이르러 하륙하여 북경으로 들어갈 때 하사한 마패의 두 종류이다. 마패 축은 모두 붉게 칠한 가죽통에 넣어서 주석 장식을 붙이고 또 녹피(鹿皮) 주머니에 넣었다. 다만 당시의 사절이 이를 돌리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인지 모를 일이다. 혹시 명(明)의 구례(舊例)로서 외국 사신이 수로(水路)로 내왕할 때만 이를 위하여 마패를 나누어 주었는지, 이번 열하 행차에도 역시 말을 내 주라는 황제의 지시가 있었은즉, 응당 이런 마패를 내주었을 듯한데 도중에 서로 어긋나서 그런지 증명을 맞추어 보는 절차를 보지 못하였다.

함밀왕(哈密王)

동직문(東直門)을 나서서 열하를 향하여 몇 리를 못 가서 북경의 교군 30여 명이 어깨에 가마채를 메고 발을 맞추어 간다. 그리고 회회국(回回國) 사람 십여 명이 뒤를 따르는데 얼굴이 사납고, 코가 크며, 눈은 푸르고, 머리와 수염이 억세게 낫다. 그 중 두 사람은 눈매가 맑고 고우며, 복색이 가장 화려하였다. 붉은 전립을 썼는데, 좌우 가장자리 끝을 말아 붙이고 앞뒤 가장자리는 뽕족하여 마치 아직 피지 않은 연 잎사귀 같았다. 이리저리 돌아볼 때는 경망스러워 보기 우스웠다. 마두(馬頭)들은 추측만 하고 그를 회회국 태자(太子)라고 불렀다. 앞섰다 뒤섰다 작반을 해서 간 지 사나흘 동안 때로는 말 위에서 담배도 서로 나누어 피우곤 했는데, 그 행동이 꽤 공순하였다. 하루는 한낮이 되어 너무 덥기에 말에서 내려 도중 샷자리 가게 아래서 쉬고 있는데 두 사람이 뒤따라 와서 역시 말에서 내려 마주 대면하여 의자에 앉았다. 나에게 묻기를,

“만주 말을 하시유, 몽고 말을 하시유.”

하기에, 나는 농으로,

“양반(兩班)이 어떻게 만주 말이고 몽고 말을 알겠어.”

하며 대답하고는 곧 글로 써서 회회국 내력을 물었더니 한 사람은 머리를 흔들면서 다른 편을 쳐다보는 것이 아주 글은 까마눈인 것 같고, 한 사람은 혼연히 붓을 한참 매만지더니 겨우 한 글자를 쓰는데, 짓먹은 힘을 다 내는 듯이 몹시 어려운 모양이다. 그는 스스로 함밀왕이라 하고 같이 온 사람을 가리키면서 역시 12부(部)의 번왕(蕃王)이라 했다. 그리고 대답하는 말이 전연 문리(文理)에 닿지 않아서 알 수가 없었다. 그에게,

“메고 온 물건들은 무엇이고.”

하고 물었더니,

“모두 황제께 진상하는 옥그릇들이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자명종(自鳴鍾)입니다.”

한다. 번왕이라 일컬은 사람이 주머니를 풀더니 차(茶)를 꺼내어, 따르는 사람을 시켜 끓여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나에게도 한 잔 권하는 품이 아마 색다른 차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으나, 그 향내와 빛깔을 보아 역시 북경 거리에서 보통 파는 차나 다름없었다. 화로라든가 찻잔들은 모두 붉게 칠한 가죽으로 집을 만들어서 주렁주렁 허리띠에 달린 장식품같이 허리에 차고 등에 짊어졌는데, 보니 극히 간편해 보인다. 그는 차를 마신 뒤 먼저 일어나 채찍을 한 번 들어 치면서 돌아났다. 이튿날 아침에 또 강가에서 만나서 중국말로,

“함밀왕의 나이는 얼마시유.”

하고 물었더니 그는 역시 중국말로,

“서른여섯이라우.”

대답한다. 그리고 번왕은 더욱이 중국말이 능하나 다시금 손바닥을 두 번 쥐었다 펴고 또 한 손을 펴서 스물다섯 살이란 것을 표시했다. 《당서(唐書)》를 상고해 보면,

“회홀(回紇)의 일명은 회골(回鶻)이다.”

하였고, 《원사(元史)》중에는 외올얼부(畏兀兒部)가 있는데 외올(畏兀)은 곧 회골이었고 회회는 또 회골의 변한 소리다. 또 《고려사(高麗史)》에,

“원(元)의 사람이 고려 사람으로 하여금 외오얼(畏吾兒) 말을 가르쳤다.”

하였으니, 외오얼은 또 외올(畏兀)의 변한 말이다. 함밀은 한(漢) 때에는 이오(伊) 품에 속한 땅이요, 당(唐)에 이르러서는 이주(伊州)에 속한 땅이다. 고려 말기에 설손(契遜)이란 이가 곧 회골 사람으로서 원에 벼슬하다가 공주(公主)를 따라 동으로 와서 이내 고려에 벼슬을 하였고, 이조(李朝)에 들어와서 벼슬한 설장수(契長壽)는 곧 설손의 손자이다.

서화담집(徐花潭集)

서화담 선생(徐花潭先生)(경덕(敬德)이다.)은 수학(數學)이 강절(康節 송(宋)의 유학자 소옹(邵雍)의 시호)과 비슷하고, 시(詩)와 문(文) 몇 편이 있어 그다지 볼 것이 없으나 《사고전서(四庫全書)》(지금 황제가 지은 것이다.) 중에 편입되었다.

장흥루판(長興樓板)

오늘의 오사란(烏絲欄 책을 베끼기 위해 줄을 친 종이)은 곧 옛날의 편죽(編竹)이다. 옛날에는 글자를 모두 대쪽에다가 칠로 쓰고 가죽끈으로 엮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간책(簡冊)이다. 그 모양은 오늘의 오사란과 같았다. 이는 곧,

“공자가 《역경(易經)》을 읽는데,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사기(史記)》에 나오는 구절).”

는 기록이 그것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일찍이 하동(河東)으로 갈 때 책 다섯 상자를 잃어버리고 다행히 장안세(張安世 한(漢)의 유신(儒臣))가 외는 것을 힘입어 이를 기록하였다는 말이 전함을 보아서 당시에 각판(刻版)이 없었음을 알 것이요, 후

세에 판을 처음으로 새기기는 후당(後唐)의 명종(明宗) 때다. 명종은 오랑캐 지방의 사람으로 글이라고는 알지 못했으나 구경(九經)을 편각으로 새기기는 역시 장흥(長興 후한 명종의 연호) 연간의 일이다. 그 공로야말로 홍도(鴻都 한(漢) 때 도서를 간직한 곳)와 석경(石經 한(漢) 때 태학(太學)에 경서를 새겨 세운 비석)보다 적다고는 못할 것이다. 명종이 당시의 사대부들이 길한 예와 흉한 예로서 죽은 사람끼리 혼인시키는 것과 복상 중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가 있음을 보고 탄식하기를,

“선비가 효도와 공경을 중하게 여김은 그것으로써 풍속을 돈독하게 함이거늘, 이제 아무런 전쟁도 없는 터에 복상 중에 있는 이를 관리로 기용할 수야 있을 것인가. 또 혼인은 길한 예인데도 어찌 죽은 사람에게 이것을 쓸 것인가.”

하고는, 곧 유악(劉岳)에게 명하여 문학에 밝고 고금의 역사에 정통한 선비들을 뽑아서 이 예문을 정리하게 하였으나, 태상박사(太常博士) 단웅(段頤)과 전민(田敏) 등은 모두 야비한 자로서 이 책을 다시 정리한다는 것이 당시의 각 사사 가정에서 내려오는 습속들을 참고하였음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취진판(聚珍板 《사고전서(四庫全書)》판 글자의 별칭)으로 내려오는 이 각본은 호부 시랑(戶部侍郎) 김간(金簡)이 감독 간행한 것이다.

주한(周翰) · 주앙(朱昂)

사람이 젊을 적에는 전정(前程)이 멀고 보니 자기는 늙을 날이 없을 듯이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노인을 업신여기는 실수를 가끔 범한다. 이것은 비단 철없는 악소년의 경박한 짓일 뿐 아니라 대개는 앞날의 복도 받지 못하는 것이니, 불가불 조심해야 할 것이다. 민 찬성(閔贊成 찬성은 민형남의 벼슬) 형남(馨男)은 나이 칠십이 넘어서 손수 과실 나무 접을 붙이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여러 젊은 명관(名官)들이 이를 웃으면서,

“귀공은 아직도 백 년 계획을 하시는 거요.”

할 때에, 그는,

“바로 그대들을 위하여 선물로 남길 것이네.”

하였다. 그 뒤 민공(閔公)은 아흔네 살이 되어 여러 명관들의 제삿날에 항상 손수 과실을 따서 부조하였다.

옛날 양대년(楊大年 송(宋)의 양억(楊億), 대년은 자)이 약관(弱冠)일 적에 주한(周翰)과 주앙(朱昂) 두 사람과 함께 한림원(翰林院)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이미 머리가 하얗게 세었었다. 매사를 의논할 때마다 양대년은 그들을 업신여기어,
“두 노인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주한은 매우 불쾌하여,

“그대는 늙은이를 그리 깔보지 마소. 필경은 이 백발을 남겨 그대에게 꼭 선사할 것이네.”

라고 하였다. 주앙이 있다가,

“백발을 남겨서 그를 주지 마오. 다른 사람이 또 그를 깔보는 것을 못하도록 해야 죠.”

하였다. 그 뒤 양대년은 과연 나이 오십도 못 살았다.

열하태학(太學)에는 늙은 학구(學究)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곧 왕혹정(王鵠汀)이라 일컬었다. 그는 민가(民家)의 어린 아이 호삼다(胡三多)에게 글을 가르쳤다. 삼다의 나이는 겨우 열세 살이었다. 또 만주 사람으로 왕라한(王羅漢)이란 자가 있었는데, 나이 바로 일흔세 살이어서 삼다에게 비하면 한 갑자가 더한 무자생(1708년)이다. 혹정으로부터 강의(講義)를 받는데 매일 맑은 새벽이면 삼다와 함께 책을 끼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발걸음을 맞추어 혹정을 뵈는다. 혹정이 혹시 이야기 때 문에 틈이 없을 때는 노인은 즉시 몸을 돌려 동자인 삼다에게 고개를 숙이고 주저하지 않고 강의를 한 차례 받고자 가곤 한다. 혹정이 말하기를,

“저 늙은이는 손자가 다섯, 증손이 둘이나 있는데 날마다 몸소 와서 강의를 듣고서는 돌아가 여러 손자들에게 되돌려 가르칩니다. 그의 근실한 태도가 이같이 놀랍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렇듯 늙은이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린이는 업신여김이 없었으

니, 중국의 예의가 장하다는 것은 전날에 들은 바 있으나 이런 변방의 풍속이 이렇게 순박한 것을 더욱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날 호삼다가 붉은 종이 첩지에는 두 냥을 가지고 와서 그 첩지를 나에게 보이는데 거기에 쓰기를,

“삼가 동학(同學)이자 동경(同庚)의 아우 호(胡)에게 부탁하여 조선 박 공자(朴公子)에게 청심환 한두 개를 전편으로 청하옵니다. 삼가 변변찮은 예폐를 갖추어 대금으로 삼으니, 물건은 하찮으나 정은 깊고 의리는 가이 없이 온 세계에 무거울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나는 그 돈은 돌려 보내고 환약 두 알을 □아 주었다. 그의 이른바 동학이자 동경의 아우 호라 함은 곧 호삼다를 가리킨 말이니 더욱 허리를 잡을 지경이다. 그러나 남달리 스스로 혼후하고 원만한 태도는 주앙이 양대년에게 퍼부은 독설과는 매우 달랐으므로 여기에 함께 기록하여 젊은이들이 늙은이를 업신여기는 데 경계로 삼을까 한다.

무열하(武列河)

역도원(酈道元 후위(後魏) 때의 지리학자)의 《수경주(水經注)》를 보면,

“유수(濡水)는 동남으로 흐르는데 무열수(武列水)가 거기에서 합한다.”

고 하였다. 유수는 오늘의 난하(灤河)요, 무열수는 오늘의 열하이다. 열하의 이름은 《수경(水經 한(漢)의 상흠(桑欽) 저)》에 나타나지 않았을즉, 아마도 무열의 변한 음인 듯싶다. 그 근원은 세 군데에 있으니 하나는 무욱리하(武郁利河)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석파이대(石巴伊臺)에서 나왔으며, 또 하나는 탕천(湯泉)에서 나와 한 곳에 모여서 열하가 되어 산장(山莊)을 안고 남쪽으로 흘러 난하에 든다고 한다. 우리 사행이 줄달음질로 열하에 들어왔을 때 터리는 이 길로 바로 질러 고국으로 돌아가자는 의논이 있었으므로, 사신은 담당 역관으로 하여금 미리 동쪽으로 돌아갈 노정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역관은 통관(通官)에게 이를 알아보았더니 통관배는 깜짝 놀라면서,

“산 뒤는 모두 달자(子)들이 살고 있는 지방으로 의무려산(醫巫閭山)을 꺾이고 동북으로 돌아가는 길 여간에서 반드시 달자를 만나 검탈당할 것입니다. 우리네 중국 사람도 이 길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 길로 질러 돌아가는 것이 비록 황제의 뜻이라 하더라도 사신은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이 길을 변경하도록 간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다. 역관은 다시금 탐문할 자리가 없어 방금 답답해 하던 판에 마침 한 늙은 장경(章京 만주의 벼슬 이름)중에 일찍이 이 길을 가 본 자가 있어서 역력히 말을 할 수 있다 하기에 종이와 붓을 내주며 쓰게 하니, 한자를 전연 몰라 하늘만 뻔히 쳐다보다가 땅을 그려 손으로 모래를 모아 산 모양을 만들고 다시금 검부러기를 잘라 배 건너는 시늉을 한 뒤에 붓을 잡고 빨리 글씨를 쓰는데 곧 만주 글자였다. 아무도 이를 알아보는 자가 없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깔깔 웃었다. 나는 마침 이 종이를 가져다가 왕홍정에게 보였더니, 홍정 역시 해독하지 못하여 왕나한(王羅漢)에게 보였다. 나한은,

“제가 비록 이 글을 안다고 하나, 한자(漢字)로 번역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사는 이웃에 봉천(奉天) 사람으로서 손님으로 와 있는 이가 있는데, 그가 이런 것을 알 것입니다. 내일 그에게 물어 상세히 적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이내 종이를 건사하여 품속에 집어넣고 가버린다. 이튿날 그는 과연 자세히 적어 가지고 왔다. 그 기록은 다음과 같다.

“열하로부터 30리를 가면 평대자(平臺子)요, 또 30리에는 홍석령(紅石嶺)이요, 또 25리에는 황토량(黃土梁)이요, 또 15리에는 서육구(西六溝)에 이르는데, 여기가 곧 승덕부(承德府)의 경계로서 경계비(境界碑)가 있고, 여기서부터 20리를 가면 상운령(祥雲嶺)이 있고, 여기서 칠구(七溝)까지 30리, 또 봉황령(鳳凰嶺)까지 30리, 평천주(平泉州)까지 20리, 대묘참(大廟站)까지 35리인데, 여기는 평천주의 경계이다. 여기서 양수구(楊水溝)까지 40리, 쌍묘(雙廟)까지 25리, 송가장(宋家庄)까지 30리, 건창현(建昌縣)까지 30리, 장호자(長鬍子)까지 30리, 야불수(夜不收)까지 25리, 공영자(公營子)까지 20리, 담장구(擔杖溝)까지 30리인데, 여기가 곧 건창현의 경계이다. 여기서부터 또 행호자대(杏湖子臺)까지 10리, 날마구(喇麻溝)까

지 25리, 대영자(大營子)까지 15리, 조양현(朝陽縣)까지 25리, 대능하(大凌河)까지 25리인데, 다시금 강을 건너서 망우영(蟒牛營)까지 25리, 장가영(張家營)까지 30리, 만자령(蠻子嶺)까지 25리, 석인구(石人溝)까지 25리인데 여기가 조양현 경계이다. 여기서부터 육대변문(六臺邊門)까지 30리, 최가구(崔家口)까지 30리요, 또 20리를 더 가서 의주성(義州城)을 지나쳐 대능하를 건너 금주위(錦州衛)로 나와 광녕로(廣寧路)를 거쳐 간다.”

라고 하였다.

웅노후(雍奴侯)

어릴 때에 《사기(史記)》를 읽으면서,

“한(漢)이 구준(寇恂) 동한 때 28장(將)의 하나을 웅노후(雍奴侯)에 봉하였다.”

는 것을 보고서,

“후(侯)로 봉할 이름이 그다지 없어서 하필 웅노후라 했을꼬.”

하며 적이 괴이하게 여겼었다. 이제 알고 보니 웅노는 곧 지명으로서 어양(漁陽) 우북평(右北平)에 있었다. 내가 앞서 연(燕)·계(薊) 길을 들 제, 어양과 북평을 지났으나 오늘은 웅노가 어떤 이름으로 변했는지를 알 수 없겠고, 또 이 땅을 지나왔는지의 여부도 모를 일이다. 웅노는 또 소택에 관한 이름으로서 《수경주(水經注)》에 이르기를,

“사면에 물이 둘러 있는 것을 ‘웅(雍)’이라 하고, 모여서 흐르지 않는 것을 ‘노(奴)’라 한다.”

하였다.

사(𪛗)

《한서(漢書)》지리지(地理志)를 보면,

“청하군(清河郡)에 사제현(𪛗題縣)이 있었다.”

하였는데, 내가 막북(漠北)으로부터 고북구(古北口)로 돌아올 제, 밤에 청하현에서 잤으나 이제는 사제현이 어디 있는 줄을 알 길이 없었다. 요컨대 청하의 근방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안사고(顔師古 당(唐)의 학자)의 주(注)에는,

“사(𪛗)는 사(莎)의 옛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순제묘(順濟廟)

《동서양고(東西洋考 명(明) 장섭(張燮)의 저)》에 보면,

“오대(五代) 때에 민(閩 복건성)의 도순검(都巡檢) 임원(林願)의 여섯째 딸은 진(晉 후진)의 천복(天福 고조 석경당(石敬瑭)의 연호) 8년(943년)에 태어났는데, 옹희(雍熙 송(宋) 태종의 연호) 4년(987년) 2월 29일에 신선이 되어 올라갔으며, 그는 늘 붉은 옷을 입고 바다 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사당에다 모셨더니, 송(宋)의 선화(宣和 송(宋) 휘종의 연호) 계묘년(1123년)에 급사중(給事中) 노윤적(路允迪)이 사신이 되어 고려(高麗)로 가는 도중에, 바람을 만나서 이웃 배들은 모조리 빠졌으나 다만 노윤적이 탄 배만 귀신이 돛대에 내려서 아무 탈이 없었으므로, 사신을 마치고 돌아와 이 일을 조정에 아뢰었더니, 특별히 순제(順濟)라는 묘호(廟號)를 내렸다.”

하였다. 요즘 천주당(天主堂)에 그려 붙인 붉은 옷을 입은 여상(女像)이 구름 바다 사이로 날아다니곤 한다. 이것이 곧 그 귀신인 것 같다.

해인사(海印寺)

합천(陜川) 가야산(伽倻山)에 있는 해인사(海印寺)는 신라(新羅) 애장왕(哀藏王) 때에 창건되었다. 이름난 가람이나 큰 절들은 흔히 서로 이름을 답습하여 붙이는 수가 많지마는 이것만은 그렇지 않다. 중국 순천부(順天府 북경의 별칭) 서해자(西海子 동산 이름) 위에 옛날 해인사가 있었다. 명(明)의 선덕(宣德) 연간에 다시금 증건하여 대자은사(大慈恩寺)라 이름을 고쳤다가 뒤에 철폐하여 공장을 만들었다. 우리나라의 해인사는 곧 천여 년 전에 이룩된 고찰인즉 북경 안에 있던 해인사는 응당 신라 때 창건된 절보다 뒤의 일일 것이다.

사월팔일방등(四月八日放燈)

중국의 관등(觀燈)놀이는 대보름날 밤으로서 14일부터 16일까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등놀이는 반드시 사월 초파일에 하는데, 이날이 부처의 생신이라 하나 이는 아마 고려(高麗) 때의 풍속을 그대로 지킨 것만 같다. 석가여래(釋迦如來)는 애초 정반왕(淨飯王)의 태자(太子)로서 주소왕(周昭王) 24년(26년인데 잘못된 것이다) 갑인 4월 8일에 나서 42년(44년) 임신에 그의 나이 19세에 태자의 자리를 버리고 출가(出家)하여 도를 닦다가 목왕(穆王) 3년(4년인데 잘못된 것이다) 계미에 이르러 도를 이룩하였다.

오현비파(五絃琵琶)

양염부(楊廉夫 명(明)의 문학가 양유정(楊維禎). 염부는 자)의 원궁사(元宮詞)에 이르기를,

화림(화령(和寧))에 거둥하니 천막도 장할시고 | 北幸和林帳殿寬
고려의 시녀들이 첩여(여관(女官)의 이름)로 시중드네 | 句麗女侍婕妤好官
임금이 좋아라고 명비곡¹⁴을 부르실 제 | 君王自賦明妃曲
임께서 주신 비파 말 위에서 뜯는고녀 | 勅賜琵琶馬上彈

라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악지(樂志)를 상고해 보면,
“악기 비파(琵琶)는 줄이 다섯이다(원전(原典)에는 현사(絃四)로 되어 있다).”
라 하였으니, 그러면 첩여(婕妤)들이 탔다는 비파는 반드시 다섯 줄일 것이다. [온
광루잡지(溫光樓雜志)에 있다.]

사자(獅子)

《철경록(輟耕錄 명(明) 도종의(陶宗儀) 저)》에 이르기를,
“나라에서 매양 여러 왕과 대신들을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것을 대취회(大聚會)라고
일렀다. 이날에는 여러 가지 짐승을 만세산(萬歲山)에 몰아 내어 범 · 표범 · 곰 ·
코끼리 따위를 일일이 따로 둔 뒤에 비로소 사자가 나온다. 사자는 몸뚱이가 짧고
작아서 흡사 가정에서 기르는 금빛 털을 지닌 샅샅개처럼 생겼는데, 여러 짐승이
이를 보면 무서워 앞드리고 감히 쳐다보지도 못한다. 이는 기가 질리는 까닭이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만세산에 가 보았으나 기르는 짐승들이란 볼 수 없었으니 이
는 모두들 서산(西山 북평(北平)에 있다)과 원명원(圓明苑 북평에 있다) 등지에 둔
모양이다. 그리고 열하에서 본 이상한 새와 짐승들도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그 이
름을 알 수 없었다. 날마다 길들인 곰과 집에서 기르는 범 같은 것을 보았으나 모
두 귀를 드리우고 눈을 감아 언제나 가련한 꼴을 하고 있었다. 더구나 사자를 못
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14 명비곡(明妃曲) : 한(漢)의 궁녀(宮女)로 호(胡) 땅으로 시집간 소군(昭君) 왕장(王嬙)을 두고 읊은 노래.

“백년 이래로는 사자를 가져다 진상한 자가 없었다.”
한다.

강선루(降仙樓)

우리나라 성천(成川)에 있는 강선루(降仙樓)의 현판은 미만중(米萬鍾)중조(仲詔)¹⁵가 쓴 글씨이다. 그의 필법은 미원장(米元章 미불(米芾. 원장은 자)에 못지않을 뿐더러 그가 괴석(怪石)을 좋아하는 성벽은 그보다 더하였다. 《간재필기(艮齋筆記 우동(尤洞)의 《간재잡기(艮齋雜記)》인 듯하다)》에 보면,

“방산(房山 하북성에 있다)에 돌이 있는데 길이가 세 자, 넓이가 일곱 자인데 빛갈이 푸르고 윤기가 났다. 중조가 이것을 작원(勻園 하북성에 있다)으로 끌어 올 것을 생각하고, 수레를 겹으로 말 10마리에 메우고 인부 1백 명이 끌어서 7일 만에 비로소 산으로부터 나와 또 5일 만에 양향(良鄉 하북성에 있다)에 닿았다. 길에서 힘이 다해서 움직이지 못한 채 발두둑 사이에 눕혀 놓고, 이를 담장으로 둘러 싸고 초막으로 위를 덮었으며, 이에 대해 오간 편지까지 있어서 한때는 미담(美談)으로 전하였다.”

하였다. 내가 북경을 구경할 제 어떤 이가 민(閩)에 살고 있던 사람 오문중(吳文仲)이 그렸는데, 미 태복(米太僕 미만중. 태복은 벼슬 이름)이 수집한 괴석 그림책 1권을 팔려고 왔었다. 하나는 영벽석(靈壁石)이요, 하나는 방대석(方臺石)이요, 하나는 영덕석(英德石)이요, 하나는 구지석(仇池石)이요, 하나는 연주석(兗州石)이었으며, 또 다른 이름들로서 비비석(非非石) · 청석(靑石) · 황석(黃石) 등이 있는데 모두 기기괴괴한 형상이었다. 그 책에다가 자신이 담원시(湛園詩)를 지어 붙인 것이 있었다.

주인의 마음씨는 본디부터 맑고맑아 | 主人心本湛

15 중조(仲詔) : 명의 서예가(書藝家). 만중은 이름이요, 자는 우석(友石). 중조는 또 하나의 자인 듯함.

맑다는 이 뜻으로 후원 이름 지었세라 | 以湛名其園
때로는 여기 앉아 숨은 선비 되었다가 | 有時成坐隱
손님이 오실 제엔 술 항아리 열어 보네 | 爲客開青罇
한가한 저 구름은 푸른 대 물가로 | 閒雲歸竹渚
너울너울 지는 해는 솔문에 비치누나 | 落日映松門
높은 대에 다시 올라 뒀 달을 맞이할 제 | 登臺候山月
밝은 빛 흘러흘러 친구 대해 말하는 듯 | 流輝如晤言

만종(萬鍾)이 벼슬살이로 사방에 다닐 때도 오직 괴석만을 쌓았을 뿐인즉, 역시 명사(名士)가 아닐 수 없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만 안다는 것이 미원장뿐이요, 미중조는 모르기에 특히 여기에 기록한다. 다만 강선루 현판은 어떤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었는지, 역시 뒷날 연구를 기다릴 일이다.

이영현(李榮賢)

《태학지(太學志 저자 미상)》를 보면,

“용경(隆慶) 원년(1567년)에 황제가 국학(國學)에 거둥했는데, 조선 배신(陪臣)으로 이영현(李榮賢) 등 6명이 각기 제 직품에 알맞은 의관을 갖추고 이륜당(彝倫堂) 밖 문관들이 서는 반열 다음에 섰다.”

하였다. 그 당시 참반(參班)을 했다면, 응당 관(館)에 머문 사신일 터인데, 어찌서 6명이나 그렇게 많이 참석했을 것인가. 또 이영현은 오늘 누구의 조상인지도 모를 일이요, 또 따라 참석한 인원들도 성명을 상고할 수 없다. 선배 되는 이만운(李萬運 선조 때의 학자. 자는 원춘(元春))은 옛날의 일을 많이 아는지라 잠시 이것을 적었다가 한 번 물어 볼 기회를 만들겠다.

왕월시권(王越試券)

왕월(王越 명(明) 때의 관리. 자는 세창(世昌))의 과거 시험지가 바람에 날려 우리나라에 떨어져서 그 종이를 주년사(奏年使) 편에 부쳤더니, 중국에서는 기록하기를 유구(琉球)라고 잘못 기록하였다. 당시 왕월을 풍력(風力)이 있다고 해서 사법관의 직책에탁용했다 한다. 일찍이 《낭야만초(瑯琊漫鈔 명(明) 문림(文林))》에 보니,

“성화(成化) 연간에 태감(太監) 왕고(王高)가 휴가를 얻어서 집에 나와 있을 제 병부 상서(兵部尙書) 아무개가 찾아 갔더니, 때마침 도어사(都御史) 왕월과 호부 상서(戶部尙書) 진월(陳鉞)이 역시 왔었다. 왕고가 이윽고 나와 여러 사람 앞에 읊(揖)하고 앉아서 말하기를,

‘옛날 왕진(王振 명(明) 때의 관리)이 일을 처리할 때 육경(六卿)이 많이들 사사로이 찾아보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치를 제멋대로 전단한다고 뒷말을 하였다 하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 온다면 어찌 외인들이 왕고를 걸어 시비하지 않으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또 여러분은 나를 방문하였지마는 문노니 왕고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던 말이오.’

하였을 때, 병부 상서는,

‘귀공은 성인이외다.’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고는 얼굴빛을 변화면서,

‘위대한 교화력을 지닌 이를 성인이라 하므로 공자(公子)께서도 오히려 내가 어찌 감히(《논어》에 나오는 구절)라고 말씀했거늘, 하물며 왕고가 어떤 사람이건대 감히 성인이라고 일컬을 것인가.’

하였다. 여럿은 이 말을 듣고 숨을 내쉬지 못하였다.”

하였다. 그 당시 병부 상서는 비록 이름을 숨겼으나 공문은 가릴 수 없었은즉, 소위 왕월의 풍력(風力)인들 어디 있을 것인가.

천순칠년회시 때 공원의 화재[天順七年會試貢院火]

천순(天順) 7년 (1463년) 2월에 회시(會試)를 보일 제, 때마침 공원(貢院)에 불이 나자 감찰어사(監察御史) 초현(焦顯)이 곧 대문을 걸어 닫아 출입을 못하도록 하여 응시자로 타 죽은 자가 90여 명이나 되었다.

신라호(新羅戶)

북경 동북방의 군현 중에도 고려장(高麗庄)이라는 이름이 많을 뿐 아니라, 당(唐)의 총장(總章) 당 고종의 연호 연간에도 신라(新羅) 사람이 많은 곳에 관아를 두었으니, 지금 양향(良鄉)의 광양성(廣陽城)이 바로 거기이다.

증고려사(證高麗史)

주곤전(朱昆田) 청의 문학가. 자는 서준(西峻) 또는 문양(文盎)은 죽타(竹垞) 주이준(朱彝尊)의 호)의 아들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원 순제(元順帝)가 북으로 달아나 응창(應昌)에 와서 머물러 있을 때에 태자(太子) 애유지리납달(愛猷識里臘達)이 그 자리를 이어 화림(和林)으로 옮겨가 선광(宣光)이라고 연호를 고쳤으니, 고려(高麗)에서는 그를 북원(北元)이라 불러 신우(辛禡)는 일찍부터 그 연호를 받았으니, 그때는 명(明)의 홍무(洪武) 10년(1377년)이다. 그 이듬해 두질구첩목아(豆叱仇帖牧兒)가 즉위하자 북원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이를 통고하였고, 이어서 연호를 천원(天元)이라 고친 뒤 고려에 통고하였는 바, 이것이 모두 정인지(鄭麟趾)의 《고려사(高麗史)》중에 실리고 본즉, 순제를 이어서 연호를 세운 자는 선광까지만이 아니다.”

하였다. 대체로 순제라는 칭호는 중국이 부르는 이름이요, 혜종(惠宗)이란 묘호(廟

號)는 원(元)이 최후의 임금에게 붙인 시호(諡號)이다. 그 뒤에 겨우 선광의 시호가 소종(昭宗)이라는 것밖에 모르고 본즉 천원의 즉위는 역사 편찬가가 생각한 것일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사실들은 《고려사》에 의거하여 증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조선모란(朝鮮牡丹)

《육가화사(六街花事) 저자 미상》에 이르기를,

“하포모란(荷包牡丹)은 본초(本草 이시진(李時珍)이 저술한 《본초강목(本草綱目)》) 중에 일명 조선모란(朝鮮牡丹)이라 부르는데, 꽃은 승혜국(僧鞬菊 부자(附子)의 별칭)과 같고 진자죽빛이다. 모란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그 잎이 서로 비슷한 까닭이었으며 북경 괴수사가(槐樹斜街) · 자인사(慈仁寺) · 약왕묘(藥王廟) 등 꽃 저자에서는 언제나 팔고 있다.”

하였다. 소위 하포라고 부르는 까닭은 중국 사람이 수놓은 둥근 주머니를 서로들 선사하면서 하포라고 하는데 곧 주머니의 이름이다. 승혜국은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요컨대 모두 일년초 꽃으로, 이름을 조선모란이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음은 무슨 까닭일까.

애호(艾虎)

단옷날 공조(工曹)에서는 궁선(宮扇) 애호(艾虎)를 바친다. 《계암만필(戒庵漫筆 명(明) 이후(李詡) 저)》에는,

“단옷날은 서울에 있는 관료들에게 궁선을 하사하는데, 땃살에 종이를 붙여서 그 위에는 모두 영모(翎毛)를 그리고, 오색 실로써 애호를 둘렀다.”

하였으니, 단옷날 애호를 바침은 역시 중국의 묵은 풍속이다.

십가소(十可笑)

《대두야담(戴斗夜談 저자 미상)》에 이르기를,

“북경 서는 열 가지 가소로운 명물이 있으니 그것은 광록시(光祿寺 궁중의 요리를 맡은 관서)의 찻물(茶湯), 태의원(太醫院 황제의 전속 의원)의 약방문(藥方), 신악관(神樂觀 도교의 절과 음악을 연습하는 곳)의 기도(祈禱), 무고사(武庫司)의 칼과 창(刀鎗), 영선사(營繕司 토목 공사를 맡은 관서)의 일터(作場), 양제원(養濟院 국립 요양원)의 옷과 양식(衣糧), 교방사(敎坊司 기악(妓樂)을 맡은 관서)의 할머니(婆娘), 도찰원(都察院 최고 검찰(檢察) 기관)의 헌법 기강(憲綱), 국자감(國子監 국립대학(國立大學))의 학당(學堂), 한림원(翰林院 학예술원(學藝術院))의 문장(文章) 등이다.”

하였으니, 이는 곧 한(漢)의 속어에,

“수재(秀才)에 합격되었으나 글을 모르고, 효렴(孝廉)¹⁶으로 뽑혀도 애비가 별거(別居)한다.”

는 말과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 속어에도,

“관청 돼지 배가 아프다.”

는 말이 있으니, 이것은 마치,

“월(越)이 진(秦)의 야원 꼴을 본다(서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

는 말과 다름없다. 이들은 모두 이름만 남고 실상은 없다는 의미이다. 한(漢)의 효렴(孝廉)도 벌써 이러거늘 하물며 뒷세상의 일일까보나.

자규(子規)

원(元)의 지정(至正) 19년(1359년)에 자규(子規 접동새)가 거용관(居庸關)에서 울었다 한다. 이 관은 연경과의 거리가 70리요, 연경의 팔경(八景) 중에서 거용첩취

16 효렴(孝廉) : 한(漢) 때 관리를 선발(選拔)하는 시험 과목의 일종.

(居庸壘翠)가 그 하나이다. 원의 왕운(旺憚 문학가. 자는 중모(仲謀)은 이르기를, “진 시황(秦始皇)이 장성(長城)을 쌓을 때에 역군들을 이곳에 두었다 하여 곧 거용(居庸)이라 일컬었으며, 또는 모용수(慕容垂 후연(後燕)의 세조(世祖))가 모용농(慕容農)을 얼웅새(蠓螽塞)로 내어 보냈다는 데가 곧 거용의 잘못 변한 소리다.” 하였다. 내가 일찍이 한 번 거용관에 가고자 했으나, 왕복 1백 40리나 되고 보니 하루 동안에 다녀 오기에는 어렵겠으므로 그만두었더니, 지금에는 한스러운 일이 로다.

경수사대장경비략(慶壽寺大藏經碑略)

“국가에서 불법(佛法)을 숭봉하여 큰 절을 세울 때엔 반드시 불경을 안치한다. 그 리하여 천하의 글씨 잘 쓰는 자들을 모아서 금가루를 이겨 불경을 베낌으로써 그 위엄을 보이고 천하에 각자(刻字) 잘 하는 자들을 뽑아 좋은 나무에 판각을 하여 보전함으로써 널리 전하게 된다. 북경에 있는 모든 절에는 날마다 중을 먹여 길러, 단정하게 앉아서 때를 지어 불경을 외고 중을 치며, 소라 고동을 불어 밤낮으로 쉴 사이 없을뿐더러, 한 해에 한두 번은 칙사를 역마에 태워 보내어 향과 폐물을 바치 되 온 천하를 골고루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해야만 온 항하사(恒河沙)¹⁷의 세계가 모두 복을 받게 된다. 아아, 참 지극하도다. 고려(高麗)는 예로부터 시서(詩書)와 예의(禮義)의 나라로 불려왔으므로 원이 천하를 차지하자, 세조 황제(世祖皇帝) 홀 필렬(忽必烈)은 은혜로 맺으며, 예법으로 대접함이 유달랐었다. 부자(고려의 원종과 충선왕)가 왕위를 이어서 모두 부마(駙馬)의 자리를 차지하였다. 지금 왕은 충선왕(忠宣王)이다. 또 충명과 충효로써 황제와 황태후의 사랑을 받게 되어, 대덕(大德 원(元)의 연호) 을사년(1305년)에는 불경을 경수사(慶壽寺)에 시주하여 황제께 영광을 돌렸었다. 이 절은 유황(裕皇 원(元) 성종(成宗)의 별칭인 듯하다)의 복

17 항하사(恒河沙) : 《금강경(金剛經)》에 나오는 말. 사물(事物)의 많은 것을 항하 모래의 숫자에 비하였다.

을 비는 곳으로서 수도의 여러 절 중에 가장 오래된 절이다. 황경(皇慶 원(元)의 연호) 원년(1312년) 여름 6월에 나에게 일러 글을 짓고, 이를 돌에 새기게 하였다. 왕의 이름은 장(璋)인데,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 도덕과 문장을 갖추었다. 그는 세조를 섬기게 되자 황제의 생질로서 세자가 되어 숙위(宿衛)로 입직하여 포상을 받았고, 성종(成宗) 때에는 뽑혀서 공주에게 장가들었다. 또 대덕 말년에는 지금 황제를 따라 내란(內亂)을 평정하였고, 무종(武宗)을 세우는데 공로가 있어서 추충규의협모좌운공신 개부의동삼사태자태사 상주국부마도위 심양정동행 중서성우승상(推忠揆義協謀佐運功臣開府儀同三司太子太師上柱國駙馬都尉瀋陽征東行中書省右丞相)으로 되어 고려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하였고, 지금 황제(원(元)인종(仁宗))의 즉위 책훈(策勳)으로 태위(太尉)를 더하였다.”

이 비문은 정거부(程鉅夫)¹⁸가 지은 것으로서 《설루집(雪樓集 정거의 저서)》중에 실려 있는데, 그 사연을 보아서 풍자의 말이 많았다. 대체로 외국 것을 저술한다고 빙자하여 약간 자기의 견해를 보인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에는 응당 실려 있지 않을 터이므로 이에 잘라서 그 대략을 소개해 둔다.

황량대(謊糧臺)

동악묘(東岳廟)를 한 5리 못 미쳐 황량대(荒涼臺)라는 곳이 있는데, 이는 글자가 그릇된 것이다. 《장안객화(長安客話 저자 미상)》에 보면,

“당 태종(唐太宗)이 고구려(高句麗)를 정벌할 때 일찍이 군사를 이곳에 주둔하고 거짓 창고를 설치하여 적국을 속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이 땅을 황량대(謊糧臺)로 불렀다.”

하니, 그 말이 옳을 것이다.

18 정거부(程鉅夫) : 원의 문학가 정문해(程文海). 거부는 자인데, 무종(武宗)의 이름을 휘해서 자를 이름으로 시행하였다.

호원이학지성(胡元理學之盛)

중국 이학(理學)이 융성하기는 원(元)의 때보다 지나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원이 개국하던 초기에 있어서 도사이면서 유학(儒學)을 논하고, 승려이면서도 유학의 행실을 남긴 것이다. 장춘진인(長春真人 구처기의 별호) 구처기(邱處機 원(元)의 도사(道士))의 자는 통밀(通密)인데, 등주(登州) 사람이며, 장춘은 그의 별호이다. 금(金)의 황통(皇統) 무진년(1148년) 5월 19일에 나서, 정우(貞祐 금(金)의 연호) 을해년(1215년)에 금주(金主)가 그를 불렀으나 듣지 않았고, 기묘년(1219년)에 송(宋)에서도 사신을 보내어 불렀으나 역시 일어서지 않았다. 이해 5월에 몽고 태조가 내만(奈蠻 몽고의 별부(別部))으로부터 근시를 시켜 손수 쓴 조서를 보내 초청을 하여 드디어 응하게 되었다. 철문관(鐵門關)¹⁹을 넘어 수십 나라를 거쳤으며 1만여 리를 걸어 황제를 설산(雪山)에서 보게 되었다. 그는 첫째, 천하를 통일하는 방법에는 살인을 좋아하지 않는 데 있다고 대답하였고 대규모의 사냥을 말리며 말하기를,

“하늘의 도는 살리기를 좋아한답니다.”

하고, 정치하는 방법을 물음에 대해서는,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사랑하여야죠.”

한다. 몸 닦는 도리를 물었더니, 그는,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적게 하옵소서.”

하고, 죽지 않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는, 그는,

“위생(衛生)하는 글은 있지만 장생할 약은 없소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황제가 그를 불러 자리에 나았을 때마다 황제를 권하는 말은 모두 자애와 효도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것이 어찌 도사의 입에서 나온 유가의 말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때에 몽고가 중원 땅을 유린하여, 하남(河南)과 하북(河北)이 더욱 심하였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살육을 당해도 목숨을 도피할 곳이 없었다. 구처기는 연경으로 돌아와서 그 문도를 시켜 통첩을 가지고 전쟁 중에

19 철문관(鐵門關) : 소련과 중앙아시아의 접경에 있는 관 이름.

유량하는 자들을 불러 구제하였다. 이로써 남의 종이 되었던 자로 양민의 신분을 되찾은 이도 있거니와, 죽을 지경에 있다가 갱생의 길을 얻은 이도 무려 2·3만 명이다 되었다. 이 이야기는 원사(元史) 중에 실려 있다. 또 해운 국사(海雲國師)의 이름은 인간(印簡)인데, 산서(山西) 영원(寧遠) 사람이다. 나이 열 살에 능히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여 많은 악당들을 감화시켰다. 그리하여 금 선종(金宣宗)은 그에게 통원광혜대사(通元廣惠大師)라는 호를 내렸다. 영원성이 함락되자 그의 스승인 중관(中觀)과 함께 붙들렸다. 원의 성길사 황제(成吉思皇帝)[원 태조(元太祖)]가 사신을 대사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늙은 장로(長老)도 젊은 장로도 모두 좋아.”

라고 하였다. 이로부터 세상에서는 모두 그를 젊은 장로라고 불렀다. 해운은 매양 당시 대관인(大官人) 홀도호(忽都護)에게 이르기를,

“공자(孔子)는 성인이니 마땅히 대대로 봉하여 제사를 받들게 할 것이요, 안자(顔子)와 맹자(孟子)의 후손과 주공(周公)과 공자의 학문을 배운 자는 모두 부역(賦役)을 면하고 그 학업에 종사하도록 할 일입니다.”

하매, 홀도호는 그 말을 좇았었다. 이것은 왕만경(王萬慶 미상)이 지은 구급탑(九級塔) 비문 중에 쓰여 있다. 이것이 어찌 승려로서 유가의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울러 여기에 적어 둔다.

배형(拜荊)

내가 일찍이 풍운현(豐潤縣)을 지날 때에 그 동북편에는 진왕산(秦王山)이 있는데, 다만 가시 덩불이 떨기로 나서 있었을 뿐이었다. 전설에 의하면,

“당 태종(唐太宗)이 진왕(秦王)으로 있을 때 이 산에 올라 가시나무를 보고 놀라서 말하기를,

‘이 가시나무는 우리 동리 훈장이 내게 글 구절 때는 법을 가르칠 때 쓰던 회초리다.’

하고는 말에서 내려 절을 하였는데, 그때 가시나무들은 모두 머리를 드리우고 옆 드리는 듯하였다.”

하는데, 지금에도 그 시늉을 내는 듯싶다.

환향하(還鄉河)

풍운(豐潤)과 옥전(玉田) 사이에는 환향하가 있다. 모든 물이란 물은 모두 동으로 흐르는 터인데, 유독 이 강만은 서쪽으로 흐른다. 《연산총록(燕山叢錄 저자 미상)》에 보면,

“송 휘종(宋徽宗)이 이 강 다리를 건너서 말을 멈추고 사방을 돌아보면서 처량하게 하는 말이,

‘이 물을 지나면 점차 큰 사막이 가까울 거야. 나는 어찌 이 강물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꼬.’

하고는 먹지 않고 갔다.”

하였고, 또 어떤 이는 이르기를,

“이는 석소주(石少主)가 이름 지은 것을 지금 사람도 그대로 부른다.”

하니 석소주라면 아마도 석진(石晉 석경당(石敬瑭)이 세운 후진(後晉)의 젊은 임금인 중귀(重貴 석경당의 아들)로서 역시 거란에게 포로가 되어 이 강을 건넌 것 이다.

계원필경(桂苑筆耕)

《당서(唐書)》예문지(藝文志) 중에,

“신라(新羅) 최치원(崔致遠)의 계원필경(桂苑筆耕) 4권.”

이란 글이 적혀 있으나, 뒷날 저서자들이 이 서목(書目)을 인용(引用)하였지마는

그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책이 없어진 지 필시 오래된 모양이다.²⁰

천불사(千佛寺)

밀운(密雲)으로부터 덕승문(德勝門)으로 들 제 길이 무척 길고 또 양 떼가 앞을 막아 더 갈 수 없어서, 드디어 말에서 내려 홍 역관(洪譯官) 명복(命福)과 함께 길가에 있는 천불사(千佛寺)에 들어서 잠시 쉬었다. 부처 앉은 자리를 천 개의 연꽃이 둘러싸고, 연꽃을 천 개의 불상이 둘러쌌다. 천존불(天尊佛) 24개와 18나한(羅漢)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바친 것이라 한다. 사실 유동인(劉同人 미상)의 《경물략(景物略)》 중에 실려 있지마는, 《녹수잡지(淥水雜識)》²¹중에는 이미 교응춘(喬應春 미상)의 비문을 의거하여 태감(太監) 양용(楊用 미상)이 주조(鑄造)하여 만든 부처라고 증명하였으나, 모를 일이다.

20 책이……모양이다. : 《계원필경》은 없어진 것이 아니었으나 다만 연암이 보지 못했던 것이다.

21 《녹수잡지(淥水雜識)》: 청(淸) 납란성덕(納蘭性德)이 지은 《녹수정잡지(淥水亭雜識)》의 약칭.

황도기략

황성구문(皇城九門)

북경(北京) 성의 주위는 40리인데 꼭 바둑판처럼 생겼다. 정남향은 정양(正陽)이요, 동남은 승문(崇文)이요, 서남은 선무(宣武)요, 정동은 조양(朝陽)이요, 동북은 동직(東直)이요, 정서는 부성(阜成)이요, 서북은 서직(西直)이요, 북서는 덕승(德勝)이요, 북동은 정안(定安)이라 부른다. 성 안에는 자금성(紫禁城)이 있어 주위는 17리인데 붉은 단장에 누런 유리 기와를 덮었고, 문에서 서북쪽을 지안(地安), 남쪽을 천안(天安), 동쪽을 동안(東安), 서쪽을 서안(西安)이라 부른다. 자금성 안은 곧 궁성이 되어 정남은 태청문(太淸門)이요, 제2문은 곧 자금성의 천안문(天安門)이요, 제3문은 단문(端門)이요, 제4문은 오문(午門)이요, 제5문은 태화문(太和門)이었으며, 뒤는 건청문(乾淸門)이요, 건청의 북쪽은 신무(神武)요, 동쪽은 동화(東華)요, 서문은 서화(西華)였다. 그리고 9개의 문루(門樓)는 모두 처마가 3겹이요, 문마다 웅성(甕城)이 붙어 있으며, 웅성에는 모두 2층 적루(敵樓)가 있고, 쇠로 짠 관문이 성문과 마주보고 섰고, 좌우에는 편문(便門)이 함께 있다. 그 정남쪽 1면은 외성(外城)이 되어 7문이 났으니 제도는 내성 9문과 같다. 정남이 영정(永定)이요, 남쪽 왼편이 좌안(左安)이요, 오른편이 우안(右安)이요, 동쪽이 광거(廣渠)요, 서쪽이 광녕(廣寧)이요, 광거의 동쪽 모퉁이 문은 동편(東便)이요, 광녕의 서쪽 모퉁이 문을 서편(西便)이라 한다. 지안문 밖에는 고루(鼓樓)가 있고, 고루의 북편에는 종루(鍾樓)가 있다. 각루(角樓)가 6개요, 수문(水門)이 3개다. 성을 두른 못 물은 옥천산(玉泉山)에서 발원을 하여 고량교(高粱橋)를 지나 물은 두 갈래로 흩어졌다. 한 갈래는 성 북쪽을 돌아 동쪽으로 꺾어 남으로 흐르고, 하나는 성의 서쪽을 돌아 남으로 꺾어 동으로 자금성에 들어 태액지(太液池)가 되었고, 이 물은 9문을 감돌아 9삼회(牐滙 수문(水門))를 지나서 대통교(大通橋)에 이르는데, 동서 언덕은 모두 벽돌과 돌로 쌓았다. 9문의 못 도랑은 모두 큰 둘다리를 놓았다. 외성의 못 물은 역시 옥천의 물이 갈라져 서각루(西角樓)에서 성을 감돌아 남으로 흘러서 또 동으로 꺾어 동각루(東角樓)까지 이르러 7문을 거쳐 동으로 운하(運河)에 들어간다. 각기 다리 하나씩 걸쳐 있다. 내성이 16개에, 네거리(坊)는 24방(坊)이 되었으되

태정문의 동쪽 방(坊) 부문(敷文)이요, 서쪽은 진무(振武)라 하고, 승문문 안의 맞은편 방은 취일(就日)이요, 선무문 안의 맞은편 방은 첨운(瞻雲)이요, 동대가(東大街)의 사패루(四牌樓)는 이인(履仁)이요, 서대가(西大街)의 사패루는 행의(行義)요, 태학(太學)의 동서로 마주보는 방은 성현(成賢)이요, 부학(府學)의 동서로 마주보는 방은 육현(育賢)이요, 제왕묘(帝王廟)의 동서로 마주보는 방은 경덕(景德)이라 한다. 바로 정양문을 나서 10리 밖 남교(南郊)에는 원구(圓邱)가 있고, 정안문 밖으로 곧장 10리를 가면 북교(北郊)가 되어 방택(方澤)이 있고, 조양문 밖을 줄곧 10리를 나가면 동교가 되어 해가 여기서 뜨고, 부성문 밖으로 줄곧 10리를 나가면 서교(西郊)가 되어 달 지는 데가 여기다. 태묘(太廟)는 대궐의 왼쪽에 있고, 사직(社稷)은 대궐의 오른쪽에 있고, 육과(六科)는 단문의 좌우에 있으며 육부(六部)와 백사(百司)는 태청문 밖 좌우에 있다. 내가 이미 중국으로부터 돌아와 지난 곳을 매양 회상할 제 모두가 감감하여 마치 아침 놀이 눈을 가리는 듯하고, 침침하기는 마치 낮을 잃은 새벽 꿈결인 양 싶어서 남북의 방위를 바꾸기도 하고 명목과 실상이 헝클어지기도 하였다. 하루는 정석치(鄭石痴)¹로 하여금 《팔기통지(八旗通志 저자 미상)》에서 〈황성일피도(皇城一披圖)〉를 내어 달라 하여 보니 성지·궁궐·가방(街坊)·부서(府署)들이 손금을 들여다보는 듯하고, 지상(紙上)에서 마치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기에 드디어 요긴한 대목을 추려 권수(卷首)에다가 기록하고 ‘황도기략(黃圖紀略)’이라 이름하였다. 대체로 북경의 제도가 앞은 조정이요, 뒤는 저자요, 왼편은 종묘(宗廟)요, 오른편은 사직이요, 9문이 바르고 9거리가 곧아서 한 번 도성이 바르자 천하가 바로잡힘을 볼 수 있었다.

1 정석치(鄭石痴) : 연암의 친구 정철조(鄭詰祚)의 호.

서관(西館)

서관(西館)은 첨운패루(瞻雲牌樓) 안의 큰 거리 서쪽 백묘(白廟)의 왼쪽에 있다. 정양문 오른쪽에 있는 것은 남관(南館)이라 하니 모두 우리나라의 사관(使館)이다. 동지사(冬至使)가 먼저 남관에 들었을 때 별사(別使)가 뒤미처 오게 되면 이 관에 나누어 든다. 혹자는 이르기를,

“이 집은 죄과로 몰수당한 것이다.”

한다. 앞 담이 10여 칸인데 벽돌로 모란을 새겨 쌓아 알쏭달쏭 물린 무늬가 영롱했다. 정사(正使)는 정당(正堂)에 거처하고 가운데 뜰에는 동서 양당이 있어 부사와 서장관이 나누어 거처하고 나는 전당(前堂)에 거처하였다.

금오교(金龍橋)

태액지(太液池)를 걸쳐 돌다리를 놓았는데 동서가 2백여 보요, 양쪽엔 백옥 난간을 세웠고, 가운데는 두 자를 더 높여서 길을 닦았고, 양 옆 협도에는 겹 난간을 만들어 난간 머리에 새긴 짐승 대가리는 모두 4백 80여 개나 되었다. 모두가 저만큼 모양을 달리하여 하나도 같은 것이 없었다. 다리의 양쪽 끝은 두 방(坊)이 마주 섰는데, 서쪽이 금오요, 동쪽이 옥동(玉蠓)이다. 거마는 문 어귀에 들어차서 울부짖고 수많은 유람객은 몹시 복잡하였다. 호수 물결은 햇빛 아래서 반짝이고 티끌 하나 없는데 북쪽으로는 오룡정(五龍亭)이 바라보이고 서쪽으로는 자금성이 바라다 보였다. 깊은 숲은 자옥한데 층층 누각과 겹겹 궁전이 서로 가리고 마주 비치어 있고, 5색 유리 기와는 햇빛에 따라서 밝았다 어두웠다 한다. 백담사(白塔寺)의 부도(浮屠)와 정각들의 황금 호로병(葫蘆瓶) 꼭대기는 때로 나무술 위로 솟아 있고, 수풀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하늘 빛은 파란데, 맑은 아지랑이는 보는 사람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만들어 마치 늦은 봄 날씨만 같았다.

경화도(瓊華島)

태액지 복판에 있는 섬을 경화(瓊華)라고 부른다.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에 의하면, “요 태후(遼太后)가 화장하던 대(臺)이다.”

하였고, 원 순제(元順濟)는 영영(英英 미상)을 위해서 채방관(采芳館)을 이곳에 짓고 섬까지 돌다리를 걸쳐서 놓았는데, 제도는 금오교와 같았다. 다리 두 끝에는 역시 두 방(坊)을 세웠는데, 퇴운(堆雲)과 적취(積翠)라고 불렀다. 더러는 이르기를, “이 다리의 이름은 금해교(金海橋)라고 부른다.”

한다. 호수 위에는 축대가 있어 웅성(甕城)과 같이 생겼고, 축대 위에는 전각이 있는데 푸른 일산 같았다. 다리 위에 서서 금오교를 보니 행인과 거마들이 인간 세상과는 달라 보였다. 축대 아래는 금(金) 나라 때 늙은 소나무가 있어서 명(明)의 가정(嘉靖) 연간에 녹봉을 내리고 호를 도독송(都督松)이라 불렀다. 이 솔을 전나무라고도 하고, 혹은 노송나무라고도 했다. 명과 청(淸) 사이에 많은 시구들을 남겨놓았다. 지금은 모두 꺾어져 없어지고 다만 2그루의 썩은 나무둥치만 남아 빛은 허영고 무슨 나무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다.

토원산(兔園山)

토원산(兔園山)은 일명 토아산(吐兒山)이다. 높이는 불과 5,6길이요, 둘레는 겨우 1백여 보이다. 깎은 주춧돌이 군데군데 놓여 옛날 전각의 축대 같기도 했다. 안으로는 흙을 쌓아 산을 만들고, 바깥에는 빙 둘러 태호석(太湖石)을 세워 알쏭알쏭 뚫어진 구멍이 영롱하게 푸를 뿐, 다른 빛깔은 섞이지 않았다. 높이는 모두 한 길 남짓 되는데 돌로서는 아주 다시 없을 만큼 이상하게 생긴 것이다. 돌을 쌓아 작은 굴을 만들었는데 양쪽 머리에는 모두 홍예문(虹霓門)을 달았다. 굴을 빠져 나오면 또 괴석으로 길을 끼고 달팽이집처럼 틀어 올려 봉우리를 만들어 굽이굽이 돌도록 하였으며, 그 위에는 몇 칸 정자를 세워 대궐을 굽어보도록 하였다. 또 다리 몇 10

보를 가면 돌로 만든 용이 머리를 쳐들었고, 그 아래로는 네모난 연못이 있다. 벽돌로 도랑을 내어 구불구불 틀어지게 하였는데, 이는 흡사 유상곡수(流觴曲水)² 자리인 것만 같다. 그러나 기계를 돌려 물을 끌어대던 물건은 하나도 남은 것이 없었다. 산 앞에는 돌 평상과 옥 바둑판이 있고, 또 수십 보를 더 가니 3층으로 된 둥근 축대가 있는데 그 모양이 맷돌과 같았다. 그 아래에는 갓 허물어진 전각이 있었다. 산 속에 있는 돌이란 돌은 모두가 곳곳이 서서 기울어진 놈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허물어진 담장과 부서진 기와는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다. 내가 듣기로는, “황제가 일찍이 서산(西山)에서 토목의 역사에 사치가 궁극하였다.” 하는데, 유독 이곳은 금원(禁苑)의 지척에 있건마는 전혀 수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황산과 폐허나 다름없이 두었음은 과연 무슨 까닭일까.

만수산(萬壽山)

태액지를 파서 산을 만든 것이 곧 만수산(萬壽山)인데 또는 매산(煤山)이라고도 한다. 산 위에는 3층 전각이 있고 4개 법륜간(法輪竿)을 세웠으니, 여기가 명(明)의 의종렬황제(毅宗烈皇帝)가 순국(殉國)하던 곳이다. 나는 항주(杭州) 사람 육가초(陸可樵)와 이면상(李冕相) 등을 오룡정(五龍亭)에서 만났다. 두 사람이 함께 처음으로 북경에 와서 길을 모르고 헤매는 것은 나나 다름 없었다. 그들은 다만 옛 사람의 기록에 의거하여 때때로 이것을 옷주머니 속에서 자주 끄집어내어 보면서 때로는 서로 보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돌이 마주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였으니, 대체로 그들은 옛날 기록을 뒤적거려 보다가 맞힐 때도 있고 맞지 않을 때도 있고 한즉, 스스로 기뻐할 적도 있으려니와 또 놀랄 때도 없지 않았던 것이었다. 저들은 중국 사람이지만 보고 들은 것이 서로 틀리고, 옛 기록이 때로는 이같이 착오와 거짓이 있거늘 하물며 나 같은 외국인일까보나, 나도 이 때문에 나 자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내가 처음은 만세산(萬歲山)을 만수산으로만 알았던 것이다. 대체

2 유상곡수(流觴曲水) : 술잔을 물에 띄워 돌려 가면서 마시도록 한 놀이터.

로 중국 발음으로 만(萬)을 ‘완’이라 하고 세(歲)는 ‘수(秀)’와 ‘쇄(灑)’의 변절(翻切)인 ‘썬이’이기 때문에, 만수나 만세는 음과 뜻이 함께 비슷하고 보니 산 하나를 두고 두 이름을 붙이게 된 줄로만 알았더니,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기록을 상고해 보면 과연 같은 산이 아니었다. 며칠 전에 구경한 토원산과경화도가 곧 만세산이다. 비하자면 사람이 자리를 마주 앉아 얼굴을 보고 이름을 물어서 각각 서로 분간해 아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만세산은 금(金)의 사람들이 송(宋)의 간악(艮嶽)을 손수레로 실어 옮겨 만든 것으로 당시에는 ‘절량석(折糧石)’이라 불렀었다. 원 세조(元世祖)는 그 위에 광한전(廣寒殿)을 두었으니, 명 선종(明宣宗)의 어제(御製) 광한전기(廣寒殿記)가 바로 이것이다.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때에 원(元)의 태자(太子)는 고려 찬성사(贊成事) 이공수(李公遂)를 광한전에서 불러 보았다 하였으니 곧 이 만세산이다. 또 고려 원종(元宗) 5년(1264년) 9월에 왕은 연경으로 와서 10월에 만수산 옥전(玉殿)에서 황제를 작별했고, 또 신사전(申思佺)은 만수산 옥전을 두루 구경했다고 하였으나 다만 옥전이라고만 말하고 전각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만수산이라 불렀은즉 소위 옥전은 광한전이 아님은 분명하다. 수황정(壽皇亭)을 구경하고자 했으나 파수꾼이 들어놓지를 않았다. 알지 못하겠다. 정자는 지금도 남아 있는지. 어허, 서글픈 일이로구나.

태화전(太和殿)

태화전(太和殿)은 명(明) 때 옛 이름으로 황극전(皇極殿)이다. 3층 지붕에 9층대 뜰이요, 지붕은 누런 유리 기와를 이었다. 월대(月臺)는 3층이요, 높이는 각각 한 길이요, 매층에는 백옥으로 난간을 둘렀는데, 모두 용과 봉을 아로새겼고, 난간 머리에는 모두 이무기 대가리를 새겨 밖으로 향했다. 축대 위에는 쇠로 만든 학을 세워 훨훨 날아가는 것만 같았고, 첫 축대 난간 속에는 솔 8개를 벌여 놓았고, 둘째 축대에는 난간 모서리를 마주 대하여 솔 2개를 놓았고, 셋째 축대 난간 속에는 난간을 사이에 끼우고 각각 솔 1개를 마주 놓았는데 솔의 높이는 모두 한 길 남짓 되

었다. 뜰에는 역시 술 30여 개를 늘어놓았는데 그 물색의 뛰어난 귀신 같은 솜씨는 옛날의 구정(九鼎)³이 혹시 이곳에 있지 않겠는가 하였다. 태청문으로부터 백옥 난간을 연이어 굽이굽이 틀어 태화전까지 닿았다. 또 난간은 태화전을 빙 둘러 중화전(中和殿)과 보화전(保和殿)까지 이르러 모양이 마치 아자(亞字)처럼 되었고, 전 앞의 동쪽 전각은 체인(體仁)이요, 서쪽 전각은 ‘홍의(弘義)’라 부른다. 축대의 높이는 거의 태화전 섬돌과 높이가 같으나 다만 한 층대에 한 난간일 뿐이다. 대체로 태화전은 천자가 정치를 하기 위하여 나가 앉는 곳으로 그리 크고 높지도 않게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보았다. 그들의 의견들도 모두 비슷하여 매우 의아했더니 수역(首譯)이 웃으면서,

“이는 다름이 아니외다. 지금까지 거처온 수천 리 어간의 성읍과 민가가 이처럼 장려했고 사찰과 궁관이 굉장히 사치했고 본즉, 보는 안목은 날로 사치해지고 마음과 뜻은 점차 넓어져 태화전을 보기 전에 벌써 머리 속에는 청양(靑陽 주(周)의 궁전 이름)과 옥엽(玉葉 주(周)의 궁전 이름) 같은 큼직한 명당(明堂)들이 천자의 좌기하는 곳이라라고 생각했었고, 또 지금 좌우 낭무(廊廡)로부터 갑자기 태화전을 보니 그렇게 색다르게 보이지 않으므로 도리어 어리둥절해져서 예상과 틀리게 보였을 뿐입니다. 사람에게 비한다면 요(堯)와 순(舜)도 역시 보통 사람과 같지마는 만일에 좌우에 보필할 신하로서 원(元)⁴과 개(愷)⁵ 같은 여러 대신이 없이 구차하게 직위를 채울 자로서 모두가 망나니와 나무꾼 따위뿐이라면 아무리 요 · 순과 같은 성인이 있어서 해 · 달 · 별 · 산(山) · 용(龍) · 꿩 · 분미(粉米) · 마름 · 불 · 범새끼 · 보(蒲) · 불(苐)⁶ 등의 갖은 무늬를 수놓은 복장을 하고 영롱한 광채를 휘날리며, 겹눈동자⁷를 꿈벅거린다 하더라도 저 혼자서 우뚝 서서 어떻게 그 높고도 넓

3 구정(九鼎) : 하우(夏禹)가 만든 황금 술, 구주(九州)를 상징하였다.

4 원(元) : 중국 상고 때 고신씨(高辛氏)의 재자(才子) 여덟 사람으로서 백분(伯奮) · 중감(仲堪) · 숙헌(叔獻) · 계중(季仲) · 백호(伯虎) · 중웅(仲熊) · 숙표(叔豹) · 계리(季狸).

5 개(愷) : 고양씨(高陽氏)의 재자 여덟 사람으로서 창서(蒼舒) · 궤계(隤猷) · 도인(濤戡) · 대림(大臨) · 방강(彪降) · 정견(庭堅) · 중용(仲容) · 숙달(叔達).

6 해 · 달……불(苐) : 여기의 12가지는 천자의 옷에 수놓은 12장(章).

7 겹눈동자 : 전설에 순(舜)의 눈동자가 둘이라 하였다.

은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찰과 궁관은 당(唐)·우(虞) 시대의 악(岳)·목(牧)⁸에 비한다면, 족히 제후(諸侯)의 조공을 받아서 천하를 지닐 수 있을 것이요, 여염과 시전들은 강(康)·구(衢)⁹의 백성들에 비해서 즐비하게 들어찬 연후에야 비로소 황제가 거처하는 곳의 평결한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3겹 지붕과 아홉 층대의 뜰과 누른 기와는 일반 백성들로서는 참람히 하지 못할 물건이며, 기타 궁전의 제도도 모두 태화전을 본뜨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은 곧 태화전을 가장 사치하게 꾸민 까닭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태화전 역시 오막살이 초가집이나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다. 나는,

“자네 말과 같다면 요·순이 결(桀)·주(紂)를 겸한 연후에야 비로소 뽐낼 만한 천자가 되겠구먼.”

하였더니, 옆에서 듣는 자들이 모두 크게 웃곤 하였다.

체인각(體仁閣)

내무부(內務府)의 관원이 통관(通官)과 함께 우리 역관을 안동(眼同)하여 우리나라에서 바치는 자주(紫紬)와 황저(黃紵)를 체인각에다 살펴 받아들였다. 때마침 각로(閣老)로 있던 이시요(李侍堯)의 가산을 몰수해 들이고 있었다. 시요는 운귀총독(雲貴總督) 해명(海明)으로부터 금 2백 냥을 받은 뇌물 사건으로 인하여 가산을 몰수당하게 된 것이다. 중국은 안팎으로 대소와 귀천이 없이 모두 일정한 봉급과 보수가 있지만은 지방관에 이르러서는 복잡하고 시끄러워 일정한 제도를 만들기 어려웠다. 만일 정한 금액 외에 사사로이 부과한 세금이 있든지, 혹은 뇌물을 받은 사건이 탄로되면 이를 추궁하여 비록 털끝만 한 범죄의 사실이 있더라도 뇌물과 살림을 모조리 몰수하고, 다만 관직만은 박탈하지 않기 때문에 벌거숭이로 직위에

8 악(岳)·목(牧) : 당시 제후(諸侯)인 4악(岳)과 2목(牧).

9 강(康)……구(衢) : 강은 5달(達)의 길이요, 구는 4달의 길이다.

있으므로 처자는 의지할 곳 없이 유리하게 된다. 이 법은 대개 명(明)의 옛 법으로서 더욱 엄격해졌던 것이다. 내무부의 관원이 마주 앉아서 받아들이는데 다른 물건은 없고 모두 부인네들이 입은 초피(貂皮) 갓옷 2백여 벌로 그 중 한 벌은 매우 길고 털 가장자리에는 금으로 용틀임 수를 놓았었다.

문화전(文華殿)

옹화문(雍和門)을 나서면 한 전각이 있는데 문화(文華)라고 부른다. 누런 유리 기와 지붕이다. 명(明)의 고사(故事)에 의하면,

“문화전 동쪽 방에는 9개 신주함을 만들어 놓고 복희(伏羲) · 신농(神農) · 황제(黃帝) · 요(堯) · 순(舜) · 우(禹) · 탕(湯) · 문(文) · 무(武) 등을 모시고 왼쪽 함 1개에는 주공(周公)을, 오른쪽 함 1개에는 공자(孔子)를 각기 모셨다. 매일 천자가 문화전에 나와 강의 좌석을 베풀고는 먼저 한 번 절하고, 세 번 조아리는 예를 행하고, 각로와 강관은 축대 위 돌 난간 원편에 서서 기다린다. 그러다가 승지(承旨)가 ‘선생님 dipsin.’라는 창(唱)을 하면 각로와 강관들은 고기를 꿔미에 꿔듯이 한 줄로 열을 지어 뒤를 따라 들어와 반을 나누어 자리에 둔다. 이때는 여러 가지 대궐에서 쓰는 까다로운 예절을 생략하고 강의하는 신하가 책상에 기대도록 편리를 보아 준다.”

하였다. 알지 못하겠다. 요즘에도 강의하는 좌석에서 이런 예법을 지키는지.

문연각(文淵閣)

문화전 앞에 있는 전각을 문연(文淵)이라 부른다. 여기는 천자가 장서(藏書)를 하는 곳이다. 명(明)의 정통(正統) 6년(1441년)에 송(宋) · 금(金) · 원(元) 때의 모든 책들을 합하여 목록(目錄)을 만들었는데 모두 4만 3천 2백여 권이라 하였다. 그

뒤에 또 《영락대전(永樂大全)》¹⁰의 2만 3천 9백 37권을 더 보태게 되었다 한다. 만 일 그 뒤 다시금 근세에 와서 간행된 《도서집성(圖書集成)》¹¹과 지금 황제가 수집한 《사고전서(四庫全書)》¹²를 더 보태었다면 아마도 서고는 다 차고 밖에 노적을 해 두었을 것만 같다. 문을 채웠으므로 간신히 주름 틈으로 대강 전각의 웅심함을 바라보았으나 천자의 풍부한 장서는 한 번도 엿보지 못하였으니 매우 한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겠다. 일찍이 듣건대,

“옛날 우리나라 소현세자(昭顯世子)가 구왕(九王)을 따라 이 전각에 묵었다.”
한다. 구왕이란 곧 청(淸)의 초기 예친왕(睿親王)다이곤(多爾袞)이다.

무영전(武英殿)

협화문(協和門) 밖에 무영전(武英殿)이 있다. 제도는 문화전과 다름없었다. 옹화문(雍和門)과 서화문(西華門)이 서로 곧장 마주 대하고, 협화문과 동화문(東華門)이 서로 마주 대했는데, 무영전 앞에는 무연각(武淵閣)이 있다. 대체로 전각의 대문과 단장들은 어디고 서로 마주 대쪽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뜰의 척수도 반드시 서로 맞아 조금도 차가 없었다. 황강한(黃江漢)경원(景源)¹³의 <배신전(陪臣傳)>에는,

“승정(崇禎) 갑신년(1644년)에 살합렴(薩哈廉)이 수도에 들어와 명(明)의 문무관의 조하(朝賀)를 무영전에서 받았다.”

라고 하였지마는, 이는 잘못 전한 일이다. 살합렴은 곧 패륵(貝勒) 황족(皇族)이란 뜻의 만주 말)인데 《시호록(諡號錄 저자 미상)》에 보면,

“살합렴의 시호는 무의(武毅)다.”

하였으니, 문무관의 조하를 이 전각에서 받은 자는 곧 다이곤(多爾袞)이요, 살합렴

10 영락대전(永樂大全) : 명 성조(明成祖) 때에 칙명에 의하여 엮은 유사(類書).

11 도서집성(圖書集成) : 청조(淸朝)의 칙명에 의하여 엮은 총서(叢書)인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12 사고전서(四庫全書) : 청 건륭제(淸乾隆帝)의 칙명에 의하여 엮은 총서.

13 경원(景源) : 조선 영조(英祖) 때의 유신(儒臣). 강한은 호요, 경원은 이름. 자는 대경(大卿).

은 아니다. 갑신 3월에 이자성(李自成)이 수도(북경)를 함락시키자 이해 5월에 다 이곤이 수도에 들어갔으니 이때는 명이 망한 지 한 달쯤밖에 안 되어서 우리나라 하급 관리로서 무영전의 화려한 땃돌을 볼 때에 박쥐의 똥만 남아있을 뿐이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쳐다보았다고 한다. 이제는 역졸과 마부들이 전각에 미어지라고 들어와 마음대로 유람을 하고 있다. 그들은 비록 당시의 광경을 잘 모를 터이지만는 모두 청인(淸人)의 붉은 모자와 마제수(馬蹄袖)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가 없었으며 제 스스로 의복이 남루한 줄 알면서 오히려 비단옷 입은 자들과 함께 버티고 서서 조금도 부끄러운 티가 없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소위 존화(尊華)·양이(攘夷)하는 대의가 하급 노예에게도 뿌리 깊게 박혔으며 양심에서 나온 이념이 모두 같다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경천주(擎天柱)

오문(午門) 밖 좌우에는 몇 길 되는 돌 사자를 세워 두었고, 단문(端門) 안 좌우에는 큰 돌 거북을 앉혀 두었고, 그 위에다가 6모 난 돌 기둥을 세웠다. 기둥 높이는 예닐곱 길은 되고, 기둥 몸에는 용 무늬를 둘러 새겼다. 기둥 머리에 얹힌 물건은 무슨 형상인지 알아낼 수 없으나 모두 무엇을 잡아 치는 형상이며, 천안문(天安門) 밖에도 역시 이런 것이 한 쌍 있었는데 아마도 돌문인 듯싶다.

어구(御廩)

황실의 말을 먹이는 마방은 전성문(前星門) 밖에 있다. 동서로 나무 울짙을 세워서 문을 만들었다. 말은 불과 3백여 필밖에 안 되는데 모두 굴레를 벗고 제멋대로 있었다. 마침 대낮이 되어 말먹이꾼들이 울타리를 열고 채찍을 쳐들어 부르는 시늉을 하면서 지휘를 하니 동서 양쪽 마굿간으로부터 말들이 일제히 나와 머리를 가

지런히 하고 좌우로 갈라섰다. 북쪽 담장 밑에는 큰 우물이 있고, 우물가에는 커다란 돌 구유가 있었다. 사람 둘이 기계를 돌려 물을 길어 계속 구유 속으로 푼다. 말먹이꾼은 채찍으로 말들을 10마리씩 한 무리로 갈라 순서대로 들어가 물을 마시게 했다. 앞 대열이 일제히 마시고 일제히 물러나오니 뒷 대열이 이어 나가 감히 서로 앞서려고 다투는 법도 없이, 들어가는 때는 오른쪽으로, 나오는 때는 왼쪽으로 제 발로 마굿간으로 들어갔다. 나는,

“도대체 천자의 말이 이것뿐이나.”

하고 물었더니, 말먹이꾼은 웃으면서,

“천자는 만승(萬乘)이라 일컫는답니다. 서울이나 지방에 살고 있는 웬만한 부잣집이라도 이만한 수효는 가지고 있는 터에 하물며 만승천자이겠습니까. 창춘원(暢春園)·원명원(圓明園)·서산(西山) 등지까지 치면 모두 1만 마리는 될 것입니다. 황제의 장원인 남해자(南海子)에도 역시 천리마(千里馬)가 있답니다. 이제는 천자께 업서 거동을 했기 때문에 말들은 모두 준화주(遵化州)로 가고, 여기 남아 있는 말들은 모두 늙고 병들어 타기가 어려운 것들로 단문(端門) 앞에 의장으로나 설 만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모두 나이는 6·70살씩은 됩니다.”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중에서 누런 말 한 필을 가리키면서,

“이 말의 나이는 백세 살 났습니다.”

하면서, 그 입술을 열어 보이는데 이가 단 두 개만 남아 여물을 못 먹은 지가 벌써 30여 년이라 한다. 낮에는 좋은 막걸리 두 동이를 먹이고 아침저녁에는 엿밥과 보릿가루 두 되를 소주에 섞어 주면 구유에 대고 훑아 먹곤 하여 한 달에 삼품(三品)의 급료를 받는다고 한다. 황제가 때로 어찬을 내리면 반드시 두 무릎을 꿇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옹정(雍正) 때에도 오히려 하루 천 리를 갔다고 한다. 말의 털빛으로 보아서 정결하고 윤기가 흘러 그리 많이 늙어 보이지는 않았으나, 다만 눈이 작고 눈곱이 끼고 두 눈동자는 맑고 푸르러서 말갈(靛鞮) 사람 같았다. 두 눈썹에는 터럭 5·6개가 남아 풀기 없이 늘어졌고, 귓속의 흰 털이 바깥까지 나와 갈기처럼 되었다. 그러나 정강이만은 다른 말들보다는 아주 커서 젊었을 때는 힘이 세었을 것이 상상되었다. 말먹이꾼의 눈치가 나에게 선물이라도 많이 바라는 것만 같고,

얼굴 생긴 꼴이 완악하고 더럽게 되먹은 것으로 보아 이 자가 하는 말을 믿어도 될 지 모를 일이다. 해마다 삼복(三伏)에는 한낮에 귀인들이 임금 타는 식의 수레 차림으로 어마감(御馬監)이 관리하는 말들을 인도하여 덕승문(德勝門) 밖 적수담(積水潭)에서 목욕시킨다.

오문(午門)

오문(午門)은 홍예문(虹霓門)이 셋으로 깊기가 굴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되어 여럿이 떠드는 소리가 마주 쿵쿵 울려 요란하게도 웅성거렸다. 다리 5개는 모두가 백옥 난간이었다.

묘사(廟社)

6과(科)는 단문(端門) 안에 있고, 6부(府)와 백사(百司)는 태청문(太淸門) 밖에 나누어 두었으니, 이것을 전조(前朝)라 하며, 태액지(太液池) 북쪽의 신무문(神武門) 안을 후시(後市)라 한다. 종묘(宗廟)는 대궐 왼편에 있고, 사직(社稷)은 대궐 오른편에 있어 전후와 좌우의 배치와 설비가 균형이 잡혔으니, 이래서 임금으로서의 제도가 갖추어지는 것이다. 일찍이 《유구기략(綏寇紀略 청 나라 오위업(吳偉業) 저)》을 보니 이르기를,

“송정(崇禎) 16년(1643년) 5월 북경서 붉은 비가 내리면서 하룻밤을 새도록 우레와 번개가 번쩍였고, 태묘(太廟)의 신주가 거꾸러지고 보정(寶鼎)과 이기(彝器)들이 모두 녹아 내렸다.”

하였고, 또,

“6월 23일 밤에는 벼락이 봉선전(奉先殿) 묘문(廟門)에서 일어나 쇠 문고리가 모두 용의 발톱에 녹았고 묘 앞에 있는 돌 위에는 용의 누운 흔적이 났다.”

하였으니, 아아, 슬프도다. 갑신년(1644년) 이자성(李自成)의 난리는 천고에 없었던 것으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종묘가 뒤흔들리면서 드디어 각라씨(覺羅氏)¹⁴의 판이 되고 말았으니 어찌 이 같은 큰 변고가 없었을 것인가.

전성문(前星門)

체인각(體仁閣)으로부터 협화문(協和門)을 나와 동화문(東華門)을 곧장 마주 보면 전각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文華)요, 그 동쪽에 있는 문을 전성(前星)이라고 한다. 푸른 유리 기와로 이엉을 하였고 대문 안에는 또 겹문이 있었으나 모두 쇠를 채웠다. 겹문 안은 모두 푸른 기와집이었는데 이것만 보아도 태자(太子)가 거처하는 궁전임을 알 수 있다. 혹자는 말하기를,

“태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전심전(傳心殿)이라 하고 그 뒤에는 활 쏘는 정자가 있는데, 쇠로써 빗돌을 만들어 청(淸) 황실 조상의 교훈을 새겨 문었으므로 아무도 감히 이곳까지 이르는 자가 없다.”

한다. 또 전설에 의하면,

“강희(康熙)가 임금 자리에 오래 있게 되자 태자는 궁에서 일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세상에 미리 세운 태자가 있을 수 있으랴.’ 하며 빈정거렸다. 이 말이 새어나자 태자는 폐출되었고 이로부터 태자를 미리 세우지 않았다.”

한다. 옹정(雍正) 원년(1723년) 8월 17일에 조서를 내리기를,

“우리 성조인황제(聖祖仁皇帝)께옵서 나라를 위하시어 삼가 짐(朕)을 택하여 작년 11월 13일에 황위를 계승케 하셨다. 이는 말 한 마디로 국가의 대계를 정한 것이다. 나라의 내외를 불구하고 짐을 기쁘게 받들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날 성조가 두 형님의 일¹⁵로 인하여 몸소 걱정을 매우 하신 것은 천하가 다 들어 아는 바이다. 오늘 짐은 여러 아들들이 아직 어려서 반드시 근심해야 될 것이므로 이 일을 친히

14 각라씨(覺羅氏) : 청 황제의 성 애신각라씨(愛新覺羅氏).

15 두 형님의 일 : 태자를 두 번 세웠다가 폐한 일이 있었다.

기록하여 단단히 봉한 뒤 건청궁(乾淸宮) 중에 있는 세조장황제(世祖章皇帝)의 친필인正大光明(正大光明)이라는 현판 뒤에 간직해 두었으니 곧 여기는 궁중에서는 제일 높은 곳으로 이로써 불의의 걱정을 막는 준비로 삼는다. 따라서 여러 왕들과 대신들에게 이르노니 모두가 함께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부 주사(禮部主事) 육생남(陸生楠)은 소(疏)를 올려 태자를 미리 세우기를 청했으나 옹정은 조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준절히 꾸짖었다.

“태자를 미리 봉하지 않는 법은 곧 우리 황가에서 대대로 내려 오는 법이 아니겠는가. 황자들로 하여금 각기 저마다 효도하고 우애하고 공손하고 검소함에 힘쓰도록 할 것인 바 이래서 천명을 기다릴 뿐이요, 형제간에 시기와 참소와 간특을 끊게 되는 것이다. 이 법이야말로 만대를 통하여 오래 두고 쓸 아름다운 법도이다. 명의 간신 왕석작(王錫爵)이 태자를 세울 것을 청원하여 어진 태자를 세우지 않고 천계(天啓 명(明) 희종(熹宗))를 세워 필경 천하를 망쳤으니 네가 왕석작을 본받을 것이냐.”

하였다. 이로부터 천하에서는 감히 또 다시금 태자를 미리 세우자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하였으니, 전성문이 닫힌 지도 곧 백 년이 될 것이다.

오봉루(五鳳樓)

태화전(太和殿) 앞 뜰의 면적은 거의 수백 보요, 한 길 남짓 되는 축대 위에는 백옥 난간을 둘렀고, 그 위에 태화문(太和門)이 섰다. 문은 3층 처마에 누른 기와를 이었으니 이것을 오봉루(五鳳樓)라고 부른다. 황제가 큰 조회를 할 때 태화전에 거둥하여 나와 앉으면 흠천감(欽天監) 기상대(氣象台)의 장은 시간을 아뢰는 북을 누각 위에 설치하고 교방사(敎坊司) 음악을 맡은 관서)는 중화소악(中和韶樂)을 누각의 동서에 배설한다. 통관 서종현(徐宗顯)의 말을 들으면,

“조회를 할 때는 금의위(錦衣衛) 황제의 의복과 기구를 맡은 관서)는 노부(鹵簿)와 의장(儀仗)을 태화전 뜰 동서에 벌이어 북향케 하고, 길들인 코끼리를 오봉루 아래

동서로 마주 대하여 세우며, 천자가 타는 수레들을 태화문의 뜰 북판길에 북향으로 세우고, 어마감(御馬監 황제의 말을 기르는 관서)은 의장마를 벌여 세우며, 금오위(金吾衛 궁중 경비군)와 운휘사(雲麾司 황제의 거동 때 의장을 맡은 관서)는 갑사(甲士)와 의장과 쇠북을 태화문 밖 오문(午門) 안 뜰에 벌여 세우고, 수도를 수비하는 장교 7만 명이 길을 끼고 깃대를 세우고 바둑판 같은 거리를 호위 경계한다. 백관은 단문(端門) 안 경천주(擎天柱) 아래서 시간을 기다리다가 오봉루 속에서 북 소리가 처음 울리면 백관이 반열을 정비하고, 북이 두 번째 울리면 반열을 나누어 태화문의 좌우 협문을 통하여 한 줄로 늘어서 들어온다. 황제가 탄 수레는 보화전(保和殿)으로부터 중화전(中和殿)을 거쳐 태화전으로 드는데 길잡이하는 시위는 9개의 옥새(玉璽)와 인부(印符)를 받들고 앞서 간다. 풍악은 비룡인지곡(飛龍引之曲)¹⁶을 아뢰고, 대악(大樂)은 풍운회지곡(風雲會之曲)¹⁷을 아뢴다. 이 때야 여러 문을 한목으로 열면 곧장 바로 정양문(正陽門)까지 툭 터져 내다보인다. 안팎이 먹줄로 친 듯 바르고 조금도 굽은 데가 없다. 오봉루 속에서 연주하는 경황도(慶皇都 악곡 이름)와 희승평(喜昇平 악곡 이름) 등의 음악은 마치 하늘에서 울려 오듯 들린다.”

한다. 또 예로부터 전해 오는 이야기에,

“숭정(崇禎) 초년에 오봉루 위에서 하늘이 내린 글이라고 누런 보자기 열 벌을 얻었는데 바깥 제목에는 천계(天啓)는 7년, 숭정은 17년, 복왕(福王)은 1년이다.”¹⁸라고 씌였으니, 이것은 비록 요언(妖言)이라 하더라도 이같이 큰 나라 왕조의 성쇠에 있어서 어찌 하늘이 정한 명수가 없을 것인가.

16 비룡인지곡(飛龍引之曲) : 악곡 이름. 황제가 보위(寶位)에 오름을 축하하는 곡조.

17 풍운회지곡(風雲會之曲) : 악곡 이름. 임금과 신하가 서로 제회(際會)를 얻음을 노래한 곡조.

18 천계(天啓)……1년이다 : 천계는 7년 만에 끝나고, 숭정은 17년 만에 끝나며, 복왕은 1년 만에 끝난다는 의미이다.

천단(天壇)

천단(天壇)은 외성(外城) 영정문(永定門) 안에 있다. 담장의 주위는 거의 10리쯤 되고 그 기반은 세 급(級)으로 되어 그 위로는 능히 말이라도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안에는 원구(圓邱)가 있는데 제1층단의 넓이는 백여 보나 되고 높이는 넉넉히 한 길 남짓이나 되며, 단의 바닥은 모두 푸른 유리 벽돌을 깔았다. 난간 네 둘레는 모두 초록색 유리로 현함을 만들고 네 군데로 터진 층층대는 모두 아홉 층대로 되었다. 층층대의 넓이는 거의 두 발이나 되는데 역시 푸른 유리 벽돌을 깔았다. 층층대의 양쪽 난간도 역시 초록색 유리로 된 현함을 했다. 제2층의 단면(壇面)은 두 발 남짓이나 되는데 층층대가 네 군데로 터졌고 층대는 아홉 켜다. 단면에는 푸른 유리 벽돌을 깔았고 단의 아래 동아리와 네 둘레의 난간은 역시 다 초록색 유리로 된 현함이다. 원구의 밖에는 또 누런 기와를 이은 담장으로 둘러었는데, 사면에 기둥을 세워 성문(星門)을 만들었으니 원(元)·형(亨)·이(利)·정(貞)으로 나누어 이름 붙여 동·서·남·북의 방위에 배속시켰다. 동쪽 제1단은 해를 제사하고, 서쪽 제1단은 달을 제사하며, 동쪽 제2단은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제사하고, 서쪽 제2단은 바람·구름·비·뇌정을 제사한다. 그리고 황궁우(皇穹宇)·신악관(神樂觀)과 태화전의 재궁(齋宮)·천고(天庫)·신주(神廚) 등은 모두 누런 유리로 된 기와 지붕이다. 신악관은 평일에는 음악·무용을 연습시키는 곳으로써 매번 큰 제사를 치를 때는 미리 태화전에서 예습을 한다. 양·돼지·사슴·토끼 등을 기르는 각방이 있고, 북쪽 담장 아래로는 네모난 못을 20여 군데나 파서 겨울이 되면 얼음을 캐어서 빙고에 저장한다. 제사에 소용되는 물건은 정결하게 갖추어 두고 무엇이나 이 속에서 가져다 쓰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양문 적루(敵樓) 아래의 정남향으로 된 문은 언제나 닫혀 있어서 이상하다 하였더니, 누군가 말하기를, “황제가 친히 천단에 제사를 지내러 나갈 때는 정남향을 한 웅성 문을 여는데 기름 백 석을 부은 뒤에야 비로소 열린다.” 한다.

호권(虎圈)

어용(御用)하는 마굿간 뒤에는 범 우리가 있는데 연대(煙臺)¹⁹같이 성을 쌓고 그 위에는 우물 정(井) 자로 들보를 걸치고 팔뚝만큼씩 한 큰 철망을 덮었다. 담장 면에는 작은 구멍을 뚫고 쇠를 박아 올라타기로 삼았다. 옛날에는 범 두 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최근에 죽었고 한 마리는 원명원(圓明園)으로 데리고 가 버려서 이제는 빈 우리로 있다. 황제가 어디로 거동을 할 때는 반드시 범 우리를 앞장 세우고 가다가 못마땅한 생각이 날 때는 황제가 우리 앞으로 와서 친히 쏘아 죽인다 한다.

천주당(天主堂)²⁰

내 친구 홍덕보(洪德保)²¹는 일찍이 서양 사람들의 기교를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선배들로 김가재(金稼齋)²²와 이일암(李一菴)²³같은 이들은 모두 식견이 탁월하여 후세 사람들로서는 따를 수 없는 바요, 더구나 중국을 옮겨 본 데도 쳐줄 바가 없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천주당(天主堂)에 대한 기록들은 약간의 유감이 없지 않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잘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갑자기 얼핏 보아서는 알아낼 수도 없었던 것이다. 뒷날 계속해서 간 사람들에게 이르러서는 역시 천주당을 먼저 보지 않을 자가 없지마는 황홀 난측하여 도리어 괴물 같이만 알고 이를 배척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안중에 아무 것도 보지를 못한 까닭이다. 가재는 건물이나 그림에만 상세하였고, 일암은 더욱이 그림과 천문 관측의 기계에 자세하였으나 풍금(風琴) 이야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대체로 이 두

19 연대(煙臺) : 명의 때에 왜구(倭寇)를 막기 위하여 쌓았던 낭연대(狼煙臺).

20 천주당(天主堂) : 이 소재(小題)는 여러 본에는 풍금(風琴)으로 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수택본’을 좇았다.

21 홍덕보(洪德保) : 홍대용(洪大容)의 자.

22 김가재(金稼齋) : 김창업(金昌業)의 호 노가재(老稼齋).

23 이일암(李一菴) : 조선 숙종(肅宗) 때 학자 이기지(李器之)의 호.

분이 음률에 이르러는 그리 밝질 못했으므로 잘 분별을 못했던 것이다. 내가 비록 귀로 소리를 밝게 들었고 눈으로 그 만든 솜씨를 살폈다 하더라도 이를 다시금 글로써 그 오묘한 곳을 다 옮길 수는 없고 보니 정말 이것이 유감스러운 일로 되었던 것이다.”

하면서, 곧 가재의 기록을 끄집어내어 나와 함께 보았다.

“방안 동편 벽에는 두 층계의 붉은 문이 달렸는데 위에는 두 짝이요, 아래에는 네 짝이다. 순차로 열리면서 그 속에는 기둥이나 서까래처럼 생긴 통(筒)이 총총하게 켜는데, 크기가 같지 않았다. 모두 금은빛으로 섞여 칠을 발랐고, 그 위에는 철판을 가로 놓고 그 한쪽 가에는 수없이 구멍을 뚫고 다른 한쪽 가에는 부채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방위와 12시(時)의 이름을 새겼다. 잠시 보니, 해 그림자가 그 방위에 이른즉 대 위에 놓인 크고 작은 종(鍾)이 각각 네 번씩 울고 복판에 있는 큰 종은 여섯 번을 쳤다. 종소리가 잠시 그치자 동쪽 변두리 홍예문(虹霓門) 속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쏜 하면서 여러 개의 바퀴를 돌리는 것 같았는데 계속해서 관·현·사·죽 등의 별별 음악 소리가 들렸다. 어디로부터 이 소리가 나는지 알 수 없다. 통관이 말하기를, ‘이것은 중국 음악입니다.’ 한다. 얼마 아니되어서 소리는 그치고 또 다른 소리가 나는데 조화 때 들은 음악 소리와 같이 들렸다. 이는 ‘만주 음악입니다.’ 한다. 조금 있다가 이 소리도 그치고 또 다시 다른 곡조가 들리는데 음절이 촉급하였으니, ‘이는 몽고 음악입니다.’ 한다. 음악 소리가 똑 그치고는 여섯 짝 문이 저절로 닫혔다. 이는 서양 사신 서일승(敍日昇)이 만든 것이라 한다.”(가재의 기록이 여기에 이르러서 그쳤다.)

덕보는 다 읽고 나서 한바탕 크게 웃으면서,

“이야말로 이야기는 하면서도 자세하진 못하다는 말이구료. 속에 기둥이나 서까래처럼 생겼다는 통은 유기로 만들었는데 제일 큰 통은 기둥이나 서까래만큼씩 하여 크고 작게 총총하게 켜는데 이는 생황(生黃) 소리를 내기 위하여 크게 한 것이다. 크기가 같지 않은 것은 다음 틀을 취하여 곱절로 더 보태고 8율(律)씩 띄어 곧장 상생(相生)케 하여 8괘(卦)가 변하여 64괘(卦)가 되는 것이나 같다. 금은 빛을 섞어 바른 것은 거죽을 곱게 보이기 위함이요, 갑자기 한 줄기 바람 소리가 여러

개 바퀴를 돌리는 소리 같이 난다는 것은 땅골로부터 구불구불 서로 마주 통한 데서 풀무질을 하여 입으로 바람을 불 듯이 바람 기운을 보내는 것이요, ‘연방 음악 소리가 났다.’는 것은 바람이 땅골을 통하여 들면 바퀴들이 핑핑 재빨리 돌아 생활 앞이 저절로 열리면서 뭇 구멍에서 소리가 나게 된다. 풀무 바람을 내는 법식은 다섯 마리의 쇠가죽을 마주 붙여서, 부드럽기는 비단 전대처럼 만들고, 굵은 밧줄로 들보 위에 큰 종처럼 달아 매어서 두 사람이 바를 붙잡고는 몸을 치솟구어 배 돛대를 달듯 몸통이가 매달려 발로 풀무 전대를 밟으면 풀무는 점차 내려 앉으면서 바람주머니내는 팽창되어 공기가 꼭 들어찬다. 이것이 땅골로 치밀려 들면서 이때야 틀에 맞추어 구멍을 가리우면 어디고 바람은 새지 않고 있다가 쇠 호드기 혀를 부딪쳐서 순차로 혀는 떨어 열리면서 여러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 내가 대강 이렇게 말할 수 있으나 역시 그 오묘한 데를 다 말할 수는 없다. 만일에 국가에서 돈을 내어 이것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될 법도 하지.”(덕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났다.)

하였다. 이제 내가 중국에 들어와서 풍금 만드는 법식을 생각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속에 잊히지 않았다. 이미 열하로부터 북경으로 돌아와 즉시로 선무문(宣武門) 안 천주당을 찾았다. 동쪽으로 바라다 본즉 지붕 머리가 종처럼 생겨 여염 위로 우뚝 솟아 보이는 것이 곧 천주당이였다. 성내 사방에서는 다 한 집씩 있는데 이 집은 서편 천주당이다. 천주라는 말은 천황씨(天皇氏 중국 전설에 나오는 최초의 임금)니 반고씨(盤古氏 중국 전설에 나오는 최초의 임금)니 하는 말과 같다. 이 사람들은 역서(曆書)를 잘 꾸미며 자기 나라의 제도로써 집을 지어 사는데, 그들의 학설은 부화(浮華)함과 거짓을 버리고 성실을 귀하게 여겨 하느님을 밝게 섬김으로써 으뜸을 삼으며, 충효와 자애로써 의무를 삼고, 허물을 고치고 선을 닦는 것으로써 입문(入門)을 삼으며, 사람이 죽고 사는 큰 일에 준비를 갖추어 걱정을 없애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저들로서는 근본되는 학문의 이치를 찾아 내었다고 자칭하고 있으나 뜻한 것이 너무 고원하고 이론이 교묘한 데로 쏠리어 도리어 하늘을 빙자하여 사람을 속이는 죄를 범하여 제 자신이 저절로 의리를 배반하고 윤상을 해치는 구렁으로 빠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천주당 높이는 일곱 길

은 되고 무려 수백 칸인데 쇠를 부어 만들거나 흙을 구워 놓은 것만 같았다. 명(明)의 만력(萬曆) 29년(1601년) 2월에 천진감세(天津監稅) 마당(馬堂)이 서양 사람 이마두(利瑪竇)의 방물과 천주 여상(女像)을 바쳤더니 예부(禮部)에서 이르기를, “대서양(大西양)이란 회전(會典)²⁴에 실려 있지 않으므로 참인지 거짓인지 알 길이 없으니, 적당히 참작해서 의관을 내려 주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몰래 북경에 숨어 있지 못하도록 하라.”

하고는, 황제에게는 보고하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서양이 중국과 서로 통한 것은 대체로 이마두부터 시작되었다. 건륭(乾隆) 기축년(1769년)에 천주당이 헐렸으므로 소위 풍금이란 것은 남은 것이 없었고, 다락 위의 망원경과 또 여러 가지 표본 기들은 창졸간에 연구할 수 없으므로, 여기 기록하지 않는다. 이제 덕보의 풍금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추억하면서 서글픈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

양화(洋畵)²⁵

무릇 그림을 그리는 자가 거죽만 그리고 속을 그릴 수가 없음은 자연의 세(勢)이다. 대체로 물건이란 볼거리고 오목하고,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그 세(勢)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에 능한 자는 붓대를 대강 몇 차례 돌려 산에는 주름이 없기도 하고, 물에는 파도가 없기도 하고, 나무에는 가지가 없기도 하니, 이것이 소위 뜻을 그린다는 법이다. 두자미(杜子美 두보(杜甫). 자미는 자)의 시(詩)에 이르기를,

마루 위의 단풍나무 이것이 어인 일고 | 堂上不畝生楓樹
강과 뚝에 내가 이니 괴이키도 한저이고 | 怪底江山起煙霧

24 회전(會典) : 명대(明代)의 유신(儒臣)이 칙명을 받들어 엮은 《명회전(明會典)》.

25 양화(洋畵) : ‘수택본’에는 이 소제(小題) 양화가 천주당화(天主堂畵)로 되어서 목차(目次)에만 실려 있고, 원전(原典)에는 소제의 ‘천주당화’는 물론이요, 다음 주석과 같이 결문(闕文)이 많았다.

라 하였으니, 대체로, ‘마루 위’란 나무가 날 데가 아니요, ‘어인 일고’란 말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이름이었으며, 내는 응당 강과 뚝에서 일어나겠지마는 만일 병풍에서 일어난다면 매우 괴이쩍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천주당 가운데 바람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구름과 인물들은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려 낼 수 없었고, 또한 보통 언어·문자로는 형용할 수도 없었다. 내 눈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먼저 내 눈을 뺏는 듯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는 그들(화폭 속의 인물)이 내 가슴속을 꿰뚫고 들여다보는 것이 싫었고, 또 내 귀로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데, 굽어보고 쳐다보고 돌아보는 그들이 먼저 내 귀에 무엇을 속삭이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숨긴 데를 꿰뚫고 맞힐까봐서 부끄러워 하였다. 내 입이 장차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돌연 우레 소리를 내는 듯하였다. 가까이 가서 보매 성긴 먹이 허술하고 거칠게 묻었을 뿐, 다만 그 귀·눈·코·입 등의 째과 터럭·수염·살결·힘줄 등의 사이는 희미하게 그 어 갈랐다. 터럭 끝만한 칫수라도 바로잡았고, 꼭 숨을 쉬고 꿈틀거리는 듯 음양의 향배가 서로 어울려 절로 밝고 어두운 데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에는 한 여자가 무릎에 5·6세 된 어린애를 앉혀 두었는데, 어린애가 병든 얼굴로 흘려서 보니, 그 여자는 고개를 돌리고 차마 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옆에는 시중꾼 5·6명이 병난 아이를 굽어보고 있는데, 참혹해서 머리를 돌리고 있는 자도 있었다. 새 날개가 붙은 귀신 수레는 박쥐가 땅에 떨어진 듯, 그림이 슬그머니 돌아 웬 신장(神將)이 발로 새 배를 밟고, 손에는 무쇠 방망이를 쳐들고 새 머리를 짓쪼고 있었다. 또 사람 머리, 사람 몸뚱이에 새 날개가 돌아 나는 자도 있으며, 백 가지가 기괴 망측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해 낼 수도 없었다. 좌우 바람벽 위에는 구름이 덩이덩이 쌓여 한 여름의 대낮 풍경 같기도 하고, 비가 갓 갠 바다 위 같기도 하며, 산골에 날이 새는 듯 구름이 끝없이 뭉게뭉게 피어 오르고, 수없는 구름 꽃봉오리가 햇발에 비치어 무지개가 뜨고, 멀리 바라보는 데는 까마득하고도 깊숙하여 끝간 곳이 없는데, 못 귀신들이 출몰하고, 갇은 도깨비가 나타나 먹살을 붙들고 소매를 뿌리치며, 어깨를 비비고 발등을 밟아서 가까운 놈은 멀리 뵈기도 하고, 얇은 데는 깊어 보이기도 하며, 숨은 놈이 드러나기도 하고, 가렸던 놈이 나타나기도 하

여 뿔뿔이 따로 서 있으니, 모두가 허공에 등을 대고 바람을 모는 형세이었다. 대체로 구름이 서로 간격을 두어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다. 천장을 우러러 보니 수없는 어린애들이 오색 구름 속에서 뛰노는데, 허공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이 살결을 만지면 따뜻할 것만 같고, 팔목이며 종아리는 포동포동 살이 찼다. 갑자기²⁶ 구경하는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놀라, 어쩔 바를 모르며 손을 벌리고서 떨어지면 받을 듯이 고개를 젖혔다.²⁷

상방(象房)

코끼리 우리는 선무문(宣武門) 안 서성(西城) 북쪽 담장 아래에 있다. 코끼리 80여 마리가 있는데, 코끼리들은 큰 조회 때 오문(午門)에서 의장으로 서기도 하고, 황제가 타는 가마와 노부(齒籩)에 쓰이기도 한다. 코끼리는 몇 품(品)의 녹봉도 받고, 조회 때는 백관이 오문으로 들어오기를 마치면, 코끼리가 코를 마주 엮대어 서 있어서 아무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없게 하였다. 코끼리가 때로 병이 나서 의장으로 서지 못할 때에는 억지로 다른 코끼리를 끌어 내려 해도 코끼리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코끼리 부리는 자가 병난 코끼리를 끌어다가 보여 주어야만 이를 곧이 듣고 바꾸어 선다. 코끼리가 죄를 범하면 칙명이라 하고는 매를 친다. (물건을 다치거나 사람을 상하는 따위다.) 그러면 엎드려 매를 다 맞고 나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를 하며, 봉급을 깎으면 벌 받은 코끼리의 반열에 물러가 선다. 나는 코끼리 부리는 자에게 부채와 환약 한 알을 주고 코끼리 재주를 한번 시키라고 했더니 그는 이것이 적다고 부채 한 자루를 더 부른다. 나는 당장 가진 것이 없으므로 꼭 더 가져다 주겠으니 먼저 재주를 시켜 보라 했더니, 그가 코끼리에게 가서 타일렀으나 코끼리는 눈웃음으로 마치 절대 할 수 없다는 시늉을 한다. 그제야 따라 온 자를 시

26 무릇 그림……갑자기 : ‘수택본’에는 첫머리의 “무릇 그림”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가 모두 쉼문(闕文)으로 되었다.

27 구경하는……젖혔다 : ‘수택본’에는 “구경하는”으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한 구가 상문(上文) “천주당”의 끝에 별행(別行)으로 붙어 있었다.

켜 꼬끼리 부리는 자에게 돈을 더 주었는데, 꼬끼리는 한참 동안 눈을 흘겨 보더니, 꼬끼리 부리는 자가 돈을 세어 주머니 속에 넣는 것을 보고서야 승낙을 하고, 시키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린다. 머리를 조아리며 두 앞발을 꿇기도 하고, 또 코를 흔들면서 통소 불듯 휘파람도 불고, 또 뚱뚱 복소리를 내기도 한다. 대체로 꼬끼리의 묘한 재주는 코와 어금니에 있다. 예전에 꼬끼리의 그림을 볼 때에 두 이빨이 모두 죽 바로 뺀어 곧추 무슨 물건이라도 찌를 듯하여 코는 늘어지고 이는 빠드러진 것인 줄 알았더니, 이제 꼬끼리를 보니 그렇지 않다. 이빨도 다 아래로 드리워져 막대기를 짚은 것만 같고, 갑자기 앞으로 향할 때는 환도를 잡은 것 같기도 하며, 갑자기 마주 사귄 때는 예(乂) 자 같기도 보여 그 쓰는 법이 한 가지가 아니었다. 당 명황(唐明皇) 때에 꼬끼리 춤이 있었다는 말이 사기에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의심을 했더니, 이제 보아 사람의 뜻을 잘 알아 먹는 짐승으로는 과연 꼬끼리 같은 짐승은 없었다. 전하는 말에,

“숭정(崇禎) 말년에 이자성(李自成)이 북경을 함락시키고 꼬끼리 우리를 지나갈 때에 못 꼬끼리들은 눈물을 지으면서 아무것도 먹지를 앓았다.”

한다. 대체로 꼬끼리는 꿀은 둔해 보여도 성질은 슬기롭고, 눈매는 간사해 보이면서도 얼굴은 덕스러웠다. 혹자는 이르기를,

“꼬끼리는 새끼를 배면 다섯 해 만에 낳는다.”

하고, 또는,

“열두 해 만에 낳는다.”

한다. 해마다 삼복날이면 금의위(錦衣衛) 과교들이 의장 깃발을 늘인 노부(鹵簿)로 쇠북을 울리면서 꼬끼리를 맞아 선무문 밖을 나와 못에 가서 목욕을 시킨다. 이럴 때는 구경꾼이 늘 수만 명이나 된다.(또 별도로 《상기(象記)》가 있다.)²⁸

28 또 별도로……있다 : ‘수택본’에는 이 원주가 없었다.

황금대(黃金臺)²⁹

노군(盧君) 이점(以漸)은 국내에 있을 때 경술(經術)과 행검으로 쳐 주었고, 또 춘추(春秋)의 중국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격하는 대의에 엄격하였으므로 길을 오면서 도 사람을 만나면 만(滿)·한(漢)을 불구하고 한결같이,

“되놈아.”

하고 불렀다. 거쳐 온 산천이나 누대들은 모두 누린내 나는 고장이라 하여 구경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적으로서 황금대(黃金臺)나 석호석(射虎石)·태자하(太子河) 같은 곳은 길을 돌아가는 데나 또는 이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파고 들어서 찾아내고야 만다. 어느 날 나와 황금대를 구경하기로 약속하였다. 나는 곧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물었으나 아는 자가 없었다. 또 옛 기록을 찾아 보았으나 이야기들은 다 같지 않았다. 《술이기(述異記)》³⁰에는 이르기를,

“연 소왕(燕昭王)이 괄외(郭隗)³¹를 위하여 쌓은 축대로서 지금의 유주(幽州) 땅인 연왕(燕王)의 옛 성 중에 있는데, 그곳 사람들은 현사대(賢士臺)라고 부르고 또는 초현대(招賢臺)라고도 한다.”

하였으니, 지금의 북경이 곧 기주(冀州) 땅이고 본즉, 연왕의 옛 성이란 데는 어느 곳에 있는지 나는 모를 일이니, 하물며 이른바 황금대일까보나. 또 《태평어람(太平御覽)》³² 중에는,

“연소왕이 천금을 대 위에 두고 천하의 현사를 초청했다 하여 황금대라고 불렀다.”

하였다. 그러면 뒷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그 이름만 전할 뿐이요, 정말 대가 없음은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거늘, 노군은 어느 날 몽고 사람 박명(博明)으로부터 얻었

29 황금대(黃金臺) : ‘수택본’에는 이 ‘황금대’의 전문(全文)이 탈락되었다.

30 술이기(述異記) : 양(梁) 임방(任昉)의 저.

31 괄외(郭隗) : 전국 때 사람. 연 소왕이 현인을 구하매 괄외가 소왕에게 천리마(千里馬)의 뼈를 사온 고사를 이야기하여 스스로 추천 등용되었다.

32 태평어람(太平御覽) : 송(宋) 이방(李昉) 등이 칙명을 받들어서 엮은 유서(類書).

다는 《장안객화(長安客話)》 중에서 초록한 것을 나에게 보인다.

“조양문(朝陽門)을 나서서 남쪽으로 못을 돌아가면 동남쪽 모퉁이에 높다랗게 솟아 있는 흙 둔덕이 바로 황금대라 한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갈 때 옛일을 슬퍼하는 선비로서 이 대 위에 올라간 자는 갑자기 천고의 고사를 회상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거닐게 된다.”

노군은 이때부터 서글퍼하면서 구경을 파하고 다시는 황금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노는 날 틈을 타서 노군과 함께 동악묘(東嶽廟)의 연극 구경을 가기 위해 같은 수레로 조양문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고 태사(高太史) 역생(穉生)을 만났다. 고는 능사헌(凌簑軒) 야(野)와 함께 탔는데, 이르기를,

“지금 황금대를 찾아 가는 길입니다.”

한다. 능은 본시 월중(越中 절강 지방) 사람으로서 역시 기이한 인물이었다. 북경에 처음 와서 고적 구경을 하기 위하여 나에게 동행을 청한다. 노군은 매우 좋아하여,

“하늘이 정해 주신 연분이야.”

하고, 가서 본즉, 두어 길 되는 허물어진 흙 둔덕이 주인 없는 황폐한 무덤과도 같으면서도 억지로 이름을 황금대라고 불렀다. 별도로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황금대기(黃金臺記)³³

조양문(朝陽門)을 나서 못을 따라 남쪽에 두어 길 되는 허물어진 둔덕이 있으니, 여기가 곧 옛날 황금대(黃金臺)이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연 소왕이 여기에다 궁전을 짓고, 천금을 축대 위에 놓고, 천하의 어진 선비들을 맞이하여 당시의 강한 제(齊)의 원수를 갚고자 하였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옛 일을 슬퍼하는 인사들은 여기에 이르면 비참한 회포를 참지 못하고 감개가 무량하여 거닐면서 좀처럼 발길을 돌리지 못하곤 한다. 아아,

33 황금대기(黃金臺記) : ‘수택본’에는 ‘황금대’로 되었다.

슬프도다. 축대 위의 황금은 없어졌건마는 국사(國土)는 오지 않는구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란 본래부터 아무런 원수가 없으면서도 원수를 갚으려는 자는 그칠 때가 없고 본즉 이 축대 위에 놓였던 황금이 반드시 그대로 온 천하에 깔리지 않음은 아니리라. 나는 여기에서 지난 역사상에 모든 원수를 갚던 중에서 가장 큼직한 사건을 역력히 들어서 천하에 가장 황금을 많이 쌓아 놓은 자에게 외쳐 고하련다. 진(秦) 때에 황금으로써 제후들의 장수에게 먹여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것으로 보아서는 몽염(蒙恬 진 시황 때의 명장)을 가장 유력하게 쳐 주어야 할 것이다. 이사(李斯 진 시황 때의 정치가)는 원래 제후의 문객으로 제후를 위하여 몽염을 복수하였으니, 천하에 복수자는 여기에 와서 좀 멈칫해졌다. 얼마 뒤에 조고(趙高)³⁴는 이사를 죽였고, 자영(子嬰)³⁵은 조고를 죽였으며, 항우(項羽 항적(項籍). 우(羽)는 자)는 자영을 죽였고, 패공(沛公)³⁶은 항우를 죽였는데, 패공이 항우를 죽일 제 황금 4만 냥이 들었고,³⁷ 석송(石崇 진(晉)의 부호가)의 이와 같은 많은 재물도 생겨난 데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타고난 재물인 듯이,

“이놈이 내 재물을 탐내는가.”

라고 욕질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인가. 그러나 재물이란 구르고 굴러 서로 원수를 갚으면서 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 금덩이가 아직도 어디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 줄을 알 것인가. 원위(元魏)의 이주조(爾朱兆) 장수인데 반란을 일으켰다)의 난리 때 성양왕(城陽王) 휘(徽)는 황금 백 근을 가지고 있었는데, 낙양령(洛陽令) 구조인(寇祖仁)의 일문(一門)에서 난 세 자사(刺史)는 모두 자기가 발탁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의탁하였다. 그러나 조인은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늘에 와서 우리 집의 부귀는 지극하다 할 수 있지마는 저 휘 때문에 걱정이야.”

하고는, 휘를 잡으러 오는 장수가 장차 이를 것을 알고, 휘를 다른 장소로 도망하

34 조고(趙高) : 진 이세(秦二世) 때의 환관으로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자.

35 자영(子嬰) : 진 시황의 장자(長子) 부소(扶蘇)의 아들.

36 패공(沛公) : 한 고조유방(劉邦)이 천자가 되기 전의 봉호.

37 패공이……들었고 : 패공이 항적과 범증(范增)을 이간시키기 위하여 진평(陳平)의 계교를 써서 황금 사만 냥을 흘렸다.

라고 찢인 뒤, 길에서 그를 맞아서 죽여 버리고는 그 머리를 조(兆)에게로 보냈다. 조의 꿈에 죽은 휘가 와서 이르기를,

“내게 황금 2백 근이 있어 조인에게 맡겼으니 빼앗아 가지도록 하여라.”

하기에, 조는 조인을 잡아서 꿈에 시킨 대로 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를 얻지 못하고 조인을 죽여 버렸다. 이것을 본다면 황금의 복수자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닐까. 오대(五代) 때에 성덕 절도사(成德節度使) 동온기(董溫箕)는 황금 수만 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온기가 거란에 포로가 되자 아문 안에 지휘사(指揮使)인 비경(秘瓊)이 온기의 한 가족을 한몫으로 다 죽여 한 구덩이에 파묻고 그 금을 빼앗았다. 진 고조(晉高祖 후진의 석경당(石敬瑭))가 왕위에 오르자 비경이 제주 방어사(齊州防禦使)가 되어 부임하게 되어서는 그 금을 싸 가지고 위주(魏州) 길로 나오는데, 범연광(范延光)이 국경에 복병을 했다가 경을 죽이고 금을 몽땅 빼앗았다. 연광은 또 이 금으로 인하여 양광원(楊光遠)에게 살해를 당하고 광원은 진 출제(晉出帝 석중귀(石重貴))가 목을 베어 죽였다. 그리하여 광원의 부하 관리인 송안(宋顔)이 그 금을 죄다 털어다가 이수정(李守貞)에게 바쳤다. 수정은 뒤에 주 고조(周高祖)³⁸에게 패하여 처자와 함께 불에 타서 자살했으니 그 금은 아직도 응당 인간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 줄을 알 수 있을까. 옛날에 도적 세 명이 함께 남의 무덤 하나를 파서 금을 도적질하고는 저희들끼리 이르기를,

“오늘은 피곤하니 돈을 많이 벌은 판에 어찌 술 한 잔 사 오지 않겠어.”

하매, 그 중 한 명이 선뜻 일어나 술을 사러 가면서 가는 도중에 스스로 마음속으로 축하하기를,

“하늘이 시키는 좋은 기회로구나. 금을 셋이 나누는 것보다는 내가 독차지하는 것이 좋겠지.”

하고는, 술에 독약을 타 가지고 돌아오자 남아 있던 도적 둘이 갑자기 일어나서 그를 때려 죽이고는 먼저 주식을 배불리 먹고, 금을 반분하려고 했더니 얼마 못 되어 둘이 함께 무덤 곁에서 죽고 말았다. 아아, 슬프도다. 이 금은 반드시 길 옆에서 굴

38 주 고조(周高祖) : 후주(後周) 태조 곽위(郭威)인 듯하다.

러 다니다가 또 다시금 판 사람이 주워 얻게 되었을 것이요, 이렇게 주워 얻은 자는 가만히 하늘에 감사를 드리면서도 이 금이 무덤 속에서 파내어졌고, 독약을 먹은 자들의 유물이며, 또 앞사람 뒷사람을 거쳐 몇 천 몇 백 명을 독살했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 않는 이가 없음은 무슨 까닭일까. 《역경(易經)》에 이르기를,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치면 그 이로움은 금이라도 끊는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이런 도적을 전제한 말이라. 어째서 그럴 줄을 알겠느냐. ‘끊는다’는 말은 ‘가른다’는 말이다. 가른다는 것이 금일진대 마음을 합치는 것도 잇속이라는 것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리를 말하지 않고 잇속이라고 했은즉, 불의의 재물인 것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도적질이 아니고 무엇이라. 원하건대 천하의 인사들은 돈이 있다 하여 꼭 기뻐할 것도 아니요, 없다고 하여 슬퍼할 것도 아니다. 아무런 까닭 없이 갑자기 돈이 앞에 닥칠 때는 천둥처럼 두려워하고, 귀신처럼 무서워하여 풀썩에서 뱀을 만난 듯이 머리끝이 오싹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옹화궁(雍和宮)

옹화궁(雍和宮)은 옹정 황제(雍正皇帝)의 원당(願堂)이다. 세 겹 처마의 큰 전각이 있고, 그 속에는 금부처가 있으며 열두 개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무슨 귀신 동굴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사닥다리가 다 하면 누각에 오르게 되어 처음으로 햇빛을 보게 된다. 누각의 네 둘레는 난간으로 두르고 복판은 우물처럼 둘러 파서 금으로 만든 부처의 아랫도리 절반까지 미치게 된다. 또 여기서부터는 사닥다리를 밟고 올라 캄캄한 속으로 한참 가야만 여덟 창문이 환하게 터진다. 누각 속 우물처럼 꺼진 데는 아래층 같아서 금부처의 등 절반이 겨우 보이게 된다. 또 다시금 어둠 속을 더듬어 발 가늴으로 캄캄한 데를 올라가노라면 곧장 윗층으로 나오게 되어 비로소 부처의 머리 정수리와 가지런하게 된다. 난간을 의지하고 굽어 보니, 바

람이 세차서 마치 소나무 숲이 우수수 불어 오는 것과 같다. 이 절에 있는 중은 모두가 나마(喇嘛) 중 3천 명으로서 생긴 꼴들이란 완악하고 더럽기 짝이 없었다. 다들 금실로 짠 가사를 질질 끌고 있었다. 때마침 우중(禺中 상오 10시경)이라 여러 중들은 큰 전각 속으로 한 줄로 죽 들어간다. 다리가 짧은 바둑판 같은 걸상을 늘어 놓고 한 사람이 걸상 한 개씩 차지하여 평좌를 하고 앉는다. 중 하나가 종을 울리매 여러 나마는 일제히 염불을 한다. 다시 역관 이혜적(李惠迪)과 함께 대사전(大士殿)에 올라갔다. 마음속으로는,

“아마 아홉 개의 성문을 한 눈으로 바라다 볼 것은 물론이요, 준비한 시가와 황성의 전 판국이 눈 아래에 깔릴 것이라.”

하였던 것이 급기야 창문을 열고 난간에 나서서 본즉 곳곳에 솟은 누대가 겹겹으로 둘러 가렸다. 난간을 한 바퀴 빙 돌고 보니 도리어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아래를 내려다 보니 다리가 벌벌 떨려 오래 서 있지 못하였다.

대광명전(大光明殿)

서안문(西安門) 안에서 남으로 작은 골목을 수백 보 가면 세 겹 처마에 열두 면으로 된 둥근 전각이 있다. 자줏빛 유리 기와를 이었고, 황금 호로병 모양의 꼭지를 달았는데, 현판에는 대광명전(大光明殿)이라고 했다. 그 속 네 기둥에는 금빛 용이 위로 올라가는 놋, 아래로 내려가는 놋을 그려, 위로 지붕 끝에 닿을 만했다. 복판에는 상제(上帝)의 소상을 안치하고 빙 둘러 33좌의 소상을 세웠는데, 모두 곤룡포와 면류관에 홀(笏)을 잡고 있었다. 네 바람벽에는 작은 창들이 났고, 벽은 다 푸른 유리 벽돌이다. 아홉 개의 뜰 층대는 세 층 난간으로 되었다. 이 집 이름은 대현도(大玄都)라 한다. 명(明)의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도진인(陶真人)을 맞아 대광명전에서 내단(內丹)³⁹을 강의했다고 했는데 곧 여기이다. 청(淸)의 순치(順治) 신축년(1661년)에 만주 대신 색니(索尼)·오배(鰲拜)·소극살합(蘇克薩哈)·알필륭(遏

39 내단(內丹) : 도교에서의 일종의 수련술(修鍊術).

必隆) 등(청조의 훈신들이다)이 세조가 죽을 때 내린 겨우 여섯 살에 임금이 된 어린 강희(康熙)를 보좌하라는 유명을 받을 제 이 네 신하가 이에 올라서 분향을 하고 팔뚝을 찢어 피를 내면서 상제께 맹세를 했다 한다. 뒤에 있는 전각은 태극전(太極殿)인데, 삼청(三清)⁴⁰의 소상을 모셨고, 또 그 뒤에 있는 전각은 천원각(天元閣)이라 하여 도사 몇십 명을 기르고 집을 지키는 태감(太監)이 있었다. 대광명전과 천원각의 동편 행랑을 중수(重修)할 때에 김가재(金稼齋) 창업(昌業)이 당시 역군들이 사다다리를 놓고 기와를 벗기는 역사가 매우 장하더라 했는데, 그의 일기(日記)⁴¹를 보면 그때가 바로 강희 계사년(1713년) 2월 9일이다. 이제 태극전과 천원각을 보면 모두 누린 기와와 금벽 단청이 찬란하게 번쩍이고 있으니, 지금으로부터 계사년은 벌써 68년 전이지마는 어제처럼 새롭다. 고사기(高士奇)⁴²의 <금오퇴식필기(金鰲退食筆記)>에,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제택(第宅)이 바로 이 전각 왼편에 있었음을 밝히고는, 또 그의 기록에,

“때는 바로 가을비가 처음 개고 푸른 하늘은 씻은 듯이 맑아 가슴을 풀어 헤치고 밖에 나와 앉으니, 높이 솟은 집은 흘러 내리는 밝은 달빛과 함께 마주 비치어 마치 광한궁(廣寒宮 달 나라의 궁전 이름)에 올라 앉은 듯이 황홀하구나.”

라고 하였다. 대체로 이 터가 앞이 조금 터진 데가 되어 달 밝고 맑은 밤이면 더욱 아름다웠을 것이다.

구방(狗房)

사냥개 몇백 마리를 두었는데, 크고 작게 생긴 모양이 저마다 달랐다. 모두가 매우 여위고, 더러는 늙기도 하고 또는 웅크리기도 하여 거동이 한가해 보인다. 심심해서 졸음을 못 이기는 놈이 있는가 하면, 좋아라고 꼬리를 치는 놈도 있고, 긴 하품

40 삼청(三清) : 원시천존(元始天尊) · 태상도군(太上道君) · 태상노군(太上老君).

41 일기(日記) : 《노가재연행일기(老稼齋燕行日記)》.

42 고사기(高士奇) : 청 강희 때의 문학가. 자는 담인(澹人).

을 하는데 아래 윗턱 사이가 거의 한 자나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몇십 명이 달려드니, 복장과 음성이 아마도 눈에 생소하게 보였을 것이나 하나도 놀라거나 쫓지를 않았다. 따라온 하인이 육포를 내어 개 치는 사람에게 주면서 개 재주를 한번 시켜보라 하였더니, 개 치는 사람이 육포를 두어 발 되는 장대 끝에 미끼처럼 매달고 개 한 마리를 불렀다. 그 중에서 누런 개 한 마리가 냉큼 뛰어나오는데, 여러 개들은 발을 재게 디디고 섰을 뿐 경쟁을 하지 않는다. 육포를 단 장대를 들었다 내렸다 하니, 개는 좌우로 경충경충 뛰다가 한 발로 끌어 잡아 채려고 하므로 개 치는 사람은 장대를 뿌리쳐 마치 뛰는 물고기가 공중으로 솟듯이 서너 길씩 올리니, 개도 역시 높이 뛰어 도리어 그 긴 장대를 뛰어 넘는데, 날래기가 질풍과 같았다. 개 치는 자는 그 개를 고향쳐 물리치고 이번에는 또 다른 개를 불러 순서로 시험하곤 한다. 개를 치는 법은 물건을 공중에 던지면 개가 고개를 젓히고 뛰어 잡아 채어서 먹게 하고, 땅에 떨어지면 먹지를 않는다. 따로 퐁·오줌 누는 데가 있어서 올안이 정결하고 더럽지 않았다.

공작포(孔雀圖)

푸른 놈 두 마리와 주홍빛을 띤 놈 한 마리가 있는데 꼬리 끝의 금전(金錢) 무늬는 다 같았다. 붉은 놈도 몸을 한 번 획 돌리면 아주 새파란 빛깔로 변하고, 푸른 놈이 한 번 몸을 돌리면 붉은 빛이 되며, 금전 무늬는 아청(鵝靑) 빛으로 변했다. 사람의 기침 소리를 들으면 온몸의 깃과 털이 갑자기 빛깔을 잃어버렸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처음 빛깔로 되돌아온다. 몸은 해오라기에 비하면 조금 작고, 꼬리의 길이는 석 자가 넘는데, 정강이와 발은 더럽게 생겨 비단 옷에 짚신 감발이란 몹시 부끄러운 일이다. 먹는다는 것이 다만 뱀뿐이며 또 뱀과 흘레도 붙어 온 마당에 흰 것이 남겨 있는 자리가 몹시 더럽다. 원두정이가 우리 하인들이 맨발로 걷는 것을 보고 이것을 못 밟도록 타이르기를,

“뱀 뼈가 살에 들어가면 살이 곧장 썩는 걸요.”

하였다.

오룡정(五龍亭)

태액지(太液池) 북에서 서남으로 향하여 물가에 서 있는 채색 정자 다섯 채가 있는데, 따로 부르기를 징상(澄祥)·자향(滋香)·용택(龍澤)·용서(湧瑞)·부취(浮翠)라 하고, 통틀어서 오룡정(五龍亭)이라 부른다. 맑은 물결 만경(萬頃)에 금벽 단청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제 멀리 바라다 보이는 금오교(金鰲橋) 위의 거마와 행인들이 까마득하게 신선이 살고 있는 곳 같이만 보였다. 뒷날 오중(吳中 강소성) 사람들과 놀면서 서호(西湖)의 아름다운 경치를 물었더니, 그들은,

“서호를 못 보셨다면 오룡정은 바로 그 일부입니다.”

하였다. 이 정자는 언제 창건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명(明)의 천순(天順) 연간에 태소전(太素殿) 뒤에 초가 정자가 있었다는데, 이제는 없어졌음을 보아서 이곳이 곧 그 옛 터인 듯싶다. 자광각(紫光閣)과 승광전(承光殿)은 자줏빛 기와로 이영한 추녀가 숲 속에 숨었으며 붉은 담장 속에 채색 기와 이영이 높고 낮고 겹겹이 주름 잡혀 있었다.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과 함께 왔을 때는 마침 석양 무렵이어서 옅은 아지랑이가 하느작거리는 광경이란 더욱 기이하였다. 또 일찍이 어느 맑은 날 아침 한번 갔더니, 돌아오르는 햇발을 받아 더욱 아름다웠으나 정자 아래에 있는 수없는 연 줄기에 꽃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을 뿐이다. 역관들의 말을 들으면, “오룡정 광경은 비록 아침과 저녁으로 그 경치가 달라지지만은 그래도 한 여름 연꽃 철만은 못하고, 여름 연꽃 철도 역시 깊은 겨울의 얼음놀이보다는 못할 거요.”라고 하였다.

구룡벽(九龍壁)

오룡정을 거쳐 한 조그만 둔덕을 돌아서 한 대문에 들면 문 앞에는 향장(響牆)이 있는데, 높이가 대어섯 길은 되고 넓이는 여남은 발이나 되었다. 흰 사기 벽돌로 쌓고 아홉 마리 용을 새겨놓았다. 용의 몸뚱이는 모두 몇 발씩이나 되고, 오색 빛깔 이외에 별도로 자줏빛·초록빛·남빛 등이 섞였었다. 양각(陽刻)으로 도드라져 구불구불한 것을 자세히 보니 용의 사지·몸뚱이·머리·뿔들을 한켜 한켜 구워 내어 합쳐서 마주 붙였다. 오르고 내리고 나는 모습이 각기 자세를 갖추어 변화가 불측한데도 터럭끝만큼 이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마음먹고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는다면 알아 챌 길이 없을 만큼 되어 있다. 향장이란 것은 옛날의 색문(塞門 차면(遮面) 담 같은 것이다)이나 다름없으니, 궁궐이나 관청이나 사찰 같은 데에 흔히 있는 것이요, 일반 여염집에서는 다들 대문 안에 세운다.

태액지(太液池)

태액지는 서안문(西安門) 안에 있는데, 둘레는 몇 리나 되는지 알 수 없다. 내가 일찍이 동해 구경을 할 때에 고성(高城)삼일포(三日浦)⁴³의 주위가 10여 리나 되었는데, 이제 이 못은 그만 못한 것만 같다. 옛날 이름으로는 서해자(西海子)라 불렀다. 못 가운데는 구름다리를 놓았는데, 길이가 몇백 보요, 흰 돌을 깎아서 난간을 만들었고, 난간 밖에 또 흰 돌 난간이 있어 난간 머리에는 사자(獅子) 수백 마리를 새겼는데, 크기는 같으나 모양은 제각기 달랐다. 다리의 양쪽 머리에는 각기 패루(牌樓)를 세워 동쪽 머리에는 옥동(玉蝀)이라 써 붙였고, 서쪽 머리에는 금오(金鰲)라고 써 붙였다. 또 북쪽으로 바라보면 다리 하나는 경화도(瓊華島)로부터 승광전(承光殿)까지 이어졌다. 이 다리 남북에도 역시 패루를 세워 하나는 적취(積翠)요, 또

43 삼일포(三日浦) : 관동팔경(關東八景)의 하나. 신라 때 사선(四仙)이 사흘 동안을 놀았으므로 이 이름을 얻었다 한다.

하나는 퇴운(堆雲)이다. 못을 둘러싸고 있는 전각과 누대는 첩첩한 지붕과 엇물린 처마였고 고목들은 회나무와 버들이 많았다.

팔월 초사흘날 나는 옥동에 이르러 월중(越中)에 살고 있는 사람 능야(凌野)를 만나 함께 오룡정에 이르렀다. 능야 역시 북경이 초행으로 온 지가 아직 며칠 되지 않았으므로 나에게 못 위에서 열리는 얼음놀이와 북경의 팔경(八景)이 어디어디인가를 물었다. 그의 소탈하고 꾸밈 없음이 이러하였다. 대체로 북경에서 멀리 만 리 밖에 있어서 북학(北學)하는 이가 드문 까닭이다. 내가 5, 6일 전에 갔었더라면 이 못의 늦 연꽃을 구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작은 거룻배 수십 척이 마름 줄기 사이를 젓고 다니면서 연밥을 따고 있었다. 배를 탄 사람들은 모두 별거벗어 몹시 흥해 보인다. 오색 빛깔의 고기가 많이 있으며 큰 고기 세 마리가 보이는데, 모두 두 자 길이는 넘고 온 몸뚱이에 얼룩이 졌다. 막 부들대 밑에 와서 무엇을 먹기에 손뼉을 쳐서 놀라게 하였으나 아주 유유히 제멋대로 노닌다. 해마다 한 여름이 되면 만(滿)·한(漢) 대신(大臣)과 한림(翰林) 또는 대성(臺省)들에게 경도(瓊島)·영대(瀛臺)에서 뱃놀이 잔치를 베풀고 연뿌리와 생선을 하사하였고, 얼음이 얼고 눈이 쌓이면 팔기(八旗)를 대오로 나누어 공 차기와 타상(拖床)의 놀이를 하는데, 신 바다에 모두 쇠이빨을 박아서 달리고 쫓음이 재빠름을 연습하면 이때는 황제도 친림하여 구경하게 된다.

자광각(紫光閣)

태액지를 돌아들면 지붕이 둥글고 작은 전각이 있는데, 위에는 누런 기와를 이었고, 처마는 푸른 기와를 썼으니 이름은 자광각이다. 그 곁에는 백조방(百鳥房)이 있어 기이한 새와 짐승들을 기른다. 이 전각은 높고도 넓으며 그 아래는 말 달리고 활 쏘는 마당이 있는데, 옛 이름은 평대(平臺)이다. 승정(崇禎) 경진년(1640년)에 계주 순무사(薊州巡撫使) 원숭환(袁崇煥)이 황제를 구원하러 들어왔으나, 황제는 도리어 평대에 친히 나와 앉아서 승환을 찢어 죽였으니 이곳이 곧 그 땅인 듯싶다.

만불루(萬佛樓)

구룡벽을 거쳐 몇 걸음을 더 가면 큰 전각이 나타난다. 벽으로 둘러 쌓아 감실을 만들어서 작은 부처를 앉혔는데, 한 감실에 부처가 하나씩 도합 1만 개이다. 또 여섯 길 되는 관음보살의 변상(變相)이 있는데, 머리 위에는 부처 1만 개를 둘러 앉히고, 손이 1천 개, 눈이 역시 1천 개요, 발로는 간사한 귀신과 기이한 귀신, 흉한 짐승과 독한 뱀들로 요정(妖精)으로는 변화했으나 아직 불성(佛性)을 얻지 못한 것들을 밟고 있었다. 그 앞에는 세 발 달린 큰 향로가 놓였는데 높이는 한 길 남짓 되었다. 수많은 요괴들이 와서 팔로 떠받고 다리를 버티며 눈을 부릅뜨고 입을 벌리고는 무엇을 부르짖는 것이 마치 귀신의 자모(子母)가 유리발(琉璃鉢)을 떠받든 것과 같았다.

극락세계(極樂世界)

새로 지은 몇백 칸 되는 큰 전각이 있는데 푸른 기와를 이었다. 방 안에는沉香(沈香)과 전단(旃檀) 남방에서 나는 명향(名香))으로 오악(五嶽) 명산을 만들었으며 바위 솟은 봉우리와 깊숙한 동학(洞壑)들이 숨어 있고, 사찰과 누각이 그 위에 벌여져 있으며 비단을 오려 가화를 만들었는데, 소나무나 전나무는 모두 구리와 쇠로 잎을 만들어 붙였으며 유달리 새파랗게 보인다. 몇 길 되는 폭포는 흰 눈을 뒤번지는 듯 거품이 일어 사람으로 하여금 의심을 자아내도록 한다. 어떤 이는,

“이건 얼음으로 새긴 거야.”

하고, 또는,

“물결을 치솟구쳐서 이렇게 된 거야.”

하고, 떠들어대나 이는 대체로 유리를 녹여 만든 것이다.

영대(瀛臺)

영대는 태액지 가에 있는데, 전각의 이름은 소화전(昭和殿)이요, 정자의 이름은 영훈정(迎薰亭)이라 하여, 모두 누런 기와로 이었다. 못가의 수목들은 모두 아름답고 고목으로 그윽하고도 깊숙하여 무지개 다리를 가렸고, 복도는 구불구불하게 숲 속으로 서로 통했다. 푸른 기와와 자줏빛 지붕은 못 북판으로 그림자가 거꾸로 박혔다. 때마침 연꽃은 갓 떨어지고 갈대가 덮인 물가 마름딩쿨 사이로는 가끔 작은 거룻배가 연방(蓮房)을 타고 있었다.

남해자(南海子)

승문문(崇文門)을 나서 남으로 20리를 가면 큰 동물원(動物園)이 있으니 남해자라 부른다. 둘레가 1백 60리나 되는데, 원(元) 때 천자가 사냥하던 곳으로 명(明)에 이르러서는 담장으로 둘러싸고 해호(海戶)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북경의 안팎 할 것 없이 새들이 드물게 보이니, 대체로 짙은 숲이 없는 까닭이다. 남해자를 못 미쳐 몇 리를 두고 울창한 숲이 끝없이 바라다 보이는데 까치·솔개·해오라기·황새들이 벌써 하늘을 뒤덮는다. 조 역관(趙譯官) 달동(達東)이 뒤에 따라와서 하는 말이,

“지금 해호 마을에는 역질이 크게 번지고 있어 발 들여 놓을 수 없고, 또 해도 저물어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홍교(大紅橋)가 20리요, 대홍교로부터 안응대(按鷹臺)가 십여 리인데, 이 사이에 큰 못 세 군데가 있어 넓은 못물이 듬뿍 실려서 희맟고, 일흔두 개의 다리가 놓였으며 전각과 누대는 길가에서 보던 그것과 다를 것이 없고, 기른다는 기이한 새와 짐승들은 말을 달리지 않고서는 다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곧 빨리 돌아가더라도 성문 닫는 시각까지 당기는 어려울까 하옵니다.”

라고 하며 한사코 말렸다. 할 수 없이 서글픈 대로 수레채를 되돌렸다. 천녕사(天

寧寺)와 백운관(白雲觀)을 거쳐 바빠 정양문(正陽門)에 드니 벌써 황혼이 지났다.

회자관(回子館)

회자관의 바깥 문은 벽돌로 쌓았는데, 제도가 기이하기 짝이 없어 천주당(天主堂)에서 보던 것과도 달랐다. 문에 들어서서 겨우 걸음을 몇 자국 옮겨놓지도 않아 개 두 마리가 와락 뛰어나와 입을 벌리고 짖으며 으르렁거렸다. 깜짝 놀라 돌아서니 회회(回回) 어린이 수십 명이 손뼉을 치면서 일제히 웃는다. 문안 좌우에는 큰 기둥을 마주 세우고 몇 발 되는 쇠사슬로 기둥 아래에다 개의 목을 비끄러매어 두고는 문을 지켰다. 개가 사람을 보면 비록 와락 달려들기는 하지마는 사슬 길이가 있어 언제나 사람 앞 몇 걸음의 거리에서 멈춘다. 그러나 그 형세는 매우 사납다. 회회 여자 10여 명이 나와 보는데, 모두 남자처럼 건장했다. 볼은 붉고 광대뼈가 넓고 눈썹이 푸르고 눈은 붉었다. 그 중 한 젊은 여인이 두어 살 난 어린이를 안고 있는데, 꽤 얼굴이 고왔다. 모두 흰옷에 술이 좋은 머리털을 여남은 가닥으로 땡아 등 뒤에 드리웠다. 머리 위에는 흰 모자를 얹었는데, 광대들이 쓰는 뽕죽모자와 같고 옷은 우리나라 철릭(天翼)과 비슷하되 소매는 좁았다.

유리창(琉璃廠)

유리창은 정양문 밖 남쪽 성 밑으로 가로 뻗치어 선무문(宣武門) 밖까지 이르기 곧 연수사(延壽寺)의 옛 터이다. 송 휘종(宋徽宗)이 북으로 순행할 때에 정 황후(鄭皇后)와 함께 연수사에서 묵었다. 지금은 공장이 되어 여러 가지 빛깔의 유리 기와와 벽돌을 만든다. 이 공장에는 사람의 출입을 금하고 기와를 구울 때면 더구나 금기하는 것이 많아서 비록 전속 기술자라도 모두 녀 달 먹을 식량을 갖고 들어가되 한번 들어가면 마음대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 공장 바깥은 모두 점포로서 거기에

는 재화와 보물이 넘치고 있다. 서점으로서 가장 큰 데는 문수당(文粹堂)·오류거(五柳居)·선월루(先月樓)·명성당(鳴盛堂) 등이다. 천하의 거인(舉人)과 지명의 인사들이 많이들 이 속에서 묵고 있다.

채조포(綵鳥舖)

점방 안에는 온갖 새가 우는데 산장(山莊)의 창문 앞에서 봄철의 아침을 맞는 듯싶다. 모두 철사로 만든 작은 조롱으로 한 조롱에 새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이 들었는데, 두 마리 든 것은 자웅이다. 새는 대체로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들이지만 그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조롱 속에는 다들 작은 종지에 물을 넣어 두었고, 몇 줄기 조이삭을 걸어 두어 쪼아먹고 마시도록 하였다. 빈 조롱을 갖고 온 자들이 어깨를 마주 비비고들 있었다. 그때에 한림(翰林) 팽령(彭齡)이 주 거인(周舉人 이름 미상)과 함께 각기 빈 조롱을 들고 점방에 와서 새 한 쌍이 든 조롱과 바꾸어 가는데, 새는 우리나라의 속명(俗名)으로는 밥새⁴⁴로서 그렇게 희귀한 것도 아닌데 값은 50냥을 내고 간다. 금계(錦鷄)는 모양이 집닭 비슷한데 벼이 없고, 먹미래에 달린 쌍 귀걸이도 없고 입부리와 목이 함께 붉고, 흰 꽂지가 두 가닥으로 그 끝은 조금 구부러졌는데, 푸른 돈 무늬가 한 점 있었다. 큰 물통에 물을 채워 두고 바깥에는 물을 두르고 위에는 그물로 덮었는데 그 속에다가 금계를 기르고 있다. 큰 쇠광주리 속에 흰 꿩을 두었는데 크기는 까치만 하고 꽂지는 금계와 같았다.

화초포(花草舖)

모두가 풀꽃들이다. 가장 많은 것이 수구(繡毬)와 가을 해당화(海棠花)와 철쭉이다. 여러 가지 꽃을 구색에 맞추어 병에 벌여 꽃은 것은 모두 사계화(四季花)요, 푸

44 밥새 : '밥새'의 두 글자는 특히 원전에 한글로 되어 있다.

른 꽃병에 한 송이의 붉은 연꽃을 꽂았는데 크기가 박꽃만 하고 잎은 손바닥 같았다. 때마침 가을 국화가 한창이었는데, 다 우리나라에도 있는 것으로 학령(鶴翎)이 제일 많았다. 줄기는 그리 길지 못하고 홀로 금국(金菊)만이 가장 이색으로 꽃송이는 겨우 돈짜만큼 하나, 새로 금박칠을 해 놓은 듯했다. 수선(水仙)은 아직 피지를 못했고, 난초는 흰초(萱草)와 비슷하여 잔뜩 푸르기는 하나 맡을 만한 향기가 없었다.



순천부학(順天府學)

북경의 동북 모퉁이 시시(柴市)에 두 방(坊)이 맞서 있으니, 그를 육현(育賢)이라 부른다. 두 방의 북판이 곧 순천부학으로 되었다. 영성문(靈星門)에 들면 반월형으로 못을 팠는데, 이것이 반수(泮水)이다. 세 개의 구름다리를 놓고 난간은 흰 돌로 돌렸다. 다리 북쪽에 세 대문이 있는데, 북판이 대성(大成)이요, 왼편이 금성(金聲)이요, 오른편이 옥진(玉振)이다. 성전(聖殿)의 바깥 편액에는 선사묘(先師廟)라 했고, 안으로는 만세사표(萬世師表)라고 썼는데 강희황제(康熙皇帝)의 글씨이다. 위패에는 지성선사공자지위(至聖先師孔子之位)라 하였고, 네 분의 배향으로서는 복성 안자(復聖顏子 안회(顏回))와 술성 자사(述聖子思 공급(孔伋))가 동에 있고, 종성 증자(宗聖曾子 증참(曾參))와 아성 맹자(亞聖孟子 맹자(孟軻))는 서에 있었다. 동무(東廡)와 서무(西廡) 사이에는 늙은 전나무들이 많은데 세상에 전하기를, “허노재(許魯齋)¹ 형(衡)이 손수 심은 나무라오.”

하고, 혹은,

“야률초재(耶律楚材 원(元) 학자. 자는 진경(晉卿))가 심은 거야.”

한다. 명륜당(明倫堂)은 성전의 동에 있고, 계성사(啓聖祠)는 명륜당의 북에 있으며, 규문각(奎文閣)은 명륜당의 동북에 있고, 문승상사(文丞相祠)는 명륜당의 동남에 있는데, 중문 밖의 왼편은 명환사(名宦祠)요, 오른편은 향현사(鄉賢祠)이다. 부학은 옛날 보은사(報恩寺)로서 원(元)의 지정(至正) 말년에 유람하던 중이 호남(湖南) 지방에서 시주를 받아서 절을 짓고, 불상을 채 안치하기도 전에 명(明)의 군대가 북경에 쳐들어왔다. 그들이 군졸들에게 공자묘에 못 들어가도록 명령하자, 중이 창황히 공자의 위패를 빌려다가 성전 속에 모셨다. 그 뒤에 마침내 이 위패를 감히 옮기지 못하게 되어 결국 북평(北平)의 부학이 되었다가, 청(淸)의 수도가 북경으로 옮겨진 뒤에 곧 순천부학이 되었다 한다.

1 허노재(許魯齋) 형(衡) : 원의 유학자. 노재는 호요, 형은 이름, 자는 중평(仲平).

태학(太學)

북경 동북쪽 모퉁이에 있는 곳을 숭교방(崇教坊)이라 하고, 패루(牌樓) 네거리를 성현가(成賢街)라 하며, 패루 안은 국자감(國子監)이라 썼다. 영락(永樂) 2년(1404년)에 이룩되었는데, 왼편은 묘(廟)요, 오른편에는 태학을 세웠더니, 선덕(宣德) 4년(1429년) 8월에는 대성전(大成殿) 앞 동무(東廡)와 서무(西廡)를 수리하였다. 이에 앞서, 태학은 원(元)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하여 이부 주사(吏部主事) 이현(李賢)이 수리할 것을 아뢰어 그 말을 좇았던 것이다. 정통(正統) 9년(1444년) 1월에 태학이 낙성되자, 천자가 친히 나와서 선성(先聖)에 참배하고 석전례(釋奠禮)를 거행하고는, 이륜당(彝倫堂)에 물러나와 제주(祭酒) 이시면(李時勉)에게 강의를 명령하였고, 홍치(弘治) 명(明) 효종(孝宗)의 연호(年號)라 연호(年號)를 고치고 나서는 또 태학에 거둥하였는데, 이때에 《성가임용록(聖駕臨雍錄 명(明) 주홍모(周洪謨) 저)》이라는 책이 이룩되었으니, 황제의 칙지(勅旨) · 장주(章奏) · 의례(儀禮) · 문이(文移) · 강의(講義) · 관직(官職) 등에 관한 일이 빠짐 없이 기록되었으므로 태학의 제도는 이에서 완전히 갖추어졌다. 만력(萬曆) 경자년(1600년)에는 성전을 유리 기와로 바꾸었으니, 사업(司業) 부신덕(傅新德)의 청에 따른 것이었고, 숭정(崇禎) 14년(1641년)에 또 태학을 수리하였는데, 낙성이 된 뒤 8월에 천자가 태학에 거둥하여 제주(祭酒 태학(太學)에 속한 벼슬) 남거인(南居仁)이 고요모(皐陶謨 《서경》의 편명)를 강의하고, 사업 나임대(羅大任)은 《역경(易經)》의 함괘(咸卦)를 강의하였으니, 이때에는 벼슬의 문(文) · 무(武)를 논할 것 없이 삼품 이상은 함께 앉아 청강하고 천자로부터 차를 하사받았다. 강의를 끝난 뒤 천자가 경일정(敬一亭)에 들러 세종(世宗)이 세운 정자(程子 송(宋) 유학자 정이(程頤)의 사잠비(四箴碑)²와 석고(石鼓)³의 헐어진 글자를 보고, 다시금 수리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하였다. 《장안객화(長安客話 저자 미상)》 중에는,

2 사잠비(四箴碑) : 정이가 《논어(論語)》의 비례물시(非禮勿視), 비례물청(非禮勿聽), 비례물언(非禮勿言), 비례물동(非禮勿動)을 취하여 〈사물잡(四勿箴)〉을 지었는데, 이 글을 새긴 빗돌.

3 석고(石鼓) : 주(周) · 진(秦) 때의 돌 북에 새긴 고문(古文).

“국초(國初)에 고려(高麗)에서 김도(金濤) 등 네 사람을 보내어 태학에 들었는데, 홍무(洪武) 4년(1371년)에 김도가 진사(進士)에 올라 귀국하였다.”

라 하였고, 또 《태학지(太學志 저자 미상)》를 상고해 보면,

“용경(隆慶) 원년(1567년)에 천자가 국자감에 거동하였는데, 조선(朝鮮) 사신 이영현(李榮賢) 등 여섯 사람이 각기 제 급수에 알맞은 의관(衣冠)을 갖추고 이륜당에 가서 문신(文臣) 반열의 다음에 섰다.”

라고 했다. 나는 부사(副使)와 서장관(書狀官)을 따라 뜰에서 재배례(再拜禮)를 행하였다. 내가 얼마 전에 열하의 태학에서 참배한 제도는 우리 서울의 태학과 같더니, 이제 두루 이 묘의 제도를 살펴보니, 아마 명(明)의 옛 제도를 본뜬 듯한데, 태화전에 비하면 비록 조금 모자라는 것 같기는 했으나 그 제도의 정제된 품은 비슷했다. 뜰의 넓이라든가 아랫집들의 둘레는 역시 동악묘(東岳廟)에 비교할 바는 아니었다. 위패는 모두 독(櫝)을 덮어 감실 속에 넣고 누른 휘장을 드리웠다. 강희연간에 주자를 10철(哲)의 다음에 올려 모셨다. 거문고·비파·종·북 등의 악기를 성전 속에 진열해 놓았으며, 동무와 서무에 종향(從享)된 분에게도 모든 설치가 성전과 다름없었고, 태학당(太學堂)에는 일곱 개의 윤리를 강론하는 장소가 있으니, 회강(會講)·술성(率性)·수도(修道)·성심(誠心)·정의(正義)·숭지(崇志)·광업(廣業) 등이 모두 여러 생도들의 공부하는 곳이라 한다. 이륜당 앞에 심은 솔과 전나무는 세속에서 전하기를,

“이는 원(元)의 유학자 허형(許衡)이 손수 심은 거야.”

라고 한다. 묘문에는 석고(石鼓) 열 개를 늘어 놓았는데, 주 선왕(周宣王)의 엽갈(獵碣)⁴이다. 혹은 이르기를,

“안로공(顏魯公)⁵의 쟁좌위첩(爭座位帖) 안진경의 서첩(書帖) 이름)과 장평숙(張平叔)⁶의 금단사백자(金丹四百字)⁷와 조 문민(趙文敏)⁸이 임모(臨摹)한 왕 우군(王右

4 엽갈(獵碣) : 수렵(狩獵)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빗돌.

5 안로공(顏魯公) : 안진경(顏真卿)의 봉호, 자는 청신(淸臣).

6 장평숙(張平叔) : 송의 도사(道士) 장백단(張伯端), 평숙은 그의 자.

7 금단사백자(金丹四百字) : 장백단이 유해선(劉海蟾)으로부터 받았다는 연금술(鍊金術) 비결(秘訣).

8 조 문민(趙文敏) : 조맹부(趙孟頫)의 시호, 자는 자양(子昂).

軍)⁹의 악의론(樂毅論 저자 미상) · 황정경(黃庭經 도경(道經)의 일종) · 난정정무본(蘭亭定武本)¹⁰ 등의 다섯 비(碑)가 모두 이 태학 안에 있다.”

고 하나, 찾을 곳을 몰라서 구경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학사(學舍)

어제는 조교(助教 태학의 교관(敎官)) 구양(歐陽)이 국자감 안팎 학사의 제도를 기록해 보였다. 내호(內號)로서 광거문(廣居門)의 오른편에 있는 것은 퇴성호(退省號)라 하여 사방으로 잇달린 것이 모두 49칸인데, 남에는 목욕탕과 뒷간이 있고, 퇴성문(退省門)으로부터 점차 북으로 꺾어져 서에는 천(天) · 지(地) · 인(人) · 지(知) · 인(仁) · 용(勇) · 문(文) · 행(行) · 충(忠) · 신(信) · 규(規) · 구(矩) · 준(準) · 승(繩) · 기(紀) · 강(綱) · 법(法) · 도(度) 등의 글자로 표시한 것이 모두 18호가 있는데, 매호마다 21칸씩이다. 도자호(度字號)의 북에 보안당(保安堂)이라는 5칸이 있어 감생(監生) 중의 병자를 수용한다. 이룬당 뒤에는 격(格) · 치(致) · 성(誠) · 정(正) 등의 번호를 붙인 사호가 있으니 전체가 98칸인데, 가정(嘉靖) 7년(1528년)에 경일정(敬一亭) 밖에 고쳐 세웠고, 동호(東號)는 문묘(文廟)의 왼편에 있어 모두 34칸이다. 대동호(大東號)는 거현방(居賢坊)의 새만백창(賽萬百倉) 서문가(西門街)에 있다. 문이 둘이 있고 하나는 등준호(登俊號)인데, 동서의 양쪽으로 잇달린 집이 모두 40칸이었고, 또 하나는 집영호(集英號)인데 27칸이다. 신남호(新南號)는 북성(北城) 두 갈래 길 동쪽 어구에 있는데, 문이 한 채에 동서로 방이 잇달려 모두 34칸이요, 남북으로는 4칸이다. 소북호(小北號)는 거현방 거리에 있고 문이 한 채요, 남북으로 집이 두 줄로 나뉘어졌는데 80칸이다. 교지호(交趾號)는 국자감의 남쪽에 있고 문 한 채에 남북으로 나뉜 집 두 채가 모두 28칸이다. 서호(西

9 왕 우군(王右軍) : 왕희지(王羲之). 우군은 벼슬. 자는 일소(逸少).

10 난정정무본(蘭亭定武本) : 왕희지 자신이 지은 <난정기(蘭亭記)>를 쓴 서첩. 무정은 남북조(南北朝) 때 동위(東魏) 효정제(孝靜帝)의 연호.

號)는 성현가(成賢街)의 서북에 있고 국자감과의 거리는 50보쯤 되는데, 옛날 운간사(雲間寺) 터이다. 작은 방 10칸과 또 2층 방까지 모두 9칸인데 국자감의 속관들이 번갈아 거처한다. 북쪽 작은 방 4칸과 남쪽 1칸과 서쪽에 가까운 작은 방 16칸이 있는데, 여기는 감생(監生)만이 거처하는 곳이라 한다.

밤에 내원(來源)과 함께 계산을 해보니, 전부가 5백 80여 칸이다. 그 밖에도 이룬당을 비롯하여 동서 강당과 서적고, 식량 창고와 식사장, 의원 약방과 종 치고 북치는 다락, 부엌·목욕탕과 범죄자를 취조하는 방, 박사(博士)가 앉는 대청과 계성사(啓聖祠)·토지사(土地祠) 등이 얼마나 더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였는데, 구양조교의 이러한 기록은 아마도 외국 사람에게 자랑삼아 떠벌리는 것 같으나, 한(漢)·당(唐)에 비한다면 벌써 쓸쓸한 감이 없지 않다. 송(宋)의 경력(慶曆) 연간에 왕공신(王拱辰)이 국자감을 맡고 있을 때에 말하기를,

“한(漢)의 태학이 1천 8백 칸에 생도가 3만 명이나 되었고, 당(唐)에 이르러서는 6천 2백 칸이나 되었다.”

라고 하였으니, 당시 학사의 넓음과 생도의 수효가 많았던 것은 뒷날 세상에 비교할 바 아니다. 또 옛 일을 상고해 보면,

“명(明)의 홍무(洪武) 4년(1371년)에 천자의 명령으로 지방에서 뛰어난 수재들을 뽑아 국자감에 입학시켰다.”

라고 하였는데, 당시는 난리가 잦아 평정되어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아직도 많았을 무렵이었지마는, 그래도 진여규(陳如奎) 등 2천 7백 82명이 입학하였고, 26년에는 감생으로 열자(悅慈) 등 8천 1백 24명을 얻게 되었고, 영락(永樂) 19년(1421년)에는 감생이 방영(方瑛) 등 9천 8백 84명에 이르렀으나, 그래도 아직 만의 수를 채우지 못했으니, 옛날 시대의 선비를 양성시키던 성대함에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틀린다. 이제 청(淸)은 나라를 세운 지도 이미 오래되어 국내가 승평하고 문물과 교화가 혁혁하여 제 스스로 이끄기를,

“한·당보다야 낫겠지.”

라고 자랑하지마는, 오늘 내가 여러 학사를 돌아보니 십중 팔구는 텅텅 빈 방뿐이요, 더구나 며칠 전에 간신히 석전(釋奠)을 지내는데 대성문(大成門) 왼편 극문(戟

門)의 왼편 벽에 써 붙여 둔 참례한 제생(諸生)의 명단을 본즉 겨우 4백여 명에 지나지 않고, 그것 역시 모두가 만주인과 몽고인뿐이요, 한인은 하나도 없음은 무슨 까닭일까. 한인은 비록 벼슬을 하여 공경(公卿)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성 안에서는 집을 얻을 수 없은즉, 이 수선(首善 경사(京師))의 아름다운 곳에 유학하는 선비도 감히 거처를 못함이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중화족이 스스로가 되놈의 종자와 한 책상에서 공부함을 치욕으로 여김이었던가. 그러나 여기에서도 오히려 본받을 일이 없지 않다. 이곳 서재와 학사들이 텅텅 비어 있다면 웅당 먼지에 파묻히고 잡풀이 돋았을 터인데, 어디든지 씻고 닦아 맑게 정돈하지 않은 데가 없어 탁자들은 가지런하고, 창호는 비록 종이로 바른 지는 오래되었으나 밝고 하나도 찢어지고 떨어진 곳이 없었다. 이것은 비록 한 가지 조그마한 일이지마는 중국 법도의 대체를 짐작할 수 있겠다.

역대비(歷代碑)

반적(潘迪 원(元)의 학자)의 석고음훈비(石敲音訓碑)는 대성문 왼편 극문(戟門)에 있고, 원(元)의 대덕(大德) 11년(1307년)에 세운 가봉성호조비(加封聖號詔碑) 한 개는 외지경문(外持敬門)에 있으며, 지순(至順) 2년(1331년)에 세운 가봉선성부모처병사배제사비(加封先聖父母妻竝四配制詞碑) 한 개는 대문 서쪽에 있고, 명(明)의 홍무(洪武) 3년(1370년) 신명학제비(申明學制碑) 한 개, 15년(1382년) 칙유태학도비(勅諭太學圖碑) 한 개, 16년(1383년) 정학규비(定學規碑) 한 개, 30년(1397년) 흥정묘학도비(欽定廟學圖碑) 한 개, 가정(嘉靖) 7년(1528년)에 지은 경일정(敬一亭)과, 어제성유비(御製聖諭碑) 한 개, 정통(正統) 9년(1444년) 어제중수태학비(御製重修太學碑) 한 개, 홍무 연간에 세운 네 개 비는 남태학(南太學)에 있던 것으로, 뒤에 다시금 새겨 이 태학 가운데 세운 것 같다. 이제 청의 인황제(仁皇帝)가 지은 선현찬(先賢贊) 한 개와 안증사맹찬(顏曾思孟贊) 한 개는 모두 강희 28년(1689년) 윤 3월에 세웠고, 아로덕유(阿魯德猶)를 평정한 뒤 어제헌곡비(御製獻馘碑) 한 개

는 강희 43년(1704년)에 세운 것이다. 조 역관(趙譯官) 달동(達東)을 시켜 여러 비문들을 나누어 베끼도록 하였는데, 다 베낄 수가 없었다. 볼 만한 글이 많았으나 두루 열람을 못한 것이 유감스러울 뿐이다.

명조진사제명비(明朝進士題名碑)

국자감의 진사제명비(進士題名碑)는 명(明)의 선덕(宣德) 5년(1430년) 임진(林震)의 방(榜)으로부터 시작되어 승정(崇禎) 13년 경진 위덕조(魏德藻)의 방까지 7개이다. 그 아래도 오히려 빗돌 2개는 더 세울 만했으나 황제는 진사에 싫증이 나서 낙제한 거인(舉人) 사돈(史惇)·오강후(吳康侯) 등을 머물게 하고 특별히 임용하게 되자, 사돈 등이,

“진사의 전례에 따라 성묘에 배알하고 석채례(釋菜禮)에 참가하와 비를 세워 이름을 기록코자 하옵니다.”

하고 청원하였더니, 황제는 이를 승낙하였다. 태학사(太學士) 주연유(周延儒)가 칙명을 받들고 글을 지어 경진년에 세운 비 다음에 이를 세웠다. 16년 계미(1643년)에 양정감(楊廷鑑)의 방 다음부터는 비를 세울 만한 자리가 없어져서 이로부터 명의 진사제명비는 끝났다고 한다. 이제 청의 과거 제도는 일체 명의 옛 것을 본떠 제명을 한 빗돌은 파서 이랑처럼 뺄뺄하게 들어서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만일 깨끗한 덕(德)이 향기롭고 나라의 운명이 한없이 뻗어나가거나 또는 중국의 정통이 자주 갈리면서도 언제나 이곳을 수도로 삼아 태학에 비를 세우는 옛 행사를 그대로 지킨다면, 나는 저 이무기 대가리와 거북 등의 흔한 빗돌들을 어느 땅에 다 세울지 모르겠다.

석고(石鼓)

석고(石鼓)는 10개인데 천간(天干)의 차례로 대성문 좌우 극문(戟門) 안에 각기 5개씩 세웠다. 주 선왕(周宣王)이 기산(岐山) 남쪽에서 사냥놀이를 크게 하고는 돌을 깎아 북을 만들어 그 사적을 기록한 것이다. 높이 두 자 남짓하고 폭이 한 자 남짓 되는데, 그 글씨는 사관(史官) 유(籀 주(周) 선왕 때의 태사(太史))의 필적이요, 글은 풍(風)·아(雅)의 체와 같으니, 천자의 사냥을 찬송하는 노래이다. 애초에는 진창(陳倉 섬서성에 있던 옛 지명)의 들판에 있던 것을 당(唐)의 한유(韓愈 당(唐)의 유학자. 자는 퇴지(退之))가 박사로 있을 때, 좌주(祭酒)에게 청하여 둘러메어 태학에 가져다 두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 재상(宰相)으로 있던 정여경(鄭餘慶)이 봉상부(鳳翔府 섬서성에 있던 옛 고을)의 장관으로 있을 때, 이 북을 봉상의 성묘에 가져다 두었다. 뒤에 오대(五代)의 난리통에 석고는 모두 흩어져 잃어버렸다. 송(宋)의 사마지(司馬池)가 봉상부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를 찾아서 다시 본부의 태학에 두었으나, 한 개는 잃어버렸다가 황우(皇祐) 4년(1052년)에 상부사(尙傅師)가 잃었던 북 한 개를 찾아 드디어 10개를 마저 채웠다. 대관(大觀) 2년(1108년)에는 북경으로부터 변경(汴京)¹¹으로 옮기고 황제가 금으로 그 글자 새긴 자국을 매우도록 명령하였다. 애초에는 태학에 두었다가 다음은 보화전(寶和殿)으로 옮겼다. 정강(靖康) 2년(1127년)에 금인(金人)들이 변경을 함락시키면서 담요로 거둬서 수레로 끌어 북경까지 가지고 왔다. 메웠던 금은 후버 내버리고 왕선무(王宣撫)의 집에 두었다가 다시 대흥부학(大興府學)으로 옮겼다. 원(元)의 대덕(大德) 11년(1307년)에 우집(虞集 원(元)의 문인. 자는 백생(伯生))이 대도(大都)의 교수(敎授)로 있으면서 이를 풀숲의 진흙 속에서 찾아내어 비로소 국학에 두게 되었다. 그 중에 기자고(己字鼓)는 민간에 굴러 다니면서 머리를 우묵하게 파서 획을 만드니 새긴 글자는 더욱 많고 이지러졌지만, 그래도 고적으로서 가장 이채로운 물건으로는 이 석고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나이 18세 때 처음으로 창려(昌黎 한유(韓愈)의 봉호)와 동파(東坡 소식(蘇軾)의 호)의 석고가(石鼓歌)를 읽고, 그

11 변경(汴京) : 하남성에 있다. 북송(北宋) 때의 수도.

글을 기이하게 여긴 적이 있으나 다만 석고에 새긴 전문(全文)을 보지 못한 것을 한탄했더니, 오늘 내 손으로 석고를 어루만지면서, 입으로 반적(潘迪)의 음운비(音韻碑)를 읽고 본즉, 외국 사람으로서 이 어찌 행복스러운 일이 아닐까보나.

문승상사(文丞相祠)

문 승상의 사당¹²은 시시(柴市)에 있으니 동리 이름은 교충방(敎忠坊)이다. 사당은 세 칸으로 앞이 대문이 되고, 또 대문 앞으로 사당의 서쪽은 회충회관(懷忠會館)이 되어 강우(江右 강서성 지방) 지방의 사대부들이 설에는 이곳에 모여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 명의 홍무 9년(1376년)에 북평 안찰부사(北平按察副使) 유송(劉崧)이 비로소 사당 짓기를 청원하여 영락(永樂) 6년(1408년) 태상박사(太常博士) 유이절(劉履節)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제사에 대한 의례를 정리할 때에,

“문천상이 송(宋)의 왕실에 충성을 다하였고, 연경은 곧 그의 입절하던 땅이오니 사당을 지어 제사지냄이 옳을까 하옵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황제가 이를 좇았었다. 유약신(劉岳申 원(元) 학자. 자는 고중(高仲))의 <신공전(信公傳 신공은 문천상의 봉호 신국공)>을 상고해 보면,

“공(公)이 연경 객사에 이르자 상빈(上賓)처럼 대우하여 장막을 치니, 공은 의리에 차마 여기서 거처를 못하고 앉아서 날을 밝히었다. 장홍범(張洪範)이 와서 그가 굴복하지 않던 진상을 상세히 여쭙매 병마사(兵馬司)를 보내어 형틀을 채우고 빈 집 속에 가두었다가 10여 일 만에 결박을 풀고 칼을 빼앗은 뒤에 4년 동안을 감금하였다. 시를 지어서 《지남록(指南錄)》 3권과 그 후록(後錄) 다섯 권, 집두(集杜 두시(杜詩)에서의 집구(集句)) 2백여 편이 있었는데, 모두 자작 서문을 남겼다.”

고 하였고, 조필(趙弼 미상)의 <신공전(信公傳)>에는,

“공이 시시(柴市)로 끌려 나오자 구경꾼이 만 명이나 되었다. 공은 남으로 향하여

12 문 승상의 사당 : ‘수택본’에는 이 일절(一節)의 전문(全文)이 없이 곧 하문(下文) 문승상사당기(文丞相祠堂記)가 이 자리에 올라 있었다.

두 번 절을 하였다. 이날에 대풍이 일어 모래를 날려 천지가 캄캄해지매 궁중에서는 촛불을 켜들고 다니게 되자, 세조(世祖)가 장진인(張眞人)¹³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이는 아마도 문 승상을 죽인 소치인가 봅니다.’ 하였으므로, 황제는 곧 공에게 특별히 금자광록대부 개부의동경교태보 중서평장정사 여릉군공(金紫光祿大夫開府儀同檢校太保中書平章政事廬陵郡公)이라 추증하고, 또 시호를 충무(忠武)라 하여 추밀(樞密) 왕적옹(王積翁)을 시켜 신주를 써서 시시를 깨끗이 소제하고, 단(壇)을 모아 제사를 하였다. 승상 발라(李羅)가 초헌례(初獻禮)를 행할 제 별안간 회오리바람이 불어 신주를 구름 속으로 휩싸서 올라가 버렸다. 할 수 없이 신주에 전승승상(前宋丞相)이라 고쳐 썼더니 하늘이 비로소 맑게 개었다. 처음에 강남(江南)으로부터 10명의 의사(義士)가 와서 공의 시체를 거적에 싸서 둘러매고 남문(南門) 밖 한길 가에 장사를 지냈다. 대덕 2년에 공과 의로 맺은 아들 승(陞)이 직릉호(織綾戶)의 여인을 만났는데, 그는 곧 공의 옛날 몸종인 녹하(綠荷)이다. 그는 승을 위하여 이야기를 하고 드디어 공의 시체를 여릉(廬陵)¹⁴에 반장하였다. 선덕 4년에 부윤(府尹) 이용중(李庸重)이 사당을 짓고, 춘추 중간 삭일에 유사(有司)가 제사를 차려 모시게 되었다.”

고 하였다. 따로 한 편 기문을 남겼다.

관상대(觀象臺)

성에 붙여 쌓은 높은 축대가 성첩보다 한 길 남짓이 솟은 데를 관상대(觀象臺)라 한다. 대 위에는 여러 가지 관측하는 기계들이 놓였는데, 멀리서 보면 큰 물레바퀴 같았다. 이로써 천체와 기후의 일체를 연구한다. 무릇 일월 · 성신과 풍운 · 기색의 변화하는 현상을 이 대에 올리면 예측할 수 있다. 대 아래는 이 사무를 맡은 마을이 있으니, 곧 함천감(欽天監)이다. 그 정당(正堂)에 붙어 있는 현판에는 ‘관찰

13 장진인(張眞人) : 송의 도사 장백단(張伯端), 자는 평숙(平叔).

14 여릉(廬陵) : 강서성에 있던 옛 현(縣)의 이름.

유근(觀察惟勤)’이라 씌었다. 뜰에는 여기저기에 관측하는 기계를 놓아 두었는데, 모두 구리로 만들었다. 비단 이 기계들의 이름을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만든 모양들도 모두 이상스러워서 사람의 눈과 정신을 얼떨떨하게 하였다. 대에 올라가니 성은 한 눈에 굽어볼 만하였으나 수직하는 자가 굳이 막으므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돌아섰다. 대체로 대 위에 진열한 기계들은 아마도 혼천의(渾天儀 천문 기구(天文器具))와 선기옥형(璿璣玉衡 천문 기구) 종류 같아 보였다. 뜰 한복판에 놓여 있는 것들도 역시 내 친구인 정석치(鄭石癡 정철조(鄭陸祚), 석치는 호)의 집에서 본 물건과 같았다. 석치는 일찍이 대나무를 깎아 손으로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튿날 보러 갔더니, 그는 벌써 부서 없애 버렸다. 언젠가 홍덕보(洪德保 홍대용(洪大容), 자는 덕보)와 함께 정의 집을 찾아갔는데, 두 친구가 서로 황(黃)·적도(赤道)와 남(南)·북극(北極) 이야기를 하다가 때로는 머리를 흔들고, 또는 고개를 끄덕이곤 하였는데, 그 이야기들이 모두 까마득하여 알기 어려워서 나는 자느라고 듣지 못하였더니, 두 친구는 새벽까지 그대로 어두운 등잔을 마주 대하고 앉았다. 정의 말이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강진현(康津縣) 북쪽 끝에 나온 곳은 북극 몇 도인데, 황하(黃河)가 회수(淮水)에 들어오는 어귀와 직선으로 되어 있으므로 탐라(耽羅)의 귤(橘)이 바다를 건너 강진에만 오면 탕자가 된다.”

하였다. 이 이야기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리라.

시원(試院)

시원의 담 둘레는 거의 5리나 되는데, 벽돌로 쌓아 성과 같고, 미끄럽기가 짝은 듯 하였다. 높이는 두 길이나 되는데, 그 위에는 가시를 올려 놓았다. 북판에는 큰 집이 한 채 있고, 네 둘레에는 한 칸 집 수천 채가 갈리어 한집 한집 간격이 반 칸씩은 되었다. 좌우편은 창문을 내어 햇볕을 받아들이고, 앞에는 판자문을 내고, 가운데는 작은 온돌을 만들고, 부엌과 목욕탕까지 갖추었다. 바깥은 벽돌담으로 쳐마

가 묻히도록 쌓았는데, 한 집도 허물어진 데가 없고, 안팎이 정결하여 비록 담장을 뚫고 작간(作奸)을 하고 싶어도 담장이 쇠벽과 다름없이 튼튼하므로 할 수 없을 형편이다. 어제 낙제한 거인(舉人)의 시권(試券)을 보았는데, 길이는 두 자 남짓하고 넓이는 여섯 자인데 행용(行用)하는 책종이나 다름없었다. 정(井) 자 형의 붉은 줄을 쳤는데, 해자(楷字)로 가늘게 쓴다면 한 천 자는 담을 만하였다. 맨 첫머리에 붉은 도장으로 예부(禮部)라는 두 글자를 찍었고, 밑에는 봉미(封彌 시험관이 봉하는 것)가 되었다. 아마도 예부에서 인쇄한 시험지로서 응시자에게 나누어 준 모양이다. 시험지 교열하는 것을 보니, 옛 사람의 글을 비평하라는 논제(論題)가 있고, 밑에는 본방(本房)이라 하여 직함과 성명을 갖추고 몇 줄 비평문이 있으며, 또 여러 고시관의 성명을 죽 늘어 기록하였다. 평점란(評點欄)에는 모두 붉은 글자로 썼는데, 한 난(欄)에 한 글자씩 했으며, 상(上) · 중(中) · 하(下)니, 차(次) · 외(外) · 경(更) 등의 차례로 하지도 않았고, 비록 낙제한 시험지라도 제품(題品)이 친절하고 상세하여, 응시자로 하여금 푹푹히 낙제된 연유를 알도록 되었다. 그 정성스럽고 간곡한 태도는 선생과 제자 사이에서 일깨우고 가르치는 태도 그대로이다. 이에서 족히 큰 나라 시험장 제도의 간명하고 엄격한 점과 고시하는 절차의 상세하고도 주의 깊은 것은 과거보는 자로서 넉넉히 유감이 없도록 해 놓았음을 보았다.

조선관(朝鮮館)

조선 사신이 묵는 곳은 애초에는 옥하관(玉河館)이라 이름하여 옥하교(玉河橋) 위에 있었는데, 아라사(鄂羅斯) 사람들에게 점령되고, 지금은 정양문 안 동성(東城) 밑 건어호동(乾魚衙洞) 한림서길사원(翰林庶吉士院)과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연공사(年貢使)가 먼저 와서 관에 머물게 되고, 다시 별사(別使)가 왔을 때는 서관(西館)에 나누어 들게 되므로 여기를 남관(南館)이라 한다. 작년에 창성위(昌城尉 황인점(黃仁點))가 사행으로 왔을 때 남관에 불이 났었다. 밤중 삼경(三更)이 나 되었는데, 여러 사람들은 물 끓듯이 후닥닥 뒤집혀져 일행이 가졌던 폐백과 돈

들을 성 밑에 쌓아 둔 채 말 수백 필은 대문이 메이도록 먼저 뛰어나가려고 덤벼
다. 삼시간에 장갑군 수천 명이 철통같이 둘러싸고 물수레 몇십 대가 몰아 달려 들
어왔다. 두 통씩 둘러멘 물통이 뒤따라 연거푸 수레 물통 속에 물을 길어 붓는데,
한 방울 물도 허비가 없었다. 불 끄는 자는 죄다 전(甌)으로 만든 병거지와 갓옷을
갓추고 병거지나 복장이 함께 물에 젖었으나 손에는 긴 자루가 달린 도끼·갈퀴·
낫·창 등을 들고 불길을 무릅쓰고, 마음대로 헐고 돌격하여 얼마 지난 뒤 불을 꺾
는데, 꺾소리 없이 조용하여 흐트러진 물건들이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다. 이
것으로서도 중국의 규율이 엄격함과 매사에 구차함이 없음이 이와 같음을 볼 수
있다.

양엽기

양엽기 서(叢葉記序)¹

북경 안팎에 있는 여염집과 점포들 사이에 있는 사찰과 궁관들이 천자의 명령으로 특별히 지은 것들만이 아니라, 모두 여러 왕과 부마(駙馬)들과 만(滿)·한족(漢族) 대신들에게 기증한 집들이 있으며, 또 큰 장사꾼들이 반드시 한 채 묘당(廟堂)쯤은 짓고, 자신들을 위한 명복(冥福)을 빌어 천자와 더불어 사치하고 화려함을 경쟁하므로, 천자도 새삼스레 건축을 일삼거나 따로 이궁(離宮)을 두지 않고도 천자 있는 도성을 사치롭게 하고 있다. 명의 정통(正統)·천순(天順) 연간에는 황제가 직접 돈을 내어 세운 집이 2백여 군데나 되었는데, 근년에 새로 지은 집들은 흔히들 대궐 안에 있어 외인으로서의 얻어 구경할 수가 없었으나, 다만 우리나라 사신이 이르르면 때로 끌어들여 마음대로 구경을 시켰다. 그러나 내가 유람한 곳이란 겨우 백분의 일이나 될까, 때로는 우리 역관들이 억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가기 힘든 곳을 문지기와 다투어 가면서 모처럼 들어가면, 바쁘고 총총하며 그저 시간이 부족하였을 뿐이었다. 창건된 역사는 비석 같은 것을 상고하지 않고서는 어느 시대 어느 절인지도 알 길이 없었다. 겨우 빗돌 한 개만 읽는 데도 언뜻 몇 시간씩 보내므로, 자개와 구슬처럼 찬란한 궁궐의 구경도 문틈을 지나가는 말이나 여울에 달리는 배처럼 되고 보니, 오관(五官)²이 함께 피로만 해지고, 아울러 사우(四友)³가 맥이 풀리어 언제나 꿈에 부적 보는 것만 같고, 눈은 신기루(蜃氣樓)를 본 듯 의아하게 거꾸로 기억이 되며 명승 고적은 틀리게 안 것이 많았다. 돌아와서 약간의 기록을 수습해 보니, 어떤 것은 종이쪽이 나비의 날개 폭이나 될까 하면 글자는 파리 대가리만큼씩이나 하니, 대체가 그 총망 중에 빗들을 얼른 보고 흘려 베낀 것이다. 드디어 이것을 엮어서 얇은 책 〈양엽기〉를 만드니, ‘양엽’이란 말은 ‘옛 사람이 감 앞사귀에 글자를 써서 향아리 속에 넣었다가 모아서 기록했다.’(출처 미상)는 일을 본받아서 한 것이다.

1 양엽기 서(叢葉記序) : 여러 본에는 이 소제(小題)가 없었으나, 여기서는 ‘주설루본’을 좇아서 추록하였다.

2 오관(五官) : 이(耳)·목(目)·구(口)·비(鼻)·심(心).

3 사우(四友) : 지(紙)·필(筆)·연(硯)·묵(墨).

홍인사(弘仁寺)

홍인사의 맨 뒤에 있는 전각에는 관음(觀音) 변상(變相)이 있으니 손이 천 개요, 눈도 역시 천 개인데, 손에는 각기 잡은 것이 있었다. 불상 뒤에는 큰 족자 그림이 걸려 있는데, 파도가 치솟는 큰 바다에 빈 배만 떴다 잠겼다 하고, 바다와 하늘에는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 상서로운 오색 구름으로 되었는데, 구름 속에는 금관과 옥대로 어린 아이를 껴안은 자가 있었다. 그 아이는 임금의 곤룡포(袞龍袍)와 면류관(冕旒冠)을 갖추었는데, 곱게 생겼으면서도 근엄한 태도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었다.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의 무리가 구름 속에 빙 둘러서서 옹위를 하였는데, 모두들 이마에는 부처의 원광이 둘러졌다. 바다의 언덕 위에는 수없는 남녀들이 이마에 손을 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 거의 만 명으로 헤아릴 수 있었다. 그림을 그린 이의 성명도, 그린 해나 날짜와 낙관(落款)도 없으니, 구경하는 이도 무슨 인연으로 시주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 그림이 송(宋)의 육수부(陸秀夫 송(宋) 충신, 자는 군실(君實))가 임금을 안고 바다로 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으로 그런 줄 안 것인가. 일찍이 송의 군신도상(君臣圖像 저자 미상)을 보니, 범 문정공(范文正公)⁴의 관과 옷이 이와 같았고, 어제 문승상사(文丞相祠)를 참배할 때에 본 소상(塑像)의 관대가 역시 이와 비슷했다. 어린이로 임금의 면목을 갖춘 이는 틀림없이 송의 황제 병(昞 송(宋)의 마지막 황제)일 것이다. 빈 배가 출몰하는 것은 그가 황제를 안고 바다에 떨어지자, 배 가운데 탔던 사람들이 다들 따라서 빠진 것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이마에 불광(佛光)을 두른 자들은 후세 사람들의 상상에서 나온 것이니, 그림 그리는 이의 고심(苦心)인 것이다. 이때는 송의 운명이 넓은 바다 위에 떠 있어서 임금이나 신하나 위아래가 없이 하루 살이 같은 생명을 고래등 같은 파도 속에 붙였고 보니, 그야말로 물이 아니면 하늘 인지라 갈 곳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날마다 대학장구(大學章句 주희(朱熹) 저)를 써서 어린 임금을 가르치니, 그 조용하고 한가한 품이 바로 전각 속 텅방석 위에서 강의를 하는 것만 같으니, 이 어찌 알 수 없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4 범 문정공(范文正公) : 송의 명신 범중엄(范仲淹). 문정은 시호, 자는 희문(希文).

아아, 슬프도다. 충신과 의사란 나라가 망해 없어진다 해서 조금이라도 그 간절 한 충군애국의 마음을 늦추지 않고 본즉, 정성이 곧 천하 국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이는 오로지 뜻을 정성스럽게 해서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다. 하루라도 이 같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없다면 모르겠지마는, 하루라도 이 같은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있다면 이런 과업은 그날그날의 급선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의에 밝지 못하면 비록 만 리의 강토를 지니고 있더라도 오히려 천하 국가가 없음이나 다름없을 것이나, 만일 이런 대의를 앞세울 줄을 안다면 비록 조각배 속에서라도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는 미상불 준비되었다고 볼 것이다. 밥이 없으면 죽고 군사가 없으면 망하지마는, 성인도 오히려 죽고 망한 뒤에라도 신의를 지키고자 하였는데, 하물며 당시에 있어 문 승상은 밖에서 군사를 맡아 보고 등광천(鄧光薦 송(宋)의 명신, 자는 중보(中甫))은 안에서 군량을 감독(董督)하고 있는 그때 이니만큼 배 가운데 든 천하라도 오히려 법도만은 먼저 회복해야 할 참된 이치가 있지 않겠는가.

보국사(報國寺)

보국사는 선무문(宣武門) 밖으로부터 북으로 1리쯤 가서 있다. 매월 3일과 5일을 장날로 정했는데 국내의 백화가 몰려든다. 불전은 세 채가 있고, 행랑채가 빙 둘러 있으나 사는 중들은 얼마 아니 되었다. 모두가 수도와 외읍으로부터 몰려든 행상들로서 아주 장터나 다름없이 참선하는 절간 속이 버젓한 도회처럼 되었다. 첫째 전각의 편액에도 ‘일진부도(一塵不到)’라 썼고, 셋째 전각 위에는 비로각(毘盧閣)이 있는데, 그 중간은 한 길이 되어 점포들이 쪽 늘어섰고 거마들이 잡다하게 모여드니, 비단 장날만이 그런 것이 아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다.

“《사기(史記)》에 소진(蘇秦 전국 시대의 변사(辯士))이 제왕(齊王)을 보고 말하기를, ‘임치(臨淄 제(齊)의 수도)의 거리는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치고, 사람들은 어깨를 마주 비비며 땀을 뿌리면 비가 되고, 옷자락을 잇대면 휘장이 된답니다.’라고

하였기에, 나는 너무 과장한 말이라고 하였더니 이제 아홉 채 성문을 구경하니 과연 그렇구려. 또 보국사와 융복사(隆福寺) 같은 것들이 모두 아홉 거리(街)나 다름 없음을 본 연후에야 더욱이 옛 사람들의 말이 그리 허튼소리나 과장이 아님을 알게 되었구려. 열국(列國) 시대로 말하면 언제나 난리판이었지마는 도성들의 부유하고 변화함이 그 같았거늘, 하물며 승평한 날 천자가 기거하는 수도일까보냐.” 비로각에 올라가 보니, 전각은 서른 다섯 칸이요, 복판에는 문창성군(文昌星君)⁵을 안치하고 좌우로는 불상과 신장들을 늘어놓았다. 북쪽 바람벽으로부터 층층다리를 밟고 꼭대기로 오르니, 윗층은 캄캄하기가 칠야와 같아서 층층대를 겨우 더듬어 가면서야 찾을 수 있었다. 일곱 길이나 올라가니 층층대는 끊어지면서 환하게 밝아졌다. 윗층은 열다섯 칸인데 큰 금부처가 열한 좌나 있었다. 난간을 한 바퀴 돌아보니 황성의 아홉 성문 안팎이 손금 보듯 자세히 보였다. 콩알만 한 사람과 한 치에 지나지 않는 말이 티끌 뭉치 속에서 꾸물거렸다. 천녕사(天寧寺)의 영탑(影)은 구름 속에 높이 머리를 박았고, 태액지(太液池)는 맑게 툭 터졌는데, 구슬처럼 깨끗한 섬 가운데에 솟은 흰 탑은 수정을 깎아 세운 듯이 스스로 얼굴을 나타내었다. 이 절은 명의 성화(成化) 초년에 황태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창건하였는데, 한림 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 유정지(劉定之) 명(明)의 문학가. 자는 주정(主定))가 지은 비문을 왕용(汪容 미상)이 썼다.

천녕사(天寧寺)

보국사로부터 천녕사로 왔다. 이 절은 위(魏) 때의 이름은 광림사(光林寺)요, 수(隋) 때에는 홍업사(弘業寺)였고, 당(唐)의 개원(開元) 연간에는 천왕사(天王寺)로 현판을 고쳤다. 금(金)의 대정(大定) 21년에 만안선림(萬安禪林)이 되었다가 명의 선덕(宣德) 연간에 고쳐서 천녕사라 하였고, 정통(正統) 연간에는 또 수리하여 만수계단(萬壽戒壇)이라고 불렀다. 한길 가에 닿아서 축대 2층을 쌓아 높이는 댕길

5 문창성군(文昌星君) : 문창부(文昌府)를 맡았다는 귀신 이름. 곧 문창제군(文昌帝君).

이나 뒹직하다. 축대 위에 집채들은 빙 둘러 잇달아서 거의 몇 리나 되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불전이 다섯 채나 있었다. 옛 이야기에,

“수 문제(隋文帝 양견(楊堅)) 인수(仁壽) 2년(602년) 정월에, 황제가 아라한(阿羅漢)을 만나 사리(舍利) 한 주머니를 받아 이를 곧 칠보함(七寶函)에 넣어 기(岐 섬 서성에 있는 고을 이름)·옹(雍 섬서·감숙 지방) 등 서른 고을에다가 각각 탑 한 자리씩을 세우고 이를 간직하도록 하였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 천녕사 탑도 그 중의 하나이며 탑의 높이는 스물일곱 길 다섯 자 다섯 치라 한다. 탑은 13층으로 팔모가 났는데, 네 둘레로 방울을 단 것이 만 개는 되어 방울 울리는 소리가 끊어질 때가 없었다. 탑 꼭대기에 구리쇠 바퀴는 바람에 갈리어 번쩍번쩍 사람의 옷자락에까지도 비치어서 희라푸르라하였다. 옛 말에

는,
“탑 그림자가 거꾸로 대사전(大士殿)에 들고, 해가 정오에 이르러 전문을 닫으면 햇빛이 문 틈으로 새어들어 탑의 그림자가 온통으로 돌 위에 비친다.”

고 하였다. 내가 이제 오자 마침 구름이 끼어서 그 그림자는 구경하지 못했으나, 다만 대사상(大士像 불보살(佛菩薩)의 상) 뒤에 걸어 놓은 《화엄경(華嚴經)》 장가(障子)는 기교하기 짝이 없었다. 강희(康熙) 신미년(1691년)에 대흥현(大興縣)에 있던 이지수(李之秀)의 처 유씨(劉氏)가 손으로 베긴 《화엄경》으로 전부 81권에 60만 43자인데, 이것을 구불구불 구부러 접어서 5층 전각을 만들어 복판에는 불상을 두었다. 글자는 가늘기가 개미 대가리만큼씩한데, 한 점 한 획을 다 조심스럽게 굿고 빼친 글씨체가 한 군데도 허술한 곳이 없었다. 전각과 지붕과 문창들도 한 칙수도 어긋남이 없고, 불상의 눈매는 마치 산 사람 같고 옷자락의 구김살도 자연스러웠다. 어허, 한 여인의 마음과 손 재간도 이같이 신기롭거든, 하물며 온 절간의 이룩함이란 천하의 못 힘을 모아 놓았음이라. 절 가운데 있는 보물과 기완들은 틈이 없어 다 구경하지 못하였다.

백운관(白雲觀)

백운관(白雲觀)의 둘레는 놀랍고 화려한 품이 천녕사에 못지 않았다. 도사 백여 명이 살고 있는데, 패루(牌樓)의 바깥 현판에는 ‘동천가경(洞天佳境)’이라 썼고, 안쪽 현판에는 ‘경림낭원(瑤林蘭苑)’이라 썼다. 홍예다리 셋을 건너 옥황전(玉皇殿)에 들어가니, 옥황은 황제의 복색을 갖추었다. 전각을 둘러 삼십삼천(三十三天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의 제군(帝君)은 홀(忽)을 잡고, 면류관 술을 드리운 것이 옥황이나 다름없으며 천봉신장(天蓬神將)은 머리가 셋이요, 팔이 여섯으로 각기 병장기를 지니고 있었다. 앞 전각에는 남극노인성군(南極老人星君)⁶이 흰 사슴을 탄 채로 안치되었고, 왼편으로 한 전각에는 두모(斗母 선녀(仙女)의 하나)를 안치하였고, 오른편 전각에는 구장춘(丘長春)⁷을 안치하였으니, 이는 원 세조(元世祖)의 국사(國師)이다. 옥황전의 현판에 ‘자하진기(紫霞真氣)’라 붙어 있고, 두모전(斗母殿) 현판에 ‘대지보광(大智寶光)’이라 붙였으니 모두 강희 황제의 어필이다. 도사들이 거처하는 행랑채는 모두 천여 칸으로 어디든지 밝고 깨끗하고 조용하여 티끌 한 점도 움직이지 않았다. 쌓아 둔 서적들은 모두 비단 두루마리 책에 옥으로 축을 만들어 집 안에 가득 찼고, 기이하고 오래 묵은 그릇들과 병풍이며 글씨나 그림들은 세상에서 드문 보물들이었다.

법장사(法藏寺)

천단(天壇) 북녘 담장을 따라 동으로 몇 리 가면 법장사(法藏寺)가 있다. 이 절은 금(金)의 대정(大定) 연간에 창건되었는데, 옛 이름으로는 미타사(彌陀寺)이다. 명(明)의 경태(景泰) 2년(1451년)에 중수하고는 지금 이름으로 고쳤다. 제도는 천녕사와 비슷하고, 탑은 7층에 높이가 여남은 길이나 되었다. 가운데는 텅 비어 나선

6 남극노인성군(南極老人星君) : 인간의 수고(壽考)를 맡은 남극 노인성.

7 구장춘(丘長春) : 원의 도사 구처기(丘處機)의 도호(道號).

형으로 층층대를 놓았는데, 한밤중같이 캄캄하므로 손으로 더듬어 발을 떼어 놓는데, 마치 귀신 동굴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벌써 한 층을 올라오고 보니, 여덟 개 창문이 활짝 터져 눈과 정신이 시원해졌다. 7층까지 차례로 올라가는데, 한 번씩 꿈을 꾸었다 깨는 듯했다. 층대마다 팔 면이요, 한 면마다 창문이 났고, 창마다 부처가 있어 무려 십여덟 개나 된다. 부처 앞에는 모두 등간 한 개씩을 놓아 두어 더러는 말하기를,

“정월 대보름날 밤엔 탑을 둘러싸고 불을 켜고는 번갈아 풍악을 잡히면 소리가 마치 하늘 위에서 나는 것만 같다.”

고 한다. 그 제일층에는 우리나라 김공(金公) 창업(昌業)의 제명이 있고, 그 밑에는 또 내 친구 홍군(洪君) 대용(大容)의 제명이 있는데, 먹빛이 금방 쓴 것 같았다. 서글프게 거닐다 보니, 마음을 털어놓고 마주 이야기라도 할 것만 같았다. 난간을 의지하여 사방을 바라다보니 황성 지도의 전폭이 역력히 눈 안에 들어왔다. 안력이 벌써 다하고 보니 심신이 흔들리고 머리칼이 오슬오슬하여 오래 머물 수가 없었다. 둘째 전각에는 빗돌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급사중(給事中) 오헌(吳獻)의 글에 홍려 시승(鴻臚寺丞) 고대(高岱)의 글씨였고, 또 하나는 국자궐주(國子祭酒) 호형(胡滢)의 글에 태자빈객(太子賓客) 회음(淮陰) 김렴(金濂)의 글씨요, 좌도어사(左都御史) 고소(姑蘇) 진감(陳鑑)의 전자(篆字)이다.

태양궁(太陽宮)

법장사를 나와 서로 몇백 보를 가면 태양궁(太陽宮)이 있다. 참배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마가 뻑뻑이 모여든다. 안팎의 여러 전각과 좌우 행랑채는 남녘 기도군이 하루에도 천만으로 헤아릴 만하였다. 층계 어간에는 촛불통이 봉우리처럼 모였고, 향불에서 떨어진 재가 눈같이 날렸다. 앞에 전각 바로 복판에는 자미성군(紫微星君 자미성의 신(神))이요, 동쪽에는 태양성군(太陽星君 태양신)이요, 서쪽은 태음성군(太陰星君 월신(月神))이요, 뒷 전각에는 구천성군성모(九天星君聖母 구천신

(九天神))요, 왼편의 한 쪽 전각은 관제(關帝 관우(關羽))요, 오른편 전각은 석가(釋迦)를 모셨다. 술이야 밥이야 꽃과자 등숙을 팔고, 새들을 놀린다, 땅재주를 한다, 요술을 보인다, 야단법석을 하여 절 집 안은 큰 도회지가 되었다.

안국사(安國寺)

승문문 밖 서남쪽에 금어지(金魚池)가 있는데, 또 하나의 이름은 어조지(魚藻池)이다. 못을 작은 웅덩이로 구획하여 복숭아와 버들을 많이 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오색 금붕어를 키워서 파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다. 금빛 붕어가 제일 많으므로 금어지라 부른다. 해마다 단옷날이면 도성 사람들이 한목 나와 말을 달리면 못둑과 또 웅덩이의 일대는 정자와 장원들이 많은 중에서도 안국사(安國寺)가 가장 장하고 화려하다. 절문 좌우에는 종각(鍾閣)과 고루(鼓樓)가 있고, 큰 전각 셋이 있으며 그 앞의 동리 낭각은 몇백 칸인데, 어디나 불상을 모셨고 금벽 단청이 현란하여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다. 전각 뒤에는 또 큰 다락 세 채가 있어서 금빛 난간에 수놓은 들창은 구름 속에 나풀거렸다. 중 두 명이 마주 지키고 있을 뿐 참배하는 자가 드문 것은 괴이한 일이다.

약왕묘(藥王廟)

천단 북녘에 약왕묘(藥王廟)가 있으니, 무청후(武淸侯)이성명(李誠銘)이 창건하였다. 전각 속에는 태호복희씨(太昊伏羲氏 중국 신화(神話) 중의 인물. 3황(皇) 중의 하나)를 모셨고, 왼편은 신농씨(神農氏 3황 중의 하나)요, 오른편은 현원씨(軒轅氏 3황 중의 하나)였으며, 역대의 이름난 의원들을 배향했으니, 손진인(孫真人 당(唐)의 손사막(孫思邈)) · 기백(岐伯 황제(黃帝) 때의 명의(名醫)) · 편작(扁鵲 정(鄭)의 명의(名醫)) · 갈홍(葛洪 진(晉)의 도사. 자는 치천(稚川)) · 화타(華陀 후한(後漢)의

명의(名醫) · 왕숙화(王叔和 진(晉)의 명의) · 위진인(韋真人 미상) · 태창령(太倉令 미상) · 장중경(張仲景)⁸ · 황보사안(皇甫士安)⁹ 등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었다. 대체로 문묘(文廟) 종향(從享)의 제도를 본뜬 것이다. 매월 초하루 보름에 남녀가 구름처럼 모여들어 질병 기도를 하는데, 촛불뚝이며 향불 태운 재가 눈처럼 쌓였었다. 방금도 한 여인이 화려하게 단장하고 머리를 조아리는데, 분 땀이 자리를 적시었다. 전각의 장려한 품은 태양궁과 거의 비슷하였다.

천경사(天慶寺)

약왕묘와 담장 한 겹을 사이에 두고 천경사(天慶寺)가 있다. 큰 전각 넷이 있는데, 첫째가 사왕(四王)이요, 둘째가 원통(圓通)이요, 셋째가 대연수(大延壽)요, 넷째가 공상(空相)이다. 공상전 복판에는 한 치 남짓 되는 금부처 몇천만 개를 주렁주렁 쌓아서 큰 부처를 만들었으니, 눈매는 산 사람 같고 이마 주름살이나 옷 주름은 모두 꼬마 부처들을 가로 모로 세우고 높히어 마치 그림붓으로 모방해 그린 듯이 만 들었다. 이 같은 정성과 기술이라면 건축을 이룩함에 있어서나 단청의 화려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가. 이처럼 큰 절간에 단지 한 명의 늙은 중이 두 세 명의 젊은 중을 데리고 있을 따름이요, 행랑채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공장자들이 살면서 물건을 만드느라 법석이다. 서화의 긴 축들과 표구 장황들을 모두 이곳에서 하고 있었다. 동북쪽 모퉁이의 높은 다락 속에는 13층 금탑을 세웠는데, 조각과 그림이 훌륭하기가 귀신의 솜씨로 된 것만 같았다. 이 절은 명(明)의 천순(天順) 3년 기묘(1459년)에 세웠다.

8 장중경(張仲景) : 후한(後漢)의 명의 장기(張機). 중경은 자.

9 황보사안(皇甫士安) : 송(宋)의 명의 황보탄(皇甫坦). 사안은 자인 듯하다.

두로궁(斗姥宮)

천단의 서쪽에 두로궁(斗姥宮)이 있다. 대문 앞의 정면 거리에는 패루(牌樓)가 셋이 있어 남쪽 패루 바깥 현판에는 여천동수(與天同壽)라 썼고 안쪽 현판에는 만수무강(萬壽無疆)이라 썼으며, 동쪽 패루 바깥 현판은 봉래심처(蓬萊深處)라 썼고, 안쪽 현판은 동화주주(東華注籌)라 썼으며, 서쪽 패루 안쪽 현판은 천축연상(天竺延祥)이라 썼고, 바깥 현판은 잊어버렸다. 세 개의 패루가 술발처럼 서서 금벽 단청빛이 현란하여 눈을 바로 뜨고 볼 수 없었다. 첫째 전각 현판은 북극전(北極殿)이라 하여 북두성군(北斗星君 북두성의 신(神))을 안치하고, 둘째 전각부터 다섯째 전각까지는 모두 쇠를 채워 구경을 시키지 않았다. 대체로 건축의 훌륭한 품이랄든가 그림의 기교는 보통 슬기와 역량으로서 미칠 바가 못 되었다. 좌우 행랑채의 바람벽 위에 그린 그림들은 모두 처음 보는 것들이나, 갈 길이 바빠서 상세히 보지를 못했다. 또한 전각에 이르러 들창 틈 사이로 멀리 들여다보니, 보물과 골동인지는 모르겠으나 푸른 빛이 귀신 불처럼 반짝반짝 하고, 포개어 있는 풀이 부처의 배처럼 웅기종기하여 짐짓 알고자 해도 알 길이 없고, 마치 꿈에 부적 읽는 것만 같았다. 또 한 방에 이르니 옛 서화를 많이 두었는데, 미불(米芾 송나라의 서예가(書藝家), 자는 원장(元章))의 천마부(天馬賦)와 산정목매도(山精木魅圖)가 있었으나 다만 그 제목만을 보고 떠났다. 강희 때에 태감(太監) 고시행(顧時行)이 태황 태후(太皇太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제 사재를 시사하여 빚들을 세웠으니, 글은 한림 시독학사(翰林侍讀學士) 고사기(高士奇 청나라의 문학가, 자는 담인(澹人))가 지은 것으로 강희 을해년(1695년)에 세웠다.

용복사(隆福寺)

용복사(隆福寺)의 장날은 매월 사흘과 하루이다. 의주(義州) 상인 경찬(鏡贊)과 동행하였다. 이날이 바로 장날이라 거마들이 더욱 복잡하여 절간 지척에서 그와 서로 잃어버리고는 할 수 없이 혼자서 다니면서 구경을 하였다. 비석에 기록하기를, “경태(景泰) 3년(1452년) 6월 공부 시랑(工部侍郎) 조영(趙榮)이 역군 1만 명을 동독하여 5년(1454년) 4월에 준공하였는데, 황제는 날을 골라서 거동할 제 태학생(太學生) 양호(楊浩)와 의제낭중(儀制郎中) 장륜(章綸)이 함께 소장을 올려 간하매 그날로 거동을 파하였다.”

한다. 절 안에는 공경과 사대부들의 수레와 말이 연이어 이르러 손수 물건을 골라 잡아 사곤 한다. 온갖 물건이 뜰에 가득 차고, 주옥과 보물들이 이리저리 발길에 채다시피 구르고 있어 걷는 사람의 발길을 조심스럽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송구스럽게 하였으며, 사람의 눈을 어리둥절하게 하였다. 섬돌 층대며 옥돌 난간에 걸 어 둔 것은 모두 용봉 무늬를 놓은 담요와 모직들이며 담장을 둘러 싸다시피 한 것은 모두가 법서(法書)와 명화(名畵)들이다. 이따금 장막을 친 채 징과 북을 치는 곳은 재주를 부리고, 요술을 부려서 돈벌이를 하는 곳이다. 지난해 이무관(李懋官 이덕무(李德懋)의 자)이 이 절을 유람할 때는 마침 장날로서 내각 학사(內閣學士) 승귀(崇貴)를 만났는데, 그 역시 손수 여우 털 갖옷 한 벌을 골라서 깃을 헤쳐 본다. 입으로 털을 불어 본다. 몸에 대고 짧고 긴 것을 재어 본다. 손수 돈을 꼬집어내어 사는 것을 보고 깜빡 놀랐단 말을 들었다. 승귀란 자는 만주인으로 지난해에 직명을 받들어 우리나라에 왔던 자이다. 그의 벼슬은 예부 시랑(禮部侍郎)이요, 몽고 부도통(蒙古副都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난한 선비들로서 비록 부리는 하인 한 명 없는 집안일지라도 아직 자기 발로 장터에 나가 막 굴러먹는 장사치들을 상대로 물건 값을 흥정하는 것은 좀스럽고 더러운 일로 치는 터이니, 이런 광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돌아다니면서 본 흥정꾼들은 모두 오중(吳中 강소성 지방)의 명사들이요, 특별히 거간꾼들 따위 외에 유람차 온 자는 대체로 한림서길사(翰林庶吉士) 같은 사람들이 많으

니, 그들은 친구를 찾아 고향 소식을 묻기도 하고, 겸하여 그릇 등속과 의복을 사기도 한다. 그들이 찾는 물건들이란 대개 골동 그릇이며 새로 발간된 서적이며 법서·명화·관복·염주·향량·안경 등으로서 남을 함부로 대신 시켜 군색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 차라리 자기 손으로 유쾌하게 골라놓은 것만 못한 까닭인 것이다. 자신들이 멋대로 물건을 선택하면서 오가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들의 소박하고 솔직한 곳을 볼 수 있는 바 이래서 중국 사람은 저마다 물건을 감상할 줄 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조사(夕照寺)

석조사(夕照寺)로 유세기(俞世琦)를 찾았다. 절은 그리 크지는 못하나 정쇄하고도 그윽하여 이야말로 티끌 한 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곳 선림 중에서 이처럼 맑은 곳은 처음 보았다. 중은 한 명도 없고 거처하는 사람들은 모두 복건(福建)이나 절강(浙江)에서 온 낙제한 수재로서 고향으로 돌아갈 노자가 없어, 이곳에 많이들 묵고 있으면서 서로 글을 지어 발간하여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당시 그들은 모두 서른한 사람으로서 남의 글 품팔이를 하려고 아침에 나가고 아직 돌아오지 않아 한 사람도 집에 없으니 절 안은 고요하였다. 거처하는 방들은 다들 정결하고 자리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 사람으로 하여금 감회에 잠겨 거닐면서 발길을 못 돌리게 하였다. <석진일기(析津日記)>에는 이르기를,

“연경 팔경(八景) 중에 금대석조(金臺夕照)가 있으니, 이 절 이름도 여기에서 나왔다.”

고 하였다. 유군(俞君)은 원래 복건 사람인데, 섬서성 병비도(陝西省兵備道) 진정학(陳庭學)의 자형(姊兄)이 되었다가 금년 2월에 상처를 하고, 아들도 없이 네 살 난 첫째 딸을 그의 처가에 두고 자기는 홀로 심부름 하는 어린애 하나를 데리고 이 절에 붙어 있었다.

관제묘(關帝廟)

관제묘(關帝廟)는 천하에 어디든지 비록 궁춘 벽지라도 사람 몇 호만 사는 데는 반드시 사치한 묘우를 떠받들어 지어 놓고, 제사에 정성이 대단하여 소 먹이는 아이와 겹두리 먹이는 지어미(鑑婦)들까지 뒤떨어지기가 두려워 달려든다. 책문(柵門)에 들어온 뒤 황성까지 2천여 리 사이에 새로 지은 것이나 묵은 것이나 혹은 크고 작은 수많은 관제묘가 서로 마주 바라다보고 있다. 그 중에도 요양(遼陽)과 중후소(中後所)에 있는 것이 가장 영험이 있다 하고, 북경에 있는 백마관제묘(白馬關帝廟)라 하여 사전(祀典)에 실렸으니, 곧 정양문 오른쪽에 있는 관제묘가 이것이라 한다. 매년 5월 13일이면 제사를 올리는데, 10일 앞서 태상시(太常寺)가 본시(本寺)의 당상관(堂上官)을 보내어 예식을 집행한다. 이날은 특히 민간의 참배가 더욱 극성스럽다. 대체로 나라에 큰 재앙이 있으면 제사를 모셔서 고해 바친다. 명(明)의 만력(萬曆) 시대는 특히 삼계복마대제신위원천존(三界伏魔大帝神威鎮遠天尊)으로 봉했으니, 이 지시는 궁중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남관왕묘(南關王廟) 바람벽 위에 걸린 그림도 대체로 이곳의 것을 모방한 그림이다. 초광(焦竑) 명(明) 학자. 자는 약후(弱侯)이 묘비문을 짓고 동기창(董其昌) 명(明)의 서예가. 자는 원재(元宰)이 글씨를 썼는데, 세상에서는 이를 이절(二絕)이라 한다.

명인사(明因寺)

명인사에는 위촉(僞蜀) 왕건(王建)이 세운 전촉(前蜀) · 왕연(王衍 전촉의 후주(後主). 자는 화원(花源)의 때에 관휴(貫休 전촉의 저명한 중)가 그린 열여섯의 나한상(羅漢像)이 세상에서 기기괴괴한 그림으로 전하는 것과 다르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한 번 보려고 생각했다. 좌중에는 초 한림(初翰林) 팽령(彭齡)도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드디어 날짜를 약속하여 함께 수레를 몰아 절에 닿았다. 절은 정양문 밖 3리 되는 강의 동편 언덕에 있는데, 그리 크거나 화려하지는 않았고,

다만 해소병 들린 중 한 명이 있었는데, 위인이 더럽게 무뚝뚝하여 군이 이 그림이 없다고 기뻐하면서 절 구경도 못하도록 했다. 초 태사(初太史)는 중을 향하여 재삼 간청하였으나 중은 완고하게도 점점 더 뻗뻗하여 머리를 숙이고 대답도 하지 않더니 조금 있다가는 고함을 치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해 왔다. 초 태사는 얼굴을 붉히고 물러 나와 심히 흥취를 깨뜨렸다. 나를 이끌고 함께 돌아 오는 길에 호국사(護國寺)를 거쳐 왔다.

대룡선호국사(大隆善護國寺)

호국사(護國寺)는 도성 사람들이 불러서 천불사(千佛寺)라고 하니, 부처 천 개가 있기 때문이요, 또 숭국사(崇國寺)라고도 한다. 크고 작은 불전이 열한 군데나 있어 크기는 굉장하나 역시 많이 헐렸다. 명(明)의 정덕(正德) 연간에 황제의 명령으로 서번(西番) 법왕(法王) 영점반단(領占班丹)과 저초장복(著肖藏卜) 등이 거주하였다. 소위 반단이니 장복이니 하는 것은 지금 열하에 있는 반선(班禪)인 것 같다. 절의 창건은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원(元)의 승상(丞相) 탈탈(脫脫)의 소상이 있는데, 머리에는 두건을 쓰고 붉은 옷에 수염이 길고 눈썹도 빼어나 기품이 깨끗해 보이고, 의관은 모두 중국 제도와 비슷하다. 원의 재상도 왜 머리를 깎지 않았는지 좀 이상해 보였다. 곁에서 봉관(鳳冠)을 쓰고 붉은 치마를 입고 있는 노파가 곧 탈탈의 처다. 또 요광효(姚廣孝)¹⁰의 화상이 있는데, 얼굴이 맑고 점잖게 생겼으며 중 머리 바람으로 가부좌를 하고 앉았는데, 세상의 온갖 티끌과 인연을 끊은 것 같이 보여 서호(西湖)에서 영덩이를 치면서 혼자 시를 읊던 때와는 판판이다. 옛날 사마천(司馬遷 전한(前漢) 때의 문학자. 자는 자장(子長))은 장자방(張子房 장량(張良). 자방은 자)의 얼굴이 여인과 같다고 했는데, 내가 이 그림을 보지 못했을 때는 필시 하늘을 찌를 만한 살기(殺氣)를 띠고 있으려니 생각했던 것이 지금 와 보니 그렇지 않았다.

10 요광효(姚廣孝) : 명의 중이고 도사이며 또 문학자. 승명(僧名)은 도연(道衍)이요, 자는 사도(斯道).

화신묘(火神廟)

화덕진군묘(火德眞君廟)는 북안문(北安門)일중방(日中坊)에 있다. 원의 지정(至正) 연간에 지었고, 명의 만력 때에 고쳐 증축하였으며, 천계(天啓) 원년(1621년)에 명령을 내려 매년 6월 22일에는 태상(太常)의 관원으로 하여금 화덕신(火德神)을 제사하게 되었다. 앞에 전각은 융은(隆恩)이요, 뒤의 전각들은 만세(萬歲)·경령(景靈)·보성(輔聖)·필령(弼靈)·소령(昭寧)이라 하여 모두 여섯 개의 전각이 있어 푸른 유리 기와를 이었으며, 섬돌 층층대도 죄다 초록빛 유리 벽돌을 깔았다. 그 뒤에는 수정이 호수를 굽어보고 있는데, 금벽 단청이 비단 물결의 무늬 위에 비치어 번쩍였다. 장하고 화려하기는 약왕묘와 상당하지마는 경치는 그 보다 나은 것만 같다. 빗돌 한 개는 주지번(朱之蕃)¹¹의 글이요, 또 한 개는 옹정춘(翁正春 명(明)의 고관(高官), 자는 조진(兆震))의 글이다.

북약왕묘(北藥王廟)

북약왕묘는 전각이나 모셔둔 위패 같은 것이 남묘와 꼭 같고, 동쪽은 해자(海子)를 굽어 보아 물가에 수없는 버들은 그늘이 짙은데, 물가에 노니는 손들은 언제나 가득했다. 천계 연간에 위충현(魏忠賢 명(明)의 간신(奸臣))이 세운 것이라 한다.

송복사(崇福寺)

송복사는 본시 민충사(憫忠寺)이다. 당 태종(唐太宗)이 친히 요동을 정벌하고 돌아와 전쟁에 죽은 장사들을 불쌍히 여겨 이 절을 짓고 명복을 빌었다. 두 개의 탑이 마주 보고 있는데, 더러는,

11 주지번(朱之蕃) : 명의 문학가이며 서예가. 자는 원개(元介) 또는 원승(元升).

안녹산(安祿山 당 현종(唐玄宗)의 반신(叛臣))이 세운 것이다.“

라 하였고, 혹은

“사사명(史思明 당 현종(唐玄宗)의 반신(叛臣))이 지은 것이다.”

라고도 한다. 높이는 각기 열 길씩이나 된다. 이렇게 두 역적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오히려 천년 고적이라 하여 그대로 남겨 두었다. 《송사(宋史)》에는,

“사첩산(謝疊山)¹²이 원(元)의 지원(至元) 26년(1289년) 4월에 연경에 이르러 사 태후(謝太后)¹³의 빈소(殯所)와 영국공(瀛國公 미상)이 있는 곳을 찾아 절을 하면서 통곡하며, 원의 사람들이 그를 민충사에 보내어 두었더니 벽 사이에 서 있는 조아비(曹娥碑)¹⁴를 보고 울면서, ‘한 여인으로도 오히려 이렇게늘……’ 하고는 이어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라고 하였다. 또 장불궁(張不肯 미상)이 사사명을 위하여 당 숙종(唐肅宗 이형(李亨))을 찬송한 비문으로서 소영지(蕭靈芝 미상)가 쓴 것을 찾았으나,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나 이는 의당 주이준(朱彝尊 청(淸)의 학자. 자는 석창(錫鬯))의 변증으로 옳음을 삼아야 할 것이다. 《고려사(高麗史 정인지(鄭麟趾) 등의 저)》에는,

“충선왕(忠宣王)이 연경에 이르니 황제가 머리털을 깎아서 석불사(石佛寺)에 두었다.”

라고 하였는데, 혹은 이 절이라 하지마는 상세히 알 수는 없다.

진각사(眞覺寺)

진각사는 속명으로 오탑사(五塔寺)요, 또는 정각사(正覺寺)이다. 탑 높이는 열 길이나 되는데, 금강보좌(金剛寶座)라고 부른다. 그 안으로 들어가 캄캄한 속에 나선

12 사첩산(謝疊山) : 송의 충신 사방득(謝枋得). 첩산은 호요, 자는 군직(君直).

13 사 태후(謝太后) : 송 이종(宋理宗)의 황후로서 원에 붙들려서 피해를 입었다.

14 조아비(曹娥碑) : 후한(後漢) 때 채옹(蔡翁)이 효녀 조아를 위하여 지은 비문.

형 다리를 따라 꼭대기까지 올라 가니, 위에는 평평한 대가 되고 그 위에 또 다섯 모가 난 작은 탑을 두었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명의 현종 황제(憲宗皇帝 주견심(朱見深))가 살아 있을 때에 의관을 보관해 두었던 곳이다.”

라고 한다. 이 절은 더러는,

“몽고인이 지은 것이다.”

라 하고, 혹은,

“명의 성조 황제(成祖皇帝 주채(朱棣)) 때에 서번(西番)의 판적달(板的達)이 금부 처 다섯을 바쳤으므로 이 절을 세워서 그를 맡겼다.”

라고 한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처음으로 금지봉 속에 들어 있는 서번 중들을 보고 마음 속으로 크게 놀라지마는 중국은 역대로 반드시 이같이 떠받들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천자가 소일 삼아 쉬는 곳이며 아울러 명복을 비는 곳이라 인정하므로 이곳은 비록 궁극으로 사치롭게 꾸몄더라도 여러 신하들은 감히 지적을 못하고 다만 서로 용서하였던 것이다.

이마두총(利瑪竇塚)

부성문(阜成門)을 나와서 몇 리를 가니 길 왼편으로는 돌기둥 4·50개를 쭉 늘어 세우고, 위에는 포도 시렁을 만들어 포도가 한창 익었었다. 돌로 만든 패루(牌樓) 세 칸이 있고, 좌우에는 돌로 깎은 사자(獅子)가 마주 쭈그리고 앉았다. 그 안에는 높은 전각이 있는데 수직군에게 물어서 비로소 이마두(利瑪竇)¹⁵의 무덤인 줄을 알았다. 모든 서양(西洋) 선교사(宣教師)들의 무덤으로서 동서 양쪽에 계장(繼葬)한 것이 모두 70여 분이나 되었다. 무덤 둘레는 네모로 담장을 쌓아 바둑판처럼 되었는데, 거의 3리나 되니, 그 안은 모두 서양 선교사들의 무덤이었다. 명(明)의 만력 경술년(1610년)에 황제는 이마두의 장지를 하사하였는데, 무덤의 높이는 두어 길

15 이마두(利瑪竇) : 이태리에서 중국으로 들어왔던 저명한 선교사. 자는 서태(西泰).

이나 되고 벽들로 쌓았다. 무덤 끝은 시루같이 생겼는데 기왓장이 사방으로 처마 끝까지 멀리 나왔다. 바라보면 마치 다 피지 못한 커다란 버섯처럼 생겼다. 무덤 뒤에는 벽들로 높다랗게 쌓은 육묘 난 집이 섰는데, 마치 철종 같아 보였다. 삼면으로는 홍예문을 내었고, 속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다. 빗돌을 세워 글을 새기기를 야소회사이공지묘(耶蘇會士利公之墓)라 하였고, 왼편 옆에는 잔 글씨로,

“이 선생(利先生)의 휘(諱)는 마두다. 서태(西泰) 대서양(大西洋) 이탈리아국(意大利亞國)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참다운 수양을 하였다. 명의 만력 신사년(1581년)에 배를 타고 중화(中華)에 들어와 교를 널리 펴고 만력 경자년(1600년)에 북경에 와서 만력 경술년(1610)에 죽으니 세상을 누린 지가 쉰다섯 해에 교회에 있는 지는 마흔 두 해이다.”

라고 하였고, 오른쪽에는 또 서양 글자로 새겼다. 빗돌 좌우에는 아름답게 조각한 돌기둥을 세우고, 양각(陽刻)으로 구름과 용의 무늬를 새겼다. 빗돌 앞에는 또 벽돌 집이 있는데, 지붕은 평평하여 돈대와 같았다. 구름과 용의 무늬를 새긴 돌기둥을 쪽 늘여 세워 석물로 삼았다. 제사 받드는 집이 있고, 그 앞에는 또 돌로 만든 패루와 돌 사자가 있으니, 이는 탕약망(湯若望)¹⁶의 기념비(紀念碑)이다.

16 탕약망(湯若望) : 독일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선교사. 자는 도미(道味).

지은이 소개 | 박지원 朴趾源 (1737~1805)

본관 반남(潘南), 호는 연암(燕巖). 한양의 명문가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다방면의 학문을 익혔다. 30세부터 홍대용과 사귀고 서양의 신학문을 접했으며, 젊은 시절에는 정치현실을 혐오해 재야의 선비로서 경륜을 쌓는 데 매진했다. 1780년(정조 4년), 삼종형인 박명원이 청나라에 갈 때 동행했다. 당시에 남긴 기행문 《열하일기(熱河日記)》를 통해 청의 실용적 문물을 소개하고 조선의 전반적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후 박제가 등과 이른바 북학파(北學派)의 영수로서 이용후생(利用厚生)을 강조하는 학풍을 일으켜 후학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기발한 문체를 구사하여 《허생전(許生傳)》 《호질(虎叱)》 《양반전(兩班傳)》 등 빼어난 한문소설을 저술, 지도층의 타락상을 고발하고 보다 진취적인 인간상을 제시했다. 저서에 《연암집(燕巖集)》 《과농소초(課農小抄)》 외 다수가 있다.

옮긴이 소개 | 이가원 李家源 (1917~2000)

한문학자·국문학자. 경북 안동(安東) 출생으로 퇴계 이황의 14대손이다. 호는 연민(淵民). 명륜전문을 마치고 성균관대 국문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암 소설을 주제로 성균관대 국문과 1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연세대 교수로 오랫동안 강단에 섰다. 한국학 분야에 독보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특히 연암 박지원 연구에 천착, 《열하일기》 원본 등 3만 여점의 국학 자료를 단국대에 기증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중국문학사조사》 《연암소설연구》 《한국 한문학사》, 역서로는 《삼국유사 신역》 《금오신화 역주》 《구운몽 역주》 등이 있다.

열하일기2

©사단법인 올재

발행 | 2014년 2월 15일

펴낸이 | 홍정욱

기획·편집 | 이상민 김지훈

표지제호 | 강병인

편집디자인 | 황인정

인쇄·제작 | (주)헤럴드

펴낸곳 | 사단법인 올재

출판등록 | 2011년 11월 4일 제300-2011-188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57-78

전화 | 02-720-8278

팩스 | 02-773-0250

홈페이지 | www.olje.or.kr

ISBN | 978-89-97876-26-6

*표지 제호 저작권은 캘리그래퍼 강병인 님께 있습니다.